

허수집

玄洲集

上

1

조찬한 지음
趙纘韓

허수집

玄洲集

上

1

조찬한 지음
趙纘韓

聖顔色之賜。畜物徒知戀主。猶以寵
廟謨之主和。以致畫工之逞詐。金多少
何心。天咫尺而欺謾。孰不可忍。無面目
自列於三千。有天鑑之孔昭。肆不憚其一
言不如也。夫孰曰像惟肖乎。若果名實之

宜去留之失擇。況今安社之計。必在婦人
平胡之功。不借英雄之手。雖百骸歸于土
域中。知一死賢於生。亦不敢負陛下。當承
辭於犬羊。苟利邦家。尚可行於蠻貊。第惟
諒非馬兔之飾辭。若論妍蚩。當世之無
威武比屋之壯士。不窮。盍孰取捨之兩
一義。當時紫極。猶望袞龍之光。今日



허주집

上

1

조찬한 지음
趙續韓

玄洲集

如薄命之賤質亦許待罪於下陳蛾
 如望顏色之賜畜物徒知戀主猶以寵
 廟謨之主和以致畫工之逞詐金多少
 誠何心天咫尺而欺謾孰不可忍無面目
 目列於三千有天鑑之孔昭肆不憚其一
 言不如也夫孰曰像惟肖乎若果名實之

일러두기

1. 이 책의 번역 대본은 국립중앙도서관장본(도서번호 일산古3648-文72-17)이다.
2. 내용이 간단한 역주는 간주(間註)로, 긴 역주는 각주(脚註)로 처리하였다.
3. 한자는 필요한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하여 넣었으며, 운문(韻文)은 원문을 병기하였다.
4. 맞춤법과 띄어쓰기는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을 따랐다.
5. 이 책에 사용한 부호는 다음과 같다.
 - (): 번역문과 음이 같은 한자를 묶는다.
 - [] : 번역문과 뜻이 같으나 음이 다른 한자를 묶는다.
 - “ ” : 대화 등의 인용문을 묶는다.
 - ‘ ’ : “ ” 안의 재인용 또는 강조 문구를 묶는다.
 - 「 」 : ‘ ’ 안의 재인용을 묶는다.
 - 『 』 : 「 」 안의 재인용을 묶는다.
 - 《 》 : 책명 및 각주의 전거(典據)를 묶는다.
 - 〈 〉 : 책의 편명 및 운문 산문의 제목을 묶는다.
 - : 원문의 결자 빈자리를 비워 둠을 나타낸다.

발간사

(재)한국학호남진흥원은 호남권 한국학 진흥과 민족문화 균형 발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공동 출연한 학술기관입니다. 개원 2년의 성과를 상재합니다.

본원은 그동안 고문서 수집 집성, 근대 문집의 표점 영인, 고문서·일기·선현 문집 국역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상의 과제는 두 범주로 요약됩니다.

하나, 호남한국학 기초자료 발굴
둘, 호남 사상·생활문헌 국역

이상의 연구사업은 서세동점 이후 구학(舊學)·구습(舊習)으로 폄하되었던 전통적 학술사조와 생활세계를 탈근대 차원에서 재구성한다는 목표 아래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지난 위망과 극단의 세월에 덧씌워진 ‘소국 트라우마’ ‘문명콤플렉스’와 같은 문화심리의 질곡을 걷어내고자 합니다. 또한 호혜 공존의 생활지혜 나아가 법고창신(法古創新) 연구혁신(沿舊革新)의 사유 역정이야말로 당당한 새로운 미래 설계의 자양임을 응변하고 싶습니다.

2020년 1월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원장 이 중 범

목차

발간사.....	3
《현주집(玄洲集)》 해제(解題)	17
서序	37

현주집 제1권

오언고시 五言古詩

쉬파리를 미워하다 憎蒼蠅	57
통곡하고 싶구나 欲哭 二首	64
명고 임진 의 고검편에 차운하다 次鳴臯古劍篇韻 任鉞	78
산곡의 <증취암선사> 운을 써서 양자점 경우 에게 주다	80
用山谷贈翠巖禪師韻 贈梁子漸 慶遇	
호남으로 가는 척형 나수재를 이별하며 주다	82
贈別戚兄羅秀才之南中	
수궁행 守宮行	84
긴 빙판 長氷坂	87
동악 이안눌에게 부쳐서 보내다 寄贈東岳李安訥	89
양어사의 초상 楊御史畫像	93
강가 정자에서 배를 드러내고 누워 坦腹江亭	96
고한행 苦寒行	98

두 번째 其二	100
조이숙 희일 에게 주다 贈趙怡叔 希逸	102
대루원에서 선잠이 들어 강동 옛집을 꿈꾸다	104
待漏院假寐 夢江東舊居	
임명고를 애도하며 挽任鳴臯	106
소자실 광진 을 애도하며 挽蘇子實 光震	110
이창기에게 주다 贈李昌期	113
장난삼아윤경열 광계 에게 단선가를 지어주다 戲贈尹景悅團扇歌 光啓	118
차가운 가을 줄이 되기를 원하네 願作冷秋菰	120
딸의 죽음을 슬퍼하다 悼女	122
용암사에 투숙하다 投龍巖	127
구정봉에 투숙하다 投九井峯	131
용암사에서 출발해 도갑사에 투숙하다 自龍巖投道岬	136
굴 안에서 바둑을 두다 橘中對棋	139
형가를 애도하다 哀荊軻	142
집영대 集靈臺	145
맛좋은 술이 궁벽진 골목에 없으랴 美酒無曲巷	147
오희가 五噫歌	149
흙다리 아래에서 신발을 쥘는 그림에 쓰다 題圯下取履圖	150
빠르게 흐르는 여울 急灘	153
광유편 曠遊篇	155
장안사에서 사상 최현 의 시에 차운하다 長安寺 次使相韻 崔暉	160
핑 사냥을 바라보다 觀獵雉	162

현주집 제2권

칠언고시 七言古詩

변산가 邊山歌	167
혼돈가 混沌歌	173

큰 눈 大雪	177
박연가 朴淵歌	191
등협선루가 登挾仙樓歌	196
강태초 항 에게 주다 贈姜太初 沆	200
해남에 가는 김형헌을 보내며 送金亨獻之海南	213
나무 심는 노래 種樹行	217
쥐가 달걀을 훔치다 鼠偷卵	219
송군수 희조 에게 개를 청하며 乞狗于宋君受 熙祚	221
사문도에서 마사군을 그리며 沙門島憶馬使君	225
미인행 美人行	230
영남으로 부임하는 이립 영공에게 주다 贈而立令公赴嶺南	233
이입지 춘원 가 장흥으로 부임하는 것을 보내며 送李立之赴長興 春元	239
은대옥배가 銀臺玉盃歌	244
예천사의 시에 차운하다 次倪天使韻	249
영동으로 가는 학곡 홍서봉 에게 주며 이별하다 贈別鶴谷之嶺東 洪瑞鳳	252
용사 龍梭	257
성주화 醒酒花	260
칼코등이를 바라보며 視刀環	262
양어사 호 화상이 楊御史畫像歌 鎬	265
알성행 謁聖行	269
보리 익는 시절 麥秋	271
산단화가 山丹花歌	274
선비를 사랑하는 벽 愛士癖 課題	277
상여가 그릇을 씻는 그림에 쓰다 題相如滌器圖	280
시가 완성되자 금포를 하사하다 詩成賜錦袍 課題	283
옥석각 과제 玉鴛閣 課題	285
구학정 관등가 龜鶴亭觀燈歌	288
고목나무 등걸의 매화 임 처사에게 주다 古查梅 贈林處士	294
청음 김상헌 숙도 이 나에게 준 죽음 조희일 이숙 의 시에 차운해서 나에게 주었길래, 그 시에 차운해서 이에 청음에게 주다	301

次淸陰 金尙憲叔度 次竹陰 趙希逸怡叔 贈我韻贈我 仍贈淸陰	
소암 무숙 임숙영 의 시에 차운하여 주다 次贈疎菴 任叔英茂叔	305
소암의 조춘행에 차운하다 次疎菴早春行	308
정상인에게 주다 贈淨上人	312
몽선요 夢仙謠	316
초천가 椒泉歌	320
일본에 가는 이상고 경직 를 진송하는 시 送李尙古赴日本詩 景稷	324
이 사과 징에게 그림을 구하는 시 乞畫于李司果詩 澄	328
한양협소행 나수양에게 빨리 써서 주다 漢陽俠少行 走贈羅守讓	334
대동강설마행 평안 방백에게 주다 大同江雪馬行 贈平安方伯	338
다시 소암 시에 차운하다 再次疏庵韻	342
또 소암의 <춘우행>시에 차운하다 又次疏庵春雨行	344
장안사 승담로장가 長安寺 僧曇老丈歌	348

현주집 제3권

오언절구 五言絕句

고목나무 古卉	353
연경으로 가는 친구에게 차운해서 주다 次贈友人赴燕	354
또 又	355
또 又	356
또 又	357
또 又	358
남농팔영 南農八詠	359
등화 燈花	361
연악산에서 여러 공의 분운시에 차운하여 절구시 열 수를 짓다	362
次淵岳諸公分韻詩 作爲十絕 壬戌	
두 번째 其二	363
세 번째 其三	364

네 번째 其四	365
다섯 번째 其五	366
여섯 번째 其六	367
일곱 번째 其七	368
여덟 번째 其八	369
아홉 번째 其九	370
열 번째 其十	371

현주집 제4권

칠언절구 七言絕句

무은암 벽 위의 시에 차운하여 김덕윤에게 주다 霧隱庵次壁上韻贈金德潤	375
백구의 부채에 시를 적어 드리다 題贈伯懼扇	376
보광사의 좋았던 일을 추억하며 반환 어른 홍천경 께 보내다	377
追憶普光勝事 贈寄盤桓丈 洪千璟	
취랑에게 뒤늦게 보내다 追寄翠娘	378
외딴집의 한낮 흥취 幽居午興	379
물이 바위에 미끄러지다 水滑石	380
목장 牧場	381
양릉 兩陵	382
용문산 龍門山	383
대제사 大堤詞	384
가을밤 오자영에게 주다 秋夜 贈吳子英	385
고을 성벽의 새벽 경치 郡城曉景	386
옥봉의 옛 별장 玉峯舊莊	387
백암 십영 白巖十詠	388
석전제에서 음복하는 날 모재의 <권제생소학>시에 차운하여 지어서	392
그대로 향교 유생들에게 보이다	
釋奠飲福日 次慕齋勸諸生小學韻 仍示校儒	

피꼬리 流鶯	393
석천주인의 시에 차운하여 짓다 次石泉主人韻	394
즉사 김 정자에게 주다 卽事 贈金正字	395
이른 봄 早春	396
등화 燈花	397
구학정에서 감회가 있어 龜鶴亭有感 三首	398
장문원 長門怨	400
한식 寒食	401
춘일즉사 春日卽事	402
이자강과 쌍청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與李子剛共酌雙淸堂	403
또 이별하며 주다 又贈別	404
삼월 보름날 밤에 쌍청당에서 달을 완상하다 三月望夜 雙淸堂賞月	405
꽃샘바람 妬花風	406
삼월 이십일 이후 비 내리는 가운데 마침 공사가 없어 쌍청당에서	407
잠들었다가 빗소리로 인해 깨어나다 三月念後 雨中適無公事 就睡雙淸 因雨聲睡起	
채련사 采蓮詞	408
초봄의 피꼬리 新鶯	409
달밤에 서울의 옛 친구를 그리워하며 月夕 有懷洛中故交	410
서쪽 정자에서 취하여 권 처사에게 준다 西亭子 醉贈權處士	411
전가즉사 田家卽事	412
이 내한이 준 시에 차운하다 次李內翰贈韻	413
차운하여 오 종사 숙 에게 부치다 次寄吳從事 翻	414
제민루에서 김장원에게 주다 濟民樓 贈金壯元	415
성산 한 별좌의 시골집 城山韓別坐野莊	416
호서 방백 이입지 춘원 의 시에 차운하다 次湖西方伯李立之韻 春元	417
봉서정 鳳棲亭	418
문경현에서 수재 권상정에게 주다 聞慶縣 贈權秀才尙正	419
이입지를 남겨두고 떠나며 留別李立之	420
백마강 白馬江	421

세포에서 봄에 배를 띄우다 稅浦泛春	422
만성재에 쓰다 題晚省齋	423
전의를 출발하여 정선 군수 정공의 별장으로 향하다가 말 위에서 읊조리다	424
發全義 向鄭旌善野莊 馬上口占	424
관한 흥이 일어 이사양에게 주다 漫興 贈李士仰	425
고향 생각 憶鄉	426
광주 목사 홍낙부 명원 에게 주다 贈光州牧洪樂夫 命元	427
김 첨지의 강가누각에서 밤에 술 마시며 자점 양경우 과 함께 창화하다	429
金僉知江閣夜飲 與子漸唱和 梁慶遇	
완산에 있으면서 장성으로 부치다 在完山寄長城	430
욕천 공관에서 浴川公館	431
정랑 최유장의 은거지에서 쓰다 題崔正郎孺長幽居	432
변 막부에게 주다 贈邊幕府	433
유선사 遊仙詞	434
궁중사시사 宮中四時詞	437
또 又	439
동악에게 주다 贈東岳	441
밤에 비바람이 크게 일기에 서울 집을 추억하다 夜來風雨大作 仍憶京第	443
심씨 집안 모정에 쓰다 題沈家茅亭	444
취해서 송군수에게 주다 醉贈宋君受	445
두 원수가 군대를 이끌고 투항했다는 소식을 길에서 듣고는	446
비분강개하여 읊다	
途聞兩元帥以其軍生降 憤慨而吟	
반환에게 서둘러 써서 주다 走贈盤桓	448
중흥사 성민의 시축에 차운하여 짓다 中興寺 次性敏軸韻	449
민옥의 시축에 차운하여 짓다 次敏玉軸韻	450
만구정 새벽에 읊다 伴鷗亭 曉吟	451
파곳으로 향하던 때 길에서 본 경치를 읊다 向葩串時 途中卽景	452
빗속에 성으로 돌아가다 雨中歸城	454
황령사 黃嶺寺	455

골짜기를 나와 휴가와 이별하고 다음날 아침 말 위에서 우연히 읊다	456
出洞別休兒 翌朝馬上偶吟	
창석의 시냇가 집 蒼石溪堂	457
부옹의 시에 차운하여 주다 次贈浮翁韻	458
철산 鐵山	461
관부를 나서며 出府 乙丑 淮州錄	462
마하현을 내려가며 풍악산의 진면모를 처음으로 바라보다	463
下磨訶峴 始望楓岳眞面	
장암 壯巖	464
장안사 長安寺	465
정양사 正陽寺	466
4월 14일 孟夏小望	467
왕소군 王昭君	468
이 원외 경석 에게 주다 贈李員外 景奭	470
삼귀정 팔영 청음이 시를 굳이 써 달라기에 응하다	472
三龜亭八詠 應清陰苦索	
비오리 花鴨	475
달천 獺川	476
한식 寒食	477
부지암으로 여현 장현광 을 방문하다 不知巖訪旅軒 張顯光	478
장여현의 궁벽한 거처에 쓰다 題張旅軒幽居	479
춘회즉사 春晦卽事 庚午	480
마을 시내 추일즉사 村溪 秋日卽事	481
외로운 기러기 斷鴈	482
이사특에게 주다 贈李士特	483
신부 新婦	484
낙화에 대한 원망 절구 4수 두보의 시체를 본받다 落花怨 四絕 效老杜體	485
누암의 초루에서 주인을 조롱하다 樓巖草樓 嘲主人	486
환란을 겪은 뒤 정자용이 시 써주기를 애써 청하여 억지로 쓰다	487
經患後 被鄭子容苦索 強題	

기와의 준 시에 또 차운하다 又次崎窩贈韻	488
------------------------------	-----

현주집 제5권

오언율시 五言律詩

임척제 광운 에게 주다 贈林戚弟 光胤	491
서울을 떠나며 發京口	492
임자정을 추억하며 주다 追贈林子定	493
천마산으로 향할 때 이희주의 집 앞의 큰 고개를 넘으며	494
向天磨時 越李希珠家前大嶺	
날이 어두워져가자 운거동 입구로 들어가며 읊조리다	495
向暝 入雲居洞口 口占	
달빛을 타고 술 마시기를 꾀하다 乘月謀酌	496
파사성 婆娑城 丙午	497
선조대왕 만사 宣祖大王挽詞	498
두 번째 其二	499
장난삼아 석주에게 주다 戲贈石洲	500
석주에게 주다 贈石洲	501
신여현에 대한 만시 挽愼汝顯	502
백선명 진남 의 아내에 대한 만시 挽白善鳴妻 振南	503
동지사로 가는 이창기를 보내며 送冬至使李昌期	504
당산을 떠나며 發堂山 壬子	505
인촌을 출발하며 發印村	506
광산으로 가는 도중에 光山道中	507
적성에서 뱃놀이 船遊赤城	508
섬호 진여옥 경림 에게 주다 贈剡湖陳汝玉 景琳	509
두 번째 其二	510
섬호가 준 운에 차운하다 次剡湖贈韻	511
두 번째 其二	512

굴옥 윤광계 의 운에 다시 차운하다 再次橘屋韻 尹光啓 513
 민사립의 호정에서 벽 위의 시에 차운하다 閔思立湖亭 次壁上韻 514
 돌아오는 제비 응제시 歸燕 課製 515
 가을 매미 秋蟬..... 516
 한가로이 지내며 눈 앞 풍경을 읊다 閑居卽事 517
 창석 이준 의 <성암>시에 차운하여 짓다 次蒼石星巖韻 李竣..... 518
 취해서 진퇴격을 써서 시를 지어 단곡 김지선 언형에게 주다 519
 醉中用進退格 贈丹谷年兄 金止善
 진안 마이산 鎮安馬耳山..... 520
 신박사 천익 의 시에 차운하여 지어서 그막내 동생인 좌랑 해익 을 애도하다 521
 次愼博士 天翊 韻 悼其季佐郎 海翊
 비 내린 뒤에 훈도가 술을 가지고 와서 권하기에 술자리에 나아가 523
 서둘러 써서 사례하다
 雨後訓導持酒來勸 卽於酒席 走謝
 달빛 아래 거닐며 맑은 연못을 굽어보다 步月俯玩清池 524
 초여름에 친구에게 주다 首夏贈友 525
 두 번째 其二 526
 쌍청당 취해서 권공이 준 시에 차운하여 짓다 雙淸堂 醉次權公贈韻 527
 자발 양형우 이 준 시에 차운하여 짓다 次子發贈韻 梁亨遇 528
 고갯길에 투숙하다 投嶺路 529
 은주암 隱舟巖 530
 강을 읊다 咏江 遊頭流錄 丁巳 531
 봉성에 투숙하다 投鳳城 532
 석문 石門 533
 쌍계사 雙溪寺 534
 불일암 佛日 535
 옥소암 玉簫菴 536
 신흥동 神興洞 537
 두 번째 其二 539
 동악이 준 시에 차운하여 짓다 次東岳贈韻 540

앞의 시에 다시 차운하여 짓다 再次前韻	541
두 번째 其二	542
화담 花潭	543
봄날 만흥 春日漫興	544
교하 별장에 투숙하다 投宿交莊	545
권 수사 상정 에게 주다 贈權秀士	546
천향정에서 밤에 술 마시고 신 찰방 상철 을 이별하며 주다	547
天香亭夜飲 贈別申察訪 尙哲	
창석의 계당에서 우복 정경세 을 만나다 蒼石溪堂 會愚伏 鄭經世	548
명연 鳴淵	550
길을 따라가며 沿路	551
개구암 開口巖	552
차운하여 박 상사의 계당에 쓰다 次題朴上舍溪堂	554
두 번째 其二	555
순상의 시에 차운하다 次巡相韻	556
다시 차운하다 再次	557
병이 났다 病起	558
이충의에게 주다 贈李忠義	559
가을 뒤 즉사 秋後卽事	560
초당에 쓰다 題草堂	561
고산 찰방 허적 에게 주다 贈高山察訪 許	562
풍악산을 읊다 咏楓岳	564
강 천사의 한강 시에 차운하다 次姜天使漢江韻	565
두 번째 其二	567
세 번째 其三	568
택당에게 주다 贈澤堂	569
성주 촌가에서 우연히 쓰다 星州村舍偶題	571
도리사 桃李寺	572
은진현에서 전주를 향해 일찍 떠난 일을 추억하여 기록하다	573
追記恩津縣早發向全州	

이월 초자의 일로 한양에 갔을 때 봉정에 이르다 574
 二月 以醮子赴洛時 到鳳亭 辛未

조령 鳥嶺 575

누암에서 세넨 배가 역풍에 막혀 겨우 가흥에 도착하니 다시 육로를 취하다 576
 樓巖雇船 阻逆風 僅達可興 還取旱路

만성재에 쓰다 題晚省齋 577

《현주집(玄洲集)》 해제(解題)

강동석
전주대학교 객원교수

1. 개요

조찬한(趙縝韓, 1572~1631)은 후세에 목릉성세(穆陵盛世)라고 불릴 만큼 문화가 크게 발달했던 시대의 대표적인 문인이다. 그는 선조(宣祖), 광해군(光海君), 인조(仁祖) 등 세 분의 임금을 모시고, 호조(戶曹)와 형조(刑曹)의 좌랑(佐郎), 정언(正言), 좌부승지(左副承旨), 우승지(右承旨), 참의(參議) 등을 역임하며 능치자(能治者)로서 임무를 완수했으며, 그 부임지에서의 심회를 노래했던 <낭주록(朗州錄)>, <선주록(善州錄)>, <상주록(尙州錄)>, <회주록(淮州錄)>과 유람을 노래했던 <유두류산록(遊頭流山錄)>, <유과곶록(遊葩串錄)> 그리고 사신 접대에 대해 심회를 남겼던 <빈접록(賓接錄)> 등을 남긴 능문자(能文者)로서의 자취를 남긴 인물이다.

일찍이 택당(澤堂) 이식(李植, 1584~1647)은 조찬한의 글에 대하여,

“내가 매번 공의 글을 읽을 때마다 탁월하다고 여겼는데 유고

에서 그 대략을 평가해본다면 소부(騷賦)는 초한(楚漢)을 추수하였고 산문(散文)과 잡저(雜著)는 좌마(左馬)를 범도로 삼았으며 변려체(駢儷體)는 서유(徐庾)의 성물을 깊이 얻었고 장편(長篇)과 광운(廣韻)의 시는 두한(杜韓)과 함께 달리는 데도 넉넉하다고 할 수 있다. 총괄하면 그 밝은 지혜가 높고 환하며 재간이 뛰어나고 아름다워 그 웅건하고 분방함이 한계를 둘 수 없는 듯하고 융합하면서도 곡절이 있어 각각 체재를 두었으니, 더러 정감이 아리답게 되고 성령이 발동하여 경물이 그의 정신과 만나면 마치 악기 소리가 어울려 서로를 드러내면서 긴 여운을 남기는 것과 같았으리라.”

라고 하였다. 당시 한문사대가(漢文四大家)로서 저명했던 태당이 남긴 최고의 찬사인 것이다. 곧 소부로부터 산문, 잡저, 변려, 장편, 광운 등 장르를 가리지 않고 창작에 능했으며, 심지어 중국의 대문장가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그 문재(文才)가 넉넉하다는 것이다.

물론 이 글이 문집의 서문이므로, 성격상 누군가에게 부탁을 받고 좋을 말을 으레 써 주는 것은 관례이다. 그렇다 할지라도, 실정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그마저도 할 수 없는 일임을 감안한다면, 조찬한의 문인적 재능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또 교산(蛟山) 허균(許筠, 1569~1618)은,

동쪽 오나라에 육기와 육운이 있다지만
그대의 학문이 가장 박식하여 막힌 곳이 없구려
호탕한 문채의 뛰어난 기법은 극치이면서
엄숙한 옛 법을 갖추고 있도다

밝고 빛난 벽제기를 발라 놓은 듯하고
 갑 속에서 갓 나온 용천검(龍泉劍)이로다
 굴원과 가의의 보루를 비로소 무너뜨리고
 반고와 장형의 진영을 새롭게 놀렸도다

라고 읊었다. 그는 『병한잡술(病閑雜述)』에서 명대(明代)의 전후 칠자(前後七子)에 우리나라의 문인들을 견주어 권필, 이안눌, 조위한, 허체(許禡), 이재영(李再榮) 등을 전오자(前五子)에, 정응운(鄭應運), 조찬한, 기운헌(奇允獻), 임숙영(任叔英), 1명 미상(未詳) 등을 후오자(後五子)로 일컬어 당대를 대표하는 문인으로 설정한 바 있다.

위의 작품은 <후오자시(後五子詩)>의 두 번째 작품으로 조찬한을 평한 시이다. 특히 시에 능했던 진(晉)나라의 시인 육기(陸機)와 육운(陸雲)에 견주고, 막힘이 없는 박식함, 호탕한 문체, 엄숙한 옛 법 등 시 창작에 있어서 훌륭함을 갖춘 조찬한을 찬미한 것이다. 이에 굴원(屈原)과 가의(賈誼)의 부(賦)보다 뛰어나고 반고(班固)와 장형(張衡)의 문재를 넘어섰다는 표현은, 허균이 조찬한에게 줄 수 있는 극칭인 것이다. 주지하듯 허균은 당대 정치가이자 문인으로 또 평론가로서 이름이 있었으니, 그에게 저와 같은 평을 받았다는 것은 문재가 분명 대단했음을 방증한다.

하지만 서문에서, “그러나 조정의 높은 자리에서는 뜻을 이루지 못하여, 날면서 날개를 다 펼치지 못하였다.”라고 하였으며, 조찬한 자신도 시를 노래하며, “세상에 붙어살며 곤액만 넉넉하구나, 멀리 바라보며 부질없이 탄식을 하니.”라고 하거나, “병이 들어 요와 안석을 사랑하노니, 사립문을 닫고서 답답함을 견디고 있네.”라고 하였으니, 그 문재의 명성에 견준다면 대단히 출세를

하였거나 부귀를 누렸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면도 있다.

조찬한의 문집 《현주집》은 15권(卷) 5책(冊)이다. 차남인 조비(趙備, 1616~1659)가 1654년 임실에 부임하면서, 이듬해 백헌(白軒) 이경석(李景奭, 1595~1671)의 서문을 받아 목판으로 간행한 것이 초간본이다. 1710년에 1백여 본을 목활자로 인출(印出)한 것이 중간본이다. 이것이 국립중앙도서관장본(國立中央圖書館藏本, 도서번호: 일산古3648-72-17)이며, 《한국문집총간(韓國文集叢刊)》79집의 영인본(影印本)이다. 구성은 크게 시집(詩集, 권1~9), 여집(麗集, 권10~11), 부집(賦集, 권12~13), 문집(文集, 권14~15) 등 네 부분으로 되어 있다.

2. 행력

조찬한의 본관은 한양(漢陽)이다. 증조고(曾祖考)는 참판(參判) 조방언(趙邦彦, 1469~1532)이며, 증조(曾祖)는 현령(縣令) 조옥(趙玉)이며, 선고(先考)는 증판서(贈判書) 조양정(趙揚庭), 선비(先妣)는 청주한씨(淸州韓氏) 한응성(韓應星)의 따님이다. 그는 4남 중 막내로 태어났다. 자(字)는 선술(善述)이고, 호(號)는 현주(玄洲)이다. 둘째 형은 지국(持國) 조유한(趙維韓, 1558~1613)이고, 셋째 형은 지세(持世) 조위한(趙緯韓, 1567~1649)으로 모두 저명한 인사였다.

권필(權鞞)의 〈술회 연구(述懷聯句)〉부지(附識)에, “지난해 겨울, 내가 남쪽으로 가다가 오산(鰲山-전라남도 구례군 문척면의 금오산(金鰲山)을 말함)에 이르러 조군 선술(趙君善述-조찬한)이 진원(珍原)의 토천(土泉-장성(長城)의 옛 지명)에 새로 집을 짓고

산다는 말을 듣고 즉시 눈을 무릅쓰고 찾아갔더니 지세(持世-조위한의 자(字))도 그곳에 있었다. 두 분이 나를 보더니 반가워하는 기색이 가득했다. 밤이 깊도록 연구(聯句)를 짓고 날이 밝자 작별했다.”라고 했다. 이로 보면, 조찬한은 1600년(선조 33) 29세의 나이에 장성에 이사하여 기거했음을 알 수 있다.

1605년(선조 38), 조찬한의 나이 34세에 정시(庭試)에서 장원을 하여 직부전시(直赴殿試)가 되었고, 이어 전적(典籍, 정6품)을 거쳐 호조좌랑(戶曹佐郎), 형조좌랑(刑曹佐郎, 정6품)을 역임하였다.

1611년(광해군 3) 40세에는 정언(正言, 정6품)이 되어, “전중(殿中)의 직책은 그 임무가 극히 중하므로, 문관·무관·문음을 병용하는 것은 대체로 폭넓게 뽑아서 정밀하게 고르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찰 정민흥(鄭敏興)은 사람됨이 거칠고 비루하여 집에 거하면서 부정행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본직에 제수되자 사람들이 다들 침을 뱉고 욕을 해대니, 이와 같은 사람을 대관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파직하고 서용하지 말도록 명하소서.”라고 탄핵하였지만, 임금의 “정민흥은 바로 정개청(鄭介淸)의 아들이다. 조정에서 그를 수용한 것은 의도가 있어서 한 일인데, 전후로 그를 공박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니, 내가 몹시 이상히 여긴다. 탄핵하지 말라.”라는 답을 들은 후, 파직되었다. 이후 사헌부에서 조찬한을 사판(仕版)에서 삭제시킬 것을 청했지만 윤허하지는 않았다.

1612년(광해군 4) 41세에는 전라남도 영암(靈巖)의 군수가 되었고, 당시〈낭주록〉을 지었다. 2년 후에는 경상북도 영천(榮川)의 군수가 되었고,〈영주록〉을 지었다. 그러나 1617년(광해군 9), 이경기(李景基)가 우두머리로 있는 백마적(白馬賊-베로 말의 옷

을 만들어 입고 다녔으므로 백마적이라고 불림)이 영천군에서 체포되었지만, 그의 무리들이 옥문을 부수고 탈취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군수인 조찬한을 붙잡아 국문할 것을 명하고, 유비(柳斐)로 군수직을 대신하도록 하였다. 조찬한은 서울에 도착하여 용서를 받았다.

1618년(광해군 10) 47세, 형 조위한(趙緯韓)과 함께 두류산을 유람하며〈유두류산록〉을 지었고, 같은 해 12월에는 분병조(分兵曹) 참의(參議, 정3품)에 제수되었다. 다음 해에는 동부승지(同副承旨)가 되었고, 다시 이듬해에 좌부승지(左副承旨)가 되었다.

1621년(광해군 13) 50세에는 경상북도 상주(尙州)의 목사(牧使)가 되었고, 당시〈상주록〉을 지었다. 다음 해에는 우복(愚伏) 정경세(鄭經世, 1563~1633), 창석(蒼石) 이준(李埈, 1560~1635) 등과 함께 파곶(葩串-현 충청북도 괴산(槐山)에 있는 화양동(華陽洞) 구곡(九曲) 중의 제9곡)을 유람하고서 〈유파곶록〉을 지었다.

1624년(인조 2) 53세, 이괄(李适, 1587~1624)의 난에 어가(御駕)가 남천(南遷)할 때 뒤쳐졌다는 이유로, 헌부(憲府)에서 “우승지 조찬한은 서울을 떠날 적에 늦게야 행재소(行在所)에 왔으므로 그때에 이미 물의가 있었고 대간의 비평까지 받았는데 곧 후설(喉舌)의 중요한 지위에 제수되었으니, 체차를 명하소서.”라고 했지만, 임금은 “조찬한은 늦게 온 잘못이 있기는 하나 실로 병 때문이니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나 헌부가 재차 아뢰어 파직되었다. 이듬해 승문원 제조(承文院提調)가 되었다가, 강원도 회양 부사(淮陽府使)가 되어 〈회주록〉을 지었다. 다음 해 명(明)나라 조사(詔使) 강일광(姜日廣), 왕몽윤(王夢尹)이 오자 이들을 대접하고 〈빈접록〉을 지었다. 1629년(인조 7)에는 경

상복도 선산 부사(善山府使)로 나가 <선주록>을 지었다.

1631년(인조 9) 6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같은 해 3월 한설(韓濼)의 고변(告變)이 있었으니, 이로 말미암아 문초를 당했다. 그가 건강이 악화된 것은 이와 무관하지는 않다.

1655년(효종 6)에 아들 조비(趙備)가 임실(任實)에서 이경석(李景奭)의 서문과 신천익(愼天翊)의 발문을 받아 문집을 간행했다.

3. 작품

조찬한이 어울리는 벗들 가운데 절차탁마(切磋琢磨)하면서 영향을 주고받고, 형제처럼 지내면서 서로 화답한 이는 석주(石洲) 권필(權韞, 1569~1612), 동악(東嶽) 이안눌(李安訥, 1571~1637), 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 1570~1652) 등이 있었다. 모두 문학으로 당세를 풍미했던 인물들로서, 그들은 문화·사상적 측면에서도 주목할 만한 업적을 많이 냈다. 조찬한 역시 시(詩)와 부(賦), 변려(駢麗)와 문(文)을 적지 않게 창작하여 이들에 결코 뒤지지 않았다.

꽃을 재촉하는 비

봄신의 소식을 찾을 길이 없어서
봄이 와도 봄을 깨닫지 못하겠다 부질없이 말했지
깊은 밤 운무 끼고 비 잠깐 지나더니
온 성의 복사꽃 자두꽃이 고운 시절 만들었네
누가 알았으랴 한마디 말없이 변하게 하니

남몰래 모든 꽃에 붙어서 마음껏 찡그리게 할 줄
피기를 재촉한 것은 아니고 지기를 재촉한 것이니
내일 진흙에 떨어지는 것을 차마 보겠는가

이식은 조찬한의 시에 대해 “이백(李白)과 두보(杜甫)의 유풍(遺風)을 따랐고, 옥과 금을 나란히 늘어놓은 듯하여 노조린(盧照鄰)과 낙빈왕(駱賓王)의 방에 충분히 들어갔다.”라고 하였다. 성당(盛唐)의 시는 논할 것도 없고 초당(初唐) 시인의 글조차도 넘나들었음을 칭송한 것이다.

위의 작품은 어떻게 보면 이러한 평에 대한 근거이자 이유를 극명하게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곧 어떤 시적 기교를 추구하기 보다는 ‘시언지(詩言志)’라는 시의 고유성을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험박한 글자를 사용하거나 어려운 전거를 활용하는 송풍(宋風)에 비하여, 비, 꽃, 운무, 도리(桃李) 등 자연을 대상으로 하여 인간이 느낀 그대로의 감정의 결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가 남긴 <낭주록>, <유두류산록>, <상주록>, <유파꽃록>, <회주록>, <선주록>등은 영암, 영천, 지리산, 괴산의 파꽃, 회양, 선산 등에 부임하며 당시 느낀 심사를 있는 그대로 투사한 것이다. 다만 <낭주록>의 경우 시 3수가 전부이며, <상주록>은 1수, <회주록>3수, <선주록>1수, <빈접록> 4수이므로 ‘록(錄)’은 책이 아닌 기록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시뿐만 아니라 조찬한은 당시 짓기 까다로웠던 변려문조차도 유려하게 지었다. <추송구원서(追送九畹序)>에 “벗 구원(이원춘(李元春))이 자못 정성을 들여 변려 서문을 써 달라고 하였는데,

내가 벼슬살이에 바쁜 이유로 겨를이 없었다. 구원이 하직하고 떠나는 날에 이 일로 성이 나서 말을 하기에, 곧장 숙직 중에 붓을 눌러 짧은 서문을 이루어 뒤에 부친다.”라고 하거나, <삼호정서(三湖亭序)>에서 “백헌(이경석(李景奭))이 굳이 청하기에 변려문을 짓다.”라고 했으니, 당시 저명한 문인들에게 부탁을 받음은 물론, 변려문의 창작에 대한 자부심도 매우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양호의 동쪽 기슭과 마포의 서쪽 지류 사이에 있어 그윽함이 시골의 집이 아니요 강가의 다락과도 크게 다르니, 산세가 구불 구불 이어지고 물살은 굽이도는 곳이다. 숲 언덕에 높은 용마루 세우니 비단 같은 밝은 노을을 가르고, 바위 위에 높이 대들보를 세우니 무늬 진 짙은 안개를 뚫고 솟았다. 기둥엔 붉은색을 칠하지 않아 더없이 소박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촌스럽지 않고, 두 공엔 비취색으로 모양을 새기지 않아 번거로운 무늬를 숨기면서 더욱 선명하다. 화려하지도 않고 꾸미지도 않으니 바로 군자가 집으로 삼는 곳이요, 높지도 않고 넓지도 않으니 곧 천지신명이 도우신 것이라. 더구나 처한 곳은 산과 들을 겸하고 커다란 강과 호수를 다 차지했으니, 농사를 짓고 남새밭을 가꾸면서 번수와 벗하고 소평과 이웃이 될 만하며, 낚시를 하고 그물질하면서 임공을 생각하고 여망을 떠올릴 만 함에랴. 겹겹이 쌓인 안개가 자욱이 끼어 흠어지지 않을 때면 꽃섬은 은빛 포구 가운데서 경계를 이루고, 긴 눈이 계속 이어져 녹지 않을 때면 옥빛 모래가 뿔 모양의 푸른 섬을 뒤덮는다. 갓 피어난 노을이 광염을 토할 때면 처마에는 남포(南浦)의 구름이 아직 머물고, 석양이 붉은 빛을 거둘 때면 주렴에는 서산의 비가 걸린다.

이 글은 보만당(保晩堂)을 자호로 삼은 이정귀(李廷龜, 1564~1635)에게 조찬한이 준 것으로서, 제목은 〈보만정서(保晩亭序)〉이다. 굳이 변려체(駢麗體)로 장르를 구분하지 않아도 대우(對偶)가 잘 맞으며, 리듬감도 살아 있음을 알 수 있다. 대개 변려체가 한 구 내에서의 대우를 보이는 것이 일방적이라면 “양호의 동쪽 기슭과 마포의 서쪽 지류 사이에 있어 그윽함이 시골의 집이 아니요, (중략) 화려하지도 않고 꾸미지도 않으니 바로 군자가 집으로 삼는 곳이요.”라고 하여 단락 내에서의 대우마저도 신경 써서 창작했으니, 그 섬세함과 창의적 발상 자체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조찬한은 자주(自注)에 “월사 상국께서 청하기에 변려문을 짓는다.”라고 썼으니, 이원춘이나 이경석에게 준 글과 마찬가지로 그의 변려체 창작에 대한 자부심이 엿보인다.

조찬한은 변려문과 유사한 분량의 부(賦)도 남겼다. 이식은 서문에서 “상세히 서술한 글은 양웅(揚雄, BC.53~AD.18)과 사마상여(司馬相如, BC.179~BC.117)의 궤적을 따랐다.”라고 평했으니, 역시 부 작품 또한 여느 작품처럼 작품성이 높았음을 시사한다.

주지하듯 전한(前漢)시대 사마상여는 부에 있어 가장 아름답고 뛰어나, 초사(楚辭)를 이은 송옥(宋玉), 가의(賈誼), 매승(枚乘) 등에 이어 ‘이소재변(離騷再變)의 부(賦)’라고도 평을 들을 정도로 부를 잘 지었다. 대표작인 《자허부(子虛賦)》와 그 후편 《상림부(上林賦)》는 그를 대변할 정도이다. 양웅 역시 〈감천부(甘泉賦)〉, 〈하동부(河東賦)〉, 〈우렵부(羽獵賦)〉 등을 지어 간언(諫言)했으니, 부를 통해 임금에게 간했던 것이다. 조찬한의 벼슬 또한 정언(正

言)이었으니, 부를 지어 충(忠)으로써 간한 것이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예컨대 <적전부(籍典賦)>에서,

우리 성상께서 즉위하신 지 십삼 년에
비로소 예사(禮司)에게 명하여
적전의 의식을 거행하니
이는 자성(棗盛)을 중시하고, 백성을 중시하신 뜻이라네
(중략)
이제 옛날 제왕의 법도를 회복하려고
그 법도를 계승하니
백성의 복이라네
백성의 복일 뿐 아니라
종묘사직의 복이라네

라고 하여, 적전의 예식에 대하여 칭송하고, 나아가 그것이 옛 법의 회복이자 백성에게 올바른 정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애민사상으로까지 귀결시키고 있다. 이는 어머니에 대한 아픔을 지닌 광해군에게 지극한 간언이라기보다 전아한 문학작품을 통해 올바른 정사에 대해 간언할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온당하다.

산문에 대해서, 조찬한은 ‘고문’의 격식을 얻으려고 노력했다. 이식은 “말을 모아 엮은 글은 한유(韓愈)와 유종원(柳宗元)에 뿌리를 두었다.”라고 조찬한의 산문에 대해 평가를 했으니, 어찌면 이를 두고 한 말일 것이다.

승상 제갈량에게 어린 임금을 당부하는 내용으로 상정하여 지

은 조서

짐은 평소 난세를 평정하여 태평한 시대로 되돌릴 재주가 부족하였음에도 쇠퇴한 국세를 복구시킬 뜻만은 간절하였다. 그러나 전쟁은 끝나지 않으니 하수(河水)는 어느 때에나 맑아질 것이며, 세월은 흘러가는 물과 같은데 창업은 오늘에 그치고 말았도다. 지난번 양손을 잃은 탓에 어느 겨를에 상호 공생의 형세를 보장하겠는가. 사직의 안위가 이때 달려 있으니 비록 자중하고자 하나, 도원(桃園)의 향불이 아직 식지 않았으니 혼자만 살지 않겠다고 맹세하였노라. 오직 성패는 하늘에 달려 있어 비록 백등(白登)의 다급함은 면했다 하나, 죽고 사는 것은 운명이니 창오(蒼梧)의 순행(巡幸)을 되돌리지 말라. 이제 마지막 윤음(綸音)으로 나의 어진 보필에게 누를 끼치니, 경(卿)은 이윤(伊尹)과 여상(呂尙)과 나란히 달린다 해도 부끄러울 것이 없고 관중(管仲)과 악의(樂毅)에 비교해 보아도 지나치게 겸허하다. 지금 천하가 세 나라로 정립(鼎立)하게 된 것은 누구의 힘이란 말인가. 온 나라를 통일시키는 그날도 반드시 올 것이다. 더구나 뒤를 이을 임금은 나이가 어리고, 국가란 공공의 기물(器物)이다. 보필할 만하면 보필하는 것이지 부자의 사사로움이 끼어들기 어렵고, 어진 이에겐 줄만 하면 어진 이에겐 주는 것이지 군신의 의리에 구애돼서는 안 된다. 오직 경의 재능이 저들에 비해 열 배나 되기에 홀로 남은 어린 임금을 부탁하는 것이다. 아, 짐은 두 번 말하지 않을 것이니 그대도 다시 사양하지 말라. 이 옥궤(玉几)에 기대어 고신(孤臣)을 어루만지며 울음을 삼키니, 저 백운(白雲)을 타고 고향제(高皇帝)를 뵈는 때 무슨 말을 아뢰랴.

이는 삼국시대 유비(劉備)가 제갈량(諸葛亮)에게 후주(後主)를 부탁하는 상황을 빌려 지은 조서(詔書)이다. 내용도 그러하고 제목 역시 ‘의탁고승상량조(擬托孤丞相亮詔)’라고 했으니 중국 고사를 비의하여 지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위의 작품 외에도 <은나라 고종이 부열에게 “너를 장맛비로 삼을 것이다”라는 명을 내린 내용으로 상정하여 지은 제서[擬殷高宗賜傅說用汝作霖雨制], <한 고조가 한신을 대장군에 배수한 내용으로 상정하여 지은 제서[擬漢高祖拜韓信爲大將制], <송나라 한림학사 구양수 등이 당사를 진헌한 내용으로 상정하여 지은 표문[擬宋翰林學士歐陽脩等進獻唐史表], <장량이 사호를 초청하는 편지[張良請四皓書] 등 모두 같은 성격의 작품들이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고문’이란 사료변려체의 유행에 반(反)하는 형식의 글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성현의 도’를 담아낸 글을 말한다. 그 성현의 도란 천도(天道)를 향해 가는 인도(人道)의 노력이고, 가장 대표할 수 있는 것은 인(仁)이며, 그 표현은 효제 충신(孝悌忠信) 등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한유가 그러했고, 유종원 역시 그러한 글을 지어 훗날 저명한 문인으로 평가받은 것이다.

조찬한의 글 역시 마찬가지이다. 제갈량의 충(忠)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여타 산문의 핵심은 충에 있다. 따라서 조찬한이 추구한 산문세계는 고문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문집에 실려 있지는 않지만 《청구영언(靑丘永言)》과 《해동가요(海東歌謠)》에 수록되어 있는 시조 <貧賤을 풀라 흥고>를 소개하고자 한다.

《청구영언(靑丘永言)》진본

貧賤을 풀라 하고 權門에 드러가니
침 업슨 흥정을 뉘 묻져 하자 허리
江山과 風月을 달라 하니 그는 그리 못허리

(현대어 풀이)

가난과 천함을 팔고자 하여
권세 있는 문에 들어가 봤지만
덤 없는 흥정을
누가 먼저 하자고 하는가
강산과 풍월을 달라고 하니
그건 그렇게는 못하겠구나

《논어》에 “부와 귀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지만 그 올바른 도로써 얻지 않으면 그 부와 귀에 거처하지 않아야 한다. 빈과 천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지만 그 올바른 도로써 얻지 않으면 그 빈과 천을 버리지 않아야 한다. 군자가 인을 떠나면 어떻게 명성을 완성할 수 있겠는가. 군자는 밥을 먹는 동안이라도 인을 떠나서는 안 되고 순간순간에도 인에 반드시 거처하고 위급한 상황에도 인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富與貴，是人之所欲也，不以其道得之，不處也，貧與賤，是人之所惡也，不以其道得之，不去也。君子去仁，惡乎成名。君子無終食之間，違仁，造次，必於是，顛沛，必於是。]”라고 했다. 곧 부귀는 사람들 모두 좋아하는 것이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얻지 않았다면, 차라리 빈천함만 같지 않다는 것이다. 주자(朱子)가 《사서집주(四書集註)》를 내면서 주석마다 지행

(知行)을 강조한 것처럼, 조찬한 역시 위의 작품에 지행합일(知行合一)의 사상을 작품에 녹여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문집

[한국학중앙연구원 제공]

사주쌍변(四周雙邊)

반곽(半郭) 23.8*17.9cm

계선(界線) 12행 25자

주쌍행(註雙行)

상하향(上下向) 이엽화(二葉花)문어미(紋魚尾) 32.2*21.1cm

전남대학교 중앙도서관 5층

고문헌실 소장

초간본(初刊本)은 조찬한의 둘째 아들 조비(趙備)가 1654년 임실에 부임하면서, 이듬해 이경석(李景奭)의 서(序)를 받고, 이후에 문인 신천익(愼天翼)이 교정과 시체별(詩體別) 재구성, 그리고 저작 연대순 배열, 발(跋)을 붙임으로써 완성되었다. 이에 앞서 맏아들 조휴(趙休)는 병란(兵亂) 당시에도 선고(先考)의 신주(神主)와 유고(遺稿)를 지고 다녔을 정도로 효심이 지극했으며, 용궁(龍宮-경북 예천) 현감으로 내려간 1641년 이식(李植)의 서문을 받아, 문집을 정리하고 간행하려고 했는데 병으로 죽었다. 이러한 공이 뒷받침 되었기에 초간본이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초간본은 1669년에 임실 객관(客館)에 화재가 발생하여 소실되었다.

중간본(重刊本)은 손자 조귀상(趙龜祥)이 무주 부사(茂朱府使)로 부임하여, 1710년에 1백여 본을 목활자로 인출(印出)한 것이다. 초간본과 체제나 구성은 같지만, 권말에 박세채(朴世采, 1631~1695)가 쓴 묘갈명(墓碣銘)과 조귀상(趙龜祥)의 중간지(重刊識)가 실려 있다는 차이가 있다. 현재 《한국문집총간》 권79는 이를 저본으로 하여 영인한 것이다.

삼간본(三刊本)은 1927년, 후손 조병주(趙柄柱)가 간행했다. 송규헌(宋奎憲)의 발문을 추가하고 경성 흥문당(興文堂)에서 석인본(石印本)으로 간행한 것이다.

구성은 크게, 운문 권1부터 권9까지, 산문 권10부터 15까지로 되어 있다. 그런데 산문은 변려체(駢儷體), 부체(賦體), 산문체(散文體)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니, 이식이 서문에서 말한 “선생에게는 유집(遺集)이 있으니, 시가 두 권, 변려문이 한 권, 부와 문도 한 권씩이다.”라고 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권수별로는, 권1부터 권9까지 총 590여 수의 시(詩)가 권마다 체제별로 실려 있다. 즉 권1은 오언고시(五言古詩) 34수, 권2는 칠언고시(七言古詩) 43수, 권3은 오언절구(五言絕句) 25수, 권4는 칠언절구(七言絕句) 140수, 권5는 오언율시(五言律詩) 92수, 권6은 칠언율시(七言律詩) 220수, 권7은 오언배율(五言排律) 25수, 권8은 칠언배율(七言排律) 4수와 조체(操體) 1수와 육언시(六言詩) 1수, 권9는 연구(聯句) 6수와 차운한 회문시(回文詩) 1수가 있다.

각 권 맨 앞에는 저작 편수가 적혀 있고, 시의 제목에는 출전과 저작 시기가 적혀 있어 같은 저작 연도순으로 배열했음을 알 수 있다. 주목되는 것은 칠언율시가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으며, 배

율시, 육언시, 연구시, 회문시 등 시 안에서의 장르별 창작이 크게 되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회문시의 경우, 비록 1수만이 실려 있기는 하지만, 창작이 쉽지 않음을 감안한다면, 조찬한이 문학 작품의 창작에 있어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문학적 완성도를 높이려 노력했음을 방증한다.

권10부터 권11까지는 변려문(駢儷文)이다. 권10에는 변려체로 지어진 조(詔) 1편, 제(制) 2편, 표(表) 1편, 계(啓) 5편, 치어(致語) 3편, 첩(帖) 2편, 교서(敎書) 8편, 비답(批答) 1편, 하전(賀箋) 5편이 있다. 권11에는 제(制) 1편, 표(表) 5편, 서(序) 10편, 소(疏) 1편, 전(箋) 2편, 상량문(上梁文) 1편, 교(敎) 1편, 첩(帖) 1편이 있다. 권10과 권11의 편차가 유사한 것을 보면 권11이 속집(續輯)의 성격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와 마찬가지로 권 앞에는 전체 작품 수가 수(首)로 표기되어 있다. 조(詔)는 전언한 바 있는 ‘승상 제갈량에게 어린 임금을 당부하는 내용으로 상정하여 지은 조서’이며, 제(制)는 ‘은나라 고종이 부열에게 “너를 장맛비로 삼을 것이다”라는 명을 내린 내용으로 상정하여 지은 제서’이니, 역시 중국의 고사를 전용하여 ‘나라의 현신(賢臣)’을 강조한 충서(忠書)이다. 서(序)가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데, 대부분 증서(贈序)와 송서(送序), 누정서(樓亭序)에 대한 것이다. <애석주서(哀石洲序)>는 권필의 억울한 죽음을 애도한 글이다.

권12부터 권13까지는 사부(辭賦)이다. 권12는 부(賦) 6편, 사(辭) 2편, 칠(七) 1편이 있다. 부는 앞서 인용한 <적전부>외에도 차운한 부가 3편이 있다. 권13은 부(賦) 24편과 사(辭) 2편이 있

으니, 역시 속집의 성격을 지닌다.

사(辭)의 <기룡사(騎龍辭)>와 <거범사(擧颿辭)>는 용을 타고 범에 올라 탄 것을 노래한 것으로 자신의 이상을 노래한 것이다. 칠(七)은 <칠각(七覺)>으로 사부(辭賦) 어느 곳에도 두지 않고 독립하여 두었다. 대개 글이 짧으면 사(辭)에 두고, 길면 부(賦)에 두는 것이 통례인데, 2,946 자(字)이므로 별도로 둔 것이다. 백실선생(白室先生)과 현동자(玄侗子)의 문답을 두고 일곱 가지의 깨달음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훈자부(訓子賦)>는 자식에게 당부하는 요목을 두었고 특히 효(孝)를 강조한 글이다.

권14부터 권15까지 문(文)이 실려 있다. 권14는 제문(祭文) 14편, 명(銘) 1편이 실려 있다. 권15는 서(序) 23편, 기(記) 15편, 설(說) 4편, 변(辯) 1편, 대(對) 1편, 논(論) 2편, 전(傳) 4편, 서(書) 2편, 발(跋) 1편, 지명(誌銘) 4편, 통문(通文) 1편 등이 수록되어 있다.

제문(祭文)은 죽은 아내에게 쓴 것을 비롯하여, 정유재란 당시 이순신을 도왔던 임환(林煥, 1561~1608)의 제문, 벗 김창효(金昌孝)의 제문 등이 있으며, 고려시대의 문신 김주(金澍)에게 쓴 제문 등은 그의 충(忠)을 기리기 위함이었다. 또 월출산(月出山)의 구정봉(九井峯)과 천왕봉(天王峯)에서 비가 오기를 기원하는 글을 포함하여 기우문(祈雨文)이 7편이 있다. 명(銘)은 <연명(硯銘)>으로 벼루의 평평함, 물이 마르지 않음, 닳지 않음, 확고한 덕, 유익한 세 벗 등 선비와의 공통점을 언급한 글이다. 지명(誌銘)은 지명 1편, 묘갈(墓碣) 2편, 묘표 음기(墓表陰記) 1편이 있다. 통문(通文)은 강원도 회양의 향교 중수(重修)이다.

5. 맺으며

본서는 한문학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목릉성세(穆陵盛世)에 공적·사적으로 학문적 성과를 많이 낸 조찬한의 문집을 번역하고 주석을 가한 책이다.

주지하다시피, 조찬한이 살았던 시기는 외적으로 임진왜란(壬辰倭亂)이라는 우리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 발생했으며, 내적으로 심한 봉당정치에 인조반정(仁祖反正) 같은 큰 사건들도 있었다. 국내외적으로 혼란했던 이 시기에, 많은 문인들은 저마다의 생각을 문집으로 남겼으며 이를 통해 당대 문화를 이해할 수 있었고 이를 거울삼아 두 번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었다. 특히 성과를 많이 내었던 허균은 물론이고, 이안눌, 권필, 이식 등 내로라하는 문인들에 대해 연구하고 고찰하여 풍성한 자료를 만들어 낸 것이다. 그러나 그들과 교류하고 그들에게서 최고의 찬사를 받았던 현주 조찬한에 대한 국역과 주석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아 많은 아쉬움이 있었다.

이에 한국학호남진흥원에서 주관하여 여러 선생님과 협업하여 《현주집》을 번역하고 주석을 낸 것은 한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그의 후손들 그리고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 조선 중기의 문학, 사상, 역사 등의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다시 한 번 한국학호남진흥원과 역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참고문헌】

- 《선조실록(宣祖實錄)》, 고전번역원 웹DB (<http://db.itkc.or.kr>)
- 《광해군일기(光海君日記)》, 고전번역원 웹DB (<http://db.itkc.or.kr>)
- 《인조실록(仁祖實錄)》, 고전번역원 웹DB (<http://db.itkc.or.kr>)
- 《성소부부고(惺所覆韻藁)》, 《한국문집총간(韓國文集叢刊)》권74.
- 《현주집(玄洲集)》, 《한국문집총간(韓國文集叢刊)》권79.
- 《택당집(澤堂集)》, 《한국문집총간(韓國文集叢刊)》권88.
- 구봉곤, 『현주 조찬한의 부 작품 연구: 대화전략 특징을 대상으로』, 민족문화, 2016.
- 김우정, 『현주 조찬한 산문의 연구: 17세기 초 문단의 풍정과 관련하여』, 한문교육연구, 2008.
- 김희자 외 1명, 『조찬한의 시문에 나타난 간언 일고』, 인문학연구, 2013.
- 김희자, 『조찬한, 조위한, 권필이 함께 수창한 연구시 고찰』, 인문학연구, 2015.
- 김희자, 『현주 조찬한의 문학관』, 한국사상과문화, 2004.
- 김희자, 『현주 조찬한의 시세계: 사환기의 현실인식을 중심으로』, 한문학논집, 2006.
- 김희자, 『현주 조찬한의 전 연구』, 한문학논집, 2011.
- 박정민, 『조선중기 서인계 문인의 정치적 불만과 문학적 대응: 현주 조찬한의 경우』, 동방한문학, 2015
- 박정민, 『현주 조찬한 산문의 수사 특징과 그 배경』, 동방한문학, 2014.
- 박정민, 『현주 조찬한의 「신루상량문(蜃樓上樑文)」 연구: 「신루기(蜃

- 樓記)와의 대비를 통하여』, 동방한문학, 2013.
- 손찬식, 『조선중기 도교사상의 시문학적 수용 연구: 조찬한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2001.
- 손찬식, 『현주 조찬한의 장자적 사유와 신선취향적 시세계』, 도교문화연구, 2003.
- 윤미길, 『조찬한의 현실인식』, 국어교육, 1997.
- 정도상, 『현주 조찬한의 문학 일고』, 한문학논집, 2000.
- 최경환, 『조찬한의 「궁중사시사」와 연작시의 구성 원리』, 한국한문학연구, 1997.

서序

옛날에 소 장공(蘇長公)¹이 글을 논하면서 공자(孔子)의 ‘사달(辭達)’이라는 한 구절로 종지(宗旨)를 삼았다.² 해설하는 이는 “달(達)은 그 뜻을 전달하는 것이니 문사(文詞)는 의미를 전달하는 데 그칠 뿐 거대하고 힘껏 펼쳐낸 것이나 기이하고 아름다운 것을 숭상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진실로 그러하다. 그러나 만물이 고르지 않음은 이치가 다르기 때문이다. 의미에는 심원한 것과 천근한 것이 있고 사어(辭語)에는 험박한 것과 평이한 것이 있다. 순 임금 시대와 하(夏)나라, 상(商)나라, 주(周)나라의 문장에서부터 오히려 소박함과 난삽함³의 차이가 있었는

- 1 소 장공(蘇長公) : 송나라 소식(蘇軾, 1037~1101)으로, 자는 자첨(子瞻), 호는 동파거사(東坡居士)이다. 소식이 소순(蘇洵)의 장자인데다 그 문장이 백대(百代)의 으뜸이라고 할 만했기 때문에 그를 일컬어 ‘장공(長公)’이라고 하고, 그의 아우 소철(蘇轍)은 소공(少公)이라고 일컬었다고 한다. 소식은 벼슬이 예부 상서(禮部尙書)에 이르렀으며, 저서에 《논어설(論語說)》, 《구지필기(仇池筆記)》, 《동파지림(東坡志林)》, 《동파전집(東坡全集)》 등이 있다.
- 2 공자(孔子)의…삼았다 : 《논어(論語)》〈위령공(衛靈公)〉에 “말을 할 때에는 자기의 뜻이 통하게만 하면 된다.”라는 공자의 말이 실려 있는데, 동파가 〈여사민사추관서(與謝民師推官書)〉에서 이를 인용하여 문장을 논하였다.
- 3 난삽함(詰屈) : 노신(魯迅)은 《한문학사강요(漢文學史綱要)》에서 시경의 상송(商頌) 5편과 상서(尙書)를 난삽하다(詰屈)라고 평하였다.

데, 하물며 굴송(屈宋)⁴ 이래로는 육의(六義)⁵가 분파되고 못 수레가 나란히 치달림에 있어서라? 똑같이 각자 자기의 뜻을 말하면서 이치를 빠뜨림이 없는 데다가, 장식한 수레와 말이 먼 곳에 이르는 듯하고 반점이 있는 호랑이와 표범이 무늬와 색채를 갖춘 듯하니 이는 문장의 지극함이 아니겠는가?

아조(我朝)에서는 경서의 가르침을 숭상하여 문사(文辭)가 고상하고 우아하기만 하였고 한유(韓愈)와 소식(蘇軾)의 문장도 근래에 모범으로 삼았을 뿐이었으니, 진한(秦漢) 제가(諸家)의 우람하고 아름다운 문체⁶는 아직도 갖추지 못하였다. 용만(隆萬) 이후로는 작가 몇 분이 중국에서 한번 크게 떨쳐 일어났는데⁷ 이때에 이들을 계승하여 화답하려는 이로는 현주(玄洲) 조공(趙公)이 있어 성대하게 명가(名家)가 되었다. 그의 학문은 옛것에 대해 탐색해 보지 않은 것이

-
- 4 굴송(屈宋) : 전국 시대 초나라 사람들로, 특히 사부(辭賦)의 대가로 일컬어지는 굴원(屈原)과 그의 제자인 송옥(宋玉)을 합칭한 말이다. 남조 송(南朝宋) 유험(劉勰)의 《문심조룡(文心雕龍)》에 “굴원 송옥의 뛰어난 걸음은, 아무도 뒤따를 자가 없다.[屈宋逸步, 莫之能追.]”라고 하였다.
 - 5 육의(六義) : 《시경》의 시를 창작하는 데 활용된 세 가지 수사법인 부(賦)·비(比)·흥(興)과 이로부터 형성된 세 가지 시의 체재인 풍(風)·아(雅)·송(頌)을 이른다.
 - 6 진한(秦漢)…문체 : 진(秦)나라와 한(漢)나라 시대의 고문(古文)을 가리킨다.
 - 7 용만(隆萬)…일어났는데 : 용만(隆萬)은 명(明)나라 목종(穆宗)의 연호인 용경(隆慶, 1567~1572)과 신종(神宗)의 연호인 만력(萬曆, 1572~1615) 연간을 가리킨다. 이때 떨쳐 일어난 작가란 명나라 전후칠자(前後七子)들을 염두에 둔 듯하다. 전후칠자는 ‘문필진한(文必秦漢)’을 선언하였고, 그중에서도 특히 이반룡(李攀龍, 1514~1570)은 “문장은 서경 이후로, 시는 천보 연간 이후로는 모두 볼 것이 없다.[文自西京, 詩自天寶而下, 俱無足觀.]”라고까지 하여, 서한의 문장을 매우 고풍하였다.

없었기 때문에 그의 문장은 고문에 대해 갖추지 않은 것이 없었다. 위로는 양한(兩漢)⁸을 따랐고 아래로는 육조(六朝)⁹에 의지하였으며 또한 공자(孔子)의 사달(辭達)이라는 종지도 잃어버리지 않았다. 이미 한 번 몸을 굽혀 과장(科場)에 나아가 도룡(屠龍)¹⁰의 명예를 독점하였고, 임금의 명에 따라 지은 관각(館閣)의 작품들은 모두 말에 기대어 즉시 이루어낸¹¹ 듯하였으니 당대의 뛰어난 인재들 가운데 앞서는 이가 없었다. 세상 사람들은 바야흐로 ‘문단에서 새로 맹주가 되어 기치를 내걸고 많은 선비를 앞서는 일을 녀석히 해 볼 여지가 있다’고 기약하였는데, 불행하게도 벼슬길의 때를 만나지 못하여 지방 고을에서 부침한 것이 수십 년이었다. 그는 얻는 게 있든 잃는 게 있든, 기쁨과 슬픔으로 불평한 마음일 때도 한결같이 글 읽는 데¹²만 전념하였다. 그러므로 문사(文詞)가

-
- 8 양한(兩漢) : 전한(前漢)과 후한(後漢) 시대를 말한다. 여기에서는 양한 시대의 고문을 뜻한다. 사마천(司馬遷)을 비롯하여, 조조(曹操), 가의(賈誼), 유향(劉向), 동중서(董仲舒), 양웅(揚雄) 등의 문장가들이 배출되었다.
- 9 육조(六朝) : 위진(魏晉) 남북조 시대(南北朝時代)를 말한다. 여기에서는 이 시대의 문장을 일컫는다.
- 10 도룡(屠龍) : 도룡(屠龍)은 용을 잡는다는 말로, 특별한 재주와 기술을 뜻한다. 《장자(莊子)》〈열어구(列禦寇)〉에 “주평만(朱泚漫)이 지리익(支離益)에게 용 잡는 기술을 배우느라 천금의 가산을 모두 탕진하면서 3년 만에 기술을 완전히 터득했으나 써먹을 곳이 없었다.”라고 하였다.
- 11 말에…이루어낸 : 문장 솜씨가 민첩하여 신속하게 지어내는 것을 말한다. 진(晉)나라 원굉(袁宏)이 환온(桓溫)의 명령을 받고는 그 자리에서 말에 기대어 금새 일곱 장의 군서(軍書)를 지어낸 고사에게 유래한 것이다. 《世說新語 文學》
- 12 글 읽는 데 : 원문의 ‘점필(佔畢)’은 경사(經師)가 경전의 뜻을 모르고 간척 위의 글자를 보고 외워서 사람을 가르친다는 뜻인데 후에는 송독(誦讀)의 뜻으로 쓰였다.

나오는 것이 끝이 없고 말이 갈수록 기이했던 것이다. 애석하도다, 천구(天球)와 홍벽(弘璧)¹³이 썩과 모래, 자갈 우복한 사이에 내 버려져서 다만 농부나 목동이 여러 광채가 찬란하게 빛나는 것을 보고 의심하고 놀라게 하였을 뿐이니 이것이 동서(東序)의 진귀한 보옥(寶玉)¹⁴이요 수레를 비추는 보주(寶珠)¹⁵라는 걸 어찌 알고서 받들겠는가?

이제 가업을 계승한 공의 두 아들이 병화를 겪은 뒤까지 부친의 유고를 보존하고는 차례를 정해 책을 만들어 완염(琬琰)¹⁶과 같은 유고를 전하기를 도모하였다. 내가 매번 읽을 때마다 탁월하다고 여겼는데 유고에서 그 대략을 평가해본다면 소부(騷賦)는 초한(楚漢)을 추수하였고¹⁷ 산문(散文)과 잡저(雜著)는 좌(左)·

-
- 13 천구(天球)와 홍벽(弘璧) : 모두 옥으로 만든 진귀한 구슬이다. 주(周)나라 성왕(成王)이 죽을 때 생전에 간직하고 있던 보옥과 기물을 진열해 놓았는데, 서서(西序)에는 적도(赤刀), 대훈(大訓), 홍벽(弘璧), 완염(琬琰)을, 동서(東序)에는 대옥(大玉), 이옥(夷玉), 천구(天球), 하도(河圖)를, 서방(西房)에는 윤(胤)나라의 무의(舞衣), 대패, 봉고(鼂鼓)를, 동방(東房)에는 태(兌)가 만든 창, 화(和)가 만든 활, 수(垂)가 만든 대나무 화살을 진열하였다. 《書經 顧命》
- 14 동서(東序)의 진귀한 보옥(寶玉) : 앞에 말한 천구(天球) 등을 가리킨다.
- 15 수레를 비추는 보주(寶珠) : 구슬의 광채가 멀리 비쳐 수레 여러 채의 앞을 볼 수 있다는 말이다. 전국 시대 위왕(魏王)이 제왕(齊王)과 들에서 만나 자랑하기를 “과인(寡人)의 나라는 소국이지만 그래도 열두 채의 수레 앞뒤를 비추는 경촌(經寸)의 구슬이 열 개 있다.”라고 하였다. 《史記 田敬仲完世家》
- 16 완염(琬琰) : 완(琬)과 염(琰)은 모두 미옥(美玉)으로 여기에 문자를 써서 기록을 남겼는데, 간책(簡冊)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아름답게 말한 것이다. 여기서의 현주의 유고(遺稿)를 말한다.
- 17 소부(騷賦)는 초한(楚漢)을 추수하였고 : 소(騷)는 초나라에서 창작되기 시작되어 뛰어난 작가가 많았는데 굴원(屈原)과 송옥(宋玉)을 그 대표적인 작가로 들 수 있고, 부(賦)는 한(漢) 대의 부가 유명한데 사

마(馬)¹⁸를 법도로 삼았으며 변려체(駢儷體) 글에서는 서(徐)·유(庾)¹⁹의 성률을 깊이 얻었고 장편(長篇)과 광운(廣韻)의 시는 충분히 두(杜)·한(韓)²⁰과 함께 내달릴 만하다.²¹ 총괄하자면 그 밝은 지혜가 높고 환하며 재간이 뛰어나고 아름다워 그 웅건하고 분방함이 한계를 둘 수 없는 듯하고 융합하면서도 곡절이 있어 각각 체재를 두었으니, 왕왕 정감이 아리답게 되고 성령(性靈)이 발동하여 경물이 그의 정신과 만나면 마치 악기 소리가 어울려 서로를 드러내면서 긴 여운을 남기는 것과 같았으리라. 아, 공이 이러한 기예에 대해서는 그것을 풍부하게 지녔다고 말할 수 있다. 등림(橙林)²²에 있어서도 때로 썩은 나무가 있고 무기 창고에 있어서도

마상여(司馬相如)나 양웅(揚雄)이 그 대표적인 작가이다.

- 18 좌(左)·마(馬) :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의 작자 좌구명(左丘明)과 《사기(史記)》의 작자 사마천(司馬遷)을 병칭한 것이다.
- 19 서(徐)·유(庾) : 남조 송(南朝宋)의 서리(徐摛)·서릉(徐陵) 부자와 북주(北周)의 유견오(庾肩吾)·유신(庾信) 부자를 말하는데, 보통은 서릉과 유신을 가리키는 말로 많이 쓰인다. 서릉은 자가 효목(孝穆)으로 어려서부터 매우 총명하여 고승 보지(寶誌)로부터 천상(天上)의 석기린(石麒麟)이란 칭찬을 받기도 하였다. 특히 사륙변려문을 잘 지었으며, 저서로는 《서효목집(徐孝穆集)》과 《옥대신영(玉臺新詠)》이 있다. 유신은 박학하고 문장이 화려하여 서릉과 함께 명성이 높았다. 그가 일찍이 양(梁)나라에서 벼슬하여 우위장군(右衛將軍)이 되고 무강현후(武康縣侯)에 봉해졌다가 뒤에 난리를 만나 이리저리 유랑하였는데 이때 어지러운 시국을 슬퍼하며 지은 <애강남부(哀江南賦)>는 특히 명문으로 일컬어진다.
- 20 두(杜)·한(韓) : 두보(杜甫)와 한유(韓愈)의 병칭이다.
- 21 장편(長篇)과…만하다 : 《택당집(澤堂集)》 <현주유고서(玄洲遺稿序)>에는 이 문장 뒤에 “다만 근체시 절구와 율시는 그다지 공력을 들이지 않았는데 역시 모두 기발하고 자득한 작품이라 송시의 격조로 떨어지지 않는 않았다. [惟近體律絕, 不甚著工, 而亦皆奇拔自得, 不落宋調.]”라는 문장이 있다.
- 22 등림(橙林) : ‘등림(鄧林)’의 오기로 보인다. 등림(鄧林)은 고대 신화

마모되어 무디어진 칼날이 없을 수 없으니 고금의 대가들도 이는 면할 수 없는 것이다. 후생이 까다롭게 따져 함부로 잘못을 지적하는 일을 할 수 있었거니와 이와 같은 자들에 대해서는 공이 이미 웃으면서 하는 대로 맡겨두었던 터였다. 공이 스승으로 삼거나 벗으로 사귀 이들은 모두 일세(一世)의 종장(宗匠)들이다. 가장 더 붙어 깊이 사귀 이는 우리 숙부 동악(東嶽)²³ 선생과 석주(石洲) 권공(權公)²⁴이고 소암(疎庵) 임군(任君)²⁵이 그 다음이다. 공의 문장

속에 나오는 신령스러운 복숭아나무 숲 이름이다. 과보(夸父)가 태양과 경주를 하려고 해의 그림자를 쫓아다니다가 지친 나머지 쓰러져 죽었는데, 그가 내버린 지팡이 위에 시체의 썩은 물이 흘러내려 지팡이가 복숭아나무로 변하면서 사망 일천 리에 도림(桃林)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列子 湯問》《山海經 海外北經》

- 23 동악(東嶽) : 이안눌(李安訥, 1571~1637)의 호이다. 본관은 덕수(德水), 자는 자민(子敏), 시호는 문혜(文惠)이다. 18세에 진사시에 수석으로 합격하였으나 동료들의 모함을 받아 과거 볼 생각을 버리고 문학에 열중하였다. 29세 때 다시 과거에 나아가 문과에 급제하였다. 함경도 관찰사, 예조 판서, 형조 판서 등을 역임하였으며, 저서에 《동악집》이 있다. 평생 시를 짓는 데 힘써 4천 3백여 수의 방대한 양의 시를 남겼다.
- 24 석주(石洲) 권공(權公) : 권필(權鞞, 1569~1612)로,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여장, 호는 석주이다. 정철(鄭澈)의 문인이다. 임숙영(任叔英)이 광해군을 비판하는 글로 삭과(削科)된 사실을 듣고 <궁류시(宮柳詩)>를 지어서 풍자한 일로 경원(慶源)으로 귀양가다가 도중에 사망하였다. 저서로 문집인 《석주집》과 한문소설인 <주생전(周生傳)>이 전한다.
- 25 소암(疎庵) 임군(任君) : 임숙영(任叔英, 1576~1623)으로, 본관은 풍천(豐川), 자는 무숙(茂叔), 호는 소암·동해산인(東海散人)이다. 이식(李植), 장유(張維), 권필(權鞞) 등과 교류하였다. 1611년(광해군3) 문과에 합격하여 승문원 정자, 주서를 역임하다가 영창대군(永昌大君)을 처치하려는 논의가 일자 병을 핑계로 정청(庭請)에 참여하지 않았고, 시사(時事)를 비판하다가 결국 탄핵을 받아 광주(廣州) 용진(龍津)에 우거하였다. 인조반정 이후 예문관 검열로 기용되어 홍문관 박사 등을 거쳐

은 이분들의 장점을 아울러 가지고 있으면서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지목을 받지 않았으니 그 규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는 재능과 학문이 늦게 진보했고 훈고(訓詁)²⁶에만 골몰하였으니 중년에 비록 공을 좇아 배움을 구해 일깨워주는 한 마디 말씀들을 들을 수 있었지만 고문대가에 대해서는 항상 망양(望洋)의 탄식²⁷이 있었다. 그런데 내 자신이 생각지도 않게 빈자리를 채워 군자의 수레를 타느라²⁸ 사액(詞掖)에서 혈지(血指)를 하게 되었으니²⁹ 이것이 어찌 세도(世道)를 개탄할 일이 아니겠는가? 이제 공

사가독서(賜暇讀書)에 선발되었고, 사헌부 지평에 임용된 상태에서 갑자기 졸하였다. 문집인 《소암집》이 전한다.

- 26 훈고(訓詁) : 《상서(尙書)》 〈요전(堯典)〉·〈대우모(大禹謨)〉·〈이훈(伊訓)〉·〈탕고(湯誥)〉 등의 글을 병칭한 전모훈고(典謨訓詁)의 약칭으로, 성현의 말씀 즉 경전의 글을 뜻한다.
- 27 망양(望洋)의 탄식 : 자기의 좁은 소견으로는 엄청나게 높은 식견을 따라갈 수 없다는 말이다. 《장자(莊子)》 〈추수(秋水)〉에서, 강물 귀신 하백(河伯)이 북해(北海)에 이르러 그 무한한 경지를 접하고 바다 귀신 약(若)에게 자기의 처지를 토로하는 말에서 유래하였다.
- 28 군자의 수레를 타느라 : 원문의 ‘부승(負乘)’에서 부(負)는 짐을 짊어지는 것으로 소인(小人)이 하는 일이고, 승(乘)은 수레로서 군자(君子)가 타는 것이다. 아랫자리에 있어야 할 소인이 윗자리에 있으면 화를 당한다는 것을 비유한 것으로, 《주역》 〈해괘(解卦) 육삼(六三)〉에 “짐을 짊어져야 마땅할 소인이 도리어 수레를 타니 도적을 맞게 될 것이다.”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 29 사액(詞掖)에서…되었으니 : 옥당(玉堂)의 대제학(大提學)이 되었다는 뜻으로, 택당의 겸사(謙辭)이다. 사액(詞掖)은 승문원의 별칭 또는 문사(文詞)를 담당한 관서를 두루 이르는 말이다. 혈지(血指)는 공구를 다루는 데 서툰 목수는 자신의 손에 피를 나게 한다는 말로, 자신의 문장 솜씨가 매우 거칠다는 것을 표현하는 겸사이다. 한유(韓愈)의 〈제유자후문(祭柳子厚文)〉에 “서투른 목수가 나무를 깎으면 손가락에 피가 흐르고 얼굴에 땀이 나는데, 교장은 곁에서 구경하며 손을 옷소매 속에 움츠리고 있다.[不善爲斲, 血指汗顏, 巧匠傍觀, 縮手

의 두 자제가 서문으로써 나에게 요청하였는데 아마도 이는 내 관직 때문이지 내 학문 때문은 아닐 것이다. 부처의 머리에 똥칠을 하게 되었으니³⁰ 부끄러움이 없을 수 있겠는가?

공의 휘(諱)는 찬한(纘韓)이며 자는 선술(善述)로 천품이 매우 뛰어난 데다 문무(文武)의 재략(材略)이 있어서 그 관리로서의 재능을 작은 고을에 약간 시험한 것만으로도 분명하게 장·조·습·황(張·趙·龔·黃)³¹의 풍도가 있었다. 문장에 발현된 것도 대개 근본이 있었을 것이니, 아, 애석하도다.

신사년 초겨울에
덕수(德水) 이식(李植)³²은 삼가 쓰다.

원문

昔，蘇長公論文，以孔子辭達一句爲宗旨。說者謂達者，達其意也，詞止於達，不必宏肆奇麗之爲尙，是固然矣，然惟物之不齊，理之殊也。意有遠近，

袖間.]”라고 하였다.

- 30 부처의…되었으니 : 훌륭한 글의 첫머리에 변변찮은 서문을 써서 그 글을 욕되게 만들게 되었다는 겸사이다. 송(宋)나라 구양수(歐陽脩)가 《오대사(五代史)》를 지었는데, 어떤 사람이 서문을 지어 앞머리에 붙이려 하자 왕안석(王安石)이 말하기를 “부처의 머리 위에 어찌 똥을 바른단 말인가.”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隱居通議 卷18 作文法度》
- 31 장·조·습·황(張·趙·龔·黃) : 한(漢)나라 때 지방 관원으로 나가 훌륭한 정사를 펼쳤던 장창(張敞)·조광한(趙廣漢)·공수(龔遂)·황패(黃霸)를 각각 병칭한 말이다.
- 32 이식(李植) : 1584~1647. 본관은 덕수(德水), 호는택당(澤堂)이고 자는 여고(汝固)이다. 대사간, 대사성, 대사헌, 형조 판서, 이조 판서, 예조 판서 등을 역임하였다. 문장에 뛰어나 신흠(申欽)·이정귀(李廷龜)·장유(張維)와 함께 한문사대가(漢文四大家)로 꼽혔다. 저서에 《택당집》 등이 있다.

辭有險易。自虞，夏，商，周之文，尚有渾噩詰屈之不同，況有屈宋以來，六義派分，群軌並鶩，均之各言其志，無闕於理，而輪蹄之飾致遠，虎豹之斑章采，斯不亦文之至哉。國朝敦尚經訓，文辭爾雅韓蘇之文，以近爲範，而秦漢諸家宏麗之體，猶未備也。逮隆萬以後，作者數公，一大振之，唯時繼而和之者，有玄洲趙公，蔚爲名家。其學於古無所不蒐，故其文於古無所不備。上蹈兩漢，下籍六朝，而亦不失孔氏辭達之旨。既俯就場屋，大擅屠龍之譽，其應製館閣之作，皆倚馬立成，而一時諸彥，莫之先也。世方期以狎盟文囿，揭旗鼓先多士，而沛有餘地矣，不幸仕不遇時，浮沈州縣數十年，其有得有喪，欣戚不平，一寓於佔畢。故其出不窮而語益奇。惜其天球弘璧，翳鬱於蓬蒿沙磧之間，徒使田氓牧豎，見其光怪而疑駭之，豈知爲東序之珍，照乘之寶，而承奉之哉。今有克家二郎君，得保遺稿於兵火之餘，敘次爲帙，以圖琬琰之傳。余每讀而偉之，就評其略，騷賦則步驟楚漢，散文雜著則格法左馬，偶儷之篇則深得徐庾聲律，詩大篇廣韻則杜韓馳騁之餘也。摠之光景高朗，材幹瓌瑋，其縱橫奔放，若不可畔岸，而融化屈折，各有體裁，往往情艷機動，境與神會，若笙磬相宣而有遺音。噫，公之於斯藝，可謂富有之矣。至於橙林時有朽株，武庫不無剗鋒，古今大家所不能免。而後生窺識，妄生疵摘，若是者，公已迥然任之矣。公之所師友，盡一世宗匠。最與深者，吾東嶽叔父及石洲權公，而踈庵任君爲其次。公之文，兼有數公之長，而無偏至之目，可見其大矣。植也材學晚進，汨沒訓誥，中年，雖獲從公游，荷一言之提警，其於古文大家，常有望洋之歎。不自意承乏負乘，血指詞掖，茲豈非世道之慨也。今二郎君索以序引，殆是以官而不以學。佛頭布糞，可無忤乎。公諱績韓，字善述，天稟絕人，有文武材略，其吏能之少試於下邑者，焯然有張趙襲黃之風，其發於文章者，蓋有所本，於乎惜哉。辛巳初冬，德水李植，謹敘。

《현주선생집》 서

玄洲先生集序

옛날에 글을 짓는 문학가 중에는 작자(作者)라고 칭하는 이들이 시대마다 각각 있었다. 하지만 시(詩)와 문(文)은 체제가 달라서 대체로 한쪽만 치우치게 짓는지라 사(詞), 부(賦), 변려(駢儷)를 모두 잘할 수 있는 이는 드무니, 최근에 찾아보건대 또 얼마나 수가 적었는가. 영원히 이어질 업적은 또한 어렵도다.

현주(玄洲) 조 선생(趙先生)이 수립한 바를 삼가 살피건대, 옛날 작자의 무리가 모든 문체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한 것이라고 할 만하다. 선생은 세상에 태어나 타고난 재주가 출중하여 남달리 고고하고 호방했기에 어린 시절부터 훌륭한 명성이 이미 성대하였다.

조금 자라서는 천고의 세월을 헤치며 거슬러 올라가 제자백가(諸子百家)에 널리 통달하였다. 그리하여 그 정화(精華)를 거두어들여 시문이 풍성하고 화려해졌으며 흥을 퍼뜨려 탁월하고 특출해져서 재주가 넘쳤던 육기(陸機)³³처럼 문사가 계속 이어져 다하지 않았다. 그리고 말을 다듬어 아름답게 글을 지으면서 난삽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사이사이 넣은 점은 또 검각산(劍閣

33 육기(陸機) : 원문은 ‘陸海’인데, 남조(南朝) 양(梁)나라 종영(鍾嶸)의 《시품(詩品)》에 “육기의 문재는 바다와 같고, 반악(潘岳)의 문재는 강과 같다.[陸才如海, 潘才如江.]”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山)이 가로놓여 있고³⁴ 첩첩의 높은 산이 뒤섞여 우뚝한 듯해서 사람들이 궁구할 수 없었다.

한 번 조정을 환히 비추어서³⁵ 천 명 중에 으뜸이 되어 그 성가(聲價)가 한 시대를 경도되게 하였으니, 조정의 모든 관리들 중에 추중하고 존송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어울리는 벗들 중에 절차탁마하면서 영향을 주고받고 형제처럼 지내면서³⁶ 서로 화답한 이는 석주(石洲) 권필(權鞞)과 동악(東嶽) 이안눌(李安訥)이었다. 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 상공은 또 선생과 가장 친밀하고 돈독하여, 깊은 곳에 은거하며 드물게 밖에 나왔으나 유독 조 선생과는 때때로 왕래하였다.

먼 곳과 가까운 곳에서 책 상자를 짊어지고 온 선비들이 선생을 양모하여 의탁함에 한결같이 다 나아오게 해서 진작하게 하시니, 그 배우는 자리³⁷를 통하여 과거에 좋은 성적으로 급제해서 명망

34 검각산(劍閣山)이 가로놓여 있고 : 이백(李白)의 <촉도난(蜀道難)>에 “검각산이 험준하게 우뚝 솟아 있으니, 한 사내만 관문을 지키면 만 명의 사내라도 열지 못한다.[劍閣崢嶸而崔嵬, 一夫當關, 萬夫莫開.]”라고 하였다.

35 한…비추어서 : 원문은 ‘一揆天庭’인데, 좌사(左思)의 <촉도부(蜀都賦)>에서 “문재를 펼쳐 조정을 환히 비췄다.[摛藻揆天庭]”라고 한 것에 근거한 표현이다. 여기에서는 현주(玄洲)가 과거에 급제하여 그 문재가 조정에 드러났다는 말인 듯하다.

36 형제처럼 지내면서 : 원문은 ‘薰簾’인데, 이는 질나발과 젓대를 합한 말로 형제간에 친애하여 화목함을 이른다. 《시경(詩經)》<소아(小雅) 하인사(何人斯)>에 “형은 질나발을 불고, 동생은 젓대를 부네.[伯氏吹燠, 仲氏吹簾.]”라고 하였다.

37 배우는 자리 : 원문은 ‘函丈之間’인데, 강학하는 자리나 스승 등을 뜻한다. 《예기(禮記)》<곡례(曲禮)>에 “음식을 대접할 손님이 아니면 자리를 펼 때 자리 간격을 한 길 정도로 한다.[若非飲食之客, 則布席, 席間函丈.]”라는 말에서 유래하였다.

(名望) 있는 사람이 된 자가 한돌이 아니었다. 재주 없는 나이지만 외람되어 선생의 인도를 받았는데, 그 문하에 달려갈 때마다 늘 선생의 책 읽는 소리를 들었다. 당시 선생은 이미 나이 많은 스승으로서 세상의 존중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학업에 부지런하였으니, 한유(韓愈)가 “공부가 깊은 자는 그 명성이 오래도록 전해진다.”라고 한 말³⁸이 어찌 믿을 만하지 않겠는가.

선생이 증원에서 채찍을 잡고 활집을 잡았다면³⁹ 탁월한 재주를 지닌 문인이라도 반드시 한 걸음 양보하지 않았다고는 못할 것이다.⁴⁰ 그러나 조정의 높은 자리에서는 뜻을 이루지 못하여, 날면서 날개를 다 펼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금마문(金馬門)과 백호관(白虎觀)⁴¹에

38 한유(韓愈)가…말 : 한유의 <답유정부서(答劉正夫書)>에 나오는 말이다.

39 증원에서…잡았다면 : 춘추시대 진(晉)나라 중이(重耳)의 고사이다. 망명 중이던 중이가 초(楚)나라에 이르렀을 때, 훗날 자신의 도움으로 진에 돌아가면 어떻게 보답하겠냐는 초자(楚子)의 물음에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진나라와 초나라가 군대를 거느리고 증원에서 만났을 때 군주를 위해 삼사를 물러나겠습니다. 그래도 전쟁을 중지하지는 군주의 명을 들을 수 없으면, 왼손에는 채찍과 활을 잡고 오른쪽에는 활집과 전등을 차고서 군주와 겨루어 보겠습니다.[晉楚治兵，遇於中原，其辟君三舍。若不獲命，其左執鞭弭，右屬囊韃，以與君周旋。]” 《春秋左氏傳 魯僖公23年》 여기에서는 현주가 중국의 뛰어난 문장가들과 재주를 겨루어 본다는 뜻이다.

40 한…것이다 : 송(宋)나라 구양수(歐陽脩)의 <여매성유(與梅聖俞)>에 “소식(蘇軾)의 글을 가져다 읽다가 나도 모르게 땀이 났다. 장쾌하고 장쾌하도다! 이 늙은이는 마땅히 길을 피해서 그에게 한 걸음 앞서 나가게 해야겠다.[取讀軾書，不覺汗出，快哉快哉！老夫當避路，放他出一頭地也。]”라고 하였다.

41 금마문(金馬門)과 백호관(白虎觀) : 금마문은 한나라 때 궁문 이름으로, 학사들이 조서를 기다리던 곳이다. 문 옆에 동(銅)으로 만든 말이 있어서 금마문이라 불렀다. 《史記 卷126 滑稽列傳》 백호관은 후한(後漢) 장제(章帝) 때 박사(博士)와 의랑(議郎) 등이 모여서 경사(經史)

서 문채가 나게 글을 다듬는 재주⁴²를 펼치지 못하였고 지방관으로 나가거나 변방을 지키며⁴³ 가장 훌륭한 다스림의 공적을 드러냈을 뿐이니, 천리마의 다리는 끝내 묶이고 쇠귀를 잡지 못한 것⁴⁴과 같았다. 아, 어찌 명이 아니겠는가. 어찌 명이 아니겠는가.

선생에게는 유집(遺集)이 있으니, 시가 두 권, 변려문이 한 권, 부와 문도 한 권씩이다. 시율(詩律)이 조화를 이루어서 높이 이백(李白)과 두보(杜甫)의 유풍(遺風)을 따랐고, 옥과 금을 나란히 늘어놓은 듯하여 노조린(盧照鄰)과 낙빈왕(駱賓王)의 방에 충분히 들어갔다.⁴⁵ 상세

를 토론하던 곳이다. 《後漢書 卷3 章帝紀》

- 42 문채가…재주 : 원문은 ‘潤色之才’인데, 글을 꾸며서 문채가 나게 하는 재주를 말한다. 《논어(論語)》〈헌문(憲問)〉에 “공자가 말하길 ‘정나라에서 외교문서를 만들 때는 비침이 초안을 작성하고 세속이 검토하여 따지며 행인인 자우가 수식하고 동리의 자산이 윤색하였다.’라고 하였다. [子曰, 爲命, 裨諶草創之, 世叔討論之, 行人子羽修飾之, 東里子產潤色之.]”라고 하였다.
- 43 지방관으로…지키며 : 원문은 ‘銅魚玉麟’이다. 동어는 동어부(銅魚符)의 준말로, 지방관이 차는 물고기 모양의 구리 부신(符信)이다. 옥린은 옥린부(玉麟符)의 준말로, 기린 형상을 새긴 옥 부신이다. 수 양제(隋煬帝)가 번자개(樊子蓋)의 공로를 가상히 여겨서 그에게 옥린부를 만들어 주며 동수(銅獸) 대신 차게 하여 특별한 우대를 표시했다. 《隋書 卷63 樊子蓋傳》 동수는 변방을 지키는 장수의 부신이다. 여기에서는 현주가 여러 고을의 수령을 지내고 삼도 토포사(三道討捕使)가 되었던 일을 가리킨다.
- 44 쇠귀를…것 : 옛날에 제후들이 회맹(會盟)할 때는 쇠귀를 잘라 구슬쟁반에 담고 그 피로 삼혈(歃血)하였는데, 회맹의 맹주(盟主)가 쇠귀가 담긴 쟁반을 잡고 삼혈 의식을 주도하였다. 쇠귀를 잡는다는 것은 여기에서 온 말로, 어떤 영역에서 영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뜻한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애공(哀公) 17년에 “제후의 회맹에서 누가 쇠귀를 잡는가. [諸侯盟, 誰執牛耳?]”라고 하였다.
- 45 노조린(盧照鄰)과…들어갔다 : 방에 들어갔다[入室]는 것은 학문이나 기예가 높은 수준에 이르렀음을 말한다. 공자(孔子)가 자로(子路)를

히 서술한 글⁴⁶은 양웅(揚雄)과 사마상여(司馬相如)의 궤적을 따랐고, 말을 모아 엮은 글⁴⁷은 한유(韓愈)와 유종원(柳宗元)에 뿌리를 두었다. 이에 기이하면서도 운치가 있었고 힘벽하면서도 속이지 않아서 옛 사람이 견할 수 없었던 것을 선생은 겸하여 지녔으니, 또한 훌륭하지 않은가.

또 서법(書法) 배우기⁴⁸를 좋아하여 해서(楷書)와 초서(草書)가 경쾌하고 날렵해서 우군(右軍) 왕희지(王羲之)의 서법을 깊이 터득하였다. 무예 또한 적을 두려움에 떨며 복종하게 할 수 있었으나, 형클어진 실마냥 어지럽던 발해(渤海)를 다스린 공수(龔遂)처럼 지방을 다스리며 조금 시험해 보았을 뿐이다.⁴⁹ 어찌 하늘은 재능을 내림에는 이렇듯 온전하였으면서 그것을 펼치게 하는 데는 인색하게 구는 듯하였는가. 아, 고관(高官)을 여럿 배출한 집안 출신으로⁵⁰ 큰 길에서 말을 달리듯 공명과 부귀를 누린 자가

칭찬하며 “유는 당에 올랐으나 실에는 아직 들어가지 못하였다.[由也升堂矣, 未入於室也.]”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論語 先進》 여기에서 현주의 변려문 솜씨가 노조린이나 낙빈왕(駱賓王)의 수준까지 올랐음을 말한다.

46 상세히 서술한 글 : 부(賦)를 말한다.

47 말을…글 : 문(文)을 말한다.

48 서법(書法) 배우기 : 원문은 ‘臨池’이다. 동한(東漢) 때 초성(草聖)이라 불렸던 장지(張芝)는 집안의 모든 의복(衣帛)에 글씨를 쓰고 난 뒤 누이게 하였는데, 연못가에서 글씨 연습을 해서 못물이 모두 검어졌다고 한다. 《晉書 卷 36 衛恒傳》

49 형클어진…뿐이다 : 한 선제(漢宣帝)가 공수(龔遂)에게 발해의 혼란을 잠재울 방법을 묻자, 공수가 “저는 난민을 다스리는 것은 형클어진 새끼줄을 푸는 것과 같아서 서두를 수 없다고 들었으니, 오직 천천히 한 뒤에야 다스릴 수 있습니다.[臣聞治亂民猶治亂繩, 不可急也, 唯緩之, 然後可治.]”라고 답하였다. 《漢書 卷89 循吏傳 龔遂》

50 고관(高官)을…출신으로 : 원문은 ‘重金疊紫’이다. 이는 ‘重金兼紫’와

얼마나 많았겠냐만, 그들은 자취도 없이 거의 다 사라져 버렸다. 그런데 선생만은 세상을 떠난 지 이미 오래이나 명성은 더욱 드러나고 있으니, 아마도 조물주가 선생에게 누리게 해 준 것은 저기에 있지 않고 여기에 있는 듯하다.

선생의 큰아들인 용궁 현감(龍宮縣監) 조휴(趙休) 공이 선생의 문집을 간행하려 하면서 나에게 머리글을 지어달라고 부탁하였는데, 불행히도 그가 갑자기 죽어 버렸다. 이에 선생의 막내아들인 학사 조비(趙備)가 지방관 자리를 청하여 임실 현감(任實縣監)이 되어서 비로소 글을 새길 수 있었다. 그가 천릿길에 편지를 보내온 것이 두세 번이었는데 서문을 구하는 뜻이 매우 간절하였으니, 내가 이에 어찌 슬퍼하고 탄식하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선생과 지난날 교류하던 벗들은 다들 벌써 구천(九泉)에 있으니, 훌륭한 이에게 서문(序文)을 부탁하는 일⁵¹은 아아, 끝이 났다. 진홍색 휘장⁵² 아래 양웅(揚雄)의 후파(侯芭)⁵³와 같은 이가 없

같은 말인데, 한 가문에 황금 인장과 자색 인끈을 찬 사람이 여럿이라는 뜻으로 영화롭고 현달함을 뜻한다. 진(秦)나라와 한(漢)나라 때 열후(列侯) 이상의 사람들은 모두 황금 인장과 자색 인끈을 찼다.

- 51 훌륭한…일 : 원문은 ‘玄晏之托’이다. 현안은 진(晉)나라의 현안 선생(玄晏先生) 황보밀(皇甫謐)을 말한다. 좌사(左思)는 10년에 걸쳐 삼도부(三都賦)를 완성했으나 당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았는데, 현안 선생이 그를 위해 서문을 써 주자 세상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 《晉書 卷92 文苑列傳 左思》
- 52 진홍색 휘장 : 후한(後漢)의 마융(馬融)이 호사스러움을 좋아하여 언제나 높은 당상에 앉아 진홍색 비단 휘장을 치고 생도들을 가르쳤다고 한다. 후에 진홍색 휘장[絳帳]은 사문(師門)이나 강석(講席)의 경칭(敬稱)으로 쓰였다. 《後漢書 卷90上 馬融列傳》
- 53 양웅(揚雄)의 후파(侯芭) : 원문은 ‘子雲之侯芭’인데, 자운은 한나라 양웅의 자이고 후파는 양웅의 제자이다. 양웅은 가난하고 술을 좋아

있던 것은 아니지만, 지금 남은 자로는 그저 부제학 신천익(愼天翊)⁵⁴과 나 같이 쓸모없는⁵⁵ 자가 있을 뿐이다. 문단에 쓸 사람이 없기에 대신 맡아서⁵⁶ 외람되어 이 일을 담당하였다. 아, 내가 어찌 감히 하겠는가. 또 어찌 감히 하지 않겠는가.

더구나 나에게서는 감회가 있다. 선생은 일찍이 관직을 떠나 교하(交河)에 한가로이 살면서 호숫가에 작은 정자를 짓고는 내게 명하여 기문을 짓게 하고 그것으로 만년의 기약을 삼았으니, 누추한 나의 집 또한 선생의 집과 서로 바라볼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 있었기 때문이다. 호숫가의 작은 정자는 전과 같은데 세대는 이미 변하였으니, 지난 자취를 더듬으며 책을 마주하여 거

하여 찾아오는 이가 드물었는데, 거록(巨鹿) 사람 후파만이 항상 그를 따르다가 《태현경(太玄經)》과 《법언(法言)》을 전수받았다고 한다. 그는 또 양옹이 죽은 뒤에 분묘를 세우고 삼년상을 치렀다고 한다. 《前漢書 卷87 揚雄列傳》

- 54 신천익(愼天翊) : 1592~1661. 자는 백거(伯舉), 호는 소은(素隱)이다. 아버지는 진사 신인(愼謹)이며, 어머니는 이용(李溶)의 딸이다. 1612년(광해군4) 증광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홍문관정자 등을 거쳤으나 광해군의 실정에 사직하고 전남 영암에 은거했다. 문장과 시부(詩賦)에 능하여 송시열(宋時烈)도 찬탄하였으며, 아우 신해익(愼海翊)과 함께 문명(文名)을 크게 떨쳤다. 저서로 《소은유고(素隱遺稿)》가 있다.
- 55 쓸모없는 : 원문은 ‘樗散’인데, 저력산목(樗櫟散木)의 줄임말이다. 쓸모가 없어서 베이지 않고 천수(天壽)를 누리 가족나무와 상수리나무라는 말인데, 쓸모없고 재능이 없는 사람을 비유한다. 《莊子 逍遙遊, 人間世》
- 56 쓸...맡아서 : 《춘추좌씨전》 성공(成公) 9년에 일시(逸詩)를 인용하며 “비단실이나 삼실이 있더라도 골풀이나 락풀을 버리지 말라. 지체 높은 여인이 있더라도 미천한 여인을 버리지 말라. 모든 군자는 인재가 부족하면 대신 쓰이지 않는 일이 없나니. [雖有絲麻, 無棄菅蒯. 雖有姬姜, 無棄蕉萃. 凡百君子, 莫不代匱.]”라고 하였다.

답 더 통곡한다.

세사 을미년(1655년, 효종6) 가을 7월 초사흘.⁵⁷
문하 원임 영의정 이경석(李景奭)⁵⁸이 삼가 서문을 쓰다.

원문

古昔操觚之家, 以作者稱之者代各有之. 而詩文異體, 類多偏造, 詞賦駢麗, 鮮克全美, 求諸輓近, 又何寥寥. 不朽之業, 其亦難矣. 竊觀玄洲趙先生之所樹立, 可謂古作者之徒而全其美矣, 先生生而秀發, 遠邁不群, 自髫年華問已大. 稍長披邇千古, 博綜百氏. 擷英瞻縟, 播興超峻, 纒纒不竭如陸海之充羨. 珥言瑋撰, 間以詰屈, 亦猶劍閣橫絕, 重巖錯峙, 人莫得以窮也. 一揆天庭而冠千人, 聲價傾一代, 薦紳諸公, 莫不推挹. 儕友中切磨浸灌, 壘篋迭和者, 石洲, 東嶽. 而清陰相公, 又最親厚, 深居簡出, 而獨時時與先生還往. 遠近負笈之士嚮風投歸, 一皆進之而作興之, 由函丈之間而闡巍科爲聞人者非一二. 雖以景奭之不才, 辱先生之提拔, 每趨門墻, 輒聞先生讀書聲. 時先生已以老師爲世所重, 而其勤於業如此, 韓愈氏之言曰, 用功深者, 其收名也遠, 詎不信歟. 如使鞭橐中原, 宗工哲匠, 未必不交讓一頭. 而青冥蹭蹬, 蜚不盡翰. 金馬白虎未展潤色之才, 銅魚玉麟徒著治行之最, 驥足終曷, 牛耳莫執. 嗟乎, 豈非命也, 豈非命也. 有遺集, 詩二卷, 駢語一卷, 賦與文亦各一卷.

57 초사흘 : 원문은 ‘哉生明’이다. 《서경(書經)》〈주서(周書) 무성(武成)〉의 주에 “재는 비로소이다. 비로소 밝음이 생기니, 그 달의 초사흘이다. [哉, 始也. 始生明, 月三日也.]”라고 하였다.

58 이경석(李景奭) : 1595~1671. 호는 백헌(白軒), 자는 상보(尙輔). 할아버지는 이수광(李秀光)이고, 아버지는 이유간(李惟愷)이며, 어머니는 고한량(高漢良)의 딸이다. 김장생(金長生)의 문인이다. 병자호란 때 어명으로 〈삼전도비문(三田渡碑文)〉을 지었는데, 이 때문에 훗날 심한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문장과 글씨에 뛰어났다. 저서로 《백헌집(白軒集)》이 있다. 시호는 문충(文忠).

諸宮叶商，高追李杜之風，駢球儷金，優入盧駱之室。敷陳則軌乎楊揚馬，纂言則根於韓柳。奇而有致，險而不詭。古人之所不能兼者，先生兼有之，不亦偉乎。且喜臨池真草，翩翩深得右軍之法。武亦可以威敵，而薄試於渤海之治繩。何天之賦材也若是其全矣，而其施之也如有慳焉乎。噫，向者重金疊紫，躍馬高衢者何限，而磨滅殆盡。惟先生沒已久而名益彰，豈造物者之餉先生，不在彼而在此也。先生長胤龍宮使君公，將梓文集，屬余引之，而不幸使君奄物。季胤學士乞縣爲任實宰，始得剞劂之。千里書來者再三，徵序甚勤，余於此，烏得不悲且慨也。先生舊游，皆已九京，玄晏之托，吁其已矣。絳帳之下，非無子雲之侯芭，而今存者，只有慎副學天翊，如余樗散。代置詞林，猥當此事。噫，余何敢爲。又何敢不爲。且余有所感矣。先生嘗閒住交河，築小亭於湖上，命余記之，以爲晚歲之期，蓋陋舍亦相望也。湖小依舊，人代已變，撫迹對卷，重爲之增慟也。歲舍乙未秋七月哉生明，門下原任領議政李景奭，謹序。

현주집

제1권

五言古詩 오언고시

오언고시 五言古詩

쉬파리를 미워하다

憎蒼蠅

가장 미워하는 것은 쉬파리니	莫憎者蒼蠅
때를 만나 제멋대로 설치는구나	乘時恣橫行
날마다 늘어나고 또 날마다 불어나니	日蕃日又息
수많은 무리들이 이루어졌네	百千徒黨成
봄을 맞아 비로소 뿔뿔거리며 날더니	方春始薨薨
가을 뒤에도 여전히 앵앵거리며 날고 있네	秋後猶營營
밤에는 대들보나 벽에 모였다가	夜以集樑壁
촛불을 가까이 대면 갑자기 소리 내며 날아가네	近燭乍飛鳴
혹은 밝은 달빛 별빛 따라	或因月星白
어지러운 무리 창문가로 뛰어들고	亂陣投窓楹
아침 햇살이 창으로 비쳐들자마자	朝光纔入牖
힘껏 날아올라 소리가 시끄럽네	決起聲闐轟
모이고 흩어지며 번갈아 속이고 능멸하니	散聚互欺陵
나를 귀머거리나 장님처럼 본 것일세	視我如聾盲
혹은 코끝의 땀을 삼키려고	或嚼鼻端汗
투닥투닥 어지러이 다투고	撲撲相紛爭

혹은 어깨와 목 사이를 빨려고	或吮肩項間
어지럽게 침범해 과감히 나를 업신여기네	攘攘敢侮輕
혹은 자고 난 뒤의 눈곱 찾느라	或探睡餘漚
속눈썹 깨물고 눈동자 뒤지며	噉睫窮其睛
혹은 귓속의 귀지를 먹으려	或嚙耳中聾
들락날락 앵앵 소리를 내지	出入聲鬨鬨
달게 잘 때야 수모를 당해도 내버려 두지만	酣眠任受侮
팔을 휘두르며 자주 법석을 떨었고	奮臂頻搖傾
부채질에 지쳐 억울하게 침묵하기도 하지만	冤嘿倦塵扇
때로 버럭 소리 지르며 성내기도 한다네	恚呼時一聲
일어나 서서 옷이나 자리 쥐고서	起立攬衣席
신속하게 대문 밖으로 몰아내는데	揮霍驅閑閤
잠깐 쫓겨났다가 곧 일제히 몰려오니	乍出卽齊入
처음에 가득 찼던 무리 또다시 그득하네	始滿還復盈
또한 사사명의 적군이	還如賊史軍
수양성을 유린한 듯하네 ¹	蹂躪睢陽城
품 안으로 뛰어들어 교묘히 속옷 ² 을 뚫고	投懷巧穿褌
엉덩이와 등 사이로 제멋대로 돌아다니네	臀脊恣遶縈
때로는 숨 쉬는 사이에	時於呼吸間

-
- 1 사사명(史思明)의…듯하네 : 당(唐)나라 현종(玄宗) 때 안록산(安祿山)과 사사명(史思明)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진원 현령(眞源縣令) 장순(張巡)과 수양 태수(睢陽太守) 허원(許遠)이 수양성(睢陽城)에서 소수의 병력을 이끌고 반란병을 맞아 잘 싸웠으나, 성이 포위된 지 몇 달이 지나도록 구원병이 오지 않고 양식도 떨어져 장렬하게 함께 순국한 일을 가리킨다.
- 2 속옷 : 원문에 '휘(褌)'로 되어 있으나 문맥상 '곤(褌)'의 오기로 보인다. 수정하여 번역하였다.

목구멍에 걸려 침에 섞여 나오기도 하지	胃喉隨唾呈
누린내 좋아하여 회와 구운 고기 있는 데 두루 가보고	慕羶遍膾炙
냄새를 쫓아 요리한 음식을 더럽히네	逐臭汚割烹
떼를 이끌고 소반과 사발에 진을 치고	携朋列盤盂
무리를 끌고 와 술잔과 술 단지 엿보네	挈儔窺杯甕
흰 구더기 낳아 몇 번이나 젓갈 위를 덮었던고	產白幾覆醢
검은 점을 찍으러 자주 흰 옥에 다가가네	點黑頻薄瓊
그 가운데 푸른 두건을 쓴 놈 ³	其中綠幘者
입과 눈이 가장 날카롭고 흉악하지	口眼最利獍
측간을 밟던 다리로 날아서	翻將踏廁股
빙빙 돌다가 밥과 국에 내려앉네	回回坐飯羹
어린애 곤하게 낮잠을 잘 때	嬰兒困晝睡
코가 가려워 깨어 울고 마네	鼻痒驚啼嗥
미인은 새벽 화장 그만두니	美人罷曉粧
경대를 내던지고 낮은 등잔 등진다네	投奩背短檠
시녀는 부채를 휘두르는 일에 지쳐	侍婢倦揮箑
적삼 소매로 찻잔을 가리네	衫袖掩茶觥
더운 기운 올라오는 낮고 습한 땅을 좋아하고	熏蒸喜卑濕
밥을 찢 때면 솔을 쫓아가지	饋餼逐鼎鑊
활동과 휴식은 밤낮의 시간을 따르고	動息隨夜晝
성함과 쇠함은 흐린 날 갠 날과 상관 없네	盛衰無陰晴

3 푸른…놈 : 푸른 두건은 총애 받는 신하의 복식이다. 《문선(文選)》에 실려 있는 심약(沈約)의 〈삼월삼일술이성편(三月三日率爾成篇)〉의 주석에 “푸른 두건은 총애받는 신하의 관이다.[綠幘, 寵臣之冠.]”라는 말이 보인다.

아 너희들의 숫자는 헤아릴 수 없으니 ⁴	嗟爾麗不億
나의 마음이 어찌 평안할 수 있으리	我懷焉能平
참으로 몰아낼 방법이 없어	驅除諒無術
다만 회화가 수레를 재촉해 가기를 ⁵ 원하노라	但願羲催征
어찌하면 유생들을 파내고	焉得掘儒生
너희들을 함양의 구덩이에 묻을까 ⁶	填爾咸陽坑
작은 무리들 매우 시끄러우니	多口劇群小
어찌 시인의 평을 벗어나리오	寧免風人評
일찍이 가시울타리에 앉았던 모습을 풍자했거니와 ⁷	曾刺止棘態

-
- 4 숫자는…없으니 : 원문의 ‘려불억(麗不億)’은 숫자가 매우 많다는 뜻이다. 《시경》〈문왕(文王)〉에는 “상나라의 자손들이 그 수가 억뿐만 아니었다.[商之孫子, 其麗不億.]”라고 하였다.
- 5 회화(羲和)가…가기를 : 회화(羲和)는 중국 신화에 나오는 신으로, 태양을 실은 마차를 몰고 다닌다. 회화가 여섯 마리 용이 끄는 수레를 타고 날마다 우연(虞淵)까지 왔다가 여섯 마리 용을 되돌린다고 한다. 《山堂肆考 卷2 扶桑》 따라서 세월이 빨리 흘러가는 것을 말한다.
- 6 어찌하면…묻을까 : 《사기(史記)》 6권 〈진시황본기(秦始皇本紀)〉에 의하면, 진(秦) 승상 이사(李斯)는 ‘유생들이 옛것을 들어 현재를 비난하고, 사적인 학문을 가지고 조정의 정사를 비방하는 습관을 금지 시켜야 한다.’라고 청하였다. 그러자 진 시황은 이사의 건의를 받아들여 진기(秦記)·의약(醫藥)·복서(卜筮)·종수(種樹) 등의 서적을 제외하고 민간에 소장되어 있는 모든 서적을 불태우라고 명하였다. 그다음 해에 방사(方士)와 유생(儒生)이 선약(仙藥)을 구하지 못하자, 노생(盧生) 등이 도망갔는데, 진 시황이 노하여 함양에 있는 유생 460여 인을 구덩이에 밀어 넣어 생매장하였다. 진 시황의 이 일[焚書坑儒]을 전거로 하여 파리에 대한 미움을 표현한 것이다.
- 7 일찍이…풍자했거니와 : 《시경》〈소아(小雅) 청승(青蠅)〉에 “앵앵거리는 쉬파리 가시나무에 앉았도다. 참조하는 이 끊임없이 참언하여 사방의 나라를 교란하도다.[營營青蠅, 止于棘, 讒人罔極, 交亂四國.]”라고 하였다. 이 시는 주나라 대부가 유왕(幽王)을 풍자한 시로, 어진 사람이 소인의 비방과 무함을 받는다라는 내용이다.

몇 번이나 제녀를 놀라게 했던가 ⁸	幾教齊女驚
구양수는 부를 지어 배척하였고 ⁹	歐子賦以斥
한유는 시로써 밝혔다네 ¹⁰	韓公詩以明
비록 만물에 대해 비난할 것은 없으나	雖云物無間
쉬파리를 미워하지 않는 것은 인정이 아니라네	不憎非人情
하늘은 도리어 무엇 때문에	上天顧何意
이들을 길러서 모기 등애와 무리 짓게 하는가	育此黨蚊蠛
나고 나서 멈추지 않으니	生生且不已
만고토록 근심할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네	萬古愁黎庶
누가 천하를 크다고 하는가	誰言四海大

- 8 몇 번이나…했던가 : 《시경》〈제풍(齊風) 계명(雞鳴)〉에 “닭이 이미 운지라 조정에 신하가 가득합니다 하니, 닭이 우는 것이 아니라 창승의 소리로다.[雞既鳴矣, 朝既盈矣. 匪雞則鳴, 蒼蠅之聲.]”라고 하였다. 이는 제나라의 어린 왕비가 밤에 임금을 모시다가 날이 썰 무렵이면, 임금을 깨워 정사에 최선을 다하라고 경계하는 노래이다.
- 9 구양수는…배척하였고 : 송(宋)나라 구양수(歐陽脩)가 쉬파리를 소인에 비겨 미워한다는 뜻을 담아 〈증창승부(憎蒼蠅賦)〉를 지었다. 그는 이 글에 “파리야, 파리야, 나는 너의 살아감을 슬퍼하노라. …네 형체는 지극히 작고 네 욕심은 채우기 쉬우니, 술잔에 남은 찌꺼기나 도마 위에 남은 비린 것 정도로 바라는 바가 아주 적고, 이보다 지나치면 감당하기가 어렵다. 그런데도 괴로이 무엇을 구하기에 부족해서 종일토록 뽁뽁거리며 다니느냐. 냄새를 좇고 향기를 찾아서 이르지 않는 곳이 없어 잠깐 사이에 모여들곤 하니, 누가 서로 일러준단 말이나.[蒼蠅蒼蠅, 吾嗟爾之爲生. …形至眇, 爾欲易盈, 盃盃殘瀝, 砧几餘腥, 所希杪忽, 過則難勝. 苦何求而不足, 乃終日而營營, 逐氣尋香, 無處不到, 頃刻而集, 誰相告報.]”라고 하였다. 《古文眞寶 後集》
- 10 한유는 시로써 밝혔다네 : 한유(韓愈)의 시에 “아침에는 파리를 쫓아도 소용이 없고, 저녁에는 모기를 몰아낼 수도 없네. 파리와 모기가 세상에 가득하니, 어떻게 모조리 때려잡을 수 있겠는가.[朝蠅不須驅, 暮蚊不可拍. 蠅蚊滿八區, 可盡與相格.]”라고 하였다. 《韓昌黎集 卷7 雜詩》

누가 천지를 광대하다 하는가	誰言天地宏
이 벌레를 피할 길이 없으니	無由避此蟲
천하가 좁다고 길게 탄식하네	長吁隘八紘
비록 그렇긴 하나 어찌 오래 버틸 수 있으랴	雖然詎能久
사물의 이치에는 성함과 쇠함이 있는 법	物理有粹榮
인간 세상 구월 시월엔	人間九十月
눈과 서리가 종횡으로 교차하며 날리네	雪霜交飛橫
한강에선 얼음이 다리를 만들고	江漢冰成梁
변화한 시가엔 매서운 한기 맑다네	九衢凝寒清
이 무리는 어디에서 죽었을까	此輩何處死
추운 참새는 굶주려 울어대네	凍雀飢嚶嚶
방안이 쓸어버린 듯 깨끗하니	一室淨如掃
바둑판 같은 모습 딱 좋아라	政好圍棋枰
거미줄에 걸린 것들 때때로 보는데	時見掛蛛網
말라 죽은 것들이 서가에 떨어지기도 하네	枯死落書棚
왕왕 햇볕 드는 벽 틈에	往往陽壁罅
조용히 모여 있어 어리석은 삶을 불쌍히 여기네	靜集憐癡生
흡사 원개 ¹¹ 의 조정에서	恰如元凱朝
사흉 ¹² 이 벼슬자리 피하는 것과 같구나	四凶避簪纓

11 원개(元凱) : 요(堯) 임금 때 고양씨(高陽氏) 아들 여덟이 다 어질고 재능이 있어 그들을 팔개(八凱)라고 하고, 고신씨(高辛氏)에게도 그러한 아들 여덟이 있었는데 그들은 팔원(八元)이라 했다는 데서 온 말로, 어질고 유능한 사람들을 가리킨다. 《春秋左氏傳 文公18年》

12 사흉(四凶) : 요(堯) 임금과 순(舜) 임금 때의 네 악인(惡人)인 공공(共工), 환도(驩兜), 삼묘(三苗), 곤(鯀)이다. 《서경》〈순전(舜典)〉에 “공공을 유주(幽洲)에 유배하고 환도를 숭산(崇山)에 유치(留置)하고 삼묘를 삼위(三危)로 몰아내고 곤을 우산(羽山)에 가두어 네 사람을 죄

이로부터 알겠네 더위와 추위가 옮겨감에	從知寒暑推
성쇠라는 일정한 길이 있음을	否泰有常程
내 오두막을 깨끗이 하는 것만 못하며	不如淸吾廬
내 집 용마루를 높이는 것만 못하겠군 ¹³	不如崇吾薨
몸을 눕혀 대자리에 누워서	倒身臥竹簾
고시를 때로 읽다보면	古詩時目耕
파리가 날개 늘어뜨리고 피하는 걸 보게 되니	方看側翅避
어찌 또다시 심사를 어지럽히려	肯復擾心兵
모기는 비록 지극히 미미하지만	蚊蟲雖至微
또한 초명을 용납할 수 있다네 ¹⁴	亦能容鷓鴣
미워하지도 않고 또 사랑하지도 않으면	不憎亦不愛
나의 거처는 편안하고 평온하리	吾居安且寧
무엇 때문에 애정과 증오로써	胡爲以愛憎
도량이 작다는 걸 보이리오	器量示硜硜
창승편을 지어서	爲作蒼蠅篇
걱정으로 애타는 이 마음을 위로한다네	慰此憂惓惓

주니, 천하가 다 복종하였다.”라고 하였다.

- 13 용마루를…못하겠군 : 파리는 낮고 습한 땅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 14 모기는…있다네 : 원문의 ‘봉(鷓)’은 ‘명(螟)’의 오자이다. 《안자춘추(晏子春秋)》〈외편(外篇)〉에 “초명(鷓螟)이라는 아주 작은 벌레가 모기의 속눈썹에 둥지를 틀고 사는데, 날아서 들락거려도 모기는 놀라지 않는다.[東海有虫，巢於蚊睫，再飛而蚊不爲惊.]”라는 내용이 있다.

통곡하고 싶구나 2수

欲哭 二首

통곡하고 싶으나 통곡할 수 없고	欲哭不可哭
말하고 싶으나 어찌 차마 말하라	欲說那忍說
태어나 임진년을 만나니	生逢壬辰年
우리 가족 이로부터 결별하였네	我家從此訣
동쪽의 봉화에 밤은 대낮 같았고	東烽夜如晝
조정에선 병사 점고를 재촉하였지	廊廟催點閱
성읍들에선 적의 기세 보고 다투어 달아나니	列城競望風
못 개미들이 개미구멍으로 다투어 내달리는 듯	群蟻爭奔穴
강한 예봉에 뛰어들 사람이 없고	強鋒入無人
급한 형세는 불길이 맹렬한 듯	急勢炎火烈
임금과 신하 도읍을 버리니	君臣棄都邑
눈에 눈물이 맺혀 가는 수레 헤매네	淚眼迷歸轍
어머니는 아들 손을 잡고서	慈母執子手
대청에서 내려와 나직이 오열하셨네	下堂泣啜啜
형 세 분과 누이 한 사람	三兄與一妹
나와 함께 모두 목이 메었지	及我皆哽咽
부축하고 이끌어 산성으로 내달리니	扶携走城山
머리를 감싸 안고 달릴 때 마음에선 열이 나는 듯	捧頭肝肺熱
승냥이와 호랑이 무리 방자하게 날뛰니 ¹⁵	豺虎恣縱橫

15 승냥이와...날뛰니 : 임진왜란 때 침범한 왜적들이 백성들에게 만행을 저지른 일을 비유한다.

지척에서 제멋대로 깨무는 걸 겨우 면하였네	咫尺免橫嚙
해 저물녘 교하 ¹⁶ 로 향하니	日暮向交河
밤새도록 절뚝거리며 걸었다네	竟夜行蹙蹙
홍포한 폭풍은 이미 뒤에서 요란하니	兇飆已攪後
열 걸음에 여덟아홉 걸음 넘어졌네	十步八九跌
여명에 관가 배에 올라탄 뒤	平明上官舟
다투어 건너느라 힘이 다 빠졌고	競渡力所竭
정오에 질풍을 만나니	亭午觸盲風
생사가 짧은 시간에 결판났네	生死須臾決
고생 끝에 큰 독에 정박하니	艱難泊豐岸
야외의 비가 굶주리고 목마른 이들에게 들이치네	外雨中飢渴
비록 그러하나 등에 어머니를 업고 있으니	雖然背負母
마음엔 잡념이 없고 얼굴엔 기쁨이 넘치네	心死顏融悅
마을에 투숙할 때 이미 캄캄해졌는데	投村已昏黑
쌀가루를 넣지 않은지라 국 마시기 어려웠네 ¹⁷	不糝羹難歠
비틀거리며 송도에 도착할 때는	蹣跚達松都
온 집안사람들 서로 끌고서 갔지	盡室相提挈
아사 ¹⁸ 가 우리 어머니를 맞으니	亞使迎我母
집안 향렬로는 재종질이라네	族行再從姪
두터운 정으로 소금과 쌀을 보내고	殷勤饋鹽米

16 교하(交河) : 경기도 파주 지역의 옛 지명이다.

17 쌀가루를...어려웠네 : 매우 조악한 음식을 먹는 상황을 의미한다. 공자가 진·채(陳蔡)의 사이에서 포위를 당하였을 때에 양식이 떨어져서 7일 동안 화식(火食)을 하지 못하고 콩잎 국[藜羹]에 쌀가루를 타지 못하였다.

18 아사(亞使) : 개성부에서 관찰사를 보좌하던 도사(都事)를 말한다. 도사의 품계는 종5품이다.

정성스러운 뜻으로 술상을 차려주었네	款意杯盤設
우토는 천연의 험한 땅을 차지했으니	牛欄擅天險
지나는 곳마다 모두 험준하다네	所歷悉巉嶮
소나기에 말이 산길에 쓰러졌으니	急雨馬倒嶺
산비탈의 험준함은 구절판 ¹⁹ 보다 심하네	峻坂劇九折
어머니는 내 등에서 우시고	母在我背泣
형과 누이는 번갈아 엎어졌네	僵仆兄妹迭
등반하여 겨우 꼭대기에 올랐는데	攀躋僅上上
갑자기 오던 이가 비웃는구나	忽遇來者哂
어째서 여기를 넘으려 하는가	云胡踰此爲
이곳은 실로 적의 요해처라 말하네	此實賊喉舌
뒤로 가고자 해도 뒤는 너무 험하고	欲後後已阻
앞으로 가고자 해도 앞은 너무 깎아지른 듯	欲前前已截
통곡하며 다시 산길을 내려가니	痛哭還下嶺
벗은 몸엔 한기가 썩늘하네	赤體寒凜冽
외딴 가게에 늙은 부부 있어	孤店有翁媪
우리 형편 고단함을 가엾게 여겼네	憐我勢單子
닭을 잡아 허기진 우리를 위로하고	殺鷄慰苦飢
축축한 옷을 말려주려 썩을 연이어 태우네	燎濕柴仍爇
여름 가을 잇달아 삼베옷을 입으니	夏秋連與麻
오갈 적에 상심하며 걱정하였지	去來憂悒悒

19 구절판(九折坂) : 촉(蜀) 땅에 있는 공래산(邛邛山) 구절판(九折坂)으로, 길이 이리저리 구부러져 험난하기로 유명한 곳이다. 한(漢)나라의 왕양(王陽)이 일찍이 익주 자사(益州刺史)가 되어 순행 중에 구절판에 이르러 “부모가 남겨준 몸을 받들고서 어찌 이렇게 험난한 곳을 자주 다니겠는가.[奉先人遺體, 奈何數乘此險.]”라고 탄식한 후에 병을 이유로 돌아섰다는 고사가 전한다. 《漢書 卷76 王尊傳》

짙은 암컷 새처럼 활시위 소리에 놀라고 ²⁰	驚弦似羈雌
속박 당함은 포승줄에 묶인 것보다 심하네	局束甚縲綫
산과일을 밤에 주워오고	山果夜拾取
들풀은 아침에 캐어 왔네	野草朝采擷
굶주린 창자 채워도 만족을 모르니	飢腸充不饜
탐욕스러운 마음은 도철 ²¹ 을 본받은 듯	貪饒效饕餮
차마 어머니의 굶주림을 보지 못하여	不忍視母餓
마을을 찾아가 문 앞에 섰다네	尋村立門闌
사람을 보고 양식을 구걸하려 하니	見人欲化糧
얼굴은 붉어지고 입은 재갈을 채운 듯 더듬네	面紅口箝啞
팔월 아오탄에선	八月阿吾灘
허겁지겁 서두르다 고생길에 지쳤다네	蒼黃困拮据
형은 이때 역병을 앓아 말랐는데	兄時病瘠瘦
땅에 누워 구토하고 설사하네	偃地嘔且泄
적의 칼날이 이미 뒤따라 왔으니	賊刃已跟隨
부모 형제 죽어서 이별하게 될 듯하네	骨肉應死別
나는 어머니를 업고 십 리를 달아났는데	我負走十里
내 목구멍에선 숨이 자주 끊어졌네	我喉氣頻絕
어머니도 차마 앞으로 나가지 못하시고	母亦不忍前
돌아보고 다시 살피느라 가다가 또 멈추시네	顧復行且輟
풀을 엮어서 푸른 소나무 아래 머무니	構草滯青松

20 짙...놀라고 : 일찍이 화살에 짙을 잃고 활시위 소리만 들어도 놀라는 암컷 새처럼 과거의 피해 받은 일 때문에 자주 놀라는 사람을 비유한다.

21 도철(饕餮) : 전설상의 탐욕스럽고 잔학한 괴물의 일종으로,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악수(惡獸)이다. 종종 탐욕스러운 사람을 비유할 때 쓰이기도 한다.

흐르는 달빛을 등졌다네	流光負盈缺
다 떨어진 옷은 허벅다리를 가리지 못하는데	餘鶉未掩骼
북풍은 다시 횡횡 불어 왔다네	朔吹還淅淅
춡다고 부르짖을 때 무릎은 어깨보다 높고	呼寒膝高肩
얼굴은 얼어 터지고 손은 갈라졌네	面皴手龜裂
어머니 나를 향해 우시는데	慈顏向我啼
누더기 옷 터진 채로 손을 호호 부셨네	呵手綻百結
숨이 터져서 -원문 1자 결락- 물고기 비늘이 늘어선 듯하니	絮破口鱗開
조금 민망초와 삼주로 막았다네	細將蓬薊塞
선달에야 비로소 남쪽 지방으로 가려 하니	臘月始圖南
춡고 배고파 돌아가려는 마음 절실하였네	凍餒歸心切
아들 하나는 임금의 일에 달려가서	一子赴王事
효성을 옮겨 신하의 절조를 구하려 하였지 ²²	移孝求臣節
서쪽과 남쪽으로 갈라지는 기로에 갑자기 이르니	岐路忽西南
까마귀 울음소리에 피가 맺혀 있는 듯하네 ²³	慈烏啼有血
밤에 적의 참호를 지나노라니	賊壕夜經過
심장과 간이 비수에 부서지는 듯	心肝腐寸鐵
입을 딱 다물고 잔학한 적들을 뚫고 가니	銜枚突蛇豕

22 아들…하였지 : 현주의 형 조위한(趙緯韓)은 1592년(선조25)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김덕령(金德齡)을 따라 종군하였다.

23 까마귀…듯하네 : 현주가 피난 중 어머니를 걱정하는 심정을 표현한 것이다. 백거이(白居易)가 <자오야제(慈烏夜啼)>에서 까마귀의 효성을 노래하여 “까마귀가 그 어미 잃고, 까악 까악 구슬피 우누나. 밤낮으로 날아가지 않고, 해가 지나도록 옛 숲을 지키네. 밤이면 밤마다 한밤중에 우니, 듣는 이 눈물로 옷깃을 적시네. …까마귀여 까마귀여, 새 중의 증삼이로다. [慈烏失其母, 啞啞吐哀音. 晝夜不飛去, 經年守故林. 夜夜夜半啼, 聞者爲沾襟. …慈烏彼慈烏, 鳥中之曾參.]”라고 하였다. 《白香山詩集 卷1》

숨이 헐떡거리며 목이 메는 듯하네	喘息類含噎
약한 계집종은 가지 못하니	弱婢行不得
추위의 위세가 이미 뼈에 사무쳤네	寒威骨已徹
차마 도중에 죽는 이들을 차마 보랴	忍見半道死
오그라든 시신이 언 자라와 같네	縮屍如凍鼈
고생하며 애써 용성 ²⁴ 에 다다르니	辛勤抵龍城
생활의 구차함도 싫지 않네	不惡生理拙
황량한 옛집이 남아 있고	荒涼舊業餘
울타리도 아직 전부 뜯어내지 않았네 ²⁵	藩籬未全撤
기뻐하는 모자의 즐거움	怡怡母子樂
아마도 헤어지지 않을 수 있으리	庶可保鬪契
요기는 사라지려 하고	妖氛向披翳
해와 달은 다시 밝게 빛나도다	日月再昭晢
반악의 수레 ²⁶ 를 잡는 일은 비록 그만두었지만	潘輿雖罷攀
증삼의 솥도 벌려 놓지 못함을 ²⁷ 탄식하였네	曾鼎嗟未列

24 용성(龍城) : 전라북도 남원(南原)의 옛 명칭이다. 용성이 남원의 별호라고 처음 지칭한 것은 《고려사(高麗史)》〈지리지(地理志)〉에서이다. 그러나 고려 시대에는 남원을 가리키는 말로 용성이라는 말이 널리 사용되지는 않았다. 남원을 가리키는 말로 용성이 널리 사용된 것은 조선 시대에 들어와서이다.

25 황량한…않았네 : 남원은 선영이 있는 현주의 고향이다.

26 반악(潘岳)의 수레 : 진(晉)나라의 반악(潘岳)이 어머니를 모실 때 쓰던 가마라는 뜻으로, 고을 수령이 되어 어머니를 봉양한다는 뜻으로 쓰인다. 반악의 〈한거부(閑居賦)〉에 “태부인을 판여에 모시고, 가벼운 수레에 오르시게 한 뒤, 멀리 궁성을 유람하고, 가까이 집안 정원을 소요하게 해드린다.[太夫人乃御板輿, 升輕軒, 遠覽王畿, 近周家園.]”라고 하였다. 《晉書 卷55 潘岳列傳》

27 증삼의…못함을 : 증정(曾鼎)은 증삼(曾參)의 솥인데 이는 아마도 자로(子路)의 솥을 잘못 인용한 듯하다. 공자의 제자 자로가 “내가 옛

색동옷 입고 춤추는 일 ²⁸ 도 마치지 못했는데	未了舞綵服
순식간에 상복을 입었다네	奄忽加縗經
자식의 도리로는 입신양명의 효 ²⁹ 를 등졌고	子道負立楊
나라 위한 계획은 후직·설 ³⁰ 과 어긋났네	國計違稷契
온갖 험한 일 실컷 두루 맛보았노니	險阻苦備嘗
평생은 한순간에 부칠 만하구려	平生付一瞥

날에 아버지를 모시고 있을 때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나는 되는데로 거친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아버지를 위해서는 백 리 밖에서 쌀을 등에 지고 오곤 하였다.[爲親負米百里之外]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높은 벼슬을 하여 술을 늘어놓고 진수성찬을 맛보는 신분[列鼎而食]이 되었는데, 다시 거친 음식을 먹으면서 아버지를 위해 쌀을 지고 왔던 그때의 행복을 이제는 느낄 수 없게 되었다.”라고 술회한 고사가 있다. 《孔子家語 致思》

- 28 색동옷…일 : 춘추 시대 말엽 초(楚)나라 은사(隱士)인 노래자(老萊子)는 효자의 모범으로 이름났다. 70세에 어린아이처럼 색동옷을 입고 부모 앞에서 어리광을 부려 부모를 즐겁게 하였다. 한번은 부모가 보고 있을 때 국그릇을 들고 당으로 올라가다가 넘어지자 땅바닥에 누워 어린애의 울음소리를 내었고, 부모 곁에서 새 새끼를 가지고 놀았다고도 한다. 《藝文類聚 卷20 人部 孝》
- 29 입신양명(立身揚名)의 효 : 원문의 ‘양(楊)’은 ‘양(揚)’과 통용되는 글자이다. 《효경(孝經)》〈개종명의장(開宗明義章)〉에 “이 몸은 모두 부모님에게서 받은 것이니 감히 다치지 않게 하는 것이 효의 시작이요, 자신의 몸을 바르게 세우고 바른 도를 행하여 이름을 후세에 드날림으로써 부모님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효의 마지막이다.[身體髮膚, 受之父母, 不敢毀傷, 孝之始也. 立身行道, 揚名於後世, 以顯父母, 孝之終也.]”라고 하였다.
- 30 후직(后稷)·설(契) : 순(舜) 임금의 두 현신인 농관(農官) 기(棄)와 사도(司徒) 설(契)을 합칭한 말로, 두보의 〈자경부봉선현영회오백자(自京赴奉先縣詠懷五百字)〉 시에, “두릉에 포의의 신하가 있으니, 늙어가매 뜻이 더욱 졸렬해라, 몸을 기약함이 어찌 그리 어리석은지, 나름대로 후직과 설에 비교한다오.[杜陵有布衣, 老大意轉拙. 許身一何愚, 竊比稷與契.]”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계절은 저물어 가는 시절에 속하는데	天時屬晚晚
산하엔 아직도 눈 내리네	山河猶雨雪
오랑캐를 평정하는 데 어찌 계책이 없으리오	平戎豈無策
누가 나라의 준걸인가	誰是邦之傑
경전을 복습하다가 새 날아간 일 ³¹ 을 깨닫고	尋經悟色學
주역에 점을 찍다가 우물 친 일을 슬퍼하네 ³²	點易悲井渫
만사가 슬프고 고통스러울 만하나	萬事足悲辛
이 슬픔이야말로 자잘한 게 아니로다	此悲非屑屑
날을 아껴도 ³³ 날이 머물지 않으니	愛日日不留
희화의 수레 ³⁴ 는 아득하여 끌어당길 수 없네	羲車杳莫掣
아스라한 곳에 홀로 우뚝 섰으니	蒼茫表獨立
곤궁한 처지의 시름은 아득한 바다를 떠도네	窮愁轉溟渤
통곡하고자 하나 통곡할 수 없으니	欲哭哭不可
당신을 위해 한 곡을 부르노라	爲君歌一闋

-
- 31 새 날아간 일[色學] : ‘색거(色學)’는 《논어》〈향당(鄉黨)〉에 “새가 사람의 기색을 보고 날아올라 한참을 빙빙 돈 뒤 내려와 앉는다.[色斯學矣, 翔而後集.]”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여기서는 새처럼 기미를 살피 움직여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다는 것이다.
- 32 우물…슬퍼하네 : 《주역》〈정괘(井卦) 구삼(九三)〉에 “우물을 깨끗이 치웠는데도 먹어 주지 아니하여 내 마음을 슬프게 하도다.[井渫不食, 爲我心惻.]”라고 하였는데, 공영달(孔穎達)은 주석에서 “자신을 잘 수양하여 고결하게 되었으나 등용되지 못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였다. 자신이 학문을 통해 수양하였으나 등용되지 못하는 현실을 슬퍼한다는 의미이다.
- 33 날을 아껴도 : 한(漢) 양웅(揚雄)은 《법언(法言)》〈효지(孝至)〉에서 “효자는 날을 아낀다.”라고 하였다.
- 34 희화(羲和)의 수레 : 고대 신화에 따르면 희화(羲和)가 새벽마다 여섯 마리의 용이 끄는 수레에 태양을 싣고 용을 몰아 허공을 달려 서쪽의 우연(虞淵)에까지 이르러 멈춘다고 한다. 《山海經 卷10 大荒南經》

통곡하고자 하나 통곡할 수 없고
 말하고자 하나 어찌 차마 말하랴
 살아서 정유년 가을을 만났으니
 이 난리는 하늘이 만든 거라네
 호남 영남 사람 다 전멸하게 되었고
 견용³⁵은 거의 서울을 함락했네
 나는 이때 금성³⁶에 있었는데
 사태를 파악하는 게 참으로 빠르지 못했네
 아들 없는 숙모를 염려했으니
 과부로 살면서 병들고 늙으셨지
 배를 마련해 온 식구를 태우고서
 돛을 펼쳐 바닷속 섬으로 들어갔네
 닻을 내리고 삼향³⁷에 쉬었는데
 바닷가 진지 부서진 보루에 가까웠네
 원수가 출정의 기일을 놓쳐서
 적들은 들이닥쳐 곧장 칠 형세였지
 우리 배를 향해 시끄럽게 떠드니
 간이 사그라지고 입술이 바삭 마르네
 두세 명의 평생 벗
 눈앞에서 도륙 되었다네
 늙고 병든 숙모를 허둥지둥 모시고 가니
 달아나려다 넘어지고 거꾸러졌네

欲哭不可哭
 欲道那忍道
 生丁丁酉秋
 喪亂天所造
 湖嶺入塵糟
 犬戎幾陷鎬
 我時在錦城
 見事苦不早
 無男念叔母
 孀居病仍老
 具舟載一室
 張颿入海島
 下碇憩三鄉
 海戍近殘堡
 元戎失師期
 賊逼勢直搗
 嗷嘈向我船
 肝銷口吻燥
 平生二三友
 目下剔肝腦
 遑忙奉老病
 欲走顛且倒

35 견용(犬戎) : 견용은 고대 응족(戎族)의 한 부류인데, 여기서는 왜적을 가리킨다.

36 금성(錦城) : 전라남도 나주(羅州)의 옛 지명이다.

37 삼향(三鄉)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면 일대를 가리킨다.

창졸간에 처자식을 잃으니	蒼卒失妻兒
하늘에 물을 길이 없었네	無由問窮昊
종들은 다 흩어져 달아나고	僕徒盡散走
갓난아기 강보에서 울어대는데	赤子啼襁褓
차마 길가에 버리지 못하고	不忍棄道周
직접 혼자 안고 기어갔네	匍匐手自抱
밤에 승달산 ³⁸ 을 넘으니	夜踰承達山
젖을 못 먹은 아이는 계속 울어대네	呱仍絕乳夭
사방에 적의 불빛이 벌거니	四面賊火紅
몸을 장차 어떻게 보존해야 하나	身首將安保
피하여 달아나려 낮엔 가파른 산에 오르고	避奔晝上岬
몸을 보호하러 밤엔 풀 섞에 의지하네	庇身夜依草
몰래 승냥이 호랑이 굴을 통과하니 ³⁹	潛穿豺虎窟
위험에 이르지 않은 적이 없네	岌險無不到
아내 ⁴⁰ 는 흉한 칼날에 세상을 떠났으리라 생각하니	謂妻已凶鋒
혈혈단신으로 부질없이 슬퍼하네	子子空自悼
굶주림이 극도에 이르고 갈증도 심하니	飢極渴亦甚
눈으로 살피도 흑백을 구별 못 하네	目視昧白阜
앞길을 물을 데가 없으니	前途問莫憑
하늘을 우러러 말없이 기도할 뿐	仰霄唯默禱
밤이 깊어 갑자기 사람을 만났는데	夜深忽遇人

38 승달산(承達山) : 전라남도 무안군에 있는 산 이름이다.

39 몰래...통과하니 : 왜적의 소굴을 지나감을 비유한다.

40 아내 : 현주의 첫 번째 부인인 류씨(柳氏)로 지평(持平) 은(澗)의 딸이다. 정숙(貞淑)하고 부도(婦道)가 있었는데, 정유재란(丁酉再亂) 때 왜적을 만나 스스로 목을 찌르고 죽으니 나주(羅州) 초곡(草谷)에 장사 지냈다.

나를 보고 놀라며 위로하네	見我驚且勞
나에게 아들이 누구냐고 묻길래	問我子誰某
나는 성명을 알려 주었네	我以姓名告
그는 듣고서 놀라며 말하기를	他聞愕且云
본 바를 알려주길 청합니다	請以所見報
낮에 내가 몽탄 ⁴¹ 을 건널 적에	晝余過蒙灘
노약자들이 다급해 하며 떠들썩하더이다	老弱急且噪
한 부인이 반드시 죽겠다고 다짐하며	有婦誓必死
물에 뛰어들어 세 걸음을 건너군요	赴水足三蹈
여중 두엇이 부여잡고 울다가	數婢扶且泣
물에 빠진 부인을 건져 부엌에서 옷을 말렸지요	拯溺燎于竈
이분이 아무개 집안 부인이라 하던데	云是某家娘
바로 당신의 부인이 아닌지요라 하네	無乃吾兄嫂
과연 그러해서 그곳에 가서 서로 만났으니	果然卽相遇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리네	眼水劇翻潦
생사의 기로에서 다시 만나니	死生得更逢
번뇌가 사라지려는 듯	似欲豁煩惱
옥가락지를 팔아서 나의 허기를 구제하고	賣環救我飢
밥 한 그릇을 늙은 숙모께 드리네	一飯資主姥
나는 이미 그대를 만났으니	我言旣見君
이제부터는 죽어도 좋다고 하였네	自今死亦好
저녁에 흙다리를 향하는데	乘昏向土橋
손을 끌고서 강굽이를 따라갔네	提挈循江陬
적진이 사방에 펼쳐져 있으니	賊壘四羅列

41 몽탄(蒙灘): 전라남도 무안군에 있는 여울 이름이다.

어찌 흰 칼날을 무릅쓰고 가라	白刃詎可冒
힘이 다 빠져 들 가운데 섰다가	力盡立中野
이끌고 부축하여 숲 깊은 곳에 엎드렸네	携扶伏林奧
해 나오자 적들이 고슴도치 털처럼 모여들어	日出賊蝟集
들녘을 모조리 뒤지네	原野窮探討
아내는 사세가 이미 급하니	妻云勢已急
당신은 달아나 도적을 피하는 게 좋겠다고 하네	子可走避盜
내 즉시 적진을 뚫고 나가니	我卽突賊出
종 한 명이 앞장을 섰네	一奴爲前導
탈출하여 험한 길을 가노라니	脫身走峻途
간담이 바람 속 깃발처럼 흔들렸네	膽掉似風纛
적은 떠나고 이미 해는 저서 캄캄한데	賊去已曠黑
새가 알 품던 둥지를 그리워하듯 하였네	如鳥戀巢拖
넝쿨 풀에는 핏자국이 흐릿하고	蔓草血模糊
열 식구의 흔적은 빗질한 듯 사라졌네	十口跡如掃
그대가 엎드렸던 수풀을 찾아가니	尋君所伏林
시신이 풀 더미에 버려져 있네	僵屍委草藁
차던 칼을 목에 꽂았으니	頸插所佩刀
가슴을 치면서 곧은 절개에 통곡하네	搥胸哭貞操
창졸간에 형세가 곤궁하고 군색해져	造次勢窮蹙
진실로 강포한 짓을 면하기 어려웠으리	固難免強暴
차분히 칼로 자살하니	從容齒劍死
장한 절개는 해가 밝게 빛나는 듯	壯節日杲杲
내가 무슨 면목으로 혼자 살까	獨生我何面

죽어 떡모 ⁴² 를 덮을 만하네	死可蒙幘帽
맨몸으로 용진산 ⁴³ 으로 가니	赤身走聳珍
정신은 날로 약해지네	精爽日以耗
굶주림을 참은 지 팔구일	忍飢八九日
발이 부르터서 빨리 걷지 못 하네	足繭行未躁
죽음의 문턱에서 좋은 벗을 만나니	垂死見良友
이별이 안타까워 연연하는 마음 더해졌네	惜別增戀繆
암혈에서 나에게 시를 부쳤는데	巖中寄我詩
지금까지도 그 문채에 감탄한다네	至今歎文藻
하물며 의로운 선비를 얻음에라	何況得義士
금과 옥도 보배가 아니로다	金玉亦非寶
내 비록 면식이 있지 않았지만	我雖不識面
그 스스로 내 성과 호를 안다고 하였네	自言知姓號
열고 주린 내 몸을 거두어	收我凍餒骨
실로 온화한 태도로 먹이고 따뜻하게 해 주었네	煦濡實哺燠
생각지 못했네 썩어버린 창자의	不謂腐餘腸
빈 곳이 곡물로 채워지게 될 줄을	轉朽充梁稻
또한 예상 ⁴⁴ 에서 굶주리다가	還如翳桑餓

42 떡모(幘帽) : 염습할 때에 죽은 사람의 얼굴을 덮어 싸는 형식으로 네 귀에 끈을 달았다.

43 용진산(聳珍山) : 광주시(光州市) 광산구(光山區) 임곡동과 본량동·지산동 경계에 있는 산이다. 장성에서 남쪽으로 내려선 능선이 본량에서 솟아 배산을 이룬다. 동쪽으로 황룡강이 흐르고, 남쪽으로는 어등산과 마주보고 있다.

44 예상(翳桑) : 옛 지명으로 심하게 굶주리는 것을 상징하는 말로 쓰인다. 춘추 시대 진(晉)나라 조돈(趙盾)이 이곳에서 굶주리고 있는 영첩(靈輒)을 보고 먹을 것을 주어 구제해 주었다. 그 뒤에 영첩이 진나라 영공(靈公)의 갑사(甲士)가 되어 위협에 처한 조돈을 다시 구해 주어

배 두드리며 화락하고 자득한 채 ⁴⁵ 누워 있는 것과 같네	叩腹臥熙皞
그 이래로 오랫동안 보지 못하였으니	邇來久不見
가난과 병으로 둘 다 머리 세었으리	貧病兩首皓
전란의 먼지 아직도 가득하고	兵塵尙瀕洞
콩잎만 먹느라 ⁴⁶ 시름 하며 근심하네	食藿憂懔懔
만 번 죽을 위기에서 이 삶을 억지로 지탱하니	萬死強此生
남은 뼈는 이미 누렇게 말랐도다	殘骸已黃稿
마침내 일 년을 보냈으니	居然送寒暑
가을바람에 몇 번이나 대추를 딸까	秋風幾剝棗
어떤 때는 지난 일에 촉발되어	有時觸往事
주르르 눈물 흘리며 후회한다네	汎瀾泣悔懊
통곡하고자 하나 진실로 통곡할 수 없으니	欲哭諒不可
그대를 위해 큰 소리로 노래하노라	爲君歌浩浩

좋은 벗은 석주 권필(權鞞)⁴⁷이고 의사는 김창효(金昌孝)를 가리킨다.

은혜를 갚았다. 《春秋左氏傳 宣公2年》

45 화락하고 자득한 채 : 이에 해당하는 원문 ‘희희(熙熙)는 ‘희희호호(熙熙皞皞)’의 준말로 화락(和樂)하고 자득(自得)한 모양을 말한다. 《노자(老子)》 제20장에 “세속의 중인들 희희낙락하여, 마치 푸짐한 잔칫상을 받은 듯, 봄날의 누대에 오른 듯하네.[衆人熙熙, 如享太牢, 如登春臺.]”라고 하였고, 《맹자》〈진심 상(盡心上)〉에 “성왕의 백성은 자득한 듯하느니라.[王者之民, 皞皞如也.]”라고 하였다.

46 콩잎만 먹느라 : 생활이 곤궁하고 고달픈 것을 말한다.

47 권필(權鞞) : 1569~1612. 호는 석주(石洲),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여장(汝章)이다. 이정귀(李廷龜)가 명나라 사신을 맞게 되어 문사(文士)를 엄선할 때 야인으로 뽑혀 문명을 떨쳤다. 임숙영(任叔英)이 광해군을 비판하는 글로 삭과(削科)된 사실을 듣고 <궁류시(宮柳詩)>를 지어서 풍자한 일로 경원(慶源)으로 귀양가다가 도중에 사망하였다. 조찬한(趙繼韓)·이안눌(李安訥)·허균(許筠) 등과 교류하였다.

명고⁴⁸ 임전 의 고검편⁴⁹에 차운하다

次鳴臯古劍篇韻 任鏞

굳틀굳틀 옛 용의 자태	蠃蠃古龍姿
사람들은 이런 검이 드물다는 걸 알았지	人知是劍稀
차고서 사방의 오랑캐를 굴복시켰고	佩以威四夷
잡고서 여러 겹 포위를 풀었다네	撫以解重圍
지금 세상은 무딘 칼 ⁵⁰ 을 귀하게 여기니	今世貴鉛刀
이 검을 가지고 장차 어디로 갈거나	持是將焉歸
어찌하면 밝은 임금께 바칠 수 있을까	安得薦明主
무소 가죽 칼집은 주옥으로 장식했네	犀甲粧珠璣

48 명고(鳴臯) : 선조 때의 문신인 임전(任鏞, 1559~1611)으로, 명고는 그의 호이다. 본관은 풍천(豐川), 자는 관보(寬甫)이며 성혼(成渾)의 문인이다. 권필과 쌍벽을 이룰 정도로 시명이 높았으나 평생을 거의 재야에서 보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김천일(金千鎰)의 휘하에서 종군하였고, 광해군 때에는 재야에 있으면서 이이첨·정인홍(鄭仁弘) 등을 질척(叱斥)하였다. 문집에 《명고집》이 있다.

49 고검편(古劍篇) : 임전의 《명고집(鳴臯集)》에 실린 <영보검(詠寶劍)>을 말한다. 이 시에서는 보검으로 불우한 인재를 비유하여, “오래도록 용을 잡는 재능을 감추고, 부질없이 복두성을 쓰려는 뜻을 간직했네. 장화를 아직도 기다릴 만하지만, 우선 불평한 마음으로 운다네. [久祕屠龍用, 空含射斗情. 張華猶可待, 聊復不平鳴.]”라고 하였다.

50 무딘 칼(鉛刀) : 원문의 ‘연도(鉛刀)’는 납으로 만든 무딘 칼이다. 가의(賈誼)의 <조굴원부(弔屈原賦)>에 “세상 사람들이 백이를 탐욕스럽다 여기고 도척을 청렴하다 여기며, 막야검을 무디다 하고 연도를 예리하다고 하도다. [世謂伯夷貪兮, 謂盜蹠廉. 莫邪爲鈍兮, 鉛刀爲銑.]”라고 하였다. 이는 소인이 득세하고 군자가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을 비유하는 말이다.

온갖 사악한 것들이 달아날 뿐만 아니라
궁궐에선 눈부신 빛이 일어나리
뇌공⁵¹이 떠난 뒤 불러내는 이 없으니
묻혀 있는 신세 누구에게 의지할까

不惟百邪遁
九重生光輝
雷公去莫呼
埋沒誰因依

51 뇌공(雷公) : 명검을 찾아낸 뇌환(雷煥)을 말한다. 진(晉)나라 때 장화(張華)가 두성(斗星)과 우성(牛星) 사이에 자기(紫氣)가 뻗치는 것을 보고, 뇌환을 보내 풍성현(豐城縣)의 옛 옥사(獄舍)에 묻혀 있던 ‘용천(龍泉)’과 ‘태아(太阿)’ 두 명검을 얻었다.

산곡의 <증취암선사>⁵² 운을 써서 양자점⁵³ 경우 에게 주다
 用山谷贈翠巖禪師韻 贈梁子漸 慶遇

만금을 몽당 빗자루처럼 하찮게 여기고	萬金弊帚輕
깃털 하나는 구정처럼 중하게 여기네 ⁵⁴	一羽九鼎重
쓸모없는 가축나무가 고대광실을 지탱하라	樗堪大廈支
천리마는 북 실은 수레를 끌 때 쓰는 게 아니라네 ⁵⁵	驥非駕鼓用
그래서 광고 ⁵⁶ 동쪽에서	所以廣橋東

- 52 증취암선사(贈翠巖禪師) : 황정견(黃庭堅)의 시 <대서기취암신선사(代書寄翠巖新禪師)>를 가리킨다.
- 53 양자점(梁子漸) : 자점(子漸)은 양경우(梁慶遇, 1568~1629)의 자(字)이다. 그는 호가 점역(點易)이고 본관은 남원이다. 아버지인 양대박(梁大樸)과 함께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켰으며, 시에 뛰어났다. 1616년(광해군8)에는 중시(重試)에 급제하여 홍문관 교리로 승진하였고 이어 봉상시 첨정에 이르렀다. 그 뒤 폐모론(廢母論)이 일어나자 벼슬을 버리고 향리로 돌아와서 학문에만 전념하였다. 저서에 《제호집(濟湖集)》과 《제호설화(濟湖說話)》가 있다.
- 54 구정(九鼎)처럼 중하게 여기네 : 구정은 하우씨(夏禹氏)가 구주(九州)의 쇠붙이를 모아 주조(鑄造)한 아홉 개의 솥으로, 본래는 제왕 혹은 왕조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보배로 여겨지는데, 여기서는 대단히 무거운 물건을 의미한다. 앞 구를 이어 가치가 전도된 세태를 풍자한 것으로 보인다.
- 55 천리마는...아니라네 : 《후한서(後漢書)》 <순리열전(循吏列傳)>에 광무제(光武帝)가 공물로 들어온 천리마를 북 실은 수레에 매어 사용하게 하였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이는 광무제의 검약함을 칭송하는 고사인데 후에는 주로 큰 재능을 작은 일에 사용하는 것을 일컫는다. 여기에서는 작가가 양경우가 제대로 세상에 쓰이지 못함을 비유한 말이다.
- 56 광고(廣橋) : 서울 종로 네거리에서 을지로 사거리 방향으로 나가다가 만나는 청계천을 건너는 조선 시대 다리로 원래 명칭은 대광통교

홀로 남녘 호수 ⁵⁷ 의 꿈을 꾸노니	獨作南湖夢
호숫가 집의 문짝과 담 무너졌고	湖堂扉障圯
흘날리는 눈만 초가집을 스쳐 간다네	洒雪掠茅棟
나그네로 살다가 점차 기예가 다했으니	旅食坐技窮
임기를 줄여 백중일 ⁵⁸ 에 떠났지	縮瓜辭百中
마을 문에 기대선 어머니의 걱정을 ⁵⁹ 가만히 생각하면	靜念倚閭苦
눈물이 콧물과 함께 떨어지지만	淚與涕垂共
위태로운 시기엔 도를 마땅히 숨겨야 하니	危時道宜藏
어찌 전성의 봉양 ⁶⁰ 을 바칠 수 있으랴	那得專城供
어찌하여 현면옹 ⁶¹ 을 데리고 가서	盍携玄面翁
봄철에 호수의 달빛을 완상하지 않는가	湖月春相弄

(大廣通橋)이다.

- 57 남녘 호수 : 양경우(梁慶遇)의 고향인 남원(南原)의 자연경관을 일컫는다.
- 58 백중일(百中日) : 음력 7월 15일로 중원(中元)이라고도 한다.
- 59 마을…걱정을 : 어머니가 마을 문에 기대어 자식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을 이른다. 제나라 왕손가(王孫賈)의 모친이 아들에게 “네가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돌아올 때면 내가 집 문에 기대어 너를 기다렸고, [倚門而望] 네가 저녁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을 때면 내가 마을 문에 기대어 너를 기다렸다. [倚閭而望]”라고 말한 고사가 있다. 《戰國策 齊策6》
- 60 전성(專城)의 봉양 : 자식이 고을 수령이 되어서 부모를 봉양하는 것으로, 사대부들은 이를 매우 영화롭게 여겼다.
- 61 현면옹(玄面翁) : 호가 현주(玄洲)인 작가 자신을 말한다.

호남으로 가는 척형 나수재를 이별하며 주다

贈別戚兄羅秀才之南中

얼음과 눈이 낮은 울타리를 에워싸고	凍雪擁短籬
북풍은 갈대 밭을 뒤집는 듯	朔吹翻葦箔
한기의 위세는 진나라 정사보다 혹독한데	寒威劇秦政
가난한 집엔 온전한 벽이 없구나	磬室無完壁
머리를 움츠리고 손에 입김을 부는 일도 지쳤는데	縮元手慵呵
콧물은 한 자나 드리웠네	鼻涕垂一尺
갑자기 개가 문밖 향해 짖는 소리에 놀라니	忽驚犬吠竇
나가서 남쪽으로 가는 손님을 맞이하네	出邀南歸客
남으로 간다 하니 어느 곳으로 가려는가	南歸何處歸
남원 땅 봄빛이 깃든 강호와 산줄기라 하네	南原湖嶺春
우리 선영이 이 궁벽진 곳에 의지해 있으니	先壘托此荒
벼슬하러 머무름은 나그네로 지내는 것과 같네	宦滯猶旅食
위태로운 때 머무를 곳을 모르니	危時昧稅鞅
눈물이 솟아 구슬처럼 떨어지네	迸淚如珠落
그대의 행차를 부러워하는 까닭은	所以羨君行
멀리서 돌아가 낙토로 나아가기 때문일세	遐旋就樂國
마을도 같고 고향도 같으니	同閭更同鄉
부모 형제처럼 정의가 두터운데	骨肉情況篤
아 반병의 따뜻한 술로	吁無半瓶溫
이 이별의 자리를 위로할 수 없음이여	慰此臨分席
이 이별이 바야흐로 뼈를 녹이는 듯하니	此別政銷骨
손을 맞잡고 나면 다시 적막해지리	握手還寂寞

우선 혼자 돌아감을 원망하지 말자	且莫悵獨歸
넋이라도 쫓아가리라	應有魂相逐
역루에서 새벽달이 나직할 땐	驛樓曉低月
내 마음 분발하던 일 기억하시게	記我精神燭
온 집안 떠나는 일 어찌 더디 하랴	學室去豈遲
한강의 얼음이 풀리기 전에 해야 하리	漢水迨未釋
월파옹 ⁶² 에게 말을 부치노니	寄語月波翁
나를 위해 봄 술을 익혀 두시게	春酒爲我熟

62 월파옹(月波翁) : 현주의 제자인 방원량(房元亮)의 부친이자, 선산(善山) 월파정(月波亭)의 주인인 방덕유(房德諭)를 가리키는 듯하다.

수궁행

守宮行

가주서⁶³로 궁궐을 지킬 때 장난삼아 읊다

내 들으니, 수궁이라는 벌레는	吾聞守宮蟲
세상에서 도롱이라 부른다 하네	世號爲逃龍
등지느러미가 좁고 짧으니	陴促鬚脊短
겨우 약간의 양 ⁶⁴ 으로 받아들일 수 있네	僅以分寸容
진흙 사이에서 도롱을 얻어	得之淤泥間
동이로 만든 연못 ⁶⁵ 속에 놓아두었네	置諸盆池中
조그마한 푸른 이끼에 굴을 파고	窟於小蒼蘚
임시 돌 봉우리에 둥지를 의탁하였네	依巢假石峯
팔팔하여 ⁶⁶ 마치 제 살 곳을 얻은 듯하고	洋洋若得所

-
- 63 가주서 : 원문의 '가주(假注)'는 가주서(假注書)로서, 주서(注書)의 유고 시에 차출되는 승정원의 임시직이다. 주된 임무는 주서와 마찬가지로 《승정원일기》를 기록하고 정리하는 것이다.
- 64 약간의 양 : 원문은 '분촌(分寸)'인데, 분과 촌은 길이의 단위다. 분촌은 1분 1촌이라는 말로 매우 작은 양을 뜻한다.
- 65 동이로 만든 연못 : 원문은 '분지(盆池)'인데, 이는 땅에 동이를 묻고 물을 부어 만든 작은 연못이다. 관상용 수생(水生) 화초를 심거나 물고기를 기른다. 송유(宋儒) 정명도(程明道)가 분지에다 송사리 몇 마리를 키우면서 때때로 관찰하였는데, 어떤 이가 그 까닭을 묻자 "만물이 자득하는 뜻을 보려고 한다.[欲觀萬物自得意]"고 대답했던 고사가 있다.《宋元學案 卷14 明道學案下 附錄》
- 66 팔팔하여 : 원문의 '양양(洋洋)'은 물고기가 팔팔하게 헤엄쳐서 가는 모습이다. 《맹자(孟子)》〈만장(萬章)〉에 맹자가 만장에게 군자는 그럴 듯한 방법으로는 속일 수 있으나 터무니없는 방법으로는 속이기는 어렵다는 가르침을 주면서 정(鄭)나라 대부 자산(子產)과 연못관리인

꿈틀꿈틀 중횡으로 마음대로 돌아다니네	蝮蝮恣橫從
이미 오래되자, 신령하고 괴이함을 만드니	既久做靈怪
안개를 토해서 스스로를 에워싸네	吐霧以自籠
벼락 치는 권한을 성내어 마음대로 부리고	怒擅霹靂權
바람과 불의 절구질을 어지럽게 해 댄다네	勃窳風火舂
벼락을 쳐서 작은 올챙이를 찢어버리니	震礫小科斗
예봉을 당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하네	謂若無當鋒
모르겠노라, 창해 깊은 곳을	不識滄海深
신령한 용이 집으로 삼고	神龍以爲宮
구름을 일으켜서 대지를 덮으며	興雲羃大地
비를 뿌리며 푸른 하늘을 날고	行雨飛蒼穹
맹렬하고 신속하게 세상을 씻어내며	奮迅盪宇內
잠깐 사이에 우레와 바람을 일으키고	睽暘生雷風
귀신처럼 나왔다가 또 귀신처럼 들어가니	神出又鬼入
변화가 또한 끝이 없다는 것을	變化還無窮
그것과 길고 짧음을 비교한다면	與之較長短
붕새와 메추라기처럼 아득하여 같기 어렵네	鵬鷓藐難同
비록 그러하나 이치가 같지 않으니	雖然理不齊

의 일화를 소개하는 구절에 나온다. “옛날 정나라 대부 자산에게 살아 있는 물고기를 선물한 자가 있었는데, 자산이 연못 관리인을 시켜 그것을 못에서 기르게 하였네. 그런데 연못관리인이 물고기를 삶아 먹어 버리고 보고하기를 ‘처음에 고기를 놓아주자 비실비실 하더니, 조금 있자 팔팔해져서 유유히 갔습니다.’ 하니, 자산이 말하기를 ‘제 살 곳을 얻었구나! 제 살 곳을 얻었구나!’ 하였네. …그러므로 군자는 그럴듯한 방법으로 속일 수는 있으나, 터무니없는 방법으로 속이기는 어렵다네[昔者, 有饋生魚於鄭子產, 子產使校人, 畜之池. 校人烹反命曰, 始舍之圉圉焉, 少則洋洋焉, 攸然而逝. 子產曰, 得其所哉. 得其所哉. …故君子可欺以其方, 難罔以非其道.]”라고 하였다.

길흉을 마음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네	吉凶難心澗
용은 혹 세력을 잃으면	龍乎或失勢
육지의 가시나무·개암나무 덤불에 거꾸러진다네	陸倒荊榛叢
까마귀와 까치가 이빨과 뿔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烏鵲噪牙角
땅강아지와 개미가 그 몸을 파먹는다네	螻蟻噉其躬
비록 작은 동이 연못을 생각하겠지만	雖思小盆池
한 자의 물결로는 통할 길이 없네	尺波無由通
도리어 부러워하리라, 너 수궁이	却羨爾守宮
옛 물에서 신령스런 공력 간직하고 있는 것을	舊水藏神功

긴 빙판

長氷坂

진흙탕 마평 ⁶⁷ 을 지나	度了馬坪泥
어렵사리 소점 ⁶⁸ 에 투숙해서 쉬었다네	艱投牛店歇
언 닭이 처마 끝에서 꼬끼오 우니	凍鷄喔簷端
나그네들 서로 불러서 나오네	行旅相呼出
조각달은 산봉우리를 벗어나 높이 떠 있고	缺月脫嶺高
성긴 별은 서로 깜빡거리고 있네	稀星互明滅
허둥지둥 가다가 긴 비탈을 만나자	棲棲抵長坂
오던 사람을 향해서 함께 물어보네	共向來者詰
이르길, “건너기가 매우 어렵고	謂言苦難涉
빙판이 십 리나 미끄럽게 펼쳐져 있으니	氷亘十里滑
사람이 가도 오히려 엎어지는데	人行尙顛仆
발굽 짐승이 어찌 방도를 찾겠는가”라고 하네	獸蹄詎探抉
채찍질에 지쳐 기세는 외롭고 약한데	策疲勢單弱
이 말 들으니 쓸개가 찢어질 듯 겁이 나는구나	聞言怯膽裂
두렵기는 마치 깊은 못에 떨어진 듯	☒悚若墜淵
걸음마다 항상 넘어질까 조심하네	步步常戒跌

67 마평(馬坪) : 마평은 경기도 용인, 파주, 경북 청송 등 여러 곳에 보이는 지명이다. 그런데 조찬한의 <욕곡(欲哭)> 시에서 “해 저물녘 교하로 향하니, 밤새도록 절뚝거리며 걸었다네[日暮向交河, 竟夜行蹻蹻]”라고 하여 이 무렵 지은 시가 임진왜란 때 파주로 피난 가던 정황이 있으므로 이 시의 마평은 파주에 있는 지역으로 짐작된다.

68 소점 : 소 파는 시장을 우시장 또는 소점(牛店)이라 한다. 여기서는 마평의 소점에 있는 객관을 가리키는 듯하다.

앞의 당나귀 넘어져 일어나지 못하는데	前驢未起僵
뒤의 말이 이미 넘어졌다고 알려오네	後馬已報蹶
사내아이 종은 울다가 또 성내다가	僕僮泣且嗔
손을 호호 불며 수습하기를 게을리하네	呵手倦束結
고향 길은 아직도 반 천 리	鄉程猶半千
새해는 이삼일 떨어져 있구나	新歲隔數日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참으로 물러나기도 어려우니	莫前諒難却
목을 웅크리며 마음 불안해하네	縮頸意恍惚

동악 이안눌에게 부쳐서 보내다 선체⁶⁹

寄贈東岳李安訥 選體

아름다운 덕수 이씨 ⁷⁰	嬋媛德水氏
자손들 동쪽 우리나라를 비추고 있네	系胄輝東偏
사문에서는 연현 ⁷¹ 을 얻고서	斯文得蓮軒
아름다운 불꽃을 남기게 되었네 ⁷²	光焰遺便娟
용재공 ⁷³ 이 뒤이어 일어나서	容公遙繼作

69 선체(選體) : 《문선(文選)》에 실린 시문의 문체(文體)이다. 후대에 이를 본받아 지은 시문체를 선체라 한다.

70 덕수 이씨 : 원문은 ‘덕수씨(德水氏)’인데, 이안눌의 본관이 덕수(德水)이기 때문에 덕수씨라 한 것이다.

71 연현(蓮軒) : 이안눌의 고조부 이의무(李宜茂)의 호이다. 택당(澤堂) 이식(李植) <묘지명(墓誌銘)>에 보면 “이씨는 덕수현(德水縣)을 본관으로 하는데 시조(始祖) 돈수(敦守)에서 좌랑(佐郎) 인범(仁範)까지의 6세는 모두 고려에서 벼슬하였다. 또다시 4세가 되는 사간(司諫) 의무(宜茂)는 호가 연현으로 문학(文學)으로 우리 성종(成宗)임금께 지우(知遇)를 받았다[李氏出德水縣, 自始祖敦守, 以及佐郎仁範, 六世皆仕高麗. 又四世而有司諫宜茂號蓮軒, 以文學受知我成廟.]”라고 하였다. 《속동문선》에는 이의무의 시 <옥구현에서 판상운에 차운하다[沃溝縣次板韻], <귀양지에 비오는 밤[謫中雨夜], <가을 밤에 회포를 쓰다[秋夜書懷]> 시가 실려 있어 뛰어난 문재를 확인할 수 있다.

72 아름다운...되었네 : 이의무가 문장으로 당대 문단(文壇)에서 인정받았다는 의미이다.

73 용재공 : 이안눌의 증조부인 이행(李荇:1478~1534)을 말한다. 이행은 본관이 덕수(德水), 자는 택지(擇之), 호는 용재(容齋)·창택어수(滄澤漁水)·청학도인(靑鶴道人), 시호는 문헌(文獻)이다. 1495년(연산군 1)에 증광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예문관 대제학, 공조 판서, 우찬성, 이조 판서, 우의정, 홍문관 대제학 등을 역임하였다. 문장이 뛰어났으며, 글씨와 그림에도 능하였다. 저서에 《용재집(容齋集)》이 있다

시단에서 중권 ⁷⁴ 을 장악하였네	騷壇掌中權
면면히 이어져 3대를 지나자	透迤越三葉
주물하여 진선을 만들어 내었다네	陶鑄生眞仙
뛰어난 봉황이 붉은 산봉우리 ⁷⁵ 에서 내려온 듯	逸鳳下丹岫
하늘의 기린 ⁷⁶ 이 보배로운 채찍을 받은 듯	天麟受寶鞭
다박머리 아이가 씩씩한 부를 제멋대로 펼치니	髻童騁健賦
굴원·사마상여와 웅장한 시편을 다투는 듯	屈馬爭雄篇
글을 펼치면 우아하고 질박함을 세웠고	摛詞樹雅素
미세한 것을 분석하여 현묘한 이치를 캐냈다네	剖微鉤重玄
큰소리로 웃으며 과거급제는 줍듯이 했고	高笑拾科第
빠르게 걸으며 구름 위로 치솟았다네 ⁷⁷	飛步凌雲煙

-
- 74 중권(中權) : ‘중권(中權)’은 중앙에서 권력을 쥐고 있는 중요한 자리를 말한다. 《춘추좌씨전》 선공(宣公) 12년 조에 “중군(中軍)에는 대장이 있어 모의를 해 나가고, 후군(後軍)에는 정병(精兵)이 있어 강하다.[中權後勁]”라고 하였다. 여기서는 시단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의미이다.
- 75 붉은 산봉우리 : 원문은 ‘단수(丹岫)’인데 이는 봉황이 산다는 전설의 산인 단산(丹山) 단혈(丹穴)의 산봉우리를 말한다. 《산해경(山海經)》〈남산경(南山經)〉에 “단혈산에…새가 있는데, 그 모양이 닭과 같고 오색 무늬가 있으니, 이름을 봉황이라고 한다.[丹穴之山…有鳥焉, 其狀如雞, 五采而文, 名曰, 鳳皇.]”라고 하였다.
- 76 하늘의 기린 : 원문의 ‘천린(天麟)’은 ‘천기린(天麒麟)’의 준말로 재주가 뛰어난 어린아이의 미칭이다. 당(唐)나라 유우석(劉馬錫)이 과거를 보러 가는 친구의 아들 장관(張監)을 전송하며 지은 시에 “네가 태어나 처음 대문에 활을 걸었을 때, 나는 돌잔치의 손님이었네. 젓가락을 당겨 국수를 들 때, 하늘의 기린을 글로 축하하였네.[爾生始懸弧, 我作座上賓. 引箸學湯餅, 祝詞天麒麟.]”라고 하였다.
- 77 구름 위로 치솟았다네 : 원문의 ‘능운연(凌雲煙)’은 능운(凌雲)과 같은 말로 “곧바로 구름 위를 오른다.”는 뜻으로 지향(志向)과 의기(意氣)가 초월함을 의미한다. 《사기(史記)》권117 〈사마상여열전(司馬相

진귀한 보물은 하늘이 이루어준 것을 어둡게 하고	至寶昧天成
명예의 길은 귀신이 인색하게 군다네	名塗被鬼慳
뛰어난 재주로 황제의 사신을 접반하였고	絕藝接皇价
오묘한 말로 풍성한 연회자리를 놀라게 하였지	妙語驚華筵
어찌 장상 자리에서 어그러져서	胡違將相間
주현의 지방관으로 막혀 있었는데	鬱滯州縣前
어찌 오직 어진 지방관 ⁷⁸ 뿐이겠는가	豈惟共理良
정녕코, 돌아와서는 부모님을 편하게 봉양했다네	端爲歸養便
하물며 이 금성 ⁷⁹ 땅은	況茲錦城土
본래 이름난 산천이 많음에 있어서라	素多名山川
층층의 산봉우리에는 흰 골수 ⁸⁰ 가 흘러나오고	層岑汨素髓
아득한 언덕에는 붉은 샘물이 날리네 ⁸¹	縹丘飛紅泉

如列傳)에 “사마상여가 이미 대인지송을 지어 아뢰자, 천자가 크게 기뻐하고 나부끼듯 구름 위를 오르는 기상이 있고, 천지 사이에 노니는 듯한 의취가 있다.[相如既奏大人之頌, 天子大說, 飄飄有凌雲之氣, 似游天地之間意.]”라고 한 데서 유래한 말이다.

- 78 어진 지방관 : 원문의 ‘공리(共理)’는 임금이 다스리는 곳을 나누어 함께 다스린다는 뜻으로 지방관을 의미한다. 또한 ‘양(良)’은 《한서(漢書)》〈순리전(循吏傳)〉의 “서민이 향리에서 안정을 취하며 탄식과 근심을 없게 하는 것은 정치가 공평하고 송사가 다스려지는 것이다. 나와 더불어 이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자는 오직 어진 이천 석 태수일 뿐이다.[庶民所以安其田里而亡歎息愁恨之心者, 政平訟理也. 與我共此者, 其唯良二千石乎.]”에서 ‘어진 [良]’을 따온 것으로 이안눌이 수령으로서 정치를 잘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말이다.
- 79 금성(錦城) : 전라남도 나주(羅州)의 옛 이름이다.
- 80 흰 골수 : 계곡의 물줄기를 말하는 듯하다.
- 81 아득한…날리네 : 붉은 샘물[紅泉]은 지하에 있다고 전해지는 샘으로仙境(仙境)을 비유한 것이다. 따라서 이 구절의 내용은 나주가 신선 땅에 버금갈 정도로 경치가 좋다는 의미이다. 한(漢)나라 곽헌(郭憲)이 지은 《동명기(洞冥記)》에 “전설에, 한나라 동방삭이 어렸을 때 우

신선 땅 찾으려 수고하지 않아도	不勞訪眞源
속세의 인연이 사라지는 걸 스스로 깨닫으리라	自覺銷塵緣
섬땅 현령 왕교 ⁸² 도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고	喬葉有前事
구루산의 갈홍도 헛된 것이 아니라네	葛句非徒然
부끄러운 나는 병을 안고서	愧我抱癘瘵
세상에 붙어 살며 곤액만 넉넉하구나	寄世饒蹇連
멀리 바라보며 부질없이 탄식을 하니	遐眺謾悵性
세모에 답답한 마음만 더해가네	歲晏增幽悵
봄이 한창일 때 혹시 남쪽으로 가려하니	春盛尙圖南
밝은 달빛 아래서 함께 거닐어 보세	霞月同周旋

물을 파다가 지하에 떨어졌는데 어떤 사람이 당겨서 신선초를 가게 캐게 하였다. 중간에 홍천이 막혀 건널 수가 없자 그 사람이 나막신 하나를 주어 마침내 홍천을 건너 신선초가 있는 곳에 도착하여 캐서 먹게 하였다. [傳說漢東方朔小時掘井，陷落地下，有人欲引往采仙草，中隔紅泉不得渡，其人以一履與之，遂泛紅泉，至仙草之處，采而食之.]”라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82 섬땅 현령 왕교: 원문의 교섭(喬葉)은 한(漢)나라 섬(葉)땅의 현령(縣令)인 왕교(王喬)를 이른다. 왕교는 신선술을 익혀 매월 초하루에 조정에 올 때마다 오리를 타고 왔다고 한다. 《後漢書 卷82 方術列傳》

양어사⁸³의 초상

楊御史畫像

미친 고래 옛날 육지를 내달릴 때	狂鯨昔奔陸
작은 우리나라 깨물리고 붙잡히느라 괴로웠다네	小藩困蛟攫
하늘이 다행히 돌봐주시어	昊穹幸眷顧
무를 정비하여 다급하게 무너지는 것을 구제해 주셨네	飭武濟崩迫
가려 뽑아서 병권을 주었으니	揀卜授師柄
양공은 주역 팔괘 ⁸⁴ 에 의지하였네	楊公仗皇策
양공은 신선이지 사람이 아닌지라	楊公仙非人
천부적인 용맹이 신묘한 계책과 조화를 이뤘다네	天勇協神畫
신속하니 위엄은 서리와 같고	撤揜威如霜
번쩍하니 악한 기운 그대로 흩어졌네	倏閃氛仍廓
장차 소굴을 텅 비게 하고	方將罄巢窟
다람쥐들 몽땅 척결하려 하였는데	刮剔盡鼯黠
누가 생각했으랴, 대장 깃발 다시 풀어지고	誰意旆還解
적은 있는데 부절이 먼저 바뀌게 될 줄을 ⁸⁵	敵在符先易

83 양어사(楊御史) : 양어사는 명(明)나라 장군 양호(楊鎬)를 말한다. 1597년(선조30) 정유재란(丁酉再亂) 때 경략조선군무사(經略朝鮮軍務使)가 되어 총독(總督) 형개(邢介), 총병(總兵) 마귀(麻貴), 부총병(副總兵) 양원(楊元) 등과 함께 명나라의 원병을 거느리고 참전하였다.

84 주역팔괘 : 원문은 '황책(皇策)'인데《주역(周易)》의 팔괘(八卦)를 풀이한 글을 황책이라 한다.

85 누가...줄을 : 양호가 왜적을 맞아 많은 전공을 세웠으나 명나라 병부 주사(兵部主事) 정응태(丁應泰)가 임금을 속이고 일을 그르쳤다고 모함함으로써, 파직되어 본국으로 송환되었던 일을 말한다.《燃藜室

온 동쪽이 부모를 잃은 듯	舉東失爺孃
일생동안 그리워하였네	終世懷恩澤
제사를 엄숙히 지내도 오히려 경건함이 남았고	肅祀尙餘虔
덕을 새겨도 도리어 빗돌이 부족하였네	銘德還欠石
홀연히 이 그림을 얻었으니 ⁸⁶	忽此得丹青
엄숙함이 이 영토를 비추게 되었네	儼然耀疆場
풍신은 모퉁이 송연해짐을 깨닫게 하고	風神覺竦毛
풍채는 능히 낫을 움직이게 하네	符彩能動魄
우리들은 그림을 우러러 사모하고도	吾人景繪素
오히려 다시 이맥 ⁸⁷ 에게 자랑하네	尙復誇夷貊

記述 卷17 宣祖朝故事本末》《宣祖實錄 31年 8月 1日》

- 86 홀연히...얻었으니 : 당시 선조가 양호를 선무사(宣武祠)에 배향하고 화상(畫像)을 구해오도록 한 기록이 《선조수정실록》 37년 7월 1일 조에 보인다. “상이 비변사에 하교하기를, ‘지난 정유년 남원(南原)이 함락되고 적병이 기세를 몰아 올 때 백성들은 도망쳐 숨고 도성은 놀라 무너졌는데, 양 경리가 평양(平壤)에서 이틀 길을 하루에 달려와서 곧바로 서울로 들어와 여러 장수들을 지휘하여 길을 나누어 적을 쳐서 적이 드디어 패주하였으니, 강토를 회복한 것은 이것이 기틀이 된 것이다. 또 얼음 같은 청렴한 지조는 풀잎 하나 취하지 않았고 호령(號令)이 엄명하여 사람들이 감히 범할 수가 없었는데 불행히 공을 성취하기도 전에 간신에게 모함을 당하였다. 예전에 사당을 세울 때는 반드시 배향(配享)이 있는 것인데 나는 양 경리를 선무사에 배향하고 싶다. 널리 공문을 모아 아뢰라.’ 하니, 대신 이하가 모두 옳다고 하였다. 드디어 배향할 것을 명하였고 동지사(冬至使)로 하여금 그의 화상(畫像)을 구해 오도록 하였다. [上, 下教于備邊司曰: “昔在丁酉, 南原既破, 賊兵長驅, 人民奔竄, 都下驚潰. 楊經理自平壤兼程疾馳, 直入京城, 指揮諸將, 分道擊賊, 賊遂敗逃, 恢復疆土, 此其基也. 且氷蘖清操, 一芥不取, 號令嚴明, 人莫敢犯, 不幸功未就, 而爲奸臣所構陷. 古者立祠, 必有配享, 予欲以楊經理配于宣武祠, 可博采公論以啓.” 大臣以下皆以爲可, 遂命配享, 而令冬至使, 求得其畫像而來.]”
- 87 이맥(夷貊) : 이맥은 중국을 기준으로 동방과 북방에 있는 소수민족

중국 조정은 유독 무슨 행운이던가	聖朝獨何幸
너를 써서 ⁸⁸ 변방에 위엄을 드러냈으니	用汝威沙磧
나는 이 그림을 바쳐서	我願獻此圖
군주의 옆자리를 물색하는데 부응하기를 원하네	物色副側席
변방을 다스린 공과 재상의 업적은	邊功與相業
그 경중이 반드시 가려지리라	輕重必有擇

들을 일컫는 말이다. 여기서는 조선에서 양호의 업적을 주변국들에게 자랑한다는 의미이다.

- 88 너를 써서 : 원문의 ‘용여(用汝)’는《서경(書經)》〈열명(說命)〉에 “은(殷)나라 고종(高宗)이 부열(傅說)을 얻고서 “만일 큰 강을 건너게 되면 그대를 배와 노로 쓸 것이요, 큰 가뭄을 만나게 되면 그대를 단비로 쓸 것이다.[若濟巨川, 用汝作舟楫, 若歲大旱, 用汝作霖雨.]”라고 한 데서 유래한 것으로 훌륭한 신하를 얻어 요긴한 일을 맡겼다는 의미이다.

강가 정자에서 배를 드러내고 누워⁸⁹ 과제

坦腹江亭 課製

봄비 밤에 가볍게 지나가니	春雨夜過微
봄 강물 빛이 집을 비추네	春江光照戶
망건은 게을러 똑바로 쓰지 않고	野幘慵不頂
배를 드러내며 정자에 누웠다네 ⁹⁰	坦腹顏亭宇
푸른 물결은 저대로 넘실넘실	滄波自袞袞
골짜기 구름은 부질없이 모였다 흩어졌다	峽雲空散聚
풀과 꽃들은 향기를 다투고	草卉鬪芳菲
경물들은 교태를 다투네	物象爭媚媮
제철 만난 새들 비 갠 대낮에 시끄럽게 지저귀고	時禽鬧晴晝
즐거운 고기들은 깊은 물풀더미에 들어있네	樂魚投深莽
편안하게 구구 ⁹¹ 를 쉬고	居然息九竅

89 강가…누워 : 두보(杜甫)의 <강정(江亭)> 시에 “배를 드러내고 강가 정자에 눕고, 길게 읊조리며 들에서 바라볼 때.[坦腹江亭臥, 長吟野望時.]”라고 하였다.

90 배를…누웠다네 : 진(晉)나라 태부(太傅) 치감(郗鑑)이 명문가인 왕도(王導)의 집안에서 사윗감을 구할 때 모두 자신을 잘 보이기 위해 애를 썼으나 유독 왕희지(王羲之)만은 평상 위에서 뱃살을 드러내놓고 누워 있었다는 데서 나온 말이다. 《世說新語 雅量》

91 구구(九竅): 몸에 있는 9개의 구멍을 말한다. 얼굴에 있는 일곱 개의 구멍인 양쪽 귀, 양쪽 눈, 양쪽 콧구멍, 입을 양구(陽竅)라 하고, 요도와 항문 두 개의 구멍을 음구(陰竅)라고 한다. 구구의 변화에 대해 《주례(周禮)》 <질의(疾醫)>에서 정현(鄭玄)은 “규가 변하는 것을 ‘열리고 닫히는 것이 정상이 아니다’ 라고 하니 양구는 일곱이고 음구는 둘이다.[竅之變謂開閉非常, 陽竅七陰竅二.]”라고 주석을 단 바 있다.

듬성듬성한 머리로 ⁹² 사람들의 성냄을 거둬들이네	刁騷收衆怒
마음이 고요하기는 무극일 때와 같고	心靜似無極
뜻이 질박하기는 태곳적과 같다네	意素如太古
처마 그림자는 강 깊은 곳에 잠기고	簷影蘸江深
봄날은 정오가 되었네	遲日當亭午
환란은 길이 잊어버리고	喪亂永相忘
한가로움을 여기에서 거두어 취하리라	寬閑此收取
강이 어두워지자 온갖 근심들 모여드니	江隕百憂集
내 고향 땅이 아님을 탄식하네	歎息非吾土

92 듬성듬성한 머리로 : 원문의 ‘조소(刁騷)’는 머리가 드물고 영락한 모양이다. 구양수(歐陽脩)의 <재궁상유잔설운운(齋宮尙有殘雪云云)> 시에 “거울 가져다가 두 귀밑 비추지 마라, 군모는 지금 이미 백발이 듬성듬성하다네.[休把青銅照雙鬢, 君謨今已白刁騷.]”라고 하였다

고한행⁹³ 2수

苦寒行 二首

희화의 채찍 얼어서 휘두르지 못하니 ⁹⁴	羲鞭凍不振
잠시도 따듯함이 머물지 않네	促景無停煦
잠룡은 얼어서 수염이 빠졌고 ⁹⁵	潛龍冰脫髯
바위 구멍에는 새들이 궁색하네	巖竇窮毛羽
누추한 집은 낮에도 문이 열리지 않고	蓬戶晝不開
북풍은 처마 고드름을 나부끼게 하네	朔吹翻懸乳
솜옷을 입었지만 손가락은 이미 떨어질 듯	挾纊指已落
화로를 안았으나 털은 모두 곧추선 듯	擁爐毛盡豎
공자는 사냥 수레를 멈추었고	公子息獵車
산 계곡에는 나무꾼의 도끼소리 끊어졌네	山谿絕樵斧
가난한 선비는 기운 옷을 잡고	貧士攬百結
죽기를 청하니 사는 것이 도리어 괴롭다네	乞死生還苦
정오에 썩그리고 끄꿍대던 것 그만두고	亭午罷噉呻

-
- 93 고한행 : 악부 상화가사(相和歌辭) 중의 하나이다. 위(魏)나라 무제(武帝)가 읊은 <고한행(苦寒行)>에 “북쪽으로 태항산을 오르려니, 힘들구나, 어찌 이리도 높은가[北上太行山 艱哉何巍巍]”라고 하였다. 후대에는 이 시의 첫 구절 북상(北上)을 따서 <북상행(北上行)>이라는 제목으로도 창작되기도 하였다.
- 94 희화의…못하니 : 희화는 전설에서 해가 탄 수레를 몰고 다니는 신이다. 이 구절은 희화가 채찍을 휘두를 수 없기 때문에 태양이 따듯하게 비추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 95 잠룡은…빠졌고 : 한유(韓愈)의 <고한(苦寒)>시 “화성은 귀도를 잃었고, 여섯용은 수염이 얼어서 빠졌네.[熒惑喪躔次, 六龍水脫髯.]”에서 원용한 말로, 매우 혹독한 추위를 뜻한다.

처마 끝에 구부러서 등을 짚이네	炙背簷端俯
아직도 등 짚는 정성 ⁶ 품고 있나니	猶懷負暄誠
어떻게 꺼내어 현명한 임금께 바칠 수 있을까	何出貢明王

96 등 짚는 정성 : 원문의 ‘부훤(負暄)’은 임금을 위해 미력한 힘이라도 바치고자 하는 충정을 비유한 말이다. 《열자(列子)》권7 〈양주(楊朱)〉에 보면 “옛날 송나라에 한 농부가 있었는데 항상 삼베옷을 입고 겨우 겨울을 넘겼다. 봄이 되어 동쪽에 해가 뜨면 스스로 햇볕을 쬐면서 천하에 넓고 큰 집과 아늑한 방, 솜옷이나 여우 갓옷이 있는 줄은 모르고 그 아내에게 돌아보고 말하기를 ‘이 등을 짚는 따뜻함을 아무도 알 사람이 없으리니, 이것을 우리 임금께 바치면 장차 큰 상이 있을 것이다. [昔者宋國有田夫，常衣緇縲，僅以過冬。暨春東作，自曝於日，不知天下之有廣廈隩室綿纊狐貉，顧謂其妻曰，負日之暄，人莫知者，以獻吾君，將有重賞.]”라고 한 고사가 있다.

두 번째

其二

늪은 전욱 ⁹⁷ 이 희화의 수레를 재촉하니 ⁹⁸	老頊促羲輶
북쪽 땅은 현무 ⁹⁹ 를 드날리네	北陸揚玄武
산은 찢어지고 큰 강은 얼어붙었고	山裂洪河凝
기와의 골에는 고드름이 달려있네	瓦溝懸水柱
찬 못에는 칩거한 용이 거꾸러졌고	寒淵倒蝮龍
눈 덮인 굴에는 궁색한 호랑이가 쓰러져있네	雪竇僵窮虎
만물들은 살려는 뜻을 멈추었고	物類息生意
새싹들은 땅속에 웅크리고 있네	萌芽縮九土
온 세상이 모두 추위를 부르짖으니	舉世盡呼寒
아, 너희들 사는 것이 고생이라네	嗟爾爲生苦
나는 일 궁의 솜 ¹⁰⁰ 은 있으나	我有一弓綿

97 늪은 전욱: 전욱은 오제(五帝) 중의 하나인 고양씨(高陽氏)를 말한다. 《예기(禮記)》〈월령(月令)〉에 “겨울을 주관하는 상제(上帝)는 전욱이요, 그 귀신은 현명(玄冥)이다.[其帝顓頊, 其神玄冥.]”라고 하였다.

98 희화의 수레를 재촉하니 : 세월을 빨리 가게 하여 겨울이 오게 했다는 말이다.

99 현무(玄武) : 고대 신화 중에 나오는 북방을 담당하는 신이다. 그 모습이 거북이처럼 생겼다고 한다.

100 일 궁의 솜 : 원문은 ‘일궁면(一弓綿)’인데 하나의 활로 탈 수 있는 솜의 양을 말한다. 솜 타는 활은 무명활이라고 하는데 목화를 타서 솜을 부드럽게 만드는 데 사용하는 활로서 솜활이라고 한다.



솜활은 대나무를 휘고 삼노끈으로 줄을 매어 만드는데, 참나무로 만든 결손으로 활줄을 두드려 진동시킨다. 활의 등근 부분을 위로 향

무슨 수로 온 세상을 입힐 수 있으며	何由被寰宇
나는 일 흄의 무소 뿔 ¹⁰¹ 이 있지만	我有一笏犀
무슨 수로 많은 집을 따뜻하게 하리오	何由暖萬戶
단지 원하는 건, 하나의 기 ¹⁰² 를 부추겨서	却願煽一氣
깊은 산골짜기에 봄빛이 돌아오게 하고 ¹⁰³	幽谷回春煦
광대하게 양기를 펼치게 하여	熙熙布陽德
지극한 은택이 온 세상을 적시는 것이라네	至澤沾率普

하게 하고 활줄을 숨에 당도록 하여 진동시키면 숨에 붙어 있는 씨앗과 껍질 등의 잡물이 떨어지고 숨이 부풀어 오르며 부드러워지게 된다. 《한국민속대관5,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2》

- 101 무소 뿔 : 한기(寒氣)를 없애 주는 무소뿔인 벽한서(闕寒犀)를 말한다. 당(唐)나라 현종(玄宗) 초에 베트남 지역인 교지국(交趾國)에서 황금빛의 무소뿔 하나를 바쳤는데 그 사자(使者)의 요청에 따라 그것을 금반(金盤)에 담아 대전 안에 놓아두자 따스한 기운이 발산하였다고 한다. 황제가 그 까닭을 물으니, 사자가 “이것은 추위를 물리치는 서각입니다[此辟寒犀也].”라고 한 데서 유래한다.
- 102 하나의 기 : 천지만물의 본원을 구성하는 기를 일기(一氣)라 하는데 즉, 혼돈(混沌)의 기이다. 일기 안에 음양(陰陽)이 있는데 여기서는 양을 부추겨 봄을 오게 한다는 의미이다.
- 103 깊은…하고 : 추연(鄒衍)과 관련된 고사를 인용한 것이다. 《태평어람(太平御覽)》권842 유향(劉向)의〈별록(別錄)〉에 “전하는 말에 추연이 연나라에 있을 때 어떤 골짜기가 토질은 좋지만 추워서 오곡이 자라지 않았다. 추연이 그곳에 머물면서 울관을 불자, 따스한 기운이 이르러 곡식이 자라났다. 지금 그곳의 이름을 서곡(黍谷)이라한다.[傳言鄒衍在燕，有谷地美而寒，不生五穀。鄒子居之，吹律而溫至生黍，到今名黍谷焉.]”라고 하였다

조이숙¹⁰⁴ 희일 에게 주다

贈趙怡叔 希逸

병이 들어 요와 안석을 사랑하노니	抱瘵愛褥几
사립문을 닫고서 답답함을 견디고 있네	闔扉耐悵鬱
된서리가 언덕을 덮었고	繁霜被丘阜
강한 회오리바람 쇠잔한 사물을 흔드네	勁飈振衰物
먼 기러기는 저물녘 물결에서 슬피 울고	遙雁暮流哀
묵은 꽃들은 진한 향기를 거두었네	宿芳收蕙鬱
늦가을 ¹⁰⁵ 이라 이미 차고 살벌하니	抄秋已淒懷

104 조이숙(趙怡叔) : 조희일(趙希逸 1575~1638)이다. 본관은 임천(林川), 자는 이숙(怡叔), 호는 죽음(竹陰), 팔봉(八峰)이다. 부친은 승지 조원(趙瑗)이다. 1601년(선조34) 진사시에 장원으로 급제하고, 1602년(선조35) 별시 문과에 급제하고, 1608년(광해군 즉위년) 문과중시에 또 급제하였다. 벼슬은 승정원 주서, 정언, 예조 좌랑, 이조 정랑, 교리, 광주 목사(光州牧使), 예조 참판, 형조 참판, 경상 감사 등을 역임하였다. 시문과 서화 등에 모두 뛰어나 명성이 높았는데, 명나라 사신 주지번(朱之蕃)이 왔을 때 예조 좌랑으로 빈사(賓使) 유근(柳根)을 따라 영접하였고, 이후에도 접반사(接伴使)가 되어 모문룡(毛文龍)을 맞기도 하였다. 저서로 《죽음집》 등이 있다.

105 늦가을 : 원문의 ‘초추(抄秋)’는 초추(抄秋)와 통용되며 ‘늦가을’이라는 뜻이다. 초추(抄秋)에 대해서 이덕무가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권53 <이목구심서(耳目口心書)>에서 ‘늦가을’로 설명하고 있다.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떤 이가 초추(抄秋)와 초동(抄冬)의 뜻을 묻기를, 7월·10월이 초가 되는가, 아니면 9월·12월이 초가 되는가? 세상 사람이 혼용하는데 어떤가?” 라고 하기에 내가 종백경(鍾伯敬)의 시에 ‘초동(抄冬)의 외로운 배 초동(初冬)에 떠난 것이네’라는 구절을 인용하여, ‘초(抄)는 끝 달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그리고 양 원제(梁元帝)의 《찬요(纂要)》에, ‘9월을 말추(末秋)·초추(抄秋)

하나의 기 ¹⁰⁶ 가 폼다 굽혔다 하네	一氣有申屈
꽃을 따려고 일어나 섬들을 따라 돌고	攀艷起循除
벗들을 사모하여 정은 그치지 않네	慕類情靡訖
높이 차고 오르는 것은 당대의 현인들에게 맡기고	高驥付時哲
넓게 숨어서 조정의 인끈을 사양하네	廓潛謝朝紱
번영과 쇠퇴에 어찌 기뻐하고 슬퍼하리오	枯榮肯歡感
공을 깨달으려 부처를 스승으로 삼네	悟空師西佛
저 아름다운 성 북쪽의 서공 ¹⁰⁷ 은	彼美城北徐
교분이 가장 긴밀하다네	結游最密勿
한 해는 저물고 또 소식도 끊겼으니	歲晏且闕音
어느 곳에서 답답함을 펼치리오	何處舒紆悒

라고 하고, 12월을 모동(暮冬)·초동(抄冬)이라고 한다.’고 했다.[或學抄秋抄冬之義, 如七月十月爲抄耶, 九月十二月爲抄耶, 世人混用之何. 余適引鍾伯敬詩, 抄冬孤艇發, 初冬則抄. 迺季月也. 又梁元帝《纂要》九月曰, 末秋抄秋, 十二月曰, 暮冬抄冬.]”

106 하나의 기 : 혼돈(混沌)의 기로 천지만물을 구성하는 본원이 된다. 일기 안에는 음양(陰陽)이 있다.

107 서공(徐公) : 제(齊)나라의 미남 서군평(徐君平)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조희일을 빗댄 것이다. 《전국책(戰國策)》권1 <추기의 신장이 8척이 넘었다[鄒忌脩八尺有餘]에 “추기(鄒忌)는 키가 8척이 넘었고 신체가 곱고 아름다웠다. 아침에 의관을 갖추고 거울을 보면서 그 아내에게 묻기를 ‘나와 성 북쪽에 사는 서공 중에 누가 더 미남이오’ 라고 하자 그 처가 말하기를 ‘그대의 아름다움이 심하니 서공이 어찌 공에게 미치겠습니까.’ 하였다.[鄒忌脩八尺有餘, 身體昳麗. 朝服衣冠, 窺鏡, 謂其妻曰: 我孰與城北徐公美? 其妻曰: 君美甚, 徐公何能及公也.]”

대루원¹⁰⁸에서 선잠이 들어 강동 옛집을 꿈꾸다

待漏院假寐 夢江東舊居

과제를 대신하여

새벽에 백관들 엄숙한데	侵星肅紳弁
아침 해를 기다리며 공관에 물러나 있네	侯旭屏公廡
눈을 감으니 육신이 쉬고	息形得閉竅
공무의 여가를 틈타서 잠시 눈을 붙였네	薄睡乘公餘
정기는 떠서 곧고 굽은 곳을 지나	精浮歷紆直
각건 ¹⁰⁹ 을 쓰고 고향 마을로 돌아왔네	角巾旋鄉閭
밭두둑은 동남쪽으로 뚜렷이 뻗어있고	阡隴宛東南
안개 낀 해는 마을의 도랑을 에워쌌네	煙日籠村渠
예쁜 새들은 아름다운 꽃무더기에 모여 있고	好羽集珍叢
즐거운 고기들 맑은 웅덩이에서 헤엄치네	樂鱗游清澗
무리지어 불러서 마을 아이들을 나오게 하고	群呼出巷兒
낫을 찾아서 뿔나무 수레를 수리하네	鎌索理樵車
이웃 늙은이 백발의 정수리를 드러내며	隣耄露皤頂
나를 맞아 막걸리와 야채를 가지고 오네	迎我挈醪蔬
나에게 좋은 관직이 좋냐고 묻기에	訊我好官好

108 대루원(待漏院) : 조선 시대 관원들이 입조(入朝)하기 전에 대궐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며 잠시 머무르던 곳이다. 대루정(待漏廳)이라고도 한다. '대루(待漏)'는 물시계 시간을 기다린다는 뜻으로 입조 시간을 말한다.

109 각건(角巾) : 은자(隱者)가 착용하는 모가 난 두건이다. 꿈속에 은자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말이다.

뜰의 계단을 쓰는 것만 못하다 하였네	不如掃庭除
뜰의 계단이 저대로 황폐해지는데	庭除自蕪沒
왕후의 문하에서 저대로 옷자락을 끌고 다닌다네 ¹¹⁰	王門自曳裾
참새가 구멍을 뚫어도 뚫린 처마 내버려 두고	雀穿任簷虛
송아지 들이 받아도 성긴 울타리 그대로 두네	犢觸仍籬疏
거문고 놓는 평상에는 들 다람쥐가 깃들었고	琴榻棲野鼯
서실 선반에는 좀벌레가 살찌 있네	書棚肥蠹魚
좋은 관직은 더없이 바쁘지만	好官莫忙忙
농촌은 모두 더디고 느리다네	田野共舒舒
농담한 지 얼마 안 되어서	諧諢未須臾
나비가 된 장주는 화들짝 깨었다네 ¹¹¹	蝶化周蘧蘧
북소리 급하니 점점 반열에 나가는 것이 겁나는데	急鼓怯漸班
결눈질로 둘러보니 부질없이 나를 근심하누나	騁眙空愁予

110 왕후의…다니네 : 어느 왕후의 문하에서도 옷자락을 끌고 벼슬할 수 있다는 뜻으로, 왕족이나 권세가의 집에 출입하며 식객 노릇을 하는 것을 말한다. 《한서(漢書)》권51 <추양전(鄒陽傳)>에 추양(鄒陽)이 오왕(吳王)에게 보낸 글 중에 “고루한 나의 마음을 꾸미려 했다면 어느 대궐에선들 긴 옷자락을 끌고 다닐 수 없었겠는가? [飾固陋之心, 則何王之門, 不可曳長裾乎?]”라고 하였다.

111 나비가…깨었다네 : 《장자》 <제물론(齊物論)>에 출전이 있는 말로, 현주가 꿈속에서 고향의 노인들과 술 마시며 농담을 즐기다가 꿈에서 깨어난 것을 장주(莊周) 호접몽에서 깨어난 것으로 비유한 것이다. <제물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옛날 장주가 꿈에 나비가 되어 훨훨 날아다니니, 스스로 유쾌하고 뜻에 만족하여 자신이 장주인 줄을 모르다가 갑자기 꿈을 깨고 보니, 자신이 분명 장주였다. 장주의 꿈속에서 장주가 나비가 된 것인지, 나비의 꿈속에서 나비가 장주가 된 것인지 알지 못하였다. [昔者, 莊周夢爲蝴蝶, 栩栩然蝴蝶也. 自喻適志與, 不知周也. 俄然覺則蘧蘧然周也, 不知周之夢爲胡蝶與? 胡蝶之夢爲周與?]”라고 하였다.

임명고¹¹²를 애도하며

挽任鳴臯

아름다운 옥을 가리고 드러나기를 구하지 않으며	掩瑰不要章
견정함을 품고서 끝내 스스로 기이하였네	抱貞終自奇
문장을 떨쳐서 한나라 조정을 짓누르고 ¹¹³	振藻轢漢庭
아려함을 수립하여《시경》에 늘어놓았다네 ¹¹⁴	樹雅排周詩
바른 소리는 삼왕 ¹¹⁵ 을 생각하고	正韻緬三王

-
- 112 임명고(任鳴臯) : 임전(任鉞: 1560~1611)이다. 본관은 풍천(豊川), 자는 관보(寬甫), 호는 명고이다. 아버지는 임윤신(任允臣)이며 성혼(成渾)의 문인이다. 선조 때 사마시에 합격하였으며, 1592년(선조25)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호남 창의사(湖南倡義使) 김천일(金千鎰)의 휘하에서 종군하였다. 1608년(광해군 즉위) 원접사 유근(柳根)의 장계(狀啓)에 따라 제술관으로 발탁되었다. 광해군 때에는 재야에 있으면서 이이첨·정인홍(鄭仁弘) 등을 질척(叱斥)하였다. 권필과 쌍벽을 이룰 정도로 시명이 높았다. 문집에 《명고집(鳴臯集)》이 있다.
- 113 문장을…짓누르고 : 권필과 쌍벽을 이룰 정도로 시명이 뛰어났던 임전이 광해군 즉위년(1608)년에 원접사 유근(柳根)의 제술관이 되어 중국 사신들과 수창했던 일을 말하는 듯하다.
- 114 아려(雅麗)함을…늘어놓았다네 : 임전의 시가 시경의 아려함을 이룩해서 《시경》속에 배치해 놓아도 손색이 없다는 말이다. 당(唐)나라 한유(韓愈)의 <천사(薦士)> 시에 “《시경》삼백 편은 아려하여 훈고를 해야 하네. [周詩三百篇, 雅麗理訓誥.]”라고 하였다.
- 115 삼왕(三王) : 중국 역사상 성군으로 일컬어지는 하(夏)의 우(禹), 상(商)의 탕(湯)임금, 주(周)의 무왕(武王)이다. 즉 하은주(夏殷周) 삼대(三代)를 생각나게 한다는 것으로, 임전의 정운(正韻)이 질박하고 근본에 힘쓰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뜻이다. 《논어》<학이(學而)>편에 자하가 “어진 이를 어질게 여기되 색을 좋아하는 마음과 바꿔 하며,

변주된 소리는 오대의 쇠약함 ¹¹⁶ 을 아파하였네	變哇傷五衰
담박함을 즐겨 더욱 옛 서적을 연찬 ¹¹⁷ 하였고	嗜淡益汲古
희음 ¹¹⁸ 을 잡고서 어찌 세속과 어울렸으리오	操希寧入時
곤궁한 맹교 ¹¹⁹ 는 얼굴이 더욱 누렇게 떴고	郊窮轉頰頰
병든 완적은 다시 쓸모가 없게 되었네	藉病還支離
무명옷 얇으니 어찌 뼈를 따뜻하게 하리오	褊薄詎煖骼
현미밥도 늦게 먹으니 굶주림을 구제하기 어려웠네	糲晏難周飢
술을 마시면 진술함이 드러났고	喫釵見坦率

부모를 섬기되 능히 그 힘을 다하며, 인군을 섬기되 능히 그 몸을 바치며, 봉우와 더불어 사귀되 말함에 성실함이 있으면 비록 배우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그를 배웠다고 이르겠다. [賢賢易色 事父母能竭其力 事君能致其身 與朋友交 言而有信 雖曰未學 吾必謂之學矣.]”라고 했는데, 유작(游酢)이 주석에서 삼대의 학문은 모두 인륜을 밝히는 것으로 위의 네 가지는 인륜 중에 두터운 것이라고 하였다. [游氏曰, “三代之學, 皆所以明人倫也. 能是四者, 則於人倫厚矣.”]

- 116 오대(五代) 쇠약함 : 오대의 부화(浮華)한 문풍을 말한다.
- 117 연찬(研鑽) : 원문은 ‘급고(汲古)’인데 이는 옛 전적(典籍)을 연구하는 것을 깊은 우물에서 물을 푸는 것에 비유한 것으로, 한유(韓愈)의 <추회시(秋懷詩)>에 “어리석음으로 돌아감에 길이 평탄함을 알겠고, 옛 우물에서 물을 품에 긴 두레박줄을 얻었어라. [歸愚識夷塗 汲古得脩綆.]”라고 한 구절에서 유래하였다.
- 118 희음(希音) : 보통 사람이 듣지 못하는 위대한 음악이라는 뜻이다. 《노자(老子)》 41장의 “큰 소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며, 큰 형상은 그 모양을 볼 수가 없다. [大音希聲 大象無形.]”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다. 여기서의 임전의 깊은 학문과 탁월한 재능을 비유한다.
- 119 곤궁한 맹교 : 한유(韓愈)가 자기의 절친한 벗 맹교를 추천한 시에서 언급한 내용을 원용한 것이다. “곤궁하게 지내는 시인 맹교가 있는데, 그는 재주를 품부 받은 것이 실로 웅건해서, 말없는 가운데 고금의 일을 환히 살피고, 이 세상 밖에서 남은 모르는 기호(嗜好)를 좇고 있다. [有窮者孟郊, 受材實雄鷲, 冥觀洞古今, 象外逐幽好.]”라고 하였다. 《韓昌黎集 卷2 薦士》

문장을 담론하면 그 누구도 당할 수 없었네	談翰莫何誰
술동이 가지고와서 함께 기쁘게 술 마셨고	挈甕共歡飲
시장에서 술 취하면 나를 베고 누웠다네	醉市枕我歆
곤궁과 실의함은 운명에 부치고	落魄付時命
원망과 꾸짖음은 아내에게 맡겼다네	怨罵任妻兒
녹봉에 허리를 굽혀 능참봉 ¹²⁰ 으로 숨었고	屈祿隱祠官
이름을 드날리는 건 친구에게 힘입었네	登名荷心知
하나의 숙병이 갑자기 해를 지나자	一疴忽歷歲
중병 ¹²¹ 이 되어 끝내 치료할 수가 없었네	二豎終難醫
이루어준은 진실로 하늘에 맡긴다지만	致達固聽天

120 능참봉으로 숨었고 : 임전(任鎭)이 뛰어난 재능에도 참봉(參奉) 벼슬에 그쳤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실록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인다. “원접사 유근(柳根)이 아뢰기를, ‘전 참봉 임전은 박식하고 문장을 잘 하므로 제술관이라는 칭호를 <띠고 가려고 하나 시방 직명이 없습니다. 해조로 하여금 상당한 관직을 제수하여 주도록 하여 편리하게> 띠고 가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라고 하자 왕께서 윤희하였다”[遠接使柳根啓曰: “前參奉任鎭博學能文, 製述官稱號, (欲爲帶去, 而時無職名. 令該曹相當職除授, 以便帶去何如?” 傳曰: “允.”]”라고 하였다. 《光海君日記 卽位年 8月 20日》

121 중병 : 원문의 ‘이수(二豎)는 중병(重病)을 뜻한다. 춘추 시대 진(晉)나라 경공(景公)이 고향(膏肓) 사이에 병이 들어 명의(名醫)도 그 병을 고치지 못해 결국 죽었다는 고사에서 유래한 것이다. 심장 아래 지방 덩어리를 고(膏)라 하고 심장과 횡경막 사이를 황(肓)이라 한다. 《춘추좌씨전》 <성공(成公) 10년 조에 “진(晉)나라 경공(景公)이 병이 심하여 진(秦)나라 의원을 맞이하여 치료하게 되었는데, 당도하기 전 꿈에서 그 병이 두 아이[二豎]로 변하여 말하기를 ‘저 사람은 훌륭한 의사이니 우리를 해칠까 두렵다. 어디로 숨을까?’ 하니, 그중 한 아이가 말하길 ‘황(肓)의 위와 고(膏)의 아래에 있으면 우리를 어찌하겠는가?’라고 하였다. 이윽고 의원이 이르러 진찰하고는 ‘이 병은 고칠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늙지도 않았는데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未老胡至斯
상여는 서리 내린 새벽을 가르고	柳輓劈霜曉
붉은 깃발은 한강에 나부끼네	絳旄飄漢湄
친애하는 사람들은 다투어 부여잡고 통곡하고	親愛競攀號
해로가 ¹²² 부르는 사람들 부질없이 머뭇거리네	薤露空遲疑
병이 들어 관에 기대어 울지 못하니	病阻憑棺哭
만시로 저승으로 보내주는 말을 보내네	挽揭遺玄詞
하늘이 만약 공을 박하게 하려 했다면	天如薄公者
어찌 공의 재주를 두텁게 했는가	胡篤公才爲
부귀하며 또 오래 사니	富貴且得年
저 사람은 하늘에 무슨 도움이 되었는가	彼於天何資
가난하고 궁하며 또 오래 살지 못했으니	貧窮且不壽
이 사람은 하늘에 무슨 하자가 있었는가	此於天何疵
하늘은 끝내 침묵하니	老穹竟言嘿
내 어찌 슬퍼하지 않으리오	吾寧不爲悲

122 해로가: 부추 위에 맺힌 이슬처럼 덧없이 지는 인생을 슬퍼하는 노래로, 고대 사람들이 초상 때 부르던 만가이다. 한 고조(漢高祖)에게 반기를 들다 패망한 전횡(田橫)의 죽음을 두고 그 무리가 지은 만가 2장 중 1장에서 “부추 위에 맺힌 아침 이슬 어이 그리도 쉽게 마르나, 이슬은 말라도 내일 아침이면 다시 내리지만, 사람은 죽어 한번 떠나가면 어느 때에 돌아오려나.[薤上朝露何易晞, 露晞明朝更復落, 人死一去何時歸?]”라고 하였다. 《古今注 音樂》

소자실¹²³ 광진 을 애도하며

挽蘇子實 光震

옥같이 빼어남은 빛나고 따뜻함을 머금었고	玉英含輝溫
얼음 같은 바탕은 가을의 깨끗함을 받았다네	水質受秋淸
상서로운 난새는 우뚝한 오동나무에서 가지런하고 ¹²⁴	祥鸞峙梧整
신선의 꽃은 나무 끝을 비추어 밝네	仙萼映梢明
우아한 자태는 아득히 무리를 뛰어넘었으니	雅姿迥超倫
당대의 현인들은 성대하게 경도 되었네	時哲藹相傾
밝음을 잡고서 나라 경영을 넓혔으며	秉亮弘經猷
직언하여 대성에서 명성을 떨쳤다네 ¹²⁵	抗鯁振臺聲
우물에 가서 차마 돌을 던졌겠는가 ¹²⁶	臨井忍下石

123 소자실(蘇子實) : 소광진(蘇光震: 1566~1611)이다. 본관은 진주(晉州)이고 자는 자실(子實), 호는 후천(后泉) 또는 후계(后溪)이다. 소세양(蘇世讓)의 손자이다. 광해군 때 홍문관 교리와 헌납을 역임하였다.

124 상서로운…가지런하고 : 난새가 우뚝한 오동나무에 가지런히 있다는 말은 부조(父祖)의 업(業)을 능히 지킬 만한 훌륭한 자손이라는 뜻이다. 한유(韓愈)의 <전중소감마군묘지명(殿中少監馬君墓誌銘)>에 “물러 나와 소부를 보니, 푸른 대나무와 벽오동나무에 난새와 고니가 우뚝 서 있는 것 같았으니, 그 업을 능히 지킬 만한 사람이었다.[退見少傅, 翠竹碧梧鸞鶴停峙, 能守其業者也.]”라고 하였다.

125 직언하여…떨쳤다네 : 소광진이 당시 언론기관인 사헌부 지평과 사간원 정언 등을 역임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126 우물에…던졌겠는가 : 낙정하석(落筭下石)의 의미를 가져온 것이다. 즉 작은 이해에 관련되면 위험에 빠진 사람에게 도리어 위해(危害)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한유(韓愈)가 지은 <우자후묘지명(柳子厚墓誌銘)>에 “어느 날 갑자기 털끝만큼이라도 작은 이해에 관련이 되면, 언

곧음을 지키고 부귀영화 사양하길 달게 여겼네	護直甘辭榮
관리들은 망녕되다고 서로 꾸짖었으나	宦夫互嗔妄
미천한 이내 몸은 오히려 곧음을 사모했다네	賤子猶慕貞
법도대로 시행하고 무턱대고 가는 것을 경계했으며	蹈軌警盲進
밝음을 드러내고 어두운 길 ¹²⁷ 을 열었다네	著暎開冥行
은총을 받는 것에 어찌 쇠퇴와 응성이 있겠는가	被渥豈虧隆
현달한 관직을 거치며 더욱 이름을 드날렸다네	躡顯愈蜚英
병이 들어 갑자기 일어나지 못했으니	有暎遽無起
죽음 ¹²⁸ 이 짧은 생을 기술했다네	大暮歎短生
나를 돌아보고 재주를 허락하였으니	顧我許以藝
곤궁함을 탄식함이 마음에서 나왔다네	嘸蹇出於情
나는 미박하여 한 걸음에 쓰러졌으니	微薄一步躓
위독한 병으로 가을 석 달 동안 앓아누웠다네	癯瘵三秋嬰
부고를 받들고 달려가 곡하지 못했으니	承亡闕赴哭
장차 발인할 때 정성스러운 제사를 저버렸다네	將發辜奠誠

제 보았느냐는 듯 눈길을 돌리고는 함정에 빠졌어도 손을 한 번 내밀어서 구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뒤로 밀치면서 돌맹이를 던지기까지 한다.[一旦臨小利害, 僅如毛髮比, 反眼若不相識, 落陷奔, 不一引手救, 反擠之, 又下石焉.]”라고 하였다.

127 어두운 길 : 원문의 명행(冥行)은 ‘명행적식(冥行適植)’의 뜻으로 맹인(盲人)이 지팡이로 땅을 짚으면서 길을 찾는 것을 말하는데, 즉 사람이 도리를 알지 못하고 억측(臆測)으로 생각하여 행동함을 비유한다. 양옹의《법언(法言)》〈수신(修身)〉편에, “맹인이 지팡이로 땅을 짚으면서 길을 찾아 다니는 것과 같을 뿐이다.[素摠植索塗, 冥行而已.]” 한 말에서 유래하였다.

128 죽음 : 원문의 대모(大暮)는 죽음을 뜻한다. 육기(陸機)의 〈탄서부(嘆逝賦)〉에 “죽음은 잠자는 것과 같음을 깨달으니, 어찌 오래 사는 것을 자랑하고 일찍 죽는 것을 원망하라.[悟大暮之同寐, 何矜晚以怨早.]”라고 하였다.

먼 길은 아득하니 누구에게 의지할꼬	窮途藐誰憑
긴 눈물이 부질없이 갓끈을 적시네	長淚空沾纓
가장 슬픈 건, 공을 돌려보내는 날	最哀復公日
새삼에 공의 이름을 매다는 것이라네 ¹²⁹	新麻擢公名
현자를 박하게 했으니 하늘을 원망하고	薄賢怨老穹
온 집안사람들은 먼 길을 슬퍼하네	學室悲脩程
겨울 해는 외로운 과부를 비추고	寒曦照孤嫠
북풍은 명정을 뒤집으리라	朔吹翻銘旌
통곡을 머금었는지라 시를 엮는 것이 꺾끄럽고	衝慟構詩澁
꿈인가 하며 놀란 마음을 어루만지네	疑夢撫心驚
건강해져서 흑 남쪽으로 가게 되면	得健倘圖南
호남 땅 무덤에서 한 번 통곡하리라	一哭申湖塋

129 새삼에…것이라네 : 새삼은 상여를 묶거나 동여맬 때 필요한 새끼를 풀 때 사용되는 삼이다. 여기서는 삼으로 만든 새끼줄에 죽은 사람의 이름을 매단다는 것으로 보인다. 유장원(柳長源)의 《상변통고(常變通攷)》〈치장(治葬)〉에 보면 “유거(柳車)를 만들 때 새삼으로 큰 새끼줄을 많이 만들어 매는 것에 대비한다.[仍多作新麻大索, 以備扎縛.]”라고 하였다.

이창기¹³⁰에게 주다

贈李昌期

말세의 풍속은 날로 더러운 곳으로 내달리니 季俗日趨滄
 이익에 목숨 거는 것¹³¹, 개미가 비린내를 사모하는 듯¹³² 殉利蟻慕羶
 도척¹³³과 도철¹³⁴을 허유와 백이로 여기고 跽餐視由夷

-
- 130 이창기(李昌期) : 이명준(李命俊 : 1572~1630)이다. 본관은 전의(全義), 호는 잠와(潛窩) 또는 진사재(進思齋)며 창기는 자(字)이다. 청강(淸江) 이제신(李濟臣)이 그의 부친이며 이항복(李恒福)·성혼(成渾)의 문하생이다. 1603년(선조36) 정시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고, 벼슬이 병조참판에 이르렀다. 성질이 강정(剛正)하여 직간을 잘하였고 별세했을 때 장례를 치를 수 없을 정도로 청렴하였다고 한다.
- 131 이익에…것 : 몸을 버리면서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장자(莊子)》〈변무(駢拇)〉에 “소인은 몸을 이(利)에 따라서 죽는다.[小人則以身殉利.]”라고 하였다.
- 132 개미가…사모하는 듯 : 원문은 ‘의모전(蟻慕羶)’인데 이는 개미가 비린내 나는 양고기를 좋아한다는 것으로, 애호하는 것에 사람들이 다투어 서로 달라붙는다는 의미이다. 《장자(莊子)》〈서무괴(徐無鬼)〉에 “양고기는 개미를 좋아하지 않으나 개미는 양고기를 좋아하니 양고기는 비린내가 나기 때문이다. 순임금이 비린내를 풍기며 지나가자 백성들이 기뻐하였다. 그러므로 세 번 옮겨 도시가 만들어지고 등땅의 빈곳에 이르러 10만 가구가 있게 되었다.[羊肉不慕蟻, 蟻慕羊肉, 羊肉, 羶也. 舜有羶行, 百姓悅之, 故三徙成都, 至鄧之虛, 而十有萬家.]”라고 하였다.
- 133 도척(盜跖) : 춘추 시대 노(魯)나라 사람으로 유하혜(柳下惠)의 동생이다. 전하는 말에 따르면 도척은 일찍이 무리 9천 명을 모아 천하를 횡행하고 다니면서 제후(諸侯)를 공격하고 약탈해 나중에 도척으로 불렸다고 한다.
- 134 도철(饕餮) : 전설상 사람을 잡아먹는 탐욕스러운 괴물로 재물과 음식을 탐하는 악한 사람을 비유한다.

가시나무와 가죽나무¹³⁵를 느릅나무와 녹나무¹³⁶로 여기네¹³⁷

棘樗爲梗枿

뒤섞여서 큰 혼란을 만드니

淆沚作廣昏

물속에 빠진들 그 누가 건져 주리오

墊溺誰拯旃

하늘이 근심하여 공을 빚어냈으니

上穹愍鑄公

밝음을 잡고서 동쪽 우리나라를 밝게 비추었네

秉皎燭東偏

성품은 개결함을 모았고

介潔鍾性質

견정함은 시원하고 밝음을 품었네

爽炳懷貞堅

훈욕은 모두 혜초와 울금초로 하고

薰浴摠蕙鬱

차고 입는 것은 맑고 고운 것으로 걸쳤네

佩服披淸鮮

높은 재주는 장원급제를 이루었고

亢藝捷魁科

강직함을 내세워 어깨 옹크리길¹³⁸부끄러워하였네

揭直羞脅肩

역참에서 시험하니 역마의 폐단이 저절로 해결되었고¹³⁹

試郵馬自遂

135 가시나무와 가죽나무 : 재목으로 쓸 수 없는 나무이다.

136 느릅나무와 녹나무 : 단정하고 곧아서 좋은 재목이 되는 나무이다.

137 도척과…여기네 : 이 두 구절은 지금이 말세(末世)라 도둑을 은자(隱者)나 현자(賢者)라고 하고 무능한 자를 유능한 자로 여기고 있다는 말이다.

138 어깨 옹크리길 : 원문은 ‘협견(脅肩)’인데 아첨하는 것을 말한다. 《맹자(孟子)》〈등문공 하(滕文公下)〉에 공손추(公孫丑)가 맹자(孟子)에게 제후를 만나보지 않는 의도를 묻자, 맹자(孟子)가 증자(曾子)의 말을 인용하여 답변하면서 사용한 표현이다. “증자(曾子)가 이르기를 ‘어깨를 으쓱이면서 아첨하여 웃는 것이 뜨거운 여름날에 발매기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다.[脅肩諂笑 病于夏畦.]’라고 하였다.”

139 역참에서…해결되었고 : 이명준이 고산 찰방(高山察訪)으로 있으면서, 법을 어기며 역마를 요구하는 폐단을 청산했던 일을 말한다. 신희이 지은 <창기에게 부치다[寄昌期]> 시의 자주(自註)에 보면 “창기는 이때 북쪽 우역(郵驛)에 임관되었고 나는 의주(義州)에 영위사(迎慰使)로 있었다.[昌期時拜北郵, 余迎慰義州牧去云.]”라는 기록이 있

고을들을 두루 살피니 백성들이 편안해졌네¹⁴⁰
 곤액을 따르고¹⁴¹ 또 백의를 입었으며¹⁴²

歷縣民以便
 隨蹇更着白

고, 정약용의 《목민심서》〈수법(守法)〉에는 이명준이 고산 찰방으로 있을 때의 업적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이명준(李命俊)이 고산 찰방이 되었는데, 그 역(驛)이 북관(北關)의 요도(要道)에 놓여 있었다. 역마를 타는 자들이 흔히 법의 한계를 넘어서 지나치게 역마를 요구하는 수가 많으므로 역졸(驛卒)들이 명령을 견디어낼 수가 없었다. 공은 법대로 집행하면서 굽히지 않았다. 비록 감사가 오더라도 꼭 마패(馬牌)대로 역마를 지급하였더니 감사가 화를 내어 듣지 않았다. 공은 그것을 다투어 마침내 조정에 처분을 요청하였더니 조정에서는 공이 옳고 감사가 틀렸다고 하였다. 폐단은 아주 고쳐졌으나 공은 마침내 벼슬을 버리고 돌아가 버렸다. [李命俊爲高山察訪, 驛當北關孔道. 乘傳者多, 越法濫責, 郵卒不堪命. 公執三尺不撓. 雖監司至, 必按牌給乘, 監司怒不聽. 公爭之, 遂請命于朝, 朝廷直公而誥監司. 宿弊頓革, 而公竟棄官歸.]”라고 하였다.

- 140 고을들을…편안해졌네 : 이명준이 덕산 현감(德山縣監)과 서원 현감(西原縣監)으로 있을 때 선정을 펼쳤던 일을 말하는 듯하다. 서원 현감 때 수재(水災)를 미리 대비하여 백성들을 구한 일화가 정약용의 《목민심서》〈구재(求災)〉편에 다음과 같이 실려 있다. “이명준이 서원 현감으로 있을 때 읍치(邑治)가 큰 시내에 가까워 본래부터 수재의 걱정이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물새들이 관정(官庭)에 모여들자 공이 말하기를, ‘이것은 수재(水災)의 징조다.’하고, 아전들과 백성들에게 경계하여 수재에 대비하도록 하였더니, 얼마 안 되어 큰물이 성으로 들어와 집들을 떠다니게 되었다. 백성들이 믿고 대비하여 온전히 살아나게 되었다. [李命俊爲西原縣監, 邑治近大溪, 素有水患. 一夕水鳥來集官庭, 公曰, ‘此水祥也. 戒吏民爲水備, 未幾水大至入城, 漂廬舍. 民賴有備, 得以全活.]”고 하였다.
- 141 곤액을 따르고 : 1611년 참판 송상인(宋象仁)이 김직재(金直哉)의 옥사에서 무고를 당하자 상소를 올려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인해 면직된 일과 1613년 이이첨(李爾瞻)이 일으킨 박응서(朴應犀)의 옥사에 연루되어 영덕(盈德)으로 유배 간 일을 말하는 듯하다.
- 142 또 백의를 입었으며 : 무오년(1618), 영남(嶺南) 지역에 떠도는 소문(流言)에, 허균(許筠)이 나례(儺禮 푸닥거리)를 벌이는 틈을 이용하여 경운

화려함을 등지고 험난함을 달게 여겼네	背華甘迍遭
맑은 지금에 목민관이 되었으니 ¹⁴³	淸今牧爲監
진실로 이것은 명예를 앞세워서가 아니라네	實是名非前
땅이 커서 다스리기 어려운데	地鉅難其治
발탁한 것은 하늘로부터 유도한 것이라네	相擢誘自天
호남의 경계에서는 읍재 얻은 것을 칭송하고	湖界頌得宰
사류들은 현자가 멀어지는 것을 가슴 아파하였네	士儕傷遠賢
좀벌레 같은 간사한 이들은 저절로 숨었으니	奸蠹自藏伏
위업과 은혜가 먼저 흘러 얹혔기 때문이네	威惠先流纏
하늘의 때가 세모에 속하니	天時屬畹晚
북쪽 땅에는 추위가 돌아왔네	北陸玄維旋
음산한 싸락눈 격렬하게 층층이 날리니	陰霰激層颯
잠깐 사이에 얼음이 시내를 가로질렀네	促景氷橫川
세모의 회포 근심스럽고 위태로운데	暮懷覺慄慄
하물며 다시 이별자리를 만나게 됨에 있어서라	況復當驪筵
때가 노했으니 발자취는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고	時嚇跡宜屏
귀신이 노했으니 병은 낫기 어렵다네	鬼怒癘難痊
송별하는 자리에서 잡고 끌어주는 것 놓쳤으니	祖路失攀携
탄식하니 답답한 마음만 더해가네	併性增幽悵

궁(慶運宮 인목대비의 처소)에 들어가 시해하는 대역(大逆)을 저질렀다고 하였는데, 공이 그 말을 듣고는 너무도 비통한 나머지 오래도록 소복(素服) 차림으로 재계(齋戒)한 일을 말하는 듯하다. 《낙전당집》제13권, 〈행장(行狀)〉.

143 맑은...되었으니 : 이명준이 영덕(盈德)에 유배되어 있다가 1623(인조1)년에 인조반정이 일어난 후 사헌부 장령, 홍문관 수찬, 교리, 응교를 거쳐 충청도 관찰사로 나간 것을 말하는 듯하다.

탁류를 밀어내는 것¹⁴⁴은 가까운 날이 되리니
어찌 긴 세월동안 외직에서 수고하겠는가
진실한 벗들은 애석해하지 말라
인재를 낸 것은 우연이 아니니

激濁欲邇日
勞外豈遐年
歡友莫相惜
生才非偶然

144 탁류를 밀어내는 것 : 원문의 ‘격탁(激濁)’은 탁류(濁流)를 밀어 내보내고清流(清流)를 끌어올린다는 격탁양청(激濁揚淸)에서 따온 표현으로, 악을 제거하고 선을 장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장난삼아 윤경열¹⁴⁵ 광계 에게 단선가를 지어주다

戲贈尹景悅團扇歌 光啓

종이에 장난삼아 내달려 써서 경열이 나오지 않은 것을 조롱하다

부채는 바람을 일으키게 만드니	扇爲風以設
둥근 것은 단지 달을 닮았다네	團者祇似月
지금 어찌 자루가 있는가	今胡有箇柄
달을 따라 나올 줄 알기 때문이네	知從月出出
이것을 잡아서 준 것은 의도가 있어서이니	持贈有所憶
그대는 이 뜻을 헤아리시게	此意君忖度
달로 그대의 얼굴을 빗대고	月以比君顏
바람으로 그대의 덕을 빗대었네	風以比君德
그대의 얼굴은 가까이서 만질 수 있고	君顏可邇玩
그대의 덕은 향기로 씻을 수 있다네	君德可薰濯
바람은 움직이고 또 쉬는데	風有動且息
그대는 움직이지 않고 쉬기만 하는가	君不動而息
달은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데	月有入還出
그대는 어찌 들어가서 나오질 않는가	君胡入不出

145 윤경열(尹景悅) : 윤광계(尹光啓:1559~1619)이다. 윤광계의 자는 경열(景說), 호는 굴옥(橘屋)·효정(孝貞)이다. 조헌(趙憲)의 문인이다. 1589년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주서·세자시강원설서, 호조 정랑, 지제교 겸 춘추관 기주관, 예조 정랑, 평안도 도사, 공조 좌랑 등을 역임했다. 조헌의 문인이었기 때문에 시론의 배척을 받았다. 광해군 때는 말단의 관직을 전전하다가 고향 해남에 은퇴하여 있었다. 그의 시는 시격이 정련(精鍊)되었고 율조(律調)가 청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집으로 《굴옥집(橘屋集)》이 있다.

나오고 들어감은 반드시 때가 있고
움직이고 쉬는 것도 반드시 절도가 있다네
그런 후에 바야흐로 바람이 되고
그런 후에 바야흐로 달이 된다네
달과 바람처럼 끝까지 힘써야
음풍영월이 아니라네

出入必以時
動息必以節
然後方爲風
然後方爲月
終勉月與風
非吟風詠月

차가운 가을 줄이 되기를 원하네¹⁴⁶ 과제

願作冷秋菰 課製

찌는 태양이 더위를 마음대로 하니	炎暉恣敲赫
붉은 구름이 동남쪽에 떠다니네	火雲東南浮
물과 흙이 다 말랐고	水土爲焦涸
쇠와 돌은 모두 녹아서 흘러내리네	金石皆鑠流
벌거벗고 ¹⁴⁷ 누워도 땀이 줄줄 흐르니	裸臥汗欲淋
가는 침베 옷은 다시 갓옷과 같다네	織絺重如裘
부채를 부쳐도 또 소용이 없고	搖箑更無賴
얼음을 씹어도 오히려 목구멍이 마른다네	嚼冰猶渴喉
문득 생각하니 저 줄과 부들은	却憶彼菰蒲
시원하여 깊은 가을을 담당하네	颯爽當深秋
가지는 새벽 된서리에서 나왔고	條擎曉霜重
뿌리는 그윽한 찬 물결에 붙이고 있네	根着寒波幽
줄기는 물을 따라 떠다니고	莖從水泛浮

146 · 차가운…원하네 : 제목인 ‘원작냉추고(願作冷秋菰)’는 두보의 연작시 <찌는 더위[熱]>의 3수 중에서 첫 번째 수의 6구를 따온 것이다. 두보의 첫 번째 수는 다음과 같다. “천둥소리 부질없이 광광 대기만 하고, 비구름은 끝내 허무하구나. 찌는 더위에 옷에는 땀이 흐르니 늘 어져서 기운 추스르지를 못하네. 찬 수정이 되기를 구하고 싸늘한 가을 줄이 되기를 원하네. 어떻게 해야 어린 시절 바람이 선들할 때 무우에 나가 바람 씌었던 것과 같을 수 있을까? [雷霆空霹靂, 雲雨竟虛無. 炎赫衣流汗, 低垂氣不蘇. 乞爲寒水玉, 願作冷秋菰. 何似兒童歲, 風涼出舞雩?]”

147 벌거벗고 : 원문은 ‘裸’인데 문맥 상 ‘裸’의 오자로 추측되므로 바로 잡아 번역하였다.

앞은 바람을 받아 사각거리네	葉受風颼颼
나는 몸이 줄이 되어	我願身作菰
하지(夏至)에 물결 위를 따르고 싶네	長日隨波頭
나는 몸이 줄이 되어	我願身作菰
한해 마치도록 물 가운데 모래섬에 의지하고 싶네	終歲依中洲
타고난 것이 저절로 차고 맑으니	品生自淒清
여름도 근심할 바가 아니라네	朱夏非所憂
그런 후에 덥고 서늘함을 깨달으면	然後了炎涼
만종의 늙은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네	萬鍾非吾求

딸의 죽음을 슬퍼하다

悼女

너는 토천 집에서 태어났으니	汝生土泉宅
놀라웠고 또 사랑스러웠지 ¹⁴⁸	既驚而還憐
아름다운 자질은 일찍부터 맑고 영민했으니	蕙質夙清輕
다들 둘러앉아 너를 손에 안고 어여뻐하였지	珥環在手妍
네 나이 네 살 때	汝年方四歲
데리고서 북쪽으로 가는 이들을 따라갔는데	提携從北遷
말 위에서 웃으며 이야기하느라	笑語在馬上
길이 먼 것도 몰랐지	不知路且綿
교하 ¹⁴⁹ 에서 한 해를 머물렀는데	交河滯一年
사람들 따라다니며 늘 빙글빙글 춤을 추었지	逐隊常踰躑
고운 말은 봄날의 새가 지저귀는 듯하고	妙語春鳥囀
둥근 눈썹은 멀리 연이은 산봉우리 같았지	曲眉遙岑連
몇 번이나 과수원에서 과일을 주워 왔던가	拾果幾從園
나물을 캐러 자주 밭에 가곤 했었지	擷菜頻往田
유모 곁에서 옛날이야기 배우고	傍姆學古談
바늘 몰래 가져다 구멍 난 옷 기웠지	偷針補衣穿

148 너는…사랑스러웠지 : 토천(土泉)은 전남 장성(長城)의 지명이다. 석주(石洲) 권필(權韞)의 <술회연구(述懷聯句)>를 볼 때, 현주(玄洲)는 1600년(선조33) 즈음에 토천에 새로 집을 짓고 머물렀던 듯하다.

149 교하(交河) : 현재 파주시에 속하는 지역으로, 조선 시대에는 경기 교하현(交河縣)이었다. 현주 집안의 선산이 이곳에 있었던 듯하다.《新增東國輿地勝覽 卷11 京畿》《白軒集 卷35 龍宮縣監趙君行狀》

때로는 새로 단장하는 법을 배워서	有時習新粧
세수하고 빗질한 얼굴에 연지와 분 발랐는데	盥櫛施朱鉛
막 피어난 하늘의 꽃이 아니라면	若非茁天葩
꼭 곱고 어린 연꽃 같았지	恰是娃少蓮
이듬해 청파 ¹⁵⁰ 에 셋집을 얻었을 때	明年僦青坡
너는 나를 따라와 곁에서 놀았지	汝隨遊我邊
내가 신교 ¹⁵¹ 에서 나그네살이 할 때	及我客新橋
너는 또 내 앞에 있었지	汝又在我前
다시 형의 집으로 거처를 옮겼을 때	又移舍兄舍
나는 마침 고향에서 돌아와 있었는데	我偶自鄉旋
너는 외삼촌 따라 떠나고	汝從外舅去
네 어머니는 눈물 줄줄 흘렸지	汝母涕漣漣
네 오라비는 홀로 문밖으로 따라나서고	汝甥踽踽出
네 동생은 네가 가는데 잡지도 않더라	汝弟行無牽
나는 그때 네 뒤를 따라가고 싶었지만	我時欲追及
치악산은 운무에 덮여 아득했다	雉岳杳雲煙
4, 5년의 긴 이별 속에	曠別四五載
너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	父母慈愛捐
늘 탄식했다, 가난에 고생하느라	每吒苦食貧
자식도 온전히 건사하지 못한다고	子女莫保全
그렇지만 소식은 자주 전하였으니	雖然消息頻
너를 다른 이에게 맡기고 도리어 잊었겠느냐	任他還忘旃

150 청파(靑坡) : 청파역(靑坡驛)은 승례문(崇禮門) 3리 밖에 있다. 《新增東國輿地勝覽 卷3 漢城府》

151 신교(新橋) : 수표교(水標橋) 동쪽에 있다. 《新增東國輿地勝覽 卷3 漢城府》

너의 외숙모 [□] 가 죽은 뒤로	自從爾劉歿
너의 외삼촌도 남쪽에만 가 있었지	爾舅亦南徧
너 홀로 의지할 데가 없으리라 생각하니	謂汝子無依
부모는 더욱 가여운 마음이 들었기에	可憐增慈天
말 한 필로 원주 전장에 가서	匹馬赴原莊
너를 데리고 나는 듯 돌아왔지	率汝歸翩翩
너는 그 때 나와 헤어진 지 오래라	汝時別我久
지난날의 인연은 갑자기 잊은 듯	忽若忘前緣
통곡하며 따라가지 않으려 하기에	慟哭欲不隨
성내고 꾸짖으며 억지로 말채찍 휘둘렀지	嗔責強揮鞭
돌아와서는 즐거움이 무르녹아 ¹⁵²	歸來樂泮泮
그때부터 걱정스러운 마음이 풀렸지	從此豁憂情
이별한 지 얼마나 되었던가	相別曾幾時
여인의 규범을 익혀 옛날 어진 부인들 따르더라	女規遵前賢
때로 고운 옷 입고 서 있으면	時穿姣服立
신선이 안개로 치장한 듯하였지	煙霧粧神仙
친척들이 번갈아 찾아와 축하했는데	親黨迭來賀
너를 본 사람들은 놀라며 이야기 전했지	觀者驚相傳
누가 생각이나 했을까, 천연두를 앓아서	誰謂患痘疫
몇 년도 살지 못할 줄 ¹⁵³	尙不假數年

152 너의 외숙모 : 원문은 ‘爾劉’이다. ‘류(劉)’에는 숙모라는 뜻이 없고 어떤 고사가 사용된 것인지도 알 수 없지만, 문맥에 근거하여 번역하였다.

153 즐거움이 무르녹아 : 원문은 ‘泮泮’인데, ‘融融’과 같은 뜻이다. 춘추 시대 정(鄭)나라 장공(莊公)이 아우 공숙단(共叔段)의 반란을 평정한 뒤에 공숙단과 공모했던 어머니 강씨(姜氏)를 성영(城潁)에 유폐하고 다시는 만나지 않으려 하였다. 그러나 영고숙(潁考叔)의 충언을 듣고

나는 마침 고관이 되어	我適忝考官
병조에 있으며 마음이 타들어가는 듯하였지	在省心如燃
임무를 마치고 나와 네 병을 살피고는	罷出視其疾
오래 살 수 있으리라 여겼지	謂可期長延
어찌 생각이나 했을까, 열이 몸속에 막혀서	豈料熱內痞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죽어 버릴 줄	不日歸溘然
올다 기절하고 깨어나 다시 우니	哭絕甦更哭
통곡 소리가 하늘을 뚫을 듯했지	聲痛徹重玄
올다 쓰러지고 일어나 다시 우니	哭仆起更哭
눈물이 솟아 구천에 닿을 듯했지	淚涌徹九泉
네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每到想汝顏
오장육부가 타들어가는 듯했지	臟肺如焚煎
그래서 너를 생각하지 않고	所以不汝想
억지로 먹고 또 억지로 잠을 청했지	強食且強眠
네 말을 기억할 때마다	每到記汝語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었지	叫號如狂顛
그래서 너를 기억하지 않고	所以不汝記
내 마음 편한 대로 스스로 위로하며 지냈지	自遣如自便
곁의 사람이 너의 이름을 말하면	傍人說汝名
귀를 막고 연못으로 뛰어들고 싶었고	掩耳欲投淵
아내와 아이들이 너의 일을 이야기하면	妻兒說汝事
이 세상 밖으로 달려 나가고 싶었지	欲走出九埏
하늘이여 땅이여 사람이여	天乎地乎人

땅굴을 통해 들어가 강씨를 만났는데, 이때 장공이 “땅속 길에서 그 즐거움이 무르녹네.[大隧之中, 其樂也融融.]”라고 노래하였다. 《春秋左氏傳 隱公元年》

아버지여 어머니여 선조시여	父耶母耶先
나의 녹봉을 다 쓰지 않은 것 후회하니	悔不罄余祿
쌀밥에 고기반찬 차려 줄 걸	梁肉具腥羶
너를 굶주린 채 죽게 하였으니	令汝枵腹死
나물 반찬에 죽만 먹였구나	蔬菜唯粥饘
나의 재산을 다 쓰지 않은 것 후회하니	悔不竭余財
선명한 빛깔의 비단과 패물 늘어놓을 걸	錦貝羅明鮮
너를 맨몸으로 죽게 하였으니	令汝露體死
베옷을 수도 없이 기워 입혔구나	布葛千鶉懸
너를 날마다 안아 주지 못한 것 후회하니	悔不日抱汝
네 등과 어깨를 쓰다듬어 줄 걸	手摩爾背肩
너를 날마다 어루만져 주지 못한 것 후회하니	悔不日撫汝
손으로 네 살쩍이며 정수리를 빗겨 줄 걸	手櫛爾鬢巔
역귀를 붙잡지 못한 것 후회하니	悔不捉疫鬼
옥황상제 앞에서 고운 너를 두고 다투었어야 했는데	帝座訟嬋娟
내 살을 베어 내지 못한 것 후회하니	悔不割我肉
네게 먹였다면 병이 곧 나았을 텐데	飼汝病卽痊
네 화장대에 거미줄 치는 것을 차마 보겠느냐	忍看網汝奩
네 비녀에 먼지가 앉는 것을 차마 보겠느냐	忍看塵汝鈿
요절한 너의 혼이 울며 아비를 부르는데	殤魂哭喚爺
일 년 지난 무덤의 풀은 가을 되어 무성하구나	宿草秋芊芊
오늘 늙은 아버지의 마음은	老夫此日胸
만 마리 말이 한꺼번에 내달리는 듯하다	萬馬如駢鬪
늙은 아버지는 끝내 죽은 뒤에야	老夫却就木
이 마음이 편안해지겠지	此懷方坦焉

용암사¹⁵⁴에 투숙하다

投龍巖

계축년(1613, 광해군5) 중앙절에 월출산을 유람하다.

느닷없이 고을 성곽 ¹⁵⁵ 을 벗어나	擺忙出郡城
잔뜩 쌓인 공문서와 멀어졌네	簿領謝稠擾
녹거 ¹⁵⁶ 어귀에서 말에서 내리니	捨馬鹿車口
저녁 해는 나무 끝에 숨었구나	西日隱林抄
가마는 중들이 번갈아 메는데	籃輶僧替擔
높은 곳에 오를 때도 다리가 흔들리지 않네	冒陟脚不掉
바위는 위험한 곳에 늘어서 누대를 이루었고	巖排危作臺
시내는 깊은 곳으로 흘러 못이 되었구나	澗就深爲沼
수석은 청신함과 기이함을 겨루고	水石競清奇
골짜기는 점점 깊어지네	洞壑漸尙窈
때는 중앙절이 코앞이라	時天迫重陽
서릿바람 솔솔 불어오는구나	霜風吹嫋嫋
천 개의 숲은 비단 잎으로 장식한 듯하고	千林雕錦葉
겹겹의 자색 단풍은 구름 너머까지 비치는 듯하네	疊紫照雲表

154 몇…줄 : 공자(孔子)가 “하늘이 나에게 몇 년 더 수명을 빌려주어 마침내 주역을 배운다면 큰 허물이 없을 것이다.[子曰, 加我數年, 五十以學易, 可以無大過矣.]”라고 하였다. 《論語 述而》

155 용암사(龍巖寺) : 월출산(月出山)에 있는 절로, 9층탑이 있었다고 한다. 《息山集 別集 卷4 月出》

156 고을 성곽 : 전라남도 영암(靈巖)을 말한다. 현주는 당시 영암 군수였다.

붉은 성 ¹⁵⁷ 이 에워싼 듯 찬란하고	爛若赤城圍
빨간 놀이 에두른 듯 화려하구나	蔚如彤霞繞
붉은 일산이 모여 있는 듯도 하고	或如簇火傘
빨간 만장이 나부끼는 듯도 하다	或如飄丹旒
붉은 용이 싸우는 듯도 하고	或如赤龍鬪
솟을 태워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듯도 하구나	或如燔柴燎
축융제가	或如祝融帝
소호에게 괴롭힘을 당해 원망하는 듯도 하고 ¹⁵⁸	怨被少皞剿
잠복했던 군사들이 몰래 모여 훈련하다가	棲兵暗聚訓
군대를 늘어놓고 자주 도발하여 싸우는 듯하다	張軍戰頻挑
비록 마른 숲에 기세를 떨치지만	雖然勢振枯
맹렬히 조양자에게 향했던 지백의 물길 같다네 ¹⁵⁹	智水劇灌趙
불타오르는 듯한 가지는 단풍나무와 전나무를 감싸고	爍枝擁楓栝
진홍색 넝쿨은 등나무와 담쟁이 사이에 뒤섞였구나	絳蔓交藤葛
자잘한 산과일 많기도 한데	山果繁細瑣
붉고 푸른 열매 속에 달고 신 맛이 섞여 있네	甘酸雜丹纁
산봉우리 바위는 웅장하고 힘준하게 솟아 있고	嶺石挺雄險
깎아지른 절벽에는 푸른빛이 아직 남았네	戍削青未了
성을 내며 움켜쥐고 싸우는 것 같고	怒頑如攫拏
순식간에 날카로움을 다투는 것 같다	鬪銳如輕蹻

157 녹거(鹿車) : 월출산 용암(龍巖) 아래 세 개의 돌수레[石車]가 있는데, 맨 아래 있는 녹거가 가장 크다고 한다. 《記言 卷28 月嶽記》《息山集別集 卷4 月出》

158 붉은 성 : 원문은 ‘赤城’인데, 본래는 전설 속仙境(仙境)을 말한다.

159 축융제가...하고 : 축융제는 불의 신이자 남쪽을 담당하는 신으로 여름을 상징한다. 소호는 서쪽을 담당하는 신으로 가을을 상징한다.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한창임을 비유한 말이다.

고생고생하며 용암에 다다라	辛勤抵龍庵
잠깐 숨 돌리며 벼를 기다리네	小憩須朋稼
나무 끝에서 뿔피리 소리 그치자	木末畫角終
바위 구멍에 깃든 새가 깜짝 놀라는구나	石竇驚棲鳥
오솔길로 탑 앞의 바위를 찾아가서는	徑尋塔前巖
함께 새로 뜨는 밝은 달을 맞이하네	共邀新月皎
일 년쯤 고을 관아에만 머물렀는데	年來滯郡閣
정사에 서툴러 부질없이 앉아 시나 읊었지	政拙空坐嘯
공문서를 처리하느라 번잡스러워	酬酢鬧公牒
아침저녁으로 얼굴 퍼질 때가 적었다오	日夕開顏少
더구나 다시 위태로운 시절을 만났으니 ¹⁶⁰	況復值時危
무엇으로 시름겨운 마음을 위로했겠는가	何由慰悄悄
근심에 빠져 세월을 보내느라	汨沒送炎涼
초승달도 그믐달도 보지 못했구나	水輪負朧朧
술동이 위에 뜬 노란 꽃이 안쓰럽고	盆面惜黃花
섬돌 가 푸른 대나무가 가련했네	砌角憐翠篠
서쪽으로 탁 트인 해구를 바라보니	西瞻海門豁
하늘과 바다가 드넓게 펼쳐져 아득하구나	天水滂渺渺
절에 투숙하여 근심 걱정 내려놓고	投寺謝憂悵
등불 켜고 맑은 술 따르네	張燈酌清醪
좋은 경치 덕에 시재가 늘고	清賞富詩料

160 맹렬히…갈다네 : 춘추 시대 진(晉)나라의 실권자 지백(智伯)이 조양자(趙襄子)를 공격하면서 진양(晉陽)에 물을 댔는데 민가 부엌에 개구리가 살 정도였다. 그러나 백성들이 전혀 이반하지 않아서, 조양자는 그곳을 근거지로 반격하여 지백의 일족을 몰살시켰다. 《史記 卷43 趙世家》《史略 卷1 春秋戰國 趙》

젊은이들과 해학을 즐긴다네	諧謔共年少
내일 아침 구정봉에 오를 텐데	明朝上九井
구불구불한 돌길 끝까지 가 보리	石路窮要紹
큰 소리로 읊조리며 세속의 어지러움을 벗어나니	高哦脫世紛
우주가 눈앞에 아득하구나	宇宙目窅窅
향을 사르고 깊이 성찰하면서	燒香發深省
잠들지 않고 맑은 새벽을 기다리네	不眠浹清曉

구정봉¹⁶¹에 투숙하다

投九井峯

해가 가파른 산 위로 옮겨가기에	日車轉危峭
수레를 재촉해 숲을 따라갔네	促輿緣林阜
이리저리 부여잡고 고운 바위에 오르는데	攀躋陟琬琰
증이 붉어진 얼굴로 땀을 흘리며 힘들다고 하네	汗頰僧告勞
고생고생하며 꼭대기에 올라서	艱辛上上頭
멀리까지 바라보며 실컷 구경했지	目極窮遊遨
바위는 누운 용의 흔적을 이고 있으니	石戴臥龍迹
아홉 개의 못에는 신령스러운 물결이 남았더라	九湫留神濤
높은 바위에는 천연의 틈이 벌어져 있고	嵬巖拆天罅
손에 흔들릴 만큼 위태로워 견고하지 않더라 ¹⁶²	手搖危不牢
피리 소리는 구름 속으로 울려 퍼져 가는데	蕭管入雲吟
푸성귀와 술을 담은 광주리를 가져오네	筐匱携蔬醪
거센 바람이 나무 끝을 맴도니	靈飈逗林端
귀를 기울였다가 썩썩 소리에 깜짝 놀라네	側耳驚刁刁

161 더구나...만났으니 : 계축옥사(癸丑獄事)로 인해 시국이 불안한 상황임을 말한 듯하다.

162 구정봉(九井峯) : 월출산의 최고봉이다. 꼭대기에는 바위가 우뚝 솟아 있는데, 높이가 두 길이나 되고, 곁에 한 구멍이 있어 겨우 사람 하나가 드나들 만하다. 그 구멍을 따라 꼭대기에 올라가면 20여 명이 앉을 수 있는데, 그 편평한 곳에 동이처럼 오목한 곳이 아홉 개 있어서 구정봉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곳은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마르지 않는데, 아홉 마리 용이 그곳에 있었다고 한다. 《新增東國輿地勝覽 卷35 全羅道》

남은 울림이 내 살쩍을 스치는 듯하더니	餘響掠余鬢
낙엽이 내 도포 자락에 떨어지는구나	脫葉隳余袍
큰 소리로 읊조리며 마음껏 멀리까지 바라보니	高哦騁遐眺
신선의 무리를 맞이하는 듯 황홀하다	恍若邀仙曹
생황 소리 속에 안기생을 전송했고 ¹⁶³	安期送鸞笙
서왕모는 커다란 복숭아를 남겼네 ¹⁶⁴	王母遺洪桃
북명의 봉새는 다투어 부리를 쳐들고 ¹⁶⁵	溟鵬競騫鬪
수려한 학은 다투어 날갯짓하는구나	逸鶴爭翻翱
광한전 ¹⁶⁶ 에 들어온 듯 표표하고	飄如入廣殿

163 높은…얹더라 : 구정봉 아래에는 움직이는 돌(動石)이 있다. 특히 층암(層巖) 위에 서 있는 세 돌은 높이가 한 길 남짓이고 둘레가 열 아람이나 되는데, 서쪽으로는 산마루에 붙어 있고 동쪽으로는 절벽가에 있다. 수많은 사람을 동원해도 흔들지 못할 것 같으나, 한 사람이 흔들면 떨어질 것 같으면서도 떨어지지 않는다. 이에 영암(靈巖)이라 칭하고, 고을 이름도 여기에서 나왔다. 《新增東國輿地勝覽 卷35 全羅道》

164 생황…전송했고 : 안기생(安期生)은 신선의 이름이다. 이백(李白)의 〈고풍(古風)〉에 “학 등 위의 한 나그네, 날고 날아 하늘까지 올라갔네. 푸른 구름 속에서 큰소리로 외치며, 스스로 안기생이란 이름 말하더라. 백옥 같은 동자들이 짝을 지어서, 쌍으로 자란생 불었네. [客有鶴上仙, 飛飛凌太清. 揚言碧雲裏, 自道安期名. 兩兩白玉童, 雙吹紫鸞笙.]”라고 하였다.

165 서왕모(西王母)는…남겼네 : 서왕모는 곤륜산(崑崙山)에 사는 신선으로, 한 무제(漢武帝)에게 반도(蟠桃) 즉 선도(仙桃)를 바쳤다고 한다. 무제가 그 씨앗을 남겨 두려 하자, 서왕모가 그 복숭아는 3천 년에 한 번 열매를 맺는데 중국은 땅이 척박하여 심어도 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漢武帝內傳》

166 북명(北溟)의…쳐들고 : 봉새는 북명의 곤(鯁)이라는 물고기가 변한 것인데, 남쪽 바다로 옮겨 갈 때 날개로 물결을 치면 3천 리 높이까지 오른다고 한다. 《莊子 逍遙遊》

운라 ¹⁶⁷ 소리 듣는 듯 상쾌하다	爽如聆雲璈
층층의 산은 텅 빈 하늘에 기대고 있으니	層巒倚虛無
어찌 굳이 여섯 자라를 번거롭게 하랴 ¹⁶⁸	何須煩六鼈
어떤 짓은 잠자는 중처럼 웅크리고 있고	或蹲若睡僧
어떤 짓은 날랜 원숭이처럼 치솟았다	或挺若飛猿
높고 험하여 형세가 더욱 웅장하니	崔峯勢益壯
거령 ¹⁶⁹ 이 마음껏 욕심을 부렸구나	巨靈窮貪饕
너른 바닷물은 흘러 서북쪽을 함락했으니	滄海陷乾寶
조화옹이 수고롭게 빚어낸 것이라	造化勞甄陶
이어서 생각하자니, 처음 하늘과 땅이 갈릴 때는	仍思初剖判
혼돈의 기운이 가득했겠지	混混以滔滔
동쪽으로 탐라를 굽어보고	東俯矚耽羅
서쪽으로 임조 ¹⁷⁰ 를 흘겨보며 분별하네	西眄分臨洮
고만고만한 크기의 자손들 같고	等冠若兒孫

167 광한전(廣寒殿) : 달 속에 있다는 신선의 궁전이다.

168 운라 : 원문은 ‘雲璈’인데, 이것은 운라(雲鑼)라는 타악기이다. 작은 접시 모양의 징 열 개를 나무틀에 매달고 나무망치로 쳐서 소리를 낸다.

169 어찌…하랴 : 전설에 의하면 발해(渤海) 동쪽 깊은 골짜기에 대여(岱輿)·원교(員嶠)·방호(方壺)·영주(瀛洲)·봉래(蓬萊)의 다섯 신선(仙山)이 있었는데, 바다에 떠서 조수(潮水)를 따라 오르내렸다고 한다. 상제(上帝)가 떠나려갈까 걱정하여 15마리 자라에게 머리를 들어 떠받치게 하였는데, 3교대로 6만 년에 한 번씩 교대하게 하였다. 그런데 용백국(龍伯國)의 거인이 낚시질로 여섯 마리 자라를 잡아가 버려서 두 산은 북극으로 흘러가 큰 바다 아래로 가라앉고 세 산만 남았다고 한다. 《列子 湯問》

170 거령(巨靈) : 하신(河神)의 이름이다. 황하(黃河)가 화산(華山)에 막혀 흐르지 못하자, 화산을 쪼개서 태화산(太華山)과 소화산(少華山)으로 나누고 그 사이로 황하를 흐르게 했다고 한다.

봇도랑의 금린어 ¹⁷¹ 같구나	錦魚如澮漚
계절은 겨울이 코앞인지라	天時迫玄冥
늙은 소호가 전쟁에서 자주 고전하는 듯하네 ¹⁷²	老皞戰頻塵
전부터 맑은 인연을 잃고	從前失淨緣
홀로 서서 양쪽 살쩍만 굵고 있구나	獨立雙鬢搔
어찌하면 멀리 뗏목 타고 떠나서 ¹⁷³	何由遠乘桴
경쾌한 배에 몸을 맡기고 이리저리 유람할 수 있을까	出沒隨輕舸
무슨 수로 풍향 ¹⁷⁴ 과	何計飡楓香
석수 ¹⁷⁵ 먹으며 비린내와 누린내 씻어낼 수 있을까	石髓湔腥臊
줄곧 공문서 사이에서 번뇌하다가	向來惱簿牒
반백이 되었음을 부질없이 슬퍼하네	徒然悲二毛
저녁 경치는 비 내려 선명해지고	暮景得雨鮮
필세는 술기운 타고 호방해지니	筆勢乘酒豪
닷에서 풀려난 배처럼 아득히 나아가고	漉若舟解碇
끈에서 풀려난 매처럼 빠르게 나아가네	快若鷹脫條

171 임조(臨洮) : 지금 중국 감숙성(甘肅省)에 있는 곳으로, 만리장성이 시작되는 서쪽 땅이다.

172 금린어(錦鱗魚) : 쏘가리를 말한다.

173 계절은…듯하네 : 원문의 현명(玄冥)은 소호씨(少皞氏)의 아들로 북쪽과 겨울의 신이다. 소호는 서쪽을 담당하는 신으로 가을을 상징한다. 계절이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때임을 비유한 표현이다.

174 뗏목 타고 떠나서 : 공자가 “나의 도가 행해지지 않으니, 뗏목을 타고 바다에 떠다녀야겠다.[道不行，乘桴浮于海.]”라고 탄식한 데서 온 말이다. 《論語 公冶長》

175 풍향(楓香) : 두보(杜甫)의 <기한간의주(寄韓諫議注)>에 “국가의 성패를 내 어찌 감히 점치랴, 비리고 썩은 것에 난색을 표하며 풍향을 먹노라.[國家成敗吾豈敢，色難腥腐餐楓香.]”라고 하였다. 풍향은 풍수(楓樹)에서 분비되는 끈끈한 액체로, 도가(道家)에서 약을 조제할 때 쓴다고 한다.

차마 없애지 못했던 속세의 걱정도 끝내 버리고
노심초사하던 세상 근심도 쏟아 낸다네
고개 들고 옥황상제 앞에 다가가니
누가 하늘이 높다고 하였나
함께 노니는 자들 모두 씩씩하고 호방하니
다들 세속에 구애받지 않는 걸출한 자들이라오
시를 지어 보내며 먼 곳의 유람을 기록하지만
어찌 시단에 오를 만하겠는가

俗慮了忍磨
世憂瀉怛怛
矯首逼帝座
孰云天蓋高
同游儘雄邁
倜儻皆英髦
題贈記遐遊
豈合登風騷

용암사에서 출발해 도갑사¹⁷⁶에 투숙하다

自龍巖投道岬

이틀 밤을 묵고 중앙절을 맞아	信宿遇重陽
시인은 다시 여기서 지팡이를 짚고 나서네	復此携吟筇
굽은 길 곧은 길 꺼리지 않고	不憚路紆直
종횡으로 솟은 바위를 또다시 찾아가지	更探巖橫縱
오래된 바위에 오르고 또 오르는데	老石陟又陟
층층 벼랑은 겹겹이더라	層崖重復重
서리 내린 숲은 붉은 성이 에워싼 듯	霜林繞火城
바람 부는 골짜기는 붉은 용이 외치는 듯	風谷號頽龍
푸른 산봉우리에서 잠시 쉬자니	小憩得蒼岑
흔은 요동치고 마음마저 두렵다	魄動心猶恟
수놓은 비단 만 필이 눈 아래 펼쳐진 듯	下鋪萬錦繡
천 송이 부용이 고개 숙여 늘어선 듯	俯列千芙蓉
갈라진 골짜기는 바닥조차 없는 곳을 누르는 듯하고	峽拆壓無底
연이은 산봉우리들은 높은 성곽처럼 이어졌구나	嶺屬連崇墉
노란 것은 아롱진 소국(小菊)임을 알겠고	黃知斑細菊
푸른 것은 가로지른 장송임을 깨닫네	碧覺橫長松
노랫소리와 피리소리가 이미 앞에서 인도하니	歌笛已先導
승들은 그 뒤를 따라간다	僧徒隨後從
술잔은 몸을 굽혀 시냇물에 씻고	酒卮俯澗洗

176 석수(石髓) : 석수는 석종유(石鐘乳)로, 진(晉)나라 왕렬(王烈)은 양생법(養生法)으로 이것을 먹었다고 한다.

과일과 채소는 임시로 꾸린 부엌에서 바치네	果蔬行廚供
호쾌하게 술 마시며 먼 바다를 바라보니	淋漓望遠海
질은 봄 구름처럼 아름답구나	渙若春雲濃
물가는 구불구불 아득히 퍼져 나가고	浦激潏回互
산등성이는 다투어 나를 맞아 주는 듯	岡巘爭迎逢
현묘한 눈으로 조화옹의 흔적을 살피니	冥觀造化迹
하늘과 바다 사이를 공교롭게도 꿰뚫구나	天水工彌縫
수레를 재촉해 도갑사로 향하는데	促輿向道寺
숨어 있는 샘에서 맑은소리 들려오네	暗泉聞琤琮
어찌 구경만 실컷 했겠는가	豈但騁遊目
세속의 때가 낀 마음도 한가로이 씻어 냈지	悠然蕩塵胸
오솔길은 지장암을 지나는데	微逕歷智藏
대통을 끌어다 솟아나는 물줄기를 나눴구나	引筭分飛淙
외로운 암자로 묵선 ¹⁷⁷ 을 찾아갔지만	孤庵訪默禪
스님은 발자취를 숨겼네	楞伽藏佛蹤
길 따라 깊은 골짜기로 내려가니	寅緣下深洞
물과 바위가 절구질을 하는 듯	水石相撞舂
초 땅 풍속은 무협 ¹⁷⁸ 을 자부하고	楚俗矜巫峽
촉 땅 사람들은 임공을 자랑하지 ¹⁷⁹	蜀人誇臨邛
계곡 따라 북쪽 못에 이르자	沿溪抵北塘
물 흐르는 골짜기는 솟씨를 부리느라 수고로우니	澗壑勞陶鎔

177 도갑사(道岬寺) : 월출산에 있는 사찰로, 신라 승려 도선(道詵)이 머물렀던 곳이다. 《新增東國輿地勝覽 卷35 全羅道》

178 묵선(默禪) : 암자에 사는 스님의 이름인 듯하나, 자세한 것은 알 수 없다.

179 무협(巫峽) : 삼협(三峽)의 하나이다. 삼협은 양자강(揚子江) 상류의 험난한 세 협곡으로, 구당협(瞿塘峽), 무협, 서릉협(西陵峽)을 말한다.

바위에 붙어 높은 폭포가 되어서	着石作高瀑
맹렬한 기세로 내달리며 부딪치는 것을 보네	猛勢看奔衝
술잔을 들고 팔팔 폭포 소리를 듣고	携杯聽淅淅
크게 휘파람 불며 질펀히 흘러가는 물소리를 듣지	高嘯聆溶溶
세속의 옷 입고 공문서 사이에서 고뇌하다가	塵裾惱簿領
반평생 늙기만 했음을 슬퍼한다오	半世悲龍鍾
옛날부터 무슨 일 이루었던가	向來成底事
두 살쩍은 부질없이 부스스 나부끼는구나	兩鬢空鬢鬆
정사에 서툰 채로 영암 산골에 머물다가	政拙滯巖邑
순식간에 세월이 흘러 버렸지	忽忽經春冬
점점 더 멀리 날아가는 신선과 가로막힌 채	飛仙阻冉冉
이 세상의 용렬한 나를 가련히 여긴다네	浮世憐庸庸
우연히 좋은 만남을 가졌으니	偶爾作佳會
진하고 맛있는 술 마시는 것 싫지 않다오	不惡傾醇醞
붉은 잎을 살쩍에 가득 꽂고	赤葉插滿鬢
술잔을 계속 ¹⁸⁰ 돌리며 기뻐하네	酒行忻懂懂
좋은 경치에 마음이 상쾌하게 툭 트이니	勝迹得爽塏
속세의 저주와 흥언을 슬퍼한다오	俗情悲詛凶
술 마시지 않고 무엇을 하려는가	不飲欲何爲
반백 년 동안 게을렀음을 슬퍼한다네	半百哀疏慵
시를 지어 나의 벗에게 보내니	題詩贈吾友
무릎을 치며 기뻐하겠지	擊節開歡悰

180 축…자랑하지 : 임공(臨邛)은 한(漢)나라 사마상여(司馬相如)가 탁문군(卓文君)과 함께 도망쳤다가 다시 돌아와 술집을 차린 곳이다. 《史記 卷117 司馬相如列傳》

굴 안에서 바둑을 두다¹⁸¹ 과제

橘中對棋 課製

네 노인이 처음 세상을 피해	四老初避世
상안산에 은거했을 때	隱在商顏時
이곳 상안산은 깊어서	謂此商顏深
온 세상에 아는 사람이 없으리라 여겼지만	舉世無人知
끝내 장자방의 술책에 떨어져	竟墮子房術
세상에 나와 위험에 처한 태자를 보필했다네 ¹⁸²	出扶儲嗣危
도리어 깊이 은거하지 못했음을 후회하며	却悔隱不深
공산 기슭으로 달려 들어갔지	走入邛山陁
공산의 숲은 마침 서리를 실컷 맞아서	邛林政飽霜
굴이 익어 노랑게 주렁주렁 달렸더라	橘熟黃離離
네 노인이 두 개의 굴을 차지하여	四叟占兩橘
그리 달아나 숨어서 높은 가지에 매달렸다네	遁藏依高枝
공산 사람이 날마다 그곳을 지나며	邛人日來過
아무 의심 없이 굴을 주웠는데	拾取無所疑
이 두 알이 큰 것을 괴이하게 여겨서	怪此兩顆大
평범한 굴과 비교해 보니 기이하더라	比視凡顆奇

181 계속 : 원문은 ‘憧憧’인데, 《주역(周易)》〈함괘(咸卦)〉에 “계속 왕래하면 벗들만 네 생각을 따르리라.[憧憧往來, 朋從爾思.]”라고 하였다.

182 굴…두다 : 옛날에 파공(巴邛) 사람이 자신의 굴원(橘園)에 대단히 큰 굴이 두 개 열렸기에 쪼개어 보니, 굴마다 수염과 눈썹이 흰 노인들이 돌씩 마주 앉아 장기[象棋]를 두면서 즐겁게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그중 한 노인이 굴 속의 즐거움은 상산(商山)에 뒤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古今事文類聚 後集 卷27 橘中之樂》

따 와서 서둘러 손으로 껍질을 벗기고는	摘來忙手剝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 혼비백산하였지	驚諦心魂隳
두 개의 껍질 안에 각각 두 명의 노인이	兩殼各兩叟
서로 바라보며 바둑 ¹⁸³ 을 두고 있었네	相視圍秋棋
다시 후회하였지, 껍껍질이 얇아서	更悔橘皮淺
괴롭게도 남이 와서 들여다보게 되었다고	苦致人來窺
산으로 달아났지만 달아나지 못해서	逃山逃不得
한나라 사신이 잠시 뒤 따라왔고	漢使俄相隨
다시 이 굴 속으로 달아났지만	却來逃此窟
또 공산 사람에게 모욕을 당하였구나	又被邛人欺
이 몸은 어디로 숨어야 할까	此身安所藏
세상에서는 느긋하게 노닐기 어렵도다	世裏難棲遲
소매를 뒤져 비밀 부적을 꺼내더니	探袖出祕符
어떻게 해야 하나고 ¹⁸⁴ 하늘에 하소연하였네	訴天其如台
이에 하늘이 용에게 명을 내리니	天乃詔飛龍
용이 빛나는 오색구름에 가려 보일 듯 말 듯	五雲光蔽虧
용이 찾아와 굴 밖에 엎드려	龍來橘外伏
네 노인이 하는 대로 맡기니	聽四老所爲
네 노인은 밝게 웃으며	四老粲相笑
서로 이끌고 함께 용을 탔네	相携以共騎

183 네…보필했다네 : ‘네 노인’은 진(秦)나라 말부터 한(漢)나라 초까지 전란을 피해 상산(商山)에 은거했던 상산사호(商山四皓)를 말한다. 상안산(商顏山)은 곧 상산이다. 한 고조(漢高祖)가 태자(太子)를 폐위 하려고 하자, 장량(張良) 즉 장자방(張子房)이 이들의 힘을 빌려 태자의 폐위를 막았다. 《史記 卷55 留侯世家》

184 바둑 : 원문은 ‘秋棋’인데, 혁추(奕秋)의 바둑이라는 뜻이다. 혁추는 《맹자(孟子)》에 나오는 인물로 당시 바둑을 가장 잘 둔 사람이다.

하늘로 가벼이 날아올라 다가가더니	輕舉薄玄間
아득히 어느 곳으로 가 버렸나	茫洋何所之
이때부터 네 노인을 잃었으니	從此失四公
기이한 행적은 뒤쫓을 길이 없대오	異迹無由追
나는 이들의 졸렬함을 비웃나니	吾笑此輩拙
세 번이나 세상을 피하느라 마음만 수고로웠구나	三避勞心思
어찌 변화한 도회지에서	何如在城市
비천한 수문장으로 세상에 뒤섞여 사는 것만 하겠는가 ¹⁸⁵	托混監門卑
몸을 숨기는 것과 이름을 숨기는 것	藏身與藏名
그대여 이 중에 골라 보시라	君請擇於斯

185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원문은 ‘其如台’인데, 《서경(書經)》에서는 본래 ‘어쩔 수 없다’, ‘어찌하겠느냐’ 등으로 해석된다.

형가¹⁸⁶를 애도하다

哀荊軻

위와 같다

금구슬로 거북에게 던져 주는 일 ¹⁸⁷ 을 마치자	金丸罷投龜
훌륭한 솜씨로 쟁반 속에 음식을 진설하였네 ¹⁸⁸	好手飭盤裏
장사의 머리털이 관에 치솟았으니 ¹⁸⁹	壯士髮衝冠
평소의 뜻 지기를 위해 죽는 거라네	素志死知己
칼을 감추었으니 ¹⁹⁰ 용기가 어찌 적으리오	藏劍勇豈少
머리를 함에 담았으니 ¹⁹¹ 계책은 속이는 게 아니로다	函首計非詭

-
- 186 비천한…하겠는가 : 현자(賢者)이면서 관문을 지키는 비천한 일을 하며 은둔했던 신문(晨門)의 고사에서 유래한 말이다. 《論語 憲問》
- 187 형가(荊軻) : 전국 시대의 협객(俠客)으로 원래 위(衛)나라 사람이었다. 연(燕) 나라로 와서 축(筑)을 잘 타는 고점리(高漸離)와 어울려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지냈다. 뒤에 연나라 태자 단(丹)의 부탁을 받고 진왕(秦王 후일의 진 시황)을 죽이러 갔으나 실패하였다.
- 188 금구슬로…일 : 자객 형가(荊軻)가 기와를 주워 거북에게 던지고 있었는데, 연(燕) 태자 단(丹)이 형가의 환심을 사기 위해 금 구슬이 가득 들어있는 쟁반을 그에게 바쳤다. 그러자 형가는 금 구슬들을 거북에게 다 던져 주었다고 한다. 《太平御覽 卷369》
- 189 훌륭한…진설하였네 : 태자 단이 더욱 환심을 사기 위해 형가에게 좋은 음식을 대접한 일을 말한다.
- 190 장사의…치솟았으니 : 형가가 역수(易水)를 떠나면서 “바람 소리 쓸쓸하고 역수는 차갑구나. 장사는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못하리라. [風蕭蕭兮易水寒, 壯士一去兮不復還.]”라고 노래 부르자, 사람들이 모두 눈을 부릅떴고 머리카락이 관으로 치솟았던 일[髮盡上指冠]을 가리킨다. 《史記 卷86 荊軻列傳》
- 191 칼을 감추었으니 : 진 시황에게 바치는 연나라 독항(督亢)의 지도 속에 형가가 비수를 감춘 일을 가리킨다.

네 마리 말을 매어 서쪽 길을 가려 하니	結駟躡西路
눈엔 이미 진씨가 없었네	目已無秦氏
갠 날에 무지개가 홀연 해를 꿰뚫자 ¹⁹²	晴虹忽貫日
흰옷 입은 이들 ¹⁹³ 근심스럽게 서로 보았다네	縞衣慘相視
차가운 바람 역수에 불어오고	寒飈吹易水
강물은 그칠 때가 없네	水流無時已
이제 떠나면 어느 날에 돌아올까	此去還幾日
축을 치며 ¹⁹⁴ 부질없이 곡하며 울었네	擊筑空涕泗
형가를 위해 구빈의 예 ¹⁹⁵ 를 베풀어 맞이하니	爲設九賓迎
평소의 바람 이제 이를 만하네	夙願今可遂
전저가 생선을 가르려 할 때 ¹⁹⁶	專諸欲剖魚

192 머리를 함에 담았으니 : 형가가 연(燕)나라 태자 단을 위해 진시황을 죽여서 복수를 하려고 할 적에, 의심을 받지 않으려고 진나라에서 죄짓고 망명한 번오기(樊於期)를 찾아가서 “왼손으로 진왕의 옷소매를 잡고, 오른손으로 그의 가슴을 찌르겠다.[左手把其袖, 右手搯其胸.]”라고 설명하며 그의 목을 달라고 요청하였다. 번오기 역시 자기의 원수를 갚기 위해 기꺼이 그 요청을 받아들여 자결을 하니, 형가가 그의 머리를 담은 함(函)과 독항지도(督亢地圖)가 든 갑(匣)을 들고 진시황을 찾아갔다.

193 갠 날에… 꿰뚫자 : 《사기(史記)》〈추양열전(鄒陽列傳)〉에 “옛날에 형가가 연단(燕丹)의 의리를 사모했는데, 흰 무지개가 해를 꿰니 태자가 두려워했다.[昔者, 荊軻慕燕丹之義, 白虹貫日, 太子畏之.]”라는 기록이 보인다.

194 흰옷 입은 이들 : 태자 단과 빈객들 가운데 형가의 일을 알고 있던 이들이 상복의 차림으로 형가를 전송한 것이다.

195 축을 치며 : 형가(荊軻)가 진나라로 떠날 적에, 형가와 친하게 지내던 고점리(高漸離)가 축을 치며 노래를 불러 그의 마음을 위로하였다.

196 구빈(九賓)의 예 : 진 시황이 9위(位)의 접빈객을 배치하여 형가를 맞이한 것을 가리킨다. 즉 성대한 의식으로 맞이함을 뜻한다.

아 어린놈이 얼굴빛 변화였네 ¹⁹⁷	色動唉豎子
진왕 가슴을 찌를 때 손이 끌어당기질 못했으니	楯胸手未掣
소매가 찢어지며 형세가 글렀도다	裂袖勢已矣
기둥을 돌며 달아남은 신이 도운 듯	環柱若神助
병풍을 뛰어넘어 감은 과연 누가 시켰는가 ¹⁹⁸	超屏果誰使
만약 기다리던 사람 ¹⁹⁹ 과 함께 갔더라면	倘偕所待者
이 계획은 오히려 이룰 수 있었으리	此計猶可售
단은 어찌 형가를 재촉하여 가게 하였는가	丹胡促軻行
부질없이 죽게 됨은 진실로 이유가 있도다	徒死良有以
가련하다 하루아침의 분노 ²⁰⁰ 로	可憐一朝忿
거듭 천고의 부끄러움을 남겼네	重貽千古恥

197 전저(專諸)가…때 : 전저는 춘추 시대 오(吳)나라 용사로 공자 광(公子光)을 위해 구운 고기[炙魚] 뱃속에 칼을 숨겨서 오왕을 찔러 죽이고, 자신도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다. 《史記 卷86 刺客傳》 여기서는 형가가 비수를 지도에 숨겨 가지고 가서 진시황을 찌르려는 때를 비유한다.

198 어린놈이 얼굴빛 변화였네 : 연나라의 진무양(秦舞陽)이라는 용사(勇士)는 열세 살 어린 나이에 사람을 죽인 바 있었는데, 태자 단은 진시황을 암살하려는 형가를 보조하게 하였다. 형가가 번오기의 목이 든 상자를 들고 진무양이 지도를 들고 올라가는데 진무양이 겁에 질려 낮빛이 변하며 벌벌 떨었다. 《史記 卷86 刺客列傳 荊軻》

199 기둥을…시켰는가 : 진시황이 기둥을 돌고 병풍을 뛰어넘어 달아나는 모습을 형용한 것이다.

200 기다리던 사람 : 《사기(史記)》〈형가열전(荊軻列傳)〉에 형가가 진나라로 떠나기 전 함께 가려고 기다린 사람이 있었는데, 태자 단이 재촉하는 바람에 만나지 못하고 출발하였다고 기술되어 있다.

집영대²⁰¹

集靈臺

위와 같다.

침녕쿨은 옛 기와를 엮었고	野葛纏古瓦
황제 수레 길에는 여울 소리 슬피 울리네	輦路鳴湍哀
문노니 누가 이 대를 세웠나	問誰起茲臺
돌아가는 나무꾼에게 옛일을 물어보네	古事詰樵廻
무황 ²⁰² 은 진실로 기궤한 걸 좋아하여	武皇信好詭
궁전을 짓느라 백성의 재물을 다 썼다네	土石窮民財
높다란 서까래는 하늘에 나는 듯하고	飛榱翊太清
고운 빛깔의 구름이 항상徘徊하였지	彩雲常徘徊
서쪽으로 읍을 하자 서왕모가 강림하니	西揖降王母
접하여 요지의 술잔을 잡았네 ²⁰³	踵把瑤池杯
이소군은 허황하고 괴이한 말을 제멋대로 하고 ²⁰⁴	少君逞荒怪

201 하루아침의 분노 : 연 태자(燕太子) 단(丹)이 일찍이 진(秦)나라에 볼모로 가 있을 때, 진 시황이 그에게 예우(禮遇)를 하지 않으므로, 그가 진 시황에게 본국으로 돌아가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진 시황은 들어주지 않고서 속여 “까마귀의 머리가 희어지고 말의 머리에 뿔이 나면 보내 주겠다.[烏頭白馬生角, 乃可許耳.]”라고 말하여 태자 단은 깊은 원한을 가지게 되었다.

202 집영대(集靈臺) : 한 무제(武帝)가 서왕모(西王母)를 영접하기 위해 지은 궁전을 가리킨다. 집령궁(集靈宮)이라고도 하며 현재의 산시성(陝西省) 화인시(華陰市)에 있었다.

203 무황(武皇) : 한(漢) 무제(武帝)를 가리킨다.

204 서쪽으로…잡았네 : 《한무제내전(漢武帝內傳)》에 따르면 한 무제가 선도(仙道)를 갈망하여 서왕모를 만나고자 빌었더니, 칠월 칠석에 서

동방삭은 부질없이 해학을 일삼았지 ²⁰⁵	方朔徒諧談
운오 ²⁰⁶ 는 바라보아도 아득하고	雲璈望不極
텅 빈 전각엔 먼지가 일어나네	虛殿生塵埃
집령대의 신선에 대해 듣지 못했노니	未聞集靈仙
집령대는 텅 빈 누대로 남았구려	集靈遺空臺
옛날 주나라에서 영대를 만들었는데	昔周創靈臺
지를 때 백성들이 자식처럼 달려왔다네 ²⁰⁷	經營仍子來
두 시대가 흥망이 다르니	兩代異興替
후대의 왕들은 마땅히 거울로 삼아야 할진저	後王宜鑑哉

왕모가 아홉 빛깔 용이 끄는 수레를 타고 내려왔다. 이때 서왕모는 한 무제에게 천상의 술과 천도복숭아를 선물로 주었고, 상원부인(上元夫人)을 불러 둘이서 함께 한 무제가 타고난 성품을 고쳐 장생불사에 이를 방도를 깨우쳐 주었다고 한다.

- 205 이소군(李少君)은…하고 : 제(齊) 방사(方士)로 무제에게 “부엌 신에 제사하면 신령한 물건을 얻고, 그 물건으로 단사(丹砂)를 황금으로 바꿀 수 있으며, 황금으로 그릇을 만들면 장수하여 바닷속 봉래산(蓬萊山)의 신선을 만날 수 있는데, 그 신선에게 봉선(封禪)의 예를 행하면 죽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206 동방삭은…일삼았지 : 한(漢)나라 때 저명한 문학가로 본디 해학(諧謔)과 골계(滑稽)에 능하였다. 《십주기(十洲記)》와 《신이경(神異經)》과 같은 황당한 내용의 저서들이 그가 지은 책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십주기》에는 서왕모(西王母)가 사는 곤륜산(崑崙山) 꼭대기에 다섯 곳의 금대(金臺)와 열두 곳의 옥루(玉樓)가 있다는 내용이 있다.
- 207 운오(雲璈) : 운라(雲鑼)라고도 하는 타악기이다. 《한무제내전(漢武帝內傳)》에 서왕모가 시녀인 왕자등(王子登)에게 명하여 옥으로 만든 운오를 타게 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맛좋은 술이 궁벽진 골목에 없으랴

美酒無曲巷

위와 같다.

하늘이 순후치 않은 풍속을 근심하더니	天愍俗不醇
의적 ²⁰⁸ 이 마침내 술동이를 열었네	儀氏遂開酒
성령을 통하게 할 뿐만 아니라	非唯通性靈
번뇌를 사라지게 함을 스스로 깨닫네	自覺豁塵垢
본래 성현이라 일컫기에 ²⁰⁹ 합당하고	固合稱聖賢
아울러 옥우라 부르기에 ²¹⁰ 마땅하네	兼宜呼玉友
술을 써서 신명을 이르게 할 때	用以格神明
종묘와 사직에선 울창주 술동이 ²¹¹ 에 의지하네	廟社資鬯卣
비록 음탕하고 술주정하는 이를 풍자했으나 ²¹²	雖然刺淫酗

208 옛날...달려왔다네 : 《시경》과 《맹자》에 주 문왕(周文王)이 궁중 안에 영대(靈臺)를 지을 때, 자식이 아버지 일에 달려와 정성을 다해 도와 주듯이 백성들이 자진하여 봉사함으로써 공사가 매우 빨리 마무리 되었다는 내용이 나온다.

209 의적(儀狄) : 중국 고대 우(禹) 임금 시대에 술을 최초로 만든 사람이다.

210 본래 성현이라 일컫기에 : 술 가운데 청주(淸酒)를 성인(聖人)이라 하고 탁주(濁酒)를 현인(賢人)이라 하는 데서 온 말이다. 《삼국지(三國志)》 권27 <위서(魏書) 서막열전(徐邈列傳)>에 “평소 취객들이 청주를 성인이라 하고, 탁주를 현인이라 일컫습니다.[平日醉客, 謂酒淸者爲聖人, 濁者爲賢人.]”라고 하였다.

211 옥우(玉友)라 부르기에 : 옥우는 백주(白酒)의 이칭으로 미주(美酒)를 말한다.

212 울창주 술동이(鬯卣) : 울창주 향기로써 신명을 강림케 하는 데 사용한다.

또렷한 경계는 머리끝까지 흠뻑 취하는 데 있었네 ²¹³	炯戒在濡首
술의 성능으로 만일 천성을 잃는다면	釀性苟失天
신평 ²¹⁴ 도 취할 바가 아니지만	新豐非所取
아주 진한 술로 만일 천진함을 얻는다면	濃烈苟得眞
궁벽진 골목도 뒤쳐질 바가 아니라네	曲巷非所後
맛을 취하지 명성을 취하지 않음은	取味不取名
마음과 입을 즐겁게 하는 방법이지	所以悅心口
술을 취함이 그러해야 할 뿐만 아니라	不獨取酒然
선비를 취함도 구차하게 하기 어렵다네	取士亦難苟
부귀한 집 출신이 반드시 훌륭한 게 아니고	高門不必妍
누추한 집 출신이 꼭 나쁜 것도 아니라네	陋巷不必醜
궁벽진 골목의 술도 맛이 좋듯이	曲巷酒亦美
누추한 집의 선비도 절조가 있다네	陋巷士有守
원컨대 술을 취하는 법도를 얻어	願得取酒規
선비를 취하는 이에게 갖다 놓았으면	置諸取士手
좋은 술에 대한 시를 취하여 노래하니	醉歌美酒詩
누가 조정의 고관에게 고해줄 수 있을까	疇能諷朝右

213 비록…풍자했으나 : 《서경》〈태서 중(泰誓中)〉에 보인다. 무왕(武王)이 은나라를 정벌한 후에 은나라 임금 수(受)의 실정을 말하는 가운데 술을 많이 마신 일을 비판하였는데, “지금 상왕 수가 법도에 맞지 않는 일을 힘써 행하여 노인들을 버리고 죄인들을 가까이하며, 음탕하고 술주정하여 사나움을 부리니, 신하들이 본받았다.[今商王受, 力行無度, 播棄耆老, 昵比罪人, 淫酗肆虐, 臣下化之.]”라고 하였다.

214 또렷한…있었네 : 원문의 ‘유수(濡首)’는 원래 술을 마셔 머리끝까지 흠뻑 취한다는 말이다. 《주역》〈미제괘(未濟卦) 상구(上九) 단사(象辭)〉에 “술을 마셔 머리를 적심은 또한 절제를 모르는 것이다.[飲酒濡首, 亦不知節也.]”라고 하였다.

오희기²¹⁵

五噫歌

위와 같다.

하늘의 기강은 이미 어지럽게 요동쳤고	天綱已渟漓
대도는 바야흐로 역병을 거듭 일으켰네	皇道方薦瘥
내달리는 준마 호경 남쪽에 이르니	浮駿戾鎬南
제왕의 도읍은 융성하여 높다랗구나	帝京鬱峨嵯
순정한 백성의 노래 날로 사라졌고	正風日以息
백성의 기풍은 화순함을 잃었네	民氣失其和
올라와 바라볼 때 강토에 감회가 생겨	登眺感宇區
다섯 번 탄식하며 긴 노래를 지었네	五噫爲長歌
긴 노래로 심하게 통곡하더니	長歌甚痛哭
머뭇거리며 차마 지나가지 못하네	躑躅未忍過
양홍은 진실로 충성스럽고 굳센 사람	梁生信忠亮
강개함이 어찌 그리 많았던가	忼慨何其多
당시에 융성하게 하고 맑게 하는 일 생각하고	當時想隆清
다섯 번 탄식했지만 늙음을 어찌겠는가	五噫奈老何

215 신풍(新豐) : 중국 강소성(江蘇省) 단도현(丹徒縣)에 있던 진(鎭) 이름으로 예로부터 명주(名酒)의 산지였다. 왕유(王維)의 시에 “신풍 땅의 맛 좋은 술 한 말에 만 전이고, 함양 땅의 유협 중엔 젊은이가 많네.[新豐美酒斗十千, 咸陽遊俠多少年.]”라고 한 구절이 있다. 《王右丞集 卷14 少年行》

흙다리 아래에서 신발을 쥌는²¹⁶ 그림에 쓰다

題圯下取履圖

위와 같다

옛 다리 반쯤 무너졌는데	古橋半侵頹
바위는 오래 묵어 자줏빛 이끼무늬	石老苔文紫
누런 락풀이 사방 들녘으로 뻗었으니	黃茅亘四野
끝까지 바라보아도 마을이 없구나	極目無村里
어느 집 미소년인가	誰家美少年
일찍부터 흙다리 아래에서 기다렸네	早從圯下俟
헌걸찬 백 세의 노인	昂藏百歲翁
도리어 느릿느릿 이쪽을 좇아오네	蹣跚却從此
눈을 부릅떠 멀리 팔방의 끝을 바라보고	瞪目眇八極
두 다리를 뻗고 앉아 곧 기를 토하네	箕踞便吐氣
제멋대로 꾸짖으며 오만한 기색을 보이더니	謾罵示傲色
다리 아래 신발 한 짝을 내던져버리네	脚下遺隻履

216 오희가(五噫歌) : 시가(詩歌)의 편명으로 후한(後漢) 때 고사(高士)인 양홍(梁鴻)이 지었다. 이 노래는 다섯 구(句)로 되어 있고 각 구의 끝에 탄식하는 소리인 ‘희(噫)’ 자가 있기 때문에 오희가라 한다. 양홍은 가난하였으나 학문을 좋아했고 혼란한 세상에서 벼슬하기를 원치 않아 현숙한 아내 맹광(孟光)과 함께 패릉(霸陵) 산골에서 농사짓고 살았다. 하루는 도성에 들어갔다가 토목공사에 백성들이 시달리는 것을 보고 <오희가(五噫歌)>를 지어 잘못된 국정을 개탄했는데, 이를 듣고 분노한 장제(章帝)가 사람을 보내 체포하려고 하자, 오(吳) 지방으로 도망가 남의 집에서 품팔이하며 살았다. <오희가>의 내용은 화려한 생활을 누리는 지배층에 대비하여 끝없이 고생하는 백성의 삶을 한탄한 것이다.

돌아보고 저 소년에게 말하기를	顧語彼少年
저것을 주워다가 내 발에 신겨라	取彼納吾趾
소년은 두 손을 모아 대답하고	少年應聲拱
엄숙한 태도로 무릎 꿇고 절하였네	肅己以拜跪
쫓아가 신발을 받들고 달려오니	周旋捧履趨
발에 신기라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네	衛足以手指
태만한 태도를 버리고 삼가고 공경하니	恪敬去怠容
조심하는 태도가 물을 받들고 있는 듯하네	小心如捧水
가르침을 받들은 아버지보다 심하고	承訓劇嚴父
명을 공경함은 늙은 여종과 같았네	恭命如老婢
법도에 맞는 예의가 진심에서 나왔으니	中禮出衷悃
잠시도 거짓과 속임수가 없었네	造次無僞詭
노인의 마음 감동하여 바로 가라앉으니	翁心感卽降
교만한 태도 사라지고 기뻐하였네	去驕以忻喜
아울러 어제 꾸짖었던 일 후회하고	竝悔昨所罵
이르기를 이 어린애를 가르칠 만하구나	謂可教孺子
과연 이와 같다면 현묘한 비결을 주리니	果爾授玄訣
이 책을 읽어 ²¹⁷ 비밀스러운 뜻을 다 깨닫거라 하네	伊吾盡祕旨
얼마 뒤 갑자기 보이지 않으니	俄頃忽不見
누런 돌만 촘촘히 쌓여 있네	黃石堆齒齒
소년은 누구인가	少年者誰某
장씨 성의 자방 ²¹⁸ 일세	子房張其氏

217 이 책을 읽어 : 이 책은 황석공(黃石公)이 장량(張良)에게 전수해 준 삼략(三略)이라는 병서인데, 일설에는 《황석공소서(黃石公素書)》를 이룬다고 한다.

218 자방(子房) : 자방은 장량(張良)의 자(字)이다.

한나라를 도와 끝내 한의 원수를 갚았으니 ²¹⁹	佐漢竟報韓
신이 주심은 진실로 까닭이 있도다	神授良有以
아 이 사람은 작은 방술을 얻는 데도	啗此得小方
오히려 자기에게 있는 정성을 다 바쳤네	尙能盡在己
그 누가 성실하지 않고서	彼誰不潔誠
유학 ²²⁰ 을 좇고자 하는가	欲遵洙與泗
천년토록 내려온 그림을 어루만지며	千載撫遺圖
시를 써서 속된 선비를 경계하네	題詩警俗士

219 한(韓)의 원수를 갚았으니 : 장량은 한(韓)나라 세족 집안의 자손으로, 진(秦)나라가 한(韓) 나라를 멸망시키자 원수를 갚고 나라를 다시 부흥시키고자 하였다.

220 유학(儒學) : 원문의 ‘수사(洙泗)’는 사수(泗水)와 수수(洙水)를 가리킨다. 옛날 이 두 물줄기는 산둥성 사수현(泗水縣) 북쪽에서 합류하여 내려와 곡부(曲阜)에 이르러 다시 두 갈래로 나뉘져 수수는 북쪽으로, 사수는 남쪽으로 흐른다. 춘추 시대 노나라 땅에 속했다. 공자는 수수와 사수 사이에서 제자들을 모아 강학하였다고 한다. 《예기(禮記)》〈단궁 상(檀弓上)〉에 “나와 너는 수수와 사수 사이에서 부자(夫子)를 섬긴다.[吾與女事夫子于洙泗之間.]”라고 하였다. 이후 ‘수사’는 공자와 유가(儒家)의 학문을 의미하는 말로 쓰인다.

빠르게 흐르는 여울

急灘

급한 여울이 네 마리 말로 달리는 수레처럼 빠르니	急灘劇奔駟
병의 물을 거꾸로 쏟는 것 같네	直瀉如瓶水
들쭉날쭉한 바위가 맹렬한 기세로 서 있으니	嵯岬石怒豎
호랑이 어금니가 제멋대로 흥포하게 깨무는 듯	虎牙橫擗喙
날리는 큰 물결은 빠른 화살을 쏘아대고	飛澇射急鏃
급한 여울물은 쏟아지는 우박을 뿜어내네	激湍噴飛雹
구당협 ²²¹ 은 이와 견줄 만하지 않고	瞿塘不足比
농수 ²²² 는 여기에 비하면 평지와 같다네	瀧水如平陸
뱃사공이 노 젓는 일을 조심해도	舟人戒刺御
옷을 벗고 ²²³ 소리치고 배 기울어 발끝을 본다네	裸叫欻看趾
배는 나는 듯 가서 멈출 수 없으니	船飛不可停
깊은 강물 속으로 거꾸로 떨어지는 듯	倒落幽泉裏
쨍쨍한 대낮에 우레와 천둥이 다투니	雷霆鬪白日
소리의 기세 서로 치고 꺾누나	聲勢相舂挫

221 구당협(瞿塘峽) : 양자강 상류에 있는 삼협(三峽) 중의 하나로, 삼협 중 가장 짧으나 강폭이 가장 좁고 양안의 절벽이 매우 높이 솟아 있어 제일가는 험지로 알려져 있다. 특히 구당협 입구에는 염여퇴(鹽瀨堆)라는 큰 바위가 가로막고 있어 배가 파선하기 쉽다.

222 농수(瀧水) : 중국 호남성 임무현(臨武縣)에서 발원한 강물로 무수(武水)라고도 한다. 강물이 폭포수처럼 떨어지고 휘돌아 흘러 산을 진동시키니 물결이 험하다.

223 옷을 벗고 : 원문에는 '관(裸)'으로 되어 있으나 국립중앙도서관 석판본 《현주집》에 의거하여 '라(裸)'로 수정하여 번역하였다.

바야흐로 심신을 잃을 걸 염려했으니	方思失魂骨
배를 온전히 하는 일이야 도모하지도 못했네	不圖全舟筏
배가 안정되고 물소리 그치자	舟定水聲死
매우 평평한 땅에 올라온 듯하네	登平劇平地
뱃사공은 웃으며 노래하는데	黃帽笑且歌
석양빛이 마을에 밝아라	夕陽明墟里
이곳을 건너며 세상의 도를 깨달았노니	涉此悟世道
간절하게 뱃사공을 경계하네	丁寧戒舟子
삼가 급한 여울을 깔보지 말지니	慎勿凌急灘
면할 수 있다면 이는 요행일 뿐이라	得免是幸耳
삼가 풍파를 가볍게 보지 말지니	慎勿輕風波
풍파는 그치면 다시 일어난다네	風波息更起
전원 속에 살면서	莫如臥田丘
전복과 침몰에 대한 걱정을 길이 끊는 것만 못하리	永絕顛沈愁

광유편

曠遊篇

왕명을 받들어 남원을 출발하니	祗役發龍城
채비를 단단히 하고 옥천 ²²⁴ 으로 들어갔네	嚴裝投浴川
강을 따라가 압진 ²²⁵ 에 쉬었는데	沿江憩鴨津
봉성산 ²²⁶ 은 깊고도 길게 뻗어 있네	鳳城深且延
친형과 함께 동행하였고	同行共舍兄
몇 사람이 또 줄지어 갔네	數子仍聯翩
아침을 일찍 먹고 가는 수레 재촉하니	蓐食促行軻
지리산이 가는 길에 이어져 있네	方丈歸路綿
강기슭을 지나가고 또 가니	行行歷江岸
돌길이 구름을 따라 뚫려 있네	石逕緣雲穿
정오에 쌍계사를 향하는데	亭午指雙溪
시냇물은 맑고 잔물결 일어나네	溪水清而漣
골짜기에서 영남의 장수를 만나니	洞遇嶺南帥
깃발이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旌旆相後先
가마로 급한 여울을 건널 때	藍輿度急灘

224 옥천(浴川) : 전라도 곡성현(谷城縣)의 옛 군명(郡名)이다.

225 압진(鴨津) : 압록진(鴨綠津)을 지칭하는 것으로, 곡성현의 동쪽 남원부(南原府) 유곡(楡谷)의 경계에 있다.

226 봉성산(鳳城山) : 전라남도 구례군의 구례읍 봉동리·봉서리·봉남리·봉북리에 걸쳐 있는 산이다. 구례의 풍수적인 주산이자 진산이다. 주맥은 지리산에서부터 연원한다. 고도가 높지 않은 산임에도 불구하고 위치상 구례 읍치의 중요한 산이기 때문에 지리지에 기록되었다. 유곡(楡谷) 서쪽 1리에 있다.

뾰족한 돌들이 뿔뿔하여 엮어놓은 듯하네	石齒森如編
석문에서 맞이하는 이들에게 잠시 나아가	暫就石門迎
화려한 술자리 베푼 데서 약간 마셨다네	小酌開華筵
큰 글자는 바위 면에 새겨져 있고 ²²⁷	大字刻石面
오래된 이끼는 벼랑 꼭대기까지 이어졌네	老苔連崖巔
신선 행차는 아득히 멀어 쫓아가기 어렵고	仙馭邈難追
바람 부는 골짜기엔 폭포가 절구질하네	風壑春飛泉
취한 김에 각자 시를 읊조리고	倚醉各賦詩
함께 쌍루에 도착하여 잠을 잤지	共涉雙樓眠
뿔 없는 용이 옛 비석을 엮고 엮드려 있는데	螭負古碑伏
학사가 남긴 글이 새겨져 있구나 ²²⁸	學士遺文鐫
이틀 밤을 자고 영남의 장수를 보내니	信宿送嶺師
노래와 악기 소리로 즐거움을 다하였네	歌吹窮歡妍
대낮에 함께 가마에 올라	當晝共登輿
폭포가 매달린 듯한 벼랑을 따라갔네	緣崖如溜懸
오르고 올라 옥 같은 산에 오르니	登登上琬琰
사찰이 구름 가에 빛나네	蘭若耀雲邊
연푸른 절벽은 푸른 하늘에 꽂혀 있고	縹壁插空碧

227 큰…있고 : 쌍계사 입구에 두 바위가 문과 같이 마주 섰는데, 동쪽 바위에는 ‘쌍계(雙溪)’ 두 자가 새겨져 있고 서쪽 바위에는 ‘석문(石門)’ 두 자가 새겨져 있다. 이 글자들은 최치원의 유묵이라 한다.

228 뿔…있구나 : 쌍계사에 있는 진감선사탑비(眞鑑禪師塔碑)를 가리킨다. 귀부(龜趺)와 이수(螭首) 및 탑신이 완전한 탑비로, 887년(진성여왕1)에 건립되었다. 진감선사 혜소(慧昭)는 최씨로 중국을 편력하고 돌아와 신라 여러 왕들의 승양을 받다가 77세의 나이로 쌍계사에서 입적하였다. 당대의 대표적 문인인 최치원(崔致遠)이 글을 짓고 글씨를 썼는데, 그의 <사산비명(四山碑銘)>의 하나로 유명하다.

푸른 학은 이미 아득하여라	靑鶴已杳然
비로봉 ²²⁹ 이 가장 특출하게 솟았으니	毗盧最挺特
호기 ²³⁰ 가 멀리까지 이어져 있구나	灑氣遙相連
큰 폭포는 하늘에 기대어	洪瀑倚九天
천 길 아래 깊은 물로 떨어지네	千尋墜幽泉
격동하며 부딪치고 무너지는 형세	噴薄勢崩蹙
수많은 천둥소리 매우 떠들썩해라	萬雷聲轟闐
완폭대 ²³¹ 에서 숨을 죽이고 있노니	屏息斲瀑臺
놀랍고 두려워 깊은 시름 더해지네	恤然增幽悵
바위에 기대어 필적을 어루만지고	倚巖撫筆迹
서글퍼 하며 최고운을 그리워하네	悵然懷飛仙
잔도를 찾아 돌아가는 길로 향하니	尋棧首歸逕
좋은 경치 찾으며 언덕길을 넘어가네	探勝踰岡阡
험한 곳 굽어보니 우물에 뛰어드는 것처럼 힘들어	俯險劇投井
짚신을 신고 옷을 스스로 걷는다네	芒鞋衣自褰
미끄러워 넘어지면 냇이 찢어질까 두려워	澆仆恐碎魂
참나무를 잡고 주먹과 어깨를 바짝 붙이네	攀葛跟肩拳
넝쿨 따라 나아가 수풀 언덕을 넘어갈 때	寅緣越林臯
옥통소 소리 아득하고 현묘하네	玉簫遙且玄
가파른 벼랑은 한 말 정도로 작은데	懸崖小如斗
아스라이 구름 낀 하늘 너머로 솟아 있네	縹緲凌雲天

229 비로봉(毗盧峯) : 원문에 ‘비려(毗盧)’로 되어 있는데, 이는 지리산 비로봉(毗盧峯)을 가리킨다.

230 호기(灑氣) : 천지 사이에 가득한 기운을 말한다.

231 완폭대(斲瀑臺) : 지리산 청학동 불일암(佛一庵)에 앞에 돌출되어 있던 바위 이름이다. 불일폭포(佛一瀑布)를 완성할 수 있는 대라는 의미로 최치원의 필적이 새겨져 있다.

한 번 오르자 이미 정신이 황홀하여	一上已恍惚
속세의 속박을 씻어버린 듯하네	俗累如洗滌
아래로 하나하나 절들을 세어볼 때	下歷數伽藍
저녁 종소리 바람 따라 전해지네	夕鍾隨風傳
하룻밤을 묵고 다시 행장을 재촉하여	夜宿更趣裝
골짜기를 다 돌아 나왔네	洞壑窮廻沿
걸음마다 옥 같은 모래에 정신이 아찔하고	步步眩玉沙
비단 같은 바위에는 아름다운 샘물 소리 울리네	錦石鳴瑤泉
순식간에 정신과 몸이 깨어나니	倏然魂骨醒
상쾌한 기분이 구속을 초탈한 듯하여라	快若超拘牽
좋아하여 감상하느라 자주 바위에 앉으니	愛翫坐石頻
해가 저물도록 여전히 떠나지 못하네	日晏猶未前
말에서 내려 다리를 걸어서 건널 때	下馬步涉橋
고승인 각선을 만났네	高僧逢覺禪
잠깐 능파대에서 쉬니	小憩凌波臺
위태로운 못에 임한 듯 두려워라	竦然臨危淵
청도와 자부 ²³²	清都與紫府
반드시 더 아름답게 여길 것은 아니네	未必尤嫵媚
각선을 마주하여 공을 담론하니	談空對覺師
마치 팔방 끝으로 나온 듯하네	恍若出八埏
평소 멀리 노닐려 했던 뜻	平生遠遊意
이제부터는 충분히 이루었다 하리	從今足償旃
돌아오면 다시 세속의 속박	歸來更塵鞅
온갖 일들이 닥쳐 얽어매리라	萬務來相纏

232 청도(淸都)와 자부(紫府) : 청도는 천제(天帝)가 사는 궁궐이고, 자부는 도교에서 신선이 산다고 전해지는 천상(天上)의 선부(仙府)이다.

무슨 방법으로 고운을 쫓아가
난새와 봉황을 잇달아 채찍질할까
돌아보며 한 번 서글피 생각하고
붓을 잡아 새 시편을 지었네

何由逐孤雲
鸞鳳仍笞鞭
回頭一悵想
把筆成新篇

장안사에서 사상²³³ 최현의 시에 차운하다

長安寺 次使相韻 崔暎

나는 듯한 행차는 차가운 바람에 의지해	冷飈挾飛馭
쌓인 눈을 아스라이 넘어갔네	縹緲凌積雪
오히려 조화옹의 희룡을 당했으니	猶被造化弄
여기서 신선과 범인이 단절되어 낙심했네	悵此仙凡絕
새로 갠 경치 바라보는 일 상상하노니	清眺想新霽
옥순 같은 산봉우리가 천 층으로 벌려 있으리	玉筍千層列
구름 낀 돌계단에 지팡이 끌고 가지 못하고	雲磴未携筇
대나무 방에서 부질없이 홀로 뺨을 괴었네 ²³⁴	竹房空柱筇

233 사상(使相) : 관찰사의 별칭으로 여기서는 강원 감사인 최현(崔暎, 1563-1640)을 가리킨다. 최현은 자는 계승(季昇), 호는 인재(訥齋). 본관은 전주(全州)이다. 일찍이 학봉(鶴峰) 김성일(金誠一)의 문하에서 배웠고 임진왜란 때에 구국책(救國策)을 올려 원릉(元陵) 참봉이 되었다. 1606년(선조39) 문과에 급제, 한림(翰林)에 들어가 광해군의 천도론(遷都論)을 적극 반대하여 좌절케 했다. 부제학(副提學)을 거쳐 강원도 관찰사가 되었으나 횡성(橫城) 이인거(李仁居)의 모반에 공모했다는 혐의로 투옥되었다가 왕의 특사로 석방되었다. 저서로 《인재집(訥齋集)》이 전한다.

234 홀(笏)로 뺨을 괴었네 : 왕휘지(王徽之)가 일찍이 환충(桓沖)의 기병 참군(騎兵參軍)으로 있을 적에, 한번은 환충이 그에게 말하기를 “경이 부에 있는 지 오래되었으니, 요즘에는 의당 사무를 잘 알아서 처리하겠지.[卿在府日久, 比當相料理.]”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은 채 고개를 쳐들고 홀(笏)로 뺨을 괴고는 “서산이 이른 아침에 상쾌한 기운을 불러온다.[西山朝來, 致有爽氣耳.]”라고 했다. 《晉書 卷80 王徽之列傳》이 고사는 세속 일에 얽매이지 않고 초연히 유유자적하는 풍도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지만 여기서는 산에 오르지 못하고 부질없이 산만 바라보는 상황을 묘사한 것이

달빛 출렁이고 만폭동에 물은 불었는데	月動漲萬瀑
신선 학은 오히려 어렵풋하네	笙鶴猶仿佛
땅속 벌레는 난새 봉황을 부러워하고	壤蟲羨鸞鳳
높은 산은 개밧독을 가엾게 여기네 ²³⁵	喬岳憐蟻垤
초일한 자취 따를 길 없고	無計踵逸軌
부질없이 화려한 문필 ²³⁶ 에 화답하네	徒然和彩筆

9월 17일 한밤중을 지나서 장안사에 도착했다. 다음 날 아침 감사
가 시 한 수를 써서 보여주더니 곧바로 정양사로 올라갔다. 나는 병
때문에 뒤에 남게 되었으니 시에 화운하여 뒤따라 보냈다.

다.

235 땅속…여기네 : 땅속 벌레와 개밧독으로 작가 자신을 비유하고 난
새, 봉황과 높은 산으로 강원 감사 최현을 비유한 것이다.

236 화려한 문필 : 원문의 ‘채필(彩筆)’은 뛰어난 문필(文筆)을 의미한다.
중국 남조(南朝) 때의 강엄(江淹)이 어릴 적에, 어떤 사람이 오색 붓
을 주는 꿈을 꾸고부터 문장이 크게 진보하였는데, 10여 년 뒤에 괘
박(郭璞)이라 자칭하는 사람이 다시 붓을 회수해 가는 꿈을 꾸 뒤로
는 좋은 문장이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太平御覽 卷398》

꿩 사냥을 바라보다

觀獵雉

고을이 황량하여 살필 공문서가 적으니	邑荒稀按簿
느지막이 일어나 바야흐로 사냥하러 나가네	起慵方出畋
몇 명 아전은 활과 화살을 차고	數吏帶弓箭
채찍질해 말을 몰아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驅策相後先
무리는 백 명을 못 채웠는데	徒衆不滿百
지휘하여 꿩을 포위하도록 애썼네	指揮勞周旋
우인 ²³⁷ 은 눈 덮인 산허리에 오르고	虞人登雪岡
사냥개들은 들녘에 풀어놓았지	獫獫縱原阡
놀란 꿩은 요행히 살아남기를 바라	駭雉冀幸生
약한 날개로 내달리다 높이 날아오르네	弱翎驚高蹻
꿩의 생각은 사람들 뒤로 나가려는 것인데	意在出人後
형세에 어두워 매 앞에 떨어졌네	勢昧落鷹前
미처 거친 가지덤불에 숨을 새도 없이	未及竄荒棘
이미 매의 발톱이 먼저 할퀴었네	已先加老拳
비단 빛 목이 무성한 평야에서 찢어지니	繡頸碎平蕪
빠른 말 탄 사냥꾼 다투어 채찍을 휘두르네	飛騎爭揮鞭
팔찌 ²³⁸ 를 벗어난 매는 모두 부리에 피를 문혔고	脫鞵搥血吻
화살을 당길 때 못 맞추는 활시위가 없었네	控矢無虛弦

237 우인(虞人) : 우인은 고대에 산림과 동산을 관리하던 벼슬인데 여기서 사냥을 관리하는 관원을 일컫는다.

238 팔찌[鞵] : 팔찌는 활을 쏠 때나 매를 팔 위에 올려놓을 때 양 팔뚝의 소매를 묶어 활동하는 데 편하게 한 가죽띠이다.

해 저물 적에 사냥꾼들에게 음식을 주노니
통째로 구운 고기에 저민 고기가 이어졌네
들녘에 살기가 건히니
구운 고깃덩이에 향기로운 연기가 엉겨 있네
실컷 마시고서 철수해 돌아올 수 있었으니
저물녘 뿔피리가 강과 하늘에 시끄러웠네
한 번의 사냥에 다소 마음이 유쾌해졌노니
잠시 그로써 깊은 시름을 달래노라

日斜餉獠者
烹燔仍割鮮
原頭霽殺氣
鬻炙凝香煙
酣暢撤解還
暮角喧江天
一獵差快意
聊以慰幽悵

현주집

제 2 권

七言古詩 칠언고시

칠언고시 七言古詩

변산가

邊山歌

웅장한 산 오래된 산봉우리 높고 험하며 우뚝한데

雄巒老嶂崩劣崔峯

삐죽삐죽 엉켜 비스듬히 뻗어 두터운 대지에 서려있네

參錯迤邐兮盤屈厚黃

과아¹와 거령²이 원기³를 호흡했으니

夸娥巨靈呼吸元氣兮

혼돈⁴의 세계와 접하여 울창하네

接混茫而鬱蒼

- 1 과아(夸娥) : 중국 전설에 등장하는 이로 신력(神力)을 지닌 과아씨(夸娥氏)를 말한다. 북산(北山)의 우공(愚公)이 앞에 산이 가로막혀 통행이 불편하였으므로 가족들과 함께 산을 옮기려고 매일 흙더미를 덜어 내었는데, 이에 감동한 천제(天帝)가 과아씨를 내려 보내 그 산을 등에 업고 다른 곳에 옮기게 했다. 《列子 湯問》[愚公移山]
- 2 거령(巨靈) : 전설에 화산(華山)을 쪼갰다고 하는 하신(河神)의 이름이다. 옛날에 산 하나가 하수(河水)를 막고 있어서 하수가 빙 돌아서 흘렀는데 거령이 이 산을 둘로 쪼개어 하수를 곧게 흐르게 하였다고 한다. 장형(張衡)의 <서경부(西京賦)>에 “거령이 힘차게 손바닥으로 높이 떠받들고 발바닥으로 멀리 차 버려 하수를 흐르게 하였다.[巨靈 鼎足高掌遠躡 以流河曲]”라고 하였다.《文選 張衡 西京賦 薛綜注》
- 3 원기(元氣) : 천지가 미분되었을 때의 혼돈(混沌)의 기운을 말한다.
- 4 혼돈[混茫] : 천지가 아직 분화되지 않아 일체의 구별이 없는 혼돈(渾

큰 파도 거센 물결 칼칼 흐르며 넘실넘실 부딪치며 성대하게 흐르니 높은 하늘을 찢고 문지르는 듯

洪濤鉅漲滌汨沓滂濤浩泝兮擺摩高霄

격하게 귀허⁵로 들어가서 명해와 발해⁶를 끼고 이리저리 흐르네

激轉歸墟兮挾溟渤而仿佯

바람 절벽, 안개 낀 골짜기는 아득히 멀고도 어둡고

風崖霧壑兮杳窅闇漠

곰·큰곰·범·들소가 놀라 부르짖으며 함께 일어나네

熊羆虎兕兮駭吼竝作

우레 같은 파도, 번개 같은 물결 솟구쳤다가 되몰아치니⁷

雷波電浪兮挺拔廻薄

어벌과 교룡들 솟아올라 서로 기대고 있네

魚鼈蛟龍兮起立相籍

해는 집 동쪽에서 뜨고 달은 집 서쪽으로 들어가고

沌)의 상태를 말한다. 《장자(莊子)》〈선성(繕性)〉에 “옛 사람들은 구별이 없는 혼돈 속에 살면서 한 세상과 더불어 담박하고 조용히 살았다.[古之人, 在混芒之中, 與一世而得澹漠焉.]”라고 하였다.

5 귀허(歸墟) : 전설상 바다 속에 끝을 알 수 없는 계곡으로 모든 물들이 모이는 곳이다. 《열자(列子)》〈탕문(湯問)〉에 “발해(渤海)의 동쪽에 몇 억만 리나 되는지 알 수 없는 곳에 큰 골짜기가 있는데, 실로 밑이 없는 골짜기이다. 그 아래는 밑이 없고, 이름을 귀허라고 한다. 장담 주에 ‘귀허는 혹 귀당으로 되어있다.’라고 하였다.[渤海之東, 不知幾億萬里, 有大壑焉, 實惟無底之谷. 其下無底, 名曰歸墟. 張湛注: ‘歸墟, 或作歸塘.]’라고 하였다.

6 명해와 발해 : 원문의 명발(溟渤)은 명해(溟海)와 발해(渤海)의 합칭으로, 보통 대해(大海)를 가리킨다.

7 되몰아치니[廻薄] : 멈추지 않고 돌아와[廻] 닥쳐오는 것[薄]으로 서로 순환하여 변화가 무상함을 말한다. 가의(賈誼)의 〈복조부(鵬鳥賦)〉에 “만물의 변화가 무상하여 진탕되고 서로 변화한다.[萬物迴薄兮, 振盪相轉]”라고 보인다.

아침저녁으로 형문 ⁸ 은 열었다 닫혔다 하네	開閉衡門兮朝夕
한 사람의 복희씨 ⁹	一介羲皇氏
천년 동안 광막한 물가에서	千秋廣漠濱
아득히 세속과 떨어져 있고	邈與世塵隔
그럭저럭 태초와 함께 이웃하였네	聊同太初隣
올리 땅 세 오솔길의 도연명	栗里三逕淵明翁
무이구곡의 주문공	武夷九曲朱文公
한 시대의 진유이자	一代眞儒
만고의 맑은 바람이라네	萬古清風
나는 지금 다만 수립하는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吾今不獨無樹立
나는 이미 나를 잃고 ¹⁰ 육체만 남았다네	吾已喪我餘軀殼
낚시하지 않고 흙을 쌓지 않고 몸소 밭 갈지 않고 ¹¹	不釣不築不躬耕

- 8 형문(衡門) : 형문은 두 기둥에 나무를 가로 대어 만든 문으로 소박하고 누추한 은자의 거처를 의미한다. 《시경》〈형문(衡門)〉에 “형문 아래는 놀고 실만하네. [衡門之下, 可以棲遲.]”라고 하였다.
- 9 복희씨 : 전설상의 복희씨 때 백성처럼 아무런 욕심 없이 한가롭게 생활하는 것을 말하는 듯하다. 도연명(陶淵明)의 〈여자엄등소(與子儼等疏)〉에 “오뉴월 중에 북창 아래에 누워 있다가 서늘한 바람이 잠깐 지나가기라도 하면, 스스로 희황 시대의 사람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 [北窓下臥, 遇涼風暫至, 自謂是羲皇上人.]”라는 말이 있다.
- 10 나를 잃고 : 원문의 상아(喪我)는 내가 내 자신을 잃어버린 것으로, 천지만물과 하나가 되어 저와 나의 구분이 없는 경지를 의미한다. 《莊子 齊物論》
- 11 낚시하지…않고 : 원문의 부조(不釣), 불축(不築), 불궁경(不躬耕)은 각각 강태공(姜太公), 부열(傅說), 제갈량(諸葛亮)의 고사를 가져와서 이 세 사람들과 달리 작자는 세상을 경영하려는 뜻이 없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즉, 강태공처럼 때를 기다리며 곧은 낚시를 하다가 문왕에게 발탁되기를 도모하지 않고, 부열처럼 성을 쌓다가 은(殷)나

졸리면 곧 자고 깨면 주역을 읽는다네	有睡卽眠醒讀易
내 마음 알아주는 것은 북두성이요	知心北斗星
내 얼굴을 아는 것은 동해약 ¹² 이라네	識面東海若
대추는 오이만 할 필요 없고 ¹³	棗不必如瓜
복숭아는 향아리만 할 필요가 없네 ¹⁴	桃不必如瓶
씹으면 상쾌한 기운이 뺨과 이 사이에 떠다니고	嚼來爽氣浮頰齒
묵묵히 웃는 서왕모는 머리가 희네	默笑西王母矐然
흰머리로 곤륜산 비탈을 자주 왕래하니	白首往來數數昆山陔

라 고종(高宗)에게 발탁되기를 도모하지 않으며, 제갈량처럼 남양(南陽)에서 밭을 갈다가 유비(劉備)에게 발탁되는 것을 도모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 12 동해약(東海若): 원래는 북해약(北海若)인데 변산이 중국에서 보면 동해이기 때문에 현주가 동해약이라 붙인 것이다. 북해약에 대한 이야기는 《장자(莊子)》 〈추수(秋水)〉 편에 등장한다. 〈추수〉 편에서는 황하의 신(神) 하백(河伯)이 북해약(北海若)에게 대도(大道)에 대한 가르침으로 ‘우물안 개구리[井底之蛙]’나 ‘여름벌레가 얼음을 의심한다[夏蟲疑冰]’라고 하는 등의 내용을 전해주었다고 하였다.
- 13 대추는…없네 : 고대의 신선 안기생(安期生)과 관련된 고사이다. 안기생(安期生)은 전설상의 신선 이름인데, 한 무제(漢武帝) 때 방사(方士) 소군(少君)이 임금에게 말하기를 “신이 일찍이 해상(海上)에 노닐면서 신선 안기생을 만나 보았는데, 그는 크기가 오이만 한 대추를 먹고 있었습니다. [臣嘗游海上 見安期生 食巨棗 大如瓜]”라고 했던 데서 온 말이다. 《史記 卷28 封禪書》 여기서는 변산 자체가 선제이기 때문에 굳이 안기생처럼 큰 대추를 먹을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다.
- 14 복숭아는…없네 : 복숭아는 아래 구절에서 서왕모(西王母)가 나오므로 서왕모(西王母)가 심은 반도(蟠桃)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왕모의 복숭아는 3천 년에 한 번 꽃이 피고 3천 년에 한 번 열매를 맺으며 이를 먹으면 불로장생한다고 한다. 《太平廣記 卷3》 여기서도 변산 자체가 선제이기 때문에 굳이 서왕모의 복숭아가 클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다.

어찌 수고롭게 내려와서 주 목왕과 한 무제에게 읊을 했던가¹⁵
 何勞下揖穆武爲
 진인으로 돌리려 한 것 또한 경박하니 回真人兮又輕薄
 세 번 쫓겨나고 세 번 들어간 것¹⁶ 나를 탄식케 하네 三出三入令我噫
 나의 기가 떠돌다 이 구역에 막혔으니 吾氣浮游滯此區
 막고야산의 신인¹⁷이 머무는 것과는 어떠한가 何如藐姑射山神人留
 팔팔 흐르는 것 流之湯湯者
 우뚝 솟아 높은 것 峙之嶮嶮者
 만고토록 만만고토록 푸르고 푸르러 萬古萬萬古蒼蒼然

- 15 어찌…했던가 : 서왕모가 신선이면서 주나라 목천자(穆天子)를 요지에서 맞아 연회를 베풀어 준 사실과 한 무제가 선도(仙道)를 갈망하여 서왕모를 만나고자 빌었더니, 칠월 칠석에 서왕모가 아홉 빛깔 용이 끄는 수레를 타고 내려와서 한 무제에게 천상의 술과 천도복숭아를 선물로 주고, 상원부인(上元夫人)을 불러 들어서 함께 한 무제에게 장생불사의 방도를 깨우쳐 준 것을 말한다. 《列子 周穆王》《漢武帝內傳》
- 16 세 번…것 : 《논어》〈미자(微子)〉편의 유하혜가 사사(士師)가 되어 세 번 쫓겨나도 현실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원용한 것이다. 현주가 탄식한다는 것은 현주 역시 세 번의 파직을 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심적으로 공감하기 때문이다. 현주는 1611년(광해3) 40세 때 사간원 정언이 되어 정민흥(鄭敏興)을 탄핵하다가 파직 당했고, 1617년(광해9) 46세 때 백마적(白馬賊) 탈옥 사건으로 영천(榮川) 군수에서 파직 당했으며, 1624년(인조2) 53세 때 이괄(李适)의 난으로 어가가 남천(南遷)할 때 뒤쳐 졌다는 이유로 탄핵받아 파직되었다.
- 17 막고야산 신인(藐姑射山神人) : 《장자》〈소요유(逍遙遊)〉에 “막고야(藐姑射)의 산에 신인(神人)이 살고 있는데 피부는 빙설(氷雪)과 같고 부드럽고 아름다운 것은 처녀와 같다. 오곡을 먹지 않고 바람을 들이키고 이슬을 마시고서 구름 기운을 타고 비룡(飛龍)을 몰아 사해(四海)의 밖에서 노닌다.[藐姑射之山有神人居焉, 肌膚若氷雪, 綽約若處子. 不食五穀, 吸風飲露, 乘雲氣御飛龍而遊乎四海之外.]”라고 하였다.

곧바로 넓고 광대한 내 기와 함께 直與吾氣之浩浩者
 담백하게 서로 벗하며 천성을 보전하여 澹然相友全其天
 옛날과 벗하지 않고 지금과 벗하지 않고 오직 이 산을 벗하리라

不友古不友今唯友此山

산은 바닷가에 있어서 산을 변산이라 칭했으니 山在海邊山稱邊
 그런 실상을 모르다면 어찌 이름을 알겠는가 不知實兮焉知名
 근심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경영함도 없으며 無愁無樂無經營
 나가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고 보고 듣지도 않네 不出不處不瞻聆
 때때로 검영¹⁸이 조화의 화로를 안고 근심하는 것을 보고

時見黔羸擁爐愁

내가 성내며 꾸짖으려고 하니 하늘이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네
 我嗔欲叱天恐羞

오직 높은 뒀 큰 골짜만이 기심이 없어 나와 같이 한가로우니
 唯有高岑大壑無機如我閑

나는 배를 세 번 두드리고 세 차례 노래하리라¹⁹ 我腹三叩歌三酬

18 검영(黔羸) : 천상에 있는 조화(造化)의 신이다. 여기서는 조화의 신인 검영이 인간의 이해득실을 따지느라 근심하는 것을 보고 이미 기심이 없는 작자가 검영을 꾸짖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초사(楚辭)》〈원유(遠遊)〉에 “검영을 불러서 득실을 보이게 하고, 나를 위해 먼저 평평한 길로 앞서가게 하네.[召黔羸而見之兮, 爲余先乎平路.]”라고 하였는데, 이 구절의 주석에서 왕일(王逸)이 “조화의 신에게 득실을 묻는 것이다.[問造化之神以得失]”라고 하였다.

19 나는…노래하리라 : 이 구절에서 세 번 배를 두드리며 세 차례 노래한다는 것은 기심이 없는 ‘높은 뒀[高岑]’, 큰 골짜기[大壑], ‘시인 자신’ 셋의 한가로움을 노래한다는 의미이다.

혼돈가

混沌歌

현부씨²⁰ 현부씨
무무²¹의 경지를 체득했으니 무가 바로 그대라네
들으니 이것²²은 외부에 구멍이 없으니
벌어지고 오목하고 깊숙하고 넓어서 의지할 수 없다 하네

呀然窪然窞窞闕廓無依倚

시커멓고 검푸르며
어둡고 넓으며
증기로 큰 기를 만들어 그 가운데에서 나오니
혼혼하고 돈돈하여 흐릿하다네

黝黝而黝黝

黯然浩漭

蒸成大氣孕其中

混混沌沌以夢夢

광대하고 끝없고 뿔뿔이 펼쳐지고 무성하며
격하게 부딪치고 솟아오르며 일어붙고 화창하네

磅礴礧礧羃羃曠

崩崩沸沸凝凝灑灑

떠서 흘러가며 솟아올라 모이고

浮流涌漚

-
- 20 현부씨(玄夫氏) : 조찬한의 호가 현부이다. 현부씨 현부씨라고 부르는 것은 허무의 세계 그 자체를 언급하면서도 동시에 조찬한 자신이 허무의 심리상태임을 드러내기 위한 의도라 볼 수 있다.
- 21 무무(無無) : 무무는 무조차 없는 경지로, 천지만물이 형성 이전의 공적인 상태로 허무(虛無)를 말한다. 허무는 장자에서 말하는 도(道)의 본체이다. 《장자》〈외편(外篇) 각의(刻意)〉에 “편하고 담담하게 고요히 있으면서 마음을 텅 비게 하고 아무런 작위(作爲)도 없다 함은 천지자연의 편만한 모습이며 참된 도덕의 실질이다.[夫恬惔寂寞, 虛無無爲, 此天地之平而道德之質也.]”라는 내용이 보인다.
- 22 이것 : 원문의 ‘阿堵’는 육조(六朝) 시대의 구어(口語)로 ‘이것’이라는 뜻인데, 눈동자 또는 동전이라는 뜻도 있다.

구불구불하고 빙빙 둘러싸네	紆彌盤匝
담백하여 기심이 없고	淡淡乎無機
조용하여 태연자약하네	泊漠乎自若
모이면 끝없는 덩어리가 되고	聚爲汗漫塊
몽치면 홍몽한 껍질이 되네	團作鴻濛殼
어찌 알았으랴, 숙과 홀이라는 도적이	寧知儵忽賊
칠 일 동안 일곱 개의 구멍을 뚫을 줄을,	七日七竅鑿
일곱 개 구멍이 뚫리자 혼돈은 죽었고	七竅鑿混沌死
닫혔다 열렸다 합쳤다 열렸다 하게 되었네 ²³	合開而翕闢
높고 넓은 구만 팔천 리	高高廣廣九萬八千里
삿갓을 뒤집은 듯한 푸른 하늘은 서북쪽으로 비스듬히 기울어졌네	倚蓋覆笠蒼蒼色
구대용왕이 몸을 꼳꼳이 해서 사람처럼 서서	九大龍王直身人立
만고토록 뿔을 오므리고 머리에 이게 되었네	縮角頭戴萬萬古
용은 천로 ²⁴ 와 천사 ²⁵ 와 같고	龍如天老天使

23 어찌…되었네 : 《장자(莊子)》〈응제왕(應帝王)〉에 “남해의 제(帝)는 숙(儵)이고 북해의 제(帝)는 홀(忽)이며 중앙의 제(帝)는 혼돈(混沌)이다. 숙과 홀이 때때로 혼돈의 땅에서 만날 때 혼돈이 그들을 잘 대접 하였더니, 숙과 홀이 혼돈의 은덕에 보답하고자 인간의 7정인 7개의 구멍(두 눈, 두 귀, 두 개의 콧구멍, 한 개의 입)을 하루에 하나씩 뚫어주자 혼돈이 7일 만에 죽었다.”라는 내용이 나온다. 여기서 혼돈은 일체의 차별, 구별이 존재하지 않는 무위자연(無爲自然)의 상태를 말하고 숙홀은 인간의 작위성을 말한다.

24 천로(天老) : 전설 속에 나오는 황제(黃帝)를 보좌하던 신하인데, 재상이나 중신을 의미한다.

25 천사(天使) : 천제(天帝)가 부리는 신(神)이다.

용은 노복과 같아서 황도²⁶와 적도²⁷를 엇갈리게 펼쳐 놓았네
 龍如老僕互亘黃赤道
 길은 길이가 하늘과 같아서 길이가 끝이 없으니 道長如天長不極
 태양이 바다에 떠오르게 되었네 翔陽脫海
 바다가 뜨거워 물이 끓으니 海爍水沸
 봉새와 고래가 익어서 시체들이 가로 눕게 되었네 鵬鯨爛橫屍
 희화가 고삐 흔들며 까마귀를 몰아가니 근심이 없어지고²⁸
 羲和掉轡兮去來驅烏不愁思
 달이 차고 이지러지는 것에 따라 햇빛도 온전했다 이지러졌다 하네
 魄淵盈缺光全虧
 향아와 늙은 토끼 계수나무 그늘을 함께 하며 한가롭게 춤을 추고
 妖娥老兔共蔭桂影閑婆娑
 옆에 늘어선 이십 팔 수가 밝다네 旁羅二十八宿明
 구중천과 팔방의 은하수 길에는 九重八極銀河經
 그 사이에서 만물과 만사가 나오고 其間萬物萬事出
 비·우박·바람·구름·서리·이슬이 행하네 雨雹風雲霜露行
 비·우박·바람·구름·서리·이슬이 행하니 雨雹風雲霜露行
 만물의 성쇠와 사계절이 이루어지네 萬物盈虛四時成
 오호라 천도는 여기에서 지극하니 嗚呼天道至于此
 변화가 무궁하여 신묘하고 또 영험하도다 變易無窮玄且靈
 비록 신묘하고 또 영험하지만 雖云玄且靈

26 황도(黃道) : 태양의 궤도를 가리킨다

27 적도(赤道) : 지구의 적도와 천구(天球)가 맞닿는 가상선(假想線)이다.

28 희화(羲和)가 : 중국 신화에 나오는 태양을 실은 마차를 몰고 다니는 신(神)이다. 여기서는 태양이 뜨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혼돈이 처음에 경영함이 없는 것만 같지 못하네 不如混沌初無營
 혼돈 상태가 만약 길이 있었다면 混沌若長在
 하늘이 갈라져서 푸르게 되지 않았으리 天不剖而青
 하늘이 푸르지 않았다면 땅이 누렇지 않았을 것이며 天不青地不黃
 내가 어찌 태어났겠는가 我何爲而生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너도 태어남이 없으리니 我無生爾無生
 어찌 시비와 서로 간의 다툼이 있으리오 何有是非交相爭
 차라리 나 너 하늘이 모두 태어나지 않은 것은 寧吾與爾與天俱無生
 혼돈이 처음에 죽지 않아서 不如混沌未始亡
 혼혼돈돈 망망매매한 것만 같지 못하리라 混混沌沌漭漭昧昧
 둥글지도 모나지도 않고 마음도 눈도 몸이 없었으리니
 不圓不方無心無目身
 생각하면 내 눈물 부질없이 흐르는 것도 보지 않았으리라
 思之不見我涕空浪浪

큰 눈

大雪

옥황상제 늦게 자극궁²⁹에 임하시여 玉皇上帝晏臨紫極中
북쪽 창을 크게 열고 한 해의 순서를 시험하시네 大開北牖課歲功
바야흐로 이 겨울 북두칠성 자루가 축 방향에 꽃히니³⁰

方茲玄冬斗插丑

누가 내 일을 따르겠는가라고 백관들에게 묻네³¹ 疇若予采咨臣工
신하 현명³²과 전옥이 절하며 머리를 조아리고 비밀 조서를 받아서

臣冥臣瑱拜手稽首受密詔

한귀³³를 타고 태음궁을 나서네

寒龜騎出太陰宮

- 29 자극궁(紫極宮): 자극(紫極)은 별자리 이름으로 천제(天帝)가 거주하는 궁궐을 자극궁(紫極宮)이라고 한다.
- 30 바야흐로…꽃히니 : 북두성 자루가 축(丑) 방향에 꽃히면 하(夏)나라 달력으로 선달(12월)이다. 《시경》〈빈풍(豳風) 칠월(七月)〉에 “동짓달에 찬 바람 불고, 선달에 날씨가 매섭게 추우니 옷도 없고 담요도 없으면 어찌 한 해를 마치리오.[一之日鬻發, 二之日栗烈, 無衣無褐, 何以卒歲.]”라고 하였다.
- 31 누가…묻네 : 원문의 ‘주약여채자(疇若予采咨)’는 《서경》〈우서(虞書) 순전(堯典)〉에 “누가 나의 일을 순히 따르겠는가를 물으니[疇咨若予采]”라고 한 데서 온 것으로 주(疇)는 수(誰), 약(若)은 순(順), 채(采)는 사(事)의 뜻이다.
- 32 현명(玄冥): 겨울을 담당하는 신이다. 이백(李白)의 〈대렵부(大獵賦)〉에 현명이 특히 눈[雪]을 관장하는 것으로 읊고 있는데, 원문은 다음과 같다. “若乃嚴冬慘切, 寒氣凜冽, 不周來風, 玄冥掌雪.”
- 33 한귀(寒龜): 북방을 담당하는 신 현무(玄武)를 말한다. 현무의 모습이 거북이처럼 생겼기에 한귀라 한 것이다.

광활한 천지에 바람을 뿜고 구름을 덮으니 噴風泄雲宇內闊
 한밤중에 인간들은 이 눈을 부르짖게 하네 半夜人間呼是雪
 처음에는 가벼운 싸락눈 따라 가늘게 내리다가 始隨輕霰細霏微
 점점 날리는 우박과 합하여 번갈아 밀어내네 漸和飛雹仍交軌
 나부꼈다가 다시 소록소록 飄飄更蕭蕭
 성기었다가 다시 백백하게 疏疏更密密
 희고 희다가 다시 맑고 皚皚皓皓更晶晶
 평평 주룩주룩 서로 모여서 쌓이네 霏霏淅淅相凝積
 처음에는 만 명의 선녀³⁷ 흰 봉황 흰 학이 하늘 문에서부터

初疑萬玉妃白鳳皓鶴從天扉

예상우의곡³⁸에 맞춰 노래하고 춤추는가 하였네 歌舞霓裳羽衣曲
 빙 돌며 따르며 편안하여 돌아가기를 잊은 듯하니³⁹ 扶輿倚靡憺忘歸
 또 못 신선들 봉래산⁴⁰ 꼭대기에서 의관을 흔드는가 싶었다네

- 37 선녀[玉妃] : 눈을 선녀에 비유한 말이다. 한유(韓愈)의 <신묘년 눈[辛卯年雪]>에 “흰 무지개가 먼저 길 열더니만, 만 명의 옥비가 이어 내려오도다.[白霓先啓塗 從以萬玉妃]”라고 하였다.
- 38 예상우의곡(霓裳羽衣曲) : 당(唐)나라 때 유명한 법곡(法曲)으로, 당 현종(唐玄宗) 개원(開元) 연간에 하서 절도사(河西節度使) 양경충(楊敬忠)이 바친 가곡으로, 처음 이름은 바라문곡(婆羅門曲)이었는데, 현종이 윤색(潤色)하고 가사를 지어 이름까지 고쳤다고 한다. 백居易(白居易)의 <장한가(長恨歌)>에 “어양의 반란군 북소리 땅을 진동해 오니, 임금님 예상우의곡을 놀라 파하였네.[漁陽鞀鼓動地來, 驚破霓裳羽衣曲.]”라고 하였다.
- 39 빙돌며…듯하니 : 원문의 담망귀(憺忘歸)는 편안하여 돌아가기를 잊는다는 뜻이다. 《초사(楚辭)》 <구가(九歌) 산귀(山鬼)>에 “영수(懷王)를 머무르게 하니 편안하여 돌아가기를 잊으려 했는데, 노쇠한 나를 누가 영화롭게 해 주겠는가.[留靈脩兮憺忘歸, 歲既晏兮孰華予.]”라고 하였다.
- 40 봉래산 : 원문의 ‘蓬壺’는 신선이 산다는 삼신산(三神山)의 하나인 봉

又疑衆神仙擾擾冠佩蓬壺顛
 기린을 채찍질하고 규룡을 타고서 배회하는 듯 鞭麟駕虯相徘徊
 옥 일산과 구슬 양산 쓰고 바람을 타고 돌아오는 듯 玉傘珠蓋乘風旋
 그렇지 않으면 직녀가 근심스럽게 은하수를 건너 不然織女愁思渡銀漢
 베틀 머리에서 구름 비단 천만 필을 찢는 듯 裂破機頭雲錦千萬段
 그렇지 않으면 항아가 가을바람 앞에서 계수나무 꽃을 주워

不然嫦娥拾得桂花秋風前
 남겼다가 선달에 비로소 바람에 날려 뿌리는 듯 留與歲寒始飄散
 요지⁴¹에서 잔치하던 서왕모가 낮에 내려와 구름 깃발을 흔드는
 게 아닐까 得非宴瑤池玉母晝下翻雲旂
 못 항아들이 은교⁴²에 올라 비단을 어지럽게 뿌리는 건 아닐까

得非駕銀橋千娥羅綺紛離披
 또 의심스러운 건 바다 얼음이 높은 곳과 만나서 更訝天池冰合高
 추워서 흰 봉새의 천 개의 털이 빠진 것일까 寒脫白鵬千翼毛
 또 의심스러운 건 큰 바다 추위가 사무치고 틀어박혀 更訝滄溟寒徹蟄
 옥용의 만 개의 비늘이 얼어서 부서진 것일까 凍碎玉龍萬鱗甲
 또 의심스러운 건 풍채와 기력이 있는 두 장수가 흰원씨를 보호하여
 又訝風力兩將護軒皇

神兵과 귀졸들이 하늘 가운데에 많고 성대한 것일까
 神兵鬼卒莘莘縱縱天中央

래산(蓬萊山)의 별칭인데, 그 모양이 병과 같이 생겼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41 요지(瑤池) : 곤륜산(崑崙山)에 있는仙境(仙境)으로, 선녀(仙女)인 서왕모(西王母)가 살면서 가끔 신선들을 불러 모아 잔치를 한다고 한다.

42 은교(銀橋) : 전설상 신선의 지팡이를 허공에 던져서 만든 흰색의 큰 다리로 월궁(月宮)으로 통한다.

또 한나라 패공의 의기 떨치는 소리에 又如沛公奮義聲
삼군이 상복⁴³을 입고 물고기가 뛰어오르고 새가 내려앉듯 곧바로
서쪽으로 초왕을 향해 간 것과 같고 三軍縞素魚鴈鳥眴直向西楚王
또 하나라 우 임금의 제후들을 회합할 때 又如夏后會侯伯
옥백을 잡은 자가 천만 국민 것과 같고⁴⁴ 執玉帛者千萬國
또 보배로운 구슬로 제나라를 향해 자랑하길 又如魏珠向齊矜
수레 열두 채의 앞뒤를 비출 수 있다고 한 것과 같고⁴⁵ 照車前後十二乘
또 머리에 윤건 쓰고 손에는 깃털 부채를 잡고 서로 따르는 듯⁴⁶

- 43 상복 : 원문의 ‘縞素’는 흰 빛깔의 옷으로 상복(喪服)이다. 항우가 의제(義帝)를 죽이자 유방이 늙은이 동공(董公)의 계책에 따라 항우를 치는 명분을 얻기 위해 의제를 위해 발상(發喪)하고 병사들에게 흰 상복을 입힌 것을 말한다. 동공은 군대란 명분이 있어야 적을 복종시킬 수 있다며 유방을 설득하여 항우가 임금을 내쳐서 죽인 천하의 역적이라고 선포하였다. 《漢書 卷1 高祖本紀上》
- 44 옥백을…같고 :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애공(哀公) 7년 조에 “우 임금이 도산에서 제후를 회합할 때 옥백을 잡은 것이 만국이였다.[禹合諸侯於塗山, 執玉帛者萬國.]”라고 하였다. 옥백은 회맹(會盟)이나 조빙(朝聘)에 사용하는 예물인 규장(圭璋)과 비단을 말한다.
- 45 또 보배로운…같고 : 원문의 위주(魏珠)는 보배로운 구슬을 말한다. 전국 시대 양 혜왕(梁惠王)이 제 위왕(齊威王)과 평륙(平陸)에서 회합했을 적에 “우리나라가 작기는 하지만 직경 한 치 되는 구슬로 12채의 수레를 앞뒤로 비출 수 있는 것이 10개나 된다.[若寡人國小也 尚有徑寸之珠 照車前後各十二乘者十枚]”라고 자랑하자, 제나라 위왕이 “내가 보배로 삼는 것은 왕과 다르다.[寡人之所以爲寶與王異.]”라고 하며 단자(檀子), 반자(盼子), 검부(黔夫), 종수(種首) 등 네 명의 신하를 차례로 거론하고 “장차 이들로 천 리를 비출 것이니, 어찌 다만 12채의 수레에 그치겠는가.[將以照千里 豈特十二乘哉.]”라고 한 고사가 전한다. 《史記 卷46 田敬仲完世家》
- 46 또 머리에…듯 : 윤건(綸巾)은 푸른 실로 엮어 만든 두건으로 제갈량이 평소 애용하던 두건이라 제갈건(諸葛巾)이라고도 한다. 우선(羽扇)은 고대에 군중(軍中)의 장수가 작전을 지휘하는 데 사용하는 흰 깃

又如綸巾羽扇相追從

또 흰 수레와 흰 말이 다투어 내려오는 듯 又如素車白馬爭來降
혹은 성스러운 요 임금께서 임금 자리에 임하시되 或似聖帝御皇極
띠풀 집과 흙 계단으로 소박함을 나타내신 듯⁴⁷ 茅茨土階甄素朴
혹은 방탕 음란하여 백성들의 재산을 뿌려서 或似淫辟殫民財
경궁과 요대에서 보옥으로 옷을 해 입는 듯⁴⁸ 瓊宮瑤臺衣寶玉
용이 초나라 잔치자리를 나가니 보배로운 옥두(玉斗)가 쪼개지는 듯⁴⁹

털로 장식한 부채로 백우선(白羽扇)이라고도 한다. 삼국 시대 촉한(蜀漢)의 승상 제갈공명이 진중(陣中)에서 소여(素輿)를 타고 윤건(綸巾)을 쓰고 백우선을 손에 들고 삼군을 지휘하였다. 《三國演義 104》

- 47 혹은 성스러운…듯 : 요(堯) 임금이 띠(茅)로 이영을 엮어서 지붕을 덮고 처마 끝을 가지런히 자르지 않았으며 뜰은 흙으로 세 계단을 만들었다는 고사(古事)를 원용한 것으로, 띠 풀 집의 재료인 띠 풀의 꽃이 흰색이므로 백묘(白茅)라고도 한다. 여기서의 눈이 하얗게 내리는 모습을 비유한 것이다.
- 48 혹은 방탕…듯 : 눈이 쏟아지는 모습을 주왕(紂王)의 음란 방탕함에 빗댄 것이다. 주가 처음에 상아 젓가락을 만들자, 기자(箕子)가 탄식하기를 “저 사람이 상아 젓가락을 만드니, 반드시 옥배(玉栴)도 만들 것이다. 옥배를 만들면 반드시 먼 지방에서 생산하는 진귀한 물건을 구하여 사용할 것이니, 여마(輿馬)와 궁실(宮室)의 사치하게 될 조짐이 이 상아 젓가락에서 시작될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주왕이 그 뒤에 끝내 사치에 빠져 경궁(瓊宮)과 요대(瑤臺)를 만들어 놓고 황음(荒淫)하다가 나라를 망쳤다. 《史記 卷38 宋微子世家》
- 49 용이…쪼개지는 듯 : 이 구절도 눈이 내리는 모습을 옥 술그릇이 깨져서 떨어지는 것으로 빗댄 것인데, 홍문연(鴻門宴) 고사를 원용한 것이다. 여기서 용은 유방(劉邦)을, 초나라 잔치[楚筵]는 홍문연을, 보두가 쪼개지는 것[寶斗劈]은 범증(范增)이 선물로 받은 옥 술그릇[玉斗]을 부순 것을 말한다. 홍문연 고사는 다음과 같다. ‘한 패공(漢沛公)이 진(秦)의 관중(關中)을 먼저 쳐들어간 것을 항왕(項王)에게 사과하기 위해 항우가 베푼 홍문(鴻門)의 주연(酒宴)에 갔을 때 범증(范增)이 항왕에게 패공을 죽이라고 몇 번이나 눈짓했으나 항왕이 응하지 않았다. 결국

龍超楚筵寶斗劈
 까치가 형산을 넘으니 못 옥들이 떨어지는 듯⁵⁰ 鵲飛荆山群玉落
 놀라서 수후의 구슬⁵¹을 흘린 것이 아닐까 若非驚散隋侯珠
 성내어 화씨의 벽옥을 부순 것이 아닐까⁵² 無乃怒碎和氏璧
 허공을 메꾸고 오르고 섞이기를 마음대로 하니 填空塞虛縱騰糅
 작은 것은 손바닥 같고 큰 것은 자리와 같네 小者如手大如席
 일 천 봉우리, 일 만 골짜기 갑자기 주패의 궁궐이 되고 千峯萬壑倏作珠貝闕
 온 세상이 모두 경요의 굴속이라네 八荒六合盡是瓊瑤窟
 구름과 계곡 깊고 우묵한 곳 평탄하고 험한 곳이 모두 자취를 감췄고

긴박한 사태를 알아차린 패공이 잔치자리를 빠져나와 셋길로 도망을 가게 된다. 장량(張良)이 패공을 대신하여 옥두 한 쌍을 범증에게 바치자 범증이 성내며 옥두를 갈로 부숴버렸다'는 내용이다. 《사기(史記)〈한고조본기(漢高祖本紀)〉.

- 50 까치가...듯 : 형산 사람들이 옥을 흔한 돌맹이처럼 여겨 던져서 까치를 잡는 것을 말한다. 환관(桓寬)의 《염철론(鹽鐵論)》에 “형산의 사람들은 옥을 던져서 까치를 잡는다. [荆山之人, 以玉抵鵲.]”라고 하였다.
- 51 수후의 구슬 : 《수신기(搜神記)》에 “옛날 수후(隋侯)가 출행하다가 큰 뱀이 상처를 입어 중간이 끊어진 것을 보고 사람을 시켜서 약을 발라 싸매어 주게 하니, 뱀이 살아서 기어갔다. 한 해가 지난 뒤에 그 뱀이 명주(明珠)를 입에 물고 와서 은혜에 보답하였는데 그 구슬은 직경이 한 치가 넘으며 순백(純白)하여 밤에도 빛이 나 달이 비치는 것 같았다. 그래서 그것을 수후주 또는 명월주라고 하였다.”라고 하였다.
- 52 성내어...아닐까 : 조나라 혜문왕(惠文王) 때 초(楚)나라의 화씨벽(和氏璧)을 얻었는데, 진(秦)나라 소왕(昭王)이 이를 빼앗고 15개의 고을을 돌려주지 않자 인상여가 화씨벽에 흠집이 있는 곳을 가리켜 주겠다고 다시 받고는 “대왕이 성을 주지 않고 화씨벽만 빼앗으려고 하면 이 옥을 깨뜨려 버리겠다.”라는 고사를 원용한 것이다. 《史記 卷81 藺相如列傳》

丘陵谿谷岬窞夷險摠藏跡

붉은 대궐 평민의 집 한미한 집 요충지 모두 한 가지 색이라네

朱宮白屋寒門要路同一色

바다 밑 용왕의 궁궐에

似聞海底龍王宮

백금의 문과 창, 수정의 발과 창을 들었던 것 같네

白金戶牖水精簾櫳

유리 벽이 싸늘하고 영롱하게 비추니

琉璃壁映寒玲瓏

상서로운 빛은 일 천의 집을 통과하는 달빛과 같네

瑞光如月千門通

귀신같은 공력은 참으로 웅대하게 자랑할 만하니

神功鬼力信夸雄

누가 천지조화를 환상적으로 뽑아내기를 이렇게 끝없이 하리오

孰如天地造化幻出斯無窮

또 들으니 천상의 백옥경에는

又聞天上白玉京

십 이 루를 쌓았고 오성을 둘렀고⁵³

築十二樓環五城

성신과 일월을 담장으로 삼고

星辰日月爲墻屏

아홉 개 천문⁵⁴에는 차고 맑은 기운이 엉켜있다

하네閶闔九鑰凝寒清

상계의 높은 거처는 진실로 위엄있고 신령하니

高居上界信威靈

어찌 세상의 산하와 대지가 하루아침에 다 변해서 아름다운 옥이

되는 것과 같겠는가

豈若世間山河大地一朝盡化爲琳琅

푸른 비랑·푸른 석벽·황하·흑수 다 파묻히고

53 또 들으니...둘렀고 : 백옥경(白玉京)은 도가(道家)에서 말하는 천제(天帝)의 도성(都城)이다. 이백(李白)의 <경난리후천은류야량역구유서회증강하위태수량재(經亂離後天恩流夜郎憶舊遊書懷贈江夏韋太守良宰)> 시에 “천상의 백옥경에는 12루와 오성이 있네.[天上白玉京, 十二樓五城]”라고 하였다.

54 아홉 개 천문 : 원문의 ‘구약(九鑰)’은 천문(天門)을 이르는 말로, 전하여 천궁, 궁문(宮門), 궁궐을 뜻한다. 송(宋)나라 오율(吳聿)의 <관림시화(觀林詩話)>에 “천문은 아홉 개가 있으므로 구약이라 한다.[天門有九, 故曰九籥.]”라고 하였다.

蒼崖翠壁黃河黑水盡埋沒

현단·자부·단구·적성⁵⁵ 모두 실제 모습 없어졌네

玄壇紫府丹丘赤城皆蔑實

아침 해가 잠시 아찔하게 빛나면

晞陽乍眩曜

달빛을 도와 더욱 선명하게 하네

助月愈的歷

고드름 걸린 기왓골에 아침 해가 처마를 비추고

乳懸瓦溝暎射簷

눈가루 회나무 꼭대기에서 떨어지고 바람은 숲에 하룻거리네

粉脫檜頂風散林

뒤섞여 어지럽게 날려 푸른 소나무를 문히게 하니

凌亂沒松碧

진나라 대부의 수염은 하얗게 되었네

秦時大夫鬚髯白

덮어서 누르니 대나무의 절조를 침범하고

覆壓侵竹節

주나라 곡식에 백이숙제는 의리를 굽히지 않았네

周粟夷齊義不屈

창가를 치고 띠 집에 흠뻑리며 교묘하게 은자의 방으로 들어오니

撲窓洒茅巧入幽人室

이불을 펼쳐도 밤새도록 쇠처럼 차갑다네

布衾終宵冷似鐵

틈을 뚫고 틈에서 새어 가난한 아낙의 부엌을 공교롭게 적게 하니

穿罅漏隙工沾貧婦竈

젖은 땀나무는 아침에 불이 꺼지게 되었네

濕薪崇朝煙火滅

말구유 아래의 검은 말은 백마가 되었고

櫪下鐵驪爲白驄

뜰 사이의 어린아이 늙은이가 되었다네

庭間小兒爲老翁

높은 나무에서 자던 새들도 머리 또한 희고

長林宿鳥頭亦白

단전에서 울던 학도 얼굴빛을 잃었다네

丹田唳鶴無顏色

55 현단(玄壇)…적성(赤城) : 현단(玄壇)은 도교의 제단, 자부(紫府)는 신선이 사는 거처, 단구(丹丘)는 신선이 사는 곳의 지명, 적성(赤城)은 선경(仙境)을 말한다.

빙잠⁵⁶은 득의하여 실을 뽑고자 하고 氷蠶得意欲抽絲
월나라 개는 무리 지어 짖다가 놀라 서로 엿보네⁵⁷ 越犬群吠驚相視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생각하니 생각은 아득해지고 眼看心想起遐思
고인들은 적막하니 지금 어디로 갔는가 古人寂寞今何之
진왕은 손으로 벽한서⁵⁸를 잡았고 陳王手操辟寒犀
풍초관⁵⁹ 쓴 고관들 비단 휘장 아래서 크게 취했네 豐貂大酒羅幃低
수로⁶⁰에서 불타는 숯에는 향기로운 연기가 아름답답고 獸爐熾炭香煙美
미인은 백설곡⁶¹을 가녀린 목소리로 부르네 美人纖歌白雪曲

- 56 빙잠(氷蠶) : 산중 눈서리에 자란다는 전설상의 누에이다. 《습유기(拾遺記)》에 의하면, ‘원교산(員嶠山)에는 빙잠이 있어, 이것을 눈서리로 덮어 놓아야만 고치를 짓는데, 고치의 길이는 1척(尺)이나 되고 그 빛깔은 오색(五色)이며 이것으로 문금(文錦)을 짜면 물에 넣어도 젖지 않고 불 속에 넣어도 타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57 월나라…엿보네 : 중국 남쪽의 월(越)나라 지방에는 평소에 눈이 내리지 않기 때문에, 눈이 오면 개들이 미친 듯이 짖어대다가 눈이 그쳐야 그만둔다는 이야기가 당(唐)나라 유종원(柳宗元)의 <답위중립논사도서(答韋中立論師道書)>에 나온다.
- 58 벽한서(辟寒犀) : 무소뿔의 이름이다. 한기(寒氣)를 없애 준다고 한다. 당(唐)나라 현종(玄宗) 초에 베트남 지역인 교지국(交趾國)에서 황금빛의 무소뿔 하나를 바쳤는데 그 사자(使者)의 요청에 따라 그것을 금반(金盤)에 담아 대전 안에 놓아두자 따스한 기운이 발산하였다고 한다. 황제가 그 까닭을 물으니, 사자가 “이것은 추위를 물리치는 서각입니다. [此辟寒犀也.]”라고 한 데서 유래한다.
- 59 풍초관 : 원문의 ‘豐貂’는 진귀한 담비 꼬리로 장식한 관으로 시중(侍中)과 같은 근시(近侍)의 신분 혹은 고위 관원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 60 수로(獸爐) : 짐승 모양으로 만든 향로(香爐)이다. 두목(杜牧)의 <춘사시(春思詩)>에, “수로에는 꺼질듯한 불꽃이 영켰고, 비단 장막에는 맑은 연기가 덮고 있네. [獸爐凝冷焰, 羅幕蔽晴煙.]”라고 하였다.
- 61 백설곡(白雪曲) : 초나라의 가곡 이름으로, 곡조가 높아서 부르기 어려운 곡이다. 어떤 사람이 초나라의 국도(國都)인 영(郢)에서 노래를 불

공자는 장안 저잣거리에서 말을 빠르게 내달리고 公子快馬長安市
 저잣거리 술집 깃발은 좋은 술을 자랑하네 市上青帘誇酒美
 불러서 큰 술잔에 맞보니 백금의 가치가 있고 喚嘗大杯當百錢
 마셔서 취하니 산호 채찍도 아깝지 않다네 取醉不惜珊瑚鞭
 용중⁶²을 세 번 찾으니 길은 험하고 三顧隆中路險澁
 군대 깃발 말아 올리니 용과 뱀⁶³이 축축하네 旌旗卷却龍蛇濕
 한밤중에 재갈을 물고 채주 땅의 도적을 포박하고⁶⁴ 中夜銜枚縛蔡賊
 갑옷 빛이 한기를 비추니 황금 비늘이 오그라드네 甲光射寒金鱗蹙
 당나귀 탄 나그네는 고된 추위를 견디며 騎驢有客耐苦寒
 시 읊조릴 때 산처럼 높이 한 어깨를 웅크리네⁶⁵ 吟聳一肩高如山

렸는데, 처음에 <하리(下里)>와 <파인(巴人)>을 노래하자 그 소리를 알아듣고 화답하는 사람이 수천 명이었고, <양아(陽阿)>와 <해로(薤露)>를 노래하자 화답하는 사람이 수백 명으로 줄었고, <양춘(陽春)>과 <백설>을 부르자 화답하는 사람이 몇 명밖에 되지 않았다고 한다. 《文選 卷45 對楚王問》

- 62 용중(隆中) : 삼국 시대 때 유비(劉備)를 보필하여 촉한(蜀漢)을 건국한 제갈량(諸葛亮)이 출사(出仕)하기 전에 농사를 지으며 은거하던 곳이다.
- 63 용과 뱀 : 깃발에 그려진 용과 뱀을 말한다.
- 64 한밤중에…포박하고: 당(唐)나라 헌종(憲宗) 때의 무신 이소(李愬)가 눈보라가 치던 야밤에 행군하여 반군 오원제(吳元濟)의 근거지인 채주(蔡州)를 불의에 습격함으로써 회서(淮西)를 평정한 일을 이른다. 《新唐書 卷154 李晟列傳 李愬》
- 65 시 읊조릴…웅크리네 : 추위를 견디면서 시상(詩想)에 잠기는 시인의 모습을 말한다. 송(宋)나라 소식(蘇軾)이 당(唐)나라 맹호연(孟浩然)이 경사(京師)로 가던 중 눈을 만나 시를 지을 때를 상상한 <증사진 하충수재(贈寫真何充秀才)> 시에서 “또 보지 못했는가, 눈 속에 나귀 탄 맹호연이 시 지을 때 눈썹 찡그리고 산같이 어깨 웅크린 것을.[又不見雪中騎驢孟浩然, 皺眉吟詩肩聳山.]”이라고 한 데서 유래한다. 《蘇東坡詩集 卷12》

학을 끌고 오는 처사는 산속에서 내려오고 携鶴處士山中來
 파교 십 리 길에 들매화를 찾네⁶⁶ 灞橋十里尋野梅
 용문에서의 감상⁶⁷은 족히 시상을 펼칠 만하고 龍門之賞足以暢詩襟
 회계산을 방문해도 외롭게 읊조리는 것을 위로할 수 없네
 稽山之訪無以慰孤吟

북해에서 양을 길렀으나 양은 젖이 나지 않고⁶⁸ 北海看羊羊不乳
 주리면 밥 먹고 목마르면 마시며 심신이 괴로웠네 飢飧渴飲心顏苦
 남관에서 말을 몰아도 말은 나아가지 않고⁶⁹ 藍關驅馬馬不前

66 파교…찾네 : 파교는 당나라 때 장안(長安) 동쪽에 있는 파수(灞水)의 다리 이름이다. 명인(明人) 장대(張岱)의 《야항선(夜航船)》 권1 ‘답설심매(踏雪尋梅)’라는 표제어에 “맹호연은 정희가 광달하여 항상 눈 오는 것을 무릅쓰고 나귀를 타고서 매화를 찾아다녔다. 그리고 이르기를 ‘내 시상은 눈보라 치는 파교의 당나귀 등에 있다.’라고 하였다.[孟浩然情懷曠達，常冒雪騎驢尋梅。曰吾詩思在灞橋風雪中驢背上.]”라고 풀이하였다.

67 용문(龍門)에서의 감상 : 당(唐)나라 측천무후(則天武后)가 일찍이 용문(龍門)에서 놀 때 시종신들에게 시를 짓도록 한 것을 말한다. 당시 좌사(左史) 동방규(東方虯)가 시를 가장 먼저 짓자 측천무후가 그에게 금포를 하사하였는데, 뒤이어 송지문(宋之問)이 바친 시를 보고 감탄한 나머지 동방규에게 내렸던 금포를 도로 빼앗아 송지문에게 하사하였다는 고사가 전한다. 《舊唐書 卷193 宋之問列傳》

68 북해에서…않고 : 서한(西漢) 무제(武帝) 때에 소무(蘇武)가 중랑장(中郎將)으로 흉노에게 사신 갔었는데 흉노의 임금 선우(單于)가 항복하라고 위협했으나 소무는 끝까지 굽히지 않다가 땅굴 속에 구금되어 담요의 털을 눈[雪]과 뭉쳐서 먹고 연명했다. 북해(北海)로 옮겨 양(羊)을 기르게 하며 선우는 말하기를 “수양[羶羊]의 젖이 나아 돌려보내 주겠다.” 하였다. 소무는 한(漢)의 깃대를 짊고 19년 동안이나 고생을 하다가 뒤에 돌아왔다 한다.

69 남관에서…않고 : 남관(藍關)은 중국 섬서성(陝西省) 남전현(藍田縣) 동남쪽에 있는 관(關)의 이름으로 남전관(藍田關)이라고도 한다. 당(唐)나라 한유(韓愈)가 조주(潮州)로 좌천되어 내려가다가 남관에 이

얼굴을 스치고 품으로 들어와 넘어지고 엎어지네	吹面入懷僵且顛
혹은 차 끓이는 솥의 물이 되고	或資茶鼎水
혹은 서탑의 글자를 비추기도 하네	或映書榻字
혹은 누워서 뜻을 고상하게 하고 ⁷⁰	或臥以尙高
혹은 서서 뜻을 드러내기도 하네	或立以見志
영웅호걸과 충신열사 연기처럼 사라졌으니	英豪忠烈去如煙
천년 세월 돌아보니 어제 일과 같도다	回首千年如隔晨
농부는 풍년을 경험한지라 기뻐하지만 ⁷¹	田翁有喜驗豐熟
오홀은 선비는 지축이 약해질까 ⁷² 도리어 근심하네	迂儒却愁坤軸弱
떠들썩하게 삼일 동안 기교를 부렸으니 ⁷³	譁譁三日弄陰機

르러서 지은 <좌천지남관시질손상(左遷至藍關示姪孫湘)> 시에 “구름은 진령에 비졌는데 집은 어드메뇨, 눈이 남관에 가득 쌓였으니 말은 앞으로 가지 못하네.[雲橫秦嶺家何在 雪擁藍關馬不前]”라고 하였는데, 이를 원용하여 대설(大雪)로 길이 막힌 것을 말한 것이다.

- 70 혹은 누워서…하고 : 원안고와(袁安高臥)의 고사를 원용한 것으로 선비가 곤궁함에 처해서도 굳게 지조를 지키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원안’은 후한(後漢) 화제(和帝) 때의 충신이다. 원안이 일찍이 미천했을 때 한번은 낙양(洛陽)에 큰 눈이 왔다. 낙양 영(洛陽令)이 민가를 순행하다 보니, 다른 사람들은 모두 눈을 치우고 나와서 걸식(乞食)을 하는데 원안의 집만 유독 눈이 치워 있지 않았다. 사람을 시켜 눈을 치우고 들어가 보았더니 원안이 방 안에 누워 있기에 왜 나오지 않느냐고 묻자, “큰 눈이 와서 사람들이 모두 굶주리는 때에 남에게 밥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大雪人皆餓, 不宜干人.]”라고 하였다. 이에 낙양 영이 원안을 어진 사람이라 여겨 효렴(孝廉)으로 천거하여 벼슬길에 나가게 한 고사가 있다. 《後漢書 卷45 袁安列傳》
- 71 농부는…기뻐하지만: 눈이 많이 내리면 이듬해 풍년이 든다는 말이 있으므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 72 지축이 약해질까 : 눈이 많이 내려 진흙탕 길이 되는 것을 지축이 약해진다고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 73 떠들썩하게…부렸으니 : 3일 동안 폭설이 온 것을 말한다. 한유(韓愈)의 <신묘년설(辛卯年雪)> 시에 “온 대지 위에 눈을 우뚝이 쌓아 올려

깊은 산 큰 못에는 날짐승 길짐승들이 끊어졌네 深山大澤飛走息
하늘을 오르는 여덟 마리 용은 얼어서 수염이 빠질까 겁내고

衝霄八龍怯寒水脫髯

산을 받치는 여섯 용은 한기를 두려워하여 머리를 땅에 오그리고 있네

戴山六鼇畏冷頭縮殼

굶주린 곰 궁색한 호랑이 굴속에서 넓적다리 떨며 입을 벌리고

飢熊窮虎穴中股栗口呀呀

짜을 죽이고 자식을 잡아서 양식으로 삼는다네 殺妃屠子爲糧食

산도깨비 나무귀신은 달아나 구덩이에 숨어서 山魃木魅遁伏坎竇

눈으로 빨리 죽기를 빌고 眼窻窻速死

차라리 야차⁷⁴에게 잡아먹히고자 하네 寧爲夜叉噬

금아⁷⁵는 날개를 거두어 밝음을 사양하고 金鴉斂翅讓其明

옥토끼⁷⁶는 빛을 잃어 그 빛을 부끄러워하네 玉兔晦彩羞其光

땅 귀신은 쩡그리며 땅이 얇은 것을 부끄러워하고 地祗曠蹙愧其薄

하늘은 혀를 빼물고 맑게 개기를 사양하네 天公嚙舌辭其清

우사와 뇌백은 그 공을 자랑할 수 없고 雨師雷伯不能伐其功

염제와 축융⁷⁷은 달아나 숨어 그 자취를 감추었네

炎帝祝融遁藏滅其蹤

라, 귀신이 시끄러이 기교를 부리누나.[翁翕陵厚載, 譁譁弄陰機.]”라고 하였다. 《韓昌黎集 卷4》

74 야차(夜叉) : 불경 속에 등장하는 모습이 추악한 귀신으로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한다.

75 금아(金鴉) : 태양 속에 있다는 세 발을 가진 신조(神鳥)로 ‘금오(金烏)’ 또는 ‘삼족오(三足鳥)’라고도 한다. 태양을 지칭하는 말로 쓰인다.

76 옥토끼[玉兔] : 달을 가리킨다. 전설에 의하면 달 속에는 두꺼비와 토끼가 있다고 한다.

77 염제(炎帝)와 축융(祝融) : 화신(火神)으로 여름과 남방(南方)을 관장하는 신이다.

그런 후 현명과 전옥⁷⁸이 깃발을 눕히고 북을 그치고 개선을 아뢰며
 然後玄冥顛帝偃旗息鼓奏凱旋
 발을 구르고 춤추며 향안⁷⁹ 앞에서 승리를 바치도다 蹈舞獻捷香案前
 옥황상제 크게 기뻐하며 네 공적을 가삼히 여기고 玉皇大悅嘉乃績
 기린각에 첫 번째로 이름을 올리네 策名第一麒麟閣
 분명 세상 밖의 일을 보고 들었는데 分明見聞天外事
 꿈을 깨보니 눈은 개고 바람이 어지럽게 일고 있네 夢破雪晴風亂起

78 현명과 전옥 : 《예기(禮記)》〈월령(月令)〉에 “겨울을 주관하는 상제(上帝)는 전옥(顛頊)이요, 그 귀신은 현명(玄冥)이다.[其帝顛頊, 其神玄冥].”라고 하였다.

79 향안(香案) : 조회(朝會)하는 날에 대궐 안의 향로나 촛대 옆에 놓아 두는 책상이다.

박연⁸⁰가

朴淵歌

아, 웅장하고도 남다르다, 기이한 박연이여⁸¹ 噫噫雄哉異哉朴淵奇
 내가 늙긴 했지만 시로 형언할 수 있지 吾老可以形諸詩

80 박연(朴淵) : 윗못과 아랫못이 있다. 박씨(朴氏) 성을 가진 사람이 윗못에서 짓대를 볼자 용녀(龍女)가 감동하여 그를 끌고 물속으로 들어가다가, 그 어머니가 슬피 우니 아랫못에 떨어뜨렸다고 한다. 이에 윗못을 박연이라 하고, 아랫못을 고모담(姑母潭)이라고 한다. 개성 천마산(天摩山)과 성거산(聖居山) 사이에 있는데, 형상이 돌독(石甕) 같으며 들여다보면 새까맣다. 가물 때 비를 빌면 응험하였다. 윗못 가운데 반석(盤石)이 있는데, 섬바위라고 한다. 《世宗實錄地理志 黃海道》《新增東國輿地勝覽 卷42 黃海道》《月沙集 卷38 遊朴淵記》

81 아...박연이여 : 박연과 주변 풍광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나는 박연으로 곧장 달려갔는데, 양옆의 산줄기가 물을 끼고 내려오다가 이곳에 이르러 갑자기 가파르게 끊겨 큰 바위 벽이 되었다. 한 덩어리로 뭉쳐 기이하고 장엄한 그 바위벽은 층을 이룰 새도 없이 깎아질렀는데, 높이가 무려 30길이나 되었고, 절벽 위와 아래에 모두 못이 있었다. 위의 못은 수직으로 바위를 꿰뚫어 이루어졌는데, 보름달처럼 둥근 모양에 짙은 녹색을 띠었고 한가운데에 둥근 돌이 불쑥 솟아 마치 큰 거북이 못에 엮드려 등이 물 밖으로 드러난 것 같았다. 세상에서는 고려 문종(文宗)이 그 위에 올라가 용을 채찍질했다고 전하지만 믿을 수 없다. 아래의 못은 넓이가 거의 6, 7무(畝)인데, 뚱가 그 속에 엮드려 있는 것처럼 검은빛을 띠고 있다. 위 못의 물이 많이 모여 아래 못으로 흘러드는 것이 폭포인데, 처음에는 그래도 벽에 붙어 흐르다가 이윽고 눈이 세차게 쏟아지듯, 무지개가 드리우듯, 허공에서 곧바로 떨어진다. 그 기이하고 빼어난 모습은 형언할 수가 없고, 폭포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거품이 흩날려 수십 보 밖에 있는 사람도 마치 빗속에서 서 있는 것처럼 얼굴과 머리카락이 흠뻑 젖었다.” 《국역 농암집 권23 송경(松京) 유람기》

막 도착했을 때는 낮이 빠지도록 깜짝 놀랐으니 初來動魄愴然駭
 아, 두려워할 만하여 마음으로 기뻐하기 어려웠다네 吁其可畏神難怡
 잠시 정신을 안정하자 제대로 볼 수 있게 되었으니 俄然定精目力完
 기뻐하며 서서 미친 듯 입을 벌렸다가 곧 찬탄했지 喜立狂呀却興嘆
 하늘이 오랜 세월동안 이루어 자연스럽게 되었고 天成萬古合自然
 귀신이 긴 시간 보호하여 위엄 있고도 현묘하네 鬼護千秋威且玄
 이로써 알겠다, 조화옹이 화로와 거푸집 끌어안고서 從知造化擁爐鑄
 공교로움을 다해 바위 모양 조각했음을 刻畫石狀窮其工
 가운데가 비어서 기룡 한 마리 누워 있을 만한데 通中可容一虯臥
 지족봉에서 수원을 이어 오고 여울을 끌어들었네 承源引瀧知足峯
 거북이 같고 말 같고 호랑이 같고 양 같으니 如龜如馬如虎羊
 갑자기 일어나고 성내며 우뚝 솟아 자웅을 겨루는 듯 突起怒挺相雌雄
 바리때 같은 웅덩이, 겉은 맷돌 같은데 窪爲孟鉢外如磨
 돌기둥이 또 바리때 안에 있구나 更有砥柱當孟中
 물이 바리때 안에 들어가 돌기둥을 돌아서 가득 차더니 水入孟中環柱滿
 곧 맷돌 구멍 따라 아득히 내달리며 부딪치더라⁸² 便從磨口遙奔衝
 바로 이처럼 벼랑과 절벽 빚어내고는 陶崖鑄壁乃如此
 그곳을 짜개고 맹렬한 폭포수 걸어서 천지가 절구질하네
 劈掛猛瀑乾坤舂

처음엔 의심했지, 여와가 돌을 단련해 하늘 구멍 메웠는데⁸³

82 거북이...부딪치더라 : 성거산과 천마산 사이의 험준한 골짜기로 흘러내리는 맑은 물이 선바위에 부딪쳐 돌면서 박연에 고였다가 바위 벽으로 떨어지면서 폭포가 된다. 폭포 아래에는 둘레 120m, 직경 40m 정도의 고모담이 있고, 거기에 용두(龍頭)가 수면에 떠 있는 모양의 바위가 있다. 고모담에서 흘러나온 물은 정자가 있는 바위 아래로 감돌아 오조천(五祖川)으로 들어간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83 여와(女媧)가...메웠는데 : 옛날 공공(共工)이 전옥(顛頤)과 싸우다 화

初疑女媧練石塞天孔
 돌이 떨어지며 구멍이 나서 하늘이 은하수를 풀어 내보냈나
 石落孔開天放銀河送
 또 의심했지, 우임금이 바위를 뚫어 용문을 수리하자⁸⁴
 又疑大禹鑿石修龍門
 용이 바위 통해 땅 위로 나와서 큰 물결 토해 솟구치게 했나
 龍從石出地吐洪波涌
 빠르게 뒤집히며 뿜어져 나오는 천만 길의 물길 驚翻噴射千萬丈
 거칠고 단단한 바위에 부딪치며 쏟아지다 구천까지 뿜을 듯
 礧轟瀉堅穿黃壤
 큰 물결 부딪쳐서 물방울이 날려 순식간에 아득해지더니
 激湧颺沫乍漠漠
 태양 아래 훑날리는 빗방울은 산허리까지 날아가네 飛雨白日吹山腹
 높은 절벽에 걸려 있어 한기가 매서운데 高垂絕懸寒氣凜
 낮에 뜬 둥근 무지개는 시내 따라 물을 마시는 듯 宛虹晝立沿澗飲
 무너지는 듯한 소리와 압박하는 듯한 형세가 내게 함께 부딪쳐 오니
 聲崩勢迫互盪觸
 온 골짜기의 미친 듯한 우렛소리는 천만 대의 수레가 지나가는 듯
 一壑狂雷千萬軸
 봄에는 얼음이 녹아 벼랑에 살짝 붙어 있으니 方春解凍著崖微

가 나서 머리로 부주산(不周山)을 들이받아 하늘을 떠받치는 기둥이
 부러지고 땅을 묶어둔 받줄이 끊어졌다. 이에 여와가 오색 돌을 갈
 아서 하늘을 깎고, 자라의 다리를 잘라서 사극(四極)을 세웠다고 한
 다. 《淮南子 墜形訓, 覽冥訓》

84 우(禹)임금이...수리하자 : 우임금이 구하(九河)에 길을 내어 범람을
 막은 일을 말한다. 《사기(史記)》〈이사열전(李斯列傳)〉에 “우임금이 용
 문을 뚫어 구하를 소통시켰다.[禹鑿龍門, 疏九河.]”라고 하였다.

푸른 용이 잠에서 깨어나 하늘 문까지 날아가려는 듯 蒼龍拔蟄升天扉
 한여름에는 큰비로 불어난 물소리 10리 너머에 들리니 盛夏水潦聞十里
 너른 바다 거꾸로 서서 땅의 기틀을 흔드는 듯 滄海倒立搖坤機
 겨울 눈 하얗게 내리면 샘 바닥까지 얼어서 冬雪皚皚水徹泉
 온 바위와 골짜기에 빛이 서로 이어지지 千巖萬壑光相連
 신선은 어느 곳에서 천천히 내려왔나 仙人何處降冉冉
 추운 요대에서 장난삼아 옥으로 된 띠 걸쳐 둔 듯⁸⁵ 戲拖玉紳瑤臺寒
 최고는 서리와 이슬에 물든 깊은 가을이니 最是深秋霜露染
 누런 꽃과 붉은 잎은 무늬 넣은 비단 같구나 黃花赤葉雕文錦
 이때 옥처럼 고운 물길에 얇게 씻어 내며 흐르니 此時瑤淙淺淺洗
 희게 누인 명주 한 폭이 검은 구렁이에 드리운 듯 皓練一幅垂玄窟
 낙엽이 웅덩이 위에 지자 새가 서둘러 잡으려다가 葉墮泓面鳥驚救
 신훈이 굴과 동산으로 삼은 곳을 깨닫네 方覺神龍爲窟囿
 이곳에 집터를 잡은 지 몇 년인지 아는가 茲焉卜宅知幾年
 구름을 불고 우레를 품으며 위엄 있는 신령을 마음대로 한다네
 噓雲腹雷威靈專
 때로 수재와 한재에는 맑은 하늘이나 비를 비는데 有時水旱禱晴雨
 묵묵하고 은밀한 응답은 그 정성스런 마음에 감복한 것이라오
 默答陰酬欽厥虔
 아, 웅장하고 기괴함이 땅의 빼어난 기운을 멋대로 차지해서
 噫噫雄怪擅地靈
 사람을 뺏속까지 상쾌해져서 속세의 어둠에서 깨어나게 하는구나
 使人爽骨塵昏醒

85 옥으로…듯 : 《논어(論語)》〈향당(鄉黨)〉에 “공자는 병을 앓을 때 임금이 문병을 오면, 머리를 동쪽으로 향하고 조복을 몸에 걸치며 띠를 그 위에 걸쳐 놓았다.[疾, 君視之, 東首, 加朝服拖紳.]”라고 하였다.

여산엔 겨우 수백 자 폭포 드리웠는데 廬山祇垂數百尺
 오히려 맹랑한 소리로 무수한 이 속였음을 꾸짖네⁸⁶ 猶飭孟浪誣千億
 만약 이백이 이 폭포를 본다면 倘使白也看此瀑
 과거를 후회하며 처음으로 곤란을 겪을 테지 方悔當年初見阨
 아, 나는 기이한 것을 좋아하지만 재주가 너무 용렬한데 嗟余好奇才苦庸
 산신령은 맑은 새벽 열어 주었네 山靈幸許開清旭
 낮은 소리로 읊조려 보지만 십 분의 일도 그려내지 못하여 沈吟不能模十一
 술잔 들고 서성이는데 산에는 날 저물려 하는구나 把酒遲回山欲夕

86 여산(廬山)엔…꾸짖네 : 이백(李白)이 <망여산폭포(望廬山瀑布)>에서 여산 폭포를 과장하여 표현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이 시에 ‘날리는 물길은 삼천 자 높이에서 곧장 떨어지니[飛流直下三千尺]’라는 구절이 있다.

등협선루⁸⁷가

登挾仙樓歌

동북현에 있다

벽골제호 이남은 참으로 요충지로⁸⁸ 由湖以南實要衝
크고 웅장한 고을들이 높은 성벽처럼 이어져 있지 雄州鉅邑連崇墉
선비들은 손에 경전 들고 여인들은 길쌈과 바느질 士手持經女織縫
백성들은 밭에서 노래하다 밥 먹을 땀 종을 울리네⁸⁹ 民歌於田食鳴鐘
훌륭한 임금이 다스리던 때 적에게 침략을 당하였으니 至聖圖治致賊鋒
천도는 도리어 악을 따르면 흉하다는 것이 아니었지⁹⁰ 天道還非從逆凶
흉독한 불길과 재가 요임금이 봉한 땅을 메워 버렸으니⁹¹

87 협선루(挾仙樓) : 《여지도서(輿地圖書)》와 《호남읍지(湖南邑誌)》 등에 의하면, 전남 화순(和順)의 동북(同福) 객관 동쪽에 있던 누대로 동북현감 김부륜(金富倫)이 부임 후 2년이 지난 1587년(선조20)에 세웠다고 한다. 현재는 동북면 독상리에 흔적만 남아 있으나, 김부륜(金富倫), 장유(張維) 등의 시문이 읍지에 수록되어 전한다.

88 벽골제호(碧骨堤湖)…요충지로 : 호남의 유래에 대해서는《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와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등을 참고.

89 밥…울리네 : 원문의 ‘鳴鐘’은 증명정식(鍾鳴鼎食)의 준말로, 종을 울려 가족을 모아 술을 늘어놓고 음식을 먹을 정도로 부귀하고 호화로운 삶을 말한다. 《史記 卷129 貨殖列傳》 왕발(王勃)의 〈등왕각서(滕王閣序)〉에 “여염집이 땅에 가득하니, 종을 울려 술을 늘어놓고 밥을 먹는 집들이라. [閭閻撲地, 鐘鳴鼎食之家.]”라고 하였다.

90 천도는…아니었지 : 우임금이 “선을 따르면 길하고 악을 따르면 흉하니, 이는 그림자와 메아리 같습니다. [惠迪吉, 從逆凶, 惟影響.]”라고 하였다. 《書經 大禹謨》

91 흉독한…버렸으니 : 원문의 ‘堯封’은 요임금이 순(舜)에게 명하여 천하에 12주를 만들고, 12개의 큰 산에 봉토(封土)를 쌓아 제사를 지

兇灰毒焰塞堯封

우가 아니었으면 누가 뼈끔대는 물고기 신세의 우리를 구했으랴⁹²

微禹誰濟其魚喁

중흥의 신령이 조종에 의지하여

中興之靈仗祖宗

다시 소생하는 길로 들어서 나라 모습 갖췄지

入路重蘇成國容

복주 고을은 용나라 만큼 작지만

福州爲邑小如鄘

긴 강 마주하고 높은 봉우리에 기뻐다오

面帶長江依峻峯

큰형⁹³이 수령 되어 막내도 따라가니

伯氏爲宰季亦從

명승지가 흥회를 씻어낼 수 있음을 비로소 깨닫네

始覺名區能盪胸

협선루는 우뚝하고 봄기운은 짙은데

挾仙巍然春意濃

걸출하고 아름다운 모습은 변변찮고 게으른 나를 용납하는 데 맞

지 않네

傑麗非合容疏慵

푸른 처마, 흰 가로보, 붉은 들보 위 기둥

楣青桁白浮柱彤

이중으로 된 길, 층층의 누대, 겹겹의 문

道複樓層門以重

엮어서 지어 놓은 형세가 증횡으로 뻗어 나가고

經營結構勢橫縱

꿈틀꿈틀 날 듯한 들보는 긴 용이 솟아오르는 듯

飛樑蚴蚪騰脩龍

거울처럼 네모난 못에는 부용이 늘어섰는데

方塘如鏡列芙蓉

대통 끌어다 물 통하게 하니 찬 물소리 영롱하다

引筥通水寒琤琮

대나무가 외로운 소나무를 사이에 두고 가지런히 자라고

竹樹齊生間孤松

내게 한 데서 온 말이다. 본래는 중국의 강역(疆域)을 가리키는 말인데, 여기서서는 조선을 가리킨다.

92 우가…구했으랴 :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소공(昭公) 원년에 우임금의 치수(治水)를 칭송하며 “우임금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물고기 신세가 되고 말았으리.[微禹, 吾其魚乎.]”라고 하였다.

93 큰형 : 조계한(趙繼漢)을 말한다. 그는 1600년(선조33)부터 1602년까지 동북 현감을 지냈다. 《全羅道邑誌 8, 서울대규장각, 2004》

매화가 마침 피어나려 하니 벌이 날며 시끄럽구나 梅意正舒喧游蜂
등등 울리는 북소리 속에 태수는 관아 일 마치고 太守罷衙鼓鼙聲
해질 무렵 쌀 찢는 때⁹⁴ 청명한 하늘 아래 물가로 내려가네

霽色下洲斜陽春

새로 단장한 여인들은 햇빛에 빛나 화려하고 농염한데

新粧曜日華且濃

살진 고기가 있고 진한 술 담긴 금잔은 향기롭구나 肥肉大酒熏金鍾
더구나 최근엔 변방의 봉화가 그쳤으니 何況年來息邊烽

좋은 시절 진한 술 마시는 것 싫어하지 않는다오 佳辰不惡傾醇醲

칼은 모두 소가 되고 전쟁터는 농토가 되니⁹⁵ 劍盡爲牛戰爲農

겨울 뒤에 봄이 오듯 난리 뒤에는 태평한 시절이 온다네

以治踵亂如春冬

조정은 이로부터 용렬한 자를 멀리하고 廊廟從此遠闖茸

남북을 정돈하여 간악한 흉적을 없애리라 整頓南北除奸兇

밭 갈던 이윤과 낚시하던 강태공 모두 등용되리니⁹⁶ 耕伊釣呂皆登庸

현명한 군주와 신하가 만나 화목하고 안정되어서⁹⁷ 백성들이 송축

94 해질…때 : 원문은 ‘斜陽春’인데, 이것은 석양용(夕陽春)과 같은 말로 옛날 풍습에는 해질 무렵에 쌀을 찢었다고 한다.

95 칼은…되니 : 한 선제(漢宣帝) 때 발해 태수(渤海太守) 공수(龔遂)가 백성들에게 허리에 찬 칼을 팔아 소를 사게 하고 농사지으며 근검절약하도록 교화를 펼쳐서 백성 모두 부유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漢書 卷89 龔遂傳》

96 밭…등용되리니 : 이윤(伊尹)은 신야(莘野)에서 농사짓다가 탕왕(湯王)의 초빙을 받았고, 강태공(姜太公) 즉 여상(呂尙)은 위수(渭水) 반계(磻溪)에서 낚시질하다가 문왕(文王)을 만났다.

97 화목하고 안정되어서 : 원문은 ‘吁咈’인데, ‘우불도유(吁咈都兪)’의 준말로 임금과 신하가 정사에 대해 토론하면서 화목하고 안정된 모습을 찬미하는 말이다. 도(都)는 탄미하는 말[歎美之辭]이고, 유(兪)

하리 吁 呌 庶 頌 明 良 逢
누대의 연회가 끝나자 다시 지팡이 짚고 나서니 樓中宴罷又携筇
적벽에 마침 신선 소식의 발자취가 이어지는구나⁹⁸ 赤壁時繼蘇仙蹤
백성을 자식처럼 사랑하고 몸가짐을 공손히 한다면 愛民如子守身恭
잘 다스린 공은 결국 황패와 공수 같은 형님께 돌아가리⁹⁹
治效畢竟歸黃龔
태수여 태수여 잘 다스리소서 太守太守善陶鎔
즐기되 지나치지 말아서 끝까지 엄숙하고 온화하길 樂而不荒終肅雍
즐기되 지나치지 말아서 끝까지 엄숙하고 온화하길 樂而不荒終肅雍

는 응낙하는 말[應許之辭]이며, 우(吁)는 그렇지 않음을 탄식하는 말 [歎其不然之辭]이고, 불(呌)은 매우 그렇지 않다고 여기는 말[甚不然之辭]이다. 《書經集註 堯典 蔡沈註》

- 98 적벽(赤壁)에…이어지는구나 : 동북현에 적벽이라는 명승지가 있다. 《鶴峯續集 卷5 遊赤壁記》 이 지명에서 〈적벽부(赤壁賦)〉를 쓴 소식(蘇軾)을 떠올려 형인 조계한을 빗댄 것이다.
- 99 잘…돌아가리 : 황패(黃霸)와 공수는 모두 한나라 때 사람이다. 황패는 영천 태수(潁川太守), 공수는 발해 태수로 선정을 베풀었다. 《漢書 卷89 龔遂列傳, 黃霸列傳》

강태초¹⁰⁰ 항 에게 주다

贈姜太初 沆

불갑산¹⁰¹ 봉우리는 방장산의 손자로 佛甲之峯方丈孫

붉은 밧줄¹⁰² 두른 땅 진호(鎭護)하니 남해왕 숙¹⁰³의 문이라

拱鎭朱維南儵門

천지의 신령한 기운을 꼭 붙들어 새지 않게 모으고淑氣扶輿聚不洩

100 강태초(姜太初) : 강항(姜沆, 1567~1618)으로, 태초는 그의 자이다. 호는 수은(睡隱). 강희맹(姜希孟)의 5대손이고, 성혼(成渾)의 문인이다. 정유재란 때 이광정(李光庭)의 종사관으로 군량미 수송의 임무를 맡았고, 이후 고향 영광으로 내려와 김상준(金尙儻)과 함께 의병을 모았다. 영광이 함락되자 가족들과 탈출하다 포로가 되어 일본으로 압송되었다. 일본에서 요시히도[好仁], 후지와라 세이카[藤原惺窩], 아카마쓰 히로미치[赤松廣通] 등과 교류하였다. 1600년(선조33)에 풀려나 가족들과 함께 귀국하였다. 영광의 용계사(龍溪祠)와 내산서원(內山書院)에 제향되었다. 저서로 《간양록(看羊錄)》, 《수은집(睡隱集)》 등이 있다.

101 불갑산(佛甲山) : 전라남도 함평군과 영광군의 경계에 있는 산이다. 원래는 아늑한 산의 형상이 어머니와 같아서 ‘산들의 어머니’라는 뜻으로 모악산(母岳山)이라고 불렀는데, 백제 때 불교의 ‘불(佛)’자와 육십갑자의 으뜸인 ‘갑(甲)’자를 딴 불갑사가 지어지면서 산 이름도 불갑산으로 바뀌었다.

102 붉은 밧줄 : 땅을 묶는 밧줄인 지유(地維)와 남쪽을 상징하는 붉은 색이 합해진 개념인 듯하다. 한유(韓愈)의 <남산시(南山詩)>에 “붉은 밧줄이 바야흐로 해를 태운다.[朱維方燒日.]”라고 하였다.

103 남해왕 숙(儵) : 남해 임금 숙과 북해 임금 흘(忽)이 중앙 임금 혼돈(混沌)의 덕에 감화되어 그 은혜에 보답하려고 눈, 코, 입, 귀의 일곱 구멍을 뚫어 주었는데, 혼돈이 7일 만에 죽었다고 한다. 《莊子 應帝王》

위로는 노인성 ¹⁰⁴ 의 빛을 받아 삼켰지	上受老人星光吞
자손 중에 뛰어나지 않은 자 없었으니	不于芝蘭不珠玉
더러 기이한 인물들이 나와서 서로 본받았지	間出異人相馳逐
이에 성대해져서 옛날에도 비할 데 없었으니	於斯爲盛古莫侔
오성이 규수에 모인 듯한 상서로운 징조 ¹⁰⁵ 가 한나라처럼 훌륭했네	聚奎祥符皇漢休
고봉 ¹⁰⁶ 은 더욱 기이했고 제봉 ¹⁰⁷ 은 고고했으며	高峯益奇霽峯高
석천과 송천 ¹⁰⁸ 은 하서 ¹⁰⁹ 의 유파였지	石松川是河西流
용과 봉황이 신선의 땅으로 돌아가 버렸으니	龍歸鳳逝白雲鄉
내 패옥이 화려하지만 누구와 교유할까 ¹¹⁰	我佩之華誰與遊
남쪽에 인재가 없음을 천제가 슬피 여겨서	無人南國帝悲傷
다시 선생을 보내어 어울려 즐거이 노닐게 했네	更遣夫子參翱翔
말 앞의 길라잡이가 태초라는 자를 외우고	馬前行者誦太初
말 배우는 아이가 그 성이 강임을 알더라	學語小兒知姓姜

-
- 104 노인성(老人星) : 남쪽 하늘에 뜨는 별이다. 장수의 상징이라 수성(壽星)이라고도 부른다.
- 105 오성(五星)이…징조 : 규수(奎宿)는 28수(宿)의 하나로, 모습이 문(文)자와 닮아서 문운(文運)과 문장을 주관하는 별이라고 여겼다. 송 태조(宋太祖) 건덕(乾德) 5년(967)에 금(金), 목(木), 수(水), 화(火), 토(土)의 다섯 별이 문운을 관장하는 규수에 모인 일[五星聚奎]이 있었다. 《宋史 卷56 天文志》이 는 상서로운 일이 일어날 조짐이나 문운이 크게 열릴 조짐으로 여겨졌다.
- 106 고봉(高峯) : 기대승(奇大升, 1527~1572)의 호이다.
- 107 제봉(霽峯) : 고경명(高敬命, 1533~1592)의 호이다.
- 108 석천(石川)과 송천(松川) : 석천은 임억령(林億齡, 1496~1568)의 호이고, 송천은 양응정(梁應鼎, 1519~1581)의 호이다.
- 109 하서(河西) : 김인후(金麟厚, 1510~1560)의 호이다.
- 110 내…교유할까 : 한유의 〈송육흡주시서(送陸歙州詩序)〉에 “내 옷이 화려하고 내 패옥이 빛나는구나. 육군이 떠나가니, 내 누구와 노닐까.[我衣之華兮, 我佩之光. 陸君之去兮, 誰與翱翔.]”라고 하였다.

감옥에 슬픈 바람 부니 짓대 불기 그치고는 悲風北寺罷吹簾
 문 닫고 독서하며 공명의 굴레와 이별했네¹¹¹ 閉門讀書辭名鞵
 총명한 관로¹¹²도 좋은 세상 일찍 떠났으니 聰明管輅早瑞世
 뱃속에 쌓인 수많은 책,¹¹³ 어찌 신경이나 썼으랴 腹吞五車寧芥蒂
 천도와 인도 묵묵히 꿰뚫어 보며 솜씨가 서툰 포정을 비웃었지 默貫天人笑拙庖
 하루아침에 열두 마리 소를 잡으면서 오히려 칼을 버린다고¹¹⁴ 一朝十二猶善刀
 분조에서 응시하여 턱수염 뽑듯 쉽게 합격하니¹¹⁵ 天門射策摘頰髭

- 111 감옥에…이별했네 : 《시경(詩經)》〈소아(小雅) 하인사(何人斯)〉에 “형은 질나발을 불고, 동생은 짓대를 부네. [伯氏吹簾, 仲氏吹篳.]”라고 하였다. 강항의 큰형 강해(姜瀧)가 신묘년(1591)의 사화에 연루되어 화를 입자, 강항이 슬퍼하며 세상에 나가지 않고 지조를 지켰던 것을 가리킨다. 《睡隱集 附錄 承義郎守刑曹佐郎睡隱姜公行狀》
- 112 관로(管輅) : 삼국시대 위(魏)나라의 술사이다. 자는 공명(公明). 천문(天文)을 좋아하였고 《주역(周易)》과 점복(占卜)에 정통하였다. 스스로 47, 8세를 넘기지 못할 것임을 알았는데 과연 48세에 죽었다고 한다. 재주가 뛰어난 사람, 장수하지 못한 사람, 높은 벼슬을 하지 못한 사람의 전형이다.
- 113 뱃속에…책 : 원문의 ‘五車’는 오거서(五車書)를 말한다. 《장자(莊子)》〈천하(天下)〉에 “혜시의 학문은 다방면에 걸쳐 있어서, 그 책이 다섯 수레에 쌓을 정도이다. [惠施多方, 其書五車.]”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여기서의 강항이 책을 많이 읽어 학문이 깊었음을 말한다.
- 114 서툰…버린다고 : 소를 도살하는 탄(坦)이 하루아침에 열두 마리의 소를 해체해도 칼날이 무디어지지 않는 것은 결대로 하기 때문이라 하였다. 《漢書 卷48 賈誼傳》여기에서는 하루아침에 열두 마리의 소를 해체하는 솜씨도 강항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재주라는 뜻으로 읊었다.
- 115 분조(分朝)에서…합격하니 : 강항은 1593년 광해군(光海君)이 전주(全州)에 주둔하면서 시행한 정시(庭試)에 병과(丙科)로 합격하였다. 《韓國文集叢刊解題 睡隱集》 한유의 〈기최이십육립시(寄崔二十六立之)〉에 “해마다 과거 급제의 영광을 거두니, 마치 턱 밑의 수염을 뽑는 것과 같았네. [連年收科第, 若摘頰底髭.]”라고 하였다.

백 번이나 버들잎 꺾뚫은 양유기 같음을 알겠다¹¹⁶ 百穿楊葉知由基
 뛰어난 재주 지닌 손으로 만수무강을 비는 술잔 받든니 屠龍手捧萬壽觴
 화려한 옷 입은 봄 낮, 어머니 방은 향기로웠지¹¹⁷ 繡衣春晝萱堂香
 억지로 웃으며 백관들 사이에서 벼슬하였으니 強顏趨蹌百僚間
 하늘이 다스리려 하지 않았을 뿐, 인재를 얻기 어려운 것 아니었다
 네¹¹⁸ 天不欲治非才難
 현달할 길을 백안시하였으니 靑雲路在白眼中
 해진 검은담비 갖옷¹¹⁹ 입고 정처 없이 떠돌 일 근심했지 黑貂裘弊愁萍蓬
 집으로 돌아가는 것만 못하여 가난도 좋다고 여겼으니 不如還家貧亦好
 부모 봉양하고 자식 기르며 다시 화목하게¹²⁰ 지냈다네¹²¹

116 백...알겠다 : 양유기(養由基)는 전국 시대 초(楚)나라 대부로, 활숨씨가 매우 뛰어나 100보(步) 밖에서 버들잎을 쏘아 백발백중했다고 한다. 《戰國策 西周策》

117 뛰어난...향기로웠지 : 원문의 '屠龍'은 용을 잡는다는 말로, 뛰어난 재주 혹은 쓸데없는 재주를 뜻한다. 《장자》〈열어구(列禦寇)〉에 "주평만이 지리익에게 용 잡는 기술을 배웠는데, 천금의 가산을 탕진해서 3년 만에 기술을 완성했으나 그 뛰어난 솜씨를 써먹을 곳이 없었다. [朱平漫學屠龍於支離益, 單千金之家, 三年技成, 而無所用其巧.]"라고 하였다. 이 두 구는 강항이 높은 재주로 과거에 합격하여 고향을 떠나 서울로 가는 상황을 읊은 듯하다.

118 억지로...아니었다네 : 강항은 1594년에 성혼의 문인이라는 이유로 동인(東人)의 탄핵을 받아 교서관(校書館)에 분관되었다. 《韓國文集叢刊解題 睡隱集》

119 해진 검은담비 갖옷 : 소진(蘇秦)이 진왕(秦王)에게 유세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그의 검은담비 갖옷은 해지고 황금 100근은 모두 떨어진 상태였다. 《戰國策 秦策一》

120 화목하게 : 원문은 '融融'인데, '融融'과 같은 뜻이다. 춘추 시대 정(鄭)나라 장공(莊公)이 아우 공숙단(共叔段)의 반란을 평정한 뒤에 공숙단과 공모했던 어머니 강씨(姜氏)를 성영(城穎)에 유폐하고 다시는 만나지 않으려 하였다. 그러나 영고숙(穎考叔)의 충언을 듣고 땅굴을 통해 들어가 강씨를 만났는데, 이때 장공이 "땅속 길에서 그 즐거움이 무르녹네. [大隧之中, 其樂也融融.]"라고 노래하였다. 《春秋左氏傳 隱公元年》

121 집으로...지냈다네 : 강항은 1597년(선조30) 봄에 휴가를 얻어 고향 영

仰父俯子還瀨瀨

어찌 알았으랴, 부상¹²²에서 고래수염을 끌고 나와서 寧知鯨鬣掣扶桑
 70개 제나라 성¹²³처럼 우리가 궁지에 몰릴 줄 齊城七十歸蒼茫
 오묘¹²⁴의 향불은 오랑캐 난리 통에 내팽개치고 五廟香火委腥塵
 삼경¹²⁵의 백골은 가을 하늘을 지탱하는 듯했지 三京白骨撐秋旻
 호남 전체 큰 땅이 도륙되었으니 全湖大地入塵糟
 산과 바다로 달려간들 도망칠 길 없었네 投山赴海無由逃
 공은 그때 식구들을 이끌고 배 한 척에 탔는데 公時提挈載一葉
 바다의 신동(神童)은 목소리를 낮추고 파도의 신은 울부짖었지 海童掩抑陽侯泣

적의 배는 떠들썩한 소리 내며 고슴도치처럼 모여들었으나

賊艘嗷嘈集如蝟

공은 낫빛도 변하지 않은 채 죽음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네

公不變色鴻毛視

공의 집안에 닥친 화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公家之禍至于此
 천지의 귀신을 어찌 다시 의지하라 天地鬼神寧復恃
 순식간에 늙은 아버지와 생사로 나뉘었으니 斯須鶴髮隔死生
 사람의 자식으로 이때 어떤 마음이었겠는가 人子此時何許情

광으로 돌아갔다가 여름에 이광정의 종사관으로 군량을 모집하였는데, 남원이 함락되자 다시 영광으로 돌아갔다. 《韓國文集叢刊解題 睡隱集》

- 122 부상(扶桑) : 동해(東海)에 있다는 상상의 신목(神木)인데, 해가 뜰 때 이 나뭇가지를 흔들며 올라온다고 한다. 여기에서는 동쪽에 있는 왜(倭)를 가리킨다.
- 123 70개 제나라 성 : 연(燕)나라가 제(齊)나라를 침략하여 제나라 성 72개가 함락되었던 일을 말한다. 《史記 卷82 田單列傳》
- 124 오묘(五廟) : 제후가 세우는 다섯 묘(廟)로, 부(父), 조(祖), 증조(曾祖), 고조(高祖), 시조(始祖)의 묘를 말한다. 《禮記 祭法》
- 125 삼경(三京) : 서울, 개성, 평양을 말한다.

공이 세 번 물에 뛰어들었으나 적이 세 번 만류했으니 公三投水賊三止
화락한 군자는 하늘이 위로한다는 것 알았네¹²⁶ 愷悌方知所勞矣
중승의 무릎¹²⁷과 안고경의 혀¹²⁸ 같아서 中丞之膝臬卿舌
의리가 말에 드러나니 칼에 피를 묻히기 어려웠다오 義形于辭刃難血
공을 둘러싸고 늘어서 절하며 그 의리에 탄복하니 環公羅拜服公義
의로운 선비여, 의로운 선비여, 견줄 자 없는 선비로다 義士義士無雙士
결국 그 충효에 오랑캐가 감격했음을 알겠으니 終知誠孝格蠻夷
오랑캐 왕이 오랑캐들에게 말했다, “중국의 예로 대우하라¹²⁹
夷王語夷中國之
누가 강대부를 해하고 욕보이려 하는가 有誰侵陵姜大夫
감히 나를 어기는 자 있으면 내가 장차 베리라.” 敢有違吾吾且誅

126 화락한…알았네 : 《시경》〈대아(大雅) 한록(旱麓)〉에 “화락한 군자는 신이 위로하는 바이다.[豈弟君子, 神所勞矣.]”라고 하였다.

127 중승(中丞)의 무릎 : 중승은 장순(張巡)을 가리키는데, 중승의 무릎과 같았다는 것은 장순처럼 적에게 굴복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장순은 당 현종(唐玄宗) 때 안녹산(安祿山)이 반란을 일으키자 의병을 일으켜 적과 싸우다가 수양(睢陽)에서 태수 허원(許遠)과 함께 전사한 사람이다. 《新唐書 卷192 張巡許遠傳》 한유의 〈장중승전후서(張中丞傳后序)〉에 “성이 함락되자 적병이 칼날로 장순을 위협하며 항복하라고 하였으나 장순이 굽히지 않자 곧바로 끌고 나가 참수하려고 하였다.[城陷, 賊以刃脅降巡, 巡不屈, 卽牽去, 將斬之.]”라고 하였다.

128 안고경(顏杲卿)의 혀 : 안고경은 당 현종 때 사람으로, 안녹산의 난이 일어나자 군사를 일으켜 그에 대항하다 붙잡혔다. 안녹산이 그를 회유하다가 살을 베어냈는데도 그가 꾸짖고 욕하자, 끝내 혀를 잘라 죽였다고 한다.《舊唐書 卷187 顏杲卿傳》

129 중국의 예로 대우하라 : 한유의 〈원도(原道)〉에 “공자가 《춘추》를 지을 적에 제후가 이적(夷狄)의 예법을 쓰면 이적으로 폄하(貶下)하였고, 이 적이 중국의 예법으로 나아오면 중국의 예법으로 대우하였다.[孔子之作春秋也, 諸侯用夷禮則夷之, 進於中國則中國之.]”라고 하였다.

온화하면서도 삼가서 검게 물들거나 꺾이지 않았으니¹³⁰

溫如栗如不緇折

옷깃을 비추는 한나라 때 달만 부질없이 남았구나¹³¹照襟空餘漢家月

서산에서는 성주의 곡식조차 부끄러워하였으니¹³² 西山尚恥聖主粟

입은 있으되 차마 원수 오랑캐의 음식으로 배를 불리랴 有口忍飽饑夷食

다만 헛된 죽음이요, 절조 지키는 죽음 아니기 때문에 只緣徒死死非節

몸과 명예에 무익하고 죽음으로 나아갈 뿐이었지 無益身名就埋沒

공은 억지로 살려 하지 않았으나 하늘이 억지로 살렸으니

公非強活天強活

하늘은 오랑캐 중에게 권하여 왜를 벗어나는 공을 전송하게 했다고¹³³

130 검게…않았으니 : 《논어》〈양화(陽貨)〉에 “단단하다고 말하지 않겠는가, 갈아도 얇아지지 않으니. 하얗다고 말하지 않겠는가, 검게 물들여도 검어지지 않으니. [不曰堅乎, 磨而不磷; 不曰白乎, 涅而不緇.]”라고 하였다.

131 옷깃을…남았구나 : 한나라 때 흉노(匈奴)에 사신 갔다 억류된 소무(蘇武)의 일을 말하는 듯하다. 소무는 중랑장(中郎將)으로 있다가 흉노에 사신으로 가게 되었는데, 선우(單于)가 갖은 협박을 하며 신하로 삼고자 하였으나 끝내 굴하지 않았다. 결국 그는 큰 구덩이에 갇혀 눈을 먹고 가죽을 씹으며 지냈는데, 자신이 억류당한 사실을 편지로 써서 기러기의 발에 매어 한나라로 부쳤다. 그 뒤 다시 북해(北海)로 옮겨져서 양을 치며 지냈는데, 그때까지도 한나라의 부절(符節)을 그대로 잡고 있었다. 이후로도 그는 갖은 고생을 하며 총 19년 동안 흉노 땅에 억류되어 있었는데, 소제(昭帝) 때 흉노와 화친하면서 비로소 한나라로 돌아올 수 있었다. 《漢書 卷54 蘇武傳》

132 서산(西山)에서는…부끄러워하였으니 : 백이(伯夷)와 숙제(叔齊)가 멸망한 은(殷)나라에 대한 충절을 지키며 주(周)나라 무왕(武王)의 곡식을 먹지 않고 서산, 즉 수양산(首陽山)에서 굶어 죽은 일을 말한다.

133 하늘은…했다고 : 왜의 승려 경안(慶安)은 오스(伊豫) 성주 사도(佐渡)에게 강항을 풀어줄 것을 적극 권하였다. 또 왜에 있을 때 승려 후지하라 세이카, 즉 순수좌(舜首座)의 도움으로 죽음에서 몇 차례 벗어날 수 있었다. 《睡隱集 附錄 承義郎守刑曹佐郎睡隱姜公行狀》

天勸胡僧送公出

불가능한 일 별이는 곳¹³⁴에서는 흰 기러기 울더니¹³⁵ 烏頭白處白雁聲

밤에 강을 건널 때는 닭도 울었네¹³⁶ 夜渡河時鷄亦鳴

층층의 파도 이는 만 리 바다, 바람 속의 작은 배 한 척層濤萬里一葦風
누가 송나라가 멀다고 했나, 하루아침 거리도 안 되는데¹³⁷

誰謂宋遠朝未崇

황하는 과연 은하수와 닿았고¹³⁸

黃河果與銀漢接

134 불가능한…곳 : 원문은 ‘烏頭白處’인데, 전국 시대 연(燕)나라 태자 단(丹)과 관련된 고사이다. 단이 진(秦)에 볼모로 가 있을 때 진왕(秦王)에게 본국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자, 진왕이 “까마귀 머리가 세고 말 머리에 뿔이 돋으면 허락하겠다.[烏頭白, 馬生角, 乃可許耳.]”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古今事文類聚 別集 卷25 人事部》

135 흰 기러기 울더니 : 흰 기러기는 한나라 상림원(上林苑)의 흰 기러기를 말한다. 한 소제(漢昭帝)가 흉노와 화친을 맺고 사신을 보내어 소무를 돌려보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흉노는 그가 이미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한나라 사신 역시 거짓말로 왕이 상림원에서 잡은 흰 기러기 발목에 소무의 편지가 묶여 있었다고 하자, 흉노가 깜짝 놀라며 그를 돌려보냈다고 한다. 《漢書 卷54 蘇武列傳》

136 밤에…울었네 : 전국시대 제(齊)나라 맹상군(孟嘗君)의 계명구도(鷄鳴狗盜) 고사를 말한다. 맹상군이 진(秦)나라에 갔다가 갇혀서 죽을 뻔한 적이 있었다. 당시 개처럼 도둑질을 잘하는 그의 문객이 진 소왕(秦昭王)의 창고에서 호백구(狐白裘)를 훔쳐낸 뒤 소왕의 총희(寵姬)에게 바쳐서 맹상군이 풀려날 수 있었다. 맹상군은 풀려난 즉시 성명을 바꾸고 도망쳐서 밤중에 함곡관(函谷關)에 당도했으나, 닭이 울기 전이라 통과할 수 없었다. 이때 닭 울음소리를 잘 내는 문객이 닭 울음을 울자 근처 닭들이 모두 울어서 관문이 열리고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었다. 《史記 卷75 孟嘗君列傳》

137 누가…되는데 : 《시경》(위풍(衛風) 하광(河廣))에 “누가 송이 멀다고 하는가, 하루아침 거리도 못 되거늘.[誰謂宋遠, 曾不崇朝.]”이라고 하였다.

138 황하는…닿았고 : 한 무제(漢武帝) 때 장건(張騫)이 서역(西域)에 사신으로 나가서 황하(黃河)의 근원을 찾을 적에, 배를 타고 은하수로 올라가서 견우(牽牛)와 직녀(織女)를 만났다고 한다. 《天中記 卷2》

배는 지금 죽엽주 ¹³⁹ 와 같구나	舟楫如今如竹葉
흡사 인간 세상에서 선학으로 변한 듯하니 ¹⁴⁰	恰是人間化鶴仙
북해 가의 간양옹 ¹⁴¹ 에 비해 어떠한가	何如海上看羊翁
당시 무릉에서는 소나무 잣나무가 슬퍼했고 ¹⁴²	當時茂陵松柏哀
집에 돌아오자 식구들은 백발이 된 그를 보며 울부짖었지	入室號咷頭鬢皚
어찌 공의 정성은 감응이 빨라서	豈若公誠感應速
채 19년이 못 되어 고국에 돌아온 것과 같으랴 ¹⁴³	未十九年還故國
궁궐 사람들은 옛 높은 대문 안에서 무탈하니	宮中無恙舊雲門
당상관들이 어찌 귀석을 옮긴 적 있으랴	堂上何曾移几席
고향 마을 지는 해에 백발노인 그림자 드리웠는데	鄉閭落日影皤皤

- 139 죽엽주(竹葉舟) : 강남(江南) 사람 진계경(陳季卿)이 장안(長安)에 10년 동안 있으면서 고향을 몹시 그리워하였다. 이에 청룡사(靑龍寺)에서 만난 종남산(終南山)의 노옹(老翁)이 <환영도(寰瀛圖)>에 그려져 있는 위수(渭水) 위에다 대나무 잎 하나를 따서 올려놓고 물결을 일으킨 뒤 그 죽엽주를 타고 고향에 다녀오게 하였다고 한다. 《說郛 卷117上 異聞實錄》
- 140 흡사…듯하니 : 한나라 때 요동(遼東)의 정영위(丁令威)가 영허산(靈虛山)에 들어가 선술(仙術)을 배우고는 나중에 학으로 변하여 고향으로 돌아갔던 고사를 말하는 듯하다. 《搜神後記 卷1》
- 141 북해(北海) 가의 간양옹(看羊翁) : 흉노의 북해에서 숫양을 길렀던 소무를 말한다. 《한서(漢書)》<소무전(蘇武傳)>에 “흉노가 소무를 북해의 사람 없는 곳에 옮겨 두고 숫양을 기르게 하고는, 숫양이 새끼를 낳아야 돌아갈 수 있다고 하였다. [乃徙武北海無人處, 使牧羝, 羝乳, 乃得歸.]”라고 하였다.
- 142 당시…슬퍼했고 : 당나라 이상은(李商隱)의 <무릉(茂陵)>에 “누가 소무가 늙어서 귀국할 줄 알았겠는가, 무릉의 소나무 잣나무에 비가 쓸쓸히 내리네. [誰料蘇卿老歸國, 茂陵松柏雨蕭蕭.]”라고 하였다. 무릉은 한 무제의 능이다.
- 143 채…같으랴 : 소무가 흉노에 19년 동안 억류되어 있었던 일과 강함이 포로로 잡혀간 지 햇수로 4년 만에 귀국한 일을 비교하여 말한 것이다. 《漢書 卷54 蘇武列傳》<韓國文集叢刊解題 睡隱集>

지팡이 짚고 동쪽 큰 강가에서 통곡하는구나	鳩杖東臨大江哭
발걸음 가벼이 길 가던 사람, 어디에 이르렀는가	翩翩行子何所至
아버지가 말하네, “왔구나! 아, 너 아들이야.”	父曰來兮嗟汝子
아버지는 자식 등 어루만지고 아들은 부복하는데	父撫子背子俯伏
말할 때마다 눈물이 떨어져 울음소리 억누른다	涕隨言零聲抑塞
마을 사람들 담장에 모여 얼굴 가리고 울면서	墻頭掩泣會隣里
고금에 이런 일 없었다고 모두 말하네	共道古今無是事
공의 정성은 귀신이 슬퍼하고	公之誠意鬼神悲
공의 충효는 천지가 아는구나	公之忠孝天地知
공이 살아 돌아온 것, 어찌 우연이라	公之生還豈偶爾
천지와 귀신은 다시 믿을 만하구나	天地鬼神還可恃
고운 옷 ¹⁴⁴ 입고 이슬한 밤에 다시 촛불 잡으니 ¹⁴⁵	斑衣更秉夜闌燭
오늘 저녁 슬픔과 기쁨은 꿈속의 일인 듯	今夕悲歡夢中迹
누가 말했나, 난리를 겪고 온 식구 살아남아서	誰云經亂百口存
마침내 처음처럼 함께 안락을 누리다고	遂爲如初共安樂
소매 속 짧은 글을 군왕께 바치고	袖中短策獻君王
돌아와서 아버지께 드릴 약과 음식 맛보았네 ¹⁴⁶	藥物甘旨來還嘗

144 고운 옷 : 원문은 ‘斑衣’인데, 춘추 시대 초나라 은사(隱士) 노래자(老萊子)가 아버지를 기쁘게 해 드리기 위하여 입었다는 색동옷을 가리킨다. 늙은 부모를 극진히 모시는 효자를 비유할 때 쓰는 표현이다. 《初學記 卷17 引 孝子傳》

145 이슬한…잡으니 : 두보(杜甫)의 〈강촌(羌村)〉에 “밤이 무르익어 다시 촛불을 잡고서, 서로 마주하니 꿈만 같구나.[夜闌更秉燭, 相對如夢寐.]”라고 하였다. 강촌은 안녹산의 난이 일어났을 때 두보가 처자(妻子)를 피신시킨 곳인데, 그가 장안을 빠져나와 가족을 찾은 심정을 이 시에서 표현하였다.

146 소매…맛보았네 : 왜에서 풀려난 강항은 1600년(선조33) 5월 부산에 도착하여 〈적중문견록(賊中聞見錄)〉을 올렸다. 또 선조(宣祖)의

우리 집은 남쪽에 있었지만 오래 떠나 있었기에	我家于南久離索
그 얼굴은 몰랐으나 덕에 감화되었지	未識其面薰其德
능양현 ¹⁴⁷ 에서 한 번 만났는데	綾陽縣裏一見之
은하수 같은 달변, 끝이 없었다네	辯若河漢而無極
49년의 삶을 슬피 탄식할 만한데 ¹⁴⁸	四十九年足悲吒
이미 공의 이름 들었으니 저녁에 죽어도 좋다오 ¹⁴⁹	既聞公名夕死可
전부터 우환거리가 이어짐을 괴롭게 여기고	向來憂患苦相仍
서로 편지에 의지하기는 어려움을 알겠네	彼此魚雁知難憑
최근에 들으니 영남의 학교에 나가 벼슬을 맡았었다는데	近聞出司嶺南庠
도가 행해지지 않으니 배회하는 것 당연했네 ¹⁵⁰	道其不行宜徊徨
북쪽 사람은 시비를 잘못 가렸으니 ¹⁵¹	北方之人錯是非

명을 받고 서울로 가서 <예승정원계사(詣承政院啓辭)>를 올렸다. 그러나 당시 서인(西人)이 실각하여 등용되지 못하고 영광으로 돌아가 부모를 봉양하였다. 《韓國文集叢刊解題 睡隱集》

- 147 능양현(綾陽縣) : 지금 전라남도 화순(和順)에 속한 곳이다.
- 148 49년의…만한데 : 《회남자(淮南子)》<원도훈(原道訓)>에 “거백옥이 나이 오십에 49년 동안의 잘못을 깨달았다.[蘧伯玉年五十, 而知四十九年非.]”라고 하였다.
- 149 이미…좋다오 : 《논어》<이인(里仁)>에 “공자가 말하길 ‘아침에 세상에 도가 있다는 말을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고 하였다.[子曰, 朝聞道, 夕死可矣.]”라고 하였다.
- 150 최근에…당연했네 : 강항은 1602년(선조35) 대구 교수에 서용되었으나 바로 사직하고 돌아왔다. 《韓國文集叢刊解題 睡隱集》
- 151 북쪽…가렸으니 : 한유는 유주 자사(柳州刺史)로 간 뒤 그곳에서 죽어 나지(羅池)의 귀신이 된 유종원(柳宗元)을 추모하며 <유주나지묘비(柳州羅池廟碑)>를 지었는데, 거기에 “북방 사람들은 유후에 대해 시비를 논한다.[北方之人兮, 爲侯是非.]”라고 하였다. 나지는 중국의 남쪽으로 북방은 당대 중국 조정을 말하는 듯하다. 여기에서는 당론(黨論)에 치우친 당시 조정이 강항을 제대로 평가하여 알맞은 자리에

화류마가 어찌 소금 수레를 끌겠는가 ¹⁵²	驪駒肯服鹽車箱
한겨울 해질녘, 날씨는 바야흐로 추워지는데	窮陰催暮天政寒
천 리 밖 바라보니 얼음은 다리처럼 이어졌구나	極目千里冰成梁
맹렬하고 광폭한 눈바람이 멋대로 날아 뒤섞이니 ¹⁵³	饕風虐雪縱騰糶
희화는 다리가 떨리고 삼족오는 바쁘다 ¹⁵⁴	羲和股栗金烏忙
한가로이 뽕나무 자라는 십 리 안에서 ¹⁵⁵	閑閑桑柘十里間
그대의 손을 잡고 함께 하기를 기약하네 ¹⁵⁶	執子之手期相將
그렇지만 천도는 북쪽에서 움직이니	雖然天道自北行

등용하지 않았음을 비판하여 읊은 것이다.

- 152 화류마가…끌겠는가 : 《전국책(戰國策)》〈초책(楚策)〉에 “무릇 이 천리마가 짐을 끌 나이가 되어 소금 수레를 끌고 태항산을 넘게 되었다. 말굽은 늘어지고 무릎은 꺾이며 꼬리는 젖고 살갗은 터지는데, 소금은 녹아내려 땅을 적시고 흰 땀은 마구 흘러내려서 산중턱에서 끄꿍대며 수레 채를 떠받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이때 백락이 지나가다가 이것을 보고는 수레에서 내려 천리마를 어루만지며 울다가 모시옷을 벗어 덮어 주었다.[夫驪之齒至矣，服鹽車而上太行，蹄申膝折，尾湛腑潰，漉汁灑地，白汗交流，中阪遷延，負轅不能上。伯樂遭之，下車攀而哭之，解紵衣以羈之。]”라고 하였다.
- 153 맹렬하고…뒤섞이니 : 한유의 〈남산시〉에 “산 북쪽의 싸라기눈이 멋대로 날아 뒤섞인다.[陰靄縱騰糶。]”라고 하였다.
- 154 희화(羲和)는…바쁘다 : 희화와 삼족오[金烏]는 모두 태양을 가리킨다.
- 155 한가로이…안에서 : 벼슬을 버리고 전원 생활을 즐기며 돌아가 은거하는 생활을 ‘경십무전(耕十畝田)’이라고 한다. 《장자(莊子)》〈양왕(讓王)〉에서 안회(顏回)가 “성곽 안에 있는 10무의 밭에 뽕나무와 삼을 심어서 비단옷과 삼베옷을 충분히 지을 수 있다.[郭內之田十畝，足以爲絲麻。]”라고 하였다.
- 156 그대의…기약하네 : 《시경》〈패풍(邶風) 격고(擊鼓)〉에 “그대의 손을 잡고, 그대와 백년해로하자 하였지.[執子之手，與子偕老。]”라고 하였다.

사람들은 말하네, 남쪽에 사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¹⁵⁷	人言未宜居南疆
사람들의 헛소문은 호랑이도 만들 수 있으니 ¹⁵⁸	人之訛言可成虎
선생께 나아가 진퇴를 묻고 싶네	願就夫子問行藏
북쪽에는 곰이 있고 남쪽에는 용이 있는데	北有熊兮南有龍
용은 두려워할 만하고 곰은 어찌 감당하라	龍可畏兮熊焉當
선생은 내가 스승 삼을 분임을 분명히 알겠는데	信知夫子我所師
선생은 말씀하지 않으니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夫子不言吾何之
거친 글 다 짓자 산 위의 해가 검어졌는데	荒詞裁罷山日黑
문을 나서 떠나려 하지만 남북을 잊었다네	出門欲往忘南北

157 그렇지만…않다고 : 강항이 북쪽의 조정을 떠나 남쪽의 고향 영광에 머무는 것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뜻이다.

158 사람들의…있으니 : 터무니없는 헛소문도 계속 반복되면 사실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말로, 삼인성호(三人成虎)의 고사를 가리킨다. 전국시대 위(魏)나라 방충(龐蔥)이 태자와 함께 조(趙)나라邯鄲(邯鄲)에 인질로 가게 되었다. 이때 그가 위왕(魏王)에게 “지금 어떤 한 사람이 저자에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今一人言市有虎, 王信之乎?]”라고 묻자, 왕이 “믿지 않겠다.[否.]”라고 하였다. 다시 “두 사람이 저자에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二人言市有虎, 王信之乎?]”라고 묻자, 왕이 “과인은 의심할 것이다.[寡人疑之矣.]”라고 하였다. 다시 “세 사람이 저자에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三人言市有虎, 王信之乎?]”라고 묻자, 왕이 “과인은 믿겠다.[寡人信之矣.]”라고 하였다. 《戰國策 魏策二》

해남에 가는 김형헌을 보내며 진남¹⁵⁹

送金亨獻之海南 振南

해남은 남으로 바다와 접한다고 내 들었으니	吾聞海南南際海
깊은 바다는 바닥이 없어 땅이 신지 못 하지	海深無底地不載
푸른 고래 흰 봉새는 등에 하늘을 지고서	靑鯨白鵬背負天
높고 긴 소리를 내며 뛰어올라 산꼭대기에 닿을 듯	叫嘯踊躍連山巔
조개 소라 대합 꼬막 등 남쪽 음식 풍족하고	蚌螺蛤蚶足南烹
산호 보주는 푸른 빛 번득이네	珊瑚珠碧光靑熒
집집마다 굴 유자 나무가 매화 떨기 옆에 있고	家家橘柚傍梅叢
왕대는 높이 솟아 맑은 바람 항상 일어나네	簷簷竦尋常淸風
땅이 신령한 기운 지녀 사람이 절로 걸출하니 ¹⁶⁰	地擅其靈人自傑
왕왕 탁월한 호걸을 낳았다네	往往倜儻生豪傑

159 진남(振南) : 백광훈(白光勳)의 아들 백진남(白振南, 1564~1618)이다. 서예가이자 시인으로, 본관은 해미(海美), 자는 선명(善鳴), 호는 송호(松湖)이다. 1606년(선조39) 명나라 사신 주지번(朱之蕃)이 왔을 때 관반(館伴) 유근(柳根)의 천거로 백의종사(白衣從事)하였다. 문장과 필법으로 유명한 지번이 진남의 묵적(墨蹟)을 절찬하며 소중히 간직하였으며, 지번도 ‘옥봉서실(玉峯書室)’·‘옥동연하(玉洞煙霞)’ 8자와 무이구곡시(武夷九曲詩)를 써주었다. 저서로는 《송호유고(松湖遺稿)》 1권이 있다.

160 땅이... 걸출하니 : 당(唐)나라 왕발(王勃)의 〈등왕각서(滕王閣序)〉에 “사람이 걸출함은 땅이 신령해서이니 서유가 진번의 걸상을 내려놓게 하였다.[人傑地靈, 徐孺下陳蕃之榻.]”라고 하였다. 《古文眞寶 後集卷2 滕王閣序》

청련거사 ¹⁶¹ 와 백옥봉 ¹⁶²	靑蓮居士白玉峯
백 리 안에서 서로 추종하였네	百里之內相追從
지금 열 집 ¹⁶³ 에도 사람이 없는 게 아니니	于今十室不無人
현달한 ¹⁶⁴ 조정 신하들이 많다네	垂朱拖紫多朝臣
우리 집안 남쪽 땅에서 지낸 지 이제 몇 년이던가	我家于南今幾年
열흘 밤에 아홉 번 이 산천을 꿈꾸네	十夜九夢茲山川
문노니 그대는 무슨 일로 이곳으로 가는가	問君何事向此中
문득 명승지에서 먼저 채찍을 침을 ¹⁶⁵ 부러워하네	却羨名區先着鞭

161 청련거사(靑蓮居士) : 이후백(李後白, 1520~1578)의 호이다. 그의 본관은 연안(延安)이나 영암 출신이며, 자는 계진(季眞)이다. 인성왕후(仁聖王后)가 죽자 삼년상을 주장하여 시행하였다. 청백리에 녹선되었고, 종계변무(宗系辨誣)의 공으로 1590년(선조23) 광국 공신(光國功臣) 2등으로 연원군(延原君)에 추봉되었다. 문장이 뛰어나고 덕망이 높아 사림의 추앙을 받았다 한다. 저서로 《청련집(靑蓮集)》이 있다.

162 백옥봉(白玉峯) : 옥봉은 백광훈(白光勳, 1537~1582)의 호이다. 본관은 해미(海美), 자는 창경(彰卿)이다. 1564년(명종19)에 진사가 되었으나 현실에 나설 뜻을 버리고 강호에서 자적하였다. 당시(唐詩)의 시풍을 따랐으므로, 최경창(崔慶昌), 이달(李達)과 함께 삼당시인(三唐詩人)이라고 칭해진다. 또 이산해(李山海), 최립(崔嶺) 등과 더불어 조선 팔문장(朝鮮八文章)으로 꼽힌다. 그는 또한 왕희지의 서체를 잘 썼다.

163 열 집 : 작은 고을을 말한다. 《논어》〈공야장(公冶長)〉에 나오는 말이다. 여기에서 공자(孔子)가 “열 가구쯤 되는 작은 고을에도 반드시 나처럼 충신한 사람은 있겠지만, 나처럼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十室之邑, 必有忠信如丘者焉, 不如丘之好學也.]”라고 말하였다.

164 현달한 : 이 구절 원문의 ‘수주타자(垂朱拖紫)’는 붉은색 인끈이나 자주색 인끈을 찬 고관(高官)을 의미한다.

165 먼저 채찍을 침을 : 어떤 일을 먼저 착수함을 말한다. 진(晉)의 유곤(劉琨)이 친구인 조적(祖逖)이 임용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가 먼저 선

알겠네 그대 학문에 힘쓰고 농사에 힘쓰지 않아 知君力學不力穡
 학문은 넉넉한 듯하나 밥이 부족하다는 것을 學若有餘飯不足
 늙은 모친 수척한 아내는 근심이 얼굴에 가득하고 老母瘦妻愁滿面
 많은 자식들 배고프다고 어지럽게 소리쳤으리¹⁶⁶ 衆雛呼飢極鵝鴈
 전하여 들은 건 이 지역에 크게 흉년이 들어 傳聞此地歲大登
 먹을 것이 흙처럼 싸고 술은 민수처럼 많다는 것¹⁶⁷ 食賤如土酒如澗
 지금 그대의 행차 어찌 그만둘 수 있으랴 今君之行豈得已
 어머니께 가는 일 고하고 바야흐로 쌀을 짊어졌네 告歸北堂行負米
 외양간 소¹⁶⁸ 두 마리를 끌어내니 牽出廄中兩觶觶
 당주¹⁶⁹ 저자의 곡식을 사오기 위함일세 爲買棠州市中粟
 그제야 노모가 웃음 지으시니 從茲便解老親顏
 이 행차 고생스러워도 어찌 빨리 다녀오지 않으리 辛苦此行寧不速
 이 행차 이 행차 슬프고도 즐거워라 此行此行悲且樂
 가서 좃고자 하나 어찌 좃을 수 있겠는가 欲往從之安可得

-
- 편을 쳤구나.'라고 탄식하였다는 고사에서 온 말이다. 《晉書 劉琨傳》
- 166 어지럽게 소리쳤으리 : 이 구절 원문의 '아안(鵝鴈)'은 거위나 기러기처럼 어지럽고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이다.
- 167 술은…것 : 민수(澗水)는 하남성(河南省)에 있는 강 이름이다. 춘추시대 제후(齊侯)가 연회를 베풀고서 “술은 민수처럼 많고 고기는 산처럼 쌓였다.[有酒如澗, 有肉如陵.]”라고 한 말을 인용한 것이다. 《春秋左氏傳 昭公 20年》
- 168 소 : 원문의 '곡속(觶觶)'은 소를 말한다. 전국시대 제(齊)나라 선왕(宣王)이 새로 주조한 종에 소의 피를 칠하기 위해 소를 끌고 가는 자를 보고 말하기를, “농아주어라. 나는 그놈이 벌벌 떨면서 죄 없이 죽을 곳에 나아가는 것 같은 모습을 차마 보지 못하겠노라.[舍之, 吾不忍其觶觶, 若無罪而就死地.]”라고 했던 데서 온 말이다. 《孟子 梁惠王上》
- 169 당주(棠州) : 당성(棠城)을 말한다. 당성은 전남 해남(海南)의 옛 지명이다.

병이 많아진 뒤로부터 곧 노쇠해졌으니	自從多病便衰朽
약물과 안식 지팡이에 오직 의존할 뿐	藥物几杖唯相須
때는 십이월이라 바람이 맹렬하고	時當臘月風色緊
겹쳐진 얼음과 쌓인 눈이 서울 거리에 엉겨 있네	層冰積雪凝天衢
애써 한 잔 술로 빈궁 속의 이별을 위로하고	強將一杯慰貧別
이별에 임해 은근하게 한 말씀 드리네	臨別殷勤贈一說
백공은 잘 울어 ¹⁷⁰ 집안의 명성을 떨쳤는데	白公善鳴有家聲
나는 얼굴을 모르고 이름만 들었다네	我不識面聞其名
관노의 자획이 부친과 비슷하여 ¹⁷¹	官奴字畫逼家尊
궤짝 담장 벽에는 용과 뱀 ¹⁷² 이 서렸다지	篋笥墻壁龍蛇蟠
어지럽게 비바람 치는 듯한 글씨 한 폭 청하고	爲乞一幅風雨亂
아울러 감굴 ¹⁷³ 열 알을 청해서 얻어 오시게	兼借十枚黃虬卵

170 백공(白公)은 잘 울어 : 백공은 백광훈(白光勳)을 가리킨다. 잘 운다는 것은 한유(韓愈)가 <송맹동야서(送孟東野序)>에서 맹교(孟郊)를 선명자(善鳴者)에 비유한 데서 온 말로, 시문(詩文)으로 세상에 명성을 드날리는 것을 의미한다.

171 관노(官奴)의...비슷하여 : 관노는 진(晉) 왕헌지(王獻之)의 소자(小字)이다. 부친 왕희지가 일찍이 <악의론(樂毅論)> 한 편을 써서 그에게 주어 서법(書法)을 익히도록 하였는데 그 글 끝에 '서부관노(書付官奴)'라는 말이 있었다. 관노는 후에 자첩(字帖)을 가리키는 말로도 흔히 사용한다. 여기서는 백광훈의 아들 백진남을 가리킨다. 백진남이 글씨를 잘 써서 서예로도 이름났던 아버지 백광훈과 필체가 비슷하였다는 것이다.

172 용과 뱀[龍蛇] : 날아오르는 듯하고 막힘이 없이 시원스러운 초서(草書)의 필체를 비유한다.

173 감굴 : 원문의 '규란(虬卵)'은 원래 감을 비유하는 것이다. 한유(韓愈)의 <청룡사에 노닐며 최대 보궐에게 주다[遊靑龍寺贈崔大補闕]>에 밝은 규룡의 알로 붉은 홍시를 비유한 내용이 있다. 여기서는 누런 규룡의 알이라고 하였으므로 해남 특산물인 감굴을 가리키는 듯하다.

내 집 벽을 빛나게 하고 내 이를 향기롭게 하리니 潤我屋壁香我齒
정중히 당부컨대 시선에게 부탁하는 일 저버리지 마시게 珍重莫負詩仙寄

나무 심는 노래

種樹行

친구 ¹⁷⁴ 에게서 가장 낮은 땅을 얻으니	高交得地最卑下
물줄기는 모두 탁하고 산은 다 험벗었네	有流皆濁山皆赭
봄에 꽃구경 못 하니 원래 풀 더미뿐이고	春無花事自蓬蒿
기울어가는 집은 적막한 채 띠 풀 몇 다발뿐일세	倚巷蕭條茅數把
울려 중 고선이라 ¹⁷⁵ 산에서 구름이 나오고	律中姑洗山出雲
땅속 양분이 양기에 일어나며 ¹⁷⁶ 아지랑이 불어오네	土膏發氣吹野馬
나는 동군이 무안할까 염려하여	我念東君少顏色
종에게 농사 권하듯 나무 심기에 힘쓰게 했네	課奴種樹如勸稼
복숭아나무는 꽃도 붉고 열매도 먹을 만하며	桃能花紅實可食
오얏 살구 대추 배도 다 그에 버금가네	李杏棗梨俱其亞
붉은 앵두 백 번 옮겨도 오히려 골풀처럼 무성하고	朱櫻百遷猶鬱堯
버드나무는 또 자라기 쉽고 죽기 어려운 것일세	柳又易生難死者

174 친구 : 원문의 ‘고교(高交)’는 글자대로 해석하면 고상한 친구라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어휘가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고교(故交)’의 오기일 수도 있을 듯하다.

175 울려 중 고선(姑洗)이라 : 이때가 3월이라는 뜻이다. 고대 중국에서 절후(節候)를 살필 때는 12울관을 이용한다. 즉 갈대 속의 얇은 막을 태운 재를 황중(黃鍾 11월), 태주(大簇 1월), 고선(姑洗 3월), 유빈(蕤賓 5월), 이칙(夷則 7월), 무역(無射 9월), 대려(大呂 12월), 협중(夾鍾 2월), 중려(仲呂 4월), 임중(林鍾 6월), 남려(南呂 8월), 응중(應鍾 10월)의 열두 울관에 넣어 두면 각 절후에 맞춰 재가 움직인다고 한다.

176 땅속... 일어나며 : 원문의 ‘토고(土膏)’는 식물 성장에 필요한 흙 속의 양분을 가리킨다. 《국어(國語)》〈주어 상(周語上)〉에 “양기가 모두 올라오자 땅속 양분이 들썩인다.[陽氣俱蒸, 土膏其動.]”라고 하였다.

나무로 땅을 가릴 것이 아니라 쉬 얻을 나무 구하면	根非擇地求易得
날마다 집을 빙 둘러 심는 일이 어찌 어려우리	日日何難栽繞舍
꽃피고 열매 익는 일 안 되는 게 없고	花開果熟無不可
새 모여들고 꾀꼬리는 내려앉아 한가하리	鳥集鶯坐應閒暇
이제부터 나는 봄바람을 등지지 않으리니	從今吾不負春風
나를 위해 반드시 동군에게 말해주게	爲吾須向東君謝

쥐가 달걀을 훔치다

鼠偷卵

암탉은 둥지에 엎드려 있고 둥지는 화에 있는데	雌鷄伏巢巢在埒
닭이 일어나면서 알 떨어져 달걀이 둥지에 남았네	鷄起卵墮團在棲
큰 쥐가 미리 뚫은 닭장 모퉁이로 들어오니	碩鼠豫穿屋角來
작은 쥐 열 마리도 그 구멍으로 엿보네	小鼠十輩從穿眊
둥지에 뛰어들어 달걀을 돌며 훔쳐 가려 하지만	投巢繞卵欲竊取
입이 있어도 물기 어렵고 끌어당길 손도 없네	有口難含無手提
흔들어도 더욱 미끄럽고 쥐려 해도 어쩔 수 없더니	搖之轉滑攫無那
고요히 소리 내지 않고 몰래 이마를 맞대네	密若無聲潛合題
잠시 후 늙은 쥐가 달걀을 안고 눕더니	俄然老鼠抱卵臥
네 발로 엇갈려 모아 끌어당기듯이 하네	四足互拱如攀携
무리들이 그 쥐 꼬리를 물고 둥지 밖으로 떨어져	群含其尾落巢外
모두 당기고 함께 밀어 쥐구멍으로 돌아가려 했네	遍曳共挽將歸棲
날아서 내달려온 고니 ¹⁷⁷ 는 어디서 왔는가	飛奔白牯何所自
섬참새가 일찍부터 길가 사마귀를 살핀 격이네 ¹⁷⁸	黃雀早侯螳螂蹊

177 고니 : 원문의 ‘곡(牯)’은 ‘곡(鶻)’의 오자로 보인다. 이에 따라 원문을 수정하여 번역하였다.

178 섬참새가…격이네 : 작은 이익을 탐하여 정신을 쏟느라 더 큰 화가 자신을 망치는 줄을 모른다는 의미이다. 《한시의전(韓詩外傳)》에 “사마귀가 매미를 잡아먹으려고 노려보느라 뒤에서 섬참새가 머리를 들고 자신을 쪼려는 줄을 모르고, 섬참새는 사마귀를 쪼아 먹을 욕심에 나무 아래서 꼬마 아이가 새총을 자신에게 겨누는 줄을 모른다. [螳螂方欲食蟬，而不知黃雀在後，舉其頸欲啄而食之也。黃雀方欲食螳螂，不知童挾彈丸在下.]”라고 하였다. 여기에서는 쥐들이 달걀을 훔치는 데 힘을 쏟느라 고니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뜻이다.

마침내 쥐와 달걀을 포획하여 함께 실컷 먹으니	終擒鼠與卵俱飫
못 쥐들은 쥐구멍에서 부질없이 슬피 우네	群鼠在穴空悲啼
아아 교묘한 꾀를 따르다 위태로워지고 화조차 불렀으니	噫吁嘻隨謀巧危禍且速
삼가 달걀을 껴안지 마라 아 쥐들이여	慎無抱卵嗟鼠兮

송군수¹⁷⁹ 희조에게 개를 청하며

乞狗于宋君受 熙祚

유수 ¹⁸⁰ 의 방향 나라의 서북쪽으로부터	方之西戌國西北
임금께서 자태가 빛나는 천구 ¹⁸¹ 를 받으셨네	上受天狗精光赫
민가에 흩어 사냥개를 번식시키니	散向人家種獫狢
용맹함이 평범한 가축과는 본래 다르다네	狡猛從來異凡畜
한로 ¹⁸² 가 어찌 감히 그 민첩함에 견주리오	韓盧何敢較其捷
송공이 이를 얻어 송작 ¹⁸³ 처럼 여겼네	宋公得之如宋鵠
끌고 올 때 당기지 않아 순순히 따르는 천성을 깨닫노니	牽來不掣覺天馴

179 송군수(宋君受) : 인조 때의 문신 송희조(宋熙祚, 1592~1638)로 군수(君受)는 그의 자이다. 본관은 은진(恩津)으로 덕산(德山) 현감, 첨정(僉正)을 역임하였다.

180 유수(酉戌) : 12방위에서 유(酉)는 서쪽, 수(戌)는 서북쪽을 가리킨다.

181 천구(天狗) : 전설에 등장하는 짐승 이름이다. 음산에 있는 동물로 모습과 살쾡이 같고 머리가 흰데 흉한 일을 막는다고 한다.

182 한로(韓盧) : 전국 시대 한(韓)나라에서 나던 명견(名犬)이다. 《전국책(戰國策)》〈진책(秦策)〉에 “진나라의 용맹한 군졸과 수많은 수레며 기마로써 제후들을 당해 내기란 마치 한로를 몰아서 질뚝발이 토끼를 쫓기와 마찬가지로이다.[以秦卒之勇, 車騎之多, 以當諸侯, 譬若馳韓盧而逐蹇兔也.]”라고 하였다.

183 송작(宋鵠) : 춘추 시대 송(宋)나라에 있던 양견(良犬)의 이름이다. 한유(韓愈)의 〈모영전(毛穎傳)〉에, “동곽(東郭)에 사는 토끼인 준(筮)이 날래고 뿔박질을 잘하여 한로(韓盧)라는 사냥개와 능력을 다투었는데, 한로가 준을 따르지 못하였다. 그러자 한로가 화가 나서 송작(宋鵠)이란 개와 공모하여 준을 죽였다.”라고 하였다.

마치 자신을 잃어버린 듯¹⁸⁴ 꼬리를 흔들며 먹네 若亡其一搖尾食
 몸은 강후¹⁸⁵와 같고 뼈는 쇠와 같으며 體如狢猴骨如鐵
 주둥이가 길고 뺨이 깊은데 이빨은 창을 꽂은 듯 喙長頰深牙插戟
 삼살개도 원숭이도 아니며 또 사나운 개도 아닌데 非狢非猶又非獒
 잘 깨무니 어찌 중국 개가 필요하라 善噬何須狗中國
 서리 내린 교외 눈 덮인 봉우리에서 번개처럼 사라지고 霜郊雪嶽失飛電
 높이 나는 새 깊은 산 짐승 앞 자신을 아끼지 않네 高羽深毛不自惜
 사나운 어금니와 마주치고 아가리와 부딪쳐도 편안히 여기니 逢牙觸吻視如歸
 굴속 호랑이 움 속 곰도 곤궁해져 물리나지 穴虎巢熊窮辟易
 털을 날리고 피를 뿌려¹⁸⁶ 무성한 벌판을 적시니 風毛雨血洒平蕪
 사냥하던 어른과 아이 바야흐로 고기를 가리네 撩叟虞童方擇肉
 동서로 분주했어도 해는 아직 기울지 않았는데 倏忽東西日未斜
 노기를 억제하고 힘 남은 다리 굽혀 천천히 돌아오네 拗怒歸來踠餘足
 공이 높아 솔에 삶기는 걱정¹⁸⁷을 길이 안았고 功高長抱兔盡憂

184 마치…듯 : 원문의 ‘약망기일(若亡其一)’은 마음이 고요하여 자기를 잃어버린 듯하다는 의미이다. 《莊子 徐無鬼》

185 강후(狢猴) : 강(狢)은 원숭이와 닮은 짐승이고 후(猴)는 원숭이이다.

186 털을…뿌려 : 원문의 ‘풍모우혈(風毛雨血)’은 《문선(文選)》 반고(班固)의 〈서도부(西都賦)〉에 나오는 말로 많은 날짐승과 길짐승을 잡는다는 뜻이다.

187 솔에 삶기는 걱정 : 《사기(史記)》〈월왕구천세가(越王勾踐世家)〉에 월(越)나라 구천(勾踐)이 오(吳)나라와 다른 제후들을 평정하고 패왕(霸王)으로 칭해지자, 범려(范蠡)가 월나라를 떠나 문종(文種)에게 편지를 써서 말하기를, “하늘을 나는 새가 다 잡히면 좋은 활은 거두어지고, 교활한 토끼가 모두 잡히면 사냥개는 삶아지는 법이오. [飛鳥盡, 良弓藏, 狡兔死, 走狗烹.]”라고 하였다.

누차 때때로 고향 그리워하는 심정¹⁸⁸으로 짚어대네 累累時鳴懷土臆
 어찌 소륙¹⁸⁹에게 편지¹⁹⁰를 부치지 않으랴 寧將織縫寄小陸
 상채 동문을 나와 토끼 쫓는 일¹⁹¹로 부끄러워한다네 恥出上蔡東門逐
 내가 관찰한 개가 많은데 老夫相狗蓋多矣
 민첩하고 씩씩하며 재능 있고 똑똑한 건 이 개를 대적할 게 없네 捷武才良無此敵
 일생동안 한 마리 얻기도 오히려 어려운데 一世一得尙云難
 그대는 누구길래 대여섯 마리를 얻었는가 君是何人得五六
 우리 집 누렁이 두 마리 매우 노둔하니 吾家兩黃甚鶩庸
 쾅쾅대며 싸우려는 기질이 고양이 야성만도 못하네 鬪骨豨然愧狸德
 천년 무덤 속 세 갈래 굴¹⁹²에서 千年冢裏三窟中
 토끼가 천천히 가건 펄쩍 뛰건¹⁹³ 내버려 둔다네 任他爰爰與翟翟

188 고향 그리워하는 심정 : 원문의 ‘회토(懷土)’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을 의미한다. 왕찬(王粲)의 <등루부(登樓賦)>에 의하면 “인정은 다 같이 고향을 그리워함이며, 어찌 궁달을 인하여 마음을 달리하랴.[人情同于懷土兮, 豈窮達而異心.]”라고 하였다.

189 소륙(小陸) : 진(晉)나라 육기(陸機)는 그 아우 육운(陸雲)과 함께 문명(文名)을 떨쳤는데, 아우 육운을 소륙이라 불렀다. 후대에는 글 잘 쓰는 이를 소륙이라 하였다. 여기에서는 송희조(宋熙祚)를 가리킨다.

190 편지 : 원문은 ‘관(織)’으로 되어 있으나 문맥에 의거하여 ‘관(織)’으로 고쳤다.

191 상채(上蔡)…일 : 진(秦)나라 때 승상 이사(李斯)가 무함으로 사형을 당하기 전에 자기 아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다시 누렁이를 끌고 함께 상채의 동문을 나가서 약삭빠른 토끼를 쫓으려고 한들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吾欲與若復牽黃犬, 俱出上蔡東門, 逐狡兔, 豈可得乎?]”라고 탄식하였다. 《史記 卷87 李斯列傳》

192 세 갈래 굴 : 원문의 ‘삼굴(三窟)’은 ‘교토삼굴(狡兔三窟)’의 준말로, 교활한 토끼는 퇴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땅속에 세 개의 굴을 미리 뚫어 놓는다고 한다. 《戰國策 齊策四 馮諼客孟嘗君》

193 펄쩍 뛰건 : 원문의 ‘적적(翟翟)’은 ‘적적(趨趨)’의 오기로 보인다. 이

그대 한두 마리 끌어다 보내줘야 하니	須君牽送一兩頭
거친 들판에서 신속히 부려 짐승들 실컷 찾아내리	快嗾荒郊恣搜剔
산골 주방의 음식들을 풍부하게 할 뿐 아니라	不獨山廚潤鼎俎
마을 사람들 길이 요언에 현혹되지 않게 하리	永使村隣解妖惑
천금 사백 필의 말이라도 서로 보낼 만한 사이니	千金百駟可相資
측간 밑 모질고 교활한 개 ¹⁹⁴ 를 아끼지 말라	廁下癯偷休吝嗇

에 따라 수정하여 번역하였다. 《시경》〈소남(召南) 초충(草蟲)〉에 “찌르르 찌르르 우는 풀벌레며, 팔짝팔짝 뛰는 메뚜기рода.[嘒嘒草蟲, 趯趯阜螽.]”라고 하였다.

- 194 측간…개 : 진(秦)나라 승상 이사(李斯)가 젊어서 상채(上蔡)의 소리(小吏)로 있을 때, 관청 측간의 쥐들은 사람이나 개를 무서워하고, 창고의 쥐들은 곡식을 양껏 먹으면서 사람이나 개를 안중에 두지 않는 것을 보았다. 이에 이사는 사람도 이런 쥐처럼 처한 환경에 지배를 받음을 깨닫고 순경(荀卿)을 찾아가 제왕의 술법을 배웠다고 한다. 여기에서는 이사의 고사에서 측간의 쥐를 위협하는 개를 끌어와 송희조가 소유한 사나운 개를 가리킨 것이다.

사문도¹⁹⁵에서 마사군¹⁹⁶을 그리며

沙門島憶馬使君

땅이 끝난 북녘 불모지 큰 바다 용솟음치는 곳 地窮窮髮溟洋渾
 흑현¹⁹⁷은 혀를 빼문 채 아가리를 벌리고 걸터앉았네 黑贊蚰蚩呀呀蹲
 사문도를 구분하자면 북쪽의 황량한 땅이니 沙門界別是有北
 해와 달이 비치지 않아 천지가 없는 듯하네 不照日月無乾坤
 세 눈 아홉 머리의 괴수는 머리털 어지러운데 參目九首髮髯囊
 내달려 사람을 쫓으며 혀를 뒤집네 駮駮逐人舌齧反
 가시덤불이 어둡고 독한 기운이 모인 곳인데다가 荊蕪黧昧氛瘴集
 속이며 제멋대로 날뛰는 야차가 노니는 곳이라네 夜叉譎狂之所園
 지극히 흉악한 무리들은 막아야 할 무리니 兇窮惡極乃可禦
 함께 유배시킨 일이 순 임금 때 처음 시작되었네¹⁹⁸ 共流帝世初開源

195 사문도(沙門島) : 중국 산둥성(山東省) 봉래현(蓬萊縣) 서북쪽 바다 속에 있는 섬으로, 송나라와 원나라 때에 죄수들을 유배 보내는 대표적인 장소였다. 《송사(宋史)》 권199 <형법지 상(刑法志上)>에 “사죄(死罪)를 짓고서 감형을 받은 자는 대부분 등주(登州) 사문도와 통주(通州)의 섬으로 보냈다.”라는 말이 나온다.

196 마사군(馬使君) : 북송(北宋) 대신 마묵(馬默, 1020~1100)을 가리킨다. 그는 여러 지역의 지방관으로 파견되어 치적을 쌓았다. 특히 등주(登州)에 있을 때는 사문도에서 식량이 부족하여 유배 온 죄수들을 물에 빠뜨려 죽이는 일이 많았는데 법을 새로 정하여 죄수들을 많이 살렸다. 이로 인해 등주에서 어진 정사를 폄다는 명성이 높았다.

197 흑현(黑贊) : 힘이 세고 사나운 짐승의 이름으로 중국 서해(西海)에서 난다. 모습은 개와 비슷한데 배고프면 사람에게 복종하고 배가 부르면 모르는 체 한다고 한다.

198 함께…시작되었네 : 순 임금이 네 악인(惡人)인 공공(共工), 삼묘(三苗), 환도(驩兜), 곤(鯀)을 유배시킨 일을 말한다. 《서경》 <순전(舜典

위태로운 일 쫓거나 작은 일이라도 위배하면 날마다 몰아 잡았으니
 趨危背微日驅攫
 처음 도착한 이래 언제 눈물이 말랐던가
 下車何曾乾淚痕
 간장¹⁹⁹이 어찌 봄 넝쿨²⁰⁰에 막히라마는
 干將豈向春蔓澹
 여기 던져 놓음은 이들에게 살리는 은혜 보임일세
 投界示此生生恩
 손가락 깨물며 후회하여 옮겨갈 뜻 싹트는 듯하니
 咋指如萌悔遷端
 그물을 풀어²⁰¹ 얹어놓은 동이를 열어주어야 하리²⁰²
 解網尙宜開覆盆
 어찌하여 사람 수가 차면 한 사람을 뽑아
 胡爲滿額拔其一
 차례로 바다에 던져 남는 사람이 없게 하였나²⁰³
 次第投海無餘存
 새로 온 이 가두고 옛 사람 익사시키는 일 이어져 습속이 되니
 幽新溺舊俗仍習
 죄가 있고 없음을 어찌 논할 수 있으랴
 罪有且無誰當論
 시신의 뼈들이 섞여 부딪히며 부서지니
 骨骸觸體盪汨碎
 교룡과 물고기 자라들은 고기에 굶주렸다네
 肉餒蛟龍魚鼈龜

)에 “공공을 유주(幽州)에 유배하고, 환도를 숭산(崇山)에 안치하고, 삼묘를 삼위(三危)로 몰아내고, 곤을 우산(羽山)에 가두어 네 사람을 죄주니, 천하가 모두 복종하였다.”라고 하였다.

- 199 간장(干將) : 춘추 시대 오(吳)나라의 간장(干將)과 막야(莫邪) 부부가 칼을 잘 만들었는데 오왕(吳王) 합려(闔閭)를 위하여 음양(陰陽)의 검(劍)을 만들었다. 이에 양검(陽劍)을 간장검(干將劍)이라 하고 음검(陰劍)을 막야검(莫邪劍)이라 하였는데 양검을 감추고 음검을 오왕에게 바쳤다.
- 200 봄 넝쿨 : 이는 죄인들의 연약한 신체를 비유하는 말이다.
- 201 그물을 풀어 : 원문의 ‘해망(解網)’은 그물을 풀어 놓아준다는 뜻으로 너그러이 용서하다, 어진 덕을 베푸는 뜻이다.
- 202 얹어놓은…하리 : 얹어놓은 동이 속처럼 어두운 세상에서 밝은 세상으로 내보내야 한다는 말이다.
- 203 어찌하여…하였나 : 섬에 갇힌 죄수 인원을 항상 일정한 수로 유지하였다는 말이다.

양후 ²⁰⁴ 는 움츠려들고 땅의 신도 마찬가지로	陽侯瑟縮地祇同
산하가 슬퍼하며 억울한 혼을 거두었네	山哀浦思收煩冤
위로 대궐에 알리어 웅얼웅얼 말하니	上通九鑰語嗚咿
황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깃발 ²⁰⁵ 을 치켜드셨네	帝頷大宅洪頤掀
현능한 태수 ²⁰⁶ 에 관심을 보이시니	乃眷惟良二千石
성이 마씨인 대부가 선발되었네	姓馬大夫膺其掄
멀리서 상소문 한들을 써서 황제께 아뢰니	遙緘一二達冕旒
마사군이 정사를 펴며 하늘이 무얼 말하랴	馬爲其政天何言
조서가 하루 만에 천만리 밖에 전해지니	詔書一日千萬里
깊은 골짜기에 과연 봄의 따뜻한 기운 돌아왔네 ²⁰⁷	果然幽谷回春暄
끝내 파도에 빠질 혼들을 사면하여	終令貸得入波魂
하나하나 등주 마을에서 생활하게 하였네 ²⁰⁸	一一生息登民村
하늘이 해를 드리워 바닷가를 환히 비추니	天垂白日海破暉

204 양후(陽侯) : 수신(水神)의 이름으로 파도를 가리킨다. 원래 바다에 인접한 능양국(陵陽國)의 제후였는데, 물에 빠져 죽은 뒤에 큰 파도를 일으키는 귀신이 되었다는 전설이 전해 온다. 《楚辭 九章 涉江》

205 깃발 : 원문의 ‘홍이(洪頤)’는 고대 깃발의 명칭이다.

206 태수 : 원문의 ‘이천석(二千石)’은 군(郡)의 장관인 태수(太守)를 의미하는데, 한(漢)나라 때 태수의 연봉이 이천 석이었던 데서 유래한 것이다. 뒤에 지방 수령을 일컫게 되었다.

207 깊은…돌아왔네 : 전국 시대에 음률에 조예가 깊은 제(齊)나라의 추연(鄒衍)이 양(陽)의 음률을 조정하는 율관(律管)을 불어 대지를 따뜻하게 만들었다는 고사에서 온 말이다. 《藝文類聚》 차갑던 골짜기가 추연이 피리를 분 것으로 인해 따뜻해져 곡식이 자랐듯이 임금의 조서로 사문도의 죄수들이 은택을 입었다는 점을 말하였다.

208 등주…하였네 : 마목은 배도법(配島法) 20조를 고쳐 정하여, 죄수 인원이 정한 수를 넘으면 오래 죄수 생활을 하고도 찾아오는 이가 없는 이들을 사문도(沙門圖)에서 등주(登州)로 옮겨 살게 하였다. 《宋史 馬默轉》

수많은 옛 귀신들 몰래 울음소리 삼키네	舊鬼十百聲潛吞
동에서 온 신과 ²⁰⁹ 남해 북해의 신들은	東來之若監儵忽
서로 더불어 떠들썩하게 축하하며 깃발을 벌렸네	相與賀譁羅纛幡
바람의 신 불러다가 바람을 빌어	招邀風伯借噫氣
북쪽 바다에서 근심스런 구름을 길이 사라지게 하였네	北溟永霽愁雲屯
신관이 문서로 아뢰에 상제가 가상히 여기시니	神官牒顛帝嘉乃
백도 ²¹⁰ 에게 차마 후손이 없게 하시리오	忍令伯道無來昆
조칙으로 높고 큰 동악의 신령 ²¹¹ 을 명하여	勅勒東岳嶽峨靈
급히 누런 구름 타고 달리게 하였네	風火急騎黃雲奔
구슬 하나와 기왓장 하나를 손 양쪽에 들었는데 ²¹²	一璋一瓦手左右
가져다가 마등주에게 주며 자손 번창하라 축원하네	持贈登州宜子孫
금재 ²¹³ 에서 홀연 놀라 낮잠을 깨니	琴齋午睡忽驚斷

209 과 : 원문의 ‘기(監)’는 문맥상 ‘기(暨)’의 오자로 보인다. 이에 따라 수정하여 번역하였다.

210 백도(伯道) : 백도는 진(晉)나라 등유(鄧攸)의 자(字)이다. 하동 태수(河東太守)로 있을 때 석록(石勒)의 난리를 만나, 아내와 함께 아들과 조카를 데리고 피란을 갔는데, 도중에 도적을 만나자 모두를 살릴 수 없다고 여겨 자기 아들을 버리고 조카를 보전하였다. 뒤에 끝내 아들을 두지 못하고 죽자, 당시 사람들이 의롭게 여겨 “천도(天道)가 무지(無知)하여 등백도에게 아들이 없게 하였다.”라고 탄식하였다고 한다. 《晉書 卷90 鄧攸列傳》 여기서는 자식이 없던 마묵(馬墨)을 가리킨다.

211 동악의 신령 : 동악대제(東嶽大帝)로 태산(泰山)의 신령을 말한다. 이 동악대제는 동물, 식물, 사람 등 일체 생명의 출생을 관장한다고 한다.

212 구슬…들었는데 : 마묵이 아들 하나와 딸 하나를 기르게 될 것임을 암시하는 말이다. 《시경》〈사간(斯干)〉에 “남자를 낳으면 구슬[璋]을, 여자를 낳으면 기왓장[瓦]을 가지고 놀게 한다.”라고 한 말이 있다.

213 금재(琴齋) : 금당(琴堂)이라고도 하는데, 주(州)·부(府)·현(縣)과 같은 지방행정 구역에서 공무를 집행하던 곳을 이른다. 여기서는 마묵이

생황 피리 소리²¹⁴ 구름에 가득한데 좃기 어렵네 笙簫滿雲難攀援
아장아장 걷는 아이들은 하나하나 집안에 어울리는 아이니

踉蹌一枚稱家兒

수많은 먼 자손들이 혼인으로 인해 생겼다네 萬指雲仍由嫁婚
종래로 은밀한 보응은 부절이 합하는 듯하니 從來陰報若合符
선을 쌓으면 자손에게 경사 생김을²¹⁵ 나는 알겠네 積善吾知餘慶蕃
필부가 사람 살리길 좋아해도 오히려 이와 같은데 匹夫好生尙如此
하물며 임금이 형벌을 무겁게 하지 않음에 있어서라 何況國君刑無繁
천추에 맺힌 대리시 옥의 원통함 유독 한하노니 獨恨千秋鬱結大理冤
하늘이 어찌 차마 진회의 혼을 용서하리오²¹⁶ 天胡忍饒秦檜魂

등주부(登州府)를 맡고 있었으므로 그가 공무를 처리하던 방을 일컫는다.

- 214 생황 피리 소리 : 신선이 행차할 때 들리는 음악 소리를 일컫는다.
215 선을…생김을 : 《주역》〈곤괘(坤卦) 문언전(文言傳)〉에 “선을 쌓은 집 안에는 반드시 경사가 있고 불선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재앙이 있을 것이다.[積善之家, 必有餘慶, 積不善之家, 必有餘殃.]”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나온 표현이다.
216 천추에…용서하리오 : 대리시(大理寺)는 남송 때 형법을 관장하던 관청 이름으로 여기에서 악비(岳飛)가 죽었다. 송(宋)의 간신인 진회(秦檜)가 금(金)과의 화의(和議)에 반대하는 명장 악비를 죽이기 위하여 악비의 아들 악운(岳雲)이 악비의 장수 장헌(張憲)에게 편지를 보내 국론(國論)을 어기고 대역을 꾀했다는 누명을 씌웠다. 《宋史 卷365 岳飛列傳》

미인행

美人行

저 아름다운 사람 누구의 딸인가 彼美一人誰氏子
가물가물한 안개 운무 흩어진 뒤의 신선일세 縹緲煙霧開神仙
예쁜 이와 뺨에 맑은 햇빛 비치고 奇牙頰輔映清曠
보며 굽은 눈썹으로 보고 웃을 때 가는 허리 고와라 曲眉睇嗎纖腰妍
가을 연이 물에서 나오고 달이 구름을 벗어난 듯²¹⁷ 秋蓮出水月脫雲
바람에 기댄 모습 아름답고 하관²¹⁸이 선명하네 倚風要妙霞冠鮮
저녁에는 비가 되고 아침에 구름이 되니²¹⁹ 暮爲雨兮朝爲雲

217 가을…듯 : 이 묘사는 조식(曹植)의 <낙신부(洛神賦)>에서 온 것이다. 조식은 낙수의 신녀를 묘사하여 “그 형체가 경쾌함은 마치 놀란 기러기 같고, 유순함은 마치 노니는 용 같고, 빛난 광채는 가을 국화 같고, 무성함은 봄 소나무 같은데, 어렴풋함은 마치 열린 구름이 달빛을 가린 듯도 하고, 훑날림은 마치 실바람에 눈발이 돌아 날리는 듯도 하네. 멀리서 바라보면 깨끗함이 마치 아침놀 속의 태양 같고, 가까이서 자세히 보면 곱기가 마치 맑은 물결 위에 나온 연꽃 같네.[其形也，翩若驚鴻，婉若游龍，榮耀秋菊，華茂春松，仿佛兮若輕雲之蔽月，飄搖兮若流風之回雪。遠而望之，皎若太陽升朝霞，迫而察之，灼若芙蕖出淥波.]”라고 하였다.

218 하관(霞冠) : 신선이 쓰는 모자를 말한다.

219 저녁에는…되니 : 여기에서는 미녀의 아름다움을 무산 신녀(神女)에 비유한 것이다. 송옥(宋玉)의 <고당부(高唐賦)>에 초(楚)나라 회왕(懷王)이 운몽(雲夢)에 있는 누대 고당(高唐)에서 놀다가 꿈속에서 무산(巫山)의 신녀를 만나 잠자리를 함께하였는데, 신녀가 이별하는 즈음에 말하기를 “저는 무산의 양지쪽 언덕에 사는데, 아침이면 떠가는 구름이 되고 저녁이면 내리는 비가 되어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양대(陽臺)의 아래로 내려옵니다.”라고 하였다고 전한다.

어찌 그리 상제 같고 어찌 그리 하늘 같은가²²⁰ 胡然帝也胡然天
 하채와 양성은 미혹시킬 만하지도 않고²²¹ 下蔡陽城不足迷
 낙비 한녀²²²와 어찌 서로 나란히 견주리오 洛妃漢女寧相肩
 머릿기름과 머리 감은 혜초의 향기 가슴 앞에 뿌려져 蘭膏蕙沐播懷袖
 향기가 두건에 가득한 채 화장을 부끄러워 하네 芬若滿巾羞丹鉛
 황금으로 찡그리거나 웃는 모습을 사는 일 허락하지 않고²²³ 不許黃金買嘖笑
 청조가 너울너울 나는 일²²⁴ 본받지 않네 不效青鳥飛聯翩
 양왕은 방종하여 꿈도 또한 추하고²²⁵ 襄王漫浪夢亦醜

- 220 어찌…같은가 : 《시경》〈용풍(邶風) 군자해로(君子偕老)〉에 “어찌 그리 하늘과 같으며, 어찌 그리 상제(上帝)와 같은가.[胡然而天也, 胡然而帝也.]”라고 한 데서 온 말로, 여인의 자태가 매우 아름다움을 찬미한 것이다.
- 221 하채(下蔡)와…않고 : 하채(下蔡)와 양성(陽城)은 초(楚)나라 귀족의 봉읍(封邑)이다. 《문선(文選)》〈등도자호색부(登徒子好色賦)〉에 “가인(佳人)이 방긋 한 번 웃으니, 양성이 현혹되고 하채가 미혹되었네.”라고 하였다. 여기에서는 두 고을의 귀공자들은 미혹시킬 만한 대상도 안된다는 의미이다.
- 222 낙비(洛妃) 한녀(漢女) : 낙비는 전설 속 낙수(洛水) 여신인 복비(宓妃)이고 한녀는 전설 속 한수(漢水)의 여신이다.
- 223 황금으로…않고 : 눈썹을 찡그리거나 웃는 모습은 미녀 자신의 희로 애락의 감정을 뜻한다. 여기에서는 재물에 자신을 팔지 않는 그녀의 절조를 말한 것이다.
- 224 청조가…일 : 한 무제(漢武帝)가 신선을 좋아했는데 7월 7일에 파랑새[青鳥]가 서방에서 날아와 승화전(承華殿) 앞에 내려앉았다. 무제(武帝)가 동방삭(東方朔)에게 묻자, 이에 동방삭이 “서왕모(西王母)가 오려는 징조입니다.” 하였다. 얼마 후 서왕모가 오자, 파랑새 두 마리가 서왕모 양쪽에 시립(侍立)했다고 한다. 《漢武內傳》
- 225 양왕(襄王)은…추하고 : 이 고사는 무산(巫山) 신녀(神女)의 운우(雲雨) 고사를 말하는 것인데, 초 양왕(襄王)이 송옥(宋玉)에게서 선왕인 회왕(懷王)의 이 고사를 들었던 까닭에 양왕의 고사로 잘못 전해지기

아 저 한 무제는 황탄하되 고치려 하지 않았네 咄彼劉郎荒莫俊
 인간 세상 돌아보니 더불어 짝할 이 없어 回頭下界無與偶
 텅 빈 산 긴 대나무 앞에서 죽음으로 맹서하네 矢死空山脩竹前
 아아 창오²²⁶의 순 임금을 불러올 수 있다면 噫吁嘻蒼梧虞舜如可叫
 한 곡조로 남풍가²²⁷에 화답하리 一曲共和南風絃

도 하였다. 미녀가 부귀하더라도 방종한 사람과는 어울리지 않으려 함을 의미한다.

- 226 창오(蒼梧) : 지금의 호남성(湖南省) 영원현(寧遠縣) 남쪽에 있는 구의산(九疑山)의 다른 이름이다. 순(舜) 임금이 남쪽으로 순행하다가 여기에서 붕(崩)하였기 때문에 창오의 들판에 무덤이 있다고 한다.
- 227 남풍가(南風歌) : 순 임금이 오현금(五絃琴)을 만든 뒤에 지어 불렀다는 <남풍가(南風歌)>를 가리킨다. 그 내용에 “훈훈한 남쪽 바람이여, 우리 백성의 수심 풀어 주기를. 제때에 부는 남쪽 바람이여, 우리 백성의 재산 늘려 주기를.[南風之薰兮, 可以解吾民之慍兮; 南風之時兮, 可以阜吾民之財兮.]”이라고 하였다. 《禮記集說 卷94》

영남으로 부임하는 이립²²⁸ 영공²²⁹에게 주다

贈而立令公赴嶺南

내 들으니, 영남은 나라의 근본이라	吾聞嶺邑國根樞
고관들 ²³⁰ 곧바로 동남쪽 길로 내달렸다 하네	軒蓋直走東南途
팔도를 고루 나누어 그 반을 소유하니	平分八路有其半
높은 성벽, 큰 진지 다투어 펼쳐져 있네	崇墉巨鎮爭羅鋪
풍속은 소박하고 백성들 순후하여 고풍을 따르고	俗素民淳因古風
일찍이 신라의 옛 강역에 속하였네	曾入新羅舊版圖
고운 ²³¹ , 길재 ²³² , 퇴옹 ²³³ 의 부류들	孤雲吉再退翁流

228 이립(而立) : 이상신(李尙信)의 자이다. 이상신의 본관은 여흥(驪興). 호는 청은(淸隱). 1588년 사마시에 합격하였고, 이듬해 증광 문과에 급제하여 사간원 정언, 경상도 관찰사, 대사간 등을 지냈다. 《조선왕조실록》에 이상신이 선조 40년 정미(1607) 11월 19일에 경상도 관찰사에 임명된 기록이 보이므로 이후 진주(晉州)에 부임한 것으로 짐작된다.

229 영공(令公) : 영감(令監)으로 조선 시대 종2품에서 정3품 사이의 당상관의 품계를 가진 관인을 높이는 칭호이다. 이상신이 종 2품인 관찰사이기 때문에 붙인 것이다.

230 고관들 : 원문의 ‘軒蓋(軒蓋)’는 고관이 타는 수레를 말한다.

231 고운(孤雲) : 최치원(崔致遠, 857~?)의 자이다. 최치원의 본관은 경주(慶州), 자는 고운(孤雲)·해운(海雲)이다. 868년(경문왕8) 12세로 당나라에 유학하여 18세의 나이로 빈공과(賓貢科)에 장원 급제하고, 881년에 고편(高駢)의 종사관이 되어 <격황소문(檄黃巢文)>을 지어 문명을 떨쳤다. 885년 신라로 돌아왔고 말년에는 가족을 이끌고 가야산 해인사에 들어갔는데, 그 뒤의 행적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고려조 현종에 의해 문창후에 추봉되었다.

232 길재(吉再) : 1353~1419. 자는 재보(再父), 호는 야은(冶隱) 또는 금오산인(金烏山人), 본관은 해평(海平)이다. 목은(牧隱) 이색(李穡),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와 함께 ‘고려 삼은(三隱)’으로 불린다. 태조가 새로운 왕조를 세우려 하자, 고향인 선산 봉계(鳳溪)로 돌아와 조정의 부름에 나아가지 않고 여생을 마쳤다. 길재의 학맥은 김숙자(金叔滋), 김종직(金宗直), 김굉필(金宏弼)·정여창(鄭汝昌)·김일손으로 이어진 것으로 평가받는다.

233 퇴옹(退翁) : 이황(李滉, 1501~1570)을 말한다. 본관은 진성(眞城),

대대로 명성 끊이지 않아서 진유들이 많다네 代不絕鳴多眞儒
 고기 잡고 소금 만드는 백성들 사는 70개의 성 魚鹽土女七十城
 호조²³⁴는 해마다 선박 통행세에 의지하네 度支歲賴船通租
 태백산 가파르고 우뚝하며 비선대는 신령하고 太白巖崿祕仙靈
 동쪽 바다 하늘에 맞닿으니 봉새와 고래가 거칠다네 東洋黏天鵬鯨羸
 동래와 부산 연안은 태양에 가깝고 萊釜沿瀕近日母
 포장한 공물은 단인의 언덕²³⁵에서 넘어오네 苞貢踔自丹人丘
 큰 바다 조용한 지 200년 滄海不揚二百載
 우리나라 한 면에 전쟁이 그쳤다네 靑丘一面休干戈
 누가 생각했으랴, 풍신수길²³⁶이 감히 하늘을 쏘²³⁷ 줄 誰謂平曾敢射天
 전 영남이 다 죽었으니²³⁸ 크게 도륙을 당했다네 全嶺塵糟蒙大屠

자는 경호(景浩), 호는 퇴계(退溪), 시호는 문순이다. 성리학을 깊이 연구하여 일가를 이루었다.

- 234 호조(戶曹) : 원문의 '탁지(度支)'는 호조의 별칭이다. 나라의 재정을 담당한다.
- 235 단인의 언덕 : 원문은 '단인구(丹人丘)'인데 일본을 지칭한다. 단구(丹丘)는 신선이 산다는 전설 속의 지명으로, 일본이 동쪽 바다 건너에 있기 때문에 일본을 빗댄 것이다. 단인(丹人)은 일본인을 뜻한다.
- 236 풍신수길(豐臣秀吉) : 원문은 '평추(平酋)'인데 풍신수길을 낮춰 부른 말이다. 추(酋)는 종족의 우두머리를 뜻하고, 풍신수길의 원래 성이 평(平)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것이다.
- 237 하늘을 쏘 : '하늘을 쏘는 것[射天]'은 보통 포악하고 반역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풍신수길이 명나라를 침범한다는 명분으로 조선을 침략한 것을 말한다. '사천(射天)'은 《사기(史記)》〈은본기(殷本紀)〉에 출전이 보인다. "은(殷)나라 무을(武乙)이 무도하여 허수아비를 만들고 천신이라 부르고는 그와 박혁을 두되, 사람으로 행하게 하였다. 천신이 이기지 못하면 마침내 육보이고 가죽 주머니를 만들어 피를 담고 올려다보고 쏘면서 명령하기를 '하늘을 쏘라'라고 하였다.[帝武乙無道，爲偶人謂之天神，與之博，令人爲行。天神不勝，乃僂辱之，爲革囊盛血，仰而射之，命曰‘射天’]"
- 238 다 죽었으니 : 원문은 '오조(塵糟)'인데 이는 《한서(漢書)》〈곽거병전

국토가 다시 완전해졌으니 성령의 은혜를 입었고 金甌再完荷聖靈
남겨진 부상자들 여우고 병들어 끙끙거리네 子遺瘡劇呻羸痛
앞에서 고기 잡고 뒤에서 사냥하느라 피부와 골수에는 독이 들어도

前漁後獵毒膚髓

기국이 주공과 소공²³⁹이 아니니 도움 주기 어려웠다네 器非周召難煦濡
얼마나 다행인가! 지금 이후²⁴⁰를 얻었으니 何幸于今得李侯
후는 문무를 갖춘 완전한 재주가 있네 侯有全才文武俱

우뚝하고 아롱진 걸음 이어지니 큰 기러기 행렬인 듯 巍斑接武鴻雁行
만 개의 못, 보배로운 허리띠는 주불 관복 드리운 것과 같다네

萬釘寶帶同垂朱

우리 후께서 방면²⁴¹을 맡았다는 소식 듣고부터 自聞吾侯任方面
남쪽 사람들은 자식이 부모를 부르듯 하였네 南人如子父母呼

하직하고 대궐문 나와 윤지를 받들고 돌아가니 辭出天扉奉綸歸
화려한 말, 장식한 수레 길을 메우며 내달리네 擁路文馬雕軒趨

사령부에서 전략을 짜서 턱으로 지휘하니 行籌戎闕頤指揮
은혜와 교화가 어찌 그 백성들만 소생하게 하겠는가 惠化豈但民其蘇

(霍去病傳) 주에 보이는바, “세속이 사람을 다 살상한 것을 들어 오조(麀槽)라 한다.”라고 하였다.

239 주공과 소공 : 주공 단(周公旦)과 소공 석(召公奭)을 말한다. 모두 주(周)나라 문왕의 아들로 조카인 성왕(成王)을 보필하였다. 경상도 지방의 관리들이 임진왜란 이후에 백성들의 삶을 구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미이다.

240 후(侯) : 벼슬아치의 성 뒤에 붙여서 존칭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상신이 종2품인 관찰사로 진주에 내려가기 때문에 붙인 것이다.

241 방면(方面) : 관찰사가 다스리는 행정 구역으로 관찰사를 지칭한다. 《선조실록》과 《광해군 일기》를 보면, 이상신이 1607(선조 40) 11월 7일에 경상도 관찰사로 임명되어 1608(광해군 즉위년) 9월 14일에 각 병영의 형세와 물력에 관해 치제한 내용이 보인다.

오랑캐의 마음 막고 끊는데 모름지기 허술함이 없고 防截夷情莫須疏
관문 두드리고 항복해도²⁴²반드시 반역의 마음 꿰뚫어 보았네

款塞未必非窺窬

양공²⁴³은 뜻은 마땅히 동오에 있고 羊公志宜在東吳

이찰²⁴⁴은 북쪽 오랑캐 막는 수고로움 멈추었네 李緘休勞防北胡

나는 원하노니, 균형있게 전최²⁴⁵를 고찰하여 我願平衡考殿最

242 관문을 두드리고 항복해도 : 《사기(史記)》 태사공자서(太史公自序)에, “해외의 다른 풍속의 나라들이 여러 번 통역을 거쳐 변방의 문을 두드리며 공물을 바치고 알현하겠다고 청하는 자들이 이루 다 말할 수 없었다[海外殊俗, 重譯款塞, 請來獻見者, 不可勝道.]”라 하였고, 그 주석에서 “관은 두드리는 것이니 모두 변방의 문을 두들기며 와서 항복하는 것이다.[款, 叩也, 皆叩塞門來服從也.]”라고 해설하였다.

243 양공(羊公) : 진(晉)나라의 명장 양호(羊祜)이다. 양호가 형주(荊州)의 군대 일을 감독하면서 양양(襄陽)에 10년간 주둔했는데 이때 덕정(德政)을 펼쳤다. 양호가 죽게 되자 백성들이 산에 비석을 세우고 비석을 지날 때마다 눈물을 흘렸다고 하여 타루비(墮淚碑)라는 고사가 전해진다. 여기서는 이상신(李尙信)이 양호가 동오에서 선정을 베풀었던 것처럼 영남지방에 가서 선정을 베풀 것이라는 의미이다.

244 이찰(李緘) : 전국시대 조(趙)나라 명장이다. 이찰은 자가 목(牧)인데 이목(李牧)으로 더 잘 알려져있다. 《사기(史記)》〈이목열전(李牧列傳)〉에 ‘이목이 북쪽 변방에서 흉노(匈奴)와 대치하고 있을 때 흉노가 쳐들어오면 그때마다 싸우지 않고 피하기만 하면서 날마다 군사들에게 소를 잡아 먹이고 상을 주었는데 군사들 가운데 백금을 상으로 받은 군사들이 5만 명이나 되었다고 한다. 군사들이 상을 받고서도 한 번도 싸우지 않자 점점 흉노와 싸워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러던 차에 흉노의 선우(單于)가 쳐들어오자 이목은 이 군사들을 거느리고 나가서 일거에 흉노를 물리치고 대승을 거두었다. 이에 흉노가 10여 년 동안 조나라 북방을 침입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여기서는 이상신(李尙信)이 무조건 싸우지 않고 이찰처럼 현명하게 각 병영을 통제한다는 의미이다.

245 전최(殿最) : 관원의 근무 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행해졌다. 경관(京官)은 소속 관사의 당상관(堂上官)과

청렴 개결한 이를 올리고 탐욕 나약한 이를 몰아내기를 陟登廉介驅貪懦
 나는 원하노니, 두루 돌아다니며 관찰을 신중히 하여 我願巡遊慎觀察
 유학을 숭상하고 학교를 지켜 우리 문도들을 일으키기를

崇儒衛學興吾徒

후는 지금 외직에 나가 남방지역을 진무하니 侯今出外殿南服
 누가 왕내에서 거처하며 험뜯고 고자질을 하리오 誰居王內陳訐謔
 돌아오는 것 서두르지도 말고 또 늦추지도 말게 歸來勿亟且勿遲
 정녕코 정승자리 비워놓고 기다리고 있으리니 定虛台鉉以相須
 떠나가는 깃발 바라보아도 머무르게 할 수 없으니 征麾可望不可駐
 석양 녘 단정²⁴⁶에는 여구곡²⁴⁷이 수심겹네 短亭斜日愁驪駒

제조(提調) 및 소속 조(曹)의 당상관이, 외관(外官)은 관찰사(觀察使)와 절도사(節度使)가 실적을 평가하여 매년 6월 15일과 12월 15일 까지 계본(啓本)을 올리도록 하였다. 경관은 만 30일, 외관은 만 50일의 임기를 채워야 평가 대상이 되었다. 전최 계본에는 해당 관원의 실적을 4자나 8자로 평가한 글(題目)과 그 평가에 따라 매긴 상·중·하 등급인 등제(等第)를 기록하였다.

- 246 단정(短亭) : 성 밖의 큰 길가 5리 되는 곳에 설치한 정자이다. 10리 간격으로는 장정(長亭)을 설치하였다. 둘 다 행인들이 휴식하거나 송별하는 장소로 사용하였다. 유신(庾信)의 <애강남부(哀江南賦)>에 “십 리 오 리에 장정, 단정이라네[十里五里, 長亭短亭.]”라고 하였다.
- 247 여구곡(驪駒曲) : 여구(驪駒)는 《대대례(大戴禮)>에 나오는 <여구곡>이라는 일시(逸詩)로, 손님이 떠나려 하면서 이별의 정을 표시하는 노래이다. 손님이 “검정 망아지 문밖에 있고, 마부 모두 대기하오. 검정 망아지 길 위에 있고, 마부 명에 올리었소.”라고 노래를 부르면, 주인은 “손님이여 돌아가지 마오.”라는 뜻의 <객무용귀곡(客無庸歸曲)>을 불렀다고 한다. 《漢書 卷88 王式傳》

이입지²⁴⁸ 춘원 가 장흥으로 부임²⁴⁹하는 것을 보내며

送李立之赴長興 春元

어느 해 부주산²⁵⁰ 높은 기둥이 꺾였는가 何年不周折嶺崇
 본래의 대지는 남동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었네 全天大地傾南東
 온갖 강들로 내달려 모이기는 만 골짜기 다 같고 千江奔會萬壑同

248 이입지(李立之) : 이춘원(李春元, 1571~1634)으로, 본관은 함평(咸平), 초명(初名)은 신원(信元)이며 호는 구원(九畹), 입지(立之)는 그의 자이다. 박순(朴淳)의 문인으로 1596년(선조29) 문과에 합격하였다. 정유재란 당시 분조(分曹)의 주서로서 수안(遂安)으로 내전(內殿)을 호종하였으며, 이후 전라남도 장흥 부사(長興府使)·강원도 관찰사·우승지를 역임하다가 1610년(광해군2)에 모친상을 당하였다. 1618년에 서궁(西宮) 존호에 관한 일로 삭탈관작 당하였으며, 1620년에는 성절사(聖節使)로 북경에 다녀왔다. 문집인 《구원집(九畹集)》이 전한다.

249 장흥으로 부임: 이춘원이 장흥 부사로 부임한 해는 1605(선조 38)이므로 이 시는 1605년에 지은 것으로 짐작된다.

250 부주산(不周山) : 《열자(列子)》〈탕문(湯問)〉에 “공공씨가 전옥과 제왕 자리를 다뤘는데 (공공씨가) 성이 나서 부주산을 들이받자 하늘 기둥이 꺾여졌고 땅의 끈이 끊어졌다.[共工氏與顓頊爭爲帝，怒而觸不周之山，折天柱，絕地維.]”라고 하였고, 《회남자(淮南子)》〈천문훈(天文訓)〉에는 “옛날에 공공이 전옥과 제왕 자리를 다뤘는데 (공공이) 성이 나서 부주산을 들이받자 하늘 기둥이 꺾여졌고 땅의 끈이 끊어졌다. 하늘은 서북쪽이 기울어져 일월성신이 (서북쪽으로) 옮겨가고 땅은 동남쪽이 낮아져서 물, 큰 물, 티끌, 먼지가 (동남쪽으로) 물려간다.[昔者，共工與顓頊爭爲帝，怒而觸不周之山，天柱折，地維絕。天傾西北，故日月星辰移焉，地不滿東南，故水潦塵埃歸焉.]”라고 하였다. 2구는 하늘을 떠받치고 있던 부주산의 기둥이 꺾임으로써 하늘은 서북쪽으로, 땅은 그 반대 방향인 남동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큰 바다는 아득히 흐르고 넘실넘실 떠다니네 溟海淼漫浮冲澗
 큰 고래²⁵¹·흰 봉새의 등은 하늘에 닿고 青鯨白鵬背摩穹
 물결을 일으키고 휘저으니 어류들이 끓어오르는 듯 吹波棹浪沸水蟲
 안개 피고 비린내 나는 바다 어민들은²⁵² 눈과 장마 속에 그을렸고 煙腥龍戶雪霴烘
 소금은 진주를 쪼갠 듯, 도장 쌓은 듯²⁵³ 영롱히 빛나네 珠剖印纍光玲瓏
 별처럼 펼쳐진 보루는 형세가 지네와 같고 星羅堡鎮勢蜈蚣
 물산은 이 때문에 많고 사람들도 풍부하다네 物以之夥人以豐
 장흥은 그중에서 최고의 고을이니 長州爲邑最其中
 땅은 뛰어나고 재물은 많고 성이 웅장하다고 일컬어지네 地右財鉅城稱雄
 임란을 겪으면서 생계는 텅 비게 되었으니 自經東爨生息空

251 큰 고래 : 원문은 ‘청경(靑鯨)’인데 구체적인 의미는 미상이다. 다만, 한유(韓愈)의 <유생(劉生)> 시에 용례가 보이는데 “푸른 고래 높이 닿고 물결은 산에 떠있으며, 괴이한 도깨비 어지러이 빛나고 교룡들이 쌓여있네.[靑鯨高磨波山浮, 怪魅炫曜堆蛟蚪.]”라고 하였다. 그 주석에 ‘어떤 판본에는 ‘鯨’자가 ‘鮮’으로 되어 있다고 하여 ‘푸른 이끼[靑鮮]’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 또 ‘靑’을 ‘長’자의 오자로 보아 큰 고래[長鯨]로 보는 주석이 있다. 이 시에서는 문맥상으로 볼 때 ‘장경(長鯨)’이 자연스럽게 때문에 ‘큰 고래’로 해석하였다.

252 어민들은 : 원문의 용호(龍戶)는 중국 남방의 바닷가에 살던 사람들로, 단호(蜃戶), 단호(蜃戶)라고도 한다. 즉 어민이라는 의미이다.

253 소금은...쌓은 듯 : 유종원(柳宗元)의 <진문(晉問)>에 진(晉) 지방 출신인 유종원에게 오자(吳子)라는 사람이 진 지방의 특색에 대해 묻자 유종원이 답한 내용에 나온다. “(소금은) 굵은 것은 옥도장이 쌓인 것 같고 가는 것은 진주가 부서진 것 같으며, 솟은 곳은 모래섬 같고 움푹 파인 곳은 항아리 같습니다. 햇빛이 내리비치면 반딧불이 반짝이고 번갯불이 번쩍거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大者印纍, 小者珠剖, 涌者如坻, 坳者如缶. 日晶熠煜, 螢駭電走.]”라고 하였다.《唐宋八大家文鈔 晉問》

찡그리고 신음함이 깊고 병들어 거꾸러지게 되었네 嗶呻到底顛疲癯
 절도사가 군영을 열고 와서 군대를 통솔하니 節度開營來總戎
 금성탕지 10년, 용맹한 군대를 간직하게 되었네 金湯十載藏熊羆
 장군은 사납고 관리들 씩씩하나 백성은 더욱 궁하니 將悍吏武民愈窮
 노래하고 연주하며 오랑캐 막으나 다시 공이 없adne 歌吹禦戎還無功
 군영을 옮기고 관아를 세운 것은 임금께서 하셨으니 移營立府自宸衷
 사헌부²⁵⁴의 창화는 다만 무지개처럼 간사했다네²⁵⁵ 霜臺唱和徒螭蝮
 누가 능히 자애로운 어머니가 내 아이 돌보듯 하리오 疇能慈母我孩童
 수라가 지났다고 고할 때까지 신하들에게 자문하였네²⁵⁶ 玉食告旰咨臣工
 모름지기 문무를 겸비한 이가 선통에 참여해야 하니 須兼文武參選簡
 이조에서는 과연 그대의 이름으로 충당하였네 銓部果以君名充
 대궐에서 재배하니 성은이 융성하고 丹墀再拜聖私隆

- 254 사헌부(司憲府): 원문의 상대(霜臺)는 사헌부의 별칭이다. 과거 어사대(御史臺)로 정치에 관하여 논평하고 백관들을 규찰(糾察)·탄핵하는 책임을 맡았다. 추상(秋霜)처럼 엄하다 하여 상대라 하였다.
- 255 무지개처럼 간사했다네 : 무지개는 해와 비가 섞여 갑자기 형성된 것으로, 음양의 기운이 어울리지 않아야 하는데 어울린 것으로서, 천지의 음기(溼氣)를 표상한다. 이는 사람으로 치면 해를 가리는 무지개처럼 음흉하고 간사한 무리를 가리키고 인사(人事)로 치면 변사(變邪)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시경(詩經)》〈채동(螭蝮)〉편에 “무지개가 동쪽에 있으니, 감히 이를 가리킬 수 없네. [螭蝮在東, 莫之敢指.]”라고 하였다.
- 256 수라가...자문하였네 : 원문의 옥식(玉食)은 임금이 먹는 음식인 수라를 말한다. 《서경(書經)》〈홍範〉“임금이 복을 짓고 처벌을 짓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신하는 복을 짓고 처벌을 짓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없다. [惟辟作福, 惟辟作威, 惟辟玉食, 臣無有作福作威玉食.]”라고 하였다. 이 구절의 의미는 임금이 백성들의 고통을 걱정하느라 수라를 먹는 시간이 지나도록 신하들에게 대책을 자문했다는 것이다.

큰 붓 던진 곳에서 강궁을 당긴다네 大筆投處彎強弓
 날쌔고 용맹한 천성으로 능히 몸을 굽혀 삼가고²⁵⁷ 精悍天姿能鞠躬
 배속 가득 일렁이는 것은 오직 충성이라네 滿腔鬱律唯誠忠
 백성들 도탄에서 벗어나 비호하는 곳으로 나아가니 民離塗炭就屏幪
 어진 명성이 미치는 곳²⁵⁸에 위엄 있는 교화가 펼쳐지리 仁聲所暨宣威風
 천관산²⁵⁹은 화산·승산에 견줄만하다고 옛날에 들었으니

舊聞天冠抗華嵩

기이한 자취는 거의 부상까지 닿으려 한다네 異迹幾欲扶桑窮
 신승이 용을 꾸짖었으나 용은 귀머거리인 듯 神僧詬龍龍若聾
 법문으로 용을 제거하니 산에는 큰물만 남았다네²⁶⁰ 以法去龍山留洪

257 몸을 굽혀 삼가고 : 원문은 ‘국궁(鞠躬)’인데 매우 공손한 태도를 일컫는 말이다. 《논어(論語)》〈향당(鄉黨)〉에 “공문에 들어가면 몸을 굽히고 용납하지 못하는 듯하였다.[入公門，鞠躬如也，如不容.]”라고 하였고, 주석에 “국궁은 몸을 굽히는 것이다. 공문이 높고 커서 용납할 수 없는 듯하였으니, 공경함이 지극한 것이다.[鞠躬，曲身也。公門高大而若不容，敬之至也.]”라고 하였다.

258 기 : 원문은 ‘暨’인데, 국립중앙도서관 석판본 《현주집》에 근거하여 ‘暨’를 ‘暨’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259 천관산(天冠山) : 전남 장흥(長興)에 있는 산명(山名)이다.

260 신승이…남았다네 : 신승이 용을 꾸짖고 법문으로 용을 제거하여 산에는 큰 물만 남게 되었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자세하지 않다. 다만, 허목(許穆)의 천관산기(天冠山記)에 보면 구룡봉과 물웅덩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므로 두 구절은 이와 관련된 이야기로 짐작된다.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라 때 승 부석(浮釋)이 이곳에 거주하였으므로 의상암(義相庵)이라 부른다고 한다. 뒤쪽 정상은 구룡봉(九龍峯)인데, 홍수나 가뭄이 들었을 때 이곳에 제사 지낸다. … 신평석봉(神蒲石峯)에 오르면 포천(蒲泉)이라고 부르는 세 개의 바위 웅덩이가 있다. 이곳에는 한 치에 아홉 마디가 있는 창포가 자란다. 동쪽 고개에 올라 각운(覺圓)과 함께 신정(神井)을 구경하였는데, 물의 무게가 백 근(斤)이었다”

잠깐 사이 금빛 푸른 빛 단청한 절을 세우니 斯須金碧起梵宮
 큰 돌과 굳은 흙으로는 그 여울을 메꿨다네 大石埧土填其澗
 금아²⁶¹를 새벽에 보니 빛이 어렴풋이 밝아오고 金鴉曉看影瞳矓
 화륜²⁶²이 바다를 벗어나니 부상이 붉네 火輪脫海扶桑紅
 잠시 영킨 것 개이고 청동 거울처럼 맑아지니 俄然凝靄淨靑銅
 자욱한 천지는 혼돈의 상태가 되었네 仿像子丑開鴻濛
 나는 이 말을 서천옹²⁶³에게서 받았으니 我受此言西天翁
 여기에 오르지도 않고도 정신은 이미 통한다네 足未登茲神已通
 그대의 행차 허물며 또 남쪽 기러기를 쫓는데 있어서라 君行況復逐陽鴻
 그대 무지개 같은 긴 기를 토하는 것이 부럽다네 羨君吐氣長如虹
 마른 것 소생시키고 굵은 이 복종시키는 것은 인이 융화하는 바이니
 蘇枯伏枉仁所融
 골짜기 오랑캐, 숲의 오랑캐 몽매함이 열리리라 洞蠻林蠻開蔀蒙
 공무의 여가에 죽장 짙고 무성한 초목을 향하니 公餘竹杖向蘊蕘
 술잔에는 붉은 벼랑의 단풍이 거꾸로 비추리라 杯面映倒丹崖楓
 탄식하노니, 나는 두 귀밑머리 어지러이 쑥대궁처럼 날리고
 歎我雙鬢亂飛蓬
 발자취는 들새가 조롱에 갇힌 듯하다네 迹若野鳥囚樊籠
 세상 근심에 관심을 가지니 다시 가슴은 두근두근 世憂關心更忡忡
 세모에 남쪽에서 오래 있기를 기약해 보네 歲暮南國期長終
 아전 흩어진 절간에는 달빛이 창을 비추고 吏散蕭寺月射櫺

261 금아(金鴉) : 태양 속에 있다는 세 발 가진 신조(神鳥)로 ‘금오(金烏)’ 또는 ‘삼족오(三足烏)’라고도 하는데 태양을 지칭하는 말로 쓰인다.

262 화륜(火輪) : 불타는 수레바퀴라는 의미로 태양을 비유하는 말이다.

263 서천옹(西天翁) : 서천(서천)은 인도를 통칭한다. 서천옹은 일반적으로 승(僧)을 의미하지만 여기서는 천관산에 관한 이야기를 해준 승이므로 천관산에 있는 중을 의미한다.

시 짓는 재료는 그대와 함께 하여 시를 연마하리니 詩料與君同磨礱
이 이별 급하다고 한스러워하지 말게나 此別莫恨相慇懃

은대²⁶⁴옥배가

銀臺玉盃歌

천지가 정기를 쌓아 산택에 잉태시켰으니 乾坤委精孕山澤
 초나라 월나라 사이에 좋은 옥을 내었다네 楚越之間發良玉
 옥이 산에 있을 때는 박옥이니 玉在山是璞
 사람들 박옥을 보고 돌과 같다고 하였네²⁶⁵ 人視璞猶石
 월나라 상인, 서역 상인²⁶⁶ 지나가고 돌아보지 않았으니 越商胡賈去不顧
 산신이 그것을 숨겨 기와, 조약돌과 섞어놓았네 山靈祕之混瓦礫
 하늘이 옥인을 보내 하루아침에 박옥을 가지고 돌아가게 하니
 天遣玉人一朝持璞歸
 가지고 돌아가 왕에게 바쳤으나 왕은 발꿈치 베었다네 持歸獻王王刖之

264 은대(銀臺) : 승정원(承政院)의 별칭이다. 은대는 중국 송나라 때 궁궐인 은대문(銀臺門) 안에 은대사(銀臺司)를 두어 천자에게 올리는 문서와 관아 문서를 주관한 데서 유래한 말이다.

265 사람들...하였네 : 화씨지벽(和氏之璧)을 말한다. 초(楚)나라 변화(卞和)가 형산(荊山)에서 박옥(璞玉)을 얻어 여왕(厲王)에게 바쳤다. 여왕이 옥 감정인[玉人]에게 감정하게 하였더니, 옥 감정인이 돌이라고 판정하였다. 여왕은 변화가 임금을 속였다 하여 그의 왼쪽 발을 베었다. 뒤에 변화가 무왕(武王)에게 이 박옥을 다시 바치니, 역시 옥이 아닌 돌로 감정되어 오른쪽 발이 잘렸다. 문왕(文王)이 즉위하자, 변화는 그 박옥을 안고 형산 아래에서 밤낮 3일을 울어대어 눈물이 다 나오자 피가 나왔다. 문왕이 듣고 옥 감정인을 시켜 다시 쪼개어 보게 하고서 보옥을 얻었다고 한 고사에서 온 말이다. 《韓非子 和氏》

266 서역 상인 : 원문의 '호고(胡賈)'는 서역 상인을 말한다. 서역 상인들은 아름다운 옥을 얻으면 몸을 갈라서 옥을 숨길 정도로 미옥(美玉)을 아꼈다고 한다. 여기서는 옥을 귀하게 여기는 서역 상인들도 미옥을 알아보지 못하여 거들떠보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한 번의 월형도 오히려 견딜 수 없거늘 一刑尙不堪
세 번이나 월형을 당했으니 어찌하리오 三被刑何爲
세 번 월형을 당했으나 세 번 뉘우치지 않았으니 三被刑三不悔
오직 한스러운 건 지극한 보배를 왕이 알아주지 않는 것이라네 惟恨至寶王不知
마침내 박옥이 쪼개지자 옥이 나왔으니 畢竟璞剖而玉出
광채가 만국을 비추고 그 빛은 해와 달과 나란히 했네 光射萬國參日月
진한을 거치고 백 대를 지나면서 오히려 온전한 모범이 되었으니 經秦歷漢閱過百代猶全規

대명천자의 대궐에 간직하게 되었네 藏在大明天子室
황명을 받은 장인이 잔을 깎아서 皇命之工鬪盃
십 년 만에 잔이 비로소 완성되었으니 十年杯始成
이 하나의 잔이 어찌 다만 열다섯 성뿐이겠는가²⁶⁷ 一盃奚直十五城
꽃가지와 혜호²⁶⁸를 새겨 넣고 꾸몄으니 刻琢花枝與螭虎
조화옹은 손을 놓고 돌아보며 놀랐다네 造化縮手相顧驚
막 책봉할 때 정녕히 유사²⁶⁹에게 말하여 고지하기를

267 이…뿐이겠는가 : 조(趙)나라 혜문왕(惠文王)이 화씨벽을 언자 진(秦)나라 소왕(昭王)이 속임수를 써서 빼앗으려고 하여 15개의 성과 바꾸자고 하였는데, 조나라의 인상여(蔣相如)가 사신으로 가서 기지를 발휘하여 이 화씨벽을 온전히 본국으로 가지고 돌아왔던 일을 말한다. 《韓非子 和氏》

268 혜호(螭虎) : 혜호는 벌레 이름으로 혜호를 새긴 술잔을 혜호은배(螭虎銀杯)라고 한다. 혜호는 술을 마시기만 하면 죽는 벌레로, 술을 경계하는 뜻에서 술잔에 새긴 것이다. 《명종실록(明宗實錄)》 4년 9월 21일 기사에 “승정원에 선운하고 또 혜화은배를 하사하였다.[宣醜于政院, 又賜螭虎銀杯.]”라고 하여, 명종이 승정원 관원들에게 혜호술잔을 내린 기록이 보인다.

269 유사(劉使) : 명(明)나라 사신 사례감 관문서 내관감 태감(司禮監管文書內官監太監) 유용(劉用)으로, 1609년에 광해군의 책봉조서(冊封詔

方茲降冊丁寧說與劉使知

“짐은 해동의 새 임금에게 신성한 자태가 있다는 걸 들었으니

知朕聞海東新王神聖姿

짐이 이 잔을 주어 그를 총애하려고 한다 朕欲寵之以此盃

저 국상을 어찌하오리오만 이것을 내리면서 말이 없겠는가²⁷⁰

奈彼國哀錫此無其辭

네가 스스로 취해서 가져다가 주어라” 爾可自取以贈也

유사가 절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예예’라고 일컬고 劉拜稽首稱唯唯

예물을 열 겹으로 싸서 주머니 속에 가지고 왔네 殷勤十襲橐中携

우리 왕께 응답할 때 사사로움을 펼치니 奉酬我王伸其私

우리 왕은 선비를 보배로 여기지 보배를 보배로 여기지 않아

我王寶士不寶寶

중국 사신이 준 것²⁷¹을 소중히 받지 않고 물리치려 하였다네

書)를 가지고 왔다. 《光海君日記 1年 6月 2日》 중국에서 온 사신을 말할 때 성 뒤에 천사(天使)를 붙이는 것이 일반적인데 여기서는 사(使)만 붙인 것이다.

- 270 말이 없겠는가: 명(明)나라 유용(劉用)이 1609년(광해1) 마침내 광해군의 책봉조서(冊封詔書)를 가지고 온 것을 말하는 듯하다. 《光海君日記 1年 6月 2日》 광해군은 원래 1608년에 즉위하여 1608년(선조 41) 2월에 중국에 사신을 보내 왕위 책봉을 받으려 했으나 광해군이 차남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였다. 그러므로 이 구절에서 “말이 없겠는가[無其辭]”라고 하여 책봉조서가 내려졌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1608년 광해군이 책봉되지 못한 사실은 《갑진만록(甲辰漫錄)》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나온다. “무신년(1608, 선조41) 2월 24일. 청봉책사(請封冊使) 연릉부원군(延陵府院君) 이호민(李好閔)과 부사 오억령(吳億齡)이 북경에 갔더니, 예부에서는 전하가 둘째 아들이라 하여 허락하려 하지 않았다.[戊申二月二十四日. 請封冊使延陵府院君李好閔, 副使吳億齡赴京, 禮部以殿下爲次子, 不肯許.]”

- 271 중국 사신이 준 것: 유용(劉用)이 개인적으로 광해군에게 준 선물을

欲却不受重是王人遺

하물며 이 술잔 옥으로 만드는 것 마땅치 않아 況此酒杯不宜玉
 일찍이 기자가 이를 경계하였음에²⁷² 있어서라 曾是箕王所戒飭
 그것을 받아서 대내에 두지 않고 受之不留內
 은대에서 숙직하는 신하들에게 특별히 하사하셨네 特賜銀臺直
 은대의 근신들 배수하고 받드는데 銀臺侍臣拜手捧
 보배로운 광채 눈을 비추니 모두들 물러났다네 寶彩奪目皆辟易
 만약 자황²⁷³이 책상머리에서 떨어뜨린 게 아니라면 若非紫皇案頭落

말한다. 이 선물에 대해서 신하들이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지만 광해군은 황제가 보낸 신하가 준 선물이라 거절하기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인다. 이에 대해서 다음 기록을 참고할 만하다. “홍문관 부제학 홍경신(洪慶臣), <전한 김신국(金薰國), 부응고 이성(李愷), 수찬 홍방(洪芳) 등이> 차자를 올려 아뢰기를, ‘유사(劉使)가 전후로 바친 것을 받지 마소서.’ 하니 답하기를, ‘차자를 살펴보고서 정당한 의논임을 알았다. 다만 조사가 비록 태감이라고는 하지만 왕인(王人)이어서 사체가 존엄하다. 그가 예물로 보낸 것을 다시 보내는 것은 온당치 못하고, 또 관소에 머물고 있는 날에 곧바로 해사에 내려 다른 물건과 바꾸어서 줄 물건에 보태는 것도 체면이 적지 않게 손상된다. 내가 이 때문에 염려하고 있다. 마땅히 유념하여 처리하겠다.”라고 하였다. 《光海君日記 1年 6月 8日》

272 일찍이...경계하였음에 : 기자가 주(紂)의 사치를 경계한 것을 말한다. 《사기(史記)》 권38 <송미자세가(宋微子世家)>에 “주(紂)가 처음에 상아 젓가락을 만들자, 기자(箕子)가 탄식하기를 ‘저 사람이 상아 젓가락을 만드니, 만드시 옥배(玉柸)도 만들 것이다. 옥배를 만들면 반드시 먼 지방에서 생산하는 진귀한 물건을 구하여 사용할 것이니, 여마(輿馬)와 궁실(宮室)의 사치하게 될 조짐이 이 상아 젓가락에서 시작될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주왕이 그 뒤에 끝내 사치에 빠져 경궁(瓊宮)과 요대(瑤臺)를 만들어 놓고 황음(荒淫)하다가 나라를 망치게 되었다.”라는 기록이 있다.

273 자황(紫皇) : 신선(神仙)을 말한다. 《태평어람(太平御覽)》 <도부(道部)도(道)>에 “비요경(祕要經)에 ‘태청(太淸)의 아홉 궁(宮)에는 모두 요

바로 요지의 서왕모가 던진 것이 아닐까²⁷⁴ 無乃瑤池王母擲
 때때로 천둥과 비가 어둠 속에 썩썩 거리면 有時雷雨暗淅淅
 문득 귀신이 한밤중에 빼앗아갈까 두렵다네 却怕鬼神中夜奪
 나는 원하노니, 은대의 신하들아 我願銀臺臣
 함에 쌓아두고 등나무로 묶어서 삼가 잃어버리지 말라 儲積緘藤慎莫失
 언젠가 액정²⁷⁵에 피꼬리와 꽃이 가득하고 他時掖庭滿鶯花
 한 조정에서 임금과 신하 뜻이 맞아²⁷⁶ 노래 부르고 서로 기뻐할 때 都兪一堂歌相悅
 술잔을 당겨 태평성세를 축하하고 引觴祝聖歲
 만년토록 또 만년토록 萬祀更萬祀
 만년토록 만년토록 또 만년토록 萬祀萬祀更萬祀
 곧바로 산이 무너지고 바다가 땅이 될 때까지 直至山崩海爲地
 그런 뒤에도 우리 여전히 현명한 군주를 받들고 然後吾猶奉明主
 은택을 베풀어 날마다 백성들과 술 취하기를 酌澤日與生靈醉
 ‘기왕(箕王)’은 어떤 본에는 ‘은인(殷仁)’으로 되어 있다.

속(僚屬)이 있는데 그중 가장 높은 자를 천황(天皇), 또는 자황이라 부른다.’ 하였다.”라는 내용이 있다.

- 274 바로…아닐까: 서왕모가 사는 곤륜산이 양옥(良玉)이 많이 나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 275 액정(掖庭): 궁중의 정전(正殿) 옆에 있는 궁으로 비빈(妃嬪)이나 궁녀들이 거처하던 곳이다.
- 276 한…맞아: 원문의 도유(都兪)는 도유우불(都兪吁沸)에서 온 것으로 도유(都兪)는 찬성, 우불(吁沸)은 반대를 뜻하는 말이다. 요(堯) 임금이 신하들과 정사를 토론할 때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기탄없이 개진하였던 데서 유래한다. 일반적으로 밝은 임금과 어진 신하가 서로 뜻이 맞아 정사(政事)를 토론하는 것을 뜻한다.

예천사²⁷⁷의 시에 차운하다

次倪天使韻

나는 배우기를 매우 좋아하여 옛 책을 열람해보니 吾頗好學閱古秩
 당나라 이전 한나라 이후 시로 명성을 날린 이 많다네 唐前漢後多鳴詩
 웅장하고 맑고, 호방하고 굳셈을 구사하는 것은 유독 능했으나

雄清豪勁騁偏能

여러 체를 갖춘 모습 공처럼 기이한 이 없었다네 備態未有如公奇
 문득 공중에서 누각이 솟으니 便從空中起樓閣
 만 길의 광채, 어찌 그리도 우뚝한가 光彩萬丈何磊落
 원기²⁷⁸가 줄줄 흘러 호연함이 끝이 없으니 元氣淋漓浩無罅
 흡사 혼돈이 처음 구멍 뚫리지 않을 때와 같다네 恰如混沌初未鑿
 빛나고 밝기는 한 조각 얼음과 함께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炯炯羞同一條冰

성대하기는 봉새가 날고²⁷⁹ 구름이 멈춘 듯²⁸⁰하네 蔚若鵬舉而雲停

277 예천사(倪天使) : 예겸(倪謙)이다. 정사(正使)의 자격으로 부사인 급사중(給事中) 사마순(司馬恂)과 함께 세종 32년(1450)에 명나라 경종(景宗)의 즉위를 알리는 조서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왔다. 예겸은 시에 뛰어나서 당시 관반(館伴)이었던 정인지(鄭麟趾)도 대적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는 남예부 상서(南禮部尙書)의 벼슬까지 지냈고 《조선기사(朝鮮紀事)》를 저술하기도 하였다. 자는 극양(克讓), 호는 경서후인(經鋤後人)이며 시호(諡號)는 문희(文僖)이다. 《明史 卷183 倪謙列傳》

278 원기(元氣) : 천지가 미분되었을 때 혼돈(混沌)의 기운을 말한다.

279 봉새가 날고 : 《장자(莊子)》〈소요유(逍遙遊)〉에 “봉새가 남쪽 바다로 옮겨 갈 때에는 물결을 치는 것이 삼천 리요, 회오리바람을 타고 구만 리를 올라 여섯 달을 가서야 쉰다. 鵬之徙於南冥也 水擊三千里 搏扶搖而上者九萬里 去以六月息者也”라고 한 데서 온 말로 기세가 성대함을 의미한다.

280 구름이 멈춘 듯 : 《열자(列子)》에 “설담(薛譚)이 진청(秦靑)에게 노래

혹은 신녀가 아침 화장을 성대하게 한 듯 或似神女盛朝粧
 도사가 구슬 달린 하관²⁸¹을 쓰고 구름 병풍을 헤치고 나오는 듯 霞冠珠佩披雲屏
 혹은 신선이 봉래산 기슭에 내려오는 듯 或似仙人下蓬萊
 신선이 생황과 통소 불며 아름다운 골짜기에 이르는 듯 鸞笙鳳簫臨丹谷
 큰 바다 성대히 흐르고 넘실대는 듯 溟洋浩泐而瀉汨
 여러 산들 푸르고 숨어있는 듯 諸山蒼翠而詭伏
 손으로 큰 붓을 꺾어 쓰니 길이가 서까래 같고²⁸² 手拗大筆長如椽
 만물들을 업신여김은 우전²⁸³과 같네 陵暴萬類如牛田
 문단의 여러 인재들 모두 턱을 세우며 바라보니 詞林群彥盡樹頷
 하물며 지금 궁벽지고 누추한 우리나라에 있어서라 況今偏陋之東邊
 구름무늬 종이에 휘둘러 쓰면 사망에서 돌아보고 揮洒雲牋爲四顧
 푸른 강물은 넘실넘실하고 서쪽 해는 저물어가네 滄江漫漫西日暮

를 배우다가 돌아가는데 진청이 들에서 전송하면서 슬프게 노래를 부르니, 소리가 숲에 진동하고 가던 구름이 멈추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예겸의 시의 강개하면서 뛰어난게 아름답다는 의미이다.

281 하관(霞冠) : 도사가 쓰는 모자이다.

282 길이가 서까래 같고 : 진(晉)나라 왕순(王珣)의 꿈에 어떤 사람이 서까래처럼 큰 붓[大筆如椽]을 건네주자, 꿈을 깨고 나서는 “내가 솜씨를 크게 발휘할 일이 있을 모양이다.[當有大手筆事]”라고 하였는데, 과연 얼마 뒤에 황제가 죽어 애책문(哀冊文)과 시의(諡議) 등을 모두 왕순이 도맡아 지었던 고사가 전한다. 《진서(晉書)》 卷65 〈왕도열전 왕순(王導列傳 王珣)〉

283 우전(牛田): 소를 기르는 밭이다. 《광동신어(廣東新語)》〈수어(獸語)·우(牛)〉에 우전에 대해서 “소를 기르는 밭을 ‘우전’이라 하는데 난 풀들이 겨울에도 무성하여 소가 먹고 살이 찐다.”라고 하였다. 여기서는 우전에서 소가 마음대로 뛰어다니며 풀을 뜯기 때문에 만물들을 업신여긴다고 한 듯하다.

새벽에 신선의 수레²⁸⁴는 돌아가기를 재촉하니 飄車明發促回轉
이로부터 하늘과 땅으로 차이나 만날 길이 없다네 從此雲泥接無路

284 신선의 수레 : 원문은 ‘표거(飄車)’인데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신선의 수레를 의미한다. 《서왕모전(西王母傳)》에 “서왕모(西王母)가 사는 궁궐에는 표거우륜(飄車羽輪)이 아니면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였다.

영동으로 가는 학곡²⁸⁵ 홍서봉 에게 주며 이별하다²⁸⁶

贈別鶴谷之嶺東 洪瑞鳳

금강산은 동해의 동쪽에 있는데	金剛之山東海東
하늘로 높이 솟고 바다에 뿌리를 박았지	高出天兮插海中
푸른빛으로 깎아지른 천만 길의 산	碧色戍削千萬丈
일만이천 봉우리의 뼈대가 똑같이 빼어나다	骨標萬二千峯同
흰 옥으로 갈아 만든 비녀인 듯	白玉磨簪兮
황금으로 만든 부용인 듯	黃金作芙蓉
상서로운 빛은 위로 하늘의 빛과 통하고	瑞彩上與天光通
향 좋은 박달나무와 오래된 소나무는 높이 솟은 일산처럼 가지가 굽었네 ²⁸⁷	香檀古松竦蓋屈

285 학곡(鶴谷) : 홍서봉(洪瑞鳳, 1572~1645)으로, 자는 휘세(輝世)이고 학곡은 그의 호이다. 아버지는 도승지 홍천민(洪天民)이고, 어머니는 제용감주부 유당(柳檀)의 딸이다. 1594년(선조27)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고, 1608년(광해군 즉위년) 증시문과에 갑과로 급제하였다. 1611년 김직재(金直哉)의 옥사(獄事)에 장인 황혁(黃赫)이 연루되어 동부승지에서 삭직당하였다. 1623년 인조반정을 주동하여, 정사공신(靖社功臣) 3등에 책록되고 익녕군(益寧君)에 봉해졌다.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화의(和議)를 주장하여, 최명길(崔鳴吉) 등과 함께 청나라 군사 진영을 내왕하며 화의를 위한 실무를 수행하였다. 1639년 부원군(府院君)에 봉해지고, 이듬해 영의정에 올랐다. 시호는 문정(文靖).

286 영동으로...이별하다 : 홍서봉은 1610년(광해2) 강원도 관찰사가 되었다. 《光海君日記 2年 1月 21日》

287 향...굽었네 : 키가 큰 나무들이 일산을 펼친 것처럼 가지를 옆으로 뺀 모습을 형용한 듯하다.

쇠가 영킨 듯한 나뭇가지는 흙 없는 데서 자라나²⁸⁸鐵交枝柯不土而植兮
만고에 부질없이 푸르구나 萬古空靑蔥
상서로운 구름과 고운 놀은 몇 만 겹이나 되나 祥雲彩霞幾萬重
은 누대, 금 궁궐²⁸⁹은 차가운 하늘에 빛나네 銀臺金闕曜寒空
부상²⁹⁰을 향해 굽어보며 밤마다 놀라니 俯向扶桑夜夜驚
금아²⁹¹가 바다에서 날아오르자 하늘과 땅 붉어지는구나
金鴉翥海乾坤紅
신선들이 손으로 불의 수레 몰아서 오르니 群仙手御火輪升
붉은 용과 자색 학이 찬바람을 타고 간다 紅龍紫鶴憑冷風
때로는 봉새가 노하여 3천 리 높이까지 물을 치니²⁹²
有時鵬怒水擊三千里
금탑 앞 스님은 꿈에서 깨어나네²⁹³ 金塔夢回瞿曇翁

288 흙…자라나 : 유종원(柳宗元)의 <진문(晉問)>에 “뿌리가 괴이한 모양의 바위에 얽혀서, 흙 없는 데서 자란다.[根絞怪石, 不土而植.]”라고 하였다.

289 은…궁궐 : 은 누대[銀臺]는 서왕모(西王母)가 산다는 곳이고, 금 궁궐[金闕]은 신선이나 천제가 산다는 곳이다.

290 부상(扶桑) : 동해에 있다는 상상의 신목(神木)인데, 해가 뜰 때 이 나뭇가지를 흔들며 올라온다고 한다.

291 금아(金鴉) : 금오(金烏)라고도 한다. 태양에 산다는 삼족오(三足鳥)로, 태양을 가리킨다.

292 봉새가…치니 : 봉새는 북해(北冥)의 곤(鯨)이라는 물고기가 변한 것인데, 남쪽 바다로 옮겨 갈 때 날개로 물결을 치면 3천 리 높이까지 오른다고 한다. 《莊子 逍遙遊》

293 금탑(金塔)…깨어나네 : 고려 태조(太祖)가 왕위에 오르기 전 즉 궁예(弓裔)의 신하였을 때인 서른 살에 꿈을 꾸었는데, 9층 금탑이 바다 가운데 서 있는 것을 보고 스스로 그 위에 올라갔다고 한다. 《高麗史 太祖》 여기에서는 지금 홍서봉이 가는 강원도가 옛날 궁예의 태봉국(泰封國)이 있었던 곳을 말하고, 고려 태조가 꿈에 보았던 바다가 금강산에서 보이는 바다임을 말하기 위해 쓴 듯하다.

삼신산은 어디에 있는가	三神山在何處
이 산이 바로 영주산, 방장산, 봉래산 아닌가 ²⁹⁴	此山莫是瀛方蓬
부질없이 한나라 사신만 수고롭게 했고	徒勞漢使者
진나라의 동남동녀, 가소롭구니 ²⁹⁵	可笑秦家童
평소 와유할 뿐 가까이할 수 없었으니	平生臥遊不可親
따라가고 싶은 마음은 날아가는 기러기를 아득히 따르네	歸興杳然隨征鴻
땅 위의 신선 같은 그대 모습 부러우니	羨君符彩地上仙
동쪽 웅장한 땅의 병권을 쥔 지방관이 되었구려	分闔出鎮東藩雄
동쪽 땅의 24개 명승지는	東藩二十四名區
이 산의 영롱한 광채를 가까이하네	控挹此山光玲瓏
하늘이 사백으로 하여금 방백이 되게 하였으니 ²⁹⁶	天教詞伯作方伯
곧 이 산의 주인이 되어 시원히 붓을 휘둘러서 혼돈을 열리라	

294 삼신산(三神山)은…아닌가 : 삼신산은 동해에 있다는 신선들의 산으로, 봉래산(蓬萊山), 방장산(方丈山), 영주산(瀛洲山)을 말한다.

295 부질없이…가소롭구나 : 백거이(白居易)의 <해만만(海漫漫)>에 “구름 끼고 이내 덮인 바다 물결 가장 깊은 곳, 사람들이 전하는 말론 그 속에 삼신산이 있다 하네. 그 산 위엔 불사약이 많이 자라는데, 그것을 먹으면 날개가 돌아 하늘의 신선이 된다 하더라. 진시황(秦始皇)과 한 무제(漢武帝)는 이 말을 믿었으니, 방사가 해마다 약을 캐러 갔다네. [雲濤烟浪最深處, 人傳中有三神山. 山上多生不死藥, 服之羽化爲天仙. 秦皇漢武信此語, 方士年年采藥去.]”라고 하였다. 진시황과 한 무제는 불로불사약(不老不死藥)을 구하기 위해 삼신산에 동남동녀(童男童女) 수천 명을 보냈다고 한다. 《漢書 卷25 郊祀志》 특히 제(齊)나라 사람 서복(徐福)이 불사약을 구해 오겠다고 진시황에게 상소하여 삼신산으로 수천 명의 동남동녀를 데리고 떠났으나 결국 돌아오지 않은 일은 유명하다. 《史記 卷6 秦始皇本紀》

296 하늘이…하였으니 : 사백(詞伯)은 시문(詩文)의 대가를 말하고, 방백(方伯)은 관찰사를 말한다. 여기서의 모두 홍서봉을 가리킨다.

却主此山劃然放筆開鴻濛

산신령과 바다신은 모욕을 당해 곤경에 처하고 山靈海神困陵暴
걸출한 글귀는 곧 조화옹의 현묘한 공을 뺏으리

傑詞健句却奪造化真元功

산속의 신선도 그대의 풍도를 보면 낮빛을 잃고

山中仙人見君風標少顏色

산속의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은 그대의 화려한 문장을 만나면 정
수를 다 드러내리 山中風月遇君藻翰精神窮

산은 그대 때문에 더욱 기이해지고 山以君益奇

시는 산에 이르러 더욱 공교로워지겠지 詩到山愈工

절인 채소와 소금만 먹는 늙은 박사에게 어떠한가²⁹⁷ 何似齏鹽老博士

칼 한 자루 짚고 공동산에 기댈 길이 없구나²⁹⁸ 一劍無由倚崢嶸

원주에 머무는 딸 하나를 늘 가련히 여기니 每憐一女滯原城

4년을 만나지 못해 근심걱정 깊다네²⁹⁹ 不見四載憂心忡

봄에 배를 빌려 강을 오르면 좋을 터이니 春天雇船上江好

그대로 세류영³⁰⁰에 들러 우리 공을 찾으리 仍歷細柳尋吾公

297 절인...어떠한가 : 한유(韓愈)의 <송궁문(送窮文)>에 “태학에서 4년을 공부하며, 아침에는 절인 채소를 먹고 저녁에는 소금을 먹었네.[太學四年，朝齏暮鹽.]”라고 하였다. 여기서는 현주(玄洲) 자신의 신세를 말하는 듯하다.

298 칼...없구나 : 두보(杜甫)가 토번(吐蕃)의 침략을 막기 위해 공동산(崢嶸山)에 주둔하고 있던 가서한(哥舒翰)에게 보낸 <투증가서개부이십운(投贈哥舒開府二十韻)>에 “몸을 막는 장검 한 자루 짚고 공동산에 기댈고 싶다오.[防身一長劍，將欲倚崢嶸.]”라고 하였다.

299 원주에...깊다네 : 현주는 딸 하나를 원주에 있는 처남에게 4, 5년 정도 맡긴 적이 있었다. 《玄洲集 卷1 悼女》

300 세류영(細柳營) : 명장(名將)의 군영(軍營)을 뜻한다. 한 문제(漢文帝) 때 주아부(周亞夫)가 장군이 되어 군사를 세류에 주둔해 놓고 흉노

서로 이끌며 늙어 가는 계획을 이룰 수 있다면 提携終老計可遂
 흑시라도 선경에서 미천한 몸 깃들여 살 수 있으려나 倘許仙境棲微躬
 멀리 높고 큰 깃발 바라보니 高旌大旆遠望之
 동쪽으로 향하는 자색 기운은 무지개처럼 길구나³⁰¹ 紫氣東指長如虹

(匈奴)를 방비하였다. 그곳은 군령(軍令)이 대단히 엄격하여, 문제가 여러 군영을 두루 시찰한 뒤 유독 주아부를 일러 진장군(眞將軍)이라고까지 칭찬하였다. 《漢書 卷40 周亞夫列傳》 여기에서는 홍서봉의 군영을 말한다.

- 301 동쪽으로…길구나 : 함곡관(函谷關)의 관령(關令) 윤희(尹喜)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오는 자색 기운[紫氣]을 보고 성인이 올 것이라 기대하였는데, 과연 노자(老子)가 청우(靑牛)를 타고 왔다고 한다. 《列仙傳 上》《關令內傳》 여기에서는 홍서봉이 동쪽으로 가는 것을 빗대어 동쪽으로 향하는 자색 기운이라 말한 것이다.

용사³⁰²

龍梭

자황³⁰³의 궁전 안 베틀 위의 항아가 紫皇宮中機上娥
 봄날의 시름으로 괴로워 기늘고 긴 눈썹 찡그리네 惱着春愁嘖翠蛾
 비단 짜지 않고 너울너울 춤을 추다가 不織其錦爲婆娑
 장난삼아 옥사를 은하수에 던졌지 戲將玉梭投銀河
 공공의 노한 머리가 뾰족뾰족한 산에 부딪쳐³⁰⁴ 共工怒首觸嵯峨
 하늘 터지고 은하수 기우니 그 물 팔팔 쏟아졌다오 天缺河傾水滂沱
 비로봉과 형악에 자라와 악어가 사니 毗盧衡岳生鼃鼃
 모든 나라 백성들은 물고기처럼 입을 벌리고 뱉어냈다 萬國戢戢魚口呿
 우임금이 신속히 도끼를 휘둘러 파도를 가르니³⁰⁵ 禹斧揮霍開濤波
 백성들이 높은 등지에서 내려와 볍씨를 뿌렸다네 民下櫓巢播其禾

302 용사(龍梭) : 북[織梭]의 미칭(美稱)으로, 진(晉)나라 도간(陶侃)의 고사에서 비롯된 말이다. 도간이 젊었을 때 뇌택(雷澤)에서 물고기를 잡는데, 그물에 북 하나가 걸리기에 벽에 걸어 두었다. 그런데 잠시 후 천둥이 치고 비가 내리더니, 그 북이 용으로 변하여 날아갔다고 한다. 《晉書 卷66 陶侃列傳》

303 자황(紫皇) : 도교(道教)의 전설에 나오는 최고의 신선이다.

304 공공(共工)의...부딪쳐 : 옛날 공공이 전옥(顛頊)과 싸우다 화가 나서 머리로 부주산(不周山)을 들이받아 하늘을 떠받치는 기둥이 부러지고 땅을 묶어둔 밧줄이 끊어졌다. 이에 여와(女媧)가 오색 돌을 갈아서 하늘을 깎고, 자라의 다리를 잘라서 사극(四極)을 세웠다고 한다. 《淮南子 墜形訓, 覽冥訓》

305 우(禹)임금이...가르니 : 우임금이 구하(九河)에 길을 내어 범람을 막은 일을 말한다. 《사기(史記)》〈이사열전(李斯列傳)〉에 “우임금이 용문을 뚫어 구하를 소통시켰다.[禹鑿龍門, 疏九河.]”라고 하였다.

북은 그때 떠내려가다 뇌택(雷澤) 언덕에 걸렸는데 梭時泛浮掛雷坡
베 짜는 향아는 가져오고 싶었지만 어찌할 계책이 없었지

機娥欲將計無那

팔익³⁰⁶을 보내어 소용돌이치는 물결을 따라가게 하니 爲遣八翼沿盤渦
북을 낚아서 손으로 어루만졌네 釣得其梭手摩挲

금도 아니고 돌도 아니고 나뭇가지도 아닌데 非金非石非枝柯

머리부터 꼬리까지 꿈틀거리고 배는 커다랗더라 頭尾之蠕腹之蟠

산신령과 물속 요괴가 더는 보호하지 못하니 山靈水怪罷攝呵

조화웅은 풀이 죽고 하늘의 마귀는 깜짝 놀랐네 造化色沮驚天魔

벽 사이에 둔 지 얼마 되지 않아 置諸壁間無幾何

향아는 상제께 하소연하며 북을 용으로 만들어 주길 원했지

娥訴帝願龍其梭

잠깐 동안 벼락이 치고 꾸짖어 겁을 주는 듯하더니 斯須霹靂劫詬呵

북이 일어나 용이 되어 홀연 날아가 버렸네 梭起爲龍欸飛過

구멍도 없고 기울지도 않은 은하수까지 힘껏 날아올라 奮薄天河無缺蹉

다시 옛 베틀 곁에 둥지를 틀었구나 却傍舊機爲巢窠

손으로 비늘과 뿔을 꺾어 다시 갈더니 手拗鱗角更切磋

전처럼 오색 비단을 짜서 만들더라 依前織成五色羅

상제의 옷 지을 땀 다른 방법 쓰지 않고 爲裁帝衣非由佗

푸른 아지랑이와 붉은 놀에 다섯 군데를 꾸며서 꿰맨다네³⁰⁷

306 팔익(八翼): 도간이 여덟 개의 날개가 돌아 하늘로 올라갔는데, 하늘의 아홉 문 가운데 마지막 하나를 남겨두고 문지기에게 맞아 땅에 떨어지는 꿈을 꾸었다고 한다. 《晉書 卷66 陶侃列傳》 여기에서는 도간을 의미한다.

307 푸른…꿰맨다네: 《시경(詩經)》〈소남(召南) 고양(羔羊)〉에 “크고 작은 양의 가죽, 흰 실로 다섯 군데 꾸밈네.[羔羊之皮, 素絲五紝.]”라고 하였다.

이 일은 허황하지만 어찌 와전된 것이겠는가	翠靄丹霞縫五紵 此事恍惚傳豈訛
자허가 자랑할 만한 일 아니겠는가 ³⁰⁸	無乃子虛之所詫
도간공이 떠난 뒤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陶公去後歲月多
뇌택은 정녕 어느 산기슭에 있는가	雷澤定在何山阿
나는 이 북을 어루만져 보지 못해 한스러운데	我恨茲梭未撫摩
북쪽으로 바위 골짜기 바라보니 공연히 가파르구나	北望巖谷空陂陀
용사여 용사여 소리 높여 읊조리다가	龍梭龍梭費吟哦
붓을 잡고 용사가를 짓는다네	把筆爲作龍梭歌

308 자허(子虛)가…아니겠는가 : 사마상여(司馬相如)가 지은 <자허부(子虛賦)>에 가상의 인물 자허가 등장하여 초(楚)나라의 산천에 대한 과장된 자랑을 늘어놓는다. 뇌택도 초나라 땅에 속한 곳이므로, 자허를 들어 말한 듯하다.

성주화³⁰⁹

醒酒花

상림원에 봄이 돌아오자 갈고³¹⁰ 소리 시끄러운데 上林春回羯鼓催
 붉은 놀 너머 피꼬리 노래하고 제비 춤추네 鶯歌燕舞隔紅霞
 단정루³¹¹에서 취한 군왕을 부축하며 君王扶醉端正樓
 양귀비³¹²가 함께 난간에 기대 것은 해도 저물기 전 太眞同凭日未斜
 잔뜩 취했음을 함께 근심했지만 도리어 어쩔 수가 없어서

共愁酩酊却無賴

옥 계단의 꽃 한 가지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았지 愛看玉階一朵花
 향기를 맡다 저도 모르게 손으로 꺾어 드니 採香不覺手折持
 고운 이슬 함께 따라와 무궁화³¹³를 적셨네 芳露相將浥舜華
 현종의 얼굴과 양귀비의 뺨, 동시에 술에서 깨어 龍顏玉臉一時醒
 동풍 불어오는 비단 바른 창가에 일어나 섰다오 起立東風透窓紗

309 성주화(醒酒花) : 모란의 별칭이다. 당 현종(唐玄宗)이 화청궁(華清宮)에 행차했다가 숙취에서 깨어나 양귀비(楊貴妃)의 어깨에 기대어 함께 모란을 보았다. 이때 현종이 직접 모란 한 가지를 꺾어서 양귀비에게 주고는, 그 향기와 요염함이 술을 깨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한다. 《開元天寶遺事 醒酒花》

310 갈고(羯鼓) : 인도에서 기원한 타악기의 일종으로 서역(西域)에서 전해져 당나라 개원(開元)·천보(天寶) 연간에 성행하였다.

311 단정루(端正樓) : 화청궁에 있던 누각으로, 양귀비가 머리 빚고 세수 하던 곳이다. 《類說 卷1 端正樓》

312 양귀비 : 원문은 ‘太眞’인데, 태진은 양귀비의 호이다.

313 무궁화 : 원문은 ‘舜華’이다. 《시경》〈정풍(鄭風) 유녀동거(有女同車)〉에 “여자가 함께 수레를 타니, 얼굴이 무궁화 같구나.[有女同車, 顏如舜華.]”라고 하였는데, 그 주에 “순은 무궁화이다.[舜, 木槿也.]”라고 하였다. 여기에서는 무궁화처럼 고운 양귀비를 말한다.

취한 왕을 깨웠으니 어찌 이름이 없겠나	爲醒君醉惡無名
성주라 하사하니 그 이름 아름답다	錫以醒酒其名嘉
수많은 꽃이 낮빛을 잃었으니	千花萬花顏色死
이러한 황제의 총애가 이 비범한 꽃에 남아서라	寵渥如許留天葩
성주화는 그저 왕의 취기만 깨울 수 있었으니	醒酒花只解醒君醉
왕은 깨어났던가 깨어나지 못했던가	君其醒耶不醒耶
성주화가 술을 깨운 일은 좋았지만	醒酒花醒酒好
다시 왕의 사치스러운 마음을 깨우느니만 못했네	不如更醒君心奢
술을 깨게 했을 때 마음도 곧 깨어나게 했다면	若教酒醒心卽醒
북소리가 어찌 어양의 말채찍을 재촉했겠는가 ³¹⁴	鼙鼓詎催漁陽槌
아아아, 그때 어찌 천자만 깨웠겠는가	噫吁嘻當時豈獨天子醒
또 수왕이 있어 사람을 탄식하게 하는구나 ³¹⁵	更有壽王令人嗟

314 북소리가…재촉했겠는가 : 백거이의 <장한가(長恨歌)>에 “어양의 북 소리가 땅을 진동하며 다가오니, 황제가 놀라 예상우의곡을 중지하였지.[漁陽鼙鼓動地來, 驚破霓裳羽衣曲.]”라고 하였다. 이 구절은 안녹산(安祿山)이 어양에서 군대를 일으켜 당나라에 반기를 들었던 일을 말한다.

315 그때…하는구나 : 수왕(壽王)은 당 현종의 제18왕자 이모(李瑁)이다. 양귀비는 원래 수왕의 비(妃)였는데, 현종의 눈에 들어 그의 후궁이 되었다. 현종은 수왕에게 위소훈(韋昭訓)의 딸을 다시 비로 맞게 하였다. 《新唐書 卷5 玄宗本紀》 이상은(李商隱)의 <용지(龍池)>에 “궁중의 시간 길고 길어 한밤중에야 연회에서 돌아가는데, 설왕은 크게 취하고 수왕은 깨어났지.[夜半宴歸宮漏永, 薛王沈醉壽王醒.]”라고 하였다.

칼코등이³¹⁶를 바라보며

視刀環

화려한 옷과 금 부절, 가볍고 부드럽게 날리며 繡衣金節飄婀娜
 백룡퇴³¹⁷ 옛 요새의 물길을 나는 듯 건넜지 飛渡龍堆古塞水
 초소에서 한나라 사신이 왔다고 소리쳐 전하니 區脫傳呼漢使至
 오랑캐 기병이 구름처럼 몰려와 천 리를 에워쌌네 胡騎如雲擁千里
 수리 눈을 한 오랑캐는 푸른 외뿔들소의 갖옷을 입었는데

鷗眼胡奴青兕裘

바닷가 털 장막엔 변방³¹⁸의 바람이 이네 氈帳際海籩風起
 진한 술 천 잔에 곰과 이리의 회 大酒千鍾膾熊狼
 선우는 교만하지 않고 귀족들³¹⁹은 기뻐하더라 單于不驕賢王喜

316 칼코등이 : 원문은 ‘刀環’인데, 이것은 ‘환귀(還歸 돌아가다)’의 은어이다. 한 무제 때 이릉(李陵)이 흉노에게 항복하고 그곳에 살고 있었는데, 소제(昭帝)가 즉위한 뒤에 이릉의 친구 임입정(任立政) 등 3인을 흉노에 보내어 이릉을 데려오게 하였다. 임입정 등은 흉노의 선우가 베푼 주연(酒宴)에서 이릉을 보고도 사적인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이릉에게 자주 칼코등이를 보이면서 은밀히 ‘한나라로 돌아오라[還歸漢]’는 뜻을 암시했다. 그러나 이릉은 돌아가기는 쉽지 만 다시 모욕을 당할 수는 없다며 끝내 돌아가지 않고 20여 년 뒤 흉노에서 죽었다.《漢書 卷54 李陵列傳》

317 백룡퇴(白龍堆) : 중국 신강(新疆)의 천산(天山) 남쪽에 있는 사막이다. 이 사막은 원래 흉노의 영토 안에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북쪽 변방을 뜻하는 말로 쓰인다.

318 변방 : 원문은 ‘籩’인데, 국립중앙도서관 석판본 《현주집(玄洲集)》에 근거하여 ‘邊’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319 귀족들 : 원문은 ‘賢王’이다. 현왕은 흉노 귀족의 봉호로, 좌현왕(左賢王)과 우현왕(右賢王)이 있었다.《史記 卷110 匈奴列傳》

오랑캐 노래를 하고 오랑캐 춤을 추니	歌胡歌舞胡舞
눈에 띄는 것은 모두 한나라 사신을 즐겁게 하는 것이네	觸眼摠是娛漢使
좌중의 구석에 있는 저 사람은 누구인가	座中向隅彼何人
오랑캐 옷 입고 상투를 틀었구나	服胡之服椎髻子
말도 않고 웃지도 않은 채 비통함만 커져 가니	不言不笑增忉怛
한나라 이 장군임을 알겠다	知是漢家將軍李
서로 지긋이 바라보다 좌우를 살피는데	相看脈脈左右視
임금의 뜻을 저쪽에 알릴 길이 없네	聖意無緣喻諸彼
말을 하자면야 내가 입이 없는 것 아니지만	發言非是我無口
여럿이 듣는 가운데 오랑캐도 귀가 있으니 어찌나	群聽其如胡有耳
그대 눈에 눈짓하고 내 칼코등을 보니	目君之目視吾環
자주 눈짓하고 칼코등이 보는 건 참으로 이유가 있어서라네	數目視環良有以
칼로 결의를 보이고	刀以視斷意
고리로 돌아갈 이치를 분명히 하는 것	環以明還理
낯빛으로 할 뿐 말로 하지 않으니	以色不以言
정직하고 성실한 마음이 씩씩한 장수를 격동한다오	貞信激壯士
그만두게, 소군 ³²⁰ 은 칼코등이 보지 마라	已乎少君莫視環
남의 마음은 내 마음과 같지 않구나	人心不與吾心似
소군이여, 소군이여, 칼코등이 보지 말게	少君少君莫視環
죽어서 오랑캐 땅에 묻히는 것은 맹세한 일이라네	死葬蠻夷是所矢
눈으로는 칼코등이 보았지만 마음으로는 보지 못하였으니	目視環心不視

320 소군(少君) : 입입정의 자가 소공(少公)인데, 그것을 말하는 듯하다.
《漢書 卷54 李廣蘇建列傳》

아아, 소경³²¹은 영영 그만이로구나 咄少卿長已矣
그대 보지 못했나, 선우의 누대 아래 이릉의 무덤 君不見單于臺下李陵墳
푸른 풀 한 포기 없는 곳에 수없이 제사를 올리는 것 一草不青千千祀

321 소경(少卿) : 이릉의 자이다. 《漢書 卷54 李廣蘇建列傳》

양어사³²² 호 화상가

楊御史畫像歌 鎬

섬나라 오랑캐가 지난날 만 척의 배로 빠르게 내달려 島夷當年蹕萬艘
 끊임없이 동쪽으로 몰려오니 모두 죽임을 당했지 額額東偏被塵糟
 차마 종묘사직을 왜구에게 욕보이겠는가 忍將宗社辱腥臊
 우리 왕은 높은 하늘에 울며 하소연하였네 吾王泣訴天蓋高
 하늘이 깃발에 에워싸인 양공을 보내니 天遣楊公擁旌旄
 양공은 천 명 만 명의 호방함을 지녔더라 楊公千人萬人豪
 신선처럼 좋은 수염은 매서운 바람에 훑날리고 好鬚若神風颯颯
 젖혀 쓴 두건, 느슨히 맨 띠, 동물무늬 비단 도포라 岸幘緩帶獸錦袍
 마귀(麻貴), 유정(劉縱) 등 여러 장수들은 수고로이 전공을 세우는데³²³
 麻劉諸將汗馬勞

양공은 흰 먼지떨이와 깃 부채로 왜구 조무래기들 몰아냈지³²⁴

322 양어사(楊御史) : 명나라 장수 양호(楊鎬)로, 그는 1597년(선조30) 정유재란 때 경략조선군무사(經略朝鮮軍務使)가 되어 총병(摠兵) 마귀(麻貴), 부총병 양원(楊元) 등과 함께 참전하였다. 울산에서 벌어진 도산성(島山城) 전투에서 크게 패하였는데 이를 승리로 보고하였다가 거짓이 발각되어 파면되었다.

323 수고로이 전공을 세우는데 : 원문은 ‘汗馬勞’인데, ‘한마지로(汗馬之勞)’의 줄임말로 말이 땀을 흘린 노고라는 뜻이다. 주로 전쟁에서 세운赫赫한 공로를 가리킨다.

324 흰...몰아냈지 : 양호가 제갈량(諸葛亮) 같은 능력으로 크게 힘들이지 않고 전공을 세웠음을 말하는 듯하다. 삼국(三國) 시대 촉한(蜀漢)의 승상 제갈량은 소여(素輿)에서 윤건(綸巾)을 쓰고 흰 깃 부채(白羽扇)를 손에 든 채 삼군(三軍)을 지휘했다고 한다. 《山堂肆考 卷182 諸葛魔軍》 흰 먼지떨이(白拂)는 주로 불가(佛家)에서 설법할 때 손에 드는 도구이다. 황정견(黃庭堅)의 〈별장영숙(別蔣穎叔)〉에 “흰 먼지떨이와

白拂羽扇驅兒曹

장막의 제비와 개미굴 속 개미는 어디로 바삐 달아났는가³²⁵

幕燕穴蟻忙何逃

소굴에 숨어 두려워 움츠린 자들 고슴도치 털처럼 많았네

潛巢懼縮如蝟毛

기이한 계책을 내 군대를 힘껏 부리니 바람이 파도를 말아 올리
는 듯

出奇效兵風捲濤

입에 하무 물린 군사로 곧장 도산³²⁶의 해자를 공격했다오

銜枚直擣道山壕

때는 겨울이라 땅은 풍요로움을 거두었으니
오랑캐가 기갈 든 입으로 시끄럽게 부르짖는 것 웃으며 바라보았
지

時當玄冬土斂膏

笑看渴喙呼嗷嗷

푸른 빛 다 사라졌을 때 틈으로 엿보자 견양(犬羊) 같은 오랑캐가
슬피 울어댔으니

窮青闖竇犬哀嗥

봄날의 꽃 자랄 때 장군의 칼 시험하기를 기다렸다네
갑자기 찬비 내려 징과 북 젖는데

春菁佇試將軍刀

無端凍雨濕鉦鼓

용맹한 군사들의 손가락이 끊어질 듯하여 세찬 바람 근심했다오

壯士指落愁風饜

깃 부채로 가벼운 배를 따르네.[白拂羽扇隨輕舳]”라고 하였다.
325 장막의…달아났는가 : ‘장막의 제비’는 장막 위에 집을 지은 제비와
끓는 솥 속에 노는 물고기라는 뜻의 ‘막연정어(幕燕鼎魚)’의 줄임말
로, 지극히 위험한 상황에 처하였음을 비유한다. ‘개미굴 속 개미’ 역
시 곤경에 처했음을 비유하는 말이다. 두보의 <희문관군이임적경(喜
聞官軍已臨賊境)>에 “솥 안의 물고기는 아직 숨을 할딱거리고, 개미
굴 속 개미는 어디로 달아나려 하는가.[鼎魚猶假息, 穴蟻欲何逃.]”라
고 하였다.
326 도산(道山) : 올산의 도산(島山)을 말하는 듯하다.

이번에 공을 세우지 못한 건 시운이 그랬던 것 今之不功時所遭
황제는 어찌 포상해야 할 -원문 1자 결락- 공을 폄적했나³²⁷

皇胡貶公□可褒

공이 돌아가려고 동쪽을 떠날 때 활을 활집에 넣으니 公歸去東弓載囊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을 사모하여 부모라 불렀지 東人思之父母號

공이 돌아간 뒤 뉘와 함께 노닐었던가 自公之歸誰與翱

세월은 물처럼 끝없이 흐르더라 歲月如流水滔滔

공을 그리워해도 보지 못하니 근심스럽기만 한데 思公不見憂心切

성대한 공훈은 견고한 비석에 새기는 데 그치지 않았네³²⁸

豐勳不啻勒石牢

화상을 중국에서 사와 그 화려한 붓 솜씨에 기대고³²⁹ 雇像中州憑彩毫

327 이번에… 폄적했나 : 정유재란 때 양호가 여러 장수를 거느리고 적을 추격하여 가등청정(加藤清正) 울산의 경계인 도산책(道山柵)에서 포위하였는데, 적이 굳게 지켜 함락되지 않았다. 마침 큰 눈이 와서 사람과 말이 많이 얼어 죽고, 양식도 부족하기에 군사를 돌렸다. 이때 네 길로 나누어 진군하였는데, 도둑 마귀가 양호를 따라 가등청정을 치는 등 협공의 기세가 매우 성대하였다. 하지만 여러 장수들이 통제되지 않고 각기 요행을 바라다가 모두 패하거나 퇴각하였다. 이후 형개(邢玠) 군문(軍門)의 정응태(丁應泰)가 양호의 30가지 죄를 탄핵하여 양호가 관직에서 갈린 후 만세덕(萬世德)이 양호를 대신하여 왔다. 그러나 양호가 아랫사람을 통솔하는 데 기강이 있어 호령에 바람이 나니, 우리나라 사람이 칭송하였다. 《국역 동각잡기(東閣雜記) 하 본조선원보록(本朝璿源寶錄)》

328 성대한… 않았네 : 양호의 공덕을 기린 양호거사비(楊鎬去思碑)를 1610년(광해군2) 지금의 무악재인 사현(沙峴)에 세웠는데, 당시 이정귀(李廷龜)가 글을 짓고 김상용(金尙容)이 두전(頭篆)했으며 김현성(金玄成)이 글씨를 썼다.

329 화상을… 기대고 : 1604년(선조37) 양호를 선무사(宣武祠)에 배향하였는데, 이때 선조가 동지사(冬至使)에게 그의 화상(畫像)을 구해 오도록 하였다. 《宣祖修正實錄 37年 7月 1日》 선무사는 태평관(太平館)

다시 지은 새 사당은 수풀 속에 모습을 드러냈다고 更起新祠敵林阜
 그 정신이라도 어찌 황량한 곳에 깃들게 하겠는가 精爽豈肯依蓬蒿
 촌 늙은이도 뛰어난 인물을 사모할 줄 알아서 村翁亦解景英髦
 1년 중 복제와 납제 땀 새끼 양을 삶는다네³³⁰ 歲時伏臘烹羊羔
 별 같은 눈동자, 검 같은 눈썹, 뛰어난 병법³³¹ 星眸劍眉龍虎韜
 날쌔 매가 고운 끈을 떠난 것처럼 솟구쳐 올랐지 聳似快鷹辭璇條
 만 겹의 천제(天帝) 궁은 운라³³² 소리 너머에 있는데 萬重清都隔雲璈
 공은 지금 어디에서 노니나 公今何處以遊遨
 아아아, 가까이서 화상을 보는 것도 외람되다 할 터이니

噫吁嘻得近丹青亦云叨

속된 말이 어찌 시경과 초사의 반열에 오를 만하랴 俚語豈合登風騷

서쪽에 있는데, 1598년(선조31)에 세웠다. 속칭 생사당(生祠堂)이라고 하는데, 형개를 제사 지내기 위해 세운 곳이었다. 어필로 '재조번방(再造藩邦)' 네 글자를 써서 걸었다. 1604년에 양호도 배향되었는데, 1610년(광해군2)에 그의 화상이 봉안되었고 이정귀가 큰 비문을 지었다.《新增東國輿地勝覽 卷1 京都》

- 330 1년…삶는다네 : 한 선제(漢宣帝) 때의 중랑장(中郎將) 양운(楊惲)이 언사(言事)로 쫓겨나서 서인(庶人)이 되어 집에 있을 때 친구 손회중(孫會宗)으로부터 충고의 편지를 받았다. 그가 손회중에게 보낸 답서에 “신이 죄를 얻은 지 이미 3년입니다. 농촌에서 고생스레 농사를 짓다가 1년 중 복제(伏祭)와 납제(臘祭) 때는 새끼 양을 삶고 곱고 하여 말술을 마시며 스스로 위로합니다.[臣之得罪, 已三年矣. 田家作苦, 歲時伏臘, 烹羊魚羔, 斗酒自勞.]”라고 하였다.《漢書 卷66 楊敞列傳》
- 331 뛰어난 병법 : 원문은 ‘龍虎韜’이다. 용도(龍韜)와 호도(虎韜)는 태공망(太公望)의 병법서인 《육도(六韜)》의 일부로, 병서, 병법, 전략 등을 가리킨다.
- 332 운라 : 원문은 ‘雲璈’인데, 이것은 운라(雲鑼)라는 타악기이다. 작은 접시 모양의 징 열 개를 나무틀에 매달고 나무망치로 쳐서 소리를 낸다.

알성행

謁聖行

계축년(1613, 광해군5) 4월 어느 날 낭주(朗州 영암)에 있을 때, 신해익(愼海翊)³³³이 알성시에 장원 급제하여³³⁴ 어가(御駕) 앞에 나아가니 왕이 화려한 옷을 하사하고 어마(御馬)에 태워 오전 내내 장원이 났다고 외치게 하였다는 소식을 듣고는 바로 시를 지었다.

물시계³³⁵의 물이 무거워져 신속히 화살을 토해 내니³³⁶銅壺浪重吐箭迅
붉은 누각에선 종소리 크게 울려 푸른 하늘 끝까지 가네

333 신해익(愼海翊) : 1592~1616. 자는 중거(仲舉), 호는 병은(病隱). 아버지는 신인(愼謹)이며, 어머니는 이용(李溶)의 딸이다. 1613년(광해군5) 22세로 알성문과에 장원 급제하였다. 시작(詩作)에 뛰어나 일찍이 왕이 탄 수레 앞에서 시를 읊으니, 그 단정한 풍채와 낭랑한 음성을 보고 듣는 사람들이 모두 비선(飛仙) 같다고 감탄하였다고 한다. 성균관 전적이었으나 홀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하여 사직하고 고향에 돌아갔다. 몇 년 뒤 신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서울로 왔다가, 예조좌랑 겸 춘추관기사관에 임명되었으나 병이 갑자기 악화되어 25세로 요절하였다.

334 계축년…급제하여 : 1613년(광해군5) 4월 18일에 신해익 등 5명이 알성시에 합격하였다. 《光海君日記 5年 4月 18日》

335 물시계 : 원문은 ‘銅壺’인데, 문맥에 근거하여 ‘壺’을 ‘壺’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336 물시계의…내니 : 동호(銅壺)는 물시계이다. 구리로 병을 만들어 물을 채운 다음 아래 구멍을 열어 놓으면 양쪽 병으로 물이 떨어지는 데, 오른쪽 병은 밤에 해당하고 왼쪽 병은 낮에 해당한다. 《初學記 25 漏刻》 고대 물시계 가운데에는 규룡(虯龍) 무늬가 새겨진 화살이 들어 있는데, 물이 가득 차면 화살이 나와 그것으로 시간을 계산하였다.

鯨吼紅樓碧霄盡

별을 이고 들어간 화려한 수레 덮개는 고운 노을 속에 썼고
 戴星華覆彩霞中
 조정 신료들은 반열을 따라 금선³³⁷을 안았네 內臣隨班抱金扇
 호위대가 먼저 대사마³³⁸를 인도하고 羽衛先導大司馬
 동쪽 신이 아침놀 열자 푸른 제단이 밝아지네 東皇開殿明碧墀
 예를 갖추 공자를 뵈는 자리, 홀을 찬이들 가지런한데 禮見宣尼佩笏齊
 문을 논하고 무를 강습하며 재주 있는 선비 뽑았다오 論文講武掄才彥
 구슬 장식 안장, 수놓은 재갈, 금으로 된 월제³³⁹ 珠鞍繡勒金月題
 살지고 윤기 나는 하늘의 용은 발굽에서 구름이 일어난다
 天龍濯濯雲生蹄
 하늘에서 첫 번째 신선을 불러내니 自天唱出第一仙
 과거 급제한 이의 붉은 얼굴³⁴⁰이 매미 날개 같은 귀밑머리에 빛나네
 丹桂赭顏輝鬢蟬
 우뚝하게 공을 세워 옥 재갈 물린 말을 타고 도니 攬巖峻功旋玉虬
 대낮에 오색구름이 서로 이어졌구나 白日五色雲相連

337 금선(金扇) : 금시선(金翅扇)을 말하니, 옛날에 제왕이나 관원들이 쓰던 의장용 도구 중 하나이다.

338 대사마(大司馬) : 병조 판서를 말한다.

339 월제(月題) : 말 이마에 붙이는 달 모양의 장식이다. 《장자(莊子)》〈마제(馬蹄)〉에 “말에게 가로나무와 멩예를 달고 이마에 월제를 붙여서 가지런히 정돈하다.[夫加之以衡扼, 齊之以月題.]”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340 붉은 얼굴 : 원문은 ‘赭顏’인데, 나이 어린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나이 어린 사람의 뺨이 붉고 윤기 나는 데서 비롯된 말이다.

보리 익는 시절

麥秋

푸르고 푸른 저 치켜든 보리는 대맥 소맥이 모인 것 靑靑昂麥族來牟
눈서리 어지럽게 졌는데도 밭두렁에 가득하네 雪霜貿貿猶盈疇
겨울에 짝이 돌아나는 공을 뻑뻑이 이루더니 玄冬密成函活功
봄이 깊자 높은 보리 물결 하늘에 닿도록 떠 있네 春深高浪接天浮
백로는 낮에 내려와서 물고기를 엿보려하고 白鷺晝下欲窺魚
행인은 저녁에 지나며 배를 잘못 불렀네 行人暝過錯招舟
밭두둑에 안개 걷히자 어린 들꿩이 소리 내고 壟脊煙收呼乳雉
뽕나무 꼭대기에 해 높이 뜨자 비둘기³⁴¹ 우네 桑巔日高鳴晴鳩
사월에 보죽한³⁴² 보리 까끄라기 비로소 노랗게 되고 四月漸漸芒始黃
오월에 실로 알이 차서³⁴³ 보리 익는 시절이 되었네 五月實粟成高秋
농부는 허리에 낫을 차고 아낙네는 들밥을 이니 田夫腰鎌婦戴盬
못사람들이 보리를 베어 언덕처럼 쌓았네 衆芟群刈堆陵丘
마당에 옮겨 끌어안고 치니 땀 방울방울 떨어지는데 登場擁捶汗滴滴
신속히 탁탁 쳐서 천 상자를 바치네³⁴⁴ 揮霍魄魄千箱輸

341 비둘기[晴鳩] : 날씨가 갠 것에 감응하는 비둘기이다. 비둘기는 비가 오거나 날씨가 개면 울어대는데 꺾 때 우는 비둘기를 청구(晴鳩)라고 한다. 비둘기는 비오고 꺾 때를 알려주기에 우구(雨鳩)라고도 한다.

342 보죽한[漸漸] : 원문의 '점점(漸漸)'은 보리의 수염인 까끄라기 모습을 형용한 말이다.

343 실로 알이 차서 : 보리 알곡이 여물었다는 말이다. 《시경》〈생민(生民)〉에 “실로 토실토실해지고 실로 좋게 되며, 실로 까끄라기 생기고 실로 알이 짝 찼네.[實堅實好, 實穎實粟.]”라는 말에서 유래하였다.

344 천 상자를 바치네 : 수확한 보리를 관가에 보낸다는 의미이다.

밭의 온갖 농작물은 모두 여름철 작물인데 畦頭百稼揔朱夏
 홀로 누에치기와 더불어 가을 신³⁴⁵을 맞았군 獨與蠶功迎蓐收
 새 보리 먹을 때 일찍이 옛 사적에 감개했는데³⁴⁶ 食新曾憑古史弔
 향기로운 보리떡은 몇 번 시인의 노래로 들어갔다³⁴⁷ 香餅幾入騷人謳
 천자가 허둥지둥할 때 오히려 주린 배를 채웠거늘³⁴⁸ 天子蒼黃尙飽飢
 누가 독서하며 빗물에 보리 잠기는 걸 잊었던가³⁴⁹ 讀書何者忘沈流
 농가의 풍년은 이를 얻어 증험하였고³⁵⁰ 田家大有得此驗

- 345 가을 신 : 원문의 ‘육수(蓐收)’는 고대 전설 속에 나오는 서방(西方)의 신(神)으로, 가을을 주관한다. 금신(金神)이라고도 한다. 《禮記 5卷 月令》
- 346 새…감개했는데 : 진(晉) 경공(景公)이 증병에 걸렸는데 상전(桑田)의 무당에게 물어보니 올해의 보리를 먹지 못하고 죽으리라고 예언하였다. 경공은 병이 골수에 맺히자 새 보리를 바쳐 밥을 짓게 하고 예언이 틀렸다는 이유로 무당을 죽이려 하였는데 보리밥이 되기 전에 측근에서 사망하고 말았다. 《春秋左氏傳 成公10年》
- 347 향기로운…들어갔다 : 소식(蘇軾)의 〈남원(南園)〉시에 “뽕나무 밭둑에 비 지나니 비단이 번지르르하고, 보리밭 고랑에 바람 부니 떡 내음 향기롭네.[春疇雨過羅紈膩, 麥壟風來餅餌香.]”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 348 천자가…채웠거늘 : 후한 광무제가 대사마였을 때 왕낭(王郎)에게 쫓겨 추운 날 무루정(蕪蘼亭)에 이르렀는데 풍이(馮異)가 팔죽을 올렸다. 또 도망하여 호타하(滹沱河)를 간신히 건넜을 때는 풍이가 보리밥을 올렸다. 광무제가 천자가 된 뒤 풍이에게 많은 재물을 주며 “창졸간에 무루정의 팔죽과 호타하의 보리밥을 마련해 준 그 후의를 오래도록 갚지 못하였다.” 하였다. 《後漢書 光武帝本紀》
- 349 독서하며…잊었던가 : 비가 와도 개의치 않고 오직 독서에만 열중했다는 말이다. 고봉(高鳳)은 한(漢)나라 때 사람으로 자(字)가 문통(文通)이다. 한번은 아내가 밭에 가면서 마당에 보리를 넣어놓고, 그에게 닭을 보라고 부탁하였는데, 마침 비가 와서 보리 멍석이 떠내려갔으나 그는 그런 줄도 모르고 장대만 들고 글을 읽었다고 한다. 《後漢書 卷113》
- 350 농가의…증험하였고 : 보리가 한 즐기에 두 이삭이 달리는 것은 곧

몇 번이나 보리가 없다고 쓴 춘추를 보며 근심했던가³⁵¹

筆無幾對麟經愁

군주는 백성에 의지하고 백성은 농사를 근본으로 삼으니

君依於民民本農

보리가 농사의 근본으로 군주를 편안하게 하지

麥爲農本安君侯

아아 우리 임금 성스럽고 신령하여 누대의 성덕을 이었으니

噫吁嘻吾君聖神屬重光

보리 한 줄기에 두 이삭이 어찌 한나라 경사일 뿐이라兩岐豈但皇漢休

풍년이 들 길조(吉兆)라고 한다. 후한(後漢) 때 장감(張堪)이 어양 태수(漁陽太守)로 있을 적에 백성들에게 부지런히 농사를 짓도록 권면하여 백성들이 부(富)를 이루게 되자, 백성들이 노래하기를 “뽕나무는 서로 붙은 가지가 없고, 보리는 한 줄기에 두 이삭이 달려 나오네. 장군이 정사를 하매, 즐거움을 감당할 수 없도다.[桑無附枝, 麥穗兩岐. 張君爲政, 樂不可支.]”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後漢書 卷31 張堪列傳》

351 보리가…근심했던가 : 《춘추좌씨전》 장공(莊公) 28년 조에 큰 흉년이 들어 보리나 벼 등의 곡물이 멸절된 상태가 되자 ‘대무맥화(大無麥禾)’라고 썼다.

산단화³⁵²가

山丹花歌

꽃이 무성하여 한 떨기를 이루니	有花蓊鬱成一叢
관아 담장 동쪽에서 자라네	生在郡衙之墻東
천 개의 가지 휘돌아 구렁이 어지럽게 달리는 듯	千條蜿蟺虵亂走
만 개의 줄기 얽히고설켜 동굴에 뱀이 서린 듯	萬柯糾繆蟠蛇空
십 묘의 동산에 그늘 드리우고 그림자 떨구니	垂陰落影十畝園
덩굴에 가지 있음이여 잎은 청록빛이라네	蔓有刺兮葉青蔥
못 꽃들과 이웃하고 여러 나무들과 벗하였으니	與隣凡卉友叢林
속세에서 도무지 특이한 향기가 없네	了無異香塵埃中
앞에 복숭아 뒤에 자두 사이엔 살구와 배	前桃後李間杏梨
서로 들쭉날쭉 한 채로 일제히 피어 번갈아 빛나네	交開迭輝相參差
이때 광채를 간직한 채 하나의 꽃도 없으니 ³⁵³	此時含光無一萼
벌은 떠나고 나비는 지나가며 서로 깔보았네	蜂行蝶過相輕欺
하룻밤 비바람이 미친 듯 사납게 불어오자	一夜風雨狂且惡
복숭아 살구 자두 배 꽃들은 어디에 떨어졌나	桃杏李梨何處落
잠시 못꽃들이 다 떨어진 뒤를 틈타	聊趁群花飛盡後
비로소 기이한 향기 토하며 붉은빛이 가지에 가득하네	始吐奇芬紅滿枝

352 산단화(山丹花) : 산단화는 일반적으로 백합의 일종인 하늘나리를 가리킨다. 그런데 여기에 묘사된 꽃은 산당화(山棠花), 즉 명자꽃을 가리키는 듯하다. 키가 1-2m 정도로 작은 낙엽성 관목인 명자나무에서 핀다. 봄에 주홍빛 꽃들이 줄기 끝이나 마디 사이에서 다발로 모여 피며 꽃에서 부드러운 향기가 난다. 화단의 경계수로 많이 쓰이며 가지가 있어 울타리용으로도 좋다.

353 이때...없으니 : 산단화가 하나도 피지 않은 상황을 묘사한 것이다.

붉은 뺨 진홍색 보조개에 노란 수염 솟았으니	丹頰絳靨抗鬚黃
간 날 대낮에 빛나 하늘빛에 이어졌네	照耀晴晝連天光
처음엔 분홍 장막이 담을 높이 둘러친 게 아닌가 했다가	初疑繚帟繞垣高
다시 자줏빛 수레 덮개가 하늘에 솟아 펼쳐진 걸 의아해했네	更訝紫蓋衝霄張
혹은 부귀한 이가 비단 시령을 펼쳐	或如貴介開錦棚
담요와 행주가 천 층 높이로 붉은 듯하고	氈氍幡帟紅千層
혹은 신선이 단구 ³⁵⁴ 에서 노닐 때	或如羽人仍丹丘
붉은 노을 자줏빛 안개가 서로 엉겨 있는 듯하네	彤霞紫霧交相凝
만약 자줏빛 깃발과 붉은 깃발이 아니라면	若非紫纛與赤幟
바로 핏빛 붉은 치마가 아니던가	無乃血色羅裙裳
멀리서 볼 땐 눈에 아른거리는 것에 먼저 놀랐는데	望之先驚眼生翳
다가갈 때엔 오히려 불꽃이 날리는 걸 근심했네	近之猶愁火焰揚
향기들이 날리고 퍼져 십 리 밖에서도 맡으니	飛芬播芳聞十里
비로소 붉은 꽃이 신령함을 지닌 걸 알겠네	始覺朱英擅靈異
벌떼 나비들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蜂徒蝶子悔昨非
새들은 맞아줌에 감사하며 어지럽게 나는구나	謝邀飛鳥紛飛飛
나 이제 병든 몸 부지해 억지로 지팡이 짚고 산보하니	我今扶病強杖履
꽃을 수없이 돌면서 한 번 탄식하도다	繞花百匝成一唏
꽃의 신에게 너는 누구냐고 물으니	爲問花神爾誰耶
꽃의 신이 나는 산단화라 말하네	神言我是山丹花

354 단구(丹丘) : 단구는 밤이나 낮이나 항상 밝은 땅으로, 선인(仙人)이 산다는 전설 속의 지명이다. 굴원(屈原)의 <원유(遠遊)>에 “우인을 따라 단구에서 노닐이여, 죽지 않는 옛 고향에 머물렀도다.[仍羽人於丹丘兮, 留不死之舊鄉.]”라고 하였다. 《楚辭 卷5》

내 일찍이 일이 없어 화보를 탐구했는데
산단화가 못꽃들 중에 가장 열등하였네
내 오늘 살펴본 바로는
바르고 아름다워 화왕³⁵⁵ 밑에 있지 않네
꽃피는 일이 이미 끝난 게 어찌 아니라마는
네 홀로 빈자리를 채워 사람들에게 보게 하누나
꽃이여 꽃이여 어찌 유독 너뿐이라
세상만사가 유사하지 않음이 없도다
성함과 쇠함 취함과 버림이 한때에 있노니
이 꽃이 특이한 향기 없었던 일 비웃지 말라
사람들은 산단화를 취하지 않지만
내 너를 위해 노래하니 진실로 인연이 있도다

我曾無事究花譜
山丹最劣於群葩
以余所觀今日者
躑麗不在花王下
得無春事已闌殘
爾獨承乏令人看
花乎花乎豈獨爾
世間萬事無不似
榮枯取捨在一時
莫笑此花無異氣
山丹之花人不取
我爲爾歌良有數

355 화왕(花王) : 꽃 중의 왕으로 모란을 지칭한다.

선비를 사랑하는 벽³⁵⁶ 과제

愛士癖 課題

벽에는 개와 말을 사랑하는 게 있으니 癖有愛狗馬

개에는 한로³⁵⁷가 있고 말에는 녹이³⁵⁸가 있다네 狗有韓盧馬駮駟

벽에는 꽃과 돌을 사랑하는 게 있으니 癖有愛花石

돌은 그 기이함 때문이고 꽃은 아름다움 때문일세 石以其奇花以麗

개와 말 꽃과 돌은 사랑함에 진실로 까닭이 있으니

狗馬與花石愛之良有以

누군들 사랑하는 바가 이와 다르랴 何人所愛異諸此

그 사랑할 만한 점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는 것은 不愛其愛

오직 선비를 사랑함일세 惟愛士

주는 바가 없는데도 이름을 듣고 성을 기억하며 聞名記姓無所遺

편언척자에도 저자에 가듯 사람들이 줄을 잇네 片言隻字如歸市

아름다운 시문에 빛나는 성가가 치솟으니 佳篇麗什聳光價

모두 그의 능력을 드러낼 뿐 누가 그의 기예를 버리랴 舉顯其能誰廢技

공도 진실로 선비를 사랑해 사랑이 벽이 되었지만 公誠愛士愛成癖

선비를 사랑하는 정성은 여기에 그쳤네 愛士之誠止于此

공이 만일 선비를 사랑하되 정성으로 사랑한다면 公如愛士愛以誠

어찌서 글을 올려 천자에게 추천하지 않는가 胡不上書薦天子

356 벽(癖) : 어떤 것을 너무 지나치게 즐기는 기호나 버릇을 말한다.

357 한로(韓盧) : 한로는 전국(戰國) 시대 한(韓)나라에서 나던 명견(名犬)이다. 《戰國策 秦策》

358 녹이(駮駟) : 녹이는 귀가 푸른 천리마로, 주 목왕(周穆王)의 팔준마(八駿馬) 가운데 하나였다.

내 들으니 고요와 기³⁵⁹는 일찍이 선비를 사랑하여 吾聞臯夔曾愛士
 원개³⁶⁰를 천거해 시종일관 함께 하였다지 爲舉元凱相終始
 또 들으니 두 공³⁶¹도 선비를 사랑하여 又聞二公亦愛士
 열 명의 치신³⁶²을 천거해 치적에 도달했다네 爲舉十亂臻治理
 진실로 선비를 사랑하는 데 벽이 있다 하려면 誠能愛士之有癖
 본래 마땅히 이처럼 해야 하고 또 저처럼 해야 하네 固宜如茲又如彼
 공이 이제 벽이 있되 벽이 진실 되지 않으니 公今有癖癖不誠
 선비 사랑 선비 사랑 부질없이 하는 일일뿐 愛士愛士徒爲耳
 공이 선비를 사랑함은 개와 말을 사랑함만 못하니

公之愛士不如愛狗馬

개와 말은 그래도 사슴과 멧돼지를 쫓을 수 있게 하였고

狗馬猶能逐鹿豕

공이 선비를 사랑함은 꽃과 돌을 사랑함만 못하니

公之愛士不如愛花石

꽃과 돌은 그래도 눈길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했지 花石猶能娛目視

359 고요(臯陶)와 기(夔) : 모두 순(舜) 임금 때의 어진 신하들이다. 고요는 구관(九官) 가운데 한 사람으로, 법을 세우고 형벌을 제정하였으며 옥(獄)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는 법의 집행을 맡은 사사(士師)였다. 기는 교육과 음악을 전담한 전악(典樂)이었다. 천자와 경대부의 아들을 가르쳤으며 후기(后夔) 또는 일기(一夔)라고도 한다.

360 원개(元凱) : 옛날 중국 요(堯) 임금 때 고양씨(高陽氏) 아들 여덟이 다 어질고 재능이 있어 백성들이 그들을 일러 팔개(八凱)라고 하고, 고신씨(高辛氏)에게도 그러한 아들 여덟이 있었는데 그들을 팔원(八元)이라 했다. 《春秋左氏傳 文公18年》

361 두 공 : 주나라 초기 정사를 담당했던 주공(周公)과 소공(召公)을 가리킨다.

362 열 명의 치신(亂臣) : 공자는 주(周)나라에 인재가 많았다고 하며, “나에게 나라를 잘 다스린 신하 열 사람이 있었다.[予有亂臣十人.]”라는 무왕(武王)의 말을 인용하였다. 《論語 泰伯》

개와 말 꽃과 돌만 못하니	不如狗馬與花石
사랑함을 어디에 쓸 것이며 이들을 어디에 쓰라	安用愛之烏用是
선비를 사랑하는 벽 선비를 사랑하는 벽	愛士癖愛士癖
선비를 사랑한다는 명성은 부질없을 뿐이라네	名愛士徒爾已

상여가 그릇을 씻는³⁶³ 그림에 쓰다

題相如滌器圖

저잣거리 분잡하고 사통팔달 큰길이 둘러쌌으니 闐闐雜沓繞康莊
 바퀴통 부딪치고 어깨 스치며³⁶⁴ 다투어 이익을 취하네 轂擊肩摩爭射利
 여인 단장하고 사내는 꾸며 다양한 아름다움 자랑하고

女粧士飭耀彩媚

화려한 비취와 구슬 꽃은 열 지은 점포에서 뿜내네 錦翠珠華誇列肆

그중에 누가 야윈 채 더위를 먹고 있나 就中何者瘦且渴

너털너털 누더기 옷에 쇠코잠방이³⁶⁵를 입었네 衣如懸鶉禪犢鼻

장부가 어찌 입에 풀칠할 계책이 없으라마는 丈夫豈無糊口計

스스로 누 앞에 앉아 그릇을 씻고 있네 自向樓前坐滌器

동문에서 오이를 심던³⁶⁶ 부류와는 다르고 不似靑門種瓜流

363 상여(相如)가 그릇을 씻는 : 한(漢)나라 때 사마상여(司馬相如)가 탁문군(卓文君)을 아내로 삼아 고향인 성도(成都)로 돌아갔으나, 집이 매우 가난하여 사면(四面)으로 벽만 둘러 있는 형편이었다. 그는 탁문군과 함께 임공(臨邛)으로 가서 목로 술집을 마련하여 탁문군은 술을 팔고, 자신은 남의 고용인(雇傭人)이 되어 시중(市中)에서 그릇 닦는 일을 했다. 《史記 卷117 司馬相如列傳》

364 바퀴통…스치며 : 《사기(史記)》 권69 〈소진열전(蘇秦列傳)〉에 “임치의 거리는 수레바퀴가 서로 부딪치고 사람들의 어깨가 서로 스칠 만큼 복잡합니다.[臨菑之塗, 車轂擊, 人肩摩.]”라고 하였는데 사람과 수레가 많은 번성한 도시를 표현한 말이다.

365 ²⁴² 쇠코잠방이 : 원문에 ‘휘(禪)’로 되어 있으나 문맥상 ‘곤(禪)’의 오기이므로 수정하여 번역하였다. 쇠코잠방이는 베로 단지 허리 앞만 가리고 뒤로 돌려 맨 옷이다. 《漢書 司馬相如傳 犢鼻禪注》

366 동문에서 오이를 심던 : 진(秦)나라 소평(邵平)의 고사를 인용한 것이다. 소평이 일찍이 동릉후(東陵侯)에 봉해졌는데, 진나라가 멸망한

성도에서 점복으로 생활하던 이³⁶⁷와도 어찌 견주랴 豈與成都賣卜比
알겠네 이 사람은 아이 때 견자라고 불렸고 知是兒時號犬子
길이 인상여 사모하여 이름도 같게 한 사람인 줄³⁶⁸ 長慕相如名不異
-원문 2자 결락- 탁왕손³⁶⁹이 주연을 베풀던 곳 □□王孫置酒處
주렴 너머 구름과 비³⁷⁰는 어디에서 왔는가 隔簾雲雨來自白
금대³⁷¹에서 세월이 바삐 내닫는 대로 맡겨두더니 琴臺日月任奔忙
장부의 모습은 매우 초췌해졌네 丈夫形容苦憔悴
그대 집안에 금과 비단이 어찌 쌓여 있지 않으랴만 君家金帛豈不堆
그대 집안의 아버지는 나를 생각지 않는구려 君家大人不我思

뒤에는 평민의 신분이 되어 장안성(長安城)의 청문(靑門) 밖에다 오이를 심어 가꾸며 조용히 은거하였다. 그런데 그 오이가 맛이 좋기로 유명하여, 당시 사람들로 부터 동릉과(東陵瓜)라고 일컬어졌다. 청문은 곧 동문(東門)과 같은 뜻이다. 《史記 卷53 蕭相國世家》

- 367 성도(成堵)에서...이 : 전한(前漢)의 술사(術士) 엄준(嚴遵)은 자가 군평(君平)인데, 촉 땅 성도(成都)에서 점복(占卜)으로 생활하면서 하루에 100전만 벌면 더 이상 손님을 받지 않고, 방 안에 들어앉아 《노자(老子)》 강의와 저술에 전념했다고 한다. 《漢書 卷72 王貢兩龔鮑傳》
- 368 이 사람은...줄 : 사마상여는 어릴 때부터 독서와 검술을 좋아하였으므로 그 부친이 예뻐하여 ‘견자’라고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나중에 전국 시대 조(趙)나라 인상여(蘭相如)의 인품을 흠모하여 ‘상여’라고 개명하였다. 《史記 卷117 司馬相如列傳》
- 369 탁왕손(卓王孫) : 사마상여가 일찍이 임공령(臨邛令)으로 있던 친구 왕길(王吉)을 찾아갔다가 그의 주선으로 임공의 부호인 탁왕손의 집에 초대를 받아 갔는데 탁왕손은 잔치를 열어 그를 환대하였다. 탁왕손은 사마상여 아내인 탁문군의 부친이다.
- 370 구름과 비(雲雨) : 전국 시대 초나라 회왕(懷王)이 낮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무산(巫山)의 신녀(神女)와 운우지정(雲雨之情)을 나누었다는 조운모우(朝雲暮雨)의 고사에서 나온 것이다. 여기서는 사마상여와 탁문군의 밀회를 말한다.
- 371 금대(琴臺) : 사천(四川) 성도(成都) 완화계(浣花溪) 가에 있던 대(臺) 이름으로 사마상여가 여기에서 금(琴)을 연주하였다고 한다.

그대와 나 서로 이끌고 갈 때 발길이 위태로우니 携將君我蹤跡危
 이 생애 어느 곳이 몸을 기를 곳인가 此生何處資身地
 미인이 오히려 술 파는 아낙이 되었으니 蛾眉尚作沽酒姑
 술 팔 때 직접 그릇 씻는 일 피할 바가 아니로세 親滌當壚非所避
 온 시장의 귀한 재화는 미천한 이에게 돌아갔지만 舉市貴貨還賤士
 누가 사람마다 양의³⁷²가 되게 하리오 誰使人人作楊意
 아아 장문에서 그날 상여의 부를 사던 때³⁷³ 噫吁嘻長門當日買賦時
 만일 이 그림을 보았다면 아마 눈물을 뿌렸으리 倘見此畫應洒淚

372 양의(楊意) : 양의는 사마상여를 무제에게 소개한 양득의(楊得意)를 말한다. 한나라 무제(武帝)가 사마상여의 〈자허부(子虛賦)〉를 보고는, “짐은 어찌하여 이런 글을 짓는 사람과 같은 시대에 살지 못한단 말인가.” 하고 탄식하자, 양득의(楊得意)가 같은 고을 사람인 사마상여가 지은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무제가 사마상여를 궁중으로 불러들여 만나 보았다고 한다. 《史記 卷117 司馬相如列傳》

373 장문(長門)에서…때 : 장문은 한(漢)나라 궁궐 이름이다. 한 무제(漢武帝)의 진 황후(陳皇后)가 처음에는 남달리 총애를 받다가 뒤에 투기로 인하여 장문궁(長門宮)으로 쫓겨나 쓸쓸히 지내면서 시름과 슬픔으로 나날을 보냈다. 이때 벼슬길에 오르지 못했던 사마상여(司馬相如)가 글을 잘 짓는다는 말을 듣고 황금 백 근을 주어 〈장문부(長門賦)〉를 짓게 하여 다시 황제의 총애를 얻었다고 한다. 《文選 卷8》

시가 완성되자 금포를 하사하다³⁷⁴ 과제

詩成賜錦袍 課題

바람은 일산 덮개를 에워싸고 피리 북소리 흐느끼는데 風擁華芝簫鼓咽
 화려한 산 위의 흰 해는 깃발을 환히 비추네 錦岫白日明羽旄
 제왕³⁷⁵은 푸른 제사 터에서 구름 색채를 바라보다가 凝旒碧墀望雲物
 커다란 복숭아나무 아래서 서왕모의 편지를 열어보네³⁷⁶ 王母手函開洪桃
 하늘에서 제왕의 간절한 말씀이 내려와 天閒玉語下丁寧
 글 짓는 신하 재촉해 화려한 붓을 내달리게 했네 催却詞臣飛彩毫
 누구인가 기묘한 글귀로 먼저 봉황을 토한 이³⁷⁷는 伊誰幻句先吐鳳
 동방학사³⁷⁸가 외람되어 은혜를 입었네 東方學士蒙恩叨

374 시가…하사하다 : 이는 당(唐) 측천무후(則天武后) 고사를 배경으로 한 시이다. 당(唐)나라 무후가 용문(龍門)에서 노닐 때 시를 맨 먼저 지은 동방규(東方虬)에게 금포(錦袍)를 하사했으나, 조금 뒤에 송지문(宋之問)의 시를 보고는 크게 감탄하여 동방규에게 주었던 금포를 도로 빼앗아 송지문에게 주었다는 고사를 인용한 것이다. 《新唐書 卷202 文藝列傳中 宋之問》

375 제왕 : 측천무후(則天武后)를 가리킨다.

376 커다란…열어보네 : 《연감류함(淵鑑類函)》에 “동해에 도색산(度索山)이 있고 그 산에 큰 복숭아나무가 있는데, 이것이 반도(蟠桃)이다.”라고 하였다. 또 《태평광기(太平廣記)》에 “반도는 서왕모(西王母)가 심은 복숭아로, 3천 년에 한 번 꽃이 피고 3천 년에 한 번 열매를 맺으며 이를 먹으면 불로장생한다.”라고 하였다.

377 봉황을 토한 이 : 뛰어난 문재(文才)를 발휘하여 글을 지은 사람을 말한다. 한(漢)나라 양웅(揚雄)이 《태현경(太玄經)》을 지었을 때, 봉황이 자신의 입속에서 튀어나와[吐鳳] 그 책 위에 내려앉는 꿈을 꾸었다는 고사가 있다. 《西京雜記 卷2》

378 동방학사(東方學士) : 시를 맨 먼저 지은 좌사(左史) 동방규(東方虬)를 말한다.

무후³⁷⁹가 갑자기 영묘한 재주가 더디 나온 걸 깨달으니 神成斗覺巧便遲
 조화옹도 걸출한 시인에게 놀라 손을 움츠렸네 造化縮手驚詩豪
 표일한 학 초일한 난새가 높은 하늘에 오르는 듯 逸鶴超鸞凌紫霄
 산호 옥수가 흰 물결 파도에 비치는 듯 珊瑚碧樹映雲濤
 여황제 웃음을 머금고 앞에 포상한 일 후회하고 女皇含笑悔前褒
 상서로운 무늬가 있는 화려한 금포³⁸⁰를 급히 빼앗네 忙奪瑞錦祥文袍
 면전에서 재인³⁸¹에게 일러 뛰어난 문사에게 주게 하니 面詔才人授詞彥
 제왕의 은총이 환히 비추어 시문을 빛나게 하도다 榮寵照耀光風騷
 하늘 구름무늬 수놓은 비단을 잘라온 듯 裁來九天雲錦段
 사자 털의 오색 문채가 어리비치니 文動五色狻猊毛
 신선의 도포 어찌 만금의 가치일 뿐이라 仙袍奚直萬金黃
 시단의 성가가 열 배나 높아졌네 詩壇光價十倍高
 당나라 초기 문장의 성대함을 회고하고 緬憶唐初盛文藻
 야원 유자는 때를 만나지 못함을 한탄하네 堪恨癯儒時未遭
 아아 도유의 조정³⁸²엔 시문의 창화가 이어지지만 噫吁嘻都兪一堂屬賡載
 임금 하사품으로 성과에 보답해 준 일 듣지 못했네 未聞寵錫酬功勞

379 무후(武侯) : 원문은 '신성(神成)로 되어 있으나 '신성(神聖)의 오기로 보인다. 측천무후는 스스로 제위에 올라 자신을 신성황제(神聖皇帝)라 칭하였다.

380 상서로운...금포(錦袍) : 당대(唐代)에 두사륜(寶師綸)의 그림에 따라 짠 화려한 비단으로 만든 도포이다. 이 비단에는 용과 봉황 등의 상서로운 동물이 수놓아져 있다.

381 재인(才人) : 궁중 여관(女官)의 하나이다.

382 도유(都兪)의 조정 : 도유는 '도유우불(都兪吁咈)'의 준말로, 임금과 신하가 함께 정사에 대해 문답하며 토론한다는 뜻이다. 도(都)는 탄미하는 말[歎美之辭]이고, 유(兪)는 응낙하는 말[應許之辭]이고, 우(吁)는 그렇지 않음을 탄식하는 말[歎其不然之辭]이고, 불(咈)은 매우 그렇지 않다고 여기는 말[甚不然之辭]이다. 《書經 堯典 蔡沈註》 여기에서는 이를 통해 현주 당대의 조정을 의미한다.

옥석각³⁸³ 과제

玉鳥閣 課題

우뚝 솟은 검봉은 비단 무늬 모여 환한데	劍峯繡攢明戍削
벽옥 같은 물결 영롱하게 비단 바위에 쏟아지네	碧玉玲瓏瀉錦石
공중의 높은 누각은 물이 앞에 있으니	中天高閣水上頭
밝고 마른 땅 차지하여 지맥이 모였다네	占得爽塏專坤脈
옛 벽에 희미하게 구름 기운 그려져 있고	古壁依微畫雲物
붉은빛 단청은 신선을 위해 펼쳐 놓은 듯	丹雘似爲仙靈關
모르겠네 어느 왕이 이 누각을 지었는지	不知何王此經營
곧 시골길에서 나그네에게 물어보았네	却向村蹊問人客
나그네는 나에게 웅얼웅얼 대답해 주니	人客嗚呶對我言
이는 옛 선인 안기생의 자취라 하네	此是安期古仙迹
안기생의 골격은 선인의 부류였는데	安期骨格羽人種
수련하고 단약을 먹어도 공이 없어 세월만 부질없이 보냈다네	鍊服無功歲徒積

이 골짜기를 거슬러 올라와 신선 거처에서 배우려하니 溯洄此澗學仙源

383 옥석각(玉鳥閣) : 유향(劉向)의 《열선전(列仙傳)》에 “안기 선생(安期先生)은 낭야(琅瑯) 부향(阜鄉) 사람으로 동해 가에서 약을 팔았는데, 당시 사람들은 천세옹(千歲翁)이라 하였다. 진 시황(秦始皇)이 동쪽에서 노닐다가 그를 만나 사흘 밤낮 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많은 금은보화를 주었으나, 모두 그대로 남겨 두고 편지 한 통과 붉은 옥으로 만든 신발(赤玉舄) 한 쌍을 놓아두었다. 그 편지에 ‘몇 해 뒤 봉래산에서 나를 찾으라.’ 하였다. 이에 진 시황이 서불(徐市) 등을 시켜 동남동녀(童男童女) 수백 명을 데리고 동해에 배를 띄워 봉래산을 찾아가게 하였다.” 하였다. 《운부군옥(韻府群玉)》에 의하면 진 시황이 안기생이 남긴 옥 신발로 인해 옥석각을 세웠다고 하였다.

태상현군 ³⁸⁴ 이 그의 심정을 엿보았네	太上玄君覩心跡
안생이 이처럼 기이하다고 호소하면서	爲訴安生如許奇
옥황상제 앞에서 세 번 머리를 조아렸네	帝天皇前三塌額
상제는 현군에게 간곡한 말씀으로 답하시길	天皇丁寧答玄君
안생이 누구든 그대는 신선 명부에 올리게나	安生何人汝其籍
묵묵히 그에게 조칙 내려 창포 ³⁸⁵ 를 먹게 하시니	嘿勅其人服菖蒲
창포가 신령한 진액을 지닌 줄 누가 알았으랴	菖蒲誰識含靈液
안생이 손으로 창포를 꺾어오니	安生手折菖蒲來
한 치마다 아홉 마디 ³⁸⁶ 향기롭고 푸르구나	一節九寸香而碧
안생이 창포를 먹자 오래지 않아	安生服之曾不日
양 겨드랑이에서 갑자기 날개가 돌아났네	兩腋忽然生羽翮
생황과 피리 불며 깃발 든 이들 오색구름을 따르고	笙簫幢節從五雲
난새와 봉황이 말이 되어 구름 사이에서 내려왔네	鸞驂鳳馭雲間落
안생이 난새를 타고 봉황이 뒤따르니	安生乘鸞鳳馭後
서왕모와 노동 ³⁸⁷ 이 보며 서로 박수를 치네	王母老童看相拍

384 태상현군(太上玄君) : 도교에서 신봉하는 세 신 중의 하나인 태상노군(太上老君)을 말한다. 도교에서는 노자를 교조(教祖)로 삼아 그를 높여 태상노군이라 하였다.

385 창포(菖蒲) : 중요 약재(藥材)로 쓰이는 창포는 오랫동안 복용하면 몸이 가벼워져서 장수를 누리게 된다고 한다. 또한 옛날에 단오절이면 창포탕(菖蒲湯)으로 머리를 감고 창포주(菖蒲酒)를 마시어 온역(瘟疫) 등 불상(不祥)한 것들을 벽제(辟除)하던 풍속이 있었다.

386 한 치마다...마디 : 창포의 한 치(寸)마다 아홉 개 이상의 마디가 있는 것을 말하는데, 창포 중에 이것이 가장 상품이라고 한다. 《포박자(抱朴子)》〈선약(僊藥)〉에 “창포는 반드시 돌 위에서 난 것으로, 한 치마다 아홉 마디 이상인 데다 자줏빛 꽃이 핀 것이 좋다.[菖蒲生須得石上, 一寸九節已上, 紫花者尤善也.]”라고 하였다.

387 노동(老童) : 고대 신화 속 신의 이름으로 기동(耆童)이라고도 한다.

회오리바람 돌고 번개가 내달리며 하늘 중앙에 이르니	颯回電邁天中央
이날 저녁 인간 세상은 흰 해가 밝았네	此夕人間白日白
황금빛 눈동자 강철 골수를 물을 곳이 없으니	金瞳鐵髓問無處
매미 허물 벗듯이 오직 옥 신발 한 켤레 남았구려	蟬蛻唯餘雙玉舄
백룡의 천자 ³⁸⁸ 가 비로소 들어 알고는	白虯天子始聞知
이 성대한 누각을 세웠다네	乃立此閣之赫赫
여기에 안치하여 그 신발 간직하니	于以安排藏厥舄
마치 태묘에 귀책 ³⁸⁹ 을 숨겨두는 것 같구나	有如太廟祕龜策
진 시황이 떠난 지 이제 몇 년인가	秦皇去後今幾年
기이한 종적은 도리어 하룻밤이 지난 듯하네	異躡還如隔一昔
말 마치자 나그네 떠나고 원숭이 슬피 우는데	言終客去猿嘯哀
산 너머로 해질 때 홀로 아스라한 곳에 서 있네	獨立蒼茫山日夕

388 백룡(白龍)의 천자(天子) : 진 시황을 가리킨다. 진(秦)나라는 서방(西方)의 백제신(白帝神)을 제사하여 받들면서 백제자(白帝子)라 자칭했고, 한 고조 유방(劉邦)은 적룡(赤龍)의 정감(精感)을 받아서 태어났다 하여 그를 적제자(赤帝子)라 칭했다. 한 고조가 미천했을 때 길을 막는 큰 뱀을 베어 죽이고 가니, 한 노파가 통곡하며 “내 아들은 백제자인데, 뱀으로 변화하여 길에 나와 있다가 지금 적제자에게 베어 죽임을 당했다.”라고 했다. 이는 진나라가 멸망하고 한나라가 새로 일어날 것을 의미한 말이다. 《史記 卷8 高祖本紀》

389 귀책(龜策) : 귀갑(龜甲)과 시초(蓍草)로 고대에 점치는 도구를 말한다.

구학정³⁹⁰ 관등가

龜鶴亭觀燈歌

참판 김륵³⁹¹의 정자로 영천읍 치소 서쪽에 있다

한 마리 거북은 힘차게 정자를 안고 섰고 一龜鳳臯抱亭立
한 마리 거북은 웅크려 정자를 향해 읊을 하네 一龜蹠跼向亭揖
거북이가 두 바위를 이루었으니 한 시내를 사이에 두고 가파르고
우뚝하며 높이 하늘을 떠받치고 龜成兩巖兮嶺峯高撐隔一川
동서로 마주 보고 일어났으니 서로 화답하는 듯하네 東西對起如相答
팔황³⁹²과 육합³⁹³이 만고토록 백번 변해도 이처럼 뛰어난 경치가 없
으니 八荒六合兮萬古百變兮無此勝

390 구학정(龜鶴亭): 김륵이 경북 영주(榮州)에 지은 정자이다. 김륵이 도헌(都憲)으로 있을 때 광해군이 생모(生母)를 추송하려 하자 비례(非禮)임을 들어 반대하여 조정에서 쫓겨난 뒤 영천(榮川)으로 낙향하여 구학정을 지었다. 《朝鮮王朝實錄 光海君日記》 구학정은 서구대(西龜臺) 아래에 건립한 정자로 동구대(東龜臺)를 마주 보고, 남으로 학가산(鶴駕山)을 바라보는 위치에 있으므로, 구대(龜臺)와 학가(鶴駕)의 이름을 따서 구학정이라 하였다고 한다.

391 김륵(金玓): 1540~1616. 자는 희옥(希玉)이고, 호는 백암(柏巖)이며 시호는 민절(敏節)이다. 영천 출생으로 처음에는 박승입(朴承任)과 황준량(黃俊良)에게, 뒤에는 이황(李滉)에게 배웠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안집사로 영남 지방의 민심을 수습하고, 경상 우도 관찰사에 이어 대사헌이 되어 '시무 16조'를 상소했다. 뒤에 충청도 관찰사, 안동 부사 등을 지내고, 대사헌으로서 김직재의 무오에 연루되어 강릉으로 유배되게 되었으나 여러 대신들의 변호로 무사하였다. 저서에 《백암문집》이 있다.

392 팔황(八荒): 팔방(八方)의 맨 끝으로 온 세상을 말한다.

393 육합(六合): 천지[上·下]와 사방[東·西·南·北]으로, 곧 우주 전체를 말한다.

우리 공이 얻은 것은 하늘이 정해준 것이라네 我公得之天所定
일 년 중 좋은 날, 더군다나 가장 좋은 오늘 밤에 있어서라

一年佳辰兮何況最今夕

가빈들 머무르게 해서 흠뻑 술 취한다네 爲留佳賓醉不省
오늘 저녁 관등놀이가 좋다고 하니 謂言今夕好觀燈

여기에 좋은 일 있으려면 어두워져야 가능하다네 此有勝事昏可能
우러러보니 긴 밧줄이 몇 천 길 仰視長繩幾千丈

두 거북 사이를 가로질러 청홍³⁹⁴이 곧게 섰네 橫截兩龜睛虹直

잠깐 사이 숲이 어두워지고 석양녘이 되니 俄然林暝到曛黃

정자 가득 사람들 놀라고 아이들은 장난을 치네 滿堂驚噪兒童戲

서쪽 거북이 갑자기 불 바퀴를 토해서 날게 하니 西龜忽吐火輪飛

달의 몸 별의 배 붉으면서 빛이 나네 月身星腹赤而光

동쪽 거북 입을 벌리고 들이켜 삼키고자 하니 東龜呀吻吸欲吞

서쪽에서 동쪽으로 달리니 금동이 내달리는 듯 從西走東馳金盆

서쪽 거북은 저 거북이 깨무는 것을 문득 두려워하여 西龜却怕被他嚙

또 한 알을 토해서 앞의 바퀴 궤적을 뒤쫓게 하네 又吐一顆追前轍

매번 한 번 토하는 것을 따라 문득 들이키려 하니 每隨一吐便欲吸

누가 알리오 끝없이 달을 잉태해 배출하는 것을 誰知孕出無窮月

저 거북이 토하면 이 거북이 들이키니 무슨 사업이 어찌 이리 분

망한가 彼吐此吸奔忙何事業

순식간에 나는 빛이 여덟아홉 개가 늘어서네 瞬息飛光八九列

삼키려면 문득 물러나서 동쪽에서 다시 서쪽으로 欲吞便却東復西

394 청홍(晴虹): 등(燈)의 별칭이다. 청여전(淸厲荃)의 《사물이명록(事物異名錄)》〈기용 등(器用燈)〉에 “《운부(韻府)》에 ‘청홍은 곧 등이다.’라고 하였다.[晴虹卽燈也.]”라고 하였다. 여러 색깔의 등을 무지개에 빗대어 청홍이라 한 것으로 보인다.

갑자기 갔다가 갑자기 오는 것이 마치 귀신과 같네 倏往忽來如鬼物
 못 손님들 놀란 가슴 진정시키려 해도 오히려 궁구할 수 없는데

衆賓驚定猶莫究

공은 달이 아니라 바로 관등놀이라 말하네 公言非月是燈戲
 나는 공의 말을 믿으나 괴이해서 또 말하길, 我持公言怪且言
 등은 살아있는 사물이 아닌데 어찌 분방하게 나는가 燈非活物詎飛奔
 어룡³⁹⁵ 연극의 변환술과 광릉³⁹⁶땅의 일은 魚龍之幻廣陵事
 비록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으나 일찍이 실컷 들었다네 雖未目擊曾飽聞
 이것은 아홉 개의 해가 예의 화살을 피해 莫是九日避羿射
 단지 밤에³⁹⁷ 불빛이 붉게 빛나는 것이 아닐까 只卜其夜揚光燦

395 어룡(魚龍) : 연극의 이름. 즉, 변환(變幻)하는 연극이다. 《한서(漢書)》
 〈서역전 찬(西域傳贊)의 주(注)에 따르면, “어룡이란 사리수(舍利獸)
 의 뜻인데, 먼저 뜰에서 재주를 부리고, 그것이 한참 다하고는 전(殿)
) 앞의 격수(激水)에 들어가서 비목어(比目魚)로 변하여 뛰어올라 물
 을 뿜어서 안개를 만들어 해를 가리고 그것이 끝나면 8장(丈)의 황룡
 (黃龍)으로 변하여 물에서 나와 뜰에서 재주를 부려 햇빛에 휘황하게
 변쩍인다.”라고 하였다.

396 광릉(廣陵) : 광릉은 옛날 초(楚)나라의 도읍이 있던 곳으로, 지금의
 강소성(江蘇省) 양주시(揚州市) 서북쪽 일대이다. 정월 대보름 밤에
 밝혀 놓은 등불이 매우 성대하여 천하의 장관(壯觀)이 되었다고 한
 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일화가 전해온다. 당나라 때 대보름
 에 다리밟기가 극성했는데, 개원(開元) 18년(730) 정월 대보름에 당
 현종이 관등놀이가 가장 화려한 곳이 어디냐고 묻자 섭 선사(葉仙士)
)가 광릉이라고 대답하였다. 현종이 광릉의 관등놀이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고 묻자, 섭 선사가 잠깐 사이에 무지개다리를 만
 들고는 현종에게 뒤를 돌아보지 말고 따라오라고 당부하였다. 현종
 이 이 무지개다리에 올라 순식간에 광릉에 도착하여 관등놀이를 구
 경했다고 한다. 이때에 고력사와 악관들도 함께 참여하였다고 한다.
 《古今事文類聚 前集 卷7 廣陵觀燈》

397 밤에[卜其夜] : 원문 “복기야(卜其夜)”는 직역하면 ‘그 밤을 점쳐가며’
 라는 뜻으로 복주복야(卜晝卜夜)에서 온 것이다. 춘추 시대 제(齊)나

이것은 오성이 몰래 정기를 쌓아 莫是五星潛委精
 공의 정자를 향하여 공의 덕을 드러내는 게 아닐까 爲向公亨著公德
 그렇지 않으면 연못 속 화룡³⁹⁸이 깊이 누워 천 년간 신령한 구슬을
 길러 不然淵中火龍潛臥千年養神珠
 머리와 뺨 사이에서 빠져나와 높은 하늘에 오르는 듯出腦脫頰騰雲衢
 그렇지 않으면 시내 밑의 수신이 장난삼아 열 상자의 백련경³⁹⁹을
 열어 不然川底水伯戲開十函百鍊鏡
 허공에 걸고 푸른 하늘에 기대어 와서 빛을 비추는 듯
 掛空倚碧來照影
 만약 흑룡이 졸다가 벽옥을 잃은 것이 아니라면⁴⁰⁰若非驪虬睡失璧

라 진경중(陳敬仲)이 환공(桓公)을 위해 주연(酒宴)을 베풀 적에 환공
 이 흥이 도도하여 불을 밝혀 밤에도 계속 술을 마시자고 하자, 진경
 중이 “신은 낮에 모시는 일만 점을 쳤지 밤까지 모시는 것은 점을 치
 지 않았으니, 감히 명을 받들 수 없습니다.[臣卜其晝, 未卜其夜, 不敢
 .]”라고 한 데서 유래하였다. 《春秋左氏傳 莊公22年》 이를 근거로 밤
 낮을 잇은 채 밤새도록 잔치하며 노는 것을 ‘복주복야(卜晝卜夜)’라
 고 한다.

398 화룡(火龍) : 전설 속에 나오는 온몸에 불이 붙은 신룡(神龍)이다. 당(唐)나라 왕곡(王穀)이 지은 <고열행(苦熱行)>에 “축융이 남쪽에서 오며 화룡을 채찍질하니, 화기가 휘몰아쳐 하늘 붉게 태우네.[祝融南來鞭火龍, 火旗焰焰燒天紅.]”라고 하였다.

399 백련경(百鍊鏡) : 100번 제련(製鍊)하여 정밀하게 만든 거울이다.

400 만약…아니라면 : 여구(驪虬)는 검은색 용을 말한다. 어떤 사람이 물 속에 들어가서 귀한 구슬을 얻자, 그의 부친이 “천금의 가치가 나가는 구슬은 반드시 깊은 못 속에 숨어 사는 흑룡의 턱 밑에 있는 법이다. 네가 그 구슬을 손에 넣은 것은 필시 그 용이 잠든 때를 만났기 때문일 것이다. 만약 흑룡이 깨어났더라면 너는 가루도 남지 않았을 것이다.[夫千金之珠, 必在九重之淵, 而驪龍領下. 子能得珠者, 必遭其睡也. 使驪龍而寤, 子尙奚微之有哉.]”라고 하였다. 《莊子 列禦寇》

또 의심컨대 오늘이 사월 초파일이라 更疑今日是四月之八日兮
 응당 시방여래불이 있어 應有十方如來佛
 우리 공이 지극한 도를 쌓은 것에 감동하여 爲感我公至道凝
 몇 개의 마니주⁴⁰⁵를 던져 흩어서 投散若箇摩尼珠兮
 보배로운 거울로 천만 층의 빛을 발하게 한 것일까 飛精放光千萬層
 군중들의 의심과 의혹이 모두 풀리지 않으니 群疑衆惑皆不釋
 황홀하고 반신반의하며 탄식을 하네 恍忽然疑費歎息
 공의 말과 객의 변론이 모두 밖으로만 내달리니 公言客辨摠外馳
 비유컨대 이 마음 분별하는 생각이 없는 것과 같네 比如此心無別思
 마음이 이 등불과 같이 밝음을 보존할 수 있다면 心如此燈可保明
 객이 어찌 등불 밖의 빛을 망녕되이 생각하리오 客胡妄想燈外光
 마음과 등불은 하나로 꿰뚫는 것이니 心哉燈哉一以貫
 나의 환상으로 말미암아 왕래하며 은미한 것을 밝히려
 往來明微由我幻
 그런 후에 바야흐로 천 길의 밧줄이 然後方知千丈繩
 등을 꿰고 왕래하는 것이 사람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것임을 알리라
 貫燈往來由人能
 붓 가는 대로 관등 시를 지으니 縱筆爲作觀燈詩
 관등 시는 나를 위한 규계가 되리라 觀燈之詩爲我規

한 것이다.

405 마니주(摩尼珠) : 마니는 불교 용어로 보주(寶珠)의 음역이며, 말니(末尼)라고도 한다. 마니주는 그 자체로 빛깔이 없고 사물이 비치는 바에 따라 색상을 드러낸다. 본래 공허하기 때문에 만물과 떨어져 있는 듯하지만 비치는 사물에 따라 색상을 드러내므로, 인연에 따라 발현하는 불성(佛性)을 비유하는 말로 쓰인다. 두보(杜甫)의 <증축승려구사형(贈蜀僧闍丘師兄)>에 “오직 마니주가 있어서, 탁수의 근원을 비출 수가 있다.[惟有摩尼珠, 可照濁水源.]”라고 하였다.

고목나무 등걸의 매화 임 처사에게 주다 병서

古查梅 贈林處士 并序

낭주⁴⁰⁶에 있을 때, 임자후⁴⁰⁷ 공의 고목나무 등걸 매화가 천하의 절품이라는 것을 들었다. 임공이 애호하고 아껴서 깊이 감추니 사람들이 감히 감상할 수 없었다. 내가 시 한 수로써 그것을 구하니 임공이 곧 허락하여 나는 마침내 노비를 시켜 취해서 바다 배에 싣게 하였다. 나는 체직되어 서울로 돌아와 배가 돌아오기를 몹시 기다는데, 얼마 안 되어 배가 파손되어 바다에서 잃었다는 것을 들었다. 즉시 긴 시 한 편을 읊어서 한 번 위로하였다.

고목나무 등걸 매화여	고목나무 등걸 매화여	古查梅古查梅
문노니 문득 어느 곳에서 왔던가		借問却從何處來
구불구불 울퉁불퉁 한 자 남짓도 되지 않고		輪困臃腫兮不滿一尺強
수많은 세월 속에 늙고 파리하다네		老瘦千千萬萬霜
머리는 빠지고 뱃가죽은 붙었고 허리와 등은 굽었으며		頭童腹枵腰背曲
힘줄은 드러났고 뼈대는 솟았고 가죽과 살은 갈라지고 어린 새처럼 누렁네		筋露骨立兮皮肉龜龜雛而黃
즐거는 썩고 마디는 평평하고 수염과 머리털 빠졌지만		幹朽節夷髯鬣禿
어깨에 멘 가는 가지는 아름답고 여린 것이 푸르고 또 길다네		

406 낭주(朗州) : 전라도 영암(靈巖)의 옛 이름이다. 조찬한은 1612년 41세 때 영암 군수(靈巖郡守)가 되어 <낭주록(朗州錄)>을 지은 바 있다.

407 임자후(林子厚) : 미상이다. 다만, 심광세(沈光世, 1577~1624)의 시 <저도의 외삼촌 운에 차운하여 임자후에게 부치다. 이름은 곤이다. [次楮島舅氏韻, 寄林子厚. 坤.]에서 임자후가 임곤(林坤)임을 밝히고 있지만 이 시의 임자후가 임곤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肩荷纖枝兮婀娜夭夭綠且長

인간 세상에 선달의 눈이 온 나무들을 덮을 때 人間臘雪埋萬木
화분 속에 홀로 서서 평온하게 꽃송이를 피었다네 獨立盆中穩吐萼
흡사 혼돈 상태⁴⁰⁸의 무극옹⁴⁰⁹이 恰如龐鴻無極翁
손으로 선계의 꽃을 꺾어서 기이한 공을 마음껏 부리는 것 같네

手拗仙葩擅奇功

또 지리소⁴¹⁰가 꽃을 머리에 꽂고 又如支離疏氏花插顛
턱은 배꼽에 숨고 무릎은 어깨보다 높은 것 같네 頤隱於臍膝高肩
또 서쪽 하늘⁴¹¹의 늙은 중이 달 속의 계수나무 한 가지를 베어서

又如金天老胡斫得月中桂一枝

가지고 돌아가서 당나라에 바치고자 한 것과 같네⁴¹² 持歸欲獻大唐家

408 혼돈 상태[龐鴻]: 원문의 방홍(龐鴻)은 우주 형성 이전의 혼돈 상태로서, 혼연하고 광대함을 뜻한다.

409 무극옹(無極翁): 무극옹은 태극도설(太極圖說)을 지은 주돈이(周敦頤)를 지칭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여기서는 조물주를 말한다.

410 지리소(支離疏): 《장자(莊子)》〈인간세(人間世)〉에 나오는 불구자인 지리소(支離疏)이다. 지리소는 불구자인 관계로 국가의 병역(兵役)이나 부역(賦役) 등을 모두 면제받고, 국가로부터 구호양곡을 배급받아 생활을 영위하면서 아무 일 없이 몸을 잘 보전하여 장수를 누렸다고 한다. 지리소의 외모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지리소라는 자는 턱이 배꼽에 숨어 있고, 어깨가 이마보다도 높고, 상투는 하늘을 가리키고, 오장이 위에 있으며, 두 넓적다리는 옆구리에 닿아 있다.[支離疏者，頤隱於臍，肩高於頂，會撮指天，五管在上，兩髀爲脇]”라고 하였다.

411 서쪽 하늘[金天]: 금촌은 서쪽 하늘로 인도를 의미한다.

412 늙은...같네: 원문의 ‘노호(老胡)’는 본래 석가(釋迦)나 달마(達摩) 등 인도의 중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런데 서역의 어떤 중이 달 속의 계수나무를 꺾어 당나라에 바쳤는지는 미상이다.

또 구담⁴¹³ 노승이 설산⁴¹⁴ 끝에서 양식을 끊고 우뚝이 앉아서
 又如瞿曇老禪休糧兀蹲雪山隈
 한가롭게 하늘 꽃⁴¹⁵ 희롱하며 법문을 살피는 것 같네 閒弄天花觀法門
 또 예스러운 모습의 선옹이 기약이 빨리 가는 것을 시기하여
 又如仙翁古貌乞期猜
 창해 모퉁이의 반도를 꺾은 것 같네⁴¹⁶ 折得蟠桃滄海隈
 백이숙제가 파리해서 죽으려는 듯 伯夷叔齊欲瘦死
 허유와 무광⁴¹⁷이 장차 세상을 피하는 듯 許由務光將避世
 만약 아득히 하늘 밖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면 若非遙從天外落

-
- 413 구담(瞿曇) : 석가모니(釋迦牟尼)를 지칭한 말이다. 구담은 범어 Gautama의 음역으로 석가모니의 성씨이다.
- 414 설산(雪山) : 인도의 북부에 위치한 산인 히말라야[喜瑪拉雅 ; Himalaya]를 가리키는데 ‘흰 눈으로 덮인, 신들만이 머무는 위대한 성역’이란 뜻이다. 석가모니가 성도(成道)하기 전에 이 산에서 고행을 했다는 전설이 있다.
- 415 하늘 꽃[天花] : 천화난추(天花亂墜)라고도 한다. 석가모니가 선정(禪定)에 들자 색계(色界)의 제천(諸天)에서 하늘꽃[天花]이 내렸다는 고사에서 유래한다. 《仁王護國般若波羅蜜多經 序品1》 이후 큰 법사의 설법을 듣고 하늘이 감동했다는 의미로 쓴다.
- 416 창해…갈네 : 반도(蟠桃)는 3천 년마다 한 번씩 열매가 열린다는 선경에 있는 복숭아이다. 이것을 먹으면 장수한다고 한다. 《산해경(山海經)》에 “창해(滄海) 속에는 도삭산(度朔山)이 있는데 그 꼭대기에는 큰 복숭아나무가 있다.” 하였다. 《십주기(十州記)》에서, “동해에 도색산(度索山)이 있는데, 산에는 큰 복숭아나무가 있다. 삼천 리 넓이로 따리를 틀고 있는데, 그것을 반도라고 부른다.”라고 하였다.
- 417 허유(許由)나 무광(務光) : 고대의 은사(隱士)들이다. 허유는 요(堯) 임금이 왕위(王位)를 물려주는 것도 부리친 채, 기산(箕山)의 아래 영수(潁水)의 북쪽에 숨어서 농사지으며 살았다고 한다. 《莊子 逍遙遊》 무광은 탕왕(湯王)이 하(夏)나라를 멸망시킨 뒤에 왕위를 그에게 양보하였으나 인의(仁義)에 합당한 일이 못 된다고 질책하면서 여수(廬水)에 투신자살했다고 한다. 《莊子 讓王》

응당 우전⁴¹⁸ 서역국에서 왔으리라 應自于闐西域國
 어찌 뿌리를 화청궁⁴¹⁹의 계단에 의탁하지 않는가 胡不托根華淸階
 어찌 화석강⁴²⁰에 심기는 걸 면했는가 胡免花石綱中植
 어찌하여 풍골이 빼어난 것을 몰래 모아다가 胡然暗會風骨秀
 마침내 처사 임공이 얻게끔 하였는가 終被處士林公得
 임공의 집은 금강 구석에 있는데 林公家住錦江曲
 금강의 풍월은 이것을 얻자 생기가 돋았다네 錦江風月得此生顏色
 황금을 숭산 만큼 쌓아도 그 값어치에 걸맞지 않고 黃金比嵩不稱直
 한번 구경하려면 오히려 넓은 사해를 기울여야 하네 一翫猶傾四海博
 나는 그때 낭주성에서 벼슬을 그만두고 我時解符朗州城
 장난삼아 시 한 수를 주어서 구했다네 戲投一詩以相索
 처사가 도의를 중히 여기고 보배를 중히 여기지 않아 處土重義不重寶

-
- 418 우전(于闐) : 한나라 때 총령(蔥嶺)의 북쪽에 있던 나라로, 구살단나(瞿薩旦那), 굴단(屈丹), 환나(渙那)로 표기하는데, 한(漢)나라 이후로 중국에 조공을 바쳤다.
- 419 화청궁(華淸宮) : 당나라의 궁전 이름이다. 여산(驪山)의 온천 지대에 있는 궁전인데, 처음에는 탕천궁(湯泉宮)이라 이름 지었다가 현종(玄宗) 때에 화청궁으로 이름을 고치고 현종이 해마다 그곳에 행차하여 잔치를 베풀고 즐겼다고 한다. 《舊唐書 卷8 玄宗紀》
- 420 화석강(花石綱) : 송(宋) 휘종(徽宗)이 비원(祕苑)에 간악(艮岳)이란 큰 가산(假山)을 만들고 천하에 진기한 꽃나무와 돌을 모았으므로, 백성들이 피곤하고 천하가 소동하였다. 북송(北宋) 승녕(崇寧) 4년에 채경(蔡京)이 주면(朱勗)을 데려다가 소항 응봉국(蘇杭應奉局)을 관장 하도록 하였다. 그가 민간에 돌 하나와 꽃나무 하나라도 휘종의 환심을 살 만한 것이 있으면 곧바로 그 집으로 들어가 담장을 허물거나 가옥을 철거하여 개봉(開封)으로 운반해 갔는데, 당시 화석(花石)을 운송하는 선단(船團)이 끊임없이 회수(淮水)와 변하(汴河)의 사이를 왕래하였는데, 이를 화석강이라 불렀다. 《宋史 卷470 佞幸列傳 朱勗》

시를 다 보기도 전에 곧바로 허락하였다네 看詩未畢卽然諾
 노비를 보내어 바다 배로 실어 나르게 하니 爲送奴人輸海船
 노비가 신고서 뱃사람에게 전하게 하였네 奴人載與船人傳
 나는 돌아와 서울에서 한참 세월을 보냈는데 我歸滯洛日月積
 남쪽 배를 눈이 시리도록 기다리다 소식을 물었네 日寒南颿問消息
 들으니 돛단배가 막 항해를 했는데 聞說危檣方駕海
 갑자기 바다를 뒤집듯 불어오는 폭풍을 만났다 하네 忽遇戕風吹海覆
 산더미같이 이어지고 하늘까지 솟은 파도에 지축이 찢어지니

連山拉霄地軸裂

부딪치고 꺾여 배는 부서져서 도무지 흔적이 없다 하네 舟碎撞摧了無迹
 이때 매화 등걸이 이미 가루가 되어 가라앉으니 此時梅查已屑沒
 나는 이 말을 듣고 눈물이 가슴을 적셨네 我聞此言淚橫臆
 응당 이것은 용왕이 이 매화 등걸이 지극히 보배인 것을 알아서

應是龍王知此梅查爲至寶

뇌공⁴²¹과 풍백⁴²²을 다그쳐서 내달리게 하여⁴²³ 叱馭雷公與風伯
 한 개의 등걸 움켜잡고 넓은 바다로 돌아가 擷取孤查返滄洋
 풍이⁴²⁴에게 쥐서 남해의 숙⁴²⁵에게 바치게 했으리라 付與憑夷貢南儻

421 뇌공(雷公) : 전설상의 우레를 맡은 신이다.
 422 풍백(風伯) : 전설상의 바람을 맡은 신이다.
 423 내달리게 하여 : 원문의 질어(叱馭)는 마부를 다그쳐 말을 빨리 몰게 한다는 뜻이다. 한(漢)나라 왕존(王尊)이 사천성(四川省) 공래산(邛崃山)의 구절판(九折阪)을 넘을 때, 마부를 꾸짖으면서 말하기를, “왕양(王陽)은 효자라서 자기 몸을 아꼈지만, 나는 충신이니 말을 빨리 몰아라.”라고 하였던 고사이다. 《漢書 王尊傳》
 424 풍이(憑夷) : 물을 맡아 보는 신이다.
 425 숙(儻) : 남해를 관장하는 제(帝)이다. 《장자(莊子)》〈응제왕(應帝王)〉에 “남해의 제(帝)는 숙(儻)이고 북해의 제(帝)는 홀(忽)이며 중앙의 제(帝)는 혼돈(混沌)이다.”라고 하였다.

또 의심컨대 떠다니다가 잠오의 구멍에 걸리자 更疑泛浮掛罟岑整穴
 서왕모가 와서 엿보고 머리에 이고 나가 王母來窺頂戴出
 봉래산과 방장산을 향해 내달려서 走向蓬萊方丈山
 은대 금궐⁴²⁶의 첫 번째 신선 공실에 두었는가 置之銀臺金闕第一仙公室
 또 의심컨대 부상과 약수에 표류하다가 更疑流泊扶桑與弱水
 위로 구만리를 올라가 은하수에 던져졌는데 上泝九萬天河擲
 직녀가 너울너울 춤을 추며 기쁘게 그것을 얻어 織女娑娑欣得之
 무릎 꿇고 옥황상제의 향안⁴²⁷ 옆에 바친 것인가 跪進玉皇香案側
 지극한 보배는 세상에 있을 것이 아님을 미리 알았으니 懸知至珍非世有
 어찌 그대와 나 두 집안의 물건이 되리오 肯爲君吾兩家物
 옛날에 풍우 칠 때 금강⁴²⁸을 향해 울었으니 昔年風雨時向錦江鳴
 이미 귀신이 경영한 흔적이 있었다네 已有鬼神經營跡
 그대의 집을 떠나 바다 한가운데서 잃었으니 爲離君家半海失
 그대에게 나에게 복이 될지 어찌 알겠는가 於君於我焉知福
 우선 기약해 보네 그대와 내가 백 년 후에 聊期君我百年後
 신선들과 삼신산 아래서 어깨 부딪치며 만나 拍肩羽人三山下
 아래로는 바닷속을 엿보고 봉래산을 올랐다가 下窺洋中上蓬巔

426 은대(銀臺) 금궐(金闕) : 삼신산에 있는 집들을 비유한 말이다. 《사기》 권28 <봉선서(封禪書)>에 삼신산은 “여러 신선과 불사약이 있고, 그 사물이나 금수는 다 흰색이고, 황금과 백은으로 집을 지었다.[仙人及不死之藥, 皆在焉. 其物禽獸盡白, 而黃金銀爲宮闕.]”라고 하였다.

427 향안(香案) : 조회(朝會)하는 날에 대궐 안의 향로나 촛대 옆에 놓아 두는 책상이다.

428 금강(錦江) : 병주를 보면 현주가 영암 군수로 있을 때 고사매(古査梅)에 관해 듣고 임자후에게 구하게 되었으므로 여기서 금강은 담양, 광주, 나주, 영암을 지나가는 영산강(榮山江)으로 짐작된다. 영산강은 나주(羅州)의 고호(古號)가 금성(錦城)이기 때문에 금강(錦江) 또는 금천(錦川)이라고 부른다.

다시 자미성 앞에서 옥황상제를 알현하고 更謁紫皇薇垣前
삼처를 구하여 그중 반드시 하나를 얻고 求之三處必得一
나는 이것이 그대 물건임을 삼신⁴²⁹에게 송사하리네 我訟三神是君物
그런 뒤 그대와 나 두 사람이 함께 올라가 소요하여
然後君吾兩人共攀出而翱翔兮
광막한 무하향⁴³⁰에 그것을 심으리라 樹之廣漠無何鄉
고목나무 등걸의 매화는 마침내 그대와 나 두 사람이 완상하게 되
리니 古查梅終爲君我兩人玩
하늘보다 뒤에 늙고 삼광보다 늦게 시드리라⁴³¹ 後天而老凋三光

429 삼신(三神) : 천신(天神), 지지(地祇), 산악(山岳)을 말한다.

430 무하향(無何鄉) : 무하유지향(無何有之鄉)의 준말로, 장자가 말한 이상향 즉 현실의 제약이 없는 무위자연(無爲自然)의 세계를 말한다. 《장자(莊子)》〈소요유(逍遙遊)〉에 “지금 그대에게 큰 나무가 있으면서도 그 나무가 쓸모없음을 걱정한다면 어찌 아무것도 없는 허무(虛無)의 고을, 끝없이 펼쳐진 들판에 심어 두고 그 옆에서 자유롭게 거닐면서 아무 하는 일 없이 지내고 그 아래에서 유유자적하면서 낮잠이라도 자지 않는가[今子有大樹，患其無用，何不樹之於無何有之鄉廣莫之野，彷徨乎無爲其側，逍遙乎寢臥其下.]”라고 하였다.

431 하늘보다…시드리라 : 이백(李白)의 악부시 〈비룡인(飛龍引)〉에 “자황께서 마침내 흰 토끼가 짙은 약을 내려주시니 하늘보다 뒤에 늙고 해와 달과 별보다 늦게 시드네.[紫皇乃賜白兔所搗之藥方，後天而老凋三光]”라고 한 데서 유래한 말이다.

청음⁴³² 김상헌 숙도 이 나에게 준 죽음⁴³³ 조희일 이숙 의 시
 에 차운해서 나에게 주었길래, 그시에 차운해서 이에 청음에게 주다
 次淸陰 金尙憲叔度 次竹陰 趙希逸怡叔 贈我韻贈我 仍贈淸陰

그대 세속과 어긋나게 달리는 것이 아니라 君非與俗相背馳
 굳센 마음은 유약함을 부끄럽게 여기기 때문이라네 石腸劍膽羞韋脂
 밝고 깨끗한 것으로 어찌 더러운 것을 받겠는가 皦皦焉能受汶汶
 온 세상이 그르다 해도 신경을 쓰지 않네 任他舉世而非之
 도는 치우치는 것에서 곤궁해지고 기우는 것에서 잃게 되니⁴³⁴

432 청음(淸陰) : 김상헌(金尙憲, 1570~1652)으로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숙도(叔度), 호는 청음·석실산인(石室山人)이다. 우의정 김상용(金尙容)의 동생이다. 윤근수의 문인이며, 병자호란 때 주화론(主和論)을 배척하고 끝까지 주전론(主戰論)을 주장하였다. 1639년 청이 명을 공격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출병을 요구하자, 이에 반대하는 소를 올렸다가 청에 압송되어 6년 동안 억류되었다.

433 죽음(竹陰) : 조희일(趙希逸 1575~1638)로 본관은 임천(林川), 자는 이숙(怡叔), 호는 죽음·팔봉(八峰)이다. 1601년(선조34) 진사시에 장원으로 급제하고, 1602년(선조35) 별시 문과에 급제하고, 1608년(광해군 즉위년) 문과 증시에 또 급제하였다. 벼슬은 승정원 주서, 정언, 예조 좌랑, 이조 정랑, 교리, 광주 목사(光州牧使), 예조 참판, 형조 참판, 경상 감사 등을 역임하였다. 시문과 서화 등에 모두 뛰어나 명성이 높았는데, 명나라 사신 주지번(朱之蕃)이 왔을 때 예조 좌랑으로 빈사(賓使) 유근(柳根)을 따라 영접하였고, 이후에도 접반사(接伴使)가 되어 모문룡(毛文龍)을 맞기도 하였다. 저서로 《죽음집》 등이 있다.

434 도는…되니 : 《증용장구》 첫머리에 “증은 치우치지 않고 기울지 않으며, 지나침과 모자람이 없는 것의 이름이요, 용은 평상함이다.[中者, 不偏不倚無過不及之名; 庸, 平常也.]”라고 한 구절을 인용한 것이다.

	道陋于偏失於倚
가려서 증앙을 얻었으니 부끄러운 바가 없네	擇得正中無所愧
성 북쪽과 성 서쪽이 마음은 멀지 않은데	城北城西心不遐
어찌하여 만나는 것이 얼마 되지 않는가	胡然會合無幾何
봄바람은 하늘과 같아 이르지 않는 곳이 없으니	春風如天無不至
성 가득 복사꽃·오얏꽃 두루 피지 않았는가	滿城桃李開遍未
죽봉이 가팔라서 한 번 이별로 떨어지게 되었으니	竹峯巉巖隔一別
비로소 알겠네, 장안에서도 해가 멀다는 것을	始知長安遠白日
마땅히 가야 한다면 가야 하는데 어찌 가지 않는가	宜去則去胡不去
서책 가득한 방 하나가 바로 내가 살 곳이라네	圖書一室是我所
말은 못하고 주저하며 수염 난 부인 ⁴³⁵ 처럼 행동하니	嘯嘯蹢躅婦而髯
이것을 일러 빼앗지 않으면 오히려 만족하지 않는다 ⁴³⁶ 라는 것이	是謂不奪猶不厭
라네	是謂不奪猶不厭
문서 더미 속에서 낚은 매번 날아가서	簿領叢中魂每飛
분분한 옥가루 ⁴³⁷ 같은 그대의 가르침을 받든다네	承君誨音如屑霏

435 수염 난 부인 : 남자로서 비록 수염을 기르고 있으나 굳센 기개가 없어 나약한 아녀자와 다를 것이 없음을 비유한 말이다.

436 빼앗지…않는다 : 《맹자》〈양혜왕 상(梁惠王上)〉에 “왕께서 어떻게 하면 내 나라를 이롭게 할까 하시면, 대부들은 어떻게 하면 내 집안을 이롭게 할까 하며, 사·서인들은 어떻게 하면 내 몸을 이롭게 할까 하여,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이익을 취한다면 나라가 위태로울 것입니다. …진실로 의를 뒷전으로 돌리고 이익을 앞세운다면 빼앗지 않고서는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王曰何以利吾國，大夫曰何以利吾家，士庶人曰，何以利吾身，上下交征利，而國危矣。…苟爲後義而先利，不奪不厭]”라고 하였다.

437 분분한 옥가루[屑霏] : 서로 이야기를 나눌 때 수준 높은 언어를 구사하는 것이 마치 옥가루가 분분하게 날리며 떨어지는 것처럼 아름답다는 말이다.

몇 번 하품하고 기지개 켜고 잠에서 깨니 幾度欠伸覺眠臥
 내일 아침 곧바로 천 리 길 가는 수레를 명해야 하기 때문이네 明日卽命千里駕
 이별의 마음은 말과 같아 그대를 따라 내달리고 別意如馬隨君馳
 이별의 근심 마음에 붙이니 기름을 붙인 듯하네 離愁着心同着脂
 기름은 빨기 어렵고 말은 내달리기 어려우니⁴³⁸ 脂膏難濯馬難馳
 외로운 회포로 고개 떨구며 침묵한들 누가 그것을 알아주리오 孤懷俛默誰知之
 어깨 부딪치는 저잣거리에서 그대는 의지할 수 없고 市門摩肩君不倚
 방구석⁴³⁹에서 고요히 대해도 부끄러운 생각이 없다네 屋漏靜對思無愧
 그대는 가까운 곳에서나 먼 곳에서나 시명이 있으니 君有詩名徹邇遐
 아름다운 시편은 때때로 음갱과 하손⁴⁴⁰을 업신여기리 佳篇往往凌陰何
 물길을 거슬러 근원을 찾는 것은 힘이 이를 만하고 遡流窮源力可至
 중도에서 스스로 한계 짓는 것 그대 응당 하지 않으리라 中道自畫君應未
 세상의 염량세태 때문에 어찌 이별하리오 世情冷暖何足別

438 기름은...어려우니 : 김상헌이 현주와 이별해야 하는 심정을 빚댄 것이다. 즉, 이별로 인한 근심이 기름 묻은 것처럼 씻어내기 어렵고 이별의 장소로 쉽게 말을 달려 가지도 못한다는 의미이다.

439 방구석[屋漏] : 집안에서 남의 눈에 띄지 않는 가장 깊숙한 곳으로 방의 서북쪽 구석을 말한다. 《시경》〈대아(大雅) 억(抑)〉에 “너의 깊은 거실에 있을 때를 보건대, 거의 옥루에서 부끄럽지 않게 할지이다.[相在爾室，尙不愧于屋漏.]”라고 한 것에서 온 말로, 홀로 있을 때에도 자신의 마음을 속이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다. ‘옥루불괴(屋漏不愧)’라고도 한다.

440 음갱(陰鏗)과 하손(何遜) : 옛날 남북조 시대에 진(陳)나라의 시인인 음갱(陰鏗)과 양(梁)나라의 시인인 하손(何遜)을 말한다. 두보(杜甫)의 〈해민(解悶)〉시에 “시 짓느라 고심한 음하를 자못 배웠노라.[頗學陰何苦用心.]”라고 하였다.

부질없는 백 년 인생 동안 하루같이 변함이 없다네 浮生百年如一日
 지인⁴⁴¹은 시운을 편안히 여기고 왕래를 알맞게 하니 至人安時適來去
 우주 어느 곳인들 내가 살 곳⁴⁴²이 아니리오 宇宙何處非我所
 부주에 살면서 머리털과 수염을 고치지 않으리니 居涪未改髮與髻
 호연한 기는 주리지 않아 마음은 절로 넉넉하리라 浩氣不餒心自厭
 하물며 그대의 이 행차 빠르기가 나는 듯하고 況君茲行快若飛
 매화 향기와 푸른 대나무가 봄에 무성한 데 있어서라 梅香竹翠春霏霏
 회양에서 분명하게 다스리는 일은 오히려 누워서도 할 만하니⁴⁴³

淮陽清理尙可臥

한 마리 학은 때때로 멍에 한두 마리의 새와 나란히 하리리⁴⁴⁴

一鶴時竝雙鳥駕

이상은 청음의 원운이다

441 지인(至人) : 노장(老莊)에서 초탈의 경지에 도달하여 나 아닌 일체의 외부세계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을 말한다. 《장자(莊子)》〈소요유(逍遙遊)〉에 “지인은 자기가 없고, 신인은 공이 없고, 성인은 명예가 없다.[至人無己, 神人無功, 聖人無名.]”라고 하였다.

442 내가 살 곳[我所] : 《시경》〈석서(碩鼠)〉에 나오는 구절로 “큰 쥐야 큰 쥐야, 내 기장을 먹지 말지어다. 삼 년 동안 너와 알고 지냈는데, 나를 즐겨 돌아보지 않는다면, 떠나리라 너를 버리고, 저 낙토 찾아가리라. 낙토여 낙토여, 이제 내 살 곳을 얻으리라.[碩鼠碩鼠, 無食我黍. 三歲貫女, 莫我肯顧. 逝將去女, 適彼樂土. 樂土樂土, 爰得我所.]”라고 하였다.

443 회양에서…만하니 : 급암(汲黯)은 한(漢)나라 무제(武帝) 때의 명신(名臣)으로 직간(直諫)을 잘 하였다. 일찍이 동해 태수(東海太守)로 있을 때 병이 많아 늘 함문(閤門) 안에 누워 정사를 오랫동안 돌보지 못했는데도 부임한 지 한 해 남짓 만에 고을이 매우 잘 다스려졌다고 한다.

444 한 마리…하리리 : 이 구절에서 ‘한 마리 학’은 지방관으로 나간 조찬한을, ‘두 마리 새’는 김상헌과 조희일을 빗댄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조찬한이 지방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여 정사가 안정되면 세 사람이 만나서 회포를 풀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이다.

소암⁴⁴⁵ 무숙 임숙영 의 시에 차운하여 주다

次贈疎菴 任叔英茂叔

별레 다리건 쥐의 간이건 하늘에 맡기니⁴⁴⁶ 蟲臂鼠肝任聽天
외발 기와 다리 많은 노래기, 서로 부러워할 필요 없네⁴⁴⁷ 不須夔與虺相憐
자취를 감추고 빛을 거두어⁴⁴⁸ 성시에 숨으니 晦跡韜光隱城市
하늘의 기린은 옥 채찍도 맞으려 하지 않지⁴⁴⁹ 天麟未肯受玉鞭

445 소암(疎菴) : 임숙영(任叔英, 1576~1623). 자는 무숙(茂叔)이고 소암은 그의 호이다. 아버지는 감역 임기(任奇)이고, 어머니는 승지 정유일(鄭惟一)의 딸이다. 1611년(광해군3) 별시문과 대책(對策)에서 척족의 횡포와 왕의 환심을 살 목적으로 존호를 올리려는 이이첨(李爾瞻)을 심하게 비난하였다. 이를 시관 심희수(沈喜壽)가 병과로 급제시켰는데, 광해군이 보고 크게 노하여 그의 이름을 삭제하게 하였다. 이후 몇 달간 삼사(三司)와 이항복(李恒福) 등이 주장하여 다시 급제자의 명단에 올랐다. 1613년 계축옥사(癸丑獄事) 때 다리가 아프다는 핑계로 정청(庭請)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곧 파직되어 광주(廣州)에 은둔하였다. 인조반정 초에 복직되어 예문관검열, 부수찬, 지평 등을 거쳤다. 고문(古文)에 힘썼으며, 사륙문(四六文)에 뛰어났다. 저서에 《소암집(疎菴集)》이 있다.

446 별레…맡기니 : 조물주의 뜻은 정해져 있지 않아서 그저 인연에 따라 변화하니, 사람도 별레 다리나 쥐의 간처럼 하찮은 사물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莊子 大宗師》

447 외발…없네 : 기(夔)는 외발 짐승이고, 현(虺)은 발이 많이 달린 노래기이다. 《장자(莊子)》〈추수(秋水)〉에 “기는 노래기를 부러워하고 노래기는 뱀을 부러워한다.[夔憐虺, 虺憐蛇.]”라고 하였다.

448 자취를…거두어 : 원문은 ‘晦跡韜光’인데, 예리한 기세와 재능을 감추어 드러내지 않는다는 뜻이다.

449 하늘의…않지 : 두보(杜甫)의 〈기악주가사마육장파주엄팔사군양각로오십운(寄岳州賈司馬六丈巴州嚴八使君兩閣老五十韻)〉에 “기린은 옥 채찍을 맞네.[麒麟受玉鞭]”라고 하였는데, 이 구절을 변용한 듯하다.

세상 조무래기들은 공명이 성대하여	世上兒子盛功名
큰 비석과 거대한 종에 새겨 자랑하네	豐石景鍾誇鑱鐫
역지로 웃으며 박한 녹봉 받느라 대 문장가 위축되니	強顏微祿縮大手
평생 가을 매미 ⁴⁵⁰ 처럼 말을 더듬었구나	一生口吃如寒蟬
어찌하여 훌륭한 세상에 조롱을 당하여	胡然聖世坐嘲訕
시 읊고 술 마시며 세월을 보내나	哦詩喫酒以爲年
듣자니 그대에겐 옛 전장이 있는데	聞說吾君舊莊在
봉황봉 아래 구대 ⁴⁵¹ 앞이라지	鳳凰峯下龜臺前
어찌 내 손 끌고 가서 집터를 잡지 않나	胡不提携來卜居
봄바람은 가없이 불고 산은 질푸른데	春風無邊山蒼然
가련한 대머리 늙은이는 공문서 속에서	可憐禿翁簿領中
보낼 시를 한 번 노래하고 등전지 ⁴⁵² 를 자른다오	一唱贈詩裁藤牋
사군의 곤궁함, 어찌 하늘의 뜻이겠나	使君窮厄豈其天
눈 부릅뜨며 여러 공들의 연민을 받지 않는구려	張目不受諸公憐

450 가을 매미 : 원문은 ‘寒蟬’인데, 가을이 깊어 날이 추워지면 매미가 울지 않기에 어떤 일이 있을 때 감히 말을 하지 못하는 자를 가을 매미에 빗댄다. 《후한서(後漢書)》당고열전(黨錮列傳) 두밀전(杜密傳)에 “유승은 지위가 대부에 이르러 상빈으로 예우를 받고 있지만 선한 자임을 알면서도 천거하지 않고 악한 자임을 듣고서도 말하지 않아서 실정을 숨기고 자신만 아끼는지라 울지 않는 가을 매미와 똑같으니, 이자가 죄인이다. 劉勝位爲大夫，見禮上賓，而知善不薦，聞惡無言，隱情惜己，自同寒蟬，此罪人也。”라고 하였다.

451 구대(龜臺) : 경상북도 영주(永州)에 있던 구학정(龜鶴亭) 근처의 서구대(西龜臺)와 동구대(東龜臺)를 가리킨다. 개천을 사이에 두고 양안에 자리 잡은 두 반석(盤石)으로, 수십 명이 앉을 수 있다고 한다.

452 등전지(藤牋紙) : 전지(牋紙)는 편지를 쓰거나 시문(詩文)을 쓰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한 종이로, 일반적으로 질이 좋은 종이를 말한다. 섬계(剡溪)에서 생산된 등나무로 만든 종이를 ‘섬등(剡藤)’이라 하는데, 이 종이가 매우 유명하여 명지(名紙)의 뜻으로 쓰이게 되었다. 이로써 살펴건대, 등전지는 등나무로 만든 질이 좋은 종이를 말하는 듯하다.

검은 홀과 흰 벽옥⁴⁵³은 본래 조탁하지 않는 것 玄圭白璧本不琢
 천리마와 준마에 누가 감히 채찍질하리오 驥子龍駒誰敢鞭
 문장은 대체로 그 심성을 닮는 것 文章大類其心性
 붓끝이 귀신처럼 빨라 끙끙대며 조탁하지 않는구나 筆端神速無雕鑄
 시문은 넘쳐흘러 당대를 비추지만 篇什橫流照當世
 좋은 공인은 절망하여 가을 매미처럼 입을 다무네⁴⁵⁴ 良工絕望噤如蟬
 행적을 지방 고을에 부쳤다고 탄식 말게 莫歎蹤跡寄州縣
 오히려 능력을 펼쳐 전성기를 맞을 수 있으니 猶能陳力當盛年
 강호의 경치는 공들에게 맡겼으니 江湖物色付公等
 흰 갈매기와 갈꽃 모두 눈앞에 있으리 白鷗蘆花俱眼前
 가을 기운이 곧 초목을 시들게 할 것을 근심하니 幽愁秋氣近黃落
 매서운 기운과 찬바람, 바야흐로 엄혹해지는구나 肅殺寒風方凜然
 시인은 으레 세모를 슬퍼하는 법이니 騷人例須悲歲暮
 아름다운 글귀 남쪽 전지⁴⁵⁵에 써서 부치려나 佳句倘寄蠻溪牋

이상은 소암의 원래 시이다

453 검은…벽옥 : 검은 홀은《서경(書經)》하서(夏書) 우공(禹貢)의 “그의 풍성(風聲)과 교화가 사해에 다 미치지, 우가 검은 홀을 폐백으로 올리며 순임금에게 그 일의 완성을 이뤘었다. 黻教訖于四海, 禹錫玄圭, 告厥成功.”라고 한 것에 보인다. 옛날에 특별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상으로 주던 것이다. 흰 벽옥은 백벽삼헌(白璧三獻)의 고사에 보인다. 춘추시대 초(楚)나라 변희(卞和)가 산속에서 옥돌을 얻어 여왕(厲王)에게 바쳤다가 왼쪽 발을 잘리고, 무왕(武王)에게 바쳤다가 오른쪽 발을 잘렸다. 세 번째로 문왕(文王)에게 바쳤는데, 왕이 그것을 조탁하여 흰 벽옥으로 만들어 진가를 인정받았다. 《韓非子和氏》

454 좋은…다무네 : 두보의 <제이존사송수장자가(題李尊師松樹障子歌)>에 “좋은 공인이 마음속으로 홀로 애쓰는 걸 다시 깨달았네. [更覺良工心獨苦.]”라고 하였다.

455 남쪽 전지(牋紙) : 원문은 ‘蠻溪牋’인데, ‘蠻溪’는 남쪽 시내를 말한다. 여기서는 현주(玄洲)가 남쪽 지방 수령, 즉 영천 군수(榮川郡守)로 있기 때문에 이 말을 쓴 듯하다. 《韓國文集叢刊解題 玄洲集》

소암의 조춘행에 차운하다

次疎菴早春行

설날 새벽 조회도 끝나고 이미 정월 상순이니	元朝朝罷已上旬
푸른 규룡이 자부 ⁴⁵⁶ 의 봄을 재촉해 부르네	碧虯催喚紫府春
늪은 희화가 까마귀를 몰자 길은 점점 기울고 ⁴⁵⁷	羲叟驅烏路漸斜
은하수에서 처음으로 뛰어오른 물고기는 지느러미와 비늘에 햇빛 을 쬐네	銀浦初魚曝鬣鱗
꽃의 신은 봄 신의 꿈으로 남몰래 괴롭고	花神暗惱青帝夢
선녀는 무거운 옥 단지 ^{458 459} 를 끄집어낸다	玉妃把出瑤壺重
푸른 하늘에 흩뿌린 듯 날리는 이슬방울 향기로운데	洒碧飛空露珠香
신령한 오동나무 새벽에 젖자 푸른 봉황이 운다 ⁴⁶⁰	靈梧曉濕啼青鳳
붉게 타고르는 듯한 기운을 불어 보내는 건	吹送一氣如煨紅

456 자부(紫府) : 신선의 거처를 말한다.

457 늪은...기울고 : 태양이 타는 수레를 여섯 마리 용이 끄는데, 희화(羲和)가 그 수레를 몬다고 한다. 또한 까마귀는 태양을 가리키는데, 태양에는 세 발 까마귀인 삼족오(三足鳥)가 산다고 하는 데서 유래한 말이다. 길은 황도(黃道)를 말하는 듯하다. 따라서 길이 점점 기울는 것은 기울어진 황도의 각이 점점 커지며 계절이 변해 감, 즉 이른 봄에서 깊은 봄 혹은 여름으로 변해 감을 말하는 듯하다.

458 단지 : 원문은 ‘壺’인데, 문맥에 근거하여 ‘壺’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459 옥 단지 : 원문의 ‘瑤壺’는 ‘玉壺’로 볼 수 있는데, 옥호는 술 단지를 말한다.

460 신령한...운다 : 봉황은 벽오동(碧梧桐)에 둥지를 튼다고 전해진다. 《시경(詩經)》〈대아(大雅) 권아(卷阿)〉에 “봉황이 울어대니, 저 높은 피이로다. 오동나무가 나서 자라니, 저 별바른 양지쪽이로다. [鳳凰鳴矣, 于彼高岡. 梧桐生矣, 于彼朝陽.]”라고 하였다.

장화궁⁴⁶⁵ 궁전은 하늘에 닿을 듯 솟았는데 章華宮殿拂天起
 옥을 끊은 듯한 푸른 기와는 물고기 비늘처럼 펼쳐졌네 碧瓦截玉鋪魚鱗
 향기로운 바람 불어 신녀의 꿈을 괴롭게 하는데 香風吹惱神女夢
 새벽 매서운 한기 속에 화려한 누각은 들쭉날쭉 珠閣參差曉寒重
 모래섬에서 비취새의 깃 주으며⁴⁶⁶ 아직 돌아오지 않으니 汀洲拾翠未歸來
 허리에 늘어뜨린 옥 장식, 봉황 두 마리 뒤집히네⁴⁶⁷ 玉刻垂腰倒雙鳳
 일찍 핀 꽃은 이미 궁금홍⁴⁶⁸을 배웠는데⁴⁶⁹ 早花已學宮錦紅
 봄빛은 동오⁴⁷⁰ 땅 동쪽에 도착하려 하는구나 韶光欲到東吳東
 대성⁴⁷¹의 성 아래 손권⁴⁷²의 무덤 臺城城下孫權墓

465 장화궁(章華宮) : 초나라 영왕(靈王)이 장화궁을 지어놓고는, 그 궁 안으로 도망쳐 온 자들은 체포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때 무우(無字)의 문지기가 도망을 쳐 장화궁 안으로 들어가자 무우가 체포하고는 영왕 앞에 나아가, 온 나라 땅이 임금의 소유이니 모두 왕궁이나 마찬가지로인데 왕궁이라는 이유로 도망친 죄인을 잡지 못한다면 어디에서 잡겠냐고 하였다. 그 말을 듣고 영왕이 그 문지기를 데려가게 하였다. 《春秋左氏傳 昭公7年》

466 비취새의 깃 주으며 : 원문은 ‘拾翠’로, 부녀자들의 봄놀이를 뜻한다. 옛날에 부녀자들이 비취새의 깃을 주워 머리 장식으로 썼던 데서 온 말이다. 조식(曹植)의 〈낙신부(洛神賦)〉에 “밝은 구슬을 캐기도 하고, 비취새의 깃을 줍기도 한다.[或採明珠, 或拾翠羽.]”라고 하였다.

467 허리에…뒤집히네 : 비취새의 깃을 줍는 여인들이 허리에 봉황 모양 옥 장식을 늘어뜨렸는데, 그것이 깃을 줍느라 몸을 굽힐 때 뒤집힌다는 말인 듯하다.

468 궁금홍(宮錦紅) : 작약의 품명으로, 짙은 붉은 색이다.

469 일찍…배웠는데 : 봄이 채 오기도 전에 먼저 피어난 꽃이 짙은 붉은 색이라는 뜻인 듯하다.

470 동오(東吳) : 삼국시대 오나라의 땅이 강동(江東) 지역에 있었기에 이렇게 부른다.

471 대성(臺城) : 원성(苑城)이라고도 한다. 본래 오나라 후원(後苑)의 성이었는데, 동진(東晉) 성제(成帝) 때 새 궁전을 짓고 건강궁(建康宮)이라 하였다. 《景定建康志 卷20 城闕志1》

472 손권(孫權) : 삼국시대 오나라의 초대 황제이다. 자는 중모(仲謀), 시

초야의 사람 영웅에게 술 한 잔 부어 제사 지내네 野人一杯酌英雄
 바닷가 산은 반쯤 자색 노을빛에 물들고 海山半染紫霞色
 영롱한 신선의 궁궐은 금빛과 푸른빛으로 빛난다 仙闕玲瓏煥金碧
 지금까지 죽지 않은 안기생⁴⁷³은 至今不死安期生
 봄에 단약을 만들어 노쇠함과 백발을 물리친다오 春日燒丹去衰白
 이상은 소암의 원시이다

호는 대황제(大皇帝). 손견(孫堅)의 둘째 아들로, 형 손책(孫策)이 죽자 그 뒤를 이어 강남(江南) 경영에 힘썼다.

- 473 안기생(安期生) : 진(秦)나라의 선인(仙人)이다. 하상장인(河上丈人)을 따라 황제(黃帝)와 노자(老子)의 학설을 배우고 동해(東海)가에서 약을 팔았다. 진시황(秦始皇)이 동쪽을 순유(巡遊)할 때 삼일 밤낮으로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한다. 진시황이 나중에 사자를 보내어 바다에 들어가 그를 찾게 하였으나, 사신이 봉래산에 도착하기 전에 풍랑을 만나 돌아왔다고 한다.

혹은 용이 그 바리때 안에 담겨 있고⁴⁷⁹ 或龍貯其盂
 혹은 까치가 그 어깨에 등지를 틀었구나⁴⁸⁰ 或鵲巢其肩
 여래세존 아래서 손을 합장하고 又手如來世尊下
 아미타불 앞에서 정례⁴⁸¹를 올렸네 頂禮阿彌陀佛前
 영롱한 오색구름은 해탈지견향⁴⁸² 풍기고 玲瓏五雲知見香
 하늘 가득 내리는 꽃비⁴⁸³는 모두 금빛 연꽃이라 滿天花雨皆金蓮
 대자비로 무량세계 위하여 불생불멸하니 大慈悲爲沒量界不生不滅

기에서는 부처를 공경하여 지극한 정성을 바쳤던 굵고독장자를 가리키는 듯하다.

- 479 용이…있고 : 여기에는 두 가지 고사가 있다. 하나는, 여래(如來)가 독룡(毒龍)을 제압한 일이다. 여래가 가섭(迦葉)의 삼형제로 화신하여 우루빈라(優婁頻螺)의 초당에 묵었는데, 가섭의 한 제자가 병으로 설사하여 초당을 더럽히기에 쫓아냈다. 그가 죽은 뒤에 독룡이 되어 인축(人畜)을 해치다가 불을 뿜으며 여래에게 다가갔는데, 결국 몸을 뒤치며 부처의 바리때 속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佛本行經 迦葉三兄弟品》 다른 하나는, 진(晉)나라 때 고승인 서역(西域) 사람 섭공(涉公)의 고사이다. 섭공이 부견(苻堅)의 요청으로 기우제(祈雨祭)를 행할 때 한 용을 굴복시켜 자신의 바리때 속으로 들어오게 해서 큰비를 내리게 했다는 것이다. 《梁高僧傳 涉公傳》
- 480 까치가…틀었구나 : 소식(蘇軾)의 〈기소견개원사오도자화불멸도이답자유(記所見開元寺吳道子畫佛滅度以答子由)〉에 “당시에 도를 닦느라 꽤나 고생하였기에, 양 팔꿈치에는 잣나무가 자라고 어깨에는 까마귀가 등지를 틀었다네.[當時修道頗辛苦, 柏生兩肘鳥巢肩.]”라고 하였다. 고생스러운 수도 생활을 의미한다.
- 481 정례(頂禮) : 무릎을 꿇고 두 손은 땅에 댄 채 머리를 부처의 발아래 두는 불교 최고의 예절이다.
- 482 해탈지견향(解脫知見香) : 오분법신향(五分法身香)의 하나로, 해탈했음을 혼자서 증명하거나 그렇게 자각하는 경지를 말한다. 오분법신향은 부처의 오분법신(五分法身)을 향(香)에 비유하여 계향(戒香), 정향(定香), 혜향(慧香), 해탈향(解脫香), 해탈지견향이라 칭한 것이다.
- 483 꽃비: 부처가 설법한 공덕에 감탄한 제천(諸天)이 꽃을 비처럼 뿌린 것을 말한다.

앉아서 만겁의 시간을 보매 구름처럼 찰나에 변하더라

坐看萬劫須與變化如雲煙

말하네, “이곳이 극락세계인데
땅은 불국이라 칭하고 서천이라 이름한다오.”
깜짝 놀라 잠에서 깨⁴⁸⁴ 이 세상으로 돌아오니
어지러운⁴⁸⁵ 문서는 전처럼 침상 곁에 잔뜩 쌓여 있네

云是極樂之世界

界稱佛國名西天

遽然形開還此世

囊僮簿牒依舊撲撲盈牀邊

전부터 과거 인연을 후회했으나
예법이 나를 속박하여 손발이 굳는 것 같았지
갑자기 우리 선사가 고을 성문을 두드리니
여러 부처가 그대 보내어 나를 찾게 한 깊은 뜻 있지 않았나

向來雖悔過去緣

禮法束我如拘攣

忽有吾師敲郡門

得非諸佛送來訪我深意存

나는 선사와 함께 곤륜산⁴⁸⁶을 넘어가서
꿈속에서 말한 바를 궁구하고 싶네
이어서 태청계⁴⁸⁷에 들르고

我欲與師踰崑崙

尋究夢裏之所云

仍過太清界

484 잠에서 깨 : 원문은 ‘形開’인데, 《장자(莊子)》〈제물론(齊物論)〉에 “잠 들어도 꿈을 꾸어 마음이 설 틈이 없고, 깨어나서는 신체가 외계(外界)의 욕망을 받아들인다.[其寐也, 魂交; 其覺也, 形開.]”라고 하였다.

485 어지러운 : 원문은 ‘囊僮’인데, 《장자》〈재유(在宥)〉에 “천하 사람들이 타고난 성명의 정을 편안히 누리지 못한다면, 이 여덟 가지는 비로소 서로 얽히고설켜서 번거롭게 흔들어 대며 천하를 어지럽힐 것이다.[天下將不安其性命之情, 之八者乃始攣卷僮囊而亂天下也.]”라고 하였다. ‘僮’은 ‘僮’이나 ‘僮’으로 된 곳도 있다.

486 곤륜산(崑崙山) : 중국 서쪽에 있다는 상상의 산으로, 그 위에는 현포(縣圃), 요지(瑤池), 낭원(閼苑) 등의 선경(仙境)이 있고 서왕모가 산다고 한다.

487 태청계(太清界) : 도가(道家)에서 말하는 신선의 거처이다.

또 현원군 ⁴⁸⁸ 을 알현하리	又謁玄元君
무릎을 꿇고 두 종교 ⁴⁸⁹ 의 첫 번째 뜻을 전수받아서	跪受兩家第一義
돌아와 지극한 성인인 우리 공자께 질정하리	歸質至聖吾夫子
곧장 그대의 법신 ⁴⁹⁰ 을 가르쳐	卽裁爾法身
나와 함께 유가의 가르침 안에서 노닐리라	與我翱翔名教裏
그런 뒤에야 바야흐로 진실한 경지로 달려가	然後方趨真實地
비로소 지난날 꿈이 그저 허상이었음을 깨달으리	始覺昔夢徒虛耳

488 현원군(玄元君) : 노자(老子)를 말한다.

489 두 종교 : 불교와 도교를 말한다.

490 법신(法身) : 청정한 자성(自性)을 증명하여 일체의 공덕을 성취한 몸으로, 불신(佛身)이라고도 한다. 고승(高僧)의 몸을 말하기도 한다.

몽선요

夢仙謠

만 리 깊이의 너른 바다	滄海深萬里
바람에 이는 파도와 흰 물보라 끝이 없구나	風濤雪浪無涯涘
적성 ⁴⁹¹ 은 몇 겹으로 둘러 있으나	赤城繞幾重
노을빛과 안개 그림자에 부질없이 흐릿하다	霞光霧影空瞳矓
금모래는 옥으로 덮인 땅에 찬란하고	金沙照爛被玉地
옥 나무에 옥백색 꽃 무더기가 밤에 밝구나	琪樹夜明瑤花叢
아래로는 팔극 ⁴⁹² 까지 펼쳐진 텅 빈 세계 굽어보고	下俯虛無旁八極
위로는 옥경 ⁴⁹³ 의 은하와 통하네	上與玉京銀河通
천 년에 한 번 맺는 복숭아, ⁴⁹⁴ 일 년에 세 번 꽃 피는 지초 ⁴⁹⁵	

491 적성(赤城) : 전설 속仙境(仙境)을 말한다.

492 팔극(八極) : 사방팔방의 끝이라는 뜻으로, 이 세계 전체 즉 우주를 뜻하는 말이다. 《장자》〈전자방(田子方)〉에 “무릇 지인은 위로는 푸른 하늘을 엿보고 아래로는 황천에 잠기며 팔극을 휘젓고 다니면서도 신기가 변하지 않는다.[夫至人者，上闚青天，下潛黃泉，揮斥八極，神氣不變。]”라고 하였다.

493 옥경(玉京) : 도가에서 천제(天帝)가 산다는 곳을 말하기도 하고, 선도(仙都)를 말하기도 한다.

494 천…복숭아 : 서왕모가 한 무제(漢武帝)에게 바쳤다는 반도(蟠桃) 즉 선도(仙桃)를 말하는 듯하다. 그 복숭아는 3천 년에 한 번 열매를 맺는다고 한다. 《漢武帝內傳》

495 일…지초 : 옛날 사람들은 지초(芝草)가 1년에 세 번 꽃을 피우므로 그것을 복용하면 오래 살 수 있다고 여겼다. 장형(張衡)의 〈사현부(思賢賦)〉에 “지초처럼 1년에 세 번 꽃 피우길 바라지만, 결국 가을 이슬처럼 서리가 되고 마네.[冀一年之三秀兮，遭白露之爲霜。]”라고 하였다.

千歲之桃三秀芝

꽃과 익은 과일들이 나란히 늘어서 궁궐 계단에 펼쳐져 있네

羅榮駢孰排軒墀

아홉 특징⁴⁹⁶을 지닌 신령한 새 봉황과 금빛 사자가
닭처럼 울고 개처럼 짖는구나

爲鷄爲犬鳴吠之

구슬로 지은 궁은 푸른 하늘에 기뻛고

珠宮倚虛碧

은으로 만든 궐은 땅까지 드리운 놀에 빛나네

銀闕耀霞脚

검은 우물과 자색 샘엔 교룡이 꿈틀대고

玄井紫泉蛟螭蜿蟠

공작은 깃털을 다듬고는 처마 끝으로 날아가며 운다

孔翠刷翻飛鳴簷角

명성옥녀⁴⁹⁷는 시첩 자리⁴⁹⁸를 채우고

明星玉女充下陳

해 뜨고 달 솟아 처마 가운데를 지나네

日浮月涌經枳樞

화려하게 장식한 창과 문이 어둠 속에 열리자

雲窓繡闥啓宵冥

늘어선 신선들의 안색이 복숭아꽃처럼 밝구나

列眞顏色桃花明

참된 비결을 읊조리다 토해 내자 다투어 옥을 두드리는 듯하고

哦眞吐祕爭戛玉

낄낄대며 웃자 우레와 벼락이 치는 듯하네

笑啞啞兮雷電激

구름 치마에 빛나는 무지개 두르고는

霓之衣兮帶虹光

496 아홉 특징 : 원문은 ‘九苞’로 봉황의 아홉 가지 특징을 의미하는데, 봉황 자체를 가리키기도 한다.

497 명성옥녀(明星玉女) : 화산(華山)에 살다가 옥漿(玉漿)이라는 선약(仙藥)을 먹고 대낮에 승천하였다는 선녀이다. 《太平廣記 卷59》

498 시첩 자리 : 원문의 ‘下陳’은 원래 전당(殿堂) 아래 비첩(婢妾)들이 늘어서 있던 곳을 의미하는데, 후궁 가운데 지위가 낮은 시첩(侍妾)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전국책(戰國策)》〈제책(齊策)〉에 “개와 말이 궁 바깥 마굿간을 가득 채우고, 미인이 시첩 자리를 채운다.[狗馬實外廄, 美人充下陳.]”라고 하였다.

깃 장식 덮개 씌운 수레를 타고 모여 서로 만난 것 기뻐하더라	集羽蓋兮欣相遇
바람이 어지러이 불어 비녀장을 돕고	風縱縱兮扶轄
안개 자욱하여 덮개를 받친 듯했지	霧霏霏兮承幘
알록달록한 기린이 솟구쳐 오르려는 것 제어하고	班麟控高驪
고운 학이 천천히 나는 것을 그대로 두네	彩鶴仍徐翔
용과 호랑이를 꾸짖어 높이 뛰어오르는 것 경계하며	呵龍叱虎戒飛躍
흰 봉새를 길들여 타고 푸른 고래를 길들여 기르더라	馴騎白鵬擾青鯨
붉은 까마귀를 양곡에서 맞이하고 ⁴⁹⁹	邀赤烏於陽谷
약목 꽃 핀 데서 가을 토끼를 전송하네 ⁵⁰⁰	送寒兔於若英
내가 정기로 바라보고 혼으로 만나니	余精矚而魂交
못 신선들이 서로 눈짓하며 희학질하지 않더라	衆仙目以不諠
선동(仙童)을 돌아보며 말을 전하게 하니	顧玉童而委辭
거듭 알려져 명확히 경계하게 하더라	詔申申其明飭
지름길로 직접 찾아오지 말라	毋捷徑以徑造兮
우리는 바로 신선이요 속인이 아니다	我乃仙而非俗
선동이 말을 마치고 급히 떠나겠다 하니	童辭訖而稱遽
두려워 정신이 깨어나고 몸도 일어났지	惕神寤而形覺
목소리와 그림자 찾았지만 끝내 단서가 없고	尋聲索影却無端
이 몸은 여전히 속세에 있구나	此身猶在塵埃間

499 붉은…맞이하고 : 붉은 까마귀는 태양을 가리키고, 양곡(陽谷)은 해가 뜨는 곳을 말한다.

500 약목(若木)…전송하네 : 굴원(屈原)의 <이소경(離騷經)>에 “함지에서 나의 말에게 물을 먹이고 부상 나무에 고삐를 매어 놓네. 약목의 가지를 꺾어 태양을 쳐서 지지 못하게 하고는 잠시 머뭇거리며 배회한다오. [飲余馬於咸池兮，總余轡乎扶桑。折若木以拂日兮，聊須臾以相羊。]”라고 하였다. 가을 토끼는 가을 달을 말한다.

정신만 오갈 필요 없으니	不須來往只精神
훗날 대약인 금단을 만들리 ⁵⁰¹	他時大藥成金丹
가벼이 날아올라 선부 ⁵⁰² 에 들어가면	輕舉入仙府
신선과 나 사이에 주인이니 손이니 없으리니	仙乎我乎無賓主
신선의 방술을 배워 신선의 벗이 되리라	學仙之術爲仙朋
신선과 무리를 이루어 함께 날아오르리니	與仙作隊同飛昇
신선이 된 즐거움, 이루 다할 수 없으리	爲仙之樂不可勝

-
- 501 훗날…만들리 : 대약(大藥)은 금단(金丹)을 말한다. 옛날에 방사(方士)들은 금석(金石)을 단련하여 단약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복용하면 불로장생한다고 여겼다.
- 502 선부(仙府) : 신선이 사는 저택을 말한다.

초천가

椒泉歌

초천 ⁵⁰³ 의 샘은	椒泉之泉
바로 귀성군 ⁵⁰⁴ 북산에 있는데	乃在龜城郡北山
산은 태백산으로부터 아득히 굽이쳐 왔지	山自太白遙回盤
산봉우리는 샘 주변을 둘러싸 정령의 도움을 쌓았고	峯環岫匝畜精祐
땅은 달리는 지맥을 휘돌게 하여 서로 구불구불 엮혔네	坤絡走脈相紆蟠
상제는 땅 귀신을 돌보아 신령한 진액을 낳게 하니	帝眷地祇產靈液
병 많은 노인을 살리려고 수역 ⁵⁰⁵ 을 열었구나	擬活疲癯開壽域
땅 귀신은 아주 오랜 세월 빼어난 기운을 잉태하여	地祇孕秀萬萬古
나는 듯한 물줄기를 쏘아 내니 옥을 뿜는 듯했지	射出飛淙如噴玉
산신령이 비밀스레 숨겨 사람은 알지 못했는데	山靈祕貯人不知
묵묵히 비범한 사람을 이끌어 드러내게 했네	默誘神人以發之
드러내어 우물로 만든 지 지금 몇 해인가	發而爲井今幾年
우물가 돌벽에 새긴 그림이 아직도 완연하다	石甃刻畫猶宛然
맹렬히 솟아 팔팔 흐르니 은 화살이 빠르게 날아가는 듯하고	怒涌滌汨銀箭激

503 초천(椒泉) : 영천(榮川)의 초수정(椒水井 초정(椒井))을 말한다. 현주가 영천 군수 시절에 지은 시로 보인다.

504 귀성군(龜城郡) : 영천의 옛 이름이다. 《新增東國輿地勝覽 卷25 慶尙道》

505 수역(壽域) : 사람마다 천수를 다하는 태평성세를 말한다. 《漢書 卷22 禮樂志》

성대하게 펼쳐진 물결이 막힘없이 흐르니 금 밧줄처럼 곧도다
 憤撒瀏瀏金繩直
 은하수처럼 맑고 얼음보다 차가운데
 淸如淸漢冷於水
 매운맛과 찬 기운은 익은 후추와 계피인 듯
 味辛氣冽椒桂熟
 진면목 드러내어 상쾌한 기운을 펼치는 칠팔월
 呈眞逞爽七八月
 숲 벼랑으로 격렬히 흐르며 짙은 향 뿌리네
 巒薄林崖播淑郁
 혹은 신룡이 우물 바닥에 도사리고 있으면서
 或似神龍蟠井底
 마구 흘부린 좁쌀처럼 작은 구슬을 어지러이 토하는 듯
 亂吐小珠如亂粟
 높이 훑날리거나 뺨뺨이 튀어 올라 일정한 모습 없으니
 高飄密跳無定態
 만 개의 물방울을 조그맣게 불어 내서 다투어 던지는 듯
 細吹萬點爭投擲
 혹은 토지의 신⁵⁰⁶이 샘을 우러르며 누워서
 或如富媪仰泉臥
 옥빛의 젖을 짜내어 우리 백성도 함께 와 맛보라는 듯
 漑出玉乳要我赤子咸來嚼
 피부는 윤기 나게 하고 입은 톡 쏘며 향은 매우 강렬한데
 沃肌螫口芳酷烈
 우리 백성⁵⁰⁷을 요절하지 않게 하는구나
 俾我橫目無夭札
 봄이 돌아와 벌레들이 깨어난 듯, 죽은 이의 뼈에 새살이 돋은 듯
 回春發蟄骨者肉

506 토지의 신 : 원문은 ‘富媪’인데, 《한서(漢書)》〈예악지(禮樂志)〉에 “땅의 부운이 삼광을 밝힌다.[后土富媪, 昭明三光.]”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 주(注)에 “온은 늙은 어머니를 칭한다. 땅은 어머니가 되기 때문에 온이라고 칭한다.[媪, 老母稱也. 坤爲母, 故稱媪.]”라고 하였다.

507 백성 : 원문은 ‘橫目’이다. 만물 가운데 사람만 눈이 가로로 생겼다고 하여 사람, 백성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장자》〈천지(天地)〉에 “선생님은 가로 눈의 백성에게 뜻이 없습니까? 성인의 정치를 듣고자 합니다.[夫子無意於橫目之民乎? 願聞聖治.]”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곱사등 펴지고 앉은뱅이 일어나며 귀머거리와 병어리⁵⁰⁸는 귀와
 입을 열리네 伸偃起甕開聾呻
 죽은 뒤 살아 돌아오기까지 열흘도 걸리지 않았고 死來生歸曾不旬
 신음이 변하여 노랫소리 되는 건 목욕 한 번에 달렸더라 變呻爲謳在一沐
 내가 이 고을 수령이 된 지 이제 3년⁵⁰⁹ 我宰此邑今年
 오랜 고질이 골수에 들어 나올 방법이 없었지 沈痼入髓無由痊
 지난날 병든 몸 이끌고 관아에서 내려와 昨者力疾下鈴軒
 가파르고 험한 산을 넘어가서 이 샘에 들어갔다네 跋涉巔絕投茲泉
 머리를 적실 때 이미 덜덜 떨렸고 濡首已戰惕
 발을 담글 때 혼이 먼저 달아났지 下足先褫魄
 등까지 빠지자 입이 짝 벌어지고 沒背口呀呀
 어깨까지 빠지자 마음은 흙덩이가 딱 메운 듯 陷肩意壘塞
 정신을 수습하자 비로소 상쾌함을 느끼니 收精會神始覺爽
 한 식경 쯤 쫓쫓이 앉았다가 땅으로 올라왔지 堅坐食頃方登陸
 한 번 목욕 때 이미 두렵고 막막했는데 一浴已惶茫
 두 번 목욕 땀 더욱 두렵고 위축되었다오 再浴愈悚縮
 일곱 번 여덟 번 목욕해도 여전히 겁이 났으니 七浴八浴猶畏怯
 열다섯 번 목욕하자 겨우 편히 쉬었다네 十有五浴纔偃息
 몸을 기르고 보호해서 근골이 건강해지니 榮滋衛理筋骨健
 산증과 치질 사라지고 풍사는 맥을 못 춘다오 疝消痔滅風邪伏
 나는 이것을 옮겨 도성에 들이길 원하니 我願移此入畿都
 널리 백성을 살리면 나라도 곧 소생하리라 普活群黎邦乃蘇

508 귀머거리와 병어리 : 원문은 ‘聾呻’인데, 국립중앙도서관 석판본 《현주집(玄洲集)》에 근거하여 ‘呻’을 ‘默’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509 내가…3년 : 현주는 1614년(광해군6)에 영천 군수가 되었다.

봄 누대에서 몸을 일으킨 듯 화락한 세상이 될 수 있으리니⁵¹⁰

熙熙可轉作春臺

무위⁵¹¹를 말하며 어찌 굳이 요임금 순임금 그리워하라 無爲何必懷唐虞

초천가는 여기에서 그치노니

椒泉之歌止于此

병이 있어도 목욕하지 않는 건 어째서인가

有疾不浴胡爲乎

510 봄…있으리니 : 봄 누대[春臺]에 오른다는 것은 태평성대의 화락한 기상을 비유하는 말이다. 《노자(老子)》 20장에 “사람들이 화락하여 진수성찬을 먹은 듯도 하고 봄 누대에 오른 듯도 하네.[衆人熙熙, 如享太牢, 如登春臺.]”라고 하였다.

511 무위(無爲) : 아무 일도 하지 않으나 세상이 잘 다스려지는 무위지치(無爲之治)를 뜻한다. 《논어(論語)》〈위령공(衛靈公)〉에 “인위적으로 행하지 않고 다스린 이는 순임금이실 것이다. 무엇을 하셨겠는가. 몸을 공손히 하고 바르게 남쪽을 향해 앉아 계셨을 뿐이다.[無爲而治者, 其舜也與. 夫何爲哉! 恭己正南面而已矣.]”라고 하였다.

일본에 가는 이상고⁵¹² 경직 를 전송하는 시

送李尙古赴日本詩 景稷 또 서문 장률 2수 절구 3수가 있다

나는 들었노니 일본은 바다 가운데가 아니라	吾聞日本非海中
해 뜨는 곳의 서쪽 동해의 동쪽에 있다 하네	日母之西東海東
부상의 높은 가지는 멀리서 잡을 만한데	扶桑高枝可遙攬
금빛 까마귀 ⁵¹³ 가 깃뻏아 가지에 잎이 없구나	金鳥蹙踏柯葉空
더러는 안남 ⁵¹⁴ 으로부터 조제 ⁵¹⁵ 에 이르고	或從安南屈雕題
유구국 ⁵¹⁶ 남만에서 관흉 ⁵¹⁷ 에까지 도달하네	琉球南蠻通貫胸

512 이상고(李尙古) : 상고는 이경직(李景稷, 1577~1640)의 자. 본관은 전주(全州)이고 호는 석문(石門). 광해군 때 폐모론에 반대하여 사직하였고, 정묘호란 때 병조참판으로 왕을 강화도에서 호종하였으며, 병자호란 이후 호조 판서, 도승지, 강화 유수(江華留守) 등을 역임하였다. 이 시는 조찬한이 그가 1617년 회답사(回答使) 오윤겸(吳允謙)을 따라 종사관(從事官)으로 일본에 갈 때 지은 시로 보인다.

513 금빛 까마귀 : 고대의 전설에 따르면 태양 속에 ‘발이 셋 달린 까마귀[三足鳥]’가 있다고 한다.

514 안남(安南) : 지금의 베트남 북부 지역에 있었던 나라로, 7세기 후반에 중국이 하노이에 안남도호부(安南都護府)를 설치하였다. 《지봉유설(芝峯類說)》에서는 안남국에 대해, “안남국은 중국 서남(西南)에 있는데 북경(北京)과의 거리가 1만 3000리이며, 진(秦)나라 때에는 상군(象郡)이라 하였고, 한나라 때에는 교지군(交趾郡)을 설치하였다. [安南國在中國西南, 距北京一萬三千里, 秦爲象郡, 漢置交趾郡.]”라고 하였다.

515 조제(倮題) : ‘조제’는 갈로 이마에 문신을 새겨 넣는다는 뜻. 고대에 남방의 소수 민족 사이에 유행했던 풍속인데, 여기서는 남민(南蠻)을 지칭하는 말로 쓰였다.

516 유구국(琉球國) : 동중국해의 남동쪽, 현재 일본 오키나와현 일대에 위치하였던 독립 왕국이다. 100여 년간 삼국으로 분할되어 있던 것을 1429년에 중산국(中山國)이 통일하여 건국하였다. 유구국은 중국이나 일본, 동남아시아 등과의 중계 무역으로 번성하였다. 여러 차례 일본의 침략을 받아 1879년에 일본에 강제로 병합되어 멸망하였고, 오키나와현으로 바뀌었다.

517 관흉(貫胸) : 남민(南蠻)의 종속(種屬)인데, 이 나라 사람들은 가슴에

그 땅에선 상아 무소 가죽	厥土產齒革
금은 보주 구리 철 주석을 생산하며	金珠銅鐵錫
그곳의 나무로는 후추와 단목이 있고	厥木有椒丹
그곳의 새로는 공작이 있다네	厥羽有孔雀
머리털을 깎아 스님의 참선을 익히고	髡髮習僧禪
이에 칠을 해서 작위로 삼네	漆齒以爲爵
용맹을 숭상하여 검술에 능하고	尙勇善擊劍
과감히 살인하는 자는 명성이 혁혁하게 드러나네	敢殺者顯赫
모르겠네 어느 왕이 처음으로 나라를 열었는지	不知何王肇開國
중세 ⁵¹⁸ 에 나라 이름이 주나라 서적에 실렸지	中世邦名載周籍
진한 및 당송 시기에는	秦漢之間及唐宋
소리가 사라지고 그림자도 끊어져 소식이 없었네	聲沈影絕無消息
명나라 때에 바야흐로 완강해져서	大明之中方倔強
요동과 절강 지역이 피해를 입은 게 많았다네	東遼南浙多瘡瘡
하물며 우리나라 강역은 바다 하나를 격해 있음에라	況我國場隔一海
병란의 재해가 신라 고려 때 끊어지지 않았네	兵燹不絕羅麗代
조종께서 개국하실 땐 그래도 아첨하더니	祖宗承開猶然
근세에는 혹은 평화롭게 지내고 혹은 싸웠지	或和或鬪由近世
임진란에 유린 당함은 경계하지 않음에서 나온 것	壬辰受躪出不戒
나라에 전쟁이 없는 지 이백 년이었네	國無戎事二百歲
이제 강화를 허락하여 양쪽이 사이가 좋아졌노니	今茲許平因兩好

구멍이 있어 여기에 막대로 꿰어 양쪽에서 두 사람이 떠메고 다닌다 한다. 그러므로 천흉(穿胸) 또는 관흉이라 한다. 《三才圖會》

518 중세(中世) : 중고(中古)와 같다. 이는 상주(商周) 시대를 가리킨다. 《상군서(商君書)》〈내민(徠民)〉에 “중세에는 탕왕과 무왕이 천자의 자리에 있어 백성이 복종하였다.[中世有湯武, 在位而民服.]”라고 하였다.

사자가 두 번 돌아왔고 세 번 가려 하네	使者再返而三戾
사신 두 명과 종사관 ⁵¹⁹ 한 명을 뽑으니	爲揀兩价一從事
종사관은 사람 뽑기 어려운데 우리 그대를 얻었구나	從事難人得吾子
담략은 출중하고 총명하고 예리함은 돋보이며	膽略出等聰銳獨
충의는 푸른 하늘에 해가 타오르는 듯하네	忠義青天白日爆
대궐에서 조서를 받들어 임금을 하직하고	鳳闕承綸辭至尊
북당 ⁵²⁰ 에서 이별을 고하고 떠나려는 뜻 급하였네	北堂告別行意速
아버이 등을 어루만지며 신하의 절조에 힘쓰라 하시니	雙親撫背勸臣節
무릎 꿇고 귀로 들음에 눈물이 가슴을 적시네	膝跪耳受淚橫臆
동해는 유월이라 붉은 구름 찌는 듯한데	東洋六月火雲蒸
높은 돛대는 신속하게 삼복더위 뚫고 가리	危檣撇撥衝三伏
내달리는 고래 날갯짓하는 봉새는 날개와 지느러미 흔들어	奔鯨習鵬掉羽鬣
큰 바다가 솟아오르고 우레와 비 일어나리	滄海起立雷雨作
대마도와 일기도 ⁵²¹ 가 다투어 눈에 들어오면	對馬一岐爭入眼
논두렁을 지나듯이 한 번에 만 리를 넘어가리	一蹕萬里如過陌
일왕에게 보답하여 정성을 보내고	報謝日王輸悃悞
일 마치고 돌아오는 건 정녕 어떤 날일까	竣事歸來定何夕

519 종사관(從事官) : 조선에서 일본에 파견한 통신사(通信使)의 삼사(三使) 가운데 문신 5, 6품 관직이다. 그 직무는 사행 중 정사와 부사를 보좌하면서 생긴 일을 기록하였다가 귀국 후 국왕에게 상주하는 것이었다. 조선 전기에는 서장관(書狀官)이라고 하였는데, 임진왜란 후 종사관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다.

520 북당(北堂) : 북당은 주부(主婦)가 거처하는 곳으로, 주로 모친의 처소를 가리킨다.

521 일기도(一岐島) : 대마도와 일본 구주(九州)의 사이에 있는 이키노시마라는 섬이다. 이 지역은 일본의 왜구가 심하게 발호(跋扈)하던 곳이다.

같은 마을 친구와 삼 년을 떨어져 있더니	同里故人隔三載
영남에서 서로 만난 곳이 이별의 자리 되었네	嶺外相逢是別席
행로의 수령들은 먼지 날리며 공장 ⁵²² 을 갖추고	路侯飛塵備供帳
신선 같은 고관을 앙모하네	悵望高軒如羽客
어찌 부탁하는 말을 간곡히 할 필요가 있으랴	何必贈言之丁寧
힘써야 할 바는 그대가 온축하지 않은 게 없네	所勉無非子畜積

522 공장(供帳) : 연회를 열기 위하여 필요한 여러 가지 재료를 준비하고 천막을 치는 등의 일을 말한다.

이 사과⁵²³ 징에게 그림을 구하는 시

乞畫于李司果詩 澄

나는 용면거사⁵²⁴ 묵본의 정교함을 좋아하지 않고

我不喜龍眠居士墨本巧

또 호두장군⁵²⁵ 필세의 묘함을 좋아하지 않네

又不喜虎頭將軍筆勢妙

523 이 사과(李司果) : 이징(李澄, 1581~?)을 말한다. 사과는 이징이 역임했던 정6품의 관직이다. 그의 본관은 전주(全州)이고 자는 자함(子涵)이며 호는 허주(虛舟)이다. 그는 유명한 화가였던 종실(宗室) 학림정(鶴林正) 이경운(李慶胤)의 서자로 태어났다. 허균(許筠)이 그를 가리켜 본국제일수(本國第一手)라고 평했을 정도로 뛰어난 화가였다. 대표작으로 <연사모종도(煙寺暮鐘圖)>, <노안도(蘆雁圖)> 등이 있다.

524 용면거사(龍眠居士) : 송(宋)나라의 유명한 화가인 이공린(李公麟, 1049~1106)의 호이다. 자는 백시(伯時)인데 이공린이 벼슬을 그만두고 용면산(龍眠山)에 들어가서 지내며 용면거사라 자호하였다. 시·서·화에 모두 능한 문인화가인데, 불상, 인물, 산수, 화조 등의 그림을 잘 그렸다. 특히 말[馬] 그림과 인물화를 잘 그려서 당시 사류들이 그를 고개지(顧愷之, 345?~406)·장승요(張僧繇 남조 양(梁))·오도자(吳道子 당(唐)) 다음으로 꼽으며 송대(宋代) 제일이라고 평하였다. 소식(蘇軾, 1037~1101)과 친하게 지냈으며, 화가 중에서는 소식의 초상화를 그가 맨 처음으로 그렸다고 전해진다.

525 호두장군(虎頭將軍) : 호두장군을 역임한 진(晉)나라의 고개지(顧愷之)를 가리킨다. 그의 자는 장강(長康)으로, 강소성(江蘇省) 무석(無錫) 사람이다. 초상화와 옛 인물을 잘 그려 중국 회화사에서 인물화의 최고 봉으로 일컬어진다. 그가 초상화를 그리면서 몇 년 동안 눈동자를 찍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 물으니 대답하기를, “정신을 붙여넣어 진실하게 묘사함은 바로 눈동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傳神寫照, 正在阿堵中.]”라고 하였다. 또 그는 세상에서 재(才), 서(書), 치(癡)의 삼절(三絶)로 일컬어졌다.

이성⁵²⁶ 벼루 옆 창강 소나기⁵²⁷가 꼭 자옥한 것도 아니며

滄江驟雨不必微茫李成硯

소식 책상 위 황강 마른 대나무⁵²⁸가 꼭 상쾌하고 시원한 것도 아
나라네

黃岡瘦竹不必颯爽蘇仙案

본조가 비록 신라 백제 고구려를 이었지만

國朝雖仍羅濟麗

인물들이야 중국의 선비들에게 뒤지지 않네

人物不讓中華士

그중에 화가로서 세상에서 최고라 일컫는 이는

其間畫手世稱最

손가락을 꼽아도 오히려 한둘을 꼽기 어렵다네

屈指猶難數一二

어찌 말할 수 있으랴 이상좌⁵²⁹가 공교로운 솜씨를 부려서 기량을

526 이성(李成) : 중국 오대(五代) 송(宋)나라 초기의 화가인 이성(李成, 919~967)을 가리킨다. 선조가 당(唐)나라 황실의 종친으로 섬서성(陝西省) 사람인데 청주에 살다가 산둥성(山東省) 영구에 정착하였다. 산수화에서의 그의 위치는 종교 인물화에서의 오도현(吳道玄)의 그것에 필적한다고 알려졌다. 그는 평탄한 산야를 그리는 평원산수법(平遠山水法)을 대성시켜 관동(關東), 범관(范寬)과 함께 북송의 3대 화가로 일컬어졌다.

527 창강(滄江) 소나기 : 이성(李成)이 그린 산수화의 풍경을 말한다.

528 소식(蘇軾)…대나무 : 소식이 그린 그림 속의 대나무를 말한다. 황강(黃岡)은 소식이 유배된 황주(黃州)이다. 이곳은 대나무 산지로 유명한데, 소식은 <어잠승녹균헌시(於潛僧綠筠軒詩)>에, “고기가 없으면 사람이 마르게 되고, 대가 없으면 사람이 속되게 된다.[無肉令人瘦, 無竹令人俗.]”라고 할 정도로 대나무를 몹시 좋아하였다. 또한 그림에 매우 능하였기에 대나무 그림을 상당수 그린 것으로 보인다. 그는 행운을 불러온다는 붉은빛 대나무 그림(朱竹畫)을 그렸고 현존하는 동파의 작품인 <고목죽석도(枯木竹石圖)>나 <소상죽석도(瀟湘竹石圖)>도 대나무를 소재로 한 것이다.

529 이상좌(李上佐) : 조선 초기의 화가로 생몰년은 미상이다.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공우(公祐), 호는 학포(學圃)이다. 천인 출신 화공으로 인물화에 특히 뛰어났다. 1545년 중종의 어진(御眞)을 추사(追寫)하였으며, 1546년에는 공신들의 초상을 그려 원종공신(原從功臣)의 칭호를 받았다. 현존하는 작품은 대부분 남송(南宋)에서 명대의 절파(

자랑하고 김시⁵³⁰가 집대성할 수 있었으니

安可道李上佐馳工騁巧誇距觜司圃金能集大成

조화옹이 순일하고 신령한 기를 다 보내버렸다고 造化畢輸其精靈

학림⁵³¹ 죽림⁵³² 양공은 둘 다 왕손으로 鶴竹兩公兩王孫

말을 나란히 해 함께 내달려 먼저 알려지길 다투었지

竝駕共鶩爭先鳴

하늘은 학림공에게 맡긴 게 더 두터워

天於鶴公委畀篤

浙派)로 이어지는 화풍을 따른 인물 중심으로 구성된 산수화와 도석 인물화(道釋人物畫) 등이다.

530 김시(金禕) : 1524~1593. 호는 양송당(養松堂), 자는 계수(季綏), 본관은 연안(延安)이다. 1537년 부친 김안로(金安老)가 정유삼흉(丁酉三凶)으로 몰려 권좌에서 물러나자 일생을 독서와 서화에 전념하여 산수·인물·우마(牛馬)·화조 등 여러 분야에서 뛰어나 당시 최립(崔笠)의 문장, 한호(韓濩)의 글씨, 그의 그림을 일컬어 삼절(三絶)이라 하였다. 벼슬은 사포 별제(司圃別提)를 지냈을 뿐이다.

531 학림(鶴林) : 이경운(李慶胤, 1545~1611)으로, 본관은 전주, 자는 계길(季吉), 호는 낙파(駱坡)·학록(鶴麓)이다. 성종(成宗)의 열한 번째 아들 이관(李貫)의 증증손으로 산수화와 인물화에 뛰어났다. 절파풍(浙派風)의 대가 김시(金禕)와 친밀하게 교류하면서 화풍의 영향을 받았다. 간이당(簡易堂) 최립(崔笠)의 발문과 찬시(贊詩)가 적혀 있는 <산수인물화첩>, <산수도>, <고사탁족도(高士濯足圖)> 등이 전한다. 학림수(鶴林守)에 제수되었다가 학림정이 되었다.

532 죽림(竹林) : 이영운(李英胤, 1561~1611)으로,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가길(嘉吉)이다. 왕족으로 청성군(靑城君) 이결(李傑)의 아들이고 이경운의 동생이며 죽림수를 제수 받았다. 영모(翎毛)와 화조(花鳥)를 잘 그렸는데 말 그림에도 뛰어났다. 이영운의 말 그림은 윤곽을 세필(細筆)로 긋고 그 안에 먹으로 선염한 효과를 살려 입체감을 나타내었다. 《연려실기술(鍊藝室記述)》 별집에는 “죽림수의 그림은 학림정에 버금가니 화법이 대략 같다. 그러나 말과 영모는 그 형보다 낫다.”라고 기록되었다.

이처럼 출중한 아이 ⁵³³ 를 낳게 하였네	生此絕等之寧馨
왕손의 아들도 왕손인데	王孫之子亦王孫
지금 서인으로 충청 지역을 유랑하네	於今爲庶飄泊湖州城
노인을 부축하고 어린애 이끌어 공산 ⁵³⁴ 에 머무르니	扶携老稚滯公山
공주의 초목들도 이름을 안다네	公山草木知姓名
배우지 않고도 아는 신필 도무지 자취가 없어	生知神筆了無迹
삼라만상을 거두어 마음속에 벌려 놓았네	收拾萬象羅胸臆
구름과 안개가 하늘에서 일렁이니	風煙動玄間
조물주가 붓끝에서 만물을 내는 듯	造物生毫端
만물의 주재자 울며 호소하고 하늘이 놀라	眞宰泣訴天爲驚
천둥소리 왕왕 처마 기둥에 요란하구나	霹靂往往搜簷楹
어떤 때는 부름을 받아 역마로 올라가	有時駟騎召上去
궁중의 수많은 흰 비단에 붓을 휘둘러 그리노니	揮掃宮縑千萬素
갑자기 붓을 놓으면 이미 경물이 종이에 가득해	劃然放筆已滿紙
느긋이 배회하며 사방을 돌아보네 ⁵³⁵	爲之躊躇爲四顧

533 이처럼 출중한 아이 : 원문의 ‘영형(寧馨)’은 ‘영형아(寧馨兒)’의 축약이다. 영형아는 진송(晉宋) 시대의 속어(俗語)로 ‘이러한 아이’라는 감탄사로 쓰이던 말로서 매우 기특함을 뜻한다. 진(晉)나라 때 왕연(王衍)이 어려서 매우 총명하고 풍채가 뛰어났는데, 그가 총각 시절에 산도(山濤)를 방문했을 때 산도가 그를 보고 한참 동안 감탄을 하더니, 그가 떠날 때는 또 그를 눈여겨보면서 말하기를 “그 어떤 아낙네가 이러한 아이를 낳았단 말인가.[何物老嫗, 生寧馨兒?]”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晉書 卷43 王衍列傳》

534 공산(公山) : 백제의 고도인 충청남도 공주(公州)를 가리킨다. 이곳의 진산이 바로 공산이며 백제의 옛 성이라 알려진 공산성(公山城)이 있다.

535 느긋이...돌아보네 : 그림을 다 그린 뒤 자득하여 만족한 모습을 형용한 것이다. 《장자(莊子)》〈양생주(養生主)〉에 포정(庖丁)이 문혜군(文惠君)을 위해 훌륭한 갈 솜씨로 소를 잡고는 자득하는 모습을 보

저 뛰어난 목수를 대신해 나무 깎는 이⁵³⁶들을 비웃노니

哂彼大匠之斲木

손등의 휘파람 소리⁵³⁷와 예형의 축 소리⁵³⁸로다 孫登之嘯禰衡筑

장전이 풀어 헤친 머리털로 쓴 초성의 글자⁵³⁹와 張顛被髮草聖字

공손대랑이 춤추었던 검기⁵⁴⁰로다

公孫大娘舞劍器

이는데 여기에서 나온 말이다.[吾見其難爲，怵然爲戒，視爲止，行爲遲，動刀甚微，諫然已解，如土委地，提刀而立，爲之四顧，爲之躊躇，滿志，善刀而藏之.]

536 저...이 : 화가로서의 예술적 재능이 없으면서 일을 맡아 솜씨를 부리는 자들을 일컫는다. 《노자(老子)》 74장에 “뛰어난 목수 대신 나무를 깎는다면, 손을 다치지 않을 사람이 드물 것이다.[夫代大匠斲者，希有不傷其手矣.]”라고 하였는데 이 전거에서 의미를 취한 것이다.

537 손등(孫登)의 휘파람 소리 : 진(晉)나라 때 완적(阮籍)이 일찍이 소문산(蘇門山)에 올라가 은사(隱士) 손등을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보았으나 손등이 전혀 대꾸하지 않았다. 완적이 마침내 휘파람을 길게 불면서 내려갔는데, 산 중턱쯤 내려갔을 때 마치 난봉(鸞鳳)같이 아름다운 손등의 휘파람 소리가 암곡(巖谷)에 울려 퍼졌다고 한다. 《晉書 卷49 阮籍列傳》 여기서는 이징의 예술 경지를 비유한 것이다.

538 예형(禰衡)의 축 소리 : 예형(禰衡, 173~198)은 후한 말의 인물로 문재와 기상이 있었으나 조조(曹操)와 유표(劉表), 황조(黃祖)를 능멸하다 황조에게 처형되었다. 《후한서(後漢書)》 〈예형전(禰衡傳)〉에 의하면 조조가 그를 모욕 주기 위하여 고리(鼓吏)를 삼자, 그는 속옷만 걸치고 북을 치며 어양곡(漁陽曲)을 노래하였는데 그 소리가 비장하고 절묘하였다고 한다. 여기에서 축 소리는 아마도 북소리의 착오인 듯하다.

539 장전(張顛)이...글자 : 장전은 초성(草聖)이라 불리는 당(唐)나라 서예가 장욱(張旭)을 가리킨다. 술을 좋아하여 대취(大醉)했을 때마다 소리를 지르며 미친 듯이 질주하다가 글씨를 쓰기도 하고 혹은 머리털에 먹물을 묻혀 글씨를 쓰기도 하였으므로 그 당시에 장전이라고 호칭하였다. 《新唐書 卷202 張旭列傳》

540 공손대랑(公孫大娘)이 춤추었던 검기(劍器) : 공손대랑은 중국 당(唐)나라의 교방기생(教坊妓生)으로 검무(劍舞)가 당대 최고였다. 검기

그 무엇이 왕손이 여유작작하여 孰如王孫綽有裕
 상림에 법도가 합하고 경수에 들어맞는 것⁵⁴¹만 하라 合度桑林中溼水
 열흘에 강물 둘 그리고 열흘에 산 하나 그릴⁵⁴² 필요 없노니
 不須十日二水十日山
 며칠 만에 몇 개의 산수화를 완성할 수 있다네 幾日能成幾山水
 다만 더디지도 않고 또 빠르지도 않게 唯應不遲亦不速
 손 가는 대로 맡겨 정신으로 섬세한 산수화를 모사하네
 信手神模細山水
 시와 그림 중 무엇이 뛰어난지 몰랐다가 未知詩畫孰優劣
 바야흐로 내 시가 그림에 비해 즐렬함을 깨닫네 方覺吾詩比畫拙
 그림을 그리고 내 말을 구하려 온 이가 없는데 人無作畫覓吾語
 내 시는 그림을 청하기 위해 먼저 지었다네 吾詩先爲乞畫就

는 옛날 무곡(舞曲)의 이름이다. 그녀가 검무를 추는 것을 본 장옥(張旭)은 “공손대량의 검무를 보고 붓을 놀리는 참뜻을 깨달았다.”라고 말하였다.

- 541 상림(桑林)에…것 : 상림은 탕 임금의 음악이고 ‘경수(溼水)’는 요임금의 음악인 ‘경수(經首)’의 오자로 보인다. 《장자(莊子)》〈양생주(養生主)〉에 “포정이 문혜군을 위해 소를 잡을 적에 그 솜씨가 매우 능숙해서, 손과 어깨와 발과 무릎의 동작에 따라 서걱서걱 소리를 내고 칼질하는 대로 짹짹 잘려 나갔는데, 그 음향이 모두 음률에 맞아서 상탕(商湯) 시대의 상림의 무악(舞樂)과 요(堯) 임금 때의 경수의 음절에 조화되었다.[庖丁爲文惠君解牛，手之所觸，肩之所倚，足之所履，膝之所踣，砉然騞然，奏刀騞然，莫不中音，合於桑林之舞，乃中經首之會.]”라고 하였다.
- 542 열흘에…그릴 : 남의 재촉을 받지 않고 자신의 공력을 충분히 들여 작품을 남긴다는 뜻이다. 두보(杜甫)의 시 〈왕재의 산수화에 장난삼아 쓴 노래[戲題王宰畫山水歌]〉에 “열흘 동안 물 하나를 그리고, 다섯 동안 돌을 하나 그린다. 훌륭한 일은 남의 재촉을 받지 않아야 하니, 왕재가 비로소 진적을 남기려 한다.[十日畫一水，五日畫一石。能事不受相促迫，王宰始肯留真跡.]”라고 하였다.

아아 선후의 차례로 공교함과 졸렬함을 비교치 말라

噫吁嘻莫將先後較工拙

그림을 얻고 시를 얻어 모두 손실이 없으니 得畫得詩俱無失

한양협소⁵⁴³행 나수양에게 빨리 써서 주다

漢陽俠少行 走贈羅守讓

나공(羅公)의 오 형제는 모두 태평 시절에 협객이었는데 수양씨(守讓氏)만 홀로 호남에 떠돌다가 임실(任實)에서 나를 만났다. 등불 아래 붓을 잡고 써 주다.

한양의 태평 시절 이백 년

漢陽昇平二百祀

도읍의 백성들 많고도 아름다워라

都人士女殷且美

집집마다 종을 쳐서 술을 벌려놓고⁵⁴⁴ 먹을 때 음식은 수없이 많고

家家鍾鼎食如蟻

눈부신 단장 햇빛에 빛날 때 노래 악기 소리 떠들썩 明粧耀日喧歌吹

삼문 밖⁵⁴⁵을 협객들의 굴이라 일컫는데

三門之外稱俠窟

세 명의 정씨 다섯 명의 나씨가 오직 최고라네 三鄭五羅唯其最

무지개와 같은 기를 토하고 우레 같은 소리 지르며 吐氣如虹聲若雷

통 넓은 바지 느슨한 허리띠로 서로 배회하였네

大袴緩帶相徘徊

543 협소(俠少) : 소년 임협(任俠)을 말한다. 남조(南朝) 진후주(陳後主)의 <낙양도(洛陽道)>에 “황금 탄환 지닌 소년 임협이며, 붉은 수레바퀴 성대한 열후로다.[黃金彈俠少, 朱輪盛徹侯.]”라는 말이 있다.

544 종을…벌려놓고 : 원문의 ‘종정(鍾鼎)’은 ‘종명정식(鍾鳴鼎食)’의 준말로, 종을 울려 가족을 모아 술을 늘어놓고 음식을 먹을 정도로 부귀하고 호화로운 삶을 말한다. 왕발(王勃)의 <등왕각서(滕王閣序)>에 “여염집이 땅에 가득하니 종을 울리고 술 밥을 먹는 집들이요, 큰 배가 나무를 찾으니 청작과 황룡을 그린 배들이로다.[閭閻撲地, 鐘鳴鼎食之家. 舸艦迷津, 青雀黃龍之軸.]”라고 하였다.

545 삼문(三門) 밖 : 삼문은 승례문[南大門], 소의문[西小門], 돈의문[新門]을 일컫는다. 삼문 밖 지역은 남대문에서 서대문까지의 성 밖 지역을 지칭한다.

삼월에 봄 경치가 궁성에 가득하면	三月鶯花滿禁城
송현 ⁵⁴⁶ 모퉁이에서 미녀를 빼앗아 끼고 놀았네	掠挾妖娥松峴隈
술집에서 술을 찾아 흠뻑 취하고	索酒酒肆醉如泥
불량배 때려죽이기를 개 닭 잡듯이 하였네	鬪殺惡少如豚鷄
단오 좋은 시절엔 씨름을 좋아하니	端陽令節好角觝
힘은 임비 ⁵⁴⁷ 와 같아 상대를 들어 메친다네	力如任鄙任顛委
무창과 풍천 ⁵⁴⁸ 의 허씨와 이씨는	武昌豐川許與李
키 큰 말로 종로 저자로 뛰어나왔네	高馬躍出鍾樓市
강함을 겨루느라 칼을 뽑아 부딪치니	爭雄較悍挺劍合
위세가 하늘을 찌르고 바람 속 먼지가 일어나네	聲勢拉霄風埃起
무창의 허씨와 이씨는 포효하는 호랑이 같았지만	武昌許李似哮虎
명성이 여러 나씨들을 넘어서지 못했네	名聲未出諸羅氏
이때 막내 나씨가 가장 연소한데	是時季羅年最少
여러 임협을 지휘하기를 어린애 장난하듯 하였네	指揮衆俠如兒戲
개를 잡고 돼지 잡아 하루 또 하루	殺狗屠豕日復日
봄바람은 끝이 없고 가을밤엔 달이 떴지	春風無邊秋夜月
세시복랍 ⁵⁴⁹ 에는 왕성한 기세가 더해져서	歲時伏臘銳氣加

546 송현(松峴) : 서울시 중구 소공동에 있던 고개로서, 고개 주위에 소나무가 울창하여 솔재라 하고 한자명으로 송현이라고 하였다.

547 임비(任鄙) : 전국 시대 진 무왕(秦武王)의 역사(力士)이다. 《사기(史記)》 권71 <저리자감무열전(樗里子甘茂列傳)에 “진(秦)나라 사람의 속어에 ‘힘은 임비이고 지모(智謀)는 저리이다.[力則任鄙, 智則樗里.]’ 하였다.”라고 하였다. 진 무왕이 힘이 있어 장난을 좋아하였으므로 역사 임비 및 오획(烏獲)과 맹열(孟說)이 모두 큰 벼슬을 받았다. 《史記 卷5 秦本紀》

548 풍천(豐川) : 황해도에 있는 군 이름이다. 본래 고구려의 구을현(仇乙縣)으로 굴천(屈遷)이라고도 한다. 고려조 초기에 풍주(豐州)로 고쳤으며, 조선 태종 13년(1413)에 이름을 고쳐 풍천군이라 하였다.

549 세시복랍(歲時伏臘) : 여름철의 삼복(三伏)과 겨울철의 납일(臘日)에 지

말을 나란히 타고 동행하여 말달리기로 다투었네 連鑣共袂爭馳突
 인가의 열 길 담장을 뛰어넘고 超越人家十丈墻
 성을 오르내리기를 평지와 같이 하였지 上城下城如平陸
 귀인 집의 절대가인을 훔쳐내니 偷出侯家絕代色
 개처럼 잘 훔치는 제나라 맹상군 문객이 호백구를 훔친 정도가
 아니라네⁵⁵⁰ 不啻齊狗偷狐白
 도성을 경도시키고 기내에서 떨쳐 두렵기가 이리와 같으니
 傾都振畿畏如狼
 사람 중에 누가 곽해⁵⁵¹의 강함과 용맹함을 대적하라 郭解精悍人誰敵
 하루아침에 왜적이 삼경⁵⁵²을 짓밟으니 一朝海寇蹙三京
 한양의 문물들은 연기와 먼지 피비린내로 뒤덮였네 漢陽文物煙塵腥
 성대하고 화려했던 임협들은 안개처럼 흩어져 豪華任俠散如煙
 굶주리고 추위에 떨며 충청 지역 떠돌았네 飢寒流落湖州城
 수많은 호협들 열에 하나도 남지 않아 多豪多俠十無一

-
- 내는 제사 이름이다. 여기서의 전하여 명절과 같은 좋은 날을 가리킨다.
- 550 개처럼...아니라네 : 맹상군이 일찍이 진(秦)나라에 들어갔다가 참설(讒說)로 간혀 죽게 되었는데, 진 소왕(秦昭王)의 총희(寵姬)가 호백구(狐白裘)를 원하였다. 이에 맹상군 문객 중에 개처럼 도둑질을 잘하는 자가 진나라 궁중에 몰래 들어가서 앞서 소왕에게 바쳤던 호백구를 훔쳐다가 그 총희에게 다시 바쳐 맹상군이 풀려났다. 《史記 卷75 孟嘗君列傳》
- 551 곽해(郭解) : 한 무제(漢武帝) 때의 협객(俠客)이다. 신체가 왜소하였으나 호협(豪俠)을 좋아하여 미워하는 인물이 있으면 반드시 살해하였다. 뒤에는 행실을 고쳐 공손하였으므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마침 그의 문객(門客)이 지현 출신의 유생(儒生)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곽해 자신은 그 사건과 무관하였으나 국법을 확립해야 한다는 조정의 의론으로 인해 대역무도죄(大逆無道罪)로 처형되었다. 그 후 춘추 전국 시대로부터 유행하던 협객이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고 한다. 《漢書 卷92 游侠傳 郭解》
- 552 삼경(三京) : 한양, 평양, 개성을 가리킨다.

단지 둘째 나씨만이 부평초처럼 유랑하네 只有二羅飄如萍
 지금 수염과 머리털은 이미 쇠락했으니 只今鬚髮已衰落
 준마는 늙고 지쳐 분발하려 해도 힘이 없네 驥老奮德無筋力
 남월성 아래서 우연히 만나니 龍城城下偶見之
 손을 잡고 서로 보며 옛날 일로 감회에 젖누나 握手相看感疇昔
 아아 도망한 사람을 집에 숨겨주라 하고 남의 원수 갚아준 일 말
 하였으니⁵⁵³ 噫吁嘻家藏亡命報人讎
 후생은 비록 늙었으나 상객이 되었다네 侯生雖老爲上客
 그대는 보지 못했나 계단을 지나며 진무양이 얼굴빛 변했던 것을⁵⁵⁴
 君不見歷階色動秦舞陽
 어린애의 혈기야 어찌 취할 만하리오 少子血勇焉足責

553 도망한…말하였으니 : 후생(侯生)은 전국 시대 위(魏) 은사(隱士) 후영(侯嬴)을 가리킨다. 후영은 나이 일흔에도 가난으로 인해 이문 감자(夷門監者)로 있었는데, 위나라 공자 신릉군(信陵君)이 그가 어질다는 소식을 듣고 몸소 수레로 맞이해 상객(上客)으로 삼았다. 후생은 신릉군에게 범수(范雎)로 인해 곤경에 처한 위제(魏齊)와 우경(虞卿)을 숨겨주라고 했고, 신릉군에게 왕의 총희인 여희(如姬)의 원수를 갚아주었던 일을 상기시키며 그녀에게 위(魏)의 병부를 흠치게 하여 조(趙)의 평원군(平原君)을 도우라고 조언했다.

554 계단을…것을 : 연나라 자객(刺客) 형가(荊軻)가 태자 단(丹)을 위해 진시황을 죽이려고 떠날 때 당시 13세 된 용사 진무양(秦舞陽)을 데리고 함께 갔다. 마침내 진나라 궁전 섬돌 밑에 이르러서는 진무양이 잔뜩 겁을 먹고 별별 떨자, 진나라 신하들이 그를 괴이하게 여기게 되었다. 형가가 진무양을 돌아보고 웃으면서 진시황에게 사과하여 “이 사람은 북쪽 만이(蠻夷) 출신이라서 일찍이 천자(天子)를 뵈는 적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니, 원컨대 대왕(大王)께서는 그를 용서하소서.”라고 하였다. 《史記 卷86 刺客列傳 荊軻》

대동강설마행 평안 방백에게 주다

大同江雪馬行 贈平安方伯

겨울 동짓달에 북풍이 많아지니	玄冬至月朔颿積
하늘은 검고 산은 잿빛인 듯하네	天黑山如死瓦色
대동강 얼음은 바닥까지 얼었으니	溟江之水冰徹底
상군 ⁵⁵⁵ 은 추위에 떨며 울고 잠룡은 움츠리네	江娥凍泣潛虯縮
이때 무엇으로 내 손님을 즐겁게 해줄까 말하더니	此時何以娛我賓
우리 공이 맹렬한 바람과 천둥처럼 명령을 내렸네	我公發號風霆激
우리 공이 성을 나설 때 중사 ⁵⁵⁶ 가 따르니	我公出城中使隨
우리 무리 세 사람이 함께 쫓아갔다네	我徒三人共追逐
나무를 묶어 말을 만들어 주인과 객 태우니	縛木爲馬容主客
설마 ⁵⁵⁷ 라 하나 실은 나무로다	云是雪馬其實木
얼음에 설마를 놓자 미끄러져 날 듯하고	着馬于冰滑欲飛
서로 마주보고 벌려 앉으니 군대가 물에 오르려는 듯하네 ⁵⁵⁸	

列坐相對如登陸

음식을 싸가지고 온 기생들 두 대열을 이루어 行廚紅粉作兩隊

-
- 555 상군(湘君) : 아황(娥皇)과 여영(女英)을 말한다. 순 임금의 남쪽 지방을 순행하다가 창오산(蒼梧山)에서 죽자, 부인인 아황과 여영이 상수에서 통곡하다가 죽어 상수의 신이 되었다고 전한다. 즉 강의 여신을 일컫는 말이다.
 - 556 중사(中使) : 궁중(宮中)에서 파견한 사자(使者)인데 대부분 환관(宦官)을 지칭한다.
 - 557 설마(雪馬) : 썰매의 원래 말이다.
 - 558 군대가...듯하네 : 원문의 '등륙(登陸)'은 배로 바다나 강을 지나서 물에 오르는 것을 말한다. 특히 전투하는 군대가 배를 타고 가 물에서 상대방 적군의 육지로 오르는 것을 말한다.

줄을 당겨 설마를 끄니 어찌나 빠른지	引索曳馬何歎霍
저쪽을 버리고 이쪽을 취하며 오락가락하니	捨彼取此去又來
기녀대열이 보내고 맞으며 원망하고 유감스러워 하는 듯	女隊送迎如怨惜
걸지 않으면서 내달리고 날갯짓 않고 나니	不步而走不羽飛
가벼운 바람 양 겨드랑이에서 식씩 일어나네	輕颺瀏瀏生兩腋
동방삭이 우레 수레를 흠쳐 타고	恍如方朔偷雷車
요동치며 빨리 달려 하늘에 오르는 듯하고	擺掉疾馳凌空碧
또 장건이 한 사신으로 뗏목을 타고가	又如張騫乘漢槎
뗏목이 은하수에 이르렀다가 하수 위로 떨어진 듯하네 ⁵⁵⁹	槎到銀河河上落
또 자부의 진원군 ⁵⁶⁰ 이	又如紫府眞元君
구름 수레 안개 수레 몰 적에	駕馭雲輶與霧轂
나는 번개를 끼고서 하늘을 밟고 구름을 차며	踏天蹙雲挾飛電

559 장건(張騫)이…듯하네 : 한(漢)나라 장건의 고사(故事)를 가리킨다. 장건이 사명(使命)을 받들고 서역(西域)에 갔을 때, 뗏목을 타고 황하(黃河)의 근원을 한없이 거슬러 올라가다가 한 성시(城市)에 이르렀는데, 한 여인은 방 안에서 베를 짜고 한 남자는 소를 끌고 은하의 물을 먹이고 있었다. 장건이 그들에게 여기가 어디인지 묻자, 그 여인이 지기석(支機石) 하나를 장건에게 주면서 “성도(成都)의 엄군평(嚴君平)에게 가서 물어보라.”라고 하였다. 장건이 돌아와서 엄군평을 찾아가 지기석을 보이자, 엄군평이 말하기를 “이것은 곧 직녀(織女)의 지기석이다. 아무 연월일에 객성(客星)이 견우와 직녀를 범했는데, 지금 헤아려 보니, 그때가 바로 이 사람이 은하에 당도한 때였다.”라고 했다.

560 자부(紫府)의 진원군(眞元君) : 자부는 도교에서 신선의 거처를 일컫는 말이다. 진원군은 도교의 신명(神名)으로 태상신주(太上神州)에 살며 자극진원군(紫極眞元君)이라고도 불린다. 칠전(七轉)의 법을 수련하여 자리가 옥청(玉淸)으로 오르게 된다고 한다.

앞 수레를 따르면서 천둥을 치니 隨輪逐轍生霹靂
 하늘하늘한 삼천 명의 미녀 너른 뜰에 벌려 서서 三千娥媼列廣庭
 넘치는 술잔으로 신선 술을 다투어 권하는 듯하네 爭勸流霞把深酌
 그렇지 않으면 황제가 광활한 곳에 나아가 不然黃帝就空曠
 대낮 동정호에서 신마⁵⁶¹를 끌다가 洞庭白日拖龍翼
 균천⁵⁶²의 여악들이 아스라한 곳에 있어 鈞天女樂縹緲中
 날아 천궁의 문을 넘어가 신선 처소에 노니는 듯 漂越天閭遊紫極
 쫓쫓 저 오는 땅에서 배를 끄느라⁵⁶³ 힘들었고 咄彼鼻舟苦行陸
 사영운이 산에 오를 때 나막신 신은 일도⁵⁶⁴ 우스워라 笑殺靈運登山屐
 나는 듯이 달리고 실컷 마시며 미인과 시시덕거리니 飛馳酣飲狎青娥
 신선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사람이 어찌 얻을 수 있으랴 仙者莫能人安得
 몸을 가쁘히 하여 난새 등에 탈 필요 없고 不須縱體登鸞背

-
- 561 신마(神馬) : 황제(黃帝)가 탔던 취황(翠黃)이라는 말로, 몸은 말의 모습인데 용의 날개를 지녔다. 황제는 이 말을 타고 신선이 되었다고 한다.
- 562 균천(鈞天) : 하늘의 중앙으로, 상제(上帝)가 사는 곳이라 한다. 춘추 시대 진(晉)나라 조간자(趙簡子)가 꿈에 균천에 노닐며 음악을 들었다는 고사가 있다. 균천(勻天)이라고도 한다. 《史記 卷43 趙世家》
- 563 오(鼻)는…끄느라 : 오는 한창(寒泥)의 아들로 육지에서 배를 끌 정도로 힘이 세었다. 한착은 본디 후예(后羿)의 신하였는데, 후예가 정사를 잘못하는 틈을 타 후예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였다. 그 뒤에 한착의 아들 오가 하후(夏后) 상(相)을 시해하였는데, 상의 아들 소강(少康)이 500명의 군사로 오를 주멸하고 나라를 회복하였다. 《史記 卷2 夏本紀 注》
- 564 사영운(謝靈運)이…일도 : 남조 송(南朝宋)의 시인 사영운은 심산유곡(深山幽谷)을 탐색하기를 좋아하였는데, 그럴 때면 꼭 나막신을 신고 다녔다. 그는 나막신에 밀랍을 발라 반질반질하게 손질하였고 산에 오를 때는 나막신의 앞굽을 떼어 버리고 산을 내려갈 때에는 뒷굽을 떼어 걷기에 편하도록 했다. 《宋書 卷67 謝靈運列傳》

몸을 기울여 고래 등에 탈 필요도 없으라 不須倒身騎鯨脊
인간 세상 마음 상쾌한 일에 이와 같은 게 있노니 人間快意有如此
우리 공은 무엇으로써 이러한 즐거움을 두었나 我公何以有此樂
공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도 이와 같아서 公之行世亦如此
발이 머뭇거리지 않고 곧바로 청운에 오르리 直駕青雲足不踟
공이 나에게도 빌려줘 앞길에 내달리길 원하노니 願公借我騁前途
노둔한 말이 절뚝거리며 지쳐가기에 스스로 부끄러워라 自愧駑駘困蹉跎

다시 소암⁵⁶⁵ 시에 차운하다

再次疏庵韻

좌측 운과 함께 빨리 압운하다

봄의 신이 수레를 돌려 온 지 바야흐로 열흘	靑帝回鑾纔一旬
나는 수레는 푸른빛 연노랑 빛 이른 봄 속 지나네	靑縹蒼緗行早春
동정호에 얼음이 풀려 동심원 물결이 일어나고	洞庭解澌圓波起
운몽택 ⁵⁶⁶ 의 신룡은 긴 비늘을 씻누나	夢澤神龍濯脩鱗
비단 장막 깊숙하여 달콤한 꿈을 가리고	羅幕沈沈掩香夢
별원에 밤은 짧은데 봄 술이 진하네	別院夜短春酒重
녹로 ⁵⁶⁷ 소리는 사향 향기와 섞여 오고	轆轤聲雜麝膻來

565 소암(疏庵) : 임숙영(任叔英, 1576~1623)으로, 소암은 그의 호이다. 본관은 풍천(豐川), 초명은 상(湘), 자는 무숙(茂叔)이다. 1611년(광해군3) 별시 문과에서 척족과 이이첨(李爾瞻)을 심하게 비난하였는데, 광해군이 이 대책문을 보고 크게 노하여 이름을 삭제하도록 하였다. 몇 달간의 삼사의 간쟁과 이항복(李恒福) 등의 주장으로 무마, 다시 급제되었다. 1613년에 영창대군(永昌大君)의 무옥이 일어나자 정청(庭請)에 참가하지 않았다. 곧 파직되어 집에서 지내다가 외방으로 쫓겨나 광주(廣州)에서 은둔하였다. 인조반정 초에 복직되어 부수찬 등을 거쳐 지평에 이르렀다. 고문(古文)에 힘썼으며, 중국 육조(六朝)의 사륙문(四六文)에 뛰어났다.

566 운몽택(雲夢澤) : 초(楚)나라 칠택(七澤) 중의 하나로 사방이 구백 리에 이르는 큰 늪이다. 한(漢)·위(魏) 이전에는 가리키는 범위가 크지 않았으나 진(晉)나라 이후의 문장가들이 그 범위를 점점 넓혀 동정호(洞庭湖)까지도 포함시켰다. 당(唐)나라 시인 맹호연이 동정호를 바라보며 읊기를 “기는 운몽택에서 올라오고, 물결은 약양성을 뒤흔드네.[氣蒸雲夢澤, 波撼岳陽城.]”라고 하였다. [孟浩然集 卷3 臨洞庭]

567 녹로(轆轤) : 우물에서 도르래를 이용해 물을 끄는 장치를 말한다.

해 높이 뜨자 벽오동에서 어린 봉황이 우는구나⁵⁶⁸ 日高碧梧啼雛鳳
 궁궐의 꽃은 새벽노을에 반쯤 물들어 붉고 宮花半染曉霞紅
 물시계에서 똑똑 떨어지는 물소리 잠시 드문드문 들리네

晝漏乍稀聞丁東

촌사람들은 모임을 만든 뒤 묘를 청소하고 野人作社仍上墓
 청산은 끊임없이 이어져 웅장하고 장려함을 간직하네 青山袞袞藏豪雄
 변화시켜 해마다 새로운 경치를 만드니 幻作年年新物色
 새봄의 지극한 은택은 하늘과 나란하네 王春至澤齊天碧
 안기생⁵⁶⁹은 바닷가에서 오히려 오래 살면서 安期海上猶長生
 상산사호⁵⁷⁰의 머리털이 하얗게 변한 것을 웃으리라笑殺商山鬚皓白

568 벽오동에서...우는구나 : 봉황은 벽오동(碧梧桐)에 둥지를 튼다고 전해진다. 《시경》〈대아(大雅) 권아(卷阿)〉에 “봉황이 울어대니, 저 높은 피이로다. 오동나무가 나서 자라니, 저 별 바른 양지 쪽이로다.[鳳凰鳴矣, 于彼高岡。梧桐生矣, 于彼朝陽.]”라고 하였다.

569 안기생(安期生) : 안기생은 진(秦)나라 선인이다. 하상 장인(河上丈人)을 따라 황제(黃帝)와 노자(老子)의 설을 배우고 동해 가에서 약을 팔았다. 진 시황(秦始皇)이 동쪽으로 순수할 때 그와 사흘 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금은보화를 주었으나 “수십 년 뒤에 봉래산에 와서 나를 찾으십시오.” 하고 떠났다고 한다. 한 무제 때 이 소군(李少君)은 무제에게 말하기를 “신(臣)이 일찍이 해상(海上)에서 안기생이 오이만 한 대추를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하였다.

570 상산사호(商山四皓) : 진(秦)나라 때 상산에 숨어 살던 동원공(東園公), 하황공(夏黃公), 녹리선생(角里先生), 기리계(綺里季) 등 네 노인으로 모두 수염과 눈썹이 하얗기 때문에 사호라고 부른 것이다. 덕망이 매우 높았는데 한 고조(漢高祖) 때 장량(張良)의 계책으로 태자를 돕기 위해 잠시 세상에 나왔다가 다시 산으로 돌아갔다. 《史記 卷55 留侯世家》

또 소암⁵⁷¹의 <춘우행>시에 차운하다

又次疏庵春雨行

좌측 운과 같이 해서 빨리 압운하다

천제의 궁궐에서 옥호⁵⁷²를 누린 종이로 봉했으니 天宮玉壺封黃紙
 나는 노을로 빛은 술은 향기롭고 또 맛이 있네 飛霞作醞香且旨
 신선은 하직 인사하고 하늘 마구간을 나서서 仙人拜辭出天閑
 용을 몰아 밤에 은빛 강물에서 목욕을 하네 驅龍夜浴銀江水
 갈기 수염·배의 천둥소리는 곤륜산을 흔드는 듯 鬣鬚腹雷掀崑崙
 쪽쪽 뺀 옥 삼대⁵⁷³는 은동이를 뒤집는 듯 玉麻攪攪銀盆翻
 붉게 젖은 곳을 보니 금관성의 꽃은 무겁고⁵⁷⁴ 錦城花重看紅濕

571 소암(疏庵) : 임숙영(任叔英, 1576~1623)이다. 본관은 풍천(豐川), 자는 무숙(茂叔), 호는 소암·동해산인(東海散人)이다. 이식(李植), 장유(張維), 권필(權輶) 조찬한(趙繼韓) 등과 교유하였다. 1611년(광해군3) 문과에 합격하여 승문원 정자, 주서를 역임하다가 영창대군(永昌大君)을 처치하려는 논의가 일자 병을 핑계로 정청(庭請)에 참여하지 않았고, 시사(時事)를 비판하다가 결국 탄핵을 받아 광주(廣州) 용진(龍津)에 우거하였다. 인조반정 이후 예문관 검열로 기용되어 홍문관 박사 등을 거쳐 사가독서(賜暇讀書)에 선발되었고, 사헌부 지평에 임용된 상태에서 갑자기 졸하였다. 문집인 《소암집(疏庵集)》이 전한다.

572 옥호(玉壺) : 원문은 ‘곤(壺)’인데, 문맥을 살펴 ‘곤(壺)’을 ‘호(壺)’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573 쪽쪽…삼대 : 원문의 ‘玉麻(옥마)’는 쏟아지는 빗줄기를 말한다. 당(唐)나라 시인 두보(杜甫)의 <초가집이 가을바람에 부서진 것을 노래하다[茅屋爲秋風所破詩]> 시에서 “침상마다 집이 새어 마른 곳 없는 데 삼대 같은 빗줄기는 끊어지지 않네.[牀牀屋漏無乾處, 雨脚如麻未斷絕.]”라고 하였다.

574 금관성의 꽃은 무겁고 : 두보(杜甫) 시 <춘야희우(春夜喜雨)> 7-8구

매화의 혼 적시려니 눈썹 같은 버들⁵⁷⁵이 먼저 우네 柳眉先泣沾梅魂
신령한 공력 멀리 행하려면 바야흐로 가까운 곳부터 해야 하니⁵⁷⁶

神功行遠方自邇

하루에 봄빛은 천만리를 비추네 一日韶光千萬里
충만하고 넘치는 봄기운 매서운 서리와는 다르니 津津不同烈烈霜
온갖 풀들 가을에 문드러져 죽는 것과 어찌 같으랴 百卉何如秋爛死
어찌하면 창해를 뽕나무밭으로 만들어 安得滄海爲桑田
만국을 열어서 밥 짓는 연기 이어지게 할까 廓開萬國連人煙
긴 밤 초가집 처마에서 떨어지는 빗물 소리를 듣노니 茅簷永夜聽滴瀉
늙은 농부는 손자 안고 기뻐 잠 못 이루네 老農抱孫喜不眠

태을궁⁵⁷⁷으로 조서가 내려오자 太乙宮中降青紙
몰래 우사를 불러 상제의 교지를 선포하네 潛呼雨師宣玉旨
늙은 용은 병으로 물러나 삼 년간 한가했으니 老龍謝病三歲閒

를 원용한 구절이다. 7-8구에서 “새벽에 붉게 젖은 곳을 보니, 금관 성에는 꽃이 무겁게 달려 있네.[曉看紅濕處 花重錦官城.]”라고 하였다.

- 575 눈썹 같은 버들 : 원문의 ‘유미(柳眉)’는 막 싹이 트기 시작하는 가는 다란 버들잎을 말한다. 여인의 가늘고 긴 눈썹을 닮았다는 뜻이다.
- 576 신령한…하니 : 《중용(中庸)》에서 “군자의 도는 비유하면 먼 곳을 가려면 반드시 가까운 데에서부터 하며, 높은 데 오르려면 반드시 낮은 데에서부터 하는 것과 같다.[君子之道，譬如行遠必自邇.]”라고 한 것을 원용한 구절이다.
- 577 태을궁(太乙宮) : 태일궁(太一宮)이라고도 한다. 송 인종(宋仁宗) 때 경사(京師)에 큰 가뭄이 들어 인종이 태을궁(太乙宮)에서 직접 기우제를 지내자 우레를 동반한 큰비가 쏟아졌다는 기록이 있다. 《宋史 卷320 王素列傳》

뇌공⁵⁷⁸이 오나라 연못⁵⁷⁹에서 몰아서 나오게 하네 雷公驅出吳潭水
 옷칠한 듯한 검은 구름은 곤륜산을 묻었고 黑雲如漆埋崑崙
 은하수가 어지러이 떨어지니 강과 바다가 뒤집히는 듯하네

天河亂落江海翻

줄줄 흐르는 찬 기운이 하늘 가득히 축축하니 淋漓寒氣滿空濕
 꿈속에서 몰래 신녀⁵⁸⁰의 넋을 근심하네 夢中暗愁神女魂
 흡사 백제⁵⁸¹신이 멀고 가까운 곳에 행하여 恰如白帝行遼瀋
 서륙⁵⁸²땅에 비갠 뒤 바람이 일천리에 부는 것 같네 西陸光風一千里

578 뇌공(雷公) : 전설상의 우레를 맡은 신이다.

579 오나라 연못 : 당나라 이하(李賀)의 <춘방정자검자가(春坊正字劍子歌)>시에 이르기를 “선배의 칼집 속의 삼척수는, 일찍이 오나라 연못에 들어가서 용자를 베었다네.[先輩匣中三尺水, 曾入吳潭斬龍子.]”라고 하였다.

580 신녀(神女)의 혼 : 신녀는 무산(巫山)의 신녀를 말한다. 《문선(文選)》 권19 <고당부(高塘賦)>에 다음과 같은 고사가 있다. “전국 시대 초나라 양왕(襄王)이 송옥(宋玉)과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송옥이 말하기를 ‘옛날에 선왕(先王)께서 고당(高唐)을 유람하신 적이 있었는데, 피곤하여 낮잠을 잤습니다. 꿈에 한 여인이 와서 말하기를 「저는 무산의 여자로서 고당의 나그네가 되었는데, 임금님이 여기에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왔으니, 원컨대 침석(枕席)을 같이 해 주소서.」라고 하므로, 과연 그와 같이 하룻밤을 잤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그 여인이 떠나면서 말하기를 「저는 무산의 양지쪽 높은 언덕에 사는데, 아침이면 구름이 되고 저녁이면 비가 되어 내립니다.[旦爲朝雲, 暮爲行雨.]」 하였습니다.’ 하였다.” 여기서는 비가 오기 때문에 저녁에 비가 되어 내리는 무산의 신녀를 끌어온 것이다.

581 백제(白帝) : 전설 속의 다섯 천제(天帝) 중의 하나로 서방을 담당하는 천신이다. 다섯 천제는 오방(五方)의 천제로 봄을 관장하는 동방(東方) 목(木)의 청제, 여름을 관장하는 남방(南方) 화(火)의 적제(赤帝), 중앙 토(土)의 황제(黃帝), 가을을 관장하는 서방(西方) 금(金)의 백제(白帝), 겨울을 관장하는 북방(北方) 수(水)의 흑제(黑帝)이다.

582 서륙(西陸) : 서쪽이다. 《문선(文選)》 권21에 실린 곽박(郭璞)의 <유선

오직 두려운 건, 뜰 앞에 가을 서리가 내려 庭前唯恐降秋霜
 밭 너머의 복사꽃이 뜰 가득 죽어 있는 것이라네 簾外桃花滿園死
 봉래산의 신선은 지초 밭에 물을 주고 蓬萊仙客灌芝田
 밤에 푸른 소를 멍에 지워 자색 구름을 갈리라⁵⁸³ 夜駕青牛耕紫煙
 요궁⁵⁸⁴의 옥수에서 진주가 떨어지니 瑤宮玉樹眞珠滴
 밤 깊은 삼경에도 오히려 잠들지 못하네 漏下三更猶不眠
원운⁵⁸⁵이다.

시 7수(遊仙詩七首) 시에, “가을 신이 서륙을 맑게 하니, 붉은 해가 장차 백도를 지나도다.[蓐收清西陸, 朱羲將由白.]”라고 하였는데, 이 선(李善)이 ‘서륙’에 대해 풀이하면서 사마표(司馬彪)의《속한서(續漢書)》를 인용하여 “해가 북륙을 운행할 때를 겨울이라 하고, 서륙을 운행할 때를 가을이라 한다.[日行北陸謂之冬, 西陸謂之秋.]”라고 하였다.

- 583 밤에…갈리라 : 이 구절은 봄비가 내린 후의 모습을 선계(仙界)의 모습에 빗댄 것이다. 청우(靑牛)는 신선이나 도사들이 타고 다닌다는 소를 가리킨다. 노자(老子)가 주(周)나라가 장차 쇠해지려는 것을 보고 서쪽으로 떠나가다가 함곡관(函谷關)을 지나게 되었다. 이때 함곡관의 관령(關令)으로 있던 윤희(尹喜)가 관문 위에 자기(紫氣)가 떠 있는 것을 보고 현인이 올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는데, 얼마 뒤에 노자가 청우를 타고 왔다.《列仙傳 上》《關令內傳》
- 584 요궁(瑤宮) : 전설 속에 나오는 신선들이 사는 궁전으로, 아름다운 옥을 다듬어서 만들었다고 한다.
- 585 원운(元韻) : 임숙영(任叔英)이 지은 원시의 제목은 <춘우행(春雨行)>으로 《소암집(疎菴集)》권2에 실려 있다.

장안사⁵⁸⁶ 승담로장가

長安寺 僧曇老丈歌

삼공과 구경⁵⁸⁷이 조정에서 높이 읊하는 것 부러워하지 않고

不羨三公九卿高揖廊廟中

옥당의 현재들 눈썹 치켜뜨고 기를 토하며 명광궁⁵⁸⁸ 드나드는 것 부러워하지 않네

不羨玉堂諸彥揚眉吐氣出入明光宮

만 리 땅의 제후로 봉해지는 것 부러워하지 않고

不羨萬里之封侯

종과 비석에 이름 새겨지고 사책에 천년토록 공훈이 전해지는 것 부러워하지 않네

不羨銘鍾勒石竹帛千載垂鴻功

천 번 부럽고 만 번 부러운 담로 선사

千羨萬羨曇老禪

금강산에 80년 동안 편안히 누워있네

高臥金剛八十年

일 년 사계절, 한 달 삼십 일, 하루 열두 시간

一年四序一月三旬一日十二辰

바람·구름·비·눈·흐림·갸의 변화하는 모습이

586 장안사(長安寺) : 내금강(內金剛)에 있는 사찰로, 만천교(萬川橋)를 건너 왼쪽 산언덕에 있다. 외금강(外金剛)의 유점사(楡岾寺)·신계사(新戒寺), 내금강의 표훈사(表訓寺)와 더불어 금강산 4대 고찰로 꼽힌다. 신라 법흥왕(法興王) 때에 창건되었고 고려 성왕(成王) 때에 중건되었으며 1343년(충혜왕 복위4)에 기황후(奇皇后)에 의해 다시 중건되었다. 법당(法堂)과 불전(佛殿)과 불상(佛像)을 모두 중국의 기술자가 제작하였다. 《稼亨集 卷6 金剛山長安寺重興碑》 현재는 한국전쟁 때 불타고 터만 남아 있다.

587 삼공(三公)과 구경(九卿) : 중앙정부의 고위 관직을 말한다. 천자에게는 삼공과 구경과 27명의 대부와 81명의 원사가 있다고 한다.

588 명광궁(明光宮) : 한 무제(漢武帝)가 세운 궁전으로 후대에는 대궐을 뜻하는 말로 쓰였다.

	風雲雨雪陰晴變態
주야로 넘실넘실 흘러 때에 따라 변하네	晝夜袞袞隨時權
비단으로 수놓은 병풍 천만 첩	錦繡屏風千萬疊
백옥과 부용이 천만 둘레라네	白玉芙蓉千萬匝
날마다 길이 대하며 이 생을 도무지 경영함이 없고	日日長對了此生無營
자득하여 부귀 속에 늙어가니	自得終老富貴中
어찌 인간 세상의 장상의 공업과 같겠는가	何似人間將相業

현주집

제3권

五言絶句 오언절구

오언절구 五言絕句

고목나무 무술년(1598, 선조31)

古卉 戊戌

남쪽지방에서 부여를 지나다가 길가의 고목나무를 읊다

고목나무 벗겨져 노인과 같으니

古卉禿如叟

여름과 봄에도 잎과 꽃이 없네

夏春無葉花

연기 낀 거리에 찬비 내릴 때

煙巷得寒雨

저녁 까마귀 내려앉기에 가장 마땅하다네

最宜來暮鴉

연경으로 가는 친구에게 차운해서 주다 5수 갑인년

(1614, 광해군6)

次贈友人赴燕 五首 甲寅

외진 번국이 지금 다시 살아났으니	偏藩今再造
하나하나 화육의 은혜를 입었다네	一一荷甄陶
변론하고 하소연하는 것 정성과 간절함에 달려있으니	辨訴在誠切
하늘이 높다고 이르지 말라 ¹	莫云天蓋高

1 하늘이…말라 : 《시경》〈정월(正月)〉에 “하늘이 높다고 하나 감히 굽히지 않을 수 없고, 땅이 두텁다고 하나 감히 발자국을 작게 떼지 않을 수 없다.[謂天蓋高, 不敢不局. 謂地蓋厚, 不敢不踏.]”라고 하였다. 어지러운 세상을 만나 높은 하늘이지만 높아서 괜찮다고 하지 말고 고개를 숙여서 조심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
又

교제의 기쁨은 진한 술을 마신 것과 같으니
성정이 도야됨을 스스로 깨닫네
한번 이별함에 천릿길 가는 것도 슬픈데
하물며 높은 하늘길²을 오름에 있어서라

交權如飲酎
自覺性靈陶
一別悵千里
況登天路高

2 하물며...있어서라 : 사신의 임무를 띠고 연경으로 가는 길이 부담된다는 말이다.

또

又

다식³을 보내기 위해서 말한 것이다

향기로운 꿀과 옥 같은 눈

香蜜與瓊雪

탁탁 손으로 쳐서 빻었다네

田田以手陶

천만 조각으로 변하니

幻化千萬段

멀리 -원문 2자 결락- 높은 곳에 부친다네

遠寄□□高

3 다식(茶食) : 우리나라 고유 과자 중의 하나. 녹말·송화·신감채·검은깨 따위의 가루를 꿀이나 조청에 반죽하여 다식판에 박아 만들며, 흰색·노란색·검은색 따위의 여러 색깔로 구색을 맞춘다.

또

又

화전(花錢)을 빌리기 위해서 말한 것이다

꽃무늬 종이, 그대 바꾸기에 마땅하고

花紙子宜貿

화당은 내가 빚은 것이라네

花糖吾所陶

한 덩이는 한 폭에 해당하니

一圓當一幅

두 가지 기호품이 비싼 값은 아니라네

兩嗜價非高

또

又

두 권의 책을 빌리기 위해서 말한 것이다

송나라 구양수와 당나라 12가⁴

宋歐唐十二

어떻게 하면 훈도 받을 수 있을까

何以則薰陶

언젠가 행낭을 끌고서

異日携行橐

능히 죽령 높은 곳을 오르리라

能令竹嶺高

4 당나라 12가 : 원문의 '당십이(唐十二)'는 당(唐)나라 때 유명했던 12명의 문인 으로 추측되는데, 여기서서는 그들의 시문을 수록한 책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12명의 문인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자세하지 않다.

남농팔영 병진년(1616, 광해군8)

南農八詠 丙辰

얼음과 눈이 잠시 혹독함을 푸니	氷雪乍解嚴
봄바람이 토지에 달라 붙네	條風黏土脈
늙은 농부는 처음으로 따스한 봄별을 쪼고	老農負初暄
고삐를 휘두르며 가서 쟁기와 호미를 수리하네	揮縻繳耒鎛

이상은 초봄이다

부들은 싹 트고 살구나무 꽃은 막 피어나니	蒲芽杏始花
누런 꼬꼬리 시끄럽게 들에 날아다니네	鬧野鷓鴣上
씨를 뿌리고 다시 소를 멍에 하여	種播更駕牛
거름 준 땅을 종횡으로 가네	縱橫理糞壤

이상은 중춘(仲春)이다

꽃은 드문드문 새로 난 잎은 무성하고	花稀新綠繁
밭두둑의 보리는 높은 물결 일렁이네	隴麥搖高浪
꿩이 우니 해는 중천에 떴고	雉雊日當中
어린 송아지는 들밥을 따라가네	小犢隨盞往

이상은 모춘(暮春)이다

품팔이꾼 막 고용되자	傭人方得傭
사람들에게 보낼 음식으로 술동이 술을 거르네	群餉釀瓮酒
가라지를 김매어 간악한 것을 심히 제거하고	鋤莠劇除姦
곡식에 사람 머리 파묻히는 것을 기뻐서 노래하네	驩謳稼沒首

이상은 한여름이다

낮을 떼고 올벼를 베니	荷鎌刈早粳
이삭은 나오고 뱀은 파리 틀고 누웠다네	穗茁蛇蟠臥
흰쌀이 국에 날리는 것 되려 싫어서	還嫌雪翻羹
간간이 완두콩을 섞어서 밥을 짓네	間炊青豆御

이상은 이른 가을이다

사방 들판 반은 푸른색, 반은 누런색	四野半青黃
콩은 여물고 메밀꽃은 늙어가네	豆肥蕎花老
개 짖으니 세금 독촉하는 것을 알겠고	犬吠識催科
박을 타느라 늙은 부부는 소란스럽네	斷匏翁媪鬧

이상은 중추(中秋)이다

술독 가득 새 술은 향기롭고	新酒滿瓮香
쟁반 가득 새 과일은 익었다네	新果盈盤熟
관리는 장부책을 들고 오니	官吏把書來
문에서 맞이하여 서로 마시길 구하네	迎門要相喫

이상은 늦가을이다

콩죽 쑤어 밤에 소에게 권하고	烹其夜勸牛
아직 춥지 않을 때 다시 밭을 일구네	未寒還墾墾
갈아 놓은 밭 얼고 나면 바야흐로 기름질 것이니	墾凍方是膏
내년에 심을 것을 계획하네	計爲明年設

이상은 가을 밭갈이이다

등화⁵

燈花

어지럽게 쌓이는 황금빛 좁쌀	亂堆金粟子
수놓은 비단 휘장을 외롭게 비추네	孤映繡羅帷
내일 아침 기쁜 일 있을 것을 묵묵히 알고는	默會明朝喜
화장 상자를 열어 급하게 눈썹을 그리네	開奩急畫眉

5 등화(燈花) : 등잔불 심지 끝이 타서 맺히는 꽃 모양의 불똥을 말한다. 불이 꺼지려 할 즈음에 이 등화 현상이 일어나면 조만간 기쁜 일이 있게 된다고 한다. 《本草 燈花》《西京雜記 3》

연악산⁶에서 여러 공의 분운⁷시에 차운하여 절구시
열 수를 짓다 임술년(1622, 광해군14)

次淵岳諸公分韻詩 作爲十絶 壬戌

‘군행망후선, 붕식기구검[群行忘後先, 朋息棄拘檢]’⁸으로 운자를 삼았다.

연못에는 맑고 상쾌한 물이 고여 있고	淵淨逗清駛
산은 우뚝 솟아 속세의 기운을 벗어났네	岳竦超埃氛
어려서부터 사단을 쌓는 것 배우고	童習爲築社
대대로 살면서 무리를 떠나지 않네	世居非離群

6 연악산(淵岳) : 경상북도(慶尙北道) 상주(尙州)에 있는 산이다. 조찬한은 임술년(1621)부터 계해년(1623) 우승지로 임명되기 전까지 상주목사(尙州 牧使)로 있었는데, 이 시는 임술년(1622)에 지은 것이므로 상주목사로 있을 때 지은 것이라 할 수 있다.

7 분운(分韻) : 분운은 여러 사람이 일단 시를 짓고, 시구 중의 몇 개 글자를 운(韻)자로 정한 다음 각자 그 운자를 나누어 가지고서 시를 짓는 것이다.

8 한유(韓愈)의 <배두시어유상서양사(陪杜侍御遊湘西兩寺)>시 “이때 가을이 저물려 하는데도, 더위는 아직도 수그러들지 않아, 우르르 달려가 선후의 차례도 잊고, 여럿이 함께 쉬며 예의범절도 잊었다 오.[是時秋之殘 暑氣尙未斂 群行忘後先 朋息棄拘檢]”라는 시구에서 3,4구를 취한 것이다. ‘朋’이 ‘困’으로 되어 있는 판본도 있다.

두 번째

其二

강씨는 질박하고 고풍이 있으니
편안함을 숭상하여 기심이 절로 맑네
음주와 시 짓기로 고을의 인재들을 모으니
읍재가 감히 천천히 가라

康氏朴而古
尙恬機自清
文酒集鄉彥
邑宰敢徐行

세 번째

其三

우복 늙은이 도가 더욱 두텁고
창공은 문장이 성대하네⁹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유아하니
형적을 잊고서 함께 모인다네

愚老道彌篤
蒼公盛文章
餘子摠儒雅
共會形相忘

9 우복…성대하네 : 연보에 따르면 현주는 1622년 상주 목사로 있으면서 정경세(鄭經世), 이준(李埈)과 파곳(葩串)을 유람하고 <유파곳록(遊葩串錄)>을 지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를 근거로 볼 때, 원문의 우로(愚老)는 우복(愚伏) 정경세, 창공(蒼公)은 창석(蒼石) 이준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주집 해제》 참조.

네 번째

其四

신령한 단비는 무더위에 쏟아지니
어린 채소는 좋은 술안주라네
연못의 연잎은 푸른 잎을 펼쳤으니
구슬이 튕 뒤에 향기가 맑네

靈澍沃壯炎
嫩蔬按芳酒
池荷展碧圓
香淨跳珠後

다섯 번째

其五

피리와 통소 소리 소나무·회나무에서 일어나니	竽籟起松檜
패옥 찬 이슬 산골 샘물로 모여드네	佩環來澗泉
중용히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에게 맡겨야 하는데	從容任少長
불러냈다고 내가 먼저 온 것이 부끄럽다네	告出慙吾先

여섯 번째

其六

속세의 마귀가 병 귀신과 도모하여
나를 철사줄로 묶는 듯 하였네
며칠의 여가도 놔두지 않는데
어찌 벗들을 따라서 놀 수 있으랴

塵魔謀病鬼
縛我如鐵繩
不饒數日暇
安得隨諸朋

일곱 번째

其七

비를 무릅쓰고 성곽으로 돌아가니	冒雨返城闈
높은 하늘과 깊은 못처럼 선계와 속세를 나눈 듯하네 ¹⁰	天淵判仙俗
신선의 땅과 홀로 어그러진 것을 슬퍼하지만	福地悵獨違
무릉에서는 소식이 없다네	茂陵無消息

10 높은…갈네 : 모임을 가진 연악산과 돌아온 성곽이 하늘과 연못이 차이가 나듯 엄청난 차이가 나서 마치 신선세계에서 속세로 돌아온 느낌을 받았다는 말이다.

여덟 번째

其八

천제께서 비를 내려 희롱했으니
박하고 후한 것이 어찌 그리도 다르단 말인가
저들은 후하게 해주어 소요하게 두고
나는 박하게 하여 멀리 버리다니

皇天雨戲之
薄厚何苦異
厚彼任翱翔
薄我以遐棄

아홉 번째

其九

하루가 백 일에 해당되니
사백 일을 날마다 즐거워 하였네
내게 무슨 괴로움이 있으리오
벼슬 맡은 것이 구속과 같다네

一日當百日
四百日懽娛
而我有何累
守官如繫拘

열 번째

其十

맑은 놀이는 하늘이 준 기회인지라
질릴 수 없다는 것 알고 있었네
여주¹¹가 갑자기 눈에 가득하니
손을 씻고 부질없이 점검해보네

清遊天借便
已識無倦厭
驪珠忽滿眸
灌手空點檢

11 여주(驪珠): 검은 용[驪龍]의 턱 밑에 있는 구슬이란 뜻으로, 전하여 아주 긴요한 문장이나 뛰어난 시문을 비유한다. 여기서는 여러 공이 지은 훌륭한 시에 눈이 먼저 간다는 말이다.

현주집

제4권

七言絶句 칠언절구

칠언절구 七言絕句

무은암. 벽 위의 시에 차운하여 김덕윤에게 주다 계묘
년(1603, 선조36)

霧隱庵 次壁上韻 贈金德潤 癸卯

산 나무는 질푸르고 서쪽으로 기운 해는 노란데	山木蒼蒼西日黃
앞 시내엔 물이 줄어 어량 ¹ 이 드러났네	前溪水落露漁梁
누가 알랴, 한 골짜기의 푸른 소나무와 흰 구름 속에	誰知一壑松雲裏
적막하게 향 흩어진 초당이 숨어 있는 줄	寂寞銷香掩草堂

1 어량(漁梁) : 어량(魚梁)과 같은 말이다. 물고기를 잡는 장치로, 물살을 가로막고 물길을 한 군데로만 터놓은 다음 거기에 통발이나 살을 놓는다.

백구²의 부채에 시를 적어 드리다

題贈伯懼扇

신선의 땅에 속인의 발길 머물게 할 방법 없었으니 仙區無計駐塵蹤
꿈속의 그리움 변함없었지만 곧 부질없는 일이었지 夢想依然便是空
오늘 물가 집에서 서로 웃으며 이야기 나누었으니 今日水軒相笑語
그림 속에 옮겨 넣을 수 있으려나 可能移入畫圖中

-
- 2 백구(伯懼) : 심희수(沈喜壽, 1548~1622)의 자이다. 호는 일송(一松), 수뢰루인(水雷累人). 아버지는 심건(沈鍵)이고, 어머니는 이연경(李延慶)의 딸이다. 노수신(盧守愼)의 문인이다. 1570년(선조3) 진사시에 합격하여 성균관에 들어갔는데, 이해 이황(李滉)이 죽자 성균관을 대표하여 장례에 참여하였다. 1572년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고, 1583년 사가독서(賜暇讀書)하였다. 1592년 임진왜란 때 선조(宣祖)를 의주까지 호종하였다. 1613년(광해군5) 계축옥사(癸丑獄事) 때 이항복(李恒福), 이덕형(李德馨) 등과 함께 영창대군(永昌大君)을 옹호하였다. 문장에 능하고 글씨를 잘 썼다. 저서로 《일송집(一松集)》이 있다. 시호는 문정(文貞).

보광사의 좋았던 일을 추억하며 반환 어른³ 홍천경 께 보내다

追憶普光勝事 贈寄盤桓丈 洪千璟

내 말은 병들고 ⁴ 내 종은 한 명뿐	我馬玄黃我僕單
해오라기처럼 나는 눈꽃이 앞산을 에워쌌구나	雪花如鷺擁前山
지금까지 가장 잊기 어려운 곳은	至今最有難忘處
사람이 있던 아스라한 신선의 거처	人在仙寮縹緲間

3 반환(盤桓) 어른 : 홍천경(洪天璟, 1553~1632)으로, 자는 군옥(群玉)이고 반환은 그의 호이다. 아버지는 홍응복(洪應福)이다. 기대승(奇大升), 이이(李珣), 고경명(高敬命)의 문하에서 배웠다. 임진왜란 때 김천일(金千鎰) 밑에서 군량 모집 등의 임무를 담당하였고, 정유재란 때 권율(權慄) 밑에서 의병 모집 격문을 작성하였다. 1609년(광해군 1) 증광문과에 갑과로 급제하여 전적, 나주교수 등을 역임하였다. 나주 월정서원(月井書院)에 제향되었다.

4 내 말은 병들고 : 《시경(詩經)》〈주남(周南) 권이(卷耳)〉에 “저 높은 산 마루에 오르고 싶지만, 내 말은 병이 들었네.[陟彼高岡，我馬玄黃.]”라고 하였다.

취랑에게 뒤늦게 보내다

追寄翠娘

원섭(元燮)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선녀 같은 아가씨 서너 명의 용모가 당대 최고였는데 그 가운데 취랑(翠娘)이 으뜸으로, 그녀는 시를 잘 짓고 글을 잘 탔다. 그런 취랑이 영남에서 떠돌아다니며 밥을 빌어먹는데,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 내가 이 이야기를 들은 까닭에 뒤늦게 시로 읊는다.

우리들의 문장엔 화려함이 적은데도 吾儕文字少葳蕤
오히려 근심했지, 평소 길이 점점 위태로워짐을 猶患平生路轉危
선녀 같은 아가씨 명이 박함을 괴이하게 여기지 말라 莫怪仙娘賦命薄
이렇게 고운 얼굴에 또 시까지 잘 지으니 紅顏如許更能詩

외딴집의 한낮 흥취 갑진년(1604, 선조37) 교하록

幽居午興 甲辰 交河錄

띠 집에서 선잠 자다 졸음 쫓기 어려움을 깨달으니 茆堂小睡覺難去
깨랴 말랴 하다가 도리어 더 깊이 잠들었지 欲醒未醒還就濃
산 피꼬리 지나간 뒤 다시 적막해졌는데 山鷲過後更寥寂
한가로이 피어난 해당화는 한낮 바람에 떨어지네 自在棠花零午風

물이 바위에 미끄러지다⁵ 천마록

水滑石 天磨錄

외판 시내가 폭포를 배워서 산기슭을 갈아 내니 幽溪學瀑碾山根

낙엽이 수원(水源)을 봉인하여 물을 뿜지 못하게 하였네

落木封源失瀉噴

얇은 여울을 한번 터서 위험하고 미끄러운 바위로 흘러내리게 하니

試決輕湍下危滑

붉은 잎이 일시에 물길 따라 내달리더라

一時紅葉逐流奔

- 5 물이 바위에 미끄러지다 : 《현주집(玄洲集)》〈유천마성거양산기(遊天磨聖居兩山記)〉에 나오는 다음의 풍광을 읊은 시인 듯하다. “차일암(遮日巖)에서 서쪽으로 겨우 5리 정도 내려가니 기울어진 벼랑이 땅에 백여 보쯤 펼쳐져 있는데, 두꺼운 바위와 삐죽한 돌이 뒤섞여 흩어져서 물이 그 사이로 흘렀다. 물은 벼랑 입구에 모였는데 알아서 세차게 흐르지 못하는지라 수많은 낙엽이 점점 쌓여서 물길을 막았다. 이에 여러 승려와 함께 손으로 물길을 트고 손가락으로 소통시켜서 그 여울을 흐르게 하니, 물살이 급하게 벼랑으로 쏟아지는데 병을 뒤집어 붓는 것 같았다. 이에 어지러이 흩어져 있던 붉은 낙엽들이 물결을 따라 구슬을 켜 듯 생선을 나란히 엮은 듯 흘러서 차례대로 급류에 매달려 떨어지는데 그대로 함께 웃으며 구경하니 한가로운 가운데 기이한 운치라 할 만하였다. [緣巖西下僅五里，有傾崖鋪地百餘步，頑巖猛石錯分通波，水聚崖口，淺不悍流，而無數落木，沈積塞斷，仍與諸僧手決而指疏，以通其湍，則水急瀉崖，倒若建瓴，而紅葉之紛紛者逐波趁沫，珠貫魚聯，次茅懸溜而下，仍相與笑玩，可謂無事中奇致也.]”

목장 병오년(1606, 선조39) 원주록

牧場 丙午 原州錄

그때 돌 울타리 손으로 어지러이 쌓았으니 當時石柵手紛紛
어진 수령의 명성을 이곳에 와서 듣는구나 賢宰聲名到此聞
도리어 괴이한 건 비렴이 견수와 위수 사이에서 말을 기른 일⁶이니 却怪飛廉汧渭事
백성의 힘에 기대지 않고도 말이 구름처럼 많았다네 不憑民力馬如雲

6 비렴(飛廉)이…일 : 주 효왕(周孝王)이 말을 잘 기르는 견구(犬丘) 사람 비자(非子)를 불러 견수(汧水)와 위수(渭水) 사이 지역으로 보내서 말을 기르게 하니 말이 크게 번식하였다. 비자는 비렴의 후손이다. 《史記 卷5 秦本紀》 비렴은 은(殷)나라 주(紂)의 간신으로, 아들 악래(惡來)와 함께 주의 모든 죄악을 도운 자이다. 주공(周公)이 무왕(武王)을 도와 주를 주벌하고, 비렴을 바다 모퉁이로 몰아내 죽였다고 한다. 《孟子 滕文公下》

양릉

兩陵

선릉(宣陵)과 정릉(靖陵)⁷이다

하늘과 땅이 침묵하니 누구에게 물을까⁸ 乾坤嘿嘿憑誰問
소나무와 잣나무는 푸르고 푸를 뿐 본디 알지 못한다네
松柏蒼蒼不自知
병든 신하가 끝없이 우는 것 괴이하게 여기지 말라 莫怪病臣無限泣
하나의 강물로 두 능의 슬픔을 씻기 어려우니 一江難洗二陵悲

-
- 7 선릉(宣陵)과 정릉(靖陵) : 선릉은 조선 성종(成宗)과 성종의 계비인 정현왕후(貞顯王后) 윤씨(尹氏)의 무덤이고, 정릉은 중종(中宗)의 무덤이다. 임진왜란 때 왜적이 두 능을 파헤쳐 재궁(梓宮)을 범(犯)하여서 그 시신의 진위(眞僞)를 확인할 수 없었다.
- 8 하늘과…물을까 : 양릉(兩陵) 시신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음을 말한 듯하다.

용문산

龍門山

옥으로 만든 연꽃 같은 봉우리 하늘로 우뚝 솟으니 中天秀出玉芙蓉
사람들 말하네, 용문산 제일의 봉우리라고 人道龍門第一峯
정오에 떠가는 구름이 산허리를 숨기니 亭午行雲藏半腹
산신령이 신선의 발자취를 감추기 위함이라 山靈應爲祕仙蹤

대제사⁹

大堤詞

푸른 것으로 꾸민 수레 덮개 같은 연잎에 달이 밝으니 月明荷葉如翠蓋
앞에 붙은 무거운 이슬이 귀한 구슬¹⁰처럼 새롭도다 重露着葉驪珠新
구슬은 물 가운데 떨어져도 오히려 주울 수 있는데 珠落波心猶可拾
물 건너편에 놀러 나온 사내와는 어떻게 친해지나 游郎隔水何由親

-
- 9 대제사(大堤詞) : 대제(大堤)는 독 이름으로 지금의 호북성 양양현(襄陽縣)에 있다. 악부 <양양악(襄陽樂)>에 <대제곡(大堤曲)>이 있다. 또 양(梁)의 간문제(簡文帝)가 지은 <옹주곡(雍州曲)>에 <대제곡>이 있는데, 이것은 당나라 <대제곡>과 <대제행(大堤行)>의 근본이 되었다. 옹주는 곧 양양이다.
- 10 귀한 구슬 : 원문은 ‘驪珠’인데, 여주는 검은 용의 턱 밑에 있다는 귀한 구슬이다. 《장자(莊子)》<열어구(列禦寇)>에 “천금의 구슬은 분명 9층의 깊은 연못, 그것도 검은 용의 턱밑에 있었을 터인데, 네가 그 구슬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틀림없이 그 검은 용이 잠든 때를 만났기 때문일 것이다.[夫千金之珠必在九重之淵而驪龍頰下，子能得珠者，必遭其睡也.]”라고 하였다.

가을밤 오자영¹¹에게 주다

秋夜 贈吳子英

푸른 나무 짙은 그늘에 밤의 서늘함 피어나니 碧樹層陰生夜涼
밝은 달빛 아래 벌레 소리는 빈 침상에 가득하다 月明蟲語滿空牀
가련타, 강호에서 해를 넘겨 이별했다가 可憐湖海經年別
촛불 가까이에서 바라보니 살쩍이 벌써 하얗구나 近燭相看鬢已霜

11 오자영(吳子英) : 《수은집(睡隱集)》〈만시(挽詩)〉에 근거할 때 오정남(吳挺南)을 말하는 듯하다.

고을 성벽¹²의 새벽 경치. 정중립¹³ 시 에게 주다. 임자년
(1612, 광해군4) 낭주¹⁴록

郡城曉景 贈鄭中立 時 壬子 朗州錄

달이 서루에 숨으면 북과 불피리 소리 요란하고 月隱西樓鼓角喧
성 위의 까마귀 울며 일어나면 비로소 성문이 열리지 城鴉啼起始開門
병영의 서찰이 밤에 장군의 도착을 알리기에 營書夜報將軍至
아병¹⁵의 점고를 재촉하여 큰길에 모았다네 催點牙兵上路屯

이날 밤에 새 병사(兵使)가 고을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
- 12 고을 성벽 : 현주(玄洲)가 영암 군수(靈巖郡守) 시절에 지은 시이므로, 영암의 성벽을 말하는 듯하다.
- 13 정중립(鄭中立) : 중립(中立)은 정시(鄭時, 1569~?)의 자이다. 아버지는 정지복(鄭之復)이고, 생부(生父)는 정지승(鄭之升)이다. 1612년(광해군4)에 진사시에 합격하였다. 나주(羅州)에 거주하였다.
- 14 낭주(朗州) : 영암의 옛 이름이다. 《新增東國輿地勝覽 卷35 全羅道》
- 15 아병(牙兵) : 본영(本營)에서 대장을 수행하는 병사이다. 여기에서는 영암에서 현주가 지휘하던 고을 군사들을 말하는 듯하다.

옥봉¹⁶의 옛 별장

玉峯舊莊

외딴 시내의 깨끗한 바위, 길은 희미한데 幽溪淨石路依微
푸른 나무의 그늘 속에 껍질 벗긴 대로 엮은 문 碧樹陰中白竹扉
슬프다, 시선¹⁷이 옛날에 노닐던 곳 悵悵詩仙舊遊處
찢긴 연잎과 마른 버들 위로 저녁 해 절로 기우는구나 破荷枯柳自斜暉

-
- 16 옥봉(玉峯) : 백광훈(白光勳, 1537~1582)의 호이다. 자는 창경(彰卿). 아버지는 백세인(白世仁)이고, 어머니는 김광통(金廣通)의 딸이다. 박순(朴淳), 양응정(梁應鼎), 노수신(盧守愼) 등에게서 수학하였다. 1572년(선조5)에 노수신을 따라 백의(白衣)로 제술관(製述官)이 되어, 시재(詩才)와 서필(書筆)로 명나라 사신을 감탄하게 하여 백광선생(白光先生)이라는 칭호를 얻었다. 최경창(崔慶昌), 이달(李達)과 함께 삼당시인(三唐詩人)이라 불리었다. 또 이산해(李山海), 최립(崔嵬) 등과 더불어 팔문장(八文章)의 칭호를 얻었다. 글씨에도 일가를 이루어 영화체(永和體)에 빼어났다. 저서로 《옥봉집(玉峯集)》이 있다.
- 17 시선(詩仙) : 여기에서는 옥봉 백광훈을 말한다.

백암 십영¹⁸ 을묘년(1615, 광해군7) 영천록

白巖十詠 乙卯 榮川錄

부운 오운(吳濼)¹⁹이 계속 심하게 조르기에 병중에 서둘러 지어 보낸다.

하늘 너머에서 저절로 불어와 참된 형상이 없기에 自吹空外無眞像
 짐짓 산 빛을 빌려 일정한 자태 지었지 故借山光作定姿
 저녁 햇빛 얇게 바르고 흰 명주 띠 흔드는 듯한데 淺抹斜陽搖縞帶
 주렴 길으면 저물녘 갠 때 늘 있다오 卷簾長在晚晴時

자굴산의 갠 날 아지랑이[闇窟晴嵐]

밝고 깨끗한 정진의 흰 모래가 미워서 生憎皎皎津沙白
 길가는 사람들이 밟으며 오가도록 내버려 두었지 一任行人踏去廻
 어찌 깊은 밤 달빛이라고 의심할 뿐이겠는가 可但夜深疑月色

18 백암 십영(白巖十詠) : 오운(吳濼)의 《죽유집(竹牖集)》〈투증시장간독(投贈詩章簡牘)〉에 현주의 이 시가 실려 있는데, 글자 출입이 있다. 오운은 1578년(선조11) 의령(宜寧)에 은거하면서 백암대(白巖臺)를 쌓고, 호를 ‘백암(白巖)’이라 하였다.

19 부운 오운(吳濼) : 원문은 ‘吳府尹濼’인데, 《죽유집》〈가장(家狀)〉에 근거하여 ‘濼’을 ‘瀾’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오운(1546~1617)은 자는 태원(太原), 호는 죽유(竹牖)이다. 아버지는 오수정(吳守貞)이고, 어머니는 안관(安瓘)의 딸이다. 이황(李滉)과 조식(曹植)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령에서 의병을 일으켜 곽재우(郭再祐)의 휘하에서 활약하였다. 1597년 정유재란 때 다시 합천 부근의 왜적을 쳐서 공을 세워, 도원수 권율(權慄)의 추천으로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올랐다. 임진왜란 당시 곽재우와 함께 분전한 17장(將)의 한 사람으로, 선무원종공신(宣武原從功臣) 1등에 책록되고 병조참판에 증직되었다. 저서로 《죽유집》, 편서로 《동사찬요(東史纂要)》가 있다.

또 봄에 바라볼 때는 구름 떼라 의심하게 한다네 更教春望訝雲堆
정진의 흰모래[鼎津白沙]

끝없이 펼쳐진 먹구름은 하늘가에서 만나고 無限層陰天際合
비취빛 깃으로 장식한 휘장과 푸른 수레 덮개는 교외에 늘어섰네
翠帷青蓋列郊墟

비껴 부는 바람에 비가 지나자 희뿌연 빛이 도니 斜風過雨蒼茫色
용면거사²⁰의 솜씨를 빌리고 싶지만 그림이 이만 못하리
欲倩龍眠畫不如
장림의 저물녘 비[長林晚雨]

촌마을 저녁 풍경 누가 먼저 즐기려나 村墟暝色誰先得
곳곳마다 인가엔 저녁연기 오르네 處處人家起夕煙
푸른빛 날리고 흔들리지만 도리어 흩어지지는 않더니 颺翠搖青還不散
일시에 들녘 뽕나무 끝을 질게 뒤덮는구나 一時濃翠野桑顛
앞마을 저녁연기[前村暮煙]

갠 밤 옥 같은 시내엔 유달리 달빛이 많이 쏟아지니 瑤溪霽夜偏多月
지팡이 짚고 나간 사람에겐 그림처럼 보인다네 携杖人看似畫圖

20 용면거사(龍眠居士) : 송(宋)나라의 유명한 화가인 이공린(李公麟, 1049~1106)의 호이다. 자는 백시(伯時). 이공린이 벼슬을 그만두고 용면산(龍眠山)에 들어가서 지내며 용면거사라 자호하였다. 시·서·화에 모두 능한 문인화가인데, 불상, 인물, 산수, 화조 등의 그림을 잘 그렸다. 특히 말[馬] 그림과 인물화를 잘 그려서 당시 사류들이 그를 고개지(顧愷之)·장승요(張僧繇)·오도자(吳道子) 다음으로 꼽으며 송대(宋代) 제일이라고 평하였다. 소식(蘇軾)과 친하게 지냈으며, 화가 중에서는 소식의 초상화를 그가 맨 처음으로 그렸다고 전해진다.

조용히 눈치챘지, 물고기가 헤엄쳐와 먹이를 먹는 곳에 靜識游鱗來食處
달빛이 미세하게 움직이자 물새가 운다는 걸 金波微動渚禽呼
남계의 밝은 달[南溪霽月]

메벼 익어 가는 호숫가 논을 끝까지 바라보나니 極目湖田稔稻熟
서리와 이슬이 남몰래 재촉한 것 몰랐구나²¹ 不知霜露暗相催
바닷가 수루 가까이에 모인 구름 떼가 아니라면 若非海戍屯雲近
하늘에서 내려온 황하가 아니겠는가 無乃黃河天上來
동쪽 들녘의 누렇게 익은 벼[東野黃雲]

외딴 샘 팔팔 흘러 차갑게 바위로 쏟아지니 激激幽泉寒瀉石
옥 부딪는 듯 울리는 맑은 소리를 가만히 어여쁘게 여긴다
靜憐哀玉響琮琤
씻을 만한 것은 갓끈뿐이니 어찌 굳이 밭을 씻으랴 纓唯可濯何煩足
창랑이 흐렀다가 다시 맑아진다니 몹시 우습구나 笑殺滄浪濁更清
석천에서 갓끈을 씻다²²[石泉濯纓]

수양버들 아래 시냇가의 이끼 낀 낚시 바위 溪畔苔磯垂柳下
아침에 와서 저녁에 가느라 한가한 적 없었지 朝來暮去不曾閑
서로 잇고 사는 물고기들의 즐거움을 실컷 바라보다가²³ 貪看魚子相忘樂

-
- 21 서리와…몰랐구나 : 가을이 깊어져 벼가 익어 가는 줄 몰랐다는 뜻이다.
- 22 갓끈을 씻다 : 굴원(屈原)의 〈어부사(漁父辭)〉에 “창랑의 물이 맑으면 나의 갓끈을 씻고, 창랑의 물이 흐리면 나의 밭을 씻으리.[滄浪之水清兮, 可以濯我纓; 滄浪之水濁兮, 可以濯我足.]”라고 하였다.
- 23 서로…바라보다가 : 《장자(莊子)》〈대종사(大宗師)〉에 “샘물이 마르면 물고기들이 함께 물에 있으면서 서로 축축한 입김을 불어 주고 거품

석전제에서 음복하는 날 모재²⁵의 <권제생소학>시에
차운하여 지어서 그대로 향교 유생들에게 보이다

釋奠飲福日 次慕齋勸諸生小學韻 仍示校儒

큰 현인이 곧 경륜 있는 사람은 아니니 大賢非是即經綸
학문하는 길은 날로 새로워지는 일²⁶부터 시작이라 爲學功程自日新
누가 알았으랴, 구구하게 물 뿌리고 비질하는 일조차 誰識區區洒掃地
또 수많은 성인에게 수신의 근본으로 삼게 할 줄²⁷ 也教千聖本修身

- 25 모재(慕齋) : 김안국(金安國, 1478~1543)의 호이다. 자는 국경(國卿). 김연(金璉)의 아들이고, 김정국(金正國)의 형이다. 김굉필(金宏弼)의 문인이다. 1519년(중종14) 기묘사화(己卯土禍)가 일어나 조광조(趙光祖) 일파가 죽임을 당할 때 겨우 화를 면하고 파직되어 지방에 내려가서 후진들을 가르쳤다. 1532년에 다시 등용되어 예조판서, 대사헌, 병조판서 등을 거쳤다. 시문으로 명성이 있었다. 대제학으로 죽은 뒤 인종(仁宗)의 묘정(廟庭)에 배향되었다. 시호는 문경(文敬). 저서로 《모재집(慕齋集)》 등이 있다.
- 26 날로 새로워지는 일 : 《대학장구(大學章句)》전(傳) 2장에 “탕왕(湯王)의 반명에 ‘진실로 어느 날 새로워졌거든 나날이 새롭게 하고 또 날로 새롭게 하라.’라고 하였다.[湯之盤銘曰, 苟日新, 日日新, 又日新.]”라고 하였다.
- 27 누가…줄 : 주희(朱熹)의 <대학장구서(大學章句序)>에 “사람이 태어나 8세가 되면, 왕공 이하로부터 서인의 자제에 이르기까지 모두 소학에 입학시켰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물 뿌리고 비질하며 응하고 답하며 나아가고 물러나는 예절과 예·악·사·어·서·수에 관한 글을 가르쳤다.[人生八歲, 則自王公以下, 至於庶人之子弟, 皆入小學, 而教之以灑掃應對進退之節, 禮樂射御書數之文.]”라고 하였다.

피꼬리

流鶯

경박한 피꼬리가 몹시도 미우니	赤憎輕薄黃鸝子
어째서 피꼴피꼴 울다가 다시 날아가 버리는가	恰恰胡然啼又飛
정녕 수양버들 위에 있었는데 다시 보이지 않더니	定在垂楊還不見
팔배나무 꽃 너머에서 희미한 소리 들리는구나	野棠花外聽依稀

석천주인의 시에 차운하여 짓다

次石泉主人韻

강산 어느 곳에 한가로운 땅 있나	江山何處有閒地
속세에는 지금 좋은 사람 없구나 ²⁸	塵世卽今無好人
곧 그대에게 나아가 좋은 땅 가려 집을 짓고 싶은데	便欲就君成卜築
시냇가에 이 늙은이 받아 줄 수 있으려나	可能容老澗之濱

28 속세에는…없구나 : 《소학(小學)》〈가언(嘉言)〉에 “은혜와 원수를 분명히 하라는 이 네 글자는 도가 있는 사람의 말이 아니고, 세상에 좋은 사람이 없다는 세 글자는 덕이 있는 사람의 말이 아니다. 후생들은 이것을 경계하라.[恩讎分明此四者, 非有道者之言也; 無好人三字, 非有德者之言也. 後生戒之.]”라고 하였다. 북송(北宋)의 학자 여희철(呂希哲, 1039~1116)이 한 말이다.

즉사 김 정자에게 주다

卽事 贈金正字

이른 봄에 보슬비 내리고 미풍이 부니	細雨微風作早春
성안에 가득한 큰길가의 버들 ²⁹ 이 일시에 새로워졌다오	滿城官柳一時新
누 집 작은 화단에 매화가 피었나	誰家小塢梅花發
또 사람을 맑게 비추는 금과 술동이 있다네	更有琴尊淸照人

29 큰길가의 버들 : 원문은 ‘官柳’인데, 큰길가의 버들이나 관아에서 심은 버들을 말한다.

이른 봄

早春

서리 내린 새벽에 한기가 남아 두꺼운 옷 벗지 않았는데 霜曉餘寒未解嚴
해 높이 뜨자 비로소 재잘대는 새 소리 들리네 日高纔聽鳥喃喃
눈에 가득한 강산 풍경엔 봄빛이 없는데 江山滿目無春色
오직 열린 노란빛이 가는 버들에 붙었구나 唯有微黃着柳纖

등화³⁰

燈花

또 오언절구가 있다

등화가 은백색 등잔에서 오래돼 금빛 알곡³¹ 오돌토돌 花老銀缸金粟羸
 옥 벌레³² 끝에 화룡³³의 구슬이 꽃혀 있네 玉蟲頭插火龍珠
 텅 빈 규방의 여인에게 기쁜 소식 알림이 분명하니 分明爲報空閨喜
 내일 멀리 가신 임이 돌아오시려나 來日征人歸到無

-
- 30 등화(燈花) : 등잔을 오래 켜서 심지 끝이 꽃 모양의 불뚱으로 엉겨 붙은 것을 이른다. 옛날에는 이것이 생기면 길조라고 생각했다.
- 31 금빛 알곡 : 등화(燈花)를 비유하는 말이다.
- 32 옥 벌레[玉蟲] : 등잔불의 이칭이다. 한유(韓愈)의 시 <영등화(詠燈花)>에 “황색 가운데 금빛 알곡 늘어놓은 듯, 비녀 머리엔 옥 벌레를 장식한 듯하네.[黃裏排金粟, 釵頭綴玉蟲.]”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 33 화룡(火龍) : 화룡은 곧 온몸에 불을 띠고 있다는 전설상의 신룡(神龍)을 가리킨다. 당(唐)나라 왕곡(王穀)이 지은 <고열행(苦熱行)>에 “축융이 남쪽에서 오며 화룡을 채찍질하니, 화기가 휘몰아쳐 하늘 붉게 태우네.[祝融南來鞭火龍, 火旗焰焰燒天紅.]”라고 하였다. 또 끊어지지 않고 하나로 이어진 등불을 의미하기도 한다.

구학정³⁴에서 감회가 있어 3수

龜鶴亭有感 三首

다리가 들 물을 가로지른 곳이 구촌인데	橋橫野水是龜村
안개 낀 나무 흐릿하여 바야흐로 녀이 나가네	煙樹微茫政斷魂
누대가 오래 적막하였던 일 차마 생각하라	忍想樓臺長寂寞
밤 깊자 흐르는 달빛이 빈 술둥이를 비추네	夜深流月照空尊

버드나무 가뻬이 흔들리며 물가마을을 가리는 때	楊柳依依掩水村
작은 뜰에서 매화 녀이 움직임을 ³⁵ 누가 알라	小庭誰識動梅魂
한 가닥 산새 울음소리 사람 보이지 않는데	山鳥一聲人不見
굽은 난간에서 옛 꽃 띄운 술둥이 부질없이 기울이네	曲闌空倒舊花尊

닭과 개는 마을에서 여전히 편안하고 한가롭고	鷄犬依然自在村
매화는 예전처럼 작년 녀이 돌아왔네	梅花猶返去年魂
사람 일이 아침 이슬 ³⁶ 같다는 걸 일찍 알았노니	早知人事如朝露

34 구학정(龜鶴亭) : 원문에 '구초정(龜鶴亭)'은 국립중앙도서관 석판본 《현주집》에 의하면 '구학정(龜鶴亭)'의 오기이다. 이 정자는 백암(柏巖) 김륵(金玊)이 경상북도 영주(榮州)에 건립한 것으로, 이수광(李睟光), 유성룡(柳成龍), 차천로(車天輅), 이식(李植) 등이 찬시(讚詩)를 남겼다. 구학정은 서구대(西龜臺) 아래에 세워져 동구대(東龜臺)를 마주보고 남으로 학가산(鶴駕山)을 바라보는 위치에 있으므로, 구대(龜臺)와 학가(鶴駕)의 이름을 따서 구학정이라 하였다.

35 매화 녀이 움직임을 : 봄이 되어 매화가 다시 핀다는 의미이다.

36 아침 이슬 : 원문의 '조로(朝露)'는 쉽게 사라져 버리는 인생을 비유한 말로 흔히 쓰인다. 한(漢)나라 고조(高祖)에게 반기를 들다 패망한 전횡(田橫)의 죽음을 두고 그 무리가 지은 만가(輓歌) 2장 중 1장에

높이 세운 누대에서 술동이를 같이 즐기지 않으랴 不向高臺共一尊

“부추 위에 맺힌 이슬 어이 쉽게 마르나? 이슬은 말라도 내일이면 다시 내리지만, 사람은 죽어 한번 가면 어느 때나 돌아오나? [薤上朝露何易晞? 露晞明朝更復落, 人死一去何時歸?]”라고 한 데서 나온 말이다. 《古今注 音樂》

장문³⁷원

長門怨

비단 휘장 속에 말라 죽은들 누가 불쌍히 여길까	枯死羅幃誰所憐
총애는 하늘과 같았는데 죄가 산처럼 쌓였네	罪猶山積寵如天
차생에서 군왕을 가까이함을 바랄 수 있으랴	此生可望親龍袞
꿈속에서 용안을 뵈는 것도 좋은 인연일세	一夢承顏是好緣

37 장문(長門) : 한(漢)나라 궁궐 이름이다. 한 무제(漢武帝)의 진 황후(陳皇后)가 처음에는 남달리 총애를 받다가 뒤에 투기로 인하여 장문궁(長門宮)으로 쫓겨나 쓸쓸히 지내면서 시름과 슬픔으로 나날을 보냈다. 전하여 총애를 잃은 여자가 거처하는 쓸쓸한 궁원(宮院)을 비유하기도 한다.

한식

寒食

팔배나무 꽃 피고 풀은 무성한데	棠梨花發草菲菲
한식날 봄바람에도 나그네 돌아가지 못하네 ³⁸	寒食東風客未歸
해 저물자 주민들은 선영에서 다 내려오고	日暮居人下壘盡
들 까마귀가 지전 ³⁹ 을 다투어 돌며 나는구나	野鴉爭繞紙錢飛

-
- 38 한식(寒食)날…못하네 : 한식날에는 중국이나 우리나라 모두 선영에 가서 성묘하고 제사를 지내는 풍속이 있었기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 39 지전(紙錢) : 지전은 제사를 지낼 때 망자(亡子)나 귀신에게 주기 위해 불태우거나 날리거나 묻거나 나무에 걸어 두는 종이돈을 말한다. 송(宋)나라 장계유(莊季裕)의 《계륙편(鷄肋篇)》 권상(卷上)에 “한식은 불을 금하기 때문에 무덤에 올라가서도 향화(香火)를 설하지 않고 묘소의 나무에 지전을 걸어 둔다.[寒食上塚, 亦不設香火, 紙錢挂于塋樹.]”라는 기록이 보인다.

춘일즉사

春日卽事

소녀는 천진스러워 오직 유희를 좋아하니	少女無機唯好弄
날마다 와서 푸른 버들가지를 잡아 꺾네	日來攀折綠楊枝
버들가지에서 뼈대를 없애면 껍질이 대나무 같아	楊枝去骨皮如竹
숨씨 있게 가느다란 작은 피리 ⁴⁰ 만들어 부누나	巧作纖纖小管吹

40 가느다란 작은 피리 : 버들피리를 말한다. 음력 3월경 물오른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서 버드나무 껍질을 통째로 뽑아서 만든다. 호드기라고도 한다.

이자강과 쌍청당⁴¹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與李子剛共酌雙清堂

앵두꽃 피고 새 사이 좋게 올 때
못가 누각에서 잔치 여니 봄은 저물려 하네
이별 수심 없애려 맛좋은 술을 마주했더니
맑은 달이 난간 위로 떠오른 것도 몰랐네

櫻桃花發鳥
池閣開筵春欲闌
爲破離愁對芳酒
不知清月上欄干

41 쌍청당(雙淸堂) : 경상북도 영주(永州)에 있는 명원루(明遠樓) 서쪽에 별실을 만들고 크게 마루를 이어 붙였는데 이것을 쌍청당이라고 하였다.

또 이별하며 주다 2수

又贈別 二首

얄미위라 실 같은 푸른 버드나무가 生憎楊柳綠如絲
가는 이 채찍 당기지 않고 단지 드리울 줄만 아는 것이 未挽征鞭只解垂
이별 정자 가까워서 맡은 일이 무엇인가 爲近離亭何所管
사람을 보내며 이별할 때 서로 그리워하는 마음을 증험케⁴² 할 뿐
遣人相別證相思

인주성⁴³은 한양 산에 가까워 仁州城近漢陽山
삼월에 돌아가는 이 안장을 풀지 않네⁴⁴ 三月歸人未卸鞍
구슬퍼라 고을 누각에 봄이 적막함이어 悵悵郡樓春寂寂
지는 꽃이 눈 같은데 난간에 기대어 있네 落花如雪倚欄干

42 사람을…증험케 : 한(漢)나라 때 장안(長安) 사람들은 나그네를 전별할 때 장안 동쪽에 있던 파교(灞橋)까지 가서 다리 가의 버들가지를 꺾어주며 재회를 축원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 준다는 것은 흔히 사모하는 마음을 버들가지에 기탁하는 행위였다. 당시(唐詩)에도 ‘상사류(相思柳)’라는 말[唐詩云, 江頭學種相思柳.]이 보인다.

43 인주성(仁州城) : 인천광역시의 옛 명칭이다.

44 않네 : 원문의 ‘말(未)’은 ‘미(未)’의 오자로 보인다.

삼월 보름날 밤에 쌍청당에서 달을 완상하다 2수

三月望夜 雙清堂賞月 二首

달빛이 겹겹이 쌓인 꽃을 쏘며 밤 누각 비추니	月射層花照夜樓
수정궁 ⁴⁵ 이 기울어 하늘 복판에 떠 있네	水晶宮倚半天浮
신선이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지만	未知仙子何如樣
요대 ⁴⁶ 의 땅이 이보다 나은 건 아니리	地位瑤臺不是優

밝은 달 높은 누각 삼월의 하늘	明月高樓三月天
누각에 가득한 꽃향기는 따사롭기가 연기와 같네	滿樓花氣暖如煙
가련하다 이 경치를 아는 이 없음이여	可憐此境無人會
부질없이 봉래산에 따로 신선이 있다고 말하네	謾道蓬山別有仙

45 수정궁(水晶宮) : 전설 속 달의 궁전을 가리키는데 수정궁(水精宮)이라고도 한다. 전촉(前蜀) 모문석(毛文錫)의 <월궁춘(月宮春)>에 “수정궁 속에 계수나무 꽃 피었으니 신선이 몇 번이나 찾아 왔다.[水晶宮裏桂花開, 神仙探幾回.]”라고 하였다.

46 요대(瑤臺) : 옥으로 장식한 누대로 신선이 거처하는 곳을 가리킨다. 이백(李白)의 <청평조사(淸平調詞)>에 이르기를, “군옥의 산 정상에서 본 것이 아니라면, 요대의 달빛 아래에서 만난 것이 분명하네.[若非群玉山頭見, 會向瑤臺月下逢.]”라고 하였다.

꽃샘바람

妬花風

누가 이 꽃을 주재하며 누가 바람을 주재하나 孰主茲花孰主風
하늘 좇아 물어보려 하나 말 통하기 어려워라 欲從天問語難通
이처럼 재촉해서 꽃의 강토를 넓힐 필요 없었으니 未應如許催開地
바람이 어지럽게 불고 미친 듯이 흔들어 나무마다 텅 비었네
亂吹狂搖樹樹空

꽃을 좋아하지 않고 바람도 원망하지 않아 不喜于花不怨風
묵묵히 이 이치 탐구하여 스스로 깨달을 수 있었네 默尋斯理自能通
꽃은 하늘로 인해 생겨나고 바람도 하늘로 인해 생겨나니
花由天作風天作
개화의 기쁨과 낙화의 슬픔 똑같이 공허한 것이라네 開落悲歡等是空

삼월 이십일 이후 비 내리는 가운데 마침 공사가 없
어 쌍청당에서 잠들었다가 빗소리로 인해 깨어나다

三月念後 雨中適無公事 就睡雙清 因雨聲睡起

빗소리 많아 못가 누각에서 잠이 깨니	睡回池閣雨聲多
비스듬히 주렴을 열어 저물녘 꽃을 살펴보네	顛倒開簾點暮花
온 정원의 시든 꽃들 다 떨어져 버렸으니	一院殘紅零落盡
다시 어느 곳에서 봄빛을 물으랴	更從何處問韶華

봄이 한가로워도 수심이 도리어 많다고 말하지 말라 莫道春閒愁更多	
꽃이 있는 것이 본래 꽃 없는 것에 비해 어떠하뇨 ⁴⁷ 有花何似本無花	
설사 잠시 피었다가 다시 다 떨어지더라도 縱使暫開還落盡	
세간에서 누가 오래 번화하길 바라랴 世間誰欲久繁華	

원컨대 봄날이 더욱 많아지게 하여 願教春日益多多	
오래 피고 지지 않는 꽃을 다시 대하기를 更對長開不落花	
그런 뒤에 홀로 무한한 술을 마시며 然後獨斟無限酒	
팔천 년을 하나의 봄철로 삼게 되기를 ⁴⁸ 八千年作一韶華	

47 꽃이...어떠하뇨 : 나중에 떨어지더라도 꽃이 있는 것이 꽃이 아예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의미이다.

48 팔천...삼게 되기를 : 《장자(莊子)》〈소요유(逍遙遊)〉에 “초나라 남쪽의 명령(冥靈)은 5백 년을 봄으로 삼고 5백 년을 가을로 삼으며, 상고 시대의 대춘(大椿)은 8천 년을 봄으로 삼고 8천 년을 가을로 삼는다. [楚之南有冥靈者，以五百歲爲春，五百歲爲秋，有大椿者，以八千歲爲春，八千歲爲秋.]”라고 한 구절에서 인용한 말이다.

채련사⁴⁹

采蓮詞

짧고 짧은 새 연 줄기 막 물에서 나오니	短短新荷初出水
백백한 자줏빛 연잎들이 작은 동전만 하네	田田紫葉如小錢
달 밝자 처녀 아이 노래 부르며 들어가더니	月明女兒唱歌入
수심을 살피지도 않고는 아직 돌아 나오지 않네	未試淺深猶未旋

49 채련사(采蓮詞) : 연밭을 따는 모습을 읊은 노래로, 악부(樂府)의 청상곡(淸商曲) 가운데 하나인 채련곡(採蓮曲)을 말한다. 본래는 “강남은 연밭을 딸 만한 곳이니, 연잎이 어찌 그리 무성한지.[江南可採蓮, 蓮葉何田田.]”라는 한대(漢代)의 <강남곡(江南曲)>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 당나라 이백(李白), 장적(張籍) 등의 작품이 있다. 연밭 따는 것을 주제로 하여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룬 내용이 많다.

초봄의 피꼬리

新鷲

일생에 무슨 분망한 일이 있길래
올 때도 바쁘더니 갈 때 또 경박한가
버드나무 그늘 속에서 겨우 몇 마디 울음소리
해당화 밖에선 단지 세 번의 울음소리

一生有底奔忙事
來不從容去又輕
垂柳陰中纔數語
海棠花外只三聲

달밤에 서울의 옛 친구를 그리워하며

月夕有懷洛中故交

깊은 정을 머금고 서쪽 굽은 난간에 홀로 기대어 있노니 含情獨倚曲闌西
먼 나무로 돌아간 까마귀는 이미 편안히 깃들었으리 遠樹歸鴉已定棲
벗이 한양을 향할 때 꽃은 또 떨어지고 人向秦京花又落
산에 가득한 달빛에 두견새 울었지 滿山明月子規啼

서쪽 정자에서 취하여 권 처사에게 준다

西亭子 醉贈權處士

우연히 일이 없어 서쪽 누각에 올랐다가	偶因無事上西樓
머물러 청암처사와 놀았도다	留與靑巖處士遊
긴 피리 한 가락에 취하여 쓰러졌으니	長笛一聲仍醉倒
밝은 달빛이 방초 모래섬에 가득한 것도 몰랐네	不知明月滿芳洲

전가족사 2수

田家卽事 二首

줄 넝쿨 울타리 엮고 박은 지붕에 매달렸는데	菘蔓纏籬匏繫屋
닭은 뽕나무에서 울고 송아지는 밭에서 잠자네	鷄鳴桑樹犢眠田
마을에 해 기울자 나그네 끊어졌고	日斜墟里斷行旅
동자가 나무해서 돌아올 때 저녁연기 일어나네	童子樵歸生暮煙

늙은 농부 나이 칠십에 아직도 일해서 먹고 사니	田翁七十猶食力
날마다 들녘 밭에 있을 뿐 어찌 집에 있으랴	日在野田那在家
주인 할미는 병들고 예쁜 딸은 사람을 부끄러워해	嬌女羞人主嫗病
가을바람에 혼자 목화 꽃을 줍네	秋風自拾木綿花

이 내한⁵⁰이 준 시에 차운하다

次李內翰贈韻

향안 앞에서 붓 잡기를 ⁵¹ 재촉하리니	香案前頭催秉筆
빠른 말을 끌고서 먼 지방에 머무를 수 있으랴	可將飛騎滯天涯
임금 곁으로 만일 소식을 전할 수 있다면	日邊倘得傳消息
태양을 향하려는 푸른 해바라기가 있다고 ⁵² 알려주시게	報道傾心有綠葵

-
- 50 내한(內翰) : 내한은 한림학사(翰林學士)의 별칭으로, 조선조에서는 예문관 검열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
- 51 향안(香案)…잡기를 : 임금을 모시는 시종신(侍從臣)이 되는 것을 가리킨다. 한(漢)나라 때 임금 가까이에서 시종하는 신하는 항상 기록할 일에 대비하여 관(冠) 옆에 붓을 꽂고 다녔으며, 대궐 안의 향로나 촛대를 놓아두는 탁자인 향안(香案) 옆에 자리한 데서 유래하였다.
- 52 태양을…있다고 : 임금을 향모하는 신하의 충심을 해바라기가 태양을 향하는 것에 빗댄 것이다. 《삼국지(三國志)》 권19 〈위지(魏志) 진사왕조식전(陳思王曹植傳)〉에 “해바라기 잎은 태양을 향하니, 태양이 비록 그쪽으로 방향을 돌려 비취 주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태양을 향하는 것이 해바라기의 정성이다. [若葵藿之傾葉，太陽雖不爲之回光，然向之者誠也.]”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해바라기는 현주 자신을 비유한다.

차운하여 오 종사⁵³ 숙에게 부치다

次寄吳從事 翻

온 산에 비바람 치고 벌레 우는 가을	滿山風雨候蟲秋
호성 ⁵⁴ 에서 홀로 누각에 기대어 있네	人向湖城獨倚樓
묵은 버들 시든 연꽃이 적막함을 더하니	古柳殘荷添寂寞
초승달이 깊은 수심을 비추는 걸 어찌 견디랴	更堪初月照深愁

53 오 종사(吳從事) : 오숙(吳翻, 1592~1634)이다. 본관은 해주(海州)이고, 호는 천파(天坡)이다. 광해군 때 조정의 난정(亂政)을 볼 수 없어 벼슬을 버리고 떠났다가 강홍립(姜弘立)이 후금군(後金軍)에 항복한 것을 알리는 부경 진주사(赴京陳奏使)의 서장관으로 북경에 다녀왔다. 인조반정 이후에 경상도 관찰사, 황해도 관찰사 등 내외의 많은 직을 역임하였으며, 명나라 사신 황손무(黃孫武)의 접반사로 가도(假島)에 갔다가 돌아오는 도중 송도(松都)에서 죽었다. 문장이 간결 명료하였고, 특히 기유시(紀遊詩)에 뛰어났다. 저서로는 《천파집》이 있다. 그는 현주의 제자이다.

54 호성(湖城) : 호서(湖西) 일대의 고을을 가리킨다.

제민루⁵⁵에서 김장원에게 주다

濟民樓 贈金壯元

가을바람 속 홀로 제민루에 기대어 있으니	秋風獨倚濟民樓
긴 강이 내달려 흐르는 걸 좋아하기 때문일세	爲愛長江袞袞流
구대 ⁵⁶ 에서 달빛을 맞이하고자 하노니	欲向龜臺邀月色
낚싯배를 옮겨가 댈 수 있을까	可能移泊釣魚舟

55 제민루(濟民樓) : 경북 영천군(榮川郡) 구산(龜山) 남쪽에 있던 누각으로 1433년(세종15)에 군수 반저(潘渚)가 세운 것이다.

56 구대(龜臺) : 경상북도 영주(永州)에 있던 구학정 근처의 서구대(西龜臺), 동구대(東龜臺)를 가리킨다. 개천을 사이에 두고 양안에 자리 잡은 두 반석(盤石)으로 수십 명이 앉을 수 있다고 한다. 현주가 지은 <구학정관등가(龜鶴亭觀燈歌)>에서도 “한 거북이는 힘차게 정자를 안아 솟았고, 한 거북이는 엎드려 웅크린 채 정자를 향해 읊하네. 거북이가 두 바위를 이루어 우뚝우뚝 높이 솟아 한 줄기 개천을 사이에 두고는, 마치 서로 화답하듯 동서로 마주 보고 일어났네.[龜屨聳抱亭立, 一龜蹠踞向亭揖. 龜成兩巖兮嶺峯高撐隔一川, 東西對起如相答.]”라고 하였다.

성산 한 별좌⁵⁷의 시골집 정사년(1617, 광해군9)

城山韓別坐野莊 丁巳

대나무 심고 꽃 옮겨 심느라 또한 한가롭지 않지만 種竹移花亦不閑
취하여 잠들면 그래도 세속을 피할 수 있다네 醉眠猶足避塵寰
외마디 소리 내는 산새 도리어 일이 많아 一聲山鳥還多事
때때로 물가 난간의 은자를 부르네 時喚幽人水檻間

57 별좌(別坐) : 조선 시대 정·종5품 관직이다. 녹봉(祿俸)이 없던 벼슬이지만, 360일을 근무하면 다른 관직으로 옮길 수 있었다. 특히 내수사의 전수(典需)·별좌는 궁중과 가까운 내관(內官)이 겸임하여, 품급(品級)에 비하여 상당한 세도를 부렸다.

호서 방백 이입지⁵⁸ 춘원의 시에 차운하다 유사군록

次湖西方伯李立之韻 春元 遊四郡錄

붉은 벼랑 푸른 절벽이 들쭉날쭉 울창하니 丹崖翠壁鬱參差
눈 닿는 곳마다 바야흐로 조물주의 기이한 솜씨를 알겠네

觸眼方知造物奇

명승지에서 만났으면 실컷 술을 마셔야 할 뿐 勝地相逢須痛飲
가을 달이 강에 더디 올라오를 걱정하지 말라 莫愁秋月上江遲

58 이입지(李立之) : 이춘원(李春元, 1571~1634)으로, 입지는 그의 자이다. 본관은 함평(咸平), 초명(初名)은 신원, 호는 구원(九畹)이다. 박순(朴淳)의 문인으로, 1596년(선조29) 문과에 합격하였다. 정유재란 당시 분조(分曹)의 주서로서 수안(遂安)으로 내전(內殿)을 호종하였으며, 이후 장흥 부사(長興府使)·강원도 관찰사·우승지를 역임하다가 1610년(광해군2)에 모친상을 당하였다. 1618년에 서궁(西宮) 존호에 관한 일로 삭탈관작 당하였으며, 1620년에는 성절사(聖節使)로 북경에 다녀왔다. 문집인 《구원집》이 전한다.

봉서정⁵⁹

鳳棲亭

흰 구름 붉은 나무 보이는 어지러운 가을 산 白雲紅樹亂山秋

관악기의 급한 절주 현악기의 슬픈 소리 들리는 물가의 누각

急管哀絲水上樓

이 모두가 내일 아침에 각자 별뿔이 흩어지기 때문이니 摠爲明朝各星散

눈물 맺힌 쇠잔한 촛불도 이별 시름 대신하네 淚凝殘燭替離愁

59 봉서정(鳳棲亭) : 단양 객사 앞의 남천(南川) 변, 이요루(二樂樓) 남쪽에 있던 정자이다. 단양 군수 이준(李峻)이 선조 35년(1602)에 창건하였는데 온돌방이 있어 숙박할 수 있는 곳이다. 퇴락한 것을 군수 조정세(趙靖世)가 1760년대에 새로 지었고, 그 후 1850년대에 중수하였다. 단양 관아의 대표적 누정(樓亭)이었으나 이후 유실되었다.

문경현에서 수재 권상정에게 주다

聞慶縣 贈權秀才尙正

죽령에서 죄를 얻어 허겁지겁하던 날 竹峯負罪蒼黃日
토잔⁶⁰에서 은덕을 생각하며 두려워하던 날⁶¹ 兔棧懷恩怵惕辰
근심과 기쁨을 세상에서 누가 함께 하리오 憂喜世間誰可共
멀리서 와서 거듭 방문해준 이 사람이 있다네 遠來重訪有斯人
영천에서 체포되었는데, 이때 권상정이 멀리 죽령에서 전송하였다.
잠시 있다가 또 토포사의 명을 받아서 조령으로부터 돌아오게 되었
는데 이때 권상정이 또 조령에서 전송하였다. 그러므로 말한 것이
다.

60 토잔(兔棧) : 《승정원일기》 고종 29년 조를 보면 문경의 현아(懸衙)가 조령(鳥嶺)과 토잔(兔棧)에 의지하고 있다는 기록이 나온다. 이로 보아 토잔은 문경현에 있는 험준한 지역으로 짐작된다.

61 죽령에서...두려워하던 날 : 조찬한이 1617년(광해군9) 상주 목사로 있을 때 백마적 탈옥 사건으로 인해 파직되고 의금부로 잡혀와 국문을 받았던 일과 용서를 받고 토포사가 되어 다시 영천군(榮川郡)으로 내려온 일을 말한 것이다. 당시 백마적 사건은 다음과 같다. 1617년 10월 경상좌도 지역에 백마적이 횡행하였는데 영천군에서 그 우두머리 이경기를 체포하였다. 그러나 그 무리들이 옥문을 부수고 이경기를 탈취하였다. 당시 영천 군수였던 조찬한은 이 때문에 파직되고 의금부로 잡혀와 국문을 받게 된다. 이후 조찬한은 용서를 받고 같은 해 11월, 경상 공홍 토포관(慶尙公洪討捕官)으로 도적의 토포 업무를 맡다가 다시 삼도 토포사(三道討捕使)가 되었다. 관할 구역을 왕래하며 순찰하던 조찬한은 직산(稷山)에서 이경기를 체포하여 통정대부(通政大夫)로 가자(加資)되었다.

이입지⁶²를 남겨두고 떠나며

留別李立之

북풍은 칼과 같고 눈은 쟁반만 한데	朔颿如劍雪如盤
서원 ⁶³ 으로 향하고자 하나 도로가 험난하네	欲向西原道路難
세류영 ⁶⁴ 은 한가하고 봄 술은 따뜻하니	細柳營閑春酒暖
창밖의 엄한 추위를 알지 못하네	不知窓外折膠寒

62 이입지(李立之) : 이춘원(李春元, 1571~1634)이다. 본관은 함평(咸平), 초명(初名)은 신원(信元), 자는 입지(立之)·원길(元吉), 호는 구원(九畹)이다. 박순(朴淳)의 문인으로 1596년(선조29) 문과에 합격하였다. 정유재란 당시 분조(分曹)의 주서로서 수안(遂安)으로 내전(內殿)을 호종하였으며, 이후 전라도 장흥 부사(長興府使)·강원도 관찰사·우승지를 역임하다가 1610년(광해군2)에 모친상을 당하였다. 1618년에 서궁(西宮) 존호에 관한 일로 삭탈관작 당하였으며, 1620년에는 성절사(聖節使)로 북경에 다녀왔다. 문집인 《구원집》이 전한다.

63 서원(西原) : 지금의 청주(淸州)이다.

64 세류영(細柳營) : 세류영(細柳營)은 한(漢)나라의 장군 주아부(周亞夫)의 군영이다. 문제(文帝)가 시찰을 왔을 때에도 군사들이 장군의 명령만 따르면서 황제를 제지한 고사로 유명한데, 이후 군기가 엄한 진영이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었다. 《史記 卷57 絳侯周勃世家》

백마강 무오년(1618, 광해군10)

白馬江 戊午

또 칠언율시가 있다.

백마강 깊고 봄은 적적한데	白馬江深春寂寂
자온대 ⁶⁵ 는 오래되고 나무는 푸르네	自溫臺古樹蒼蒼
가없어라 인간 세상에 누군들 이별이 없으리오만	可憐人世誰無別
오늘 외로운 배에서 눈물 옷에 가득하다네	今日孤舟淚滿裳

의사는 당시에 비단옷을 다 입었으니 ⁶⁶	義士當時盡錦衣
오래된 바위에서 누가 낙화의 슬픔을 알겠는가	古巖誰識落花悲
가없어라 천년 가무의 땅	可憐歌舞千年地
오직 고깃배만 비를 맞으며 돌아가고 있구나	唯有漁舟帶雨歸

65 자온대(自溫臺)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규암리(窺岩里)에 있는 바위이다. 《삼국유사》 〈남부여(南夫餘)〉에 의하면, 이 바위는 10여 명이 앉을 수 있는 규모인데 백제의 왕이 왕흥사(王興寺)에 예불을 드리러 갈 때 먼저 이 돌에 올라 부처에게 예배를 하거나 쉬어갔다고 한다. 임금이 도착하면 바위가 저절로 따뜻해졌다고 하여 ‘자온대’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66 비단옷을 다 입었으니[盡錦衣] : 당(唐)나라 이백(李白) 〈월중감고(越中覽古)〉 시에 “월왕 구천이 오나라를 격파하고 돌아와, 의사들 집으로 돌아가 비단옷을 다 입었네[越王句踐破吳歸, 義士還家盡錦衣.]”라고 하였다. 이 시에서는 나당 연합군이 백제를 격파하고 금의환향했다는 의미이다.

세포에서 봄에 배를 띄우다

稅浦泛春

꽃은 긴 모래섬에 가득하고 버드나무는 성에 가득 花滿長洲柳滿城
돌아가는 돛단배는 아득하고 저녁 구름은 평평하네 歸帆漠漠暮雲平
만 리의 봄바람은 흰 갈매기 너머로 부니 春風萬里白鷗外
저물녘에 외로운 배에서 정이 어찌 끝이 있으랴 落日孤舟何限情

만성재⁶⁷에 쓰다

題晚省齋

부여에 있을 때 적었다.

몸은 늙고 시절이 위태로우니 속세 생각은 적어지고 身老時危塵慮微
밤이 오자 꿈속의 혼은 강가의 집에 이르렀네 夜來魂夢到江扉
자온대⁶⁸ 아래에 봄풀이 많으니 自溫臺下多春草
안개 낀 물결 어느 곳이 옛 낚시터던가 何處煙波舊釣磯

잠 깬 띠풀 집 처마에는 강가의 비가 걷혔는데 睡起茅簷江雨收
봄빛이 방주에 가득한 걸 알지 못했네 不知春色滿芳洲
모래사장의 갈매기 흩어진 뒤에 사람 오지 않으니 沙鷗散後無人到
백제의 흥망성쇠를 낚시배에게 물어보네 百濟興亡問釣舟

67 만성재(晚省齋) : 조찬한의 집안 조카 조전(趙僊)의 집이다. 만성재는 조찬한이 당호로 지어준 것으로 《현주집》 권15에 〈만성재서(晚省齋序)〉가 실려 있다.

68 자온대(自溫臺)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규암리(窺岩里)에 있는 바위이다. 자세한 내용은 3쪽 주 6) 참조

전의를 출발하여 정선 군수 정공의 별장으로 향하다
가 말 위에서 읊조리다

發全義 向鄭旌善野莊 馬上口占

곳곳마다 번성한 꽃과 향기로운 풀들이 많고	處處繁花芳草多
버들은 푸른 덮개 같고 물은 비단과 같네	柳如青蓋水如羅
두견새는 모름지기 지저귀며 나를 놀리지 말라	杜宇莫須啼弄我
이 봄에 그래도 꿈속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	一春猶得夢還家

관한 흥이 일어 이사양에게 주다

漫興 贈李士仰

작은 언덕에 네모난 뜰은 티끌을 받지 않았으니	小塢方庭不受埃
매화 다 떨어지자 벽도 꽃이 피었다네	梅花落盡碧桃開
사계절 여러 꽃들 번갈아 피고 지니	四時群卉遞榮悴
봄이 가자 곧바로 다시 또 오는 것을 보네	春去卽看還又來

좁은 띠풀 집 낮은 울타리	窄窄茅堂短短籬
비처럼 떨어지는 꽃잎 하늘에 가득할 때	落花如雨滿天時
저물녘 화로에 차 달이는 것 외에 다른 일 없으니	茶爐日晏無餘事
그윽한 새 작은 못에서 목욕하는 걸 한가로이 보네	閒看幽禽浴小池

고향 생각

憶鄉

성 서쪽 무너진 집엔 성긴 울타리 기울어졌고 城西破屋倚疏籬
정원의 풀과 꽃들에 봄비 내릴 때 園草庭花春雨時
천 리 먼 곳의 나그네는 돌아가지 못하노니 千里客遊歸未得
옛 둥지로 제비 오르락내리락할 때면 응당 부러워하리라 故巢應羨燕差池

광주 목사 홍낙부⁶⁹ 명원 에게 주다

贈光州牧洪樂夫 命元

종전의 인간사 지극히 다단했으니	向來人事極多端
나그네의 젖은 소매는 눈물 마르지 않았네 ⁷⁰	客袖龍鍾淚未乾
오직 푸르고 푸른 무등산 산빛만 있어	唯有蒼蒼無等色
바라보니 오히려 옛 산 ⁷¹ 을 기억하네	望中猶記舊螺鬢

맑은 봄날 정절 ⁷² 이 구름 끝에서 내려오니	春晴旌節下雲端
긴급한 격문 바람처럼 날아오니 먹은 마르지 않았다네	

69 홍낙부(洪樂夫) : 홍명원(洪命元, 1573~1623)으로, 본관은 남양이고 호는 해봉(海峯), 자는 낙부(樂夫)이다. 인조 때 경기도 관찰사를 지냈다. 저서로 《해봉집(海峯集)》이 있다. <해봉집 해제>에 의하면 홍명원은 1615년 9월, 외직을 구하여 광주 목사(光州牧使)로 나갔다가 1618년 임기를 마치고 안산(安山) 해곡(海谷)으로 돌아와 우거(寓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 시는 홍명원이 광주 목사로 있을 때인 1615년에서 1618년 사이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70 눈물 마르지 않았네 : 원문은 ‘말(末)’인데 국립중앙도서관 석판본 《현주집》에 의거하여 ‘미(未)’ 자의 오자이므로 ‘미(未)’로 수정하여 번역하였다.

71 산[螺鬢] : 원문의 ‘나환(螺鬢)’은 산 모양을 이르는 말이다. 또 부처의 머리카락이 소라처럼 되었으므로 불두(佛頭)를 나환이라고도 한다.

72 정절(旌節) : 정절은 원래 당(唐)나라 때 천자가 절도사(節度使)에게 지방행정의 전권을 부여하는 뜻으로 주는 두 종류의 깃발로서, 왕의 명을 받고 나온 사자를 의미한다. 이 시는 홍명원이 조찬한의 시에 차운한 것이므로 이 구의 정절은 조찬한이 1617년 삼도토포사(三道討捕使)가 되어 탈옥한 백마적(白馬賊)을 잡으러 광주로 오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라 짐작된다.

走檄風飛墨未乾
 저물녘에 파리한 참마는 다시 홀로 떠나가니 落日羸驂還獨去
 좋은 술로 어느 곳에서 예쁜 쪽머리 미인을 대할까 芳尊何處對娥鬢
 차운시를 덧붙인다.⁷³

73 차운시를 덧붙인다[附次韻] : 홍명원의 차운시는 〈차조현부운(次趙玄夫韻)〉이라는 제목으로 《해봉집(海峯集)》 권2에 실려 있다. 시의 내용으로 보아 조찬한이 1617년(광해군9) 백마적 사건으로 영천 군수에서 파직된 후 곧이어 삼도토포사(三道討捕使)가 되어 광주 진영을 들렸을 때 홍명원이 조찬한의 시에 차운한 것으로 추측된다.

김 첨지⁷⁴의 강가 누각에서 밤에 술 마시며 자점⁷⁵ 양
경우 과 함께 창화하다

金僉知江閣夜飲 與子漸唱和 梁慶遇

달빛은 찬 강물을 비추며 허공에 기뒸고
사람은 높은 누대에 있으니 그림과 같네
한 나무에 매화꽃 피고 봄은 적적한데
밤 깊어지자 오직 물새 울음소리만 있네

月籠寒水倚虛無
人在危樓似畫圖
一樹梅花春寂寂
夜深唯有渚禽呼

74 첨지(僉知) :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로, 정삼품 벼슬이다.

75 자점(子漸) : 양경우(梁慶遇, 1568~?)의 자이다. 본관은 남원(南原)이고, 호는 제호(霽湖)·점역재(點易齋)·요정(蓼汀)·태암(泰巖)이다. 저서로는 《제호집(霽湖集)》이 있다.

완산에 있으면서 장성으로 부치다

在完山寄長城

이날 겨우 만마동⁷⁶으로부터 전주에 이르렀다.

겨울 동안 멀리 있는 세 군영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經冬歷遍三營遠
고생스럽게 다시 만마동에서 길을 나섰네 辛苦還從萬馬征
남쪽 포구의 돌아가는 기러기 이미 시야에서 사라지고 南浦歸鴻看已盡
옛 장성에는 봄 구름만 몽게몽게 春雲漠漠古長城

76 만마동(萬馬洞) : 현재 전북 완주군 남관으로 남원에서 전주로 들어가는 길목이다. 만마관(萬馬關)이라고도 한다.

욕천⁷⁷ 공관에서

浴川公館

두류산을 유람하고 쓰다.

매실은 탄환 같고 매화잎은 많은데	梅子如丸梅葉多
관가는 한카하기가 야인의 집과 같네	官家閒似野人家
새끼 참새 교만히 떠들고 나비는 스치며 지나가고	乳雀驕喧捎過蝶
날이 갠 반 뜰에는 오동나무 꽃이 떨어진다	半庭晴日落桐花

77 욕천(浴川) : 곡성현(谷城縣)의 별호이다.

정랑 최유장⁷⁸의 은거지에서 쓰다

題崔正郎孺長幽居

길쭉한 대나무 성긴 소나무 맑은 물가 옆에 있고 脩竹疏松傍水清
일생 동안 시와 술로 한가한 정을 다스리네 一生詩酒管閑情
어여쁘다 바위 위에서 낚시하는 꿈은 可憐巖上携竿夢
늘 까닭 없이 도성에 이른다네 時復無端到禁城

78 최유장(崔孺長) : 최연(崔衍, 1576~1651)으로 본관은 삭녕(朔寧)이고 자(字)는 유장(孺長), 호는 성만(星灣)·성연(星淵)이다. 광해군 때 예조 좌랑이 되었으나 이이첨(李爾瞻) 등의 모의에 반대하여 대북파에 의해 파직당한 뒤 고향에 돌아가 12년 동안 은거하였다. 인조반정 후 장령에 임명되고 응교, 집의, 사간 등을 지냈으며, 병자호란 때 좌승지로서 왕을 호종하여 남한산성에 들어갔다. 이듬해 돌아와서 예조 참의, 한성부 좌윤이 되었다가 명리(名利)에 뜻이 없어 사직하고 낙향하였다.

변 막부에게 주다 경신년(1620, 광해군12)

贈邊幕府 庚申

기질을 자부하고 재주 품어도 사람들 알아주지 않으니

負氣懷才人不知

강호에서 일없이 점점 늙어가네

江湖無事老垂垂

지금 돌아가 기린각에서 그림을 그려낸다면

今歸畫出麒麟閣

비로소 알리라 풍신이 이처럼 기이하다는 것을

始識風神如許奇

유선사

遊仙詞

채색 운무가 가벼이 차가운 옥수를 에워쌌고 綵靄輕籠玉樹寒
푸른 산봉우리의 밝은 달은 요단⁷⁹을 비추네 碧峯華月照瑤壇
신선 동자⁸⁰ 봉황을 꾸짖고 구름을 되돌려 아득히 가니 靑童叱鳳班雲迺
여러 상제⁸¹들 넓은 자부⁸²에서 서로 맞이하네 群帝相邀紫府寬

반도⁸³나무에 꽃이 피니 화려한 난새가 울고 蟠桃花發彩鸞啼
붉은 용을 채찍질해 가서 옥계의 물을 마시네 鞭出紅龍飲玉溪
이번에 삼만 리의 부상으로 떠나가면 此去扶桑三萬里

-
- 79 요단(瑤壇) : 아름다운 옥을 깎아서 만든 누대로, 신선들이 사는 곳을 가리킨다.
- 80 신선 동자(靑童) : 원문의 청동(靑童)은 푸른 옷을 입은 동자로 신선을 모시는 동자이다.
- 81 여러 상제(群帝) : 원문의 군제(群帝)는 도가에서 말하는 동, 서, 남, 북, 중앙의 각 제(帝)들을 가리킨다. 두보(杜甫)의 <옥대관(玉臺觀)> 시에 “궁궐은 상제들과 통하고 건곤은 십주에 이르렀네.[宮闕通群帝, 乾坤到十洲.]”라고 하였는데, 구조오(仇兆鰲)가 주석에서 “도서(道書)에, ‘하늘에 상제들이 있는데 대제(大帝)가 가장 높고 군제(群帝)는 동, 서, 남, 북, 중앙의 제라고 하였다[道書, 天有羣帝而大帝最尊, 羣帝五方之帝也.]’”라고 기록하고 있다.
- 82 자부(紫府) : 도교에서 신선이 산다고 전해지는 천상(天上)의 선부(仙府)이다.
- 83 반도(蟠桃) : 3천 년에 한 번 꽃이 피어 열매를 맺는다는 선도(仙桃)이다.

해 바퀴를 들어서 등림 ⁸⁴ 서쪽으로 옮기리라	日輪擎轉橙林西
밝은 영지꽃 ⁸⁵ 오색 빛깔의 사자 ⁸⁶	三秀花明五色獅
채색 구름 떠 있는 남쪽 가가 바로 요지 ⁸⁷ 라네	彩雲南畔是瑤池
한 잔 술로 희씨 남자 ⁸⁸ 와 취하기를 구하는데	一杯要與姬郎醉
청조 ⁸⁹ 는 팔준마 ⁹⁰ 가 늦는 것을 지레 근심하네	青鳥徑愁八馬遲

-
- 84 등림(鄧林) : 원문의 ‘등(橙)’은 등(鄧)의 오자로 보인다. 등림은 신선 이 산다는 전설상의 숲이다. 옛날에 과보(夸父)가 해를 쫓아 달리다가 목이 말라 하수(河水)와 위수(渭水)를 마셨는데도 부족하여 대택(大澤)의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도중에 목이 말라서 죽어버렸다. 그때 버려진 과보의 지팡이가 변하여 등림이 되었다고 한다. 《山海經 海外北經》
- 85 영지꽃[三秀花] : 영지(靈芝)의 꽃을 말한다. 영지는 일 년에 세 번 꽃을 피우기 때문에 삼수화라고 한다.
- 86 오색 빛깔의 사자[五色獅子] : 《호회(虎薈)》에, “오색사자는 누런 털에 오색이 찬란하고, 꼴은 사자와 같다.”라고 하였다.
- 87 요지(瑤池) : 요지(瑤池)는 고대 전설상 곤륜산(崑崙山) 위에 있는 연못의 이름으로 서왕모가 거처하는 곳이다. 주 목왕(周穆王)이 정사는 돌보지 않은 채 팔준마(八駿馬)가 모는 수레를 타고 천하를 두루 유람하다가 곤륜산 꼭대기의 요지에 이르러 서왕모의 환대를 받고 연회를 가졌다고 한다. 《列子 周穆王》
- 88 희씨 남자: 원문의 희랑(姬郎)은 뒤 구절의 팔준마 고사와 관련해 볼 때 주(周)나라가 희성(姬姓)이므로 주나라 목왕(穆王)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 89 청조(青鳥) : 선녀(仙女) 서왕모(西王母)의 사자(使者)를 말한다. “한 무제가 7월 7일 승화전에 있을 때 청조(青鳥) 한 마리가 서쪽에서 날아와 전각 앞에 이르기엔 그 이유를 동방삭(東方朔)에게 물었더니 동방삭이 ‘이것은 서왕모가 오려는 징조입니다.’라고 하였다. 한참 만에 과연 서왕모가 오색 반룡(五色斑龍)이 끄는 부연 구름의 연(輦)을 타고 전각으로 왔다”라고 한다. 《漢武內傳》
- 90 팔준마(八駿馬) : 주(周)나라 목왕(穆王)이 젊어서 신선술을 좋아하여 천하의 신선을 찾아다닐 때 타고 다녔던 여덟 마리의 준마이다. 적기(赤驥)는 붉은빛, 도리(盜驪)는 검은빛, 백의(白義)는 흰빛, 유륜(踰輪)은 표범 무늬, 산자(山子)는 담비 가죽의 빛, 거황(渠黃)은 누른빛,

옥해와 경전에는 새벽달이 밝고	玉海瓊田霞月曙
생황 소리 피리 소리 ⁹¹ 가운데 비취 깃발 아득하네	鳳笙龍管翠蕤遙
안개 너머 청우자 ⁹² 에게 말을 하노니	隔煙說與青牛子
새해 아침에 하늘에 오르는 것 뒤쳐지지 말라	莫後元朝上紫霄

화류(華騶)는 붉은 대춧빛, 녹이(綠耳)는 푸른빛이 나는 말이라고 한다. 《穆天子傳》

- 91 생황…소리 : 원문의 봉笙(鳳笙)과 용관(龍管)은 각각 생황과 피리이다. 이백(李白)의 <양양가(襄陽歌)> 시에 “수레 곁에 한 병의 술 삐딱하게 걸어 놓고, 생황과 피리를 연주하며 서로들 길을 재촉하네.[車傍側掛一壺酒, 鳳笙龍管行相催.]”라는 말이 나온다. 《李太白集 卷6》
- 92 청우자(靑牛子) : 청우는 신선이나 도사들이 타고 다닌다는 소를 가리킨다. 노자(老子)가 주(周)나라가 장차 쇠해지려는 것을 보고 서쪽으로 떠나가다가 함곡관(函谷關)을 지나게 되었다. 이때 함곡관의 관령(關令)으로 있던 윤희(尹喜)가 관문 위에 자기(紫氣)가 떠 있는 것을 보고 현인이 올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는데, 얼마 뒤에 노자가 청우를 타고 왔다고 한다. 당나라 조당(曹唐)의 <소유선시구십팔수(小遊仙詩九十八首)> 시에 “청우가 땅에 누워 경초를 먹으니, 선생이 조회에서 돌아오지 않았음을 알겠네.[靑牛臥地喫瓊草, 知道先生朝未回.]”라고 하였다. 《全唐詩 卷641》

궁중사시사

宮中四時詞

해마다 봄빛은 또한 이궁⁹³에도 찾아오니 年年春色亦離宮
반드시 소양전⁹⁴에만 특별히 무르녹는 곳이 아니라네 未必昭陽特地融
무슨 일로 달은 밝고 꽃은 적적한데 何事月明花寂寂
궁녀는 눈물 흘리며 향로에 기대어 섰나 淚流紅袖倚熏籠

느릅나무 잎은 우거지고 연잎은 살졌는데 榆葉陰陰荷葉肥
수정 발 너머에는 장미가 떨어지네 水晶簾外落薔薇
피꼬리는 군왕의 심정을 아는 듯 黃鶯似識君王意
구불구불한 창자 끊지 않고는 끝내 날아가지 않는구나 不斷柔腸終不飛

가을 반딧불 발을 비추니 오직 외로운 그림자뿐 寒螢照箔唯孤影
외기러기 하늘을 가로지르니 단지 한 줄기 울음소리뿐 斷雁橫空只一聲
이 밤 새벽이 되기도 전에 근심으로 이미 늙었으니 此夜未晨愁已老
또 다른 밤을 만난다면 능히 살 수 있을까 更逢他夕可能生

원앙전⁹⁵의 고드름은 길이가 몇 층인가 鴛鴦懸乳幾層長

93 이궁(離宮) : 정궁(淨宮)이 아닌 왕이 거동할 때 거처하던 궁을 말한다. 여기서의 궁녀가 있는 처소를 말한다.

94 소양전(昭陽殿) : 한나라 궁전 이름인데 후비(后妃)가 거주하는 궁전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95 원앙전(鴛鴦殿) : 한(漢)나라 무제(武帝) 때의 궁전 이름이다. 《삼보황도(三輔黃圖·미양궁(未央宮))》에 “무제 때 후궁이 여덟 구역이었는데 소양(昭陽), 비상(飛翔), 증성(增成), 합환(合歡), 난림(蘭林), 파향(坡

소합⁹⁶의 가벼운 연기 그윽한 방을 들렀네
밤바다는 아득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니
이 생애에서는 군왕을 볼 꿈도 못꾸네

蘇合輕煙繞洞房
夜海遙遙眠不得
此生無夢見君王

香), 봉황(鳳皇), 원앙(鴛鴦) 등의 궁전이다”라고 하였다.

- 96 소합(蘇合) : 소합향(蘇合香)이다. 《태평어람(太平御覽)》 권982에 “소합은 대진(大秦)이나 소합국(蘇合國)에서 나오는데, 사람들이 채취하여 그 즙을 길러 내어 향고(香膏)를 만든다. 혹은 여러 가지 향초(香草)를 합하여 달여서 소합을 만드니, 자연적으로 생긴 한 가지 종류가 아니다.”라고 하였다.

또
又

황금으로 상여의 부를 잘못 사서 黃金錯買相如賦
장문궁의 이와 같은 원통함을 다 풀지 못하네⁹⁷ 未盡長門如許冤
용면⁹⁸의 숨씨를 빌려 그림 그릴 만한 곳은 欲倩龍眠堪畫處
꽃 떨어지는 깊은 집에 황혼 녘 달이 뜬 것이라네 落花深院月黃昏

은장식 침상에 원망하여 누웠으니 잠들기 어렵고 怨臥銀床着睡難
오후의 그늘은 비스듬히 굽은 난간을 돌아가네 午陰斜轉曲闌干
짜증 나네 계집종은 아무 생각 없이 生憎侍婢無他念
앵두를 따다가 옥쟁반에 바치네 摘取櫻桃進玉盤

바람결에 신선의 음악 소리 아득하게 기억나니 風頭仙樂記微茫
구름 속의 가을 등불은 상양궁⁹⁹임을 알겠구나 雲際秋燈識上陽

97 황금으로…못하네 : 진 황후(陳皇后)가 유폐된 뒤에 성도인(成都人) 사마상여(司馬相如)가 문장을 잘 짓는다는 말을 듣고는 100근(斤)의 황금을 보내어 글을 요청하자 사마상여가 <장문부(長門賦)>를 지어 주었는데, 한 무제가 그 글을 읽고 나서 진 황후를 다시금 총애했다고 한다. 《文選 卷8 長門賦 序文》

98 용면(龍眠) : 송(宋)나라의 유명한 화가인 이공린(李公麟, 1049~1106)이다. 이공린의 자는 백시(伯時), 호는 용면거사(龍眠居士)로 시와 그림에 능했는데, 특히 산수(山水)와 불상(佛像)을 잘 그렸다고 한다.

99 상양궁(上陽宮) : 당 고종(唐高宗)이 세운 궁전 이름인데, 현종(玄宗) 때에 와서는 양귀비(楊貴妃)가 현종의 총애를 독점하면서 궁녀 중에 미인들을 모두 이 상양궁으로 옮겨 방치했다고 한다.

응당 내일 아침이면 원망함이 없으리니 應到明朝無怨恨
오늘 밤 다 끊어져서 다시 창자가 없기 때문이네 今宵斷盡更無腸

밤눈이 질편하게 내려 기와 이음새가 사라지니 夜雪漫漫失瓦縫
물결이 얼어 잣대는 꺾끄러우니 동룡¹⁰⁰이 우네 水波箭澁咽銅龍
지금 누가 군왕의 침소를 띄시는가 卽今誰薦君王寢
엄한 추위가 옥 같은 얼굴 핼박할까 근심하네 愁却寒威逼玉容

100 동룡(銅龍) : 용이 새겨져 있는 궁중의 물시계이다.

동악¹⁰¹에게 주다

贈東岳

선성에서의 창주의 흥취¹⁰²와 이미 같았고 宣城已叶滄洲趣
구루산¹⁰³에서의 큰 연단법을 그대로 이루었네 句漏仍成大藥方
무슨 일로 풍진 속에서 자주 꿈을 꾸는가 何事風塵頻作夢
새벽달이 빈 들보 비추는 걸 부질없이 근심하네¹⁰⁴ 漫愁殘月照空樑
마니산¹⁰⁵너머 바다는 술잔과 같은데 摩尼山外海如杯

101 동악(東岳) : 이안눌(李安訥, 1571~1637)로, 본관은 덕수(德水), 자는 자민(子敏), 호는 동악(東岳), 시호는 문혜(文惠)이다. 1599년 정시 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고, 안동(安東) 부사를 거쳐 1623년 인조 반정 때 예조 참판이 되었으나 나가지 않았다. 청나라 사신이 사문(查問)하러 왔을 때 실언(失言)하여 북변으로 귀양 갔다. 1632년(인조10) 주청 부사(奏請副使)로 명나라에 가서 인조의 아버지인 정원군(定遠君)의 추존을 허락받아 원종(元宗)이라는 시호를 받아왔다. 1636년 병자호란 때 왕을 남한산성에 호종하였다. 청백리에 녹선(錄選)되고 좌찬성에 추증되었다. 문집에 《동악집》이 있다.

102 선성(宣城)에서의 창주(滄洲)의 흥취 : 남조 제(南朝齊)의 시인인 사조(謝朓)가 선성 태수(宣城太守)로 나가서 창주의 흥취를 마음껏 누렸던 고사를 원용한 것이다. 창주의 흥취는 물가 지방의 수려한 경치를 감상하고 느끼는 흥취를 말한다. 여기서는 이안눌이 강화 부사로 있었던 때를 말하는 듯하다.

103 구루산(句漏) : 원문의 구루는 구루산(句漏山)으로 광둥성(廣東省)에 있는 산이다. 구루산에는 단사(丹砂)가 생산되는데 진(晉)나라 때 갈홍(葛洪)이 그곳에서 연단술(煉丹術)을 연마하였다고 한다.

104 새벽달이…근심하네 : 멀리 있는 벗을 그리워한다는 것으로 조찬한이 이안눌을 그리워한다는 말이다. 두보의 시 <이백을 꿈꾸다[夢李白]>에서 “지는 달이 집의 들보에 가득히 비추니, 그대의 안색 행여 보이는 듯하네.[落月滿屋梁, 猶疑見顏色.]”라고 하였다.

105 마니산(摩尼山) : 강화도에 있는 산이다. 마니산 꼭대기에는 참성단(

아득히 있는 시선은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네
밝은 달 아래 외로운 배 나는 띄우고자 하나
어느 곳이 봉래산인지 알지 못할레라

縹緲詩仙久不廻
明月孤舟吾欲放
不知何處是蓬萊

塹城壇)이 있는데 이곳은 단군(檀君)이 하늘에 제사를 드리던 곳이라
한다. 《新增東國輿地勝覽 卷12 京畿 江華都護府》

밤에 비바람이 크게 일기에 서울 집을 추억하다

夜來風雨大作 仍憶京第

밤에 비바람이 숲의 나뭇가지를 뒤흔드니	夜來風雨振林柯
나그네살이엔 뒤숭숭한 봄날의 시름 많도다	忽忽春愁客裏多
상상컨대, 고향엔 대문이 낮에도 닫혀 있고	想得故園門晝閉
복사꽃 ¹⁰⁶ 다 흩날려 뜰에 가득하겠지	滿庭飛盡小桃花

106 복사꽃 : 원문은 ‘小桃花’이다. ‘소도(小桃)’는 초봄에 즉시 꽃이 피는 복숭아나무의 한 종류이다.

심씨 집안 모정에 쓰다

題沈家茅亭

작은 정원에 새로 지은 초당 하나	小苑新開一草堂
교외의 봄날은 바야흐로 쓸쓸하다	郊圻春日政荒荒
사립문은 낮에도 닫혀 있어 오는 사람 없는데	柴門晝閉無人到
팔배나무 한 그루의 꽃이 한가로이 향기 뿜는구나	獨樹棠花自在香

취해서 송군수¹⁰⁷에게 주다

醉贈宋君受

어린 시절 교유가 40년 동안 이어졌는데	童稚交遊四十春
중간엔 풍진에 가로막혀 헤어졌지	中間星散阻風塵
연은문 ¹⁰⁸ 밖엔 향기로운 풀 많으니	延恩門外多芳草
손님 보내며 꽃을 보다가 몇 순배 술에 취했던가	送客看花醉幾巡

107 송군수(宋君受) : 군수는 송정조(宋廷祚, 1568~1631)의 호이다. 아버지는 현령 송응광(宋應光)이며, 어머니는 윤씨(尹氏)이다. 어려서부터 시 짓기를 좋아하였고 권필(權韜)과 친하였다. 광해군 때 복인 정권에서는 서울에 있기 싫다며 교하(交河)에 복거(卜居)하였다. 인조반정 후에 벼슬에 나갔는데, 정경세(鄭經世)가 하급관료 정도의 재목이 아님을 알고 적극 추천하여 사헌부감찰이 되었다. 반정 때 원종(原從)의 공이 있어 호조 참의에 추증되었다.

108 연은문(延恩門) : 모화관(慕華館)의 정문이다. 본래 영조문(迎詔門)이었다가 1539년(중종34) 중국 사신의 건의로 영은문(迎恩門)이라고 고쳤는데, 연은문이라고도 불렀다. 《燃藜室記述 別集 卷5 事大典故》

두 원수¹⁰⁹가 군대를 이끌고 투항했다는 소식을 길에
서 듣고는 비분강개하여 읊다

途聞兩元帥以其軍生降 憤慨而吟

문안사로 평산¹¹⁰에 갔다가 돌아올 때 길에서 짓다

오랑캐 군대가 승기를 타서 갑작스런 우렛소리처럼 빠르게 내달리니

虜兵乘勝疾雷奔

사막 속 두 장군¹¹¹의 녀을 근심하고 원통해하네 磧裏煩冤二將魂
작은 나라의 떠들썩한 위엄은 성대했던 한나라와 같아졌으니

小國威靈如盛漢

투항한 자로 이미 이 장군¹¹²이 있었지

生降還有李將軍

109 두 원수 : 강홍립(姜弘立)과 김경서(金景瑞)를 말한다. 1618년(광해군10) 후금(後金)의 침입에 명나라가 구원을 요청하자, 조선은 강홍립을 오도 도원수(五道都元帥)로, 김경서를 부원수로 삼아 군사 2만을 파견하였다. 이들은 이듬해인 1619년 명나라 제독 유정(劉綎)의 군대와 함께 적을 공격했으나 부차(富車)에서 대패하였고, 강홍립과 김경서는 청에 투항하였다. 《燃藜室記述 卷21 廢主光海君故事本末》

110 평산(平山) : 황해도 평산을 말한다. 평산 북쪽 30리 지점에 충수산(蔥秀山)이 있는데, 옛날에 서북(西北)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곳을 지나야 했으므로 많은 사람이 이곳에서 시를 남겼다. 충수산 근처의 충수관(蔥秀館)은 중국 사신이 머물던 곳이라고 한다.

111 두 장군 : 명나라의 두 장수 교일기(喬一琦)와 유정(劉綎)을 말한다.

112 이 장군 : 이릉(李陵)을 말한다. 그는 한 무제(漢武帝) 때 흉노(匈奴) 정벌을 위해 군사 5천을 이끌고 출전했다가 8만 기병(騎兵)에게 포위된 채 8일 밤낮을 싸웠다. 결국 화살과 식량이 떨어지자 선우(單于)에게 투항하여 그곳에서 살다 죽었다. 《漢書 卷54 李廣蘇建列傳》

명나라 두 장수 교일기(喬一琦)¹¹³와 유정(劉挺)¹¹⁴은 절개를 지키며 죽었는데, 강홍립(姜弘立)¹¹⁵과 김경서(金景瑞)¹¹⁶는 투항했다는 소식을 들었기에 말한 것이다.

- 113 교일기(喬一琦) : 1571~1619. 명나라 장수이자 서법가(書法家)이다. 자는 백규(伯圭)이고, 호는 원위(原魏)이다. 1619년(광해군11)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이 후금 군사와 부차에서 싸울 때 전사하였다. 청나라 건륭제가 충렬(忠烈)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행서와 초서의 운필(運筆)이 굳세고 힘찼다. 그의 글씨는 《교장군초서첩(喬將軍草書帖)》에 남아 있다.
- 114 유정(劉挺) : 1558~1619. 자 성오(省吾). 명나라의 장수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원병을 이끌고 와 참전하였다. 예교(曳橋)에서 왜군에게 패전하고, 왜군이 철명한 뒤에 귀국하였다. 1619년(광해군11)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이 후금 군사와 부차(富車)에서 싸울 때 전사하였다.
- 115 강홍립(姜弘立) : 1560~1627. 아버지는 참판 강신(姜紳)이고, 어머니는 정유의(鄭惟義)의 딸이다. 1605년(선조38) 도원수 한준겸(韓濬謙)의 종사관(從事官)이 되었고, 이해 진주사(陳奏使)의 서장관(書狀官)으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1618년(광해군10) 진녕군(晉寧君)에 봉해졌다. 이해 후금의 세력 확장에 명나라가 조선에 원병을 요청하자, 강홍립은 오도 도원수로서 부원수 김경서와 함께 군사를 이끌고 출병하였다. 1619년 명나라 제독 유정의 군대와 합류해 적과 싸웠는데 부차에서 대패하였다. 이때 강홍립은 조선군의 출병이 부득이 이루어졌다면 남은 군사를 이끌고 후금군에 투항했는데, 이는 출정 전 광해군의 밀명에 의한 것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역신으로 몰려 관직을 삭탈당했고, 죽은 뒤에야 복관될 수 있었다. 투항한 이듬해 다른 조선 포로들은 석방되어 돌아왔으나, 그는 계속 억류되었다가 1627년(인조5) 정묘호란 때 후금군의 선도(先導)로 입국해 강화(江華)에서 화의를 주선한 뒤 국내에 머물게 되었다.
- 116 김경서(金景瑞) : 1564~1624. 초명(初名)은 김응서(金應瑞)이고, 자는 성보(聖甫)이다. 일찍이 무과에 급제, 1588년(선조21) 감찰(監察)이 되었으나 집안이 미천하여 파직되었다가, 1592년 임진왜란 때 다시 기용되었다. 1618년(광해군10) 명나라의 원병 요청에 평안도 병마절도사로서 부원수가 되어 강홍립과 함께 출전하였다. 그러나 후금에게 대패하고 선천 군수 김응하(金應河), 운산 군수 이계종(李繼宗) 등이 전사하자 강홍립과 함께 투항하였다. 포로가 된 뒤 비밀리에 적정을 탐지한 기록을 고국에 보내려 하였으나, 강홍립의 고발로 탄로나 처형되었다. 우의정에 추증되었다. 시호는 양의(襄毅)이다.

반환¹¹⁷에게 서둘러 써서 주다

走贈盤桓

은대(銀臺)¹¹⁸에서 숙직하고 있는데 마침 홍천경이 하직 인사를 하는 일로 꺾에 들어왔다가 나를 보고 시를 구하기에 그 자리에 서 써서 주었다.

동쪽으로 흐르는 한강 언제쯤 서쪽으로 흐르려나 漢水東流幾日西
사람은 지금 나를 버리고 남쪽 물가로 향하네 人今棄我向南涯
홀로 깊은 뜰에 남아 누구에게 이야기할까 獨留深院爲誰語
꽃은 궁궐 정원에 지고 피꼬리는 어지러이 우누나 花落上林鸞亂啼

117 반환(盤桓) : 홍천경(洪千璟, 1553~1632)의 호이다. 자는 군옥(群玉). 아버지는 홍응복(洪應福)이다. 기대승(奇大升), 이이(李珣), 고경명(高敬命)의 문하에서 배웠다. 임진왜란 때 김천일(金千鎰) 밑에서 군량 모집 등의 임무를 담당하였고, 정유재란 때 권율(權慄) 밑에서 의병 모집 격문을 작성하였다. 1609년(광해군1) 증광문과에 갑과로 급제하여 전적, 나주 교수 등을 역임하였다. 나주 월정서원(月井書院)에 제향되었다.

118 은대(銀臺) : 승정원(承政院)을 달리 부르는 명칭이다.

중흥사¹¹⁹ 성민의 시축에 차운하여 짓다
中興寺 次性敏軸韻

한 부의 능엄경으로 삼각산 ¹²⁰ 에서	一部楞嚴三角山
솔잎 먹고 물 마시니 법신 ¹²¹ 이 편안하다	餐松飲水法身安
가을에 부귀해져 청한한 복 늘어나니	秋來富貴增淸福
천 그루 나무가 있는 서리 내린 숲이 수놓은 비단 같아짐을 본다네	千樹霜林錦繡看

119 중흥사(中興寺) : 삼각산(三角山)에 있는 절이다. 《星湖全集 卷53 遊三角山記》

120 삼각산(三角山) : 북한산의 옛 이름이다.

121 법신(法身) : 청정한 자성(自性)을 증명하여 일체의 공덕을 성취한 몸으로, 불신(佛身)이라고도 한다. 고승(高僧)의 몸을 말하기도 한다.

민옥의 시축에 차운하여 짓다

次敏玉軸韻

맑은 경쇠 소리 들려올 때 대나무 방의 문을 닫는데 淸磬傳時掩竹房
흰 구름은 무한하고 너른 하늘은 길다 白雲無限洞天長
밝은 달빛 아래 돌 누대에서 얇은 승복 김터니 石壇明月縫寒衲
천 그루 나무가 하룻밤 서리에 모두 붉어졌구나 千樹皆紅一夜霜

반구정¹²² 새벽에 읊다

伴鷗亭 曉吟

강가 누대에서 묵은 나그네는 아직 배를 돌리지 않았는데

江樓宿客未回舟

아스라이 먼 물가는 낙엽 지는 가을이구나

極浦微茫落木秋

무수한 기러기 깜짝 놀라 정처 없이 나니

無數驚鴻飛不定

새벽녘 비바람이 모래섬 가득히 몰아쳐서라

曉來風雨滿汀洲

122 반구정(伴鷗亭) : 안동(安東) 낙동강 가에 있는 반구옹(伴鷗翁) 이굉(李肱)의 정자이다. 그의 아버지는 안동에 임청각(臨淸閣)을 지은 이명(李溟)이다. 이굉의 아들 어은(漁隱) 이용(李容)은 환로(宦路)에 뜻이 없어 반구정에 돌아와 은거하였다. 송강(松岡) 조사수(趙士秀) 등 제현(諸賢)들의 시판이 걸려 있다.

파곳¹²³으로 향하던 때 길에서 본 경치를 읊다

向葩串時 途中卽景

신유년(1621, 광해군13) 3월에 우복(愚伏)¹²⁴ 정경세(鄭經世)¹²⁵,
창석(蒼石) 이준(李竣)¹²⁶과 함께 파곳을 유람하였다.

한 줄기 옥 같은 시내가 길 따라 멀리 가니 一帶瑤溪逐路賒

-
- 123 파곳(葩串) : 충청도 청천현(靑川縣)에 있었다. 《新增東國輿地勝覽 卷 15 忠淸道》 청주 화양동(華陽洞) 근처로, 동천(洞天)이 깊숙이 뚫려 있는데 경치가 기괴하고 빼어났다. 《燃藜室記述 別集 卷16 地理典故》
- 124 우복(愚伏) : 원문은 ‘遇伏’인데, 《우복집(愚伏集)》별집(別集) 권9(우복정선생신도비명(愚伏鄭先生神道碑銘))에 근거하여 ‘遇’를 ‘愚’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 125 정경세(鄭經世) : 1563~1633. 자는 경임(景任), 호는 우복(愚伏). 아버지는 정여관(鄭汝寬)이고, 어머니는 이가(李軻)의 딸이다. 유성룡(柳成龍)의 문인이다. 1598년(선조31) 경상 감사가 되어 임진왜란으로 피폐해진 영남을 잘 다스렸다. 상주에 정몽주(鄭夢周), 이황(李滉), 김굉필(金宏弼), 정여창(鄭汝昌), 이언적(李彦迪)을 모시는 도남서원(道南書院)을 창건하였다. 1609년(광해군1) 동지사(東使)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인조반정 이후 대사헌, 이조판서, 대제학 등의 관직을 거쳤다. 그의 학문은 주자(朱子)에 본원을 두고, 이황의 학통을 계승하였다. 저서로 《우복집(愚伏集)》이 있다.
- 126 이준(李竣) : 1560~1635. 자는 숙평(叔平), 호는 창석(蒼石). 이조년(李兆年)의 증손으로, 아버지는 이수인(李守仁)이고, 어머니는 신씨(申氏)이다. 유성룡(柳成龍)의 문인이다. 임진왜란 때 정경세(鄭經世)와 함께 의병을 모아 싸웠다. 1604년(선조37) 주청사(奏請使)의 서장관으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1611년(광해군3) 정인홍(鄭仁弘)이 이황(李滉)과 이이(李珥)를 비난하자 그에 맞서다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1627년(인조5)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모집하였다. 정경세와 함께 유성룡의 학통을 이어받았으며, 남인(南人)을 결집하고 그 여론을 주도하였다. 상주(尙州)의 옥성서원(玉城書院) 등에 제향되었다. 저서로 《창석집(蒼石集)》이 있다. 시호는 문간(文簡).

봄기운을 사람에게 자랑하는 듯	似將春意向人誇
붉고 푸른 빛 흔들리고 일렁이며 어지러이 뒤섞이니	搖紅漾碧光凌亂
곳곳마다 끝도 없는 철쭉꽃이라	處處無邊躑躅花

말가는 대로 고요한 승경 찾느라 먼 길도 질리지 않으니	信馬尋幽不厭賒
이번 길의 정취는 모두 자랑할 만하구나	此行風致儘堪誇
진짜 신선의 경계를 발로 밟은 것이 분명하니	分明腳踏眞仙界
시냇물 향해 꽃이 떨어진 곳을 묻지 마라 ¹²⁷	莫向溪流問落花

우복이 화운한 시이다

127 시냇물…마라 : 도연명(陶淵明)의 <도화원기(桃花源記)>에 따르면, 진(晉)나라 때 무릉(武陵)의 어부가 길을 잃고 복사꽃이 흘러 내려오는 물길을 따라 거슬러 올라갔다가 진(秦)나라 때 난리를 피해 들어온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곳이 워낙 선경(仙境)이라서 그들은 바깥세상을 전혀 모른 채 살고 있었다고 한다.

빗속에 성으로 돌아가다

雨中歸城

사흘간 도화원 찾으며¹²⁸ 호방한 흥취가 나는 듯하여 三日尋源逸興飛
잠시 운수향¹²⁹을 따라 속세의 옷 빨았지 暫隨雲水流塵衣
 시내 떠나 다시 또 백성의 일 고민하니 出溪還復憂民事
봄이 찾아온 성곽으로 비맞으며 돌아가는 것 어찌 꺼리랴 春郭阿妨冒雨歸

128 도화원(桃花源) 찾으며 : 원문은 ‘尋源’이다. 앞의 시 <파곳으로 향하던 때 길에서 본 경치를 읊다[向葩串時 途中卽景]>와 이 시 3구의 ‘出溪’ 등에 근거할 때 ‘源’은 선계(仙界)나 이상향을 의미한다고 보아 도화원이라 번역하였다.

129 운수향(雲水鄉) : 구름과 물이 가득하여 풍경이 맑고 그윽한 곳으로, 은자가 한가로이 거처하는 곳을 말한다.

황령사¹³⁰

黃嶺寺

명연¹³¹에서 여러 공들과 함께 진탕 마셔서
가마로 만 그루 소나무 속에 들어온 줄 몰랐네
새벽달은 배꽃 위에 걸리고 산은 적막한데
잠에서 깨어나 때때로 절의 종소리 듣는다오

鳴淵泥飲共諸公
不省藍輿入萬松
曉月梨花山寂寂
睡回時聽上方鍾

130 황령사(黃嶺寺) : 경상도 함창현(咸昌縣)에 있던 절이다. 《新增東國輿地勝覽 卷29 慶尙道》

131 명연(鳴淵) : 문맥상 특정 지명(地名)으로 보인다.

골짜기를 나와 휴아¹³²와 이별하고 다음날 아침 말 위에서 우연히 읊다

出洞別休兒 翌朝馬上偶吟

시절이 위태로워 서둘러 이별함이 늘 안타까운데 時危每惜別惓惓
산꼭대기 나무와 호숫가 구름 사이, 길은 끝이 없구나 嶺樹湖雲路未窮
골짜기 밖 봄날의 흐린 하늘은 폭우를 재촉하니 洞外春陰催白雨
첩첩의 산 쪽으로 고개 돌리지 못하겠다 不堪回首萬山中

132 휴아(休兒) : 현주(玄洲)의 장남 조휴(趙休)를 말하는 듯하다.

창석¹³³의 시냇가 집

蒼石溪堂

도화담 근처 작은 시내의 서쪽
무수한 봄새는 온 마음을 다해 울어 대네
돌아가기를 잊고 머물기를 좋아하는 것 아니라만 不是忘歸好淹泊
그저 신선의 길만 따르다간 나중에 길을 잃게 되리라
只緣仙路後應迷

신선 땅 풍경은 아득하여 쫓아 오르기 어려웠으니 仙區風日杳難攀
돌아와 봄 맞은 성의 문을 닫자 북과 뿔피리 소리 잦아들더라
歸掩春城鼓角殘
깊은 정원엔 꽃이 지는데 사람은 보이지 않으니 深院落花人不見
밝은 달빛 땅¹³⁴에 가득한 때 난간에 기대다 滿口明月倚闌干

133 창석(蒼石) : 이준(李峻)의 호이다.

134 땅 : 원문은 누락되어 있는데, 국립중앙도서관 석판본 《현주집(玄洲集)》에 근거하여 ‘地’를 보충하여 번역하였다.

부옹의 시에 차운하여 주다 계해년(1623, 인조1) 4수

次贈浮翁韻 癸亥 四首

또 칠언율시 3수가 있다

좋은 신수에 긴 수염으로 군영을 나서니	好身長鬣出師垣
남쪽 오랑캐 ¹³⁵ 는 백만의 무리 자랑 마라	獍子休誇百萬群
우리나라 다시 세우는 데 겨우 하루 걸렸으니	再造東天只一日
짧은 시가 어찌 영웅의 혼을 위로할 만하랴	小詩何足慰雄魂

이상은 제독의 사당¹³⁶을 읊었다

구름 때 같은 용맹한 군사는 기세가 꿈을 때려잡을 듯하여	猛士如雲勢批熊
적의 소굴 뒤엎고 불태우니 하늘의 은혜를 입은 것과 같았지	覆巢燻穴荷天同
공은 장군 한 사람에게 돌아가고 천 명의 뼈는 말라 버렸으니	功歸一將枯千骨
소리 죽여 우는 강물, 물짐승이 원망하는 듯하구나	幽咽江波怨水蟲

이상은 민충단(愍忠壇)¹³⁷을 읊었다

135 남쪽 오랑캐 : 여기에서는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왜를 말한다.

136 제독의 사당 : 평양에 있는 명나라 장수 이여송(李如松)의 사당을 말한다. 평양 정해문(靜海門) 안 무열사(武烈祠)에 이여송이 배향되어 있는데, 1593년(선조26)에 세우고 사액하였다. 이여백(李如栢), 장세작(張世爵) 등도 배향되어 있다. 《新增東國輿地勝覽 卷51 平安道》

137 민충단(愍忠壇) : 평양 을밀대(乙密臺) 가에 있는데, 1593년(선조26)에 동정(東征)에서 전사한 명나라 장병들을 제사 지냈다. 《新增東國

미인을 가둔 골짜기엔 초목이 어둑하니 洞鎖嬋娟草樹昏
 달밤에 미인의 혼이 있다고 말하지 말라 月宵休道有香魂
 이 몸은 이미 구덩이에 빠지는 일¹³⁸ 면하였으니 此身已免坑中落
 어찌 굳이 양대의 운우지정¹³⁹에 감격하겠나 何必陽臺感雨雲
 이상은 선연동(嬋娟洞)¹⁴⁰을 읊었다

수자리 서는 군사 점고하고 살피느라 잠시도 머물지 않으니 點戍觀兵不暫留
 북방의 구름과 관문의 눈 속에 속상구¹⁴¹ 입었구나 朔雲關雪鷓鴣裘

輿地勝覽 卷51 平安道》

- 138 구덩이에 빠지는 일 : 《심경(心經)》에서 인욕(人欲)을 따를 때의 위험에 대해 말하며 “무릇 구차히 화를 면하는 것은 모두 요행이다. 움직이든 움직이지 않든 곧 구덩이에 빠지고 참호로 떨어지니, 위태로움 중에 무엇이 이보다 심하겠는가. [凡苟免者皆幸也。動不動，便是墮坑落塹，危孰甚焉!]”라고 하였다.
- 139 양대(陽臺)의 운우지정(雲雨之情) : 초 회왕(楚懷王)이 꿈에서 무산(巫山) 신녀를 만나 정을 통하였는데, 그 여인이 헤어지며 “저는 무산의 남쪽 높은 언덕의 험준한 곳에 사는데, 아침에는 구름이 되었다가 저녁에는 비가 되어 아침저녁으로 양대 아래 있습니다. [妾在巫山之陽，高丘之岨，旦爲朝雲，暮爲行雨，朝朝暮暮，陽臺之下.]”라고 하였다. 송옥(宋玉)의 <고당부(高唐賦)>에 보인다.
- 140 선연동(嬋娟洞) : 평양성(平壤城) 칠성문(七星門) 밖에 있는 골짜기로, 평양 기생이 죽으면 모두 이곳에 묻혔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遭閑雜錄》
- 141 속상구(鷓鴣裘) : 한나라 사마상여(司馬相如)가 입었던 갖옷으로, 속상(鷓鴣)이라는 새의 깃털과 가죽으로 만든 것이다. 그가 부인 탁문군(卓文君)과 함께 고향 성도(成都)로 돌아왔을 때 너무 가난해서 자기기가 입고 있던 속상구를 전당 잡히고 술을 사 탁문군과 함께 마셨다고 한다. 《漢書 卷57 司馬相如傳》

시 잘 지은 심약, 그 재주에 필적할 이 없었는데¹⁴²能詩沈約才無敵
 누가 또 긴 피리 불며 누각에 기댔나¹⁴³長笛何人更倚樓
 이상은 종사관을 읊었다¹⁴⁴

-
- 142 시…없었는데 : 심약(沈約, 441~513)은 양(梁)나라 문장가로, 용창(隆昌) 1년(494) 동양 태수(東陽太守) 때 원창루(元暢樓)를 세우고 <등원창루팔영(登元暢樓八詠)>을 읊었다. 그는 뒤에 이 시 각 구를 제목 삼아 장가(長歌)를 짓고 <팔영시(八詠詩)>라 하였는데, 당시 절창(絶唱)으로 일컬어져 후인들이 원창루를 팔영루(八詠樓)라 고쳐 불렀다고 한다. 《古詩紀 卷84》
- 143 누가…기댔나 : 이 구절은 당나라 시인 조하(趙嘏)의 시구를 변용한 것이다. 조하의 <장안만추(長安晚秋)> 가운데 “몇 점 남은 별빛 아래 기러기는 변새를 가로지르고, 긴 피리 한 소리에 사람은 누각에 기댔네. [殘星幾點雁橫塞, 長笛一聲人倚樓.]”라는 구절이 있는데, 당나라 시인 두목(杜牧)이 이것을 매우 좋아하여 조하를 ‘조의루(趙倚樓)’라고 불렀다 한다. 《全唐詩 卷549 長安晚秋》
- 144 이상은 종사관을 읊었다 : 이 시의 3구는 임진왜란 때 방어사 성응길(成應吉)의 종사관으로 평양에 왔었던 심희수(沈喜壽)를 읊은 듯하고, 4구는 시를 읊고 있는 당시의 종사관을 말하는 듯하다. 《宣祖實錄 36年 4月 28日》

철산

鐵山

의주의 10월엔 북풍이 많이 부니 龍灣十月朔風多
밤에 내린 눈이 얼기를 재촉해 물이 일렁이지 않네 夜雪催水水不波
활시위 팽팽히 당기는 장군의 힘을 기뻐할 뿐 但喜將軍弓力緊
어찌 교만한 오랑캐가 요하¹⁴⁵를 건널까 근심하라 肯愁驕虜渡遼河

너른 바다에 날씨가 추워지자 살기가 사라지니 溟海天寒殺氣收
군대 거둔 외딴 섬에선 가을을 방비하지 않네¹⁴⁶ 斂兵孤島不防秋
장군은 느지막이 일어나 투호놀이¹⁴⁷ 마치고는 將軍晏起投壺罷
한가로이 활과 칼 점검하고 고기잡이배 보낸다오 閑點弓刀送獵舟

145 요하(遼河) : 중국 동북 지방을 흘러 발해(渤海)로 흘러드는 강이다. 이 강을 경계로 요동(遼東)과 요서(遼西)가 나뉘는데, 조선 사신이 연경(燕京)에 갈 때 항상 이 강을 건넜다고 한다.

146 가을을 방비하지 않네 : 옛날 중국의 서북(西北) 유목 민족은 주로 가을에 증원으로 남침(南侵)하였다. 이에 변방 수비군은 가을에 특별히 경계를 강화하여 병력을 징발해 수비하였다고 한다. 《舊唐書 卷139 陸贄列傳》 1구와 2구는 날씨가 추워지자 북쪽 오랑캐가 함부로 움직이지 않아서 평화로운 상황임을 말하였다.

147 투호놀이 : 원문은 '投壺'인데, 문맥에 근거하여 '壺'을 '壺'로 바로 잡아 번역하였다.

관부를 나서며 을축년148(1625, 인조3) 회주록

出府 乙丑 淮州錄

골짜기엔 봄이 끝나가는데 추위는 도리어 심해지니 峽裏春殘寒轉多
봄의 신은 무슨 수로 봄빛을 만들려나 東君何計作韶華
하늘은 하룻밤 강가 성에 비를 내려서 天將一夜江城雨
푸른 산 끝없는 꽃밭으로 바꾸었구나 爲幻青山無限花

촌 늙은이는 누구이기에 성정이 훌륭한가 何物村翁好性情
한 마을에서 일어나는 한 봄빛을 먼저 얻었기 때문이라 一村先獲一春生

이미 문 밖의 푸른 버들 빛에 놀랐는데 已驚門外綠楊色
갑자기 또 담장엔 붉은 살구가 빛나는구나 忽復牆頭紅杏明

148 을축년 : 현주는 이해에 회양 부사(淮陽府使)가 되었다. 《韓國文集叢刊解題 玄洲集》

마하현¹⁴⁹을 내려가며 풍악산의 진면모를 처음으로
바라보다

下磨訶峴 始望楓岳眞面

속세에서 명성을 들은 지 40년
만 개 봉우리의 청록빛이 들어와 마음이 화락해지네
지금 서로 아는 사이처럼 수레 덮개 기울여 인사하니¹⁵⁰

塵世聞名四十春

萬峯蒼翠入融神

卽今傾蓋如相識

평소 꿈속에서 친하게 지냈기 때문이랴
爲是平生夢裏親

爲是平生夢裏親

149 마하현(摩訶峴) : 원문은 '磨訶峴'인데, 《신증동국여지승람》권47〈강원도(江原道) 회양도호부(淮陽都護府)〉에 근거하여 '磨'를 '摩'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청(淸)나라 사람 오성란(吳省蘭)의 《예해주진(藝海珠塵)》에 따르면, 내금강(內金剛)과 외금강(外金剛)에 있는 절 108개 가운데 표훈사(表訓寺), 정양사(正陽寺), 장안사(長安寺), 마하연(摩訶衍), 보덕굴(普德窟), 유점사(楡岾寺)가 가장 유명하다고 한다. 마하현은 마하연이 있는 고개인 듯하다. 《林下筆記 卷37 蓬萊祕書》

150 지금…인사하니 : 《사기(史記)》 권83 〈추양열전(鄒陽列傳)〉에 “흰머리가 되도록 오래 사귀어도 처음 본 사람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고, 수레 덮개를 기울이고 잠깐 이야기했지만 오랜 벗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다. [白頭如新, 傾蓋如故.]”라고 하였다.

장암

壯巖

뛰어난 풍경 드러내려면 다른 산을 차지해야 하니 若呈形勝占他山
뛰어난 풍경은 어렵지 않으나 땅을 얻기가 어렵구나 形勝非難得地難
어째서 금강산 너머에 서서 何事金剛山外立
시인이 등한시하도록 내버려 두었나 任教詞客等閒看

장안사¹⁵¹

長安寺

천 겹의 비단을 두른 듯한 풍악산을 실컷 바라보았으니 厭看楓岳錦千重
푸르고 붉은 절벽은 옛 모습 지녔더라 翠壁丹崖帶舊容
다정한 하늘이 밤의 눈 재촉하더니 多意天公催夜雪
아침에 흰 연꽃으로 바꾸어 놓았네 朝來幻作白芙蓉

151 장안사(長安寺) : 내금강(內金剛)에 있는 사찰로, 만천교(萬川橋)를 건너 왼쪽 산언덕에 있다. 외금강(外金剛)의 유점사(楡岾寺)·신계사(新戒寺), 내금강의 표훈사(表訓寺)와 더불어 금강산 4대 고찰로 꼽힌다. 신라 법흥왕(法興王) 때 창건되었다. 법당(法堂), 불전(佛殿), 불상(佛像)을 모두 중국의 기술자가 제작하였다. 《稼亭集 卷6 金剛山長安寺重興碑》 현재는 한국전쟁 때 불타고 터만 남아 있다.

정양사¹⁵²

正陽寺

빼어난 산봉우리를 우연히 봄에 바라보자니 徒然春望螺鬢秀
알록달록 수놓은 비단 같은 가을빛과 구분하지 못하겠네

不分秋光錦繡斑

하늘이 이룬 기이하고 웅장한 곳 감상하고 싶다면 欲賞天成奇壯處
구불구불한 못 봉우리가 눈 속에 차가운 곳이라네 衆峯紆鬱雪中寒

알밋다, 풍악산 노승은 완고하여

生憎楓岳老僧頑

봄가을엔 산에 들어갈 수 있다고 부질없이 말하네 謾說春秋可入山

현묘한 이치가 가벼이 누설될까 두려워서

應怕真機輕漏洩

산봉우리 빛을 눈 속에서도 볼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겠지

不言峯色雪中看

152 정양사(正陽寺) : 내금강에 있는 절이다. 표훈사에서 북쪽으로 5리쯤 떨어진 지점에 있다. 이곳에 오르면 천을대(天乙臺), 개심대(開心臺), 혈성루(歇惺樓)가 있어서 금강산의 가장 참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중향성(衆香城)과 마주하고 있어서 경치를 완상하기에 더욱 좋다고 한다. 또 명소(名炤), 낙월(落月), 대향로(大香爐), 소향로(小香爐), 망고대(望高臺) 등의 봉우리들이 앞뒤로 둘러 서 있다고 한다. 《燃藜室記述 別集 卷16 地理典故》

4월 14일

孟夏小望

고독한 마음의 적막함을 누구에게 열어 보일까	孤懷寂寞向誰開
병을 앓는 온전치 못한 몸, 세월은 급히 간다	一病支離歲月催
작은 정원의 회랑에 사람은 보이지 않는데	小院回廊人不見
한낮의 바람이 낙화를 불어 보내왔구나	午風吹送落花來

왕소군¹⁵³

王昭君

한나라는 현인을 가까이하고 여색을 멀리하는 계책을 얻었고
 漢得親賢遠色計
 선우가 소유한 나라는 절로 기울어졌으니
 單于有國自當傾
 가련하다 비장군¹⁵⁴을 장차 어디에 쓰겠는가
 可憐飛將將焉用
 부인 하나가 만리성을 쌓았다네
 一婦人爲萬里城

-원문 2자 결락- 끝내 무엇을 꾸짖겠는가
 不□□笑竟何誅
 모연수의 비상한 공로는 조정의 계책을 덮을 만하네
 延壽奇功掩廟謨

문득 한 황제가 도리어 여색을 중시할까 두려워
 却怕漢皇還重色

153 왕소군(王昭君) : 한나라 원제(元帝)의 후궁으로 뛰어난 미모를 지닌 여인이었다. 원제는 후궁이 매우 많았기에 화공(畫工)을 시켜 궁인(宮人)의 초상을 그리게 하여 마음에 든 궁인을 골랐으므로 많은 궁인들이 모두 화공에게 뇌물을 바쳐 자기 초상을 잘 그려주도록 하였다. 왕소군은 뇌물을 바치지 않아 화공 모연수(毛延壽)가 그의 초상을 좋지 않게 그림으로써 끝내 원제의 사랑을 받아 보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흉노(匈奴)의 선우(單于)가 미인(美人)을 요구하자, 원제의 명에 의하여 흉노 땅에 보내졌다.

154 비장군(飛將軍) : 흉노가 두려워했던 한(漢)나라 명장 이광(李廣)을 가리키는 말이다. 《사기(史記)》〈이장군열전(李將軍列傳)〉에 “이광이 우북평에 있을 때 흉노가 그것을 듣고, ‘한나라의 비장군’이라 부르며 수년 동안 그를 피하여 감히 우북평에 들어가지 못했다.[廣居右北平, 匈奴聞之, 號曰漢之飛將軍, 避之數歲, 不敢入右北平.]”라고 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그와 같은 명장을 뜻한다.

그림에 눈썹 도끼¹⁵⁵를 숨겨놓아 선우를 쳤다네 畫藏眉斧伐單于

155 눈썹 도끼[眉斧] : 남자를 미혹시키는 미인의 아름다운 눈썹을 뜻하는 말로 미인을 비유하는 말이다. 한(漢)나라 매승(枚乘)의 <칠발(七發)>에 “흰 치아와 아름다운 눈썹은 본성을 치는 도끼라고 명명한다.[皓齒蛾眉, 命曰伐性之斧.]”라는 말에서 유래하였다.

이 원외¹⁵⁶ 경석에게 주다 2수

贈李員外景奭 二首

또 칠언율시 3수가 있다

그윽한 집 적적하고 속세 사람 드문데	幽居寂寂俗人稀
조정 관리 ¹⁵⁷ 가 시골 문쪽에 도착하자 놀라고 기뻐하네	驚喜天官到野廬
함께 수풀 정자에 나가 조출한 술자리를 여니	共就林亭開小酌
붉은 낙엽이 가을 옷에 가득한 줄도 몰랐네	不知紅葉滿秋衣

도서 ¹⁵⁸ 만 책상에 가득하고 오는 손님 드물어	道書盈案客來稀
포구의 비 호수의 구름에 낮에도 사립문 닫았네	浦雨湖雲晝掩扉
내일 함께 경사진 언덕길을 찾아가리니	明日共尋欹岸路
산에 가득한 붉은 낙엽 속 칙닝쿨 옷 ¹⁵⁹ 이리라	滿山紅葉薜蘿衣

선생이 말 몰아 찾아오는 일 드물다고 말하는 걸 들었는데

156 이 원외(李員外) : 이경석(李景奭, 1595~1671)으로, 호는 백헌(白軒)이고 자는 상보(尙輔), 본관은 전주(全州)이다. 김장생(金長生)의 문인으로, 병자호란 때 어명으로 <삼전도 비문(三田渡碑文)>을 지었는데 송시열이 이를 비판하였고, 박세당(朴世堂)은 이경석의 묘문(廟文)을 지으면서 다시 송시열을 비판하였다. 여러 관직을 역임하고 우의정과 좌의정을 거쳐 영의정에 올랐다.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원외’는 6품 낭관(郎官)인 원외랑(員外郎)으로, 조선 시대 직제에서는 좌랑을 주로 가리키는데 이경석이 이조 좌랑을 지낸 바 있다.

157 조정 관리(天官) : 현주 자신을 가리킨다.

158 도서(道書) : 도가나 불가의 전적을 말한다.

159 칙닝쿨 옷(薜蘿衣) : 산에 사는 은자(隱者)의 복장을 가리킨다. 《초사(楚辭)》 <구가(九歌) 산귀(山鬼)>에 “벽려로 옷을 해 입고 여라의 띠를 들렀도다.[被薜荔兮帶女蘿.]”라는 표현이 나온다.

	見說先生命駕稀
부질없이 석양녘 문짝을 두드릴 줄 뉘 알았으랴	誰知虛叩夕陽扉
홀로 파리한 말 타고 정자 앞길로 향했으니	羸驂獨向亭前路
서호 십 리에 내린 비가 옷에 가득하네	十里西湖雨滿衣
	차운시를 붙이다.

삼귀정¹⁶⁰ 팔영 청음¹⁶¹이 시를 굳이 써 달라기에 응하다

三龜亭八詠 應清陰苦索

짙은 안개 막 걷히고 들녘의 해 고운데 重霧初褰野日妍
 그림 같은 푸른 산봉우리 하늘 가운데 떨어져 있네 碧峯如畫落中天
 수시로 두건 젖혀 쓰고 읊조리며 시구를 안배하노니 隨時岸幘吟安句
 밝은 햇빛이 좌석으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일세 爲是晴光入座偏
학교의 갠 산봉우리[鶴嶠晴峯]

백 길 높이 푸른 절벽이 맑은 물굽이에 꽂혔는데 百尋蒼壁插澄灣
 농염한 꽃과 잎으로 다채롭게 꾸몄구려 粧得濃葩艷葉斑
 눈 두르고 노을을 뚫자 안색이 더욱 변하노니¹⁶² 帶雪穿霞增聳色
 사시사철 길이 비단 병풍으로 삼아 본다네 四時長作繡屏看
마애의 가파른 절벽[馬崖峭壁]

160 삼귀정(三龜亭) :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소산리에 있는 조선 중기의 정자이다. 소산마을 입향조인 김삼근(金三近)의 손자 김영전(金永銓, 1439~1522)이 지례 현감으로 있던 1495년(연산군1)에 지은 것이다. 당시 김영전은 88세의 노모 예천 권씨를 즐겁게 하려는 효심에서 아우들과 함께 이 정자를 건립하였다. 삼귀정이란 정자 앞뜰에 거북이 모양의 돌이 세 개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161 청음(淸陰) : 김상헌(金尙憲, 1570~1652)의 호이다. 본관은 안동(安東)이고 자는 숙도(叔度)이다. 우의정 김상용(金尙容)의 아우이며, 윤근수(尹根壽)의 문인이다. 병자호란 때 주화론(主和論)을 배척하고 끝까지 주전론(主戰論)을 주장하다 청나라에 압송되어 6년 만에 풀려났다.

162 안색이 더욱 변하노니 : 가파른 절벽이 눈과 노을로 색채가 변한 것을 말한다.

산성을 지나던 비 새벽에 조금 걷히니 山城過雨曉微收
 고을 속 짙은 안개 모여들어 떠돌지 않네 縣裏濃煙聚未浮
 갑자기 집집마다 사람들이 웃고 말하는 소리 들리니 忽聽家人笑語
 예쁜 꽃들이 무수히 담장 너머로 나왔더라 好花無數出牆頭
 고을의 안개 꽃[縣里煙花]

어두운 옛 골짜기 어지러운 구름 사이 陰陰古洞亂雲間
 긴 바람 끝없이 부는 이곳에 서려 있네 無限長風此裏蟠
 오르내리는 파도¹⁶³가 하늘에 날리는가 의아해하다가 訝是層濤飛碧落
 일어나서 겨울 소나무 만 그루의 남은 여운을 찾았다네
 起尋餘響萬松寒
 역동의 겨울 소나무[驛洞寒松]

비와 이슬이 만물을 적셔준 은혜가 넉넉하다고 말하지 말라
 雨露休稱潤物優
 들판의 벼와 기장이 완전히 익는 게 아니라네 一郊禾黍未全秋
 신이한 공력은 어느 것이 흰 서리와 나란할까 神功孰與清霜竝
 누런 구름 십 리에 떠 있도록 바꾸어 놓았네 幻作黃雲十里浮
 긴 들판의 농작물을 살펴보다[長郊觀稼]

물굽이에서 살진 물고기를 다투어 자랑하더니 曲渚爭誇玉尺肥
 몇 사람이 술병 들고 낚시터로 향했던가 幾人携酒向漁磯

163 파도 : 바람이 솔숲을 흔들 때 물결 소리 같은 게 들리기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원(元)나라 구양현(歐陽玄)의 <만제(漫題)>에 “발을 내리고 단정히 앉아 송도 소리 듣노라.[下簾危坐聽松濤.]”라고 하였다.

사양 속에 그물 올리고 떠들썩한 소리 그치니 斜陽舉網喧呼罷
 마을마다 큰 고기를 잡아서 돌아감을 알겠노라 知是村村得雋歸
 물굽이에서 물고기 잡다[曲渚打魚]

대지 뜨겁게 타올라 단약¹⁶⁴이 이루어지니 大塊炎炎火汞成
 세간에 삼복더위 피할 곳이 없어라 世間無地避三庚
 숲속 정자에서 멀리서 온 서늘한 바람을 홀로 맞으니 林亭獨受涼颼歸
 마치 바람을 타고 날렵하게 태청¹⁶⁵으로 들어가는 듯하네
 悅御冷然入太清
 삼복에 더위를 피하다[三伏避暑]

중원¹⁶⁶의 좋은 일들 가장 자랑할 만하니 中元勝事最堪誇
 못사람들 취하여 새벽 은하수 이르도록 돌아가는 이 없네
 衆醉無歸到曙河
 이 모두가 오늘 밤 달빛이 많기 때문이니 摠爲今宵多月色
 정자가 많은 달빛을 흠뻑 받음을 모두 좋아하네 共憐多月受亭多
 중추절에 달을 완상하다[仲秋玩月]

-
- 164 단약[火汞] : 원문의 ‘화홍(火汞)’은 단사(丹砂)에서 나오는 액체를 가리키는 도교의 용어로 일백(日魄)이라고도 한다.
- 165 태청(太清) : 도교에서 말하는 천상의 신선 세계 가운데 하나이다. 도교에서는 삼존(三尊)이 거하는 최고의仙境(仙境)으로 옥청(玉清)·상청(上清)·태청(太清)을 꼽는다. 옥청경(玉清境)은 원시천존(元始天尊)이, 상청경은 영보천존(靈寶天尊)이, 태청경은 도덕천존(道德天尊)이다스린다고 한다. 후세에는仙境(仙境)을 비유하는 말로 자주 쓰였다.
- 166 중원(中元) : 중원은 원래 중국 명절인 중원절로 음력 7월 15일을 말하는데, 이는 우리의 추석에 해당한다. 여기에서는 중원으로 추석을 날을 가리키는 듯하다.

비오리¹⁶⁷ 기사년(1629, 인조7)

花鵬 己巳

선주(善州)¹⁶⁸에 부임할 때이다

반은 빙상 위를 가로지르고 반은 푸른 물결 가로지르니 半橫水面半滄浪
비오리 쌍쌍이 날아와 장난치고 목욕하기 바쁘구나 花鵬雙飛戲浴忙
단지 원하노라 깊고 열은 물에서 서로 따르고 但願相隨深淺水
인간 세상에 있는 염량세태 모르기를 不知人世有炎涼

167 비오리[花鵬] : 겨울 철새로 우리나라 전역의 해안, 해만, 하구, 호서 등지에서 쉽게 관찰된다. 번식지에서는 산림지대에서 주로 물이 모여 있는 저수지, 물이 고인 곳, 하천, 못에서 서식한다. 겨울을 나는 곳에서는 하천과 호수에서 무리 지어 생활한다.

168 선주(善州) : 선산군(善山郡)의 고려 시대 명칭으로 지금의 경북 구미 시에 해당한다. 현주는 58세 때 예조 참의로 있다가 선산 부사(善山府使)로 나갔고, 여기에서 <선주록(善州錄)>을 지었다.

달천¹⁶⁹

獾川

당시의 한 번 패배는 장수가 무모했기 때문이니	當時一敗將無謀
충성스럽고 의로운 혼백들 한이 그치질 않으리	義魄忠魂恨未休
탄금대 아래 강물은 오열하노니	嗚咽彈琴臺下水
아마 한강을 향해 흘러감을 부끄러워함이리라	祇應羞向漢江流

169 달천(獾川) : 달천은 일명 달래강으로 충청북도 보은군(報恩郡) 속리산(俗離山)에서 발원하여 북쪽으로 흘러서 탄금대(彈琴臺)를 끼고 돌아 남한강(南漢江)으로 흘러드는 하천이다. 임진왜란 때 신립(申瑬, 1546~1592)이 삼도 도순변사(三道都巡邊使)에 임명되어 이곳에서 배수진(背水陣)을 치고 왜군을 막았으나 대패하고 자신도 전사하였다. 이 시의 내용은 신립의 패전을 다룬 것이다.

한식

寒食

금년 한식에 꽃이 아직 피지 않았거니와 今年寒食未開花
근심함은 자연경물을 연모하기 때문만이 아니라네 悄悄非唯戀物華
상상컨대 고향 산은 비바람 속에 想得故山風雨裏
향불 연기¹⁷⁰ 다 사라지고 숲속 까마귀만 내려오리 香煙收盡下林鴉

170 향불 연기 : 한식에 선영에서 성묘하고 제사를 지낼 때 피운 향불 연기를 말한다.

부지암¹⁷¹으로 여헌¹⁷² 장현광 을 방문하다

不知巖訪旅軒 張顯光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지만¹⁷³ 알아주어도 좋으니 不知不慍知亦好
구름이 깊다고 어찌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겠는가 豈是雲深人不知
부지암이라는 명칭의 모른다는 의미는 不知巖號不知意
아마 사람은 알아주고 바위는 몰라본다는 뜻이리라 應爲人知巖不知

-
- 171 부지암(不知巖) : 부지암정사(不知巖精舍)를 말하는 것으로 여헌(旅軒) 장현광(張顯光)이 구미시 낙동대교 옆에 건립하여 강학하는 장소로 사용하였다. 정사 옆 낙동강 물 위를 점점이 수놓은 바위가 있는데, 바위 밑의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기에 부지암이라는 명칭이 유래하였다. 그 뒤 부지암정사 옆에 장현광을 모시는 동락서원(東洛書院)이 들어서면서, 두 건물이 나란히 있게 되었다.
- 172 여헌(旅軒) : 장현광(張顯光, 1554~1637)으로 본관은 인동(仁同), 자는 덕회(德晦)이고 호는 여헌(旅軒)이다. 재상 유성룡(柳成龍)의 천거로 1595년(선조28) 보은 현감(報恩縣監)을 지냈다. 광해군 때와 인조 즉위 후 여러 벼슬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사양했다. 1637년(인조15) 청나라에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동해안의 입암산(立嶽山)에 들어가 있다가 세상을 떠났다. 일찍부터 벼슬에 뜻을 두지 않고 성리학 연구에만 힘썼으며, 의학에도 밝았다. 저서로는 《여헌집》이 있고 시호는 문강(文康)이다.
- 173 알아주지...않지만 : 《논어》〈학이(學而)〉에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노여워하지 않는다면 또한 군자가 아닌가.[人不知不慍, 不亦君子乎?]”라고 하였다.

장여현의 궁벽한 거처에 쓰다

題張旅軒幽居

매화는 눈과 같고 버들은 안개 같으니
이월 강호에 봄날이 곱구나
바위 위 초당은 문이 낮에도 닫혀 있어
사람이 대숲 앞에 이르러도 모르네

梅花如雪柳如煙
二月江湖春日妍
巖上草堂門晝閉
不知人到竹林前

춘회¹⁷⁴즉사 경오년(1630, 인조8)

春晦卽事 庚午

버들개지 다 떨어지고 제비는 날아다니는데	楊花落盡燕飛飛
비온 뒤 서늘한 기운이 얇은 옷에 스며드네	雨後輕涼透薄衣
상상컨대 고향 정원엔 봄빛이 끝나고	想得故園春事了
어지러운 벌들이 날아와 작은 장미꽃을 맴돌겠네	亂蜂來繞小薔薇

174 춘회(春晦) : 삼월 그믐을 말한다.

마을 시내 추일즉사

村溪 秋日卽事

작은 골짜기 냇물은 겨우 비단 한 필만 한데 小澗纔如一匹練
이끼 낀 시냇가에서 아녀자들 떠들썩하게 소리치네

喧呼兒女澗邊苔

급할 때인지 다투어 순무채를 씻노니 急時爭洗蔓菁菜
아마 겨울 지낼 김치를 담그러 온 거겠지 擬作經冬旨蓄來

외로운 기러기

斷鴈

어젯밤 바람이 기러기 떼를 심하게 몰더니	昨夜風驅陣雁深
새벽하늘에 외로운 그림자 슬픈 소리 내누나	曉天孤影有哀音
분명히 소상강 기슭에 내려앉았을 텐데 ¹⁷⁵	分明落在瀟湘岸
밝은 달빛 비추는 갈대꽃 속 어디에서 찾을까	明月蘆花何處尋

175 분명히...텐데 : 중국 호남성(湖南省) 동정호(洞庭湖) 남쪽 영릉(零陵) 부근에서 소수(瀟水)와 상수(湘水)가 합친 곳을 소상이라 부르는데 풍경이 매우 아름답다. 송대(宋代)의 풍경화가 송적(宋迪)이 소상의 풍경을 8쪽으로 그려 소상팔경도(瀟湘八景圖)라 하였다. 그중 하나가 기러기가 백사장에 내려앉는 광경인 평사낙안(平沙落雁)을 그린 그림이기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이사특에게 주다

贈李士特

얼음과 눈이 하늘에 닿아 조령은 차가운데 氷雪連天鳥嶺寒
어느 때나 파리한 말로 진나라 관문¹⁷⁶을 뚫고 갈까 幾時羸馬透秦關
알게 되리라 작은 전대에 남방의 좋은 음식을 담아 가지고 가면 應知小橐携南味
돌아가 고향 집에 이를 때 설날 음식이 된다는 것을 歸及家鄉作歲餐

176 진나라 관문[秦關] : 진(秦)나라 함양으로 들어가는 험준한 관문인 함곡관(函谷關)을 가리키는데, 여기에서는 함양으로 들어가기 위해 넘어야 하는 험한 조령(鳥嶺)을 뜻한다.

신부

新婦

단장하고 문안한 뒤 물러나 묵묵히 말이 없으니	粧成省退默無言
부끄러워 머리 숙이고 불러도 듣지 못하네	羞澁低頭喚不聞
몰래 상자 속 붉은 비단을 짧게 잘라내어	暗裂篋間紅錦短
낭군에게 시누이 치마 만들자고 요청하네	向郎要作少姑裙

낙화에 대한 원망 절구 4수 두보의 시체를 본받다

落花怨 四絕 效老杜體

예쁜 꽃이 나와 맞먹는 게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嬌花讎我至于斯
 나의 연로함을 갈보아 아이 데리고 노는 듯이 하였네 欺我衰遲如弄兒
 하룻밤에 바람 따라 날아가 버렸으니 一夜隨風飛去了
 아침에 마주하는 건 단지 텅 빈 가지뿐 朝來相對但空枝

이 변민과 원통함을 안았으니 누구에게 호소할까抱此煩冤誰告訴
 가지 잡고 -원문 1차 결락- 눈물 흘리며 애써 배회하네攀枝□淚強徘徊
 하늘이 원망할 대상이 아니라면 꽃이 무슨 죄라 天非可怨花何罪
 차마 광풍을 보내어 여기에 오게 한단 말인가 忍送狂風向此來

꽃이 날아감을 원망치 않고 바람도 원망치 않노니 不怨花飛不怨風
 꽃이 나에게 박덕한 것도 아니고 바람도 공평하다네 花非薄我風亦公
 병 많은 이에게 누가 술 마시는 일을 못하게 하였나多病誰教違把酒
 홀로 그 허물을 감당할 이는 노쇠한 노인일세 獨任其咎是衰翁

봄 맞아 문 닫고 앉아 있는 것이 제격이라 祇合逢春閉門坐
 다시 아이에게 꽃 피는 일 숨기게 하였네 更教童子諱花開
 꽃 피는 것과 꽃 지는 것을 듣지 않는다면 不聞花開與花落
 이 노인의 부드러운 창자 뒤틀리지¹⁷⁷ 않으리 此老柔腸應不回

177 부드러운 창자 뒤틀리지 : 부드러운 창자는 다단한 감정이 얽히어

누암의 초루¹⁷⁸에서 주인을 조롱하다 신미년(1631, 인조9)

樓巖草樓 嘲主人 辛未

내가 내가 아니니 내가 무엇을 도모할까	吾非是我我何謀
몸은 내 몸인데도 자유롭지 않네	身是吾身不自由
일생 동안 가고 머무름을 하늘이 먼저 정했는데	一生行止天先定
부질없이 산천 곳곳에 누각을 쌓았구려	虛築湖山處處樓

부질없이 경영하여 초루를 세우지 말라	莫漫經營起草樓
경영함은 자신을 위한 계책이 아니로세	經營非是爲身謀
사람은 이제 어느 곳으로 벼슬하러 갔는가	人今何處宦遊去
하루 종일 푸른 파도엔 흰 갈매기만 떠 있네	盡日滄波唯白鷗

있는 마음을 비유한다. 창자가 뒤틀린다는 것은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함을 말한다.

178 초루(草樓) : 띠 풀로 만든 누각을 말한다.

환란을 겪은 뒤 정자용¹⁷⁹이 시 써주기를 애써 청하여
억지로 쓰다

經患後 被鄭子容苦索 強題

남은 생애 두려워 항상 경계하고 삼가니 惶恐餘生常懷懼
봄 한철 오래도록 누워있을 뿐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네 一春長臥起無多
단지 나그네를 머물게 하는 가랑비를 견딜 만하고 唯堪小雨能留客
자주 꽃 지게 하는 광풍은 견디지 못하겠네 不耐狂風喜落花

179 정자용(鄭子容) : 정홍명(鄭弘溟, 1582~1650)으로, 본관은 연일(延日), 자는 자용, 호는 기암(畸庵)이다. 문과에 급제하였으나 부친인 정철(鄭澈, 1536~1593)과 정적 관계였던 동인(東人)들의 질시로 고향으로 돌아와 학문에 전념하였다. 뒤에 출사와 귀향을 반복하다가 대사헌·대제학에 임명되었으나 나가지 않았다. 뛰어난 재능을 인정받아 제자백가서에 두루 정통했으며, 고문(古文)에도 밝았다.

기와¹⁸⁰가 준 시에 또 차운하다

又次崎窩贈韻

자용(子容)과 대작하였는데 이때 장지국(張持國)¹⁸¹이 또 모여 같이 화운하다

이 몸의 일 어그리지고 병까지 더해지니	身事蹉跎病有加
늙어서 세월을 아낄 분만이 아니네	衰遲不啻惜年華
친구를 이별한 뒤 부질없이 밝은 달이 뜨고	故人別後空明月
새 술 향기로울 때 또 꽃이 떨어지네	新酒芳時又落花

조공 ¹⁸² 의 나이는 정공과 비교해 많은데	趙公年較鄭公加
정공의 귀밑머리가 조공의 귀밑머리보다 도리어 먼저 세었네	鄭鬢翻先趙鬢華
근심과 즐거움 흥성과 쇠함을 모두 묻지 말라	憂樂盛衰都莫問
서로 만나 시든 꽃을 마주하고 흠뻑 취할 뿐	相逢爛醉對殘花
	계곡이 화운하다

180 기와(崎窩) : 앞 시에 나온 정홍명(鄭弘溟, 1592~1650)을 가리킨다.

181 장지국(張持國) : 지국은 장유(張維, 1587~1638)의 자이다. 주자학뿐 만 아니라 양명학에도 조예가 깊었고, 이정귀(李廷龜)·신흠(申欽)·이식(李植)과 함께 조선 4대 문장가로 불리는 인물이다. 김장생(金長生)의 문인으로, 인조반정에 가담하여 정사 공신(靖社功臣) 2등에 책록되었다. 정묘호란 때 강화로 왕을 호종하고, 그 후 대제학으로 동지경연사(同知經筵事)를 겸하였다. 병자호란 때 최명길(崔鳴吉)과 함께 강화론을 주장하였으며, 1637년(인조15) 우의정에 임명되었으나 모친상을 만나 사직하고 장례 후 과로사 하였다. 《계곡만필(谿谷漫筆)》 등의 저서가 전하며,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182 조공(趙公) : 현주(玄洲)를 가리킨다.

현주집

제 5권

五言律詩 오언율시

오언율시 五言律詩

임척제¹ 광운 에게 주다

贈林戚弟 光胤

정유년(1597, 선조30)에 함께 피난하였다

친형은 부모와 같은데	親兄同父母
이 세상에는 오히려 그런 윤리가 어그러졌네	斯世尙乖倫
전란으로 인하여 달아나 숨었고	喪亂仍奔竄
굶주림과 추위에 함께 고생하였네	飢寒共苦辛
이로부터 정의가 두터워졌는데	從茲情義篤
늙어가게 되자 이별함이 잦아졌네	垂老別離頻
비록 서로 잊고 등지고자 하지만	縱欲相忘背
귀신이 있으니 어찌하랴	其如有鬼神

1 척제(戚弟) : 척제는 성이 다른 일가 가운데 아우뻘이 되는 사람을 부르는 말이다.

서울을 떠나며

發京口

가는 길이 이처럼 갑작스러우니
허둥지둥 어디로 가는가
구름은 산을 따라서 다함이 없고
하늘은 바다로 들어가 끝이 없네
세속에서 반평생 잘못되었으니
고향에서 늙는 것이 마땅하리라
남쪽 고을은 뽕나무와 산뽕나무가 좋으니
이것을 버리고 무엇을 하려는가

行路遽如許
棲棲何所之
雲隨山不盡
天入海無涯
塵土半生誤
丘園終老宜
南州好桑柘
捨此欲奚爲

임자정²을 추억하며 주다

追贈林子定

나는 임자정을 사랑하노니	吾愛林子定
호해에서 다시 경영하는 것이 없네	湖海還無營
귤나무로 둘러쳐진 집에서 시구를 구하고	橘屋覓詩句
매화 핀 화단에서 학 울음소리를 듣네	梅壇聞鶴鳴
누가 알리오, 실로 안다는 것이	誰知實見得
헛된 명성에 있지 않다는 것을	不在虛名聲
웃을 만하네, 만랑자 ³ 여	堪笑漫浪子
속세에서 반평생을 수고하고 있으니	塵埃勞半生

-
- 2 임자정(林子定) : 임탁(林悋, 1566~1610)이다. 자정(子定)은 임탁의 자이며 호는 해옹(海翁)·죽오당(竹梧堂)이다. 임제(林悌)의 막내동생으로, 나주 회진에 죽오당과 창랑정을 짓고 은거하였다. 권필(權鞮)·허균(許筠)·조찬한(趙縝韓)·조위한(趙緯韓)·양경우(梁慶遇) 등과 교유했으나 자세한 행적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 3 만랑자(漫浪子) : 세속에 얽매이지 않고 형해(形骸) 밖을 방랑하는 문사(文士)를 뜻하는 말이다. 당나라 안진경(顔真卿)의 <용주도독겸어사증승본관경략사원군표묘비명(容州都督兼御史中丞本管經略使元君表墓碑銘)>에서 “원결(元結)이 양수(灋水) 가에 살면서 자칭 낭사(浪士)라 하고 <낭설(浪說)>7편을 지었다가, 뒤에 낭관(郎官)이 되자 당시 사람들이 ‘낭자(浪者)도 부질없이[漫] 벼슬을 하는가?’ 하고는 ‘만랑(漫郎)’이라 불렀다.” 하였다.

천마산으로 향할 때 이희주의 집 앞의 큰 고개를 넘으며

向天磨時 越李希珠家前大嶺

조도 ⁴ 는 가늘게 하늘에 서려 있으니	鳥道蟠天細
괴롭고 힘들어 고개 넘는 것이 더디네	辛勤度嶺遲
가지는 서리 맞은 잎을 들고서 파리하고	枝擎霜葉碎
바위는 저물녘 꽃을 이고서 우뚝 서있네	巖戴暮花危
먼 곳까지 잡고 오르길 꺼리지 않고	不憚攀躋遠
오직 기이한 물과 돌만 찾는다네	惟探水石奇
천마산을 아득히 손가락으로 가리키니	天磨遙指點
구름 속에 긴 눈썹이 숨어있구나	雲際隱修眉

4 조도(鳥道) : 조도는 나는 새만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험준하고 좁은 산길을 말한다. 당나라 이백(李白)의 <촉도난(蜀道難)>시에 “서쪽으로론 태백산에 조도가 있으니, 아미산 꼭대기를 횡단할 수 있네.[西當太白有鳥道, 可以橫絕峨眉巔.]”라고 하였다. 《古文眞寶 前集 卷7 蜀道難》

날이 어두워져가자 운거동 입구로 들어가며 읊조리
다

向暝 入雲居洞口 口占

물은 차고 뾰족한 돌은 드리눴고	水寒石齒露
나뭇잎은 떨어져 골짜기 문은 텅 비었네	葉脫洞門虛
땅은 쇠퇴한 풍속을 피할 만하고	地可避衰俗
길은 겨우 파리한 당나귀가 다닐 수 있네	路纔容瘦驢
날 저무는 걸 근심치 말라	莫須愁日暮
서로 함께 운거동에서 자리라	相與宿雲居
아침 햇살 마땅할 때 폭포 소리를 듣고	聽瀑宜朝旭
목어 ⁵ 치는 소리를 따라 새벽에 일어나네	晨興趁木魚

5 목어(木魚) : 불가(佛家) 에서 쓰는 법기(法器)이다. 나무를 조각하여 둥그런 물고기 모양으로 만들고 속은 파서 비게 한 다음 독경(讀經)·예불(禮佛)·죽반(粥飯) 등 일정한 상황에서 승려를 모이게 할 때 이것을 두들겨 소리를 낸다. 주희(朱熹)의 시에, “죽과 밥 어느 때나 목어를 함께 할까.[粥飯何時共木魚?]”라고 하였다.

달빛을 타고 술 마시기를 꾀하다

乘月謀酌

어렵게 호수 언덕의 집에 투숙하여
상쾌한 마음으로 빠르게 대에 올랐네
강이 어두우니 물과 구름이 합쳐진 듯
달이 떠오르니 천지가 열리는 듯
상자의 시를 처음 하나 하나 꺼내니
촌 막걸리 다시 사오네
술을 조금 마시고 마음껏 멀리 바라보니
세상의 어지러움이 바야흐로 재가 되네

艱投湖岸舍
快意劇登臺
江暝水雲合
月生天地開
篋詩初點出
村酒更沽來
淺酌騁遐眺
世紛方始灰

파사성⁶ 병오년(1606, 선조39)

婆娑城 丙午

이 성곽은 산승이 쌓았으니	此郭山僧築
당시에 적군의 예봉을 피했다네	當時避賊鋒
몇 사람이 흙과 돌을 거두었던가	幾人收土石
높고 큰 성곽이 어룡들을 돌렸네	千雉繞魚龍
단지 강의 시장을 여는데 적합하고	只合開江市
오직 강물 정면으로 오는 공격을 막을 수 있네	唯能扞水衝
가련하다, 조정의 계획은	可憐廊廟計
시종일관 담벼락 높이는 데에 있었다네	終始在崇墉

6 파사성(婆娑城) : 경기 여주군 대신면(大神面) 천서리(川西里) 야산에 있는 석성(石城)이다. 신라 파사왕(婆娑王) 3년 모녀장군(某女將軍)이 축성하였다는 전설도 있고, 삼국통일 당시 나당연합군의 대접전지이자 최후의 싸움터였던 매초성(買肖城)이라는 설도 있다. 선조(宣祖) 때 유성룡(柳成龍)이 황해도 승군 총섭(僧軍總攝)인 의엄(義嚴)에게 대대적으로 수축(修築)하게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新增東國輿地勝覽 卷7》, 《西厓集 卷1 婆娑城, 書贈義嚴長老》

선조대왕 만사 2수 무신년(1608, 선조41)

宣祖大王挽詞 二首 戊申

성스러운 덕은 신령스런 왕통을 계승하여	聖德承靈統
의상을 드리운 지 ⁷ 40년이라네	垂衣四十春
지극히 화순한 덕행은 왕실의 계보를 빛나게 했고	至誠光寶系
영특하고 용감함은 오랑캐의 먼지를 쓸어 버렸네	英武廓腥塵
즉위하시니 바야흐로 태평한 세상이 돌아왔는데 ⁸	御極方回泰
구름을 타고 갑자기 진택(眞宅)으로 나아가셨네	乘雲遽即眞
임금님의 상여가 새벽달 아래 움직이니	宮車動曉月
산골짜기에서 수건을 다 적신다네	山谷盡沾巾

7 의상을 드리운 지 : 원문의 ‘수의(垂衣)’는 옷 소매를 드리우고 행하는 무위(無爲)의 정치를 말하는 것으로, 성군(聖君)의 덕치(德治)를 가리킨다. 《주역(周易)》〈계사전 하(繫辭傳下)〉에 이르기를, “황제(黃帝)와 요순(堯舜)은 의상을 드리웠을 뿐이나, 천하가 잘 다스려졌다.[黃帝堯舜, 垂衣裳而天下治.]”라고 하였다.

8 태평한 세상이 돌아왔는데 : 원문의 ‘회태(回泰)’는 비색(否塞)한 운세가 끝나고 태평한 운세가 돌아온다는 뜻이다. ‘태(泰)’는 《주역》의 괘명(卦名)인데 건하곤상(乾下坤上)으로 천지 음양의 기운이 조화되어 만물이 태평해지는 상(象)이다.

두 번째

其二

참담하게 양산을 넘던 ⁹ 날	慘憺踰梁日
처량하게 종묘에서 곡하던 날	淒涼哭廟辰
안위는 비록 운수가 있다지만	安危雖有數
바로잡고 구제하는 것 어찌 사람이 없으리오	匡濟豈無人
공업은 선대를 빛나게 했고	勳業光先代
은혜의 물결은 평민들에게 두루 미쳤다네	恩波浹細民
임금께서 갑자기 멀리 떠나가시니	龍鑣遽遐擧
정호 ¹⁰ 의 나루터를 울부짖으며 바라본다네	叫望鼎湖津

9 양산(梁山)을 넘던 : 원문의 ‘유양(踰梁)’은 주 태왕(周太王) 즉 고공 단보(古公亶父)가 빈(邠) 땅에 있을 때 적인(狄人)이 쳐들어오자 빈 땅을 버리고 양산을 넘어 기산(岐山) 아래로 가서 도읍을 정했던 일을 원용한 표현이다. 《孟子 梁惠王下》 이 구절은 1592년(선조25) 4월에 임진왜란(壬辰倭亂)이 발발하여 왜적이 파죽지세로 북상하자, 선조가 도성을 버리고 서북 지역으로 파천(播遷)하여 평양(平壤)에 잠시 머물다가 재차 의주(義州)로 피난 갔던 일을 말한 듯하다.

10 정호(鼎湖): 임금의 죽음을 뜻하는 말이다. 황제(黃帝)가 정호에서 선단(仙丹)을 만들어 이루어지자 용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고사가 있다. 《史記 卷28 封禪書》

장난삼아 석주¹¹에게 주다

戲贈石洲

나의 말 많은 권석주를 사랑하노니	吾憐權哆口
흠뻑 취해서 성 동쪽으로 들어갔네	大醉入城東
시대를 바로 잡는 책략은 막혀있고	鬱屈匡時略
세상을 피하는 발자취는 떠돌아다니네	飄零避世蹤
강해의 밖에서 한 잔 술을 마시고	一尊江海外
꿈속의 혼은 천고를 오가네	千古夢魂中
하늘의 뜻은 기필할 수 없으니	未必蒼天意
끝내 이 사람으로 하여금 궁하게 하네	終教此子窮

11 석주(石洲) : 권필(權韞, 1569~1612)의 호이다. 권필의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여장이며 정철(鄭澈)의 문인이다. 임숙영(任叔英)이 광해군을 비판하는 글로 삭과(削科)된 사실을 듣고 <궁류시(宮柳詩)>를 지어서 풍자한 일로 인해 처벌을 받아 경원(慶源)으로 귀양가다가 도중에 사망하였다. 조찬한(趙縝韓)·이안눌(李安訥)·임숙영(任叔英) 등과 교류하였다. 저서로 문집인 《석주집(石洲集)》과 한문 소설인 <주생전(周生傳)>이 전한다.

석주에게 주다

贈石洲

세상의 인정은 활달한 것을 꺼리고	時情忌曠達
하늘의 뜻은 시인들을 박하게 하네	天意薄詩流
호해에는 누렇게 뜬 얼굴 ¹² 이 남아있고	湖海餘黃馘
풍진 세상에는 다시 흰머리 사람이라네	風塵更白頭
서로 보고 술 취해서 시를 읊조리고	相看醉裏詠
외로운 촛불에 밤 깊도록 근심하네	孤燭夜深愁
내일 출발하면 문득 별처럼 흩어지니	明發便星散
술을 잡고 누구에게 권할까	把酒誰爲酬

12 누렇게 뜬 얼굴 : 원문의 ‘황괘(黃馘)’은 빈곤으로 인해 얼굴이 마르고 안색이 누렇게 된 것을 말한다. 《장자(莊子)》〈열어구(列禦寇)〉에 의하면, 송나라 조상(曹商)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누추한 시골구석에 살면서 구차하게 신이나 삼고 말라비틀어진 목에 얼굴빛마저 누렇게 된 것은 상(商)의 단점이다. 그러나 한 번 만승(萬乘)의 임금을 깨우쳐 종거(從車)가 백 승이나 된 것은 상의 장점이다.” 하였다.

신여현에 대한 만시

挽慎汝顯

호귀한 공주 집안의 자제	豪貴主家子
풍류가 한때에 알려졌네	風流鳴一時
생이 허망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에	灼知生是妄
술과 더불어 기약할 만하였네	堪與酒爲期
집안 잘 꾸리는 부인에게 다시 의탁했지만	再賴宜家婦
끝내 대를 이을 아이가 없었다네	終無繼體兒
놀라 취몽에서 깨어났으니	遽然醒醉夢
49년이 슬프도다	四十九年悲

백선명¹³ 진남의 아내에 대한 만시

挽白善鳴妻 振南

아름다운 미인의 계보가 있으니	有美嬋媛系
이 요조숙녀의 자태를 낳았다네	生茲窈窕姿
정성을 바쳐 몸소 집안일 ¹⁴ 을 했고	奉誠身主饋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밥상을 눈썹과 나란히 하였네 ¹⁵	持敬案齊眉
부인의 도리는 어떠한가	婦道何如也
가문에서 탄복하였네	門闌歎服之
어찌하여 마흔도 되지 않아서	胡爲未四十
갑자기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奄忽至於斯

-
- 13 백선명(白善鳴) : 백진남(白振南, 1564~1618)의 자이다. 본관은 해미(海美), 호는 송호(松湖)이다. 백광훈의 아들이다. 김상헌(金尙憲)·조희일(趙希逸) 등과 친분이 깊었다. 1606년 명나라 사신 주지번(朱之蕃)이 왔을 때 관반(館伴) 유근(柳根)의 천거로 백의종사(白衣從事)하였다. 문장과 필법으로 유명한 주지번이 백진남의 묵적(墨蹟)을 매우 칭찬하며 소중히 간직하였으며, 주지번도 ‘옥봉서실(玉峯書室)’·‘옥동연하(玉洞煙霞)’ 8자와 무이구곡시(武夷九曲詩)를 써주었다. 저서로는 《송호유고(松湖遺稿)》 1권이 있다.
- 14 집안일 : 원문의 ‘주궤(主饋)’는 부녀자가 음식을 삶고 지저서 장만하는 등의 집안일을 말한다. 《주역》〈가인괘(家人卦)〉 육이효(六二爻)의 효사(爻辭)에 “육이는 이루는 바가 없고 규중(閨中)에 있으면서 음식을 장만하면 정하여 길하리라.[六二，無攸遂，在中饋，貞吉。]”라고 하였다.
- 15 공경하는…하였네 : 원문의 안제미(案齊眉)는 거안제미(舉案齊眉)의 준말이다. 후한(後漢) 때 양홍(梁鴻)의 아내 맹광(孟光)이 감히 남편을 마주 보지 못하고 끼니때마다 밥상을 눈썹 높이에 맞추어 들었던 데서 온 말로, 부부 사이에 서로 공경하는 것을 비유한다. 《後漢書 卷 113 逸民列傳》

동지사로 가는 이창기¹⁶를 보내며

送冬至使李昌期

동지사는 예가 성대하다고 하니	賀至禮稱盛
선관은 인재 얻기가 가장 어렵다네	選官才最難
이 행차 진실로 합당함을 얻었으니	茲行真得副
서로 도와줌에 간략함은 너그러움을 잇는다네	相濟簡承寬
가을 달은 압록강에 아득하고	秋月鴨江迤
북방의 구름은 연경 눈 위에 차네	朔雲燕雪寒
멀리서 알겠노라, 옥하관 ¹⁷ 의 밤	遙應玉河夜
외로운 촛불이 단심을 비추는 것을	孤燭照心丹

16 이창기(李昌期) : 창기(昌期)는 이명준(李命俊, 1572~1630)의 자이다. 본관은 전의(全義), 호는 잠와(潛窩) 또는 진사재(進思齋)이며 이제신(李濟臣)의 아들이다. 이항복(李恒福)·성혼(成渾)의 문하생으로 1603년(선조36) 정시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고, 벼슬이 병조참판에 이르렀다. 성질이 강정(剛正)하여 직간을 잘하였고 별세했을 때 장례를 치를 수 없을 정도로 청렴하였다고 한다.

17 옥하관(玉河關) : 원문의 '옥하(玉河)'는 옥하관을 말한다. 옥하관은 중국 북경(北京)에 있던 사신(使臣)들의 숙소로 조선의 사신들이 북경에 가면 여기서 유숙하곤 하였다.

당산¹⁸을 떠나며 임자년(1612, 광해군4)

發堂山 壬子

단단히 채비하고 일찍 출발하니	嚴裝事早發
한 해 마치도록 돌아오지 못하리	終歲未言歸
달 뜬 새벽녘 성긴 별은 사라지고	月曙稀星沒
마을은 텅 비고 들길은 희미하네	村虛野逕微
출발에 임해서 정작 애뜻하게 바라보고	臨行正脈脈
머리 돌려보니 다시 그리워지네	回首更依依
태수는 각각 남북으로 떠나가니	五馬各南北
고향은 이로부터 멀어진다네	鄉園從此違

18 당산(堂山) : 현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堂山洞) 일대이다.

인촌을 출발하며

發印村

야식은 관가 부엌에서 하는 대로 따르고
새벽 채비는 종들에게 맡겨두네
마을의 달빛 어두워 길을 헤매고
들 구름은 낮게 깔려 되서리 내리네
우는 말에 채찍질하는 것 지쳤고
꼬끼오 닭 울음소리 자주 듣네
어느 때 관아의 숙소에 투숙하여
등불 가까이에서 책장을 펼치리오

夜食隨官爨
晨裝任僕徒
路迷村月暗
霜重野雲低
倦策蕭蕭馬
頻聞喔喔鷄
幾時投郡閣
書葉近燈舒

광산¹⁹으로 가는 도중에

光山道中

조화는 자취가 없는 것이 아니고	造化非無迹
신묘한 공은 본래 충화(冲和)의 기운이라네	神功本泰和
밤새도록 비가 내리지 않았다면	不緣連夜雨
어찌 산 가득 꽃이 피었으리오	寧得滿山花
대낮에 천지는 어여쁘고	白日乾坤麗
푸른 봄에 초목이 호사스럽네	青春草木奢
가는 길이 먼 것을 싫어하지 않고	未嫌行路遠
오히려 멀리 조망할 수 있는 것을 기뻐하네	猶喜眺望賒

19 광산(光山) : 전라남도 광주를 말한다. 본래의 명칭은 무주(武洲), 또는 무진주(武珍州)로 통용되었다. 그러다가 견훤의 시대에 광주라는 지명이 처음으로 등장했으며, 행정구역상의 공식명칭으로 등장한 것은 고려 태조 때이다. 이후 승격과 강등을 거치면서 광주 혹은 광산이라는 지명이 뒤바뀌며 사용되었지만 동일 공간을 지칭한다.

적성에서 뱃놀이

船遊赤城

해질녘 고깃배를 따르니

하늘은 개어 물은 텅 빈 것 같네

밝은 거울 속에는 물고기가 다니고

비단 병풍 속에서 새들이 날아가네

오묘한 피리 소리는 가냘픈 노래 소리와 엉키고

가볍게 흔들리며 작은 바람을 희롱하네

난만한 봄에 급히 술 따르니

불그레한 석양을 저버리지 말라

向晚隨魚艇

天晴水若空

魚行明鏡裏

鳥度錦屏中

妙管凝纖唱

輕撓弄小風

急酬春爛熳

莫負夕陽紅

섬호 진여옥 경림 에게 주다 계축년(1613, 광해군5) 낭주록
贈剡湖陳汝玉 景琳 癸丑 朗州錄

가을바람은 늦더위를 무찌르고	高風塵老暑
소나기는 앞산을 사라지게 하네	驟雨失前山
젖은 제비는 처마 끝에 의지해 있고	濕燕依簷角
가을벌레는 풀 사이에서 우네	秋蟲語草間
나그네 오니 시권이 많아지고	客來詩卷富
관아 일 마쳤으니 도장 찍는 책상은 한가하네	衙罷印床閒
흉년과 풍년에서 하늘의 뜻을 볼 수 있으니	荒稔看天意
그것으로 인하여 농사일의 어려움을 논하네	因論穡事艱

두 번째

其二

하늘이 바다와 맞닿는 데까지 멀리 바라보고
달이 산에 떠오르는 것을 유심히 바라보네
산봉우리는 표면을 가로지르고
봉새의 부리는 구름 사이에 잠겨있네
조화는 정밀함을 부질없이 허비했고
천지는 뜻이 더욱 한가롭네
어느 때 길이 떠나가서
위험하고 어려운 이 길을 벗어날까

目極天連海
耽看月出山
螺鬢橫繫表
鵬喙沒雲間
造化精空費
乾坤意益閒
何當事長往
斯路謝危艱

섬호가 준 운에 차운하다

次剡湖贈韻

친구들 모두 사라졌는데	親友皆淪沒
어찌하여 옛 친구를 방문했는가	於何問故知
멀리서 방문한 그대를 기뻐하노니	喜君能遠訪
잠시 깊은 생각을 위로하네	聊爾慰遐思
가을 기운은 아침에 모이고	秋氣朝來集
연꽃 향기는 비온 뒤에 쇠약해지네	荷香雨後衰
창주 ²⁰ 에 낙토가 있으니	滄洲有樂土
어느 날 은거의 기약을 이룰 수 있을까	何日赴幽期

20 창주(滄洲) : 물가의 수려한 경치를 뜻하는 말인데, 남조(南朝) 제(齊)나라의 시인 사조(謝朓)가 선성 태수(宣城太守)로 나가서 창주의 정취를 마음껏 누렸다는 고사가 유명하다.

두 번째

其二

풍진에서 봉래산과 발해를 내버려두고
호해에서 벗들과 막혀있다네
태반이 적막한 곳으로 돌아갔으니
부질없이 옛날 꿈속의 생각만 남아있네
고을의 관아에는 가을에 비가 내리니
오동잎이 시든 것을 밤에 가엽게 여기네
여기에 나아가 좋은 모임을 이루었으니
어찌 꼭 훗날 만날 기약을 물어야 하리오

風埃任蓬渤
湖海阻朋知
太半歸冥漠
空餘舊夢思
郡齋秋得雨
桐葉夜憐衰
卽此成佳會
何須問後期

굴옥²¹ 윤광계 의 운에 다시 차운하다

再次橘屋韻 尹光啓

오늘 아침은 그래도 지낼 만했는데	今朝猶可過
오늘 저녁은 다시 괴롭다네	此夕苦難更
잎이 성기니 달빛이 새고	葉疏蟾漏影
서리 내릴 때 가까우니 기러기 소리 비껴가네	霜近雁橫聲
호해에서 이별한 것이 해를 넘겼으니	湖海經年別
마을의 등불 아래 홀로 밤을 지새우는 이내 마음	村燈獨夜情
중양절이 수 일 남았는데	重陽隔數日
혹여 달 뜬 산봉우리 개었을 때 만날 수 있을까	倘會月峯晴

21 굴옥(橘屋) : 윤광계(尹光啓, 1559~?)의 호이다. 본관은 해남(海南), 자는 경열(景說)이다. 조헌(趙憲)의 문인이며, 예조 정랑, 평안도 도사, 공조 좌랑을 지냈다. 광해군 때는 말단의 관직을 전전하다가 고향 해남에 은퇴하였다. 시에 뛰어났으며 저서로 《굴옥집(橘屋集)》이 있다.

민사립의 호정에서 벽 위의 시에 차운하다

閑思立湖亭 次壁上韻

유유히 하는 일 적으니	悠悠少所事
호해의 한가한 한 사람이라네	湖海一閑人
은거지에서 생을 도모함은 늦었지만	避地謀生晚
평소 거처에서 운치 얻은 것이 새롭다네	端居得趣新
연꽃 핀 못의 반 이랑은 거울이고	荷池半畝鏡
꽃핀 득은 사계절이 봄이라네	花塢四時春
저물녘에 산기운을 보는데	落日看山氣
밭 앞에서 갈건을 젖혀서 쓰네	風簾岸葛巾

돌아오는 제비 응제시

歸燕 課製

문노니, 어느 곳에서 떠나와서
옛 동지 -1자 缺- 를 찾아왔는가
가랑비에 진흙 묻고 나르기를 다투고
조금 흐릴 때 날개 다듬기를 자주 하네
날갯짓 가벼이 하며 무녀에게 자랑하고
전하는 말은 능히 사람을 머무르게 하네
중하게 여겨야 할 것은 돌아갈 기약에 있으니
이별의 한이 새롭다고 근심하지 말라

問從何處去
來訪舊巢□
細雨含泥競
微陰刷羽頻
習輕誇舞女
傳語解留人
珍重歸期在
休愁別恨新

가을 매미

秋蟬

여름에 처음 울기를 다하고
가을바람에 다시 울음이 많아지네
고찰의 저녁을 다투어 재촉하고
상림의 가을을 어지럽게 알리네
급한 절주는 한을 풀기 어렵고
괴롭게 신음해도 수심 견딜 수 없네
누가 가엾게 여기겠는가, 소리 끊어진 곳에
마른 껍질이 가지 끝으로 변한 것을

槐夏嘶初盡
西風咽更稠
爭催古寺暮
亂報上林秋
促節難裁恨
酸吟不耐愁
誰憐聲絕處
枯甲化枝頭

한가로이 지내며 눈 앞 풍경을 읊다

閑居卽事

속세의 정은 한가로운 곳에서 깨닫고	俗情閑處會
사물의 이치는 고요할 때 본다네	物理靜時看
손님 사절하니 어찌 걸상을 번거롭게 하랴 ²²	謝客何煩榻
잠을 즐기느라 관을 쓰지 않는다오	耽眠不用冠
굶주린 모기는 아침부터 벽 틈을 뚫고 들어오고	飢蚊朝透壁
교만한 쥐는 낮에 소반을 뒤엎네	驕鼠晝翻盤
소녀는 솜씨 좋게 가려운 곳 긁으니	少女工爬癢
불러오면 벼슬자리 얻는 것보다 나으리 ²³	呼來勝得官

22 손님…하랴 : 한(漢)나라 진번(陳蕃)은 다른 손님은 응대하지 않았는데, 서치(徐穉)가 오면 특별히 걸상[榻] 하나를 내놓았다가 그가 떠나면 다시 걸어 놓았다고 한다. 여기에서 현사(賢士)를 예우한다는 ‘현榻(懸榻)’ 고사가 나왔다. 《後漢書 卷53 徐穉列傳》

23 소녀는…나으리 : 소녀는 마고(麻姑)를 말한다. 한 환제(漢桓帝) 때 선인(仙人) 왕원(王遠 왕방평(王方平))이 채경(蔡經)의 집에서 마고를 불러 내렸는데, 그녀는 18, 9세 정도였고 손톱이 새 발톱 같았다. 채경이 속으로 등이 몹시 가려울 때 그 손톱으로 긁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왕원이 알아차리고는 마고는 신인인데 어찌 그 손톱으로 등을 긁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하였다. 《神仙傳 卷3 王遠》

창석²⁴ 이준 의 <성암>시에 차운하여 짓다 갑인년

(1614, 광해군6) 영천록

次蒼石巖韻 李垞 甲寅 榮川錄

걱정하지 않는 것이 진짜 즐거움이고	不悶爲眞樂
바쁘지 않은 것이 큰 한가로움이지	無忙是大閑
더구나 지금 세속의 얽매임에서 벗어나	況今超世累
이 좋은 시냇가 산에 복거했음에야	卜此好溪山
수운향 ²⁵ 너머까지 들리는 노랫소리와 연주 소리	歌吹水雲外
은하수 사이의 누대	樓臺星漢間
스스로 불쌍히 여기나니, 한 말의 쌀 도모하느라	自憐徇斗米
병 많은 몸으로 미관말직에 있구나 ²⁶	多病帶微官

24 창석(蒼石) : 이준(李垞, 1560~1635)의 호이다. 자는 숙평(叔平). 이 조년(李兆年)의 증손으로, 아버지는 이수인(李守仁)이고, 어머니는 신씨(申氏)이다. 유성룡(柳成龍)의 문인이다. 임진왜란 때 정경세(鄭經世)와 함께 의병을 모아 싸웠다. 1604년(선조37) 주청사(奏請使)의 서장관으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1611년(광해군3) 정인홍(鄭仁弘)이 이황(李滉)과 이이(李珣)를 비난하자 그에 맞서다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1627년(인조5)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모집하였다. 정경세와 함께 유성룡의 학통을 이어받았으며, 남인(南人)을 결집하고 그 여론을 주도하였다. 상주(尙州)의 옥성서원(玉城書院) 등에 제향되었다. 저서로 《창석집(蒼石集)》이 있다. 시호는 문간(文簡).

25 수운향(水雲鄉) : 구름과 물이 가득하여 풍경이 맑고 그윽한 곳으로, 은자가 한가로이 거처하는 곳을 말한다.

26 한...있구나 : 도잠(陶潛)이 팽택령(彭澤令)이 된 지 80여 일 만에 군(郡)에서 독우(督郵)를 보냈는데, 현리(縣吏)가 띠를 매고 그를 만나라고 하였다. 이에 도잠은 다섯 말의 쌀[五斗米] 때문에 시골 소인에게

취해서 진퇴격²⁷을 써서 시를 지어 단곡²⁸ 김지선 연형²⁹에게 주다

醉中用進退格 贈丹谷年兄 金止善

나의 벗은 단곡 ³⁰ 을 소유하여	我友有丹谷
평상시에 경영하는 바 없네	端居無所營
도서는 온 방에 고요하고	圖書一室靜
인삼과 백출은 정원 가득 향기롭다	參朮滿園馨
현달해지는 건 내 바람 아니니	聞達非吾願
은거하여 속세의 정 멀리하리라	潛藏遠俗情
훗날 외람되어 이웃이 되어	他時忝比舍
한 잔 술 마시며 늘 반가운 마음으로 바라보리 ³¹	尊酒眼長青

허리를 굽힐 수 없으며 인끈을 풀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晉書 卷94 隱逸列傳 陶潛》

- 27 진퇴격(進退格) : 율시(律詩)의 용운(用韻) 방식 가운데 하나로, 두 개의 서로 비슷한 운을 격구(隔句)로 사용하는 것이다.
- 28 단곡(丹谷) : 김지선(金止善)을 말한다. 김륵(金玊)의 차남으로, 1601년(선조34)에 식년시(式年試) 생원시에 장원급제하고 의금부 도사를 지냈다. 현주(玄洲)는 그와 생원시에 동방급제(同榜及第)하였다. 《國朝榜目》
- 29 연형(年兄) : 과거에서 동방급제한 사람들을 동년(同年)이라 하는데, 동년끼리는 서로 연형이라 불렀다.
- 30 단곡 : 영천(榮川)의 단곡산(丹谷山)을 말하는 듯하다.
- 31 늘...바라보리 : 원문은 '眼長青'이다. 청안(靑眼)은 반가운 사람을 만날 때의 눈길로, 백안(白眼)의 상대어이다. 진(晉)나라 완적(阮籍)은 자신이 끼리는 사람을 보면 백안시하고 반가운 사람을 보면 청안시했다고 한다. 《晉書 卷49 阮籍列傳》

진안 마이산

鎭安馬耳山

말 귀와 같은 두 개의 뾰족한 봉우리	兩尖如馬耳
땅에서 몇 천 척으로 솟아났나	拔地幾千尋
푸른 옥으로 두 개의 비녀를 갈아 낸 듯	碧玉雙磨笄
청동으로 된 비녀를 나란히 꽂은 듯	青銅竝插簪
봉새가 부리를 들고 일어날 생각을 하는 듯 ³²	鵬思褰喙起
용이 몸을 기울여 잠기려는 듯	龍欲倒身沈
하루 종일 멀고 험한 곳 다 찾아다녔는데	盡日窮幽險
여기 기대고서야 가슴이 트이는구나	憑茲始豁襟

32 봉새가…듯 : 한유(韓愈)의 <남산시(南山詩)>에 “바다에 목욕한 봉새가 부리를 드는 듯하네.[海浴褰鵬喙.]”라고 하였다.

신 박사³³ 천익 의 시에 차운하여 지어서 그 막내 동생
인 좌랑³⁴ 해익 을 애도하다

次愼博士 天翊 韻 悼其季佐郎 海翊

문노니, 난새와 봉황의 자태로	爲問鸞鳳姿
어디로부터 이곳에 이르렀던가	何從而到斯
일찍이 신선의 나무에서 깃들어 울었고	棲鳴曾玉樹
옛날에 요지 ³⁵ 에서 물 마시고 모이 쪼았지	飲啄舊瑤池
한 번 천 겹의 구름 아래로 떨어지더니	一落雲千疊
삼청 ³⁶ 의 달은 몇 번이나 이지러졌던가	三淸月幾虧

33 신 박사 : 신천익(愼天翊, 1592~1661)을 말한다. 자는 백거(伯舉), 호는 소은(素隱)이다. 아버지는 진사 신인(愼謹)이며, 어머니는 이용(李溶)의 딸이다. 1612년(광해군4) 증광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홍문관정자 등을 거쳤으나 광해군의 실정에 사직하고 전남 영암에 은거했다. 문장과 시부(詩賦)에 능하여 송시열(宋時烈)도 찬탄하였으며, 아우 신해익(愼海翊)과 함께 문명(文名)을 크게 떨쳤다. 저서로 《소은유고(素隱遺稿)》가 있다.

34 좌랑 : 신해익(愼海翊, 1592~1616)을 말한다. 자는 중거(仲舉), 호는 병은(病隱). 아버지는 신인이며, 어머니는 이용의 딸이다. 1613년(광해군5) 22세로 알성문과에 장원 급제하였다. 시작(詩作)에 뛰어나 일찍이 왕이 탄 수레 앞에서 시를 읊으니, 그 단정한 풍채와 낭랑한 음성을 보고 듣는 사람들이 모두 비선(飛仙) 같다고 감탄하였다고 한다. 성균관 전적이었으나 흠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하여 사직하고 고향에 돌아갔다. 몇 년 뒤 신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서울로 왔다가, 예조좌랑 겸 춘추관기사관에 임명되었으나 병이 갑자기 악화되어 25세로 요절하였다.

35 요지(瑤池) : 서왕모(西王母)가 사는 곤륜산(崑崙山)에 있다는 연못 이름이다. 《史記 卷123 大宛列傳論》

36 삼청(三淸) : 도교에서 말하는 천상 세계로, 옥청(玉淸), 상청(上淸),

선계의 관리가 다시 칙서로 떠나게 하니
어찌 세상 사람들이 알게 했으랴

天官還勅去
肯使世人知

태청(太淸)의 세 경계이다.

비 내린 뒤에 훈도가 술을 가지고 와서 권하기에 술자리에 나아가 서둘러 써서 사례하다 을묘년(1615, 광해군7)
 雨後訓導持酒來勸 卽於酒席 走謝 乙卯

마침내 꽃의 일은 끝났으니	居然花事盡
한 번 내린 비는 농사짓기에 충분하다네	一雨足農功
산이 가까워 봄 그늘이 짙고	山近春陰重
누대가 높아 들녘 바라보는 시야가 트인다	樓高野望通
우는 비둘기는 새로 돋은 푸른 잎 사이에 숨었고	鳴鳩隱新綠
날아가던 나비는 저 버린 꽃을 위로하는구나	過蝶弔殘紅
광문의 술 ³⁷ 이 있지 않다면	不有廣文酒
누구와 함께 시를 논할까	論詩誰與同

37 광문(廣文)의 술 : 광문은 당 현종(唐玄宗) 때 문인 정건(鄭虔)을 말한다. 그는 현종의 배려로 광문관 박사(廣文館博士)가 되었으나, 몹시 빈한했고 술을 매우 즐겼다고 한다. 두보(杜甫)가 장난삼아 그에게 준 시에 “광문은 관사에 도착하면 관사 계단 아래에 말을 매어 놓았지. 취하면 말 타고 돌아가 버려서 관장의 꾸지람께나 들었다네.[廣文到官舍, 繫馬堂階下. 醉則騎馬歸, 頗遭官長罵.]”라고 하였다. 《杜詩詳註 卷3 戲簡鄭廣文兼呈蘇司業》

달빛 아래 거닐며 맑은 연못을 굽어보다

步月俯玩清池

홀로 노닐며 물가 정자 사랑하노니
긴긴 밤 연못을 굽어보는 난간이라네
거꾸로 박히는 별빛은 곧고
고르게 가라앉는 나무 그림자는 둥글다
까치는 밝은 달빛 이르자 날고
꽃은 황혼 무렵 지나며 고요해지네
좋은 계절은 친근한 벗과 같으니
시 완성하는 것이 술동이 마주하는 것보다 낫구나

孤遊愛水榭
遙夜俯池軒
倒插星芒直
平沈樹影圓
鵲翻當皓月
花靜過黃昏
令節如親友
詩成勝對樽

초여름에 친구에게 주다

首夏贈友

여름과 봄에는 늘 병을 안고 사니
즐거운 일은 전부터 드물었지
고을 섬돌에는 오동나무 꽃이 시들고
마을 울타리에는 살구가 살졌구나
피꼬리 소리는 버들 사이로 새어 나오고
어린 참새는 장미 넝쿨 사이에 숨었네
바야흐로 상상컨대, 글을 쓰느라
대낮에 적막하게 사립 닫고 있겠지

夏春長抱疾
樂事向來稀
郡砌桐花老
村籬杏子肥
流鶯漏楊柳
雛雀隱薔薇
政想摘玄草
寥寥晝掩扉

두 번째

其二

양기가 왕성해져 다시 초여름이니 ³⁸	滔滔又孟夏
풀빛은 이미 교외까지 이어졌구나	草色已連郊
나무 끝이 무겁도록 새 과일이 달렸고	梢重揭新果
나뭇잎 깊은 곳엔 옛 둥지가 숨어 있네	葉深藏故巢
술 거르는 주자, ³⁹ 술 방울 보는 일 드물고	酒槽稀見滴
차잎 가는 절구, 두드리는 소리 듣기도 지겹다	茶臼倦聞敲
병 하나 앓으며 좋은 계절에 응대하느라	一病酬佳節
봄 내내 옛 친구와 교유가 끊겼다고	三春絕舊交

38 양기가…초여름이니 : 《초사(楚辭)》〈구장(九章) 추사(抽思)〉에 “양기가 왕성한 초여름이여, 초목이 무성하구나.[滔滔孟夏兮, 草木莽莽.]”라고 하였다.

39 술 거르는 주자(酒槽) : 원문은 ‘酒槽’인데, 술을 거르거나 짜내는 틀을 말한다. 술주자라고도 한다.

쌍청당⁴⁰ 취해서 권공이 준 시에 차운하여 짓다
 雙淸堂 醉次權公贈韻

이 고을 땅에는 별다른 승경이 없는데	郡地無他勝
이번 놀이로 우연히 명성을 얻었다오	茲遊偶得名
연못을 누르는 곳에 물가 정자를 짓고	壓池開水榭
들을 굽어보는 곳에 바람 부는 난간을 세웠구나	俯野抗風櫺
오래된 나무는 푸른 용처럼 늙었고	古樹蒼龍老
새 연잎은 비취빛 깃으로 장식한 수레 덮개처럼 기울었네	新荷翠蓋傾
좋은 날 맛 좋은 술 놓고서	佳辰置旨酒
밤 깊도록 술잔 기울이는 것 싫지 않다오	不惡夜深傾

40 쌍청당(雙淸堂) : 영천(榮川) 객관(客館) 동쪽에 있다. 중종(中宗) 때 군수 김세훈(金世勳)이 지었고, 좌우에 쌍으로 연못이 있다. 《新增東國輿地勝覽 卷25 慶尙道》

자발⁴¹ 양형우 이 준 시에 차운하여 짓다

次子發贈韻 梁亨遇

강남의 좋은 풍경	江南好風景
즐거운 일 전부터 많았지	樂事向來多
가의는 어찌 그렇게 통곡했던가 ⁴²	賈誼胡然哭
미친 접여는 다만 스스로 노래했지 ⁴³	狂輿祇自歌
슬픔과 기쁨을 깨뜨려 끝내고 싶지만	欲破悲歡了
모이고 흩어짐을 어찌할 수 없다네	無如聚散何
훗날 천 리 밖에서	他時千里外
혹시 꽃가지 하나 보내 주려나 ⁴⁴	倘寄一枝花

-
- 41 자발(子發) : 양형우(梁亨遇, 1570~1623)의 자로, 호는 동애(東厓)이다. 아버지는 양대박(梁大樸)이고, 어머니는 신지(申漬)의 딸이다. 형은 양경우(梁慶遇)이다.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의 문하에 출입하며 시명(詩名)이 높았다. 임진왜란 때 부친 및 형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다. 1616년(광해군8) 별시(別試)에 급제하여 헌납 등을 역임하였다.
- 42 가의는…통곡했던가 : 한 문제(漢文帝) 때 가의(賈誼)가 치안책(治安策)을 올렸는데, 그 첫머리에 “신이 사세를 생각하건대, 통곡할 만한 일이 한 가지요, 눈물을 흘릴 만한 일이 두 가지요, 크게 한숨을 쉴 만한 일이 여섯 가지입니다.[臣竊惟事勢，可爲痛哭者一，可爲流涕者二，可爲長太息者六.]”라고 하였다. 《漢書 卷48 賈誼列傳》
- 43 미친…노래했지 : 초(楚)나라 미치광이 접여(接輿)가 공자 앞을 지나며 “봉황이여, 봉황이여! 어찌 덕이 쇠하였는가…그만두라, 그만두라. 지금 정치에 종사하는 자들은 위태롭다.[鳳兮鳳兮，何德之衰…已而已而，今之從政者殆而.]”라고 노래하였다. 이에 공자가 그와 이야기 나누려 하였으나 피해 버렸다고 한다. 《論語 微子》
- 44 혹시…주려나 : 꽃가지는 매화 가지를 말한다. 남북조(南北朝) 시대 송(宋)의 육개(陸凱)와 범엽(范曄)이 서로 친하게 지냈는데, 육개가 강남(江南)에서 매화 한 가지를 장안(長安)에 있는 범엽에게 보내면서

고갯길에 투숙하다 유사군록 병진년(1616, 광해군8)

投嶺路 遊四郡錄 丙辰

갈까마귀는 마을에 뜬 달이 숨을 때 울고	鴉啼村月隱
기러기는 새벽 서리가 얇게 내릴 때 건너가네	雁度曉霜微
옛 역엔 부서진 비석이 서 있고	古驛殘碑立
가을 산엔 낙엽이 날리는구나	秋山落葉飛
여위고 약한 말로 끊어진 길에 오르니	羸驂登絕逕
가랑비가 도롱이에 가득하네	細雨滿蓑衣
흥을 타서 먼 길을 꺼리지 않았으니	乘興不憚遠
험한 곳 두루 지나고 이제 비로소 돌아간다오	歷險方始歸

“꽃을 꺾다 역사를 만났기에, 농두 사람에게 보낸다. 강남엔 있는 것 없기에, 애오라지 한 가지의 봄을 보낸다오.[折花逢驛使，寄與隴頭人。江南無所有，聊贈一枝春.]”라고 하였다. 《太平御覽 卷970 果部7》

은주암⁴⁵

隱舟巖

배를 숨기는 골짜기는 옛날에 경계했지만 ⁴⁶	藏壑古爲戒
배를 숨기는 바위는 취해서 시 짓기에 알맞지 ⁴⁷	隱巖宜醉題
어찌 보슬비 지난다고 근심하라	肯愁微雨過
저녁 해 기우는 것도 깨닫지 못했다네	不省夕陽低
바위 꼭대기엔 가마우지가 묵고	絕頂鷓鴣宿
깊은 바위 뿌리엔 수달이 깃들었구나	深根獐獺棲
가을 벼랑에서 멀리 바라보고 나니	秋崖縱目罷
취한 혼은 붉은 잎 속에 길을 잃었네	紅葉醉魂迷

45 은주암(隱舟巖) : 단양(丹陽)에 있는 바위의 이름이다.

46 배를…경계했지만 : 《장자(莊子)》〈대종사(大宗師)〉에 “골짜기에 배를 숨기고 연못 속에 산을 숨기고는 단단히 간직했다고 한다. 그러나 한밤중에 힘센 자가 짊어지고 달아나면 어리석은 사람은 알지 못한다.[夫藏舟於壑, 藏山於澤, 謂之固矣. 然而夜半有力者負而走, 昧者不知也.]”라고 하였다.

47 배를…알맞지 : 바로 위구와 대비하여 쓴 것으로, 배를 숨기는 바위 즉 은주암은 시로 읊기 좋은 소재라는 뜻이다.

강을 읊다 유두류록 정사년(1617, 광해군9)

咏江 遊頭流錄 丁巳

빠르게 내달리며 어디로 돌아가는가	袞袞歸何處
끊임없이 밤낮으로 흐르는구나	滔滔日夜流
아득한 산허리를 가르고 뚫으며	割穿山腹迥
그윽한 골짜기 한가운데를 내달려 지나네	奔過峽心幽
기세는 무너진 바위에 부딪쳐 격렬해지고	勢衝崩石激
소리는 너른 연못에 이르러서야 그친다	聲到廣淵休
먼 옛날 누가 파고 뚫었나	萬古誰開鑿
아득하여 알아낼 수 없다오	茫然不可求

봉성⁴⁸에 투숙하다

投鳳城

숲의 운무가 저녁 어스름에 피어나고	林霏生薄暮
푸르스름한 안개가 봄옷을 적시네	空翠濕春衣
골짜기는 아득히 흘러가는 높은 강물을 끼었고 ⁴⁹	峽東高江迥
마을은 무너진 작은 성곽에 기댔구나	村依小郭殘
땅이 외져서 물과 대나무 ⁵⁰ 가 많고	地偏饒水竹
바닷가 근처라 신선하고 살진 물고기가 풍족하다	海近足鮮肥
상쾌한 기운이 텅 빈 역관에 들어오니	爽氣侵虛館
혼은 맑아지고 속세 걱정은 희미해지네	魂清塵慮微

48 봉성(鳳城) : 전라남도 구례(求禮)의 옛 지명이다. 《新增東國輿地勝覽 卷40 全羅道》

49 골짜기는…끼었고 : 두보(杜甫)의 〈백제(白帝)〉에 “높은 강물이 골짜기에 급히 흐르니 우레가 싸우는 듯하다.[高江急峽雷霆鬪]”라고 하였다. 또 두보의 〈추일기부영회봉기정감이빈객일백운(秋日夔府詠懷奉寄鄭監李賓客一百韻)〉에 “골짜기는 강물을 끼고 솟았다.[峽東滄江起]”라고 하였다.

50 물과 대나무 : 맑고 그윽한 경치를 가리킨다. 두보의 〈봉수엄공기제야정지작(奉酬嚴公寄題野亭之作)〉에 “습유가 일찍이 몇 줄의 편지에 아뢰었으니, 게으른 성품으로 전부터 물과 대나무 곁에 산다고.[捨遣曾奏數行書, 懶性從來水竹居.]”라고 하였다.

석문⁵¹

石門

산사의 문엔 향기로운 풀 쌓였고	山門芳草積
시냇가 골짜기엔 저녁 해 시름겹네	溪洞夕陽愁
학은 사람과 함께 어디로 갔나 ⁵²	鶴與人何去
글씨는 귀신 덕에 보호를 받아 남았구나 ⁵³	書仍鬼護留
천제의 궁궐엔 단약이 화덕에 가득할 텐데 ⁵⁴	清都丹滿竈
속세에선 흰빛이 머리를 뒤덮었네	塵世白渾頭
폭포를 함께 완상한 듯하니	飛瀑如同玩
그 근원을 찾아 물길 거슬러 오르고 싶구나 ⁵⁵	尋源欲泝流

-
- 51 석문(石門) : 지리산 쌍계사(雙溪寺)의 석문을 말하는 듯하다. 동구(洞口)에 두 개의 바위가 마치 문처럼 서서 대치하고 있는데, 최치원(崔致遠)이 손수 동쪽 바위에 '쌍계(雙溪)', 서쪽 바위에 '석문(石門)'이라 새겼다고 한다. 《孤雲集 輿地勝覽》이 시부터 <불일(佛日)>까지는 최치원과 관련된 지리산의 승적(勝蹟)을 읊은 것이다.
- 52 학은…갔나 : 최치원이 신선이 되어 떠났다는 전설에 기반한 내용인 듯하다. 학은 신선이 타고 다닌다는 선학(仙鶴)을 말한다. 주세붕(周世鵬)의 <등해운대(登海雲臺)>에는 “해운대 아래 끝없이 펼쳐진 곳은 넓은 바다, 유선이 한번 떠나가자 학은 아득히 멀어졌구나. [臺下無涯是大洋, 儒仙一去鶴茫茫.]”라고 하였다. 유선은 최치원을 가리킨다.
- 53 글씨는…남았구나 : 석문의 양쪽 바위에 최치원이 손수 새겼다는 글씨를 말한다. 《孤雲集 輿地勝覽》
- 54 천제의…텐데 : 신선이 되어 떠난 최치원은 천제의 궁에서 단약(丹藥)을 만들어 먹고 불로장생(不老長生)하리라는 뜻이다.
- 55 그…싶구나 : 이는 무릉도원(武陵桃源)의 고사를 차용한 표현인 듯하다. 도연명(陶淵明)의 <도화원기(桃花源記)>에 따르면, 진(晉)나라 때 무릉의 어부가 길을 잃고 복사꽃이 흩날리 내리오는 물길을 따라 거슬러 올라갔다가 진(秦)나라 때 난리를 피해 들어온 사람들을 만났는

쌍계사⁵⁶

雙溪寺

봄바람에 깊은 골짜기를 찾아	春風尋絕壑
지는 해에 가로지른 누대 ⁵⁷ 를 오른다	落日上橫樓
우연히 고상한 절조를 느꼈으니 ⁵⁸	偶爾逢雄節
이곳에서 호쾌한 유람을 하리라	茲焉辦勝遊
신선은 어느 곳으로 떠났다	仙翁何處去
스님은 지금까지 머물고 있는데	釋子至今留
한 번 취하여 밝고 맑은 달빛 아래 누우니	一醉臥華月
천고의 시름을 모두 잊겠네	都忘千古愁

데 그곳이 워낙 선경(仙境)이라서 그들은 바깥세상을 전혀 모른 채 살고 있었다고 한다.

- 56 쌍계사(雙溪寺) : 지리산에 있는 절이다. 최치원이 여기에서 글을 읽었다고 한다. 뜰에 거의 백 아름이나 되는 늙은 괴목(槐木)이 있는데, 최치원이 손수 심은 것이라고 한다. 《新增東國輿地勝覽 卷30 慶尙道》
- 57 누대 : 쌍계사 청학루(靑鶴樓)를 말하는 듯하다. 《勉菴集 附錄 卷3 年譜》《梅泉集 卷1 偕趙東石由雙溪寺上國師菴爲十日遊期宣悠然在箕王石藍師冲鄭茶海圭錫成南坡蕙永追到共賦》
- 58 우연히…느꼈으니 : ‘고상한 절조’는 최치원을 가리키는데, 쌍계사에서 최치원의 유적을 보고 그의 절조를 느꼈다는 뜻인 듯하다.

불일암⁵⁹

佛日

중국에선 일찍 벼슬길에 나아갔고	中州早就仕
만년엔 명산을 좋아하였지 ⁶⁰	晚節好名山
자취는 이미 하늘 너머로 아득한데	迹已遙天外
명성은 아직도 세상에 가득하구나	名猶滿世間
부처를 받드는 전각만 덧없이 남았고	空餘尊佛殿
하늘에 예를 올리는 제단은 볼 수가 없네 ⁶¹	未見禮天壇
산굴에서 나온 구름만 부질없이 남아서	出岫雲空在
외로이 날아갔다 다시 돌아오는구나 ⁶²	孤飛去又還

59 불일암(佛日菴) : 쌍계사에서 서쪽으로 10여 리 거리에 있는 암자이다. 벼랑과 골짜기가 아주 가팔라서 길을 낼 만한 곳이 없기에, 절벽 중간을 한 사람이 갈 수 있을 만큼 파서 길을 만들었다. 암자는 벼랑에 달아 맨 듯한데, 밑이 수백 길이나 된다. 용추(龍湫)와 학연(鶴淵)이라는 두 못이 있는데, 그 깊이를 알 수 없다. 《新增東國輿地勝覽 卷 30 慶尙道》

60 중국에선...좋아하였지 : 최치원은 868년(경문왕8) 12세의 나이로 당나라에 유학을 떠나, 874년에 예부시랑(禮部侍郎) 배찬(裴贖)이 주관한 빈공과(賓貢科)에 합격하여 벼슬길에 나아갔다. 신라로 귀국한 뒤 경륜을 펼치려 하였으나, 신분의 한계와 시대의 혼란 속에 외직(外職)을 전전하였다. 결국 경주 남산(南山), 지리산 등을 방랑하며 은거하였다.

61 하늘에...없네 : 신선이 되어 떠난 최치원을 기리는 곳이 없다는 뜻인 듯하다.

62 산굴에서...돌아오는구나 : 최치원의 호인 '고운(孤雲)'을 가지고 읊은 내용인 듯하다.

옥소암⁶³

玉簫菴

구름 따라 널빤지를 걸어 놓은 누각	緣雲掛板閣
아스라이 첩첩의 산봉우리에 기댔구나	縹緲倚層巔
난간에서 굽어보다가 땅이 없는가 의심하고	俯檻疑無地
처마를 따라 돌다가 하늘이 있음에 기뻐하네	巡簷喜有天
어디에서 부처가 될 수 있나	從何能做佛
이곳에 들어온 자가 진짜 신선이랴오	入此是真仙
잠깐 쉬는 사이에 혼백이 두려움에 떠느라	乍憩魂神悸
세상의 속박 모두 잊었다네	都忘世累纏

63 옥소암(玉簫菴) : 지리산 쌍계사 근처의 암자인 듯하다. 《白軒集 卷 11 智異僧三勒持軸以白江相公意來求首題》

신흥동⁶⁴

神興洞

철로 된 벽, 금과 은으로 된 땅	鐵壁金銀界
옥 누대의 옥 나무는 봄빛일세 ⁶⁵	瑤臺玉樹春
땅은 응당 산줄기와 물줄기 ⁶⁶ 를 독차지하였을 테고	地應專脈絡
하늘도 정신을 모았겠지	天亦聚精神

64 신흥동(神興洞) : 지리산 신흥사(神興寺) 근처의 지명인 듯하다. 《霽湖集 卷11 歷盡沿海郡縣仍入頭流賞雙溪神興紀行祿》

65 철로…봄빛일세 : 신흥동의 아름다운 경관을 묘사한 표현인 듯하다. 《국역 재호집(霽湖集)》〈역진연해군현입두류상쌍계신흥기행록(歷盡沿海郡縣仍入頭流賞雙溪神興紀行祿)〉에 “이윽고 석문을 나와 다시 무릉계를 건너 신흥동으로 들어가니 동천이 넓고 탁 트였다. 흰 돌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맑은 여울이 세차게 흐르는데 기이한 봉우리와 푸른 절벽이 우뚝 서서 둘러싸고 있으니, 칼날이 허공에 빼곡하고 죽순이 뾰족한 끝을 모은 듯해서 눈앞이 환하고 정신은 아찔하여 미칠 듯 흥이 일어났다. 시내의 북쪽에는 우거진 숲이 솟아 있었는데, 그 나무는 소나무, 단풍나무, 종가시나무, 상수리나무 등이 많으며 나머지는 모두 그 이름을 알지 못하였다. 번성한 가지와 오래된 넝쿨이 층층의 절벽과 무너진 바위에 섞여 있는데 열기설기 덮이고 얽힌 길이 그 속으로 나 있어서 위로 하늘을 볼 수 없었다. 이에 정오가 되었으나 가느다란 햇살도 땅에 비치지 않았으니, 이 또한 장관이었다. [既出石門，還渡武陵溪，入神興洞，洞天寬敞，白石離列，清湍激瀉，奇峯翠壁，矗立環擁，劍鏑叢空，玉筍攢穎，眼明神竦，興撥欲狂。川流之北，穹林攸擢，其樹多松楓檜櫟，餘皆莫識其名，繁枝老蔓雜於層崖崩石，而輻輳蒙終之路通其中，仰不覩天，日方亭午，不見纖穿在地，此亦壯觀也。]”라고 하였다.

66 산줄기와 물줄기 : 원문은 ‘脈絡’인데, 산의 주맥(主脈)과 지맥(支脈), 물의 주류(主流)와 지류(支流)를 말한다.

하나의 사찰 ⁶⁷ 이 깊은 산골짜기에 펼쳐지니	一刹披重岫
삼신 ⁶⁸ 은 다시 새로워짐을 기뻐하였네	三神喜再新
나그네가 이르러 만 가지 근심에서 깨어나니	客來醒萬慮
얼마나 수도 없이 뉘우치는지	懺悔幾塵塵

-
- 67 하나의 사찰 : 신흥사를 말하는 듯하다. 《국역 제호집(霽湖集)》〈역진 연해군현입두류상쌍계신흥기행록(歷盡沿海郡縣仍入頭流賞雙溪神興紀行祿)〉에 “금사도량은 화려한 건물이 영롱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종종걸음을 치며 제멋대로 할 수 없게 하였다. 절 앞에 누각이 있어 대사와 함께 올랐다. 산속 백 갈래의 시내가 합하여 한 줄기 물이 되어 누대 아래에 이르러 연못이 되었는데, 깊은 곳은 검은 색을 띠고 얇은 곳은 맑았다. 물 건너편 봉우리들은 모두 이 누대를 향하여 두 손을 마주잡고 읊하는 듯하였다.[金沙道場, 綺構玲瓏, 令人舉足躊躇, 不敢恣意. 寺前有樓, 與師同上, 山中百道之川合爲一水, 至樓下而爲淵, 深而黛黑, 淺而澄澈, 隔水峯巒皆若拱揖此樓然.]”라고 하였다.
- 68 삼신(三神) : 천신(天神), 지기(地祇), 산악(山岳)을 말한다.

두 번째

其二

길은 옥 누대 쪽으로 돌면서 들어가고	路入瑤臺轉
이내는 자부 ⁶⁹ 로 피어오르며 그윽해진다	霞蒸紫府幽
푸른 옥으로 만든 궁궐은 새벽처럼 밝고	琳宮明若曙
옥구슬로 지은 전각은 가을처럼 상쾌하네	珠殿爽如秋
걸을 때마다 발 내딛는 것을 잊고	步步忘投足
볼 때마다 번번이 눈을 비빈다오	看看動刮眸
도리어 도솔천 ⁷⁰ 의 경계가	還疑兜率界
정녕 신선의 언덕이 아닌가 하네	定是羽人丘

69 자부(紫府) : 도교에서 말하는 신선의 거처이다.

70 도솔천(兜率天) : 불교에서 네 번째 하늘이라고 하는 곳이다. 여기에는 내원(內院)과 외원(外院)이 있는데, 내원은 미륵보살(彌勒菩薩)의 정토(淨土)이고 외원은 천상의 중생들이 사는 곳이라고 한다.

동악⁷¹이 준 시⁷²에 차운하여 짓다

次東岳贈韻

생각해 보니, 지난날 양자도 ⁷³ 를 출발하여	念昔發楊子
외딴 배는 멀리 서쪽으로 향했지	孤帆遙向西
포구 깊은 곳에는 이내 낀 나무가 곧고	浦深煙樹直
하늘 먼 곳에는 눈 덮인 산봉우리가 가지런했네	天遠雪峯齊
고을은 누운 곳에서 다스리고 ⁷⁴	邑自臥邊理
시는 한가로이 지내면서 쓰는 것	詩從閒處題
동중서는 본래 낙척하였는데	董丞元落拓
하물며 대신의 배척을 입었음에야 ⁷⁵	況被大臣擠

-
- 71 동악(東岳) : 이안눌(李安訥, 1571~1637)의 호이다. 본관은 덕수(德水), 자는 자민(子敏), 시호는 문혜(文惠)이다. 18세에 진사시에 수석으로 합격하였으나 동료들의 모함을 받아 과거 볼 생각을 버리고 문학에 열중하였다. 29세 때 다시 과거에 나아가 문과에 급제하였다. 함경도 관찰사, 예조 판서, 형조 판서 등을 역임하였으며, 저서에 《동악집(東岳集)》이 있다. 평생 시를 짓는 데 힘써 4천 3백여 수의 시를 남겼다.
- 72 동악이 준 시 : 이안눌이 강화 부사 시절에 지은 <봉기조선술시에예조가참의회자영변봉이봉선전영정우송도야(奉寄趙善述時以禮曹假參議回自寧邊奉移奉先殿影頓于松都也)>를 말하는 듯하다. 《東岳集 卷12》
- 73 양자도(楊子渡) : 원문은 ‘楊子’인데, ‘楊子渡’를 말하는 듯하다. 이안눌의 시 <객리봉가절(客裏逢佳節)>중 세 번째 수에 “봄 깊은 양자도[春深楊子渡]”라는 구절이 보인다. 주석에 이 세 번째 수는 현석강의 집[玄石江畬]을 추억한 것이라고 하였다. 《東岳集 卷1》 현석강은 지금의 마포구 현석동 일대인 현석촌 앞을 흐르는 한강을 이른다라고 한다.
- 74 고을은…다스리고 : 한나라 때 급암(汲黯)이 동해 태수(東海太守)가 되었는데, 병이 많아 방에 누운 채 나오지 않았음에도 1년여 만에 동해가 잘 다스려졌다고 한다.《史記 卷50 汲鄭列傳》
- 75 동중서는…입었음에야 : 원문의 ‘董丞’은 동중서(董仲舒)를 말한다.

앞의 시에 다시 차운하여 짓다

再次前韻

이군⁷⁶이 지은 관사는 심(沈)에 의해 갑자기 철거되었는데, 심이 강가에 쌓은 성은 아직 남아 있으나 장차 무너질 것이기에 말한 것이다

눈은 산성 북쪽에 남았는데	雪殘山郭北
추위는 해구(海口) 서쪽에서 끝났네	寒盡海門西
우뚝 솟은 산봉우리엔 바람과 먼지가 걷히고	巒嶠風煙斂
설령 달린 처마엔 기후가 고르다	鈴簷氣候齊
좋은 벗은 어디에서 왔는가	良朋何處至
아름다운 시구를 이 때 짓는구나	佳句此時題
중요한 군진은 무위 ⁷⁷ 로 교화되니	重鎮無爲化
은혜로운 승진은 배척당한 것 아니지	恩陞不是擠

한 무제(漢武帝) 때 동중서는 공손홍(公孫弘)에게 미움을 받아 교서왕(膠西王)의 승(丞)으로 좌천되었는데, 후에 벼슬을 그만두고 저술에 힘쓰다 생을 마쳤다. 《漢書 卷6 武帝紀, 卷56 董仲舒列傳》 이안눌은 1617년(광해군9) 비변사의 천거로 강화 부사가 되었는데, 1618년 9월 사간원의 논핵으로 추고를 당하였다. 《韓國文集叢刊解題 東岳集》

76 이군(李君) : 이안눌을 말한다.

77 무위(無爲) : 아무 일도 하지 않으나 세상이 잘 다스려지는 무위지치(無爲之治)를 뜻한다. 《논어(論語)》〈위령공(衛靈公)〉에 “인위적으로 행하지 않고 다스린 이는 순임금이실 것이다. 무엇을 하셨겠는가. 몸을 공손히 하고 바르게 남쪽을 향해 앉아 계셨을 뿐이다. [無爲而治者, 其舜也與. 夫何爲哉! 恭己正南面而已矣.]”라고 하였다.

두 번째

其二

하늘이 하는 일은 사람의 힘으로 맞서기 어려운 법	天作難人力
무엇 때문에 사신의 수레는 서쪽으로 향했던가	胡然使蓋西
허공에 걸렸던 다리는 번개 따라 사라져 버렸는데	飛梁隨電滅
높은 성가퀴는 구름과 나란하다오	危堞與雲齊
모두 잠겨 버릴 성만 부질없이 남았고	漫有城皆浸
도리어 시를 적을 만한 기둥은 없구나	還無柱可題
홀로 가련히 여기네, 경치 좋은 땅에서	獨憐形勝地
이루어지고 무너지는 것이 배척에 달렸음을	成毀任排擠

화담⁷⁸ 무오년(1618, 광해군10)

花潭 戊午

길이 숨어 산은 여전히 고요하고	道隱山猶靜
사람이 없어 땅은 절로 그윽해지네	人亡地自幽
못에 비치는 꽃은 비단이 거꾸로 박힌 듯	照潭花倒錦
바위에 쏟아지는 물은 기름이 영긴 듯	瀉石水凝油
말을 세웠다 다시 길을 잊었고	駐馬還忘路
술잔 앞에 두고 다시 시름이 이네	臨杯更起愁
고생과 위험도 이렇게 느닷없을 터이니	艱危遽如許
먼 길 가며 지체할 수 있으랴	行邁可遲留

78 화담(花潭) : 개성(開城) 오관산(五冠山)의 화담을 말하는 듯하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경기 장단도호부(長湍都護府) 편에 들어가 있다. 그에 따르면, 화담은 영통동(靈通洞) 어귀에 있는데 화암(花巖)이라고도 한다. 화담 왼편에는 푸른 절벽이 우뚝 서서 그림 병풍을 쳐 놓은 듯하고, 봄이면 바위틈에 철쭉꽃이 만발하여 물 밑으로 붉게 비친다고 한다. 화담 오른편에는 조그마한 바위가 있어 사면(四面)이 깎아지른 듯한데, 그 위에는 또 네 귀퉁이에 장막을 쳤던 구덩이도 있다고 한다.

봄날 만흥

春日漫興

나는 석 달의 봄 흥을 감당하지 못하여
꿈속에 있는 게 아닌가 하네
눈은 복사꽃 기운에 취하고
혼은 버들개지 날리는 바람에 헤매는구나
새는 무슨 뜻으로 우나
벌은 동쪽 서쪽에서 시끄럽네
오직 시만 잘 쓸 수 있는데
시구가 공교롭지 않으니 어찌하나

三春吾不勝
疑在睡鄉中
眼醉桃花氣
魂迷柳絮風
鳥啼何意思
蜂鬧自西東
唯有詩能寫
其如句未工

교하 별장에 투숙하다 기미년(1619, 광해군11)

投宿交莊 己未

비 내리는 경치 저물녘에 좋으니	雨色好斜日
길이 험난한 건 논할 바 아니라네	路難非所論
산의 갈까마귀는 오래된 나무에서 울고	山鴉號古木
마을의 개는 사립문에서 짖는구나	村犬吠柴門
밤이 되면 물고기와 게를 잡고	入夜謀魚蟹
아침 내내 술 마시기를 일삼지	崇朝事酒尊
가을바람에 고향의 흥 풍족하니	秋風鄉興足
덧없는 벼슬길은 꿈속에도 흔적이 없구나	浮宦夢無痕

권 수사⁷⁹ 상정 에게 주다 경신년(1620, 광해군12)

贈權秀士 尙正 庚申

공문서는 나의 단점을 고쳐주는데	簿領攻吾短
봄 날씨는 춥고 외직으로 나가는 일 더디네	春寒出閣遲
노쇠하기 쉬운지라 자주 거울을 잡고	易衰頻把鏡
병이 많은지라 시 짓는 일에 게으르네	多病懶題詩
눈은 담장 그늘 속 대나무에 가득하고	雪滿牆陰竹
얼음은 난간 밖 못을 가로질러 있네	氷橫檻外池
남에서 온 친구가 다시 찾아 주었으니	南來蒙再訪
무엇보다 고인의 지우가 고맙네	最荷故人知

79 권 수사(權秀士) : 권 수사는 권상정(權尙正)으로, 인조 때 별좌(別坐), 사축서 별제(司畜署別提), 조지서 별제(造紙署別提), 소촌 찰방(召村察訪) 등을 지냈다. 수사는 원래 덕행(德行)과 재예(才藝)가 출중한 선비를 일컫던 말이다. 《예기》〈왕제(王制)〉에 “각 고을에서 빼어난 인사[秀士]를 논하여 사도(司徒)에게 올리는데, 이를 선사(選士)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천향정에서 밤에 술 마시고 신 찰방⁸⁰ 상철 을 이별하
며 주다

天香亭夜飲 贈別申察訪 尙哲

땅이 궁벽함은 높은 산줄기에 가깝기 때문이니	地偏由近嶺
계절은 반이나 지났는데 봄기운이 아직 퍼지지 않았네	節半未舒春
굽이치는 못에서 밝은 달을 만났고	曲沼逢明月
화려한 난간에서 친구를 이별하네	雕闌別故人
흥취는 피어나려는 매화를 따르고	興隨梅欲放
수심은 눈썹 찌푸리려는 버드나무 ⁸¹ 로 들어가네	愁入柳催顰
역사 ⁸² 가 부지런히 왕래하리니	驛使勤來往
그대는 시통을 자주 부쳐줄 수 있으리라	詩筒尙寄頻

80 신 찰방(申察訪) : 조선 중기 문신 신상철(申尙哲, 1585~1632)이다. 본관은 평산(平山)이고 자는 명숙(明叔)이며 호는 나은(懶隱)이다. 우복(愚伏) 정경세(鄭經世)의 제자로서 정묘호란 때에는 호조 낭관으로 임금을 호종하였다. 뒤에 전주 판관과 호조 정랑, 안동 판관 등을 지냈는데 지방관으로 있을 때는 청렴과 근엄으로 선정을 베풀었다고 전한다.

81 눈썹 찌푸리려는 버드나무 : 버들이 눈썹을 찌푸린다는 말은 이른 봄에 버드나무가 싹을 틔웠다는 의미이다. 버들잎이 가늘고 길기 때문에 눈썹에 비유한 것이다.

82 역사(驛使) : 여기에서 역사는 시를 전달하는 사람을 말한다. 남북조 시대 육개(陸凱)가 강남에 있을 때에 역졸을 시켜 매화 한 가지를 장안(長安)에 있는 벗 범엽(范曄)에게 보내면서 시를 함께 부쳤는데, 그 시에 “매화를 꺾다 역졸을 만나, 농두에 사는 그대에게 부친다오. 강남에는 있는 게 없어, 그저 봄 실은 가지 하나 보낸다오. [折花逢驛使, 寄與隴頭人. 江南無所有, 聊贈一枝春.]”라고 하였다. 《說郛 卷13上 折梅遣使始於諸發不始於陸凱》

창석⁸³의 계당에서 우복⁸⁴ 정경세를 만나다 ○신유년(1621,
광해군13)

蒼石溪堂 會愚伏 鄭經世 辛酉

나무는 아마도 인자⁸⁵가 심은 것이고
못도 습씨가 뚫은 계⁸⁶ 아니라

樹豈安仁種
池非習氏穿

-
- 83 창석(蒼石) : 이준(李峻, 1560~1635)의 호이다. 본관은 흥양(興陽), 자는 숙평(叔平),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유성룡(柳成龍)의 문인이다. 1591년(선조24) 별과(別科)에 합격하여 예조 정랑, 단양 군수를 지내다 1603년(선조36) 경상 좌도 재상 경차관(災傷敬差官)이 되었다. 이듬해에 세자책봉 주청사(世子冊封奏請使) 이정귀(李廷龜)의 서장관이 되어 중국에 갔다. 이후 교리, 동부승지, 우승지, 삼척 부사 등을 역임하였다. 상주(尙州) 옥성서원(玉成書院)에 봉안되었으며, 문집인 《창석집》이 전한다.
- 84 우복(愚伏) : 정경세(鄭經世, 1563~1633)의 호이다. 본관은 진주(晉州), 자는 경임(景任)이며 문장(文莊)은 그의 시호이다. 1610년(광해군2) 4월 성균관 대사성이 되었고, 이듬해 8월 정인홍(鄭仁弘) 일당의 탄핵으로 해직되었다. 1623년 3월 인조반정으로 흥문관 부제학에 제수되었다. 이후 대사헌, 승정원 도승지, 의정부 참찬, 형조 판서, 예조 판서, 이조 판서, 대제학 등의 관직을 두루 거쳤다. 그는 이황(李滉)의 학문을 계승하였고, 또한 주자(朱子)를 흠모하여 주서(朱書)를 편람·정독하였다. 저서로는 《우복집》, 《주문작해(朱文酌海)》, 《상례참고(喪禮參考)》 등이 있다.
- 85 인자(仁者) : 원문의 ‘안인(安仁)’은 인자를 말한다. 《논어》〈이인(里仁)〉에 “인자는 인을 편안히 여기고 지자는 인을 이롭게 여긴다.[仁者安仁, 知者利仁.]”라고 하였다.
- 86 습씨(習氏)가 뚫은 계 : 매우 아름다운 연못을 말한다. 옛날 중국 양양(襄陽)의 호족(豪族)인 습씨들이 아름다운 원지(園池)를 소유하였는데, 습씨들의 양어지(養魚池)인 습씨지(習氏池)가 특히 유명하였다. 산간(山簡)이 양양 태수(襄陽太守)로 있을 때 이곳의 빼어난 경치

새 우는데 산은 적막하고	鳥啼山寂寂
꽃 떨어지는데 물은 졸졸 흐르네	花落水涓涓
인간 세상을 벗어나지 않았건만	不出人間世
도리어 지상 신선을 만났어라	還逢地上仙
이제야 알겠네 계서의 꿈 ⁸⁷ 이	仍知雞黍夢
작은 인연이 아니라는 것을	非是小因緣

를 사랑하여 매번 와서 술을 마시고 갔다고 한다. 《晉書 卷43 山簡列傳》

- 87 계서의 꿈[雞黍夢] : ‘계서의 꿈’이란 닭 잡고 기장밥 지어 대접하겠다는 약속을 말하는데, 친구 사이에 우의가 깊어 만나기로 한 약속을 지키는 의미로 쓰인다. 한(漢)나라 범식(范式)은 자가 거경(巨卿)으로 산양(山陽) 금현(金縣) 사람이고, 장소(張劭)는 자가 원백(元伯)으로 여남(汝南) 사람인데, 둘은 평소 태학(太學)에서 함께 공부하면서 우정이 매우 두터웠다. 두 사람이 이별할 때 범식이 장소에게 “2년 뒤 돌아올 때 그대의 집에 들르겠다.”라고 하였다. 꼭 2년째가 되는 날인 9월 15일에 장소가 닭을 잡고 기장밥을 짓고 범식을 기다리자 그 부모가 웃으며, “산양은 여기서 천 리나 멀리 떨어진 곳인데, 그가 어찌 기필코 올 수 있겠느냐.”라고 하였다. 이에 장소가 “범식은 신의 있는 선비이니, 약속 기한을 어기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는데,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범식이 당도하였다 한다. 《後漢書 卷81 范式列傳》

명연

鳴淵

시내 골짜기 속세를 벗어났는데	礪壑超人境
소나무 바위가 특히 맑아라	松巖特地清
은빛 폭포를 쏟아놓는 듯하고	似將銀瀑瀉
옥룡을 보내어 울게 하는 듯하네	如送玉蚪鳴
새벽 비에 작은 우레 소리	曉雨輕雷響
석양에 잡패 ⁸⁸ 소리	斜陽雜佩聲
봄철 내내 좋은 정취가 없었는데	一春無好況
이 소리 듣자 그윽한 심사와 딱 맞네	聽此愜幽情

88 잡패(雜佩) : 형(珩)·황(璜)·거(琚)·우(瑀) 등 각종 패옥이 하나로 이어진 옥 장식을 말한다. 《시경》〈여왈계명(女曰雞鳴)〉 제3장에 “그대가 오게 한 분임을 알면 잡패를 선물할 것이며, 그대가 사랑하는 분임을 알면 잡패를 줄 것이며, 그대가 좋아하는 분임을 알면 잡패로써 보답하리라.[知子之來之，雜佩以贈之。知子之順之，雜佩以問之。知子之好之，雜佩以報之.]”라고 하였다.

길을 따라가며 유파곶록 ○임술년(1622, 광해군14)

沿路 游葩串錄 壬戌

영각 ⁸⁹ 의 공문서를 떠나자	鈴閣謝公簿
골짜기 구름 속 좁은 길이 가느다랗네	洞雲行逕微
바위를 좋아하여 자주 자리를 옮기고	愛巖移席屢
시냇물을 따라가느라 드문드문 채찍을 드네	沿澗擧鞭稀
상쾌한 소리는 바람을 따라 일어나고	爽籟隨風發
거센 여울은 바위에 부딪혀 날리네	豪湍觸石飛
앞 숲에 어둠이 다가온 걸 알았지만	前林知近暝
깊이 완상하느라 도리어 돌아가길 잊었네	耽玩輒忘歸

89 영각(鈴閣) : 지방 수령이 집무하는 곳이다. 이때 현주는 상주 목사(尙州牧使)로 재직하고 있었다.

개구암

開口巖

옛날에는 말할 수 있는 돌이 있었는데 ⁹⁰	古有能言石
바위는 지금 말하려다 그친 형상일세	巖今欲語休
무엇 때문에 개구암인가	胡爲是開口
애써 물어도 머리를 돌리지 않네	強問不廻頭
큰 바닷물 삼키려 떠나지 ⁹¹ 아니하고	未吞滄海去
때때로 목은 구름 들이마시며 ⁹² 머물러 있네	時吸宿雲留

90 옛날에...있었는데 : 진(晉)나라 위유 지방에서 돌이 말을 했다[石言于晉魏榆]는 소문과 관련하여, 사광(師曠)이 임금에게 ‘사기궁(虬祁宮)을 화려하게 짓느라고 기력이 고갈되어 백성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대변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 그 내용 중에 “돌이 말하지 못하는 물건이지만, 혹시 신이 붙어서 말할 수도 있는 일이고, 아니면 백성들이 잘못 들었을 가능성도 있다.[石不能言, 或馮焉, 不然民聽濫也.]”라는 말이 있다. 《春秋左氏傳 昭公8年》

91 큰...떠나지 : 바다로 가는 바위는 전설로 전하는 진 시황(秦始皇)의 석교(石橋) 고사에서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진(晉)나라 복심(伏深)의 《삼제약기(三齊略記)》에 진 시황이 동해(東海)에 바윗돌로 징검다리를 놓아 바다를 건너가서 해가 뜨는 곳을 보려고 하자, 신인(神人)이 바위를 바다로 몰고 가면서 채찍질을 하였으므로 바윗돌이 모두 피를 흘리며 붉게 변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92 목은 구름 들이마시며 : 깊은 산 바위에 구름이 부딪혀서 일어난다고 하여 이 바위를 구름의 뿌리, 즉 운근(雲根)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끌어온 것으로 보인다. 두보(杜甫)의 시에 “충주 고을은 삼협 안에 있는지라, 마을 인가가 운근에 모여 있네.[忠州三峽內, 井邑聚雲根.]”라고 하였는데, 그 주(註)에 “오악의 구름이 바위에 부딪혀 일어나기 때문에, 구름 뿌리라고 한 것이다.[五嶽之雲觸石出者, 雲之根也.]”라고 하였다. 《杜少陵詩集 卷14 題忠州龍興寺所居院

이 세상은 다투어 입을 닫으려 하니
도리어 너를 보고 부끄러워하리라

斯世爭緘結
還應見爾羞

壁》

차운하여 박상사⁹³의 계당에 쓰다

次題朴上舍溪堂

높다란 푸른 산기슭을 깎아내고	碧斲崇崇麓
띠 풀로 짧은 처마를 세웠네	茅開短短簷
창이 텅 비어 구름이 몰래 통과하고	窓虛雲暗透
수풀이 터져 있어 달이 교묘히 엿보누나	林缺月工覘
산 빛은 가을을 만나 줄어들었고	山色逢秋減
시내 소리는 비를 얻어 더해졌네	溪聲得雨添
기심을 그치자 속세의 속박이 없어졌으니	息機無俗累
심정이 절로 편안하고 고요하네	心想自安恬

93 상사(上舍) : 상사는 조선 시대 성균관의 유생으로서 생원시(生員試)나 진사시(進仕試)에 합격한 사람을 가리킨다.

두 번째

其二

밭을 걷자 청산이 들어오고	捲箔青山入
난간에 임하니 맑은 물결 가로질렀네	臨軒白水橫
산봉우리와는 원래 옛 교분이 있고	螺鬢元有素
갈매기 노니는 물가는 옛 맹서를 거듭 생각하게 하네 ⁹⁴	鷗渚爲尋盟
비바람에 가을은 장차 저물려 하고	風雨秋將晚
천지는 기가 고르지 않네	乾坤氣不平
초가집이 홀로 태곳적이니 ⁹⁵	茆堂獨太古
노래 부르고 시 읊조리며 한가로운 정을 도맡았네	嘯詠管閒情

94 갈매기…하네 : 갈매기와의 맹서를 의미하는 구맹(鷗盟)은 갈매기와 짝이 된다는 의미로서 흔히 은거함을 말한다. 육유(陸游)의 시 <숙흥(夙興)>에 “학의 원망은 누구를 의지해 풀거나, 백구와의 맹세 이미 식었을까 염려되네.[鶴怨憑誰解, 鷗盟恐已寒.]”라고 하였다.

95 초가집이 홀로 태곳적이니 : 요 임금이 천자가 되어 명당(明堂)을 짓되, 흠으로 섬들을 3척(尺) 가량 쌓고 띠로 지붕을 이어 자르지 않았다.《太平御覽 百卉茅》 여기에서는 자신의 집이 초가집이기에 요순 시절에 비의한 것이다.

순상⁹⁶의 시에 차운하다 계해년(1623, 광해군15)

次巡相韻 癸亥

산들바람이 늦더위를 무찌르니	微風塵老暑
한가로운 날 회포 풀기 좋구나	暇日好開襟
순상 집무실엔 거문고 책들이 고요하고	鈴閣琴書靜
순상 영문엔 계극 ⁹⁷ 이 삼엄하네	轅門檠戟森
뜻에 맞는 사람은 없지만	無人能會意
술이 마음을 아는 벗이니	有酒是知心
어찌 이것을 끊을 필요가 있으리오	此物何須斷
취한 뒤 시 읊는 일이 빈번하길 바라네	要頻醉後吟

96 순상(巡相) : 조선 시대에 도 안의 군무를 순찰하는 벼슬인 순찰사(巡察使)를 가리키는 말로 각 도의 관찰사(觀察使)가 겸임한다. 또 난리 때에 왕명으로 지방의 군무를 순찰하는 임시 벼슬을 가리키기도 한다.

97 계극(檠戟) : 적흑색 비단으로 짠 나무창으로, 고대에 관리가 쓰던 의장의 일종이다. 출행할 때에는 맨 앞의 병사가 이 창을 들고 전도(前導)가 되며, 임소에 당도한 뒤에는 문정(門庭)에 세워 놓는다.

다시 차운하다

再次

단비가 순상을 머무르게 하고	佳雨留星使
맑은 바람은 옥설 같은 흥금을 씻어주네	清風洒雪襟
곤궁한 사람의 침울한 마음을 열어주고	窮途開壹鬱
늦더위의 무겁고 무성한 기운도 물리쳤네	老暑謝沈森
청운 향해 달리는 고삐를 구하지 않으니 ⁹⁸	未借青冥鞵
누가 머리 센 이의 마음을 알겠는가	誰知白首心
이에 향기로운 술 마시길 청하노니	仍要芳酒御
시 읊조리기를 좋아하기 때문일세	爲愛好詩吟

98 청운(靑雲)…않으니 : 한유(韓愈)의 <현재유감(縣齋有感)>에 “비록 대궐의 시종신이 되긴 했지만, 어찌 청운을 향해 고삐 놓아 달리랴.[雖陪彤庭臣, 詎縱靑冥鞵.]”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따라서 영달(榮達)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병이 낫다

病起

갑자년(1624, 인조2) 봄 병이 깊어 죽을 뻔하다 삼월 초에 교하(交河)⁹⁹ 별장에 나와 누웠는데 그믐날 비로소 지팡이에 의지해 일어나 호숫가 정자에 서다

저물녘 호숫가 정자에서 병든 몸 일으켰으니	病起湖亭晚
봄날 머리 센 노인이로다	青春鶴髮翁
물가의 소는 연녹색 풀에 의지해 있고	渚牛依軟綠
산 나비는 시든 꽃을 안고 있네	山蝶抱殘紅
땅은 두터워 불어난 강물을 실었고	地載高江厚
하늘은 텅 비어 큰 들녘을 둘러쌌구나	天圍大野空
이 몸으로 건강을 시험하고 싶어	欲將身試健
마음 내키는 대로 봄바람에 섰다네	隨意立東風

99 교하(交河) : 현재 파주시에 속한다. 조선 시대에는 경기 교하현(交河縣)이었다.

이충의에게 주다

贈李忠義

숲의 뿌연 구름 기운 개이고	漠漠林霏霽
흐릿하던 들녘 해는 밝아졌네	荒荒野日明
국화는 만년의 절조를 자랑하고	黃花誇晚節
붉은 낙엽이 가을 소리를 알리네	紅葉報秋聲
아득한 포구로 돌아가는 배는 무겁고	極浦歸帆重
둥근 모래밭에 내려앉는 기러기는 가벼워라	圓沙落雁輕
종전부터 백발이 많았는데	向來饒白髮
하물며 십 년의 정을 찾아감에 있어서라	況討十年情

가을 뒤 즉사 을축년(1625, 인조3) 회양록

秋後卽事 乙丑 淮陽錄

한 해 저물 때 병들어 한 번 누우니	一臥年華晏
찬 기운 더해지고 양 귀는 어두워라 ¹⁰⁰	寒添兩耳聾
골짜기 구름은 가을이라 비 내리기 쉽고	峽雲秋易雨
붓도랑의 물은 밤이라 바람이 많도다	隴水夜多風
땅이 척박하니 관아 주방 음식이 초라하고	地瘦官廚薄
요역이 번잡하여 들녘의 집이 텅 비었네	徭煩野戶空
노쇠하여 점차 대머리가 되는 걸 근심하지 않고	不愁衰漸禿
다만 유민이 줄어든 일 기뻐한다네	還喜減飛蓬

100 한...어두워라 : 회양은 강원도 북동쪽에 위치한 고을로 추위와 바람이 심하였다. 이때 현주는 회양 부사(淮陽府使)로 나가 있었는데, 병세가 악화되어 갑자기 귀가 들리지 않아 고생이 심하였다. 《玄洲集 謝左台遣醫啓》

초당에 쓰다 병인년(1626, 인조4)

題草堂 丙寅

사월이라 얼음이 막 풀리고	四月氷初解
하늘이 따뜻하여 북풍이 그쳤네	天暄霽朔風
강가 구름은 낚시 바위에서 걷히고	江雲開釣石
들녘 햇빛에 늙은 농부 나왔다네	野日出田翁
어린 참새는 앞다투어 가는 털을 입에 물고	乳雀爭含毳
시골 닭은 소리치며 벌레를 쫓아 댄다	村鷄喚啄蟲
땅이 궁벽져 절기가 더디오니	地偏遲節候
꽃 소식을 나무꾼 아이에게 물어보네	花事問樵童

고산 찰방¹⁰¹ 허적 에게 주다

贈高山察訪 許

소리가 들리지 않은 지 오래라 귀 없는 것과 같거니와 聾久如無耳	
상고 시대에 총민함을 간직한 모습 ¹⁰² 은 아니로다 聰非上世습	
이제 다시 말을 알아듣지 못해 잘못되어 버렸으니 今還失重聽	
사람들도 자주 말해주기를 그치네 人亦息多談	
일곱 구멍의 공이 가장 높은 줄 알겠고 ¹⁰³ 七竅功知最	

101 고산 찰방(高山察訪) : 허적(許, 1563~1641)으로 본관은 양천(陽川), 자는 자하(子賀), 호는 수색(水色)이다. 1626년(인조4) 성균관 사예(成均館司藝)로 재직 중 조정의 예의를 지키지 않고 제례를 그릇되게 시행하였다는 탄핵을 받기도 하였다. 1628년(인조6) 유효립(柳孝立)의 모반사건에 공을 세워 영사 공신(寧社功臣)에 녹훈되고 양릉군(陽陵君)에 책봉되었다. 이후 판서에까지 올랐다. 시문에 능하였으며, 저서로 《수색집》이 있다.

102 총민함을 간직한 모습 : 《장자(莊子)》 <거협(胠篋)>에 “사람들이 모두 안으로 명민함을 간직하면 천하가 어지럽지 않을 것이고, 사람들이 모두 안으로 총민함을 간직한다면 천하가 우환이 없을 것이며, 사람들이 안으로 지혜를 간직한다면 천하가 현혹되지 않을 것이고, 사람들이 안으로 덕성을 간직한다면 천하가 치우치지 않을 것이다.[彼人含其明, 則天下不鑠矣, 人含其聰, 則天下不累矣, 人含其知, 則天下不惑矣, 人含其德, 則天下不僻矣.]”라고 하였다.

103 일곱...알겠고 : 《장자(莊子)》 <응제왕(應帝王)>에 “남해제(南海帝) 숙(儻)과 북해제(北海帝) 흘(忽)이 중앙제(中央帝) 혼돈(渾沌)의 후한 대우에 보답하려는 생각으로 ‘사람들은 다 일곱 구멍이 있어 보고 듣고 먹고 숨 쉬고 하는데 혼돈만이 없으니 한번 시험해 보자.’ 하고, 하루에 구멍 하나씩 뚫어 이레 만에 구멍 일곱을 뚫었는데 혼돈은 그만 죽고 말았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일곱 구멍은 감각을 의미하고 《장자》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감각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삼생의 죄 또한 부끄러워라

三生罪亦慙

영접한 뒤 떨어져서 말없이 쳐다만 보니

逢迎違脈脈

도리어 어리석고 말 못 하는 병을 부러워하네

却羨病癡瘖

풍악산을 읊다

咏楓岳

천덕사(天德寺)¹⁰⁴에서 일월봉(日月峯)을 바라보다. 시왕동(十王洞)¹⁰⁵에는 지옥문(地獄門)이 있다

기이한 경관을 찾는 것은 옷깃을 잡는 것 ¹⁰⁶ 과 같으니	探奇如挈領
몹사람의 눈을 번거롭게 할 필요 없다네	衆目不須煩
일월봉은 천덕사에 선명하고	日月明天寺
바람과 구름은 지옥문을 호위하네	風雲護地門
천 개의 봉우리는 백마처럼 서 있고	千峯白馬立
만 개의 폭포는 푸른빛 운하처럼 내달리네	萬瀑碧霞奔
평생의 노쇠함이 한스러운 것은	百年衰老恨
구룡폭포 ¹⁰⁷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일세	未遡九龍源

104 천덕사(天德寺) : 금강산에 있는 절이다.

105 시왕동(十王洞) : 금강산 장안사(長安寺) 부근에 있는 깊은 골짜기로 미타봉(彌陀峯)과 지장봉(地藏峯) 사이에 있다. 여기에는 단지 영원암(靈元菴)이 있을 뿐이며 어떤 이는 백천동(百川洞)이라고도 부른다.

106 옷깃을 잡는 것[挈領] : 요점을 움켜잡는다는 의미이다.

107 구룡폭포(九龍瀑布) : 일명 중향폭포(衆香瀑布)라고도 하며, 개성의 박연폭포, 설악산의 대승폭포와 함께 우리나라 3대 폭포의 하나이다. 구정봉(九井峰)에서 뿜어 내린 구정대(九井臺)의 깎아지른 듯한 벼랑에서 떨어지는 폭포수가 매우 웅장하며 세차다. 폭포수가 떨어지는 곳에는 구룡연(九龍淵)이 있고, 폭포 위에는 여덟 개의 맑고 푸른 못인 상팔담(上八潭)이 있다.

강 천사¹⁰⁸의 한강 시에 차운하다 빈접록 3수

次姜天使漢江韻 ○擯接錄 ○三首

수많은 별은 밤에 북극성을 향하고 ¹⁰⁹	夜拱千星北
수 없는 강물은 동으로 바다를 향해 흘러가네 ¹¹⁰	朝宗萬水東
달은 갈매기 나는 물가를 하얗게 비추고	月臨鷗渚白
노을은 노랑진을 붉게 칠하였네	霞抹鷺梁紅
꼭 삼도 ¹¹¹ 만이 경치가 뛰어난 것은 아니며	不必三都勝
어찌 꼭 칠택 ¹¹² 만이 웅장하리오	何須七澤雄

-
- 108 강 천사 : 현주(玄洲)는 55세(1626년, 인조4) 때, 김류(金瑬)의 추천으로 중국 사신을 접대하고 <빈접록(擯接錄)>을 지었다. 이때 온 중국 사신은 강일광(姜日廣)과 왕몽윤(王夢尹)이니 강 천사는 강일광을 말한다.
- 109 수많은…향하고 : 못별이 북극성을 향하는 것처럼 덕정(德政)을 펼치는 중국의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겠다는 말이다. <논어> <위정(爲政)>에 “덕정(德政)을 펴면, 북극성이 제자리에 있고 못별들이 이를 향하는 것처럼 될 것이다. [爲政以德, 譬如北辰居其所, 而衆星拱之.]”라고 하였다.
- 110 수 없는…흘러가네 : 원문의 ‘조종(朝宗)’은 원래 제후가 천자에게 가서 뵈는 것으로 봄에 뵈는 것을 ‘조(朝)’라 하고 여름에 뵈는 것을 ‘종(宗)’이라 하는데, 강물이 바다에 들어가는 것 역시 제후가 천자국에 가는 것과 같다 하여 조종이라 한다. 명나라 천자를 알현하러 가는 조선의 정성과 노력을 의미한다.
- 111 삼도(三都) : 삼국 시대의 세 나라의 도읍인 위도(魏都), 촉도(蜀都), 오도(吳都)를 말한다. 진(晉)나라의 문장가인 좌사(左思)가 10년 동안 고심하여 구상한 끝에 <삼도부(三都賦)>를 완성했는데, 이것이 <촉도부(蜀都賦)>·<오도부(吳都賦)>·<위도부(魏都賦)>이다. 이 문장들은 천하에 명문(名文)으로 알려졌다.
- 112 칠택(七澤) : 옛날 초나라에 있었다고 전하는 일곱 곳의 거대한 소택(

한가로이 저녁 닷줄을 푸니
바람 부는 화려한 배에서 약간 취했다네

從容解夕纜
微醉錦帆風

沼澤을 가리킨다. 사마상여(司馬相如)의 <자허부(子虛賦)>의 대략에 “신은 초나라에 일곱 소택이 있다고 들었는데, 일찍이 그중 하나만 보았고 그 나머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신이 본 것은 다만 그중에 아주 작은 것인데 운몽택이라 하더이다.[臣聞楚有七澤，嘗見其一 未觀其餘也。臣之所見，蓋特其小小者耳，名曰雲夢.]”라고 하였다. 《史記 卷 117 司馬相如列傳》

두 번째

其二

신선의 수레 ¹¹³ 가 구름에서 내려오니	飄馭雲間下
나는 신선이 지상에서 노닐도다	飛仙地上遊
바람을 따라 배를 함께 띄우니	舟因風共泛
강물은 달빛과 함께 흘러라	江與月同流
경물은 호대하여 규정하기 어렵고	物象浩難定
연무는 가득하여 거두지 못하겠네	煙霞迷不收
배신 ¹¹⁴ 이 외람되이 빼어난 경치 구경 함께 하노니	陪臣叨勝賞
하늘과 땅은 어찌 이다지도 아득한가	天壤一何悠

113 신선의 수레 : 원문의 '표어(飄馭)'는 신선이 타는 수레로 바람을 타고 하늘을 나는데, 중국 사신의 행차를 비유한 것이다.

114 배신(陪臣) : 제후국의 신하를 일컫는 말로, 여기서는 조선의 신하를 말한다.

세 번째

其三

푸른 강기슭에선 깃발을 거두고	翠岸旌旗卷
맑은 강에선 북과 뿔나팔 소리 시끄럽네	淸江鼓角喧
달이 나오자 나무 그림자가 물에 뜨고	月生浮樹影
조수가 물러나자 모래 벌 흔적 드러나네	潮退露沙痕
술잔의 술은 시 짓는 공이 있고	杯酒詩功在
산하엔 천자의 힘이 남아 있네	山河帝力存
어찌 견딜 수 있으랴 신선의 신발 돌아가 ¹¹⁵	那堪仙舄返
구름 너머 황궁 문에 아득한 것을	雲隔杳天門

115 신선의 신발 돌아가 : 중국 사신들이 명나라 황궁으로 돌아감을 말한다. 후한(後漢) 때 하동(河東) 사람 왕교(王喬)가 섭현(葉縣)의 수령으로 있으면서 자주 도성에 드나들었는데, 그가 도성에 올 때 수레나 말이 전혀 보이지 않고 오직 두 마리의 오리만 날아오자,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겨 그물로 오리를 잡아보니 그물 속에 왕교가 섭현의 수령으로 부임할 때 조정에서 하사한 신발 한 짝만 있었다는 고사를 인용한 것이다. 《後漢書 卷82 王喬列傳》

택당¹¹⁶에게 주다 ○경오년(1630, 인조8) 전주록

贈澤堂 ○庚午 善州錄

월파정(月波亭)¹¹⁷ 위에서 청운군(靑雲君)¹¹⁸과 이별하게 되었는데
이때 종이를 펴서 장난삼아 써 주어 전하게 하다

사치를 몰아냄은 덕을 숭상함을 밝히는 것이라 하니 黜侈明崇德
이 말이 명문대가와 어울리네 斯言可大門
한 쌍의 사슴 가죽¹¹⁹은 아득한 태소¹²⁰ 시절의 예물이고 儷皮太素遠

116 택당(澤堂) : 이식(李植, 1584~1647)의 호이다. 본관은 덕수(德水), 자는 여고(汝固)이며 시호는 문정(文靖)이다. 1610년(광해군2)에 별시 문과에 급제하여 1613년(광해군5) 설서를 거쳐 1616년(광해군8) 북평사(北評事)가 되고, 이듬해 선전관을 지냈다. 대사간, 대사성, 대사헌, 형조 판서, 이조 판서, 예조 판서 등을 역임하였다. 문장에 뛰어나 신흠(申欽)·이정귀(李廷龜)·장유(張維)와 함께 한문사대가(漢文四大家)로 꼽혔다. 저서에 《택당집》 등이 있다.

117 월파정(月波亭) : 경북 선산(善山)에 있던 정자로 현주의 제자인 방원량(房元亮)이 소유한 누각이다.

118 청운군(靑雲君) : 심명세(沈命世, 1587~1632)를 가리킨다. 본관은 청송(靑松)이고 자는 덕용(德用)이다. 광해군의 난정(亂政)으로 벼슬에 뜻을 버리고 은거하던 중 인조반정에 공을 세워 정사 공신(靖社功臣) 2등에 책록되어 청운군에 봉해졌다. 이괄(李适)의 난이 일어나자 왕을 공주(公州)로 호종하였으며, 환도한 뒤에는 공조 참판으로 있으면서 호위대장을 겸하였다.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호위대장으로 강화에 호종하고, 환도한 뒤에는 원주 목사(原州牧使)로 나갔다가 병으로 물러났다. 시호는 충경(忠景)이다.

119 한…가죽(儷皮) : 여피는 암컷과 수컷 한 쌍의 사슴 가죽으로 고대에 관례(冠禮)의 선물이나 혼례(昏禮)의 예물로 사용하였다.

120 태소(太素) : 태소는 천지의 형태가 막 형성될 때이다. 《백호통(白虎通)》〈천지(天地)〉에 “천지가 생기기 전에 먼저 태초(太初)가 있고 그 뒤에 태시(太始)가 있는데, 형태가 이미 형성되면 태소라고 부른다.”

대추와 밤은 근신하는 마음을 지님이라 ¹²¹	棗栗小心存
뜻은 마땅한 도리로써 기르고	志以宜爲養
재물은 함께 논할 바가 아니로다 ¹²²	財非所與論
번화함은 부박한 습속의 일이니	芬華浮俗事
이제부터 듣지 말게나	從此不要聞
이때 혼례를 정했기 때문에 말한 것이다 ¹²³	

라고 하였다.

- 121 대추와…지님이라 : 고대에 혼례를 올리는 예식에서 신부가 대추와 밤을 가지고 시부모를 찾아뵙는 절차를 가리킨다. 대추와 밤을 가지고 가는 이유는 이른 아침[棗]부터 자신을 삼간다[栗]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 122 재물은…아니로다 : 《소학집주(小學集註)》 권5 〈가언(嘉言)〉에, 수나라 때의 학자 왕통(王通)의 말이 실려 있는데, “혼인에 재물을 논하는 것은 오랑캐의 도이다.[婚娶而論財, 夷虜之道也.]”라고 하였다.
- 123 이때…것이다 : 현주(玄洲)의 둘째 아들 조비(趙備)와 택당 이식(李植)의 딸이 혼인하기로 한 일을 가리킨다.

성주 촌가에서 우연히 쓰다

星州村舍偶題

방 하나인 초라한 집 고요하고	一室衡茅靜
파리한 유자의 가업은 허술하네	癯儒舊業疏
대나무 상자에는 옛 벼루가 남아 있고	竹箱留古硯
소나무 책상엔 읽다 만 책이 쌓여있네	松案集殘書
어부와 나무꾼 불러 손님으로 삼고	相喚漁樵客
또 새 짐승들과 함께 거처하네	仍同鳥獸居
효로 다스리기를 힘쓰실 때 ¹²⁴ 농사일 하노니	爲農敦孝理
자주 삼여 ¹²⁵ 에 힘쓰는다네	時復勉三餘

124 효로…때 : 원문의 ‘효리(孝理)’는 군주가 효로써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교화한다는 의미이다. 두보(杜甫)의 <교릉시삼십운인정현내제관(橋陵詩三十韻因呈縣內諸官)>에 “효로써 다스려 나라 정사를 돈독히 하시고 정신을 모아 도덕경을 연구하시네.[孝理敦國政, 神凝推道經.]”라고 하였다.

125 삼여(三餘) : 학문하기에 좋은 세 가지 여가(餘暇)로, 해의 여가[歲之餘]인 겨울, 하루의 여가[日之餘]인 밤, 계절의 여가[時之餘]인 장마철을 이르는 말이다. 《三國志 魏書 卷13 王肅 註》

도리사¹²⁶ 경오년(1630, 인조8) 구월 그믐

桃李寺 庚午九月晦

신라의 도리사	桃李前朝寺
가을과 겨울이 교체하는 이날	秋冬此日交
샘물이 불어남은 찬비가 모인 탓이고	漲泉寒雨積
골짜기가 진동함은 북풍이 세차기 때문일세	振壑朔風驕
세월을 겪어 강산은 늙어가고	閱世江山老
서리를 맞아 초목은 시드네	經霜草木凋
화려한 절간에 하늘은 또 저물어 가니	金堂天又暮
나그네 마음 바야흐로 흔들리누나	客意政搖搖

126 도리사(桃李寺) :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송곡리 태조산(太祖山)에 있는 절로 직지사(直指寺)의 말사이다. 아도(阿道)가 신라에 불교를 전파하기 위하여 서라벌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겨울인데도 북송 아꽃과 오얏꽃이 만발하여 있음을 보고 그곳에 절을 짓고 도리사라 하였다.

은진현에서 전주를 향해 일찍 떠난 일을 추억하여
기록하다

追記恩津縣早發向全州

추녀 끝에 지는 달빛 흐르고	屋角流殘月
문 앞에선 나그네 말이 떠나려 하네	門前動客驂
별이 드물어지자 새벽빛이 분명해졌고	星稀分曙脚
안개가 어두워지자 뾰족한 봉우리가 사라졌네	霧暗失峯尖
울음소리 익히는 어린 닭은 목이 메고	習唱童鷄咽
도둑을 막다 졸던 개는 제멋대로 짖네	防偷睡犬譖
새벽에 떠나는 일을 꺼리지 않노니	不憚乘早發
오늘 강남에 이르리라	今日到江南

이월 초자의 일¹²⁷로 한양에 갔을 때 봉정에 이른다

신미년(1631, 인조9)

二月以醮子赴洛時 到鳳亭 辛未

단단한 돌벼랑은 삼면을 둘러고	鐵壁圍三面
맑은 못은 언덕에 가깝구나	瓊潭近一丘
옛 성은 여우와 토끼가 차지했고	古城狐兔得
가파른 잔도에선 말과 소가 근심하네	危棧馬牛愁
거처를 정함은 평생의 계책이요	卜築平生計
헛된 명성은 인생 중도의 부끄러움이라	浮名半路羞
아마 훗날 밤엔 달이	祇應他夜月
나를 대신해 텅 빈 누각에 머무르리	虛閣替人留

127 초자(醮子)의 일 : 혼례에서 신랑의 부모가 신랑이 친영하러 갈 때 전 송하면서 당부의 말을 하는 의식을 초자라고 한다. 《家禮 卷3 昏禮》 여기에서는 현주(玄洲) 아들 조비(趙備)와 이식(李植) 딸의 혼사를 가 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조령

鳥嶺

이른 새벽 가파른 돌계단을 오르니	終朝攀絕磴
조도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 매달려 있네	鳥路入雲懸
객점이 아득하여 선탑 ¹²⁸ 이 아닌가 하고	店迥疑禪榻
사람이 멀리 있어 땅 위의 신선인 듯하네	人遙似地仙
몸을 기울여 흰 해를 잡고	側身捫白日
말을 타고 푸른 하늘에 오르네	騎馬上青天
가장 높은 정상을 다 지나니	歷盡最高頂
세상으로 돌아와야 하는 인연을 바야흐로 알겠네	方知還世緣

128 선탑(禪榻) : 선승(禪僧)이 좌선하는 평상을 가리킨다.

누암에서 세넨 배가 역풍에 막혀 겨우 가흥¹²⁹에 도착
하니 다시 육로를 취하다

樓巖雇船 阻逆風 僅達可興 還取旱路

세넨 배가 만일 빨리 도착할 수 있었다면	雇船要速達
어찌 말 타는 수고를 하겠는가	鞍馬豈爲勞
병이 오래되어 몸이 편안한지 생각하고	病久思身穩
봄이 싸늘하여 파도가 높은 걸 겁내네	春寒怯浪高
다시 육로로 가는 계획을 마련하니	旱路還成算
벳사공은 비웃음에 변명치 않네	舟人未解嘲
가련하다 날아오르려는 뜻 ¹³⁰ 이여	可憐飛動意
몸이 노쇠하여 소요하는 대로 맡겨두었네	衰白任蕭條

129 가흥(可興) : 충청북도 증원군(中原郡) 가금면(可金面)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가흥창(可興倉)은 조창(漕倉)이 있던 곳으로, 경상도 북부의 여러 고을과 충청도 일원의 전세(田稅)를 이곳에 모아 남한강(南漢江)의 수로를 이용하여 서울로 수송하였는데, 덕흥창(德興倉), 경원창(慶原倉)이라고도 한다.

130 날아오르려는 뜻 : 문면은 배로 날아가듯이 간다는 의미이지만 평생 동안 진작(振作)하고 분발하려는 뜻을 지니고 있었다는 의미를 아울러 함축한다. 두보의 <증고식안(贈高式顔)>에 “평생에 비동하던 뜻이, 그대를 보니 일어나지 않을 수 없구려.[平生飛動意, 見爾不能無.]”라고 하였다.

만성재¹³¹에 쓰다 보유

題晚省齋 補遺

처세에 자기 분수를 따르니	處世隨吾分
아함 ¹³² 은 도기 ¹³³ 가 있구나	阿咸道氣存
호숫가 밭에서 조와 보리를 거두고	湖田收粟麥
초가에서 자손을 기르네	茅屋長兒孫
대나무를 묶어 닭장을 수선하고	縛竹完鷄柵
샘물을 나누어 국화 화분에 물을 주네	分泉注菊盆
때때로 시골 찾아온 손님이 이르면	有時村客至
흥을 타고 박으로 만든 술그릇을 기울이네	乘興倒匏尊

131 만성재(晩省齋) : 현주의 종질(宗姪)인 조전(趙僊)이 지은 집으로 현주가 만성(晩省)이라는 당호를 지어 주었다.

132 아함(阿咸) : 아함은 완적(阮籍)이 조카인 완함(阮咸)을 친근히 부르는 말이었는데, 이로 인해 뒷날 조카를 가리키는 말로 쓰이게 되었다. 여기서는 종질 조전(趙僊)을 가리킨다.

133 도기(道氣) : 범속함을 초탈한 기질을 말한다. 두보(杜甫)의 시 <과남린주산인수정(過南隣朱山水亭)>에 “그대에게 도기가 많은 것을 보고, 이후로 자주 그대를 따랐노라.[看君多道氣, 從此數追隨.]”라고 한 구절에서 온 말이다.

윤근이

권혁명 한성대학교 상상력 교양교육원 조교수
유호진 퇴계학연구원 전임연구원
곽은정 고려대학교 문학박사

호남선현문집 국역총서 ②

현주집 玄洲集 상上-1

인쇄 2020년 1월 10일

발행 2020년 1월 20일

발행처 (재)한국학호남진흥원(원장 이종범)
62383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152번길 53-27, 4층
전화 062-603-9600 팩스 062-941-6705
홈페이지 <http://hiks.or.kr>

저자 조찬한
역자 권혁명 유호진 곽은정

편집제작 도서출판 사람들
61487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전당로23번길 3-2
전화 062-227-7820 팩스 062-227-7823

비매품

ISBN 979-11-90608-00-8

본 도서는 문화체육관광부 2019년 호남한국학진흥 사업의 지원으로 발간되었으며, 이 책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한국학호남진흥원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전재할 수 없습니다.

